

발간 등록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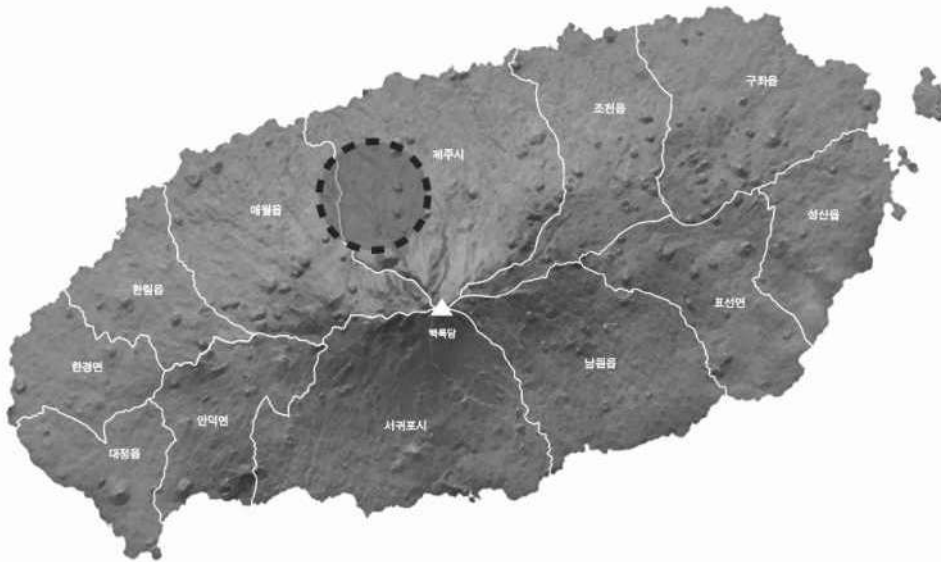
79-6500000-000644-01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제주시 노형동

구술: 문춘자, 현춘화
채록·전사: 안민희
표준어 대역: 김보향

30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0

제주시 노형동

목 차

I. 사업 개요	5
1. 사업 목적	5
2. 사업 기간	5
3. 연구 참여자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6
5. 사업 추진 과정	7
6. 표준어 대역	8
7. 주석	8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8
II. 구술 자료	11
1. 조사 마을	11
2. 제보자 일생	17
3. 밭일	56
4. 들일	173
5. 바다일	257
6. 의생활	263
7. 식생활	349
연구 참여자	442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 발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20년 3월 10일~2020년 12월 31일

3. 연구 참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가급적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조사한 대정읍 구억리와 애월읍 봉성리, 2015년 조사한 한림읍 대림리의 구술 채록 보고서는 자료의 양이 적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사하였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제보자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보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과 그 역할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진 현황과 역할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역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역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5. 사업 추진 과정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한 차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하였다.
-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였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하였다.
-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하였다.
- ‘하다’의 경우 ‘헷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하였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ㄴ’로 통일했고,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하였다.
- 제보자의 발음이 표기와 다르게 나는 경우는 발음기호인 대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 보고서의 번호는 2019년에 이어 제주시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주시 외도동’ 구술 자료가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가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조사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이는 제보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랐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었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맥에 맞게 의역할 경우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예: ‘바렁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두었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각주 번호를 부여하였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하였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간한 《제주어구술자료집》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연구자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연구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성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량,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홍,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옥,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용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역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II. 구술 자료

(@ 안민희, #1 문춘자, #2 현춘화)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게난 이 노형, 노형 마을 중에 여기가 정존¹⁾이랴예?(이 마을의 형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형, 노형 마을 중에 여기가 ‘정존’이지요?)

101001 #1 예.(예.)

101001 @ 이 정존 마을이 어떻게근에 정존 마을이 되고, 노형이 어떻게 노형이 된 걸 들어본 적 잇수과?(이 ‘정존’ 마을이 어떻게서 ‘정존’ 마을이 되고, 노형이 어떻게서 노형이 된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101001 #2 그런 거 알지 못허여.(그런 거 알지 못해.)

101001 #1 그런 건 아메도 남저분이.(그런 건 아무래도 남자분이.)

101002 @ 남저분이 잘 알지예. 또 마을에는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슨 성씨가 많이 잇인 거 닻수과?(남자분이 잘 알지요. 또 마을에는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슨 성씨가 많이 잇는 거 같습니까?)

101002 #1 현씨가 많은가, 양씨가 많은가 걸 모르겠어. 현씨, 양씨이. 문씨는 정존이 만이 간, 문씨가이.(현씨가 많은가, 양씨가 많은가 걸 모르겠어. 현씨, 양씨. 문씨는 ‘정존’이 많이 갔어, 문씨가.)

101002 #1 문씨는 정존이 많고 현씨는 월랑²⁾이 많고.(문씨는 ‘정존’이 많고 현씨는 ‘월랑’이 많고.)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옛날에?(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옛날에?)

101003 #1 농사지.(농사지.)

101003 #2 다 농사.(다 농사.)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오름, 내창, 돌, 굴 등이 있습니까? 내창 이름이 뭘 파?(이 마을 주변에 오름, 내, 돌, 굴 등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뭘니까?)

101004 #2 내창은 저 뭉모릿내³⁾가 있고.(내는 저 ‘뭉모릿내’가 있고.)

101004 @ 뭉모론내? (‘뭉모론내’?)

1) ‘정존’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2) ‘월랑’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3) ‘뭉모릿내’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제보자는 ‘뭉머리내’라고도 하였다.

101004 #2 지금 한라병원 옆의 내창.(지금 한라병원 옆의 내.)
 101004 @ 한라병원 옆의 내창 이름이?(한라병원 옆의 내 이름이?)
 101004 #2 뭉모릿내.(‘뭉모릿내’.)
 101004 #1 뭉모릿내.(‘뭉모릿내’.)
 101004 @뭉모릿내?(‘뭉모릿내’?)
 101004 #2 예.(예.)
 101004 @뭉모릿내가 뭐파?(‘뭉모릿내’가 뭉니까?)
 101004 #1 뭉모릿내가이 말 머리난.(‘뭉모릿내’가 말 머리니까.)
 101004 @ 아, 뭉머리.(아, ‘뭉머리’.)
 101004 #2 예, 뭉머리내라고만 자꾸 해나 부난 그 내용은 지피.(예, ‘뭉머리내’라고만 자꾸 했어 버리니까 그 내용은 깊이.)
 101004 @ 동굴이나 이런 거는? 바위?(동굴이나 이런 거는? 바위?)
 101004 #2 동굴은 없어, 노형에는.(동굴은 없어, 노형에는.)
 101004 @ 내창이 뭉머리내 하나?(내가 ‘뭉머리내’ 하나?)
 101004 #1 동굴은 없어. 서쪽 가면은 또 원장내⁴⁾.(동굴은 없어. 서쪽 가면은 또 ‘원장내’.)
 101004 #2 원장내라고 서쪽더레 가민 월산⁵⁾더레 내창이 또 잇고.(‘원장내’라고 서쪽으로 가면 ‘월산’으로 내가 또 잇고.)
 101004 #1 또 그다음 도감내 하나.(또 그다음 ‘도감내’ 하나.)
 101004 @ 도감내?(‘도감내’?)
 101004 #1 도감내.(‘도감내’.)
 101004 @ 도감내.(‘도감내’.)
 101004 #2 월산 서쪽 다리가 도감내.(월산 서쪽 다리가 ‘도감내’.)
 101004 @ 어디 서쪽마씨?(어디 서쪽요?)
 101004 #1 월산 서쪽.(‘월산’ 서쪽.)
 101004 @ 월산 서쪽.(‘월산’ 서쪽.)
 101004 #1 해안 못 강, 그 해안광 사이야.(해안 못 가서, 그 해안과 사이야.)
 101004 #2 그 사이 다리.(그 사이 다리.)
 101004 #1 월산허고 해안 사이.(‘월산’하고 해안 사이.)
 101005 @ 해안 사이. 그른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이신고예?(해안 사이. 그럼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나요?)
 101005 #1 기관은 뭉 동사무실⁶⁾ 기관.(기관은 뭉 동사무소 기관.)
 101005 @ 동사무실.(동사무소.)
 101005 #2 예. 주민센터 그디허고.(예. 주민센터 거기하고.)
 101006 @ 주민센터. 이 마을에는 어떤, 옛날에 무슨 계, 집, 상여집 무신, 무슨

4) ‘원장내’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5) ‘월산’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6) ‘동사무실’은 ‘동사무소’로, 여기서는 제주시 노형동사무소를 가리킨다.

계, 마을 집, 계 이런 것들은? 그릇 계?(주민센터. 이 마을에는 어떤, 옛날에 무슨 계, 계, 상여계 무슨, 무슨 계 마을 계, 계 이런 것들은? 그릇 계?)

101006 #2 그릇 제덜은 많이 했주.(그릇 계들은 많이 했지.)

101006 #1 잊지. 해낫지. 겐디 지금은 다 없어 불었어.(있지.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 버렸어.)

101006 @ 언제까지 잊어신고예? 그런 계 이름을 지읍니까, 그릇 제도? 그냥 그릇 제?(언제까지 있었나요? 그런 계 이름을 짓습니까, 그릇 제도? 그냥 그릇 계?)

101006 #1 예, 그냥 부인회. 그냥 부인회로 그릇 제 했어.(예, 그냥 부인회. 그냥 부인회로 그릇 계 했어.)

101006 #2 부인회로 옛날 한국부인회 때에 그 그릇 제 헐 써나고.(부인회로 옛날 한국부인회 때에 그 그릇 계 해서 썼었고.)

101006 @ 그리고 그런 제는 또 다른 건 잊어수과? 그릇 제 말고 상여, 무싱거 남자 어른덜이 알 건가?(그리고 그런 계는 또 다른 건 없었습니까? 그릇 계 말고 상여, 뭐 남자 어른들이 알 건가?)

101006 #2 천막 제도 있고.(천막 계도 있고.)

101006 @ 천막 제?(천막 계?)

101006 #1 건 남자가 알양 허는 거.(건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

101006 @ 뭐 빌려주는 거지예? 무슨 큰일?(뭐 빌려주는 거지요? 무슨 큰일?)

101006 #2 천막 만들양 빌려 주곡.(천막 만들어서 빌려 주고.)

101006 #1 빌려 주곡 받아근에 보관허곡.(빌려 주고 받아서 보관하고.)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노형에는 뭐 특별한?(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노형에는 뭐 특별한?)

101007 #1 옛날에이 이 노형 마을 풍습이, 노형 마을이엔 허민 오 개 부락인디 오 개 부락 말고 정존, 정존만 허는 그 옛날에 사람을 돌아가시면 사람 한번 돌아가시면 삼 년을 제사를 해여. 초, 초제, 초상허곡 소상 허곡, 대상 허여. 경혈 때 그 풍습이 그 집집마다이 혼 집에 불턱⁷⁾이 세 불턱 허는 집도 있어. 시어머니, 시할머니, 손주 경 서이 살아.(옛날에 이 노형 마을 풍습이, 노형 마을이라고 하면 오 개 부락인데 오 개 부락 말고 ‘정존’, ‘정존’만 하는 그 옛날에 사람을 돌아가시면 사람 한번 돌아가시면 삼 년을 제사를 해. 초, 초제, 초상하고 소상 하고, 대상 해. 그럴 때 그 풍습이 그 집집마다 한 집에 ‘불턱’이 세 ‘불턱’ 하는 집도 있어. 시어머니, 시할머니 손주 그렇게 셋 살아.)

101007 #2 삼대가.(삼대가.)

101007 #1 삼대가 살면은 반을이, 떡 반을 시루떡 혼 빗⁸⁾ 이렇게 딱 놓고이, 시루떡 혼 빗 딱 놓고 그다음에 다섯 가지 준 펜이 있어. 솔벤, 절벤, 인절미, 지름떡 그것⁷⁾지 다 놓고, 또.(삼대가 살면 반기를, 떡 반기를 시루떡 한 ‘빗’ 이렇게 딱 놓

7) ‘불턱’은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나와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쉬거나 옷을 갈아입는 곳을 말한다.

8)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고, 시루떡 한 ‘빚’ 딱 놓고 그다음에 다섯 가지 잔 편이 있어. 술편, 절편, 인절미, 기름떡 그것까지 다 놓고, 또.)

101007 #2 그 떡은 우리 노형⁹⁾빚기 안 해.(그 떡은 우리 노형밖에 안 해.)

101007 #1 또 절편이 있어, 절편. 절편은 요 반쪽은 조, 또 반쪽은.(또 절편이 있어, 절편. 절편은 요 반쪽은 조, 또 반쪽은.)

101007 #2 쌀.(쌀.)

101007 #1 쌀.(쌀.)

101007 #2 쌀가루. 그것 해영 똑 요만이 꼬차 놓고. 경해근에 그 혼 집이 세 사람이 살민 세 반을 줘. 혼 사람 살민 혼 반 주곡, 그거를 사람이 혼반 돌아가시민 세 번을 나눠 줘. 세 번, 삼 년간을, 옛날에 그 풍습이.(쌀가루. 그것 해서 꼭 요만큼 잘라 놓고. 그래서 그 한 집에 세 사람이 살면 세 반기를 줘. 한 사람 살면 한 반기 주고, 그것을 사람이 한번 돌아가시면 세 번을 나눠 줘. 세 번, 삼 년간을, 옛날에 그 풍습이.)

101007 #2 옛날 우리 노형은 양촌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노형빚기 안 허여.(옛날 우리 노형은 양촌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노형밖에 안 해.)

101007 @ 양촌이라 허는 건 양반들?(양촌이라 하는 건 양반들?)

101007 #1 으.(으.)

101007 @ 학자덜이 많았다는 거다예?(학자들이 많았다는 거네요?)

101007 #1 으. 그런 떡 누는 던 노형빚긴 안 허여.(으. 그런 떡 나눈 덴 노형밖에 안 해.)

101007 #2 시루떡 말고 다섯 가지야.(시루떡 말고 다섯 가지야.)

101007 #1 편만.(편만.)

101008 @ 아이구, 대단했다예. 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고예. 이 마을에 특산물로는, 웃드르잖아예, 옛날?(아이고, 대단했네요. 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 고요. 이 마을에 특산물로는, ‘웃드르’잖아요, 옛날?)

101008 #1 으, 웃드르.(으, ‘웃드르’.)

101008 @ 특산물 하면?(특산물 하면?)

101008 #1 중산촌¹⁰⁾, 중산촌이지.(‘중산촌’, ‘중산촌’이지.)

101008 @ 중산촌이란 소 말 이런 것덜 특산물이 뭐여시쿠과?(‘중산촌’이니까 소 말 이런 것들 특산물이 뭐였습니까?)

101008 #1 소 말도 기루지. 혼 집에, 뭐 소 말 질룬 집 많아. 하나만 질루진 않아. 소는 밭 갈고 말은 뒤에 밭을 불러 줘. 조 갈면은이 씨 뿌령은에이 영 갓다리 왔다리 허면서 그걸 불러.(소 말도 기르지. 한 집에, 뭐 소 말 기른 집 많아. 하나만 기르진 않아. 소는 밭 갈고 말은 뒤에 밭을 밟아 줘. 조 갈면 씨 뿌려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걸 밟아.)

9) ‘노형’은 제주시 노형동을 말한다.

10) ‘중산촌’은 해발 100미터에서 300미터의 고지대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가리킨다.

101008 @ 농사는 뭐가 잘 났수과?(농사는 뭐가 잘 났습니까?)
 101008 #2 보리, 조.(보리, 조.)
 101008 @ 보리, 조.(보리, 조.)
 101008 #2 그 세 가지.(그 세 가지.)
 101008 @ 여기만 특별하게 잘 난다 허는 곡식은 엇어수과? 노형만 특히.(여기만 특별하게 잘 난다 하는 곡식은 없었습니까? 노형만 특히.)
 101008 #2 예, 예.(예, 예.)
 101008 #1 거의 다.(거의 다.)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이 마을의 자랑거리?)
 101009 #2 이 마을의 자랑거리는 우리 노형에 판사가 다섯 사람이라야.(이 마을의 자랑거리는 우리 노형에 판사가 다섯 사람이야.)
 101009 @ 아이고야.(아이고야.)
 101009 #1 다섯 사람이 뭐냐?(다섯 사람은 뭐냐?)
 101009 #2 으?(으?)
 101009 #1 다섯 사람뿐인가? 노형 사람만이?(다섯 사람뿐이니? 노형 사람만이?)
 101009 #2 다섯 아니가?(다섯 아니니?)
 101009 #1 열댓 사람이야. 나 책 아정 오크라. 그 책에 다 나완.(열댓 사람이야. 나 책 가지고 오겠어. 그 책에 다 나왔어.)
 101009 #2 아, 열 넘어나?(아, 열 넘더냐?)
 101009 #1 열 사람 넘어.(열 사람 넘어.)
 101009 #2 난 다섯 사람으로 아는데.(난 다섯 사람으로 아는데.)
 101009 #1 아이고, 이디서 낭은에.(아이고, 여기서 나서.)
 101009 #2 인재가 많은 디, 우리 노형.(인재가 많은 데, 우리 노형.)
 101009 #1 우리 노형에 판검사가 그렇게 많아.(우리 노형에 판검사가 그렇게 많아.)
 101009 #2 우리 한국에 최고.(우리 한국에 최고.)
 101009 #1 최고.(최고.)
 101009 #2 만헌 디가 노형이야.(많은 데가 노형이야.)
 101009 #1 판검사만. 제일 먼저 판검사 나온 사람이 제대¹¹⁾ 나온 사람이야, 판사가.(판검사만. 제일 먼저 판검사 나온 사람이 제대 나온 사람이야, 판사가.)
 101009 @ 아.(아.)
 101009 #1 부장 판사 현 사람이 김○○야. 월산¹²⁾ 김○○.(부장 판사 한 사람이 김○○야. ‘월산’ 김○○.)
 101009 #2 김○○라고.(김○○라고.)
 101009 #1 지일 처음 나온 사람이.(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11) ‘제대’는 제주대학교를 가리킨다.

12) ‘월산’은 제주도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101009 @ 교수도 잊고.(교수도 잊고.)

101009 #1 아고, 이 대는 모르겠어. 사 대는 우리 ○○고, 오 대는 ○○이더라고.
그 책에.(아이고, 이 대는 모르겠어. 사 대는 우리 ○○고, 오 대는 ○○이더라고.
그 책에.)

101009 #2 책에 나왔어냐?(책에 나왔더냐?)

101009 #1 으, 우리 ○○가 일 년 앞섰어.(으, 우리 ○○가 일 년 앞섰어.)

101009 @ 아드님이 판사파?(아드님이 판사입니까?)

101009 #2 아니, 우리 언니 아들.(아니, 우리 언니 아들.)

101009 @ 아이고, 멋지다예.(아이고, 멋지네요.)

101009 #1 송○○이 사촌도 이름 나왔고.(송○○의 사촌도 이름 나왔고.)

101009 #2 아, 나왔어냐?(아, 나왔더냐?)

101009 #1 으, 본적이난. 또 광평¹³⁾ ○○이 성 아덜도 이름 나왔고.(으, 본적이니
까. 또 광평 ○○이 형 아들도 이름 나왔고.)

101009 #2 음, ○○이 성 아들은 일로 나올 거주만은.(음, ○○이 형 아들은 이리
로 나올 거지만.)

101009 #1 왜 일로 나오냐? 그디 강 살아근에 난 건디.(왜 이리로 나오냐? 거기
가서 살아서 난 건데.)

101009 #2 이디서 안 낫어?(여기서 안 낫어?)

101009 #1 이딜로 나왔더라.(여기로 나왔더라.)

101009 #2 본적지난.(본적이니까.)

101009 #1 으, 본적지로 나완. 그때 부장 판사가 ○○ 아덜이더라. 이제는 아니
지. 것도 책 나온 때가 천구백구십육 년이라냐?(으, 본적지로 나왔어. 그때 부장 판
사가 ○○ 아들이더라. 이제는 아니지. 것도 책 나온 때가 천구백구십육 년이던가?)

101009 #2 나온 해가?(나온 해가?)

101009 #1 나온 해가. 켜 겠 어떻게 만들어신고 행 보난 우리 시아지방이 다 처
음으로 해 났거든게. 계난 시아지방이 허믄 성이 이시난게 가져완에 혼 권씩. 그 책
혼 권에 그때 돈 십만 원이라.(나온 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해서
보니까 우리 시아주버니가 다 처음으로 해 났거든. 그러니까 시아주버니가 하면 형
이 있으니까 가져와서 한 권씩. 그 책 한 권에 그때 돈 십만 원이야.)

101009 #2 으.(으.)

101009 #1 책은 받으민 십만 원 내놔. 그 해에.(책은 받으면 십만 원 내놔. 그 해
에.)

101009 #2 책 내젠 허민 돈 들지.(책 내려고 하면 돈 들지.)

13) '광평'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디서 태어났 뗏 설까지 어떻게 자라났 뗏 설에 결혼하고 뗏 설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디 노형에 살고 있다.(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디서 태어나서 뗏 살까지 어떻게 자라다가 뗏 살에 결혼하고 뗏 살에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 노형에 살고 있다.)

102001 #1 허허허.(허허허.)

102001 @ 뗏 년 생이과?(뗏 년 생입니까?)

102001 #1 삼십일 년생인디 호적으론 이 년생으로 뗏 있어. 하나 줄여전.(삼십일 년생인데 호적으로는 이 년생으로 뗏 있어. 하나 줄어졌어.)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102002 #1 우리 아버지는 이 한문 선생. 옛날엔.(우리 아버지는 한문 선생. 옛날에는.)

102002 #2 서당에.(서당에.)

102002 #1 글 소장이엔 해, 글 소장. 아이덜 가르치는 글 소장.(글 소장이라고 해, 글 소장. 아이들 가르치는 글 소장.)

102003 @ 어머니는마씨?(어머니는요?)

102003 #1 어머니는 농부고.(어머니는 농부고.)

102003 @ 농사만 짓고예?(농사만 짓고요?)

102003 #1 으, 어머니 고향은 저 애월면¹⁴⁾ 금덕¹⁵⁾. 그때는 유수암¹⁶⁾이엔 했지, 옛날에.(으, 어머니 고향은 저 애월읍 ‘금덕’. 그때는 유수암이라고 했지, 옛날에.)

102003 @ 유수암.(유수암.)

102003 #1 으, 유수암.(으, 유수암.)

102003 @ 금덕이 유수암이었구나.(‘금덕’이 유수암이었구나.)

102003 #1 으. 금덕 이름이 유수암이야.(으. ‘금덕’ 이름이 유수암이야.)

102003 #2 옛날 이름은 이수암¹⁷⁾.(옛날 이름은 ‘이수암’.)

102003 #1 이제 나난 금덕, 금덕 했지.(이제 나니까 ‘금덕’, ‘금덕’ 했지.)

102004 @ 어린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어렸을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면 자랐습니까?)

102004 #1 나 어린 때, 아긴 땀 흐뎡 땀안히, 우린 우영팻에 도육냥 이시난 도육냥 우이만 올랐닥 내렸닥, 올랐닥 내렸닥 냥을 어깨 삼앙 산 거 닻아. 죽 냥에서만.(나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조금 편안히, 우리는 터알에 무환자나무 있으니까 무환자나무 위에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나무를 어깨 삼아서 산 거 같아. 쪽 나무에서만.)

14) ‘애월면’은 지금의 제주시 애월읍 지역을 말한다.

15) ‘금덕’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옛 이름이다.

16) ‘유수암’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를 말한다.

17) ‘이수암’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를 말한다.

102004 @ 도록냥은 못 먹고 염주 만든덴 헛잖아예?(무환자나무는 못 먹고 염주 만든다고 헛잖아요?)

102004 #1 으, 그 내려오민 그 안에 영 돌 행 앓저근에 그디서 막 영 밥해영 뭐 뭐.(으, 그 내려오면 그 안에 이렇게 돌 해서 앓혀서 거기서 막 이렇게 밥해서 뭐 뭐.)

102004 @ 소꿉놀이?(소꿉놀이?)

102004 #1 으, 으.(으, 으.)

102004 #2 소꿉장난이주.(소꿉장난이지.)

102004 #1 소꿉장난. 돌맹이 이디 두 개 낳 또 돌 앓정 그 우이 무시거 막 다듬 앙 놓앙은에 허영 불 숨는 식도 막 허고이. 경허당 버치민 그냥 낭에 올리기가 좋아. 도록냥이. 요디서부터 가쟁이가 크게 벌으난 착착착착 올라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게난 우리 언니도 낭만 우이 올라근에, 아기 안 뵈저, 막 우리 어머니 막 욱해나고. 경 낭에 올라 불민 강 들앙 오지도 못허고이.(소꿉장난. 돌맹이 여기 두 개 놔서 또 돌 앓혀서 그 위에 뭐 마구 다듬어서 놓아서 해서 불 때는 식도 마구 하고. 그러다가 부치면 그냥 나무에 오르기가 좋아. 무환자나무가. 여기서부터 가지가 크게 벌으니까 착착착착 올라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나무에만 위에 올라서, 아기 안 본다, 마구 우리 어머니 마구 욱했었고. 그렇게 나무에 올라 버리면 가서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102004 @ 재밌었겠다예.(재밌었겠네요.)

102004 #1 도망가는 식으로 낭으로 도망을 가.(도망가는 식으로 나무로 도망을 가.)

102004 @ 동생도 올리기도 허고?(동생도 오르기도 하고?)

102004 #1 으, 우리 우영팻디 낭이난.(으, 우리 터알에 나무니까.)

102004 @ 떨어져 본 적은 엇고?(떨어져 본 적은 없고?)

102004 #1 떨어져 보지는 안허고. 안 떨어져 뵈. 낭이 떨어지게 생긴 낭이 아니. 가지가 착착착착 막 늙은 낭이난.(떨어져 보지는 앓고. 안 떨어져 뵈어. 나무가 떨어지게 생긴 나무가 아니. 가지가 착착착착 아주 늙은 나무니까.)

102004 @ 그네도 뛰어 보고?(그네도 뛰어 보고?)

102004 #1 그네도 행 놔둬서 긴 거 짧은 거 두 개 허여. 겐 아이덜은 막 긴 거 허고 우리 흥뽀 큰 아인 흥뽀 높은 거 허고. 스나눔덜도 막, 스나이덜도 막 뛰어. (그네도 해서 놔두면서 긴 거 짧은 거 두 개 해.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긴 거 하고 우리 조금 큰 아이는 조금 높은 거 하고. 사나이들도 마구, 사나이들도 마구 뛰어.)

102004 @ 그 나무는 언제쯤 엇어졌수과?(그 나무는 언제쯤 엇어졌습니까?)

102004 #1 몰라, 엇어진 걸 몰르크라게, 나가. 언제 엇어진 걸 모르크라.(몰라, 엇어진 걸 모르겠더라, 내가. 언제 엇어진 걸 모르겠어.)

102004 #2 사삼에 엇어졌지.(사삼에 엇어졌지.)

102004 #1 겐, 사삼에, 사삼에 있은디 그르후제 언제 누게가 그런 걸 모르크라,

원.(그래서 사삼에, 사삼에 있었는데 그 후에 언제 누가 그런 걸 모르겠어, 원.)

102004 #2 사삼에 문 비여 데껴 부난 사삼에 없어졌지.(사삼에 모두 베어 던져 버리니까 사삼에 없어졌지.)

102004 @ 게민 그 집은 어떻 됐수과?(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102004 #1 그 집은 우리 조카네 주난 폴아 불었지. 사삼에꺼진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갓단 아부진 돌아가시고 어무니영 나영은 내려와신디 글후제. 그때까지는 그 냥이 편쩍했지. 그 터는 우리 조카가 받았지.(그 집은 우리 조카네 주니까 팔아 버렸지. 사삼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갔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나랑은 내려왔는데 그 후에. 그때까지는 그 나무가 아무렇지 않았지. 그 터는 우리 조카가 받았지.)

102005 @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2005 #1 그 공출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네 어머니네 허는 거 뵈. 우리 할 땐 어섯지. 왜정 때니까. 아버지네 허는디 혼디 심부름허는 거 뵈지.(그 공출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네 어머니네 하는 거 뵈어. 우리 할 때는 없었지. 왜정 때니까. 아버지네 하는데 같이 심부름하는 거 뵈지.)

102005 @ 열 몇 살 뵈?(열 몇 살 뵈?)

102005 #1 나가이 스삼사건 난 때가 열일곱 설이야. 게난 그 전이지. 열일곱 설에 사삼사건이. 게난 해방돼영은에 혼 몇 해간 잇엇단 사삼사건이 나시난게. 해방뵈 때가 열.(내가 사삼사건 났을 때가 열일곱 살이야. 그러니까 그 전이지. 열일곱 살에 사삼사건이. 그러니까 해방돼서는 한 몇 해간 잇엇다가 사삼사건이 났으니까. 해방된 때가 열.)

102005 @ 사십오 년이니까 열두 살?(사십오 년이니까 열두 살?(사십오 년이니까 열두 살?)

102005 #1 열두 설이 지났어. 열두 설에 우리 오빠가 왓당 가신디.(열두 살이 지났어. 열두 살에 우리 오빠가 왔다가 갔는데.)

102005 @ 열네 살?(열네 살?)

102005 #1 열네 살 뵈아.(열네 살 같아.)

102005 #2 열네 설이 뵈실 거라.(열네 살이 뵈을 거야.)

102005 #1 열네 살 뵈아.(열네 살 같아.)

102005 @ 뵈가?(뵈가?)

102005 #1 해방뵈 때가 열네 설 뵈아.(해방된 때가 열네 살 같아.)

102005 @ 뵈가, 공출허렌 허고 뵈가 경 힘듭디가?(뵈가, 공출하라고 하고 뵈가 그렇게 힘듭디까?)

102005 #1 아버지 어머니네 허는 건이 보리허고 저 오께기엔 현 것이 잇어이. 오께기엔도 허고 보께기엔도 헤여이. 그거 헛지.(아버지 어머니네 하는 건 보리하고

저 ‘오께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오께기’라고도 하고 ‘보께기’라고도 해. 그거 했지.)

102005 @ 오께기가 녹두 닮은 거 아니?(개자리가 녹두 같은 거 아니?)

102005 #1 응, 검은 거. 그거 했지이. 또 산에 가민이 머위, 멀리 줄. 멀리 줄 거 무싱거 해신고이, 머위 줄?(으, 검은 거. 그거 했지. 또 산에 가면 머위, 머위 줄. 머위 줄 거 뭐 했지, 머위 줄?)

102005 #2 그것도 오차¹⁸⁾ 헐 거엔.(그것도 차 할 거라고.)

102005 #1 멀리 줄, 머위 줄, 그것도 해당 아버지가 해당 물리왕은에 해당 바찌는 거 봐나고이. 또 무신 낭겹덕? 무신 낭겹데기 베껴당 막 영 무끄더라, 이만씩. 무신 낭 겹데기라 겹덕만 막 딱딱. 무신 낭겹데긴지 모르크라. 그 낭겹데기가 짹짹 헛당은에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이난 우리 집이덜 다 동네 거 모여 와. 우알벵일이¹⁹⁾ 거 우리 집에서 미스구릴²⁰⁾ 해여. 경허문 왕 시켜 가. 그 낭겹데길 모르크라. 길이가 이만씩 헝은에 딱딱 무꺼. 영 오그리멍. 그 겹데기 해난 거.(머위 줄, 머위 줄, 그것도 해다가 아버지가 해다가 말려서 해다가 바치는 거 봤었고. 또 무슨 나무 겹질? 무슨 나무겹질인지 모르겠어. 그 나무겹질이 짹짹 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이니까 우리 집에들 다 동네 거 모여 와. ‘우알벵일이’ 거 우리 집에서 짐 장만 했어. 그러면 와서 신고 가. 그 나무겹질을 모르겠어. 길이가 이만큼씩 해서 딱딱 묶어. 이렇게 오그리면서. 그 겹질 했던 거.)

102005 #2 거 뒷인고?(거 뒷지?)

102005 @ 고구마도 허고예? 뺏데기?(고구마도 하고요? 절간고구마?)

102005 #1 어, 고구마 뺏데긴 했지.(어, 고구마 절간고구마는 했지.)

102005 #1 거 다간죽낭 겹데긴 뺏겨났어. 다간죽낭 겹데긴.(거 예덕나무 겹질은 뺏겼었어. 예덕나무 겹질은.)

102005 #1 다간죽낭이 아니더라고. 그처럼 길게 날 수가 없어. 산에 강 해 와, 고지 강.(예덕나무 아니더라고. 그처럼 길게 날 수가 없어. 산에 가서 해 와, 숲에 가서.)

102005 #2 기.(그래.)

102005 #1 그 겹데긴. 거 무신 낭겹데긴지 모르켜.(그 겹질은. 거 무슨 나무겹질인지 모르겠어.)

102005 @ 일제강점기에 막 순사들?(일제강점기에 마구 순사들?)

102005 #1 강○○네 아바지도 막 영 그 어른은 걸 곱게 잘행 왕이, 막 우리 아버지가 칭찬해. 아이고, 이거 최고로 잘해 왓젠 허멍이. 딱 행 무경 왕.(강○○네 아버지도 마구 이렇게 그 어른은 걸 곱게 잘하고 와서, 아주 우리 아버지가 칭찬해. 아이고, 이거 최고로 잘해 왔다고 하면서. 딱 해서 묶어 와서.)

18) ‘오차’는 일본어 ‘おちゃ’에서 온 말로, ‘차(茶)’를 말한다.

19) ‘우알벵일이’은 제주도 노형동 지경 이름이다. ‘우알’은 ‘위아래’의 의미로, ‘벵일’의 위쪽과 아래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20) ‘미스구리’는 일본어 ‘につくり’에서 온 말로, ‘짐을 싼, 짐 꾸리기’라는 의미다.

102005 #2 고정현 어른게.(고정한 어른이야.)

102005 #1 혼 밧딜로 저울영²¹⁾.(한 군데로 ‘저울영’.)

102005 @ 큰 칼 찬 순사라든가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거는 봐놔수과?(큰 칼 찬 순사라든지 마구 나쁜 짓 하고 이런 거는 봤었습니까?)

102005 #1 큰 칼 순산이, 우리 뽕일이²²⁾ 사니까 뽕일이 아래 큰 질이 있어. 영 대정더레 가는 큰질, 한질. 겐 그 질로 그냥 칼 그냥 빈찍빈찍허멍 가는 걸 뽕 아이 구, 칼 찬 순경 저레 넘어감저, 넘어감저. 막 그걸 봐놔어.(큰 칼 순사는, 우리 ‘뽕일이’ 사니까 ‘뽕일이’ 아래 큰 질이 있어. 이렇게 대정으로 가는 큰질, 큰질. 그래서 그 질로 그냥 칼 그냥 빈찍빈찍하면서 가는 걸 봐서 아이고, 칼 찬 순경 저리 넘어가고 있어, 넘어가고 있어. 막 그걸 봤었어.)

102005 @ 말도 땃수과? 말은 안 타고 걸영?(말도 땃습니까? 말은 안 타고 걸어서?)

102005 #1 말 탄 거 아니고 걸영. 칼을 그냥 착착.(말 탄 거 아니고 걸어서. 칼은 그냥 착착.)

102005 @ 무슨 색깔 옷을?(무슨 색깔 옷을?)

102005 #1 검은색.(검은색)

102005 #2 검은색덜 입어선게.(검은색들 입었었어.)

102005 #1 검은색.(검은색.)

102005 @ 무서워해놔수과?(무서워했었습니까?)

102005 #1 무섭지. 순경이니까, 이만씩 큰 거.(무섭지. 순경이니까, 이만큼씩 큰 거.)

102005 #2 긴 칼 차곡 허민.(긴 칼 차고 하면.)

102005 #1 겨곡 우리 옛날엔이 그 청결이엔 허여. 청결.(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그 청결이라고 해. 청결.)

102005 @ 청견?('청견'?)

102005 #1 청결이엔 행은에 일 년에 혼번을 허여게. 봄에. 봄에 혼번 허민, 그 순경이 왕은에 검사를 해. 그 꿔까지.(청결이라고 해서 일 년에 한번을 해. 봄에. 봄에 한번 하면, 그 순경이 와서 검사를 해. 그 꿔까지.)

102005 #2 청결이엔 허민 잘 모르주게. 우리 집안 안에 청소허는 거, 대청소.(청결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 우리 집안 안에 청소하는 거, 대청소.)

102005 #1 웨정 때.(왜정 때.)

102005 #2 웨정 때.(왜정 때.)

102005 @ 그런 거까지 검사해?(그런 거까지 검사해?)

110205 #2 일 년에 혼번.(일 년에 한번.)

102005 #1 꿔까지 다 내놔야 돼.(꿔까지 다 내놔야 돼.)

21) '저울이다'는 저울 따위로 무게를 재는 것을 말한다.

22) '뽕일이'는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뽕일'이라고도 한다.

102005 #2 궤짝에도.(궤짝에도.)

102005 #1 방에 아무것도 없이.(방에 아무것도 없이.)

102005 #2 방 안에 잇는 거 다 바깥디, 마당더레 내치곡 싹 내청. 싹 대청소를 해연. 온 집안을 전부.(방 안에 잇는 거 다 밖에, 마당에 내치고 싹 내쳐서. 싹 대청소를 해. 온 집안을 전부.)

102005 #1 겐 그 사람네 왕, 그 순경이 왕 조사행 간 후제 거 들어놔.(그래서 그 사람들 와서, 그 순경이 와서 조사해서 간 후에 거 들어놔.)

102005 @ 아.(아.)

102005 #1 웨정 때.(웨정 때.)

102005 #2 으. 겨문 이제 와근에게 조사해근에게 풀 줘.(으. 그럼 이제 와서 조사해서 표를 줘.)

102005 #1 그 표 타민 딱 이 기둥에 부쳐이.(그 표 타면 딱 이 기둥에 붙여.)

102005 #2 표 타근에게 기둥에 부치민 이제 끝난 걸로 행 그 살림살이덜.(표 타서 기둥에 붙이면 이제 끝난 것으로 해서 그 살림살이들.)

102005 #1 그 잘 안텐 건 풀 안 줘. 거 문 안 내친 집은.(그 잘 안된 건 표를 안 줘. 거 모두 안 내친 집은.)

102005 #2 으.(으.)

102005 #1 또 새로 허렌 헨. 새로 허렌 해.(또 새로 하라고 해서. 새로 하라고 해.)

102005 #2 겐 딱시 들어와근앵에 살고. 또 새로 일 년에 딱 한번.(그래서 또 들어와서 살고. 또 새로 일 년에 딱 한번.)

102005 @ 뭐 잇는가를 보젠 경 험구나. 아이고, 세상에.(뭐 있는지를 보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세상에.)

102005 #2 일 년에 딱 한번.(일 년에 딱 한번.)

102005 #1 게난 것도 좋긴 좋은 거라이.(그러니까 것도 좋긴 좋은 거야.)

102005 #2 존 거주게.(좋은 거지.)

102005 #1 우리가 못 견디긴 허지만. 그 궤 질 때가 제일 힘들어. 궤짝. 그땐 단²³⁾ 엇주, 옛날에난.(우리가 못 견디긴 하지만, 그 궤 질 때가 제일 힘들어. 궤짝. 그때는 장롱은 없지, 옛날이니까.)

102005 @ 쳇걸?(쳇걸?)

102005 #1 쳇걸.(쳇걸.)

102005 #2 쳇걸이엔 헛어, 쳇걸.(쳇걸이라고 헛어, 쳇걸.)

102005 @ 쳇걸.(쳇걸.)

102005 #1 쳇걸 표를 가져와.(쳇걸 표를 가져와.)

102005 #2 반장덜이 다 태와 주주게.(반장들이 다 태워 주지.)

102005 #1 어느 날 허민 쳇걸허라 해연 쳇걸허민 또 쳇걸 검살 허영 표를 주민

23) '단수'는 일본어 'たんす'로 장롱을 말한다.

기둥에 딱 부쳐.(어느 날 하면 청결해라 해서 청결하면 또 청결 검사를 해서 표를 주면 기둥에 딱 붙여.)

102005 @ 아.(아.)

102005 #1 게민 이진 기둥에 부치난 이 집은 청결 마무리한 집이다. 안 부친 집은 또 해야 된다고 또 하고.(그럼 이진 기둥에 붙이니까 이 집은 청결 마무리한 집이다. 안 붙인 집은 또 해야 된다고 또 하고.)

102005 @ 아이고.(아이고.)

102005 #1 게건디 그 옛날에 개 잡으레 막 다녀났어, 개. 그거 알아지커라, 개. 개를 막 심어가 붙어. 개를 우리 막 곱져났어. 고팡에.(그런데 그 옛날에 개 잡으레 마구 다녔었어, 개. 그거 알겠어, 개. 개를 막 잡아가 버려. 개를 우리 막 숨겼었어. 고팡에.)

102005 #2 몰라.(몰라.)

102005 #1 개를 막 심어가.(개를 막 잡아가.)

102005 @ 먹젠 헛구나게.(먹으려고 헛구나.)

102005 #1 아니야. 그 어디 안에서 그 심으렐 헛 거 닳아. 개를 심는데 큰 코쟁이 영, 췌고쟁이 영 큰 건디 밑으로 영 오그라진 게 있어. 걸로 개를 산 차 안 심영장 탁 죽영 쫓어 가. 탁 코쟁이 허영. 그걸 나가 봐났어게. 우린 갠 요만이헌 걸 질렀어, 질루난 고팡에 소리 안 행, 못허게 갠 고팡에 곱져 붙언. 거 눈에 띄민 심어가 불 거난. 경행 그 사름네 끝냥 가 불민 개 베꼈디 내논 거 그 기억이 남서.(아니야. 그 어디 안에서 그 잡으라고 한 거 같아. 개를 잡는데 큰 고리 이렇게, 쇠고리 이렇게 큰 건디 밑으로 이렇게 오그라진 게 있어. 그것으로 개를 산 채 안 잡아 가고 탁 죽여서 끌고 가. 탁 고리 해서. 그걸 내가 봤었어. 우린 개를 요만한 걸 길렀어, 기르니까 고팡에 소리 안 하고, 못하게 그래서 고팡에 숨겨 버렸어. 거 눈에 띄면 잡아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끝나서 가 버리면 개 밖에 내놓은 거 그 기억이 나.)

102005 #2 으.(으.)

102005 @ 그거 잡아먹어실 거우다.(그거 잡아먹었을 겁니다.)

102005 #1 그거 그냥 민간적으로는 못 해. 안에서 허렌 허난 허는 거주.(그거 그냥 민간적으로는 못 해. 안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102005 #2 게, 경헤실 테주.(그래, 그랬을 테지.)

102005 #1 겐디 그 개피쟁이²⁴⁾는 잘도 무서와, 사름덜도. 잘도 무서와.(그런데 그 ‘개피쟁이’는 매우 무서워, 사름들도. 매우 무서워.)

102005 @ 개피쟁이는 제주도 사름도?('개피쟁이'는 제주도 사름도?)

102005 #1 제주도 사름 아니.(제주도 사름 아니.)

102005 @ 머슴 같은 사름 아니?(머슴 같은 사름 아니?)

102005 #1 아니, 말허는 거 보민 그때도 보민 육짓말로 허는 거 닳더라고.(아니,

24) '개피쟁이'는 개를 도축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말하는 거 보면 그때도 보면 육짓말로 하는 거 같더라고.)

102005 #2 것도 육지 사름이 해실 거라.(것도 육지 사름이 했을 거야.)

102005 #1 육지 사름 같애.(육지 사람 같아.)

102005 @ 개피쟁이가 따로 있어?('개피쟁이'가 따로 있어?)

102005 #1 개피쟁이가.('개피쟁이'가.)

102005 @ 게민 소 잡고 말 잡는 사람을 개피쟁이렌 허지 안해?(그럼 소 잡고 말 잡는 사람을 '개피쟁이'라고 하지 않아?)

102005 #1 아니, 것보다 개피쟁이가 켈 나쁘게 봐.(아니, 것보다 '개피쟁이'가 제일 나쁘게 봐.)

102005 @ 개피쟁이는 개만 잡는 거?('개피쟁이'는 개만 잡는 거?)

102005 #1 아니, 개만 질, 개 잡는 게 우리 제주에선 켈 나쁜 사름으로 해. 개피쟁이가 켈 하질.(아니, 개만 제일, 개 잡는 게 우리 제주에서는 제일 나쁜 사름으로 해. '개피쟁이'가 제일 하질.)

102005 #2 개는.(개는.)

102005 @ 똑똑해.(똑똑해.)

102005 #2 으, 똑똑허니까. 겨난 더 나쁘게 보는 거 같애.(으,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더 나쁘게 보는 거 같아.)

102005 #1 겐디 뭐 그냥 소 물은 흥뽀 허민 잡잖아덜이.(그런데 뭐 그냥 소 말은 조금 하면 잡잖아들.)

102005 @ 게도 제주도 사름도 개고기 먹었잖아예?(그래도 제주도 사름도 개고기는 먹었잖아요?)

102005 #2 으, 옛날도 먹긴 먹었주.(으, 옛날도 먹긴 먹었지.)

102005 #1 개고기 뭐 개장국이엔 해근에 어디 강 사당도 먹고. 개장국, 개장국 막 해. 개장국. 개장국 먹으레 가게, 개장국 먹으레 가게. 어른덜이 경. 우린 그자 먹어 본 기억은 없어.(개고기 뭐 개장국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사다가도 먹고. 개장국, 개장국 막 해. 개장국. 개장국 먹으러 가자, 개장국 먹으러 가자. 어른들이 그렇게. 우린 그저 먹어 본 기억은 없어.)

102005 @ 절간에서 먹지 말렌 허잖아예?(절간에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102005 #1 으, 절에선 거 먹지 말렌 허는다. 우린 그때 그 개 한번 우리 고향에 곱져나고이. 우리 집이, 우리 집 이거 울타리민 일로가 저레 나가는 질이야. 게난 그덜로 그냥 지랑지랑 쫓엉 가는 걸 판게. 췌 이만이 긴 것에.(으, 절에선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린 그때 그 개 한번 우리 고향에 숨겼었고. 우리 집에, 우리 집 이거 울타리민 이리로가 저리 나가는 질이야. 그러니까 거기로 그냥 줄줄 끌고 가는 걸 봤어. 쇠 이만큼 긴 것에.)

102005 @ 아이고.(아이고.)

102005 #1 끝에 고쟁이에. 시 개꺼지 낱 쫓어 가, 그 고쟁이에. 그것만 봐지민 갠 죽영 쫓어 가.(끝에 고리에. 세 개까지 봐서 끌고 가, 그 고리에. 그것만 보이면 개

는 죽여서 끌고 가.)

102005 #2 계난 혼 고쟁이 세 개씩 썰?(그러니까 한 고리에 세 개씩 썰서?)

102005 #1 으.(으.)

102005 @ 개피쟁이가?('개피쟁이'가?)

102005 #1 개피쟁이가.('개피쟁이'가.)

102005 #2 징그러와.(징그러워.)

102005 #1 죽고 크고 그냥 봐지민 죽영 끌어 가는 거라. 눈에만 떠면.(작고 크고 그냥 보이면 죽여서 끌고 가는 거야. 눈에만 떠면.)

102005 #2 계난 거 잡아 오렌 허난.(그러니까 거 잡아 오라고 하니까.)

102005 #1 잡아 오렌 현 거 닳아, 개를. 잡아 오렌 안 해시민 경 내놓고 고쟁이 꽃양 갈 수가 었지.(잡아 오라고 한 거 같아, 개를. 잡아 오라고 안 했으면 그렇게 내놓고 고리에 꽃아서 갈 수가 없지.)

102005 #2 게메.(글쎄.)

102005 #1 그 기억이, 혼번. 눈에 아직도 선해.(그 기억이, 한번. 눈에 아직도 선해.)

102005 #2 난 그런 거 안 봐봤어.(난 그런 거 안 봐봤어.)

102005 #1 우리는 개 조그마한 거 곱져나고 허난, 고팡에.(우리는 개 조그마한 거 숨졌었고 하니까, 고팡에.)

102006 @ 사삼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삼사건 때 결혼 안 한 때잖아예?(사삼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삼사건 때 결혼 안 한 때잖아요?)

102006 #1 안 했지. 사삼사건 때가 열일곱에, 사삼사건 난. 열일곱에.(안 했지. 사삼사건 때가 열일곱에, 사삼사건 난. 열일곱에.)

102006 @ 뭐가 무서웁디가?(뭐가 무서웠습니까?)

102006 #1 그때는 두 밧디 다 므스와.(그때는 두 군데 다 무서워.)

102006 #2 그렇지.(그렇지.)

102006 #1 아래도 므습고 우이도 므습고. 우이는 남로당 아래는 한독당이고 허난, 한독당은 순경이지. 계난 순경도 므습고. 또 우이 남로당은 이북 쪽이라이. 그디도 므습고, 계민 이거 뭐 이것도 저것도.(아래도 무섭고 위에도 무섭고. 위에는 남로당 아래는 한독당이고 하니까, 한독당은 순경이지. 그러니까 순경도 무섭고. 또 위에 남로당은 이북 쪽이야. 거기도 무섭고, 그럼 이거 뭐 이것도 저것도.)

102006 #2 다 무섭지게.(다 무섭지.)

102006 @ 삼촌은?(삼촌은?)

102006 #1 난 남로당에 들어가났어.(난 남로당에 들어갔었어.)

102006 @ 삼촌이?(삼촌이?)

102006 #1 으.(으.)

102006 @ 산에 올라갔다 와난마씨?(산에 올라갔다 왔었어요?)

102006 #1 우리 이 책 익영 공부헌 사람은 거의 남로당을 속해.(우리 이 책 읽어서 공부한 사람은 거의 남로당을 속해.)

102006 @ 일본 갔다 왕 야학 선생들 가르쳐 주곡?(일본 갔다가 와서 야학 선생들 가르쳐 주고?)

102006 #1 우리 아버지는 일본도 안 갔다 와도 우리 오빠가 일본 강 Dengi당 왔다 갔다 했주만은 공부를 한 어른이난 글 허민 다 통행은에 이북더래 허드라고. 아버지 허는 것이. 게난 나가 산엘 보내연게. 산에서 오랑 연락을, 연락병으로 해 주렌 허난 아버지가 이해 안 가민 못 해. 아버지가 아이 보내민 못 해.(우리 아버지는 일본도 안 갔다 와도 우리 오빠가 일본 가서 다니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공부를 한 어른이니까 글 하면 다 통해서 이북으로 하더라고. 아버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산에를 보냈어. 산에서 와서 연락을, 연락병으로 해 주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해 안 가면 못 해. 아버지가 안 보내면 못 해.)

102006 #2 못 허주게.(못 하지.)

102006 #1 게난 아버지가 가렌 허난 집이선 막 검질 못 멍, 여름이라. 일헤영, 우리 아신 세 설 아랜디 막 밧디 강 검질메고 난 가 불민. 아이고, 성²⁵⁾이랑은에 놀레 보냄텐. 놀레 보내고 나만 검질메레 감젠 막 원망을 해도 아버지가 보내난 나가 산엘 갓어.(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집에서는 막 김 못 매서, 여름이야. 일해서, 우리 아우 세 살 아래인데 막 밧에 가서 김매고 난 가 버리면. 아이고, 언니는 놀러 보낸다고. 놀러 보내고 나만 김매러 간다고 많이 원망을 해도 아버지가 보내니까 내가 산에를 갓어.)

102006 #2 그렇지.(그렇지.)

102006 #1 산엘 강 연락병을 헨, 나가. 연락병을 헐어.(산에를 가서 연락병을 헐어, 내가. 연락병을 헐어.)

102006 @ 세상에. 삼촌은 안 허고?(세상에. 삼촌은 안 하고?)

102006 #1 일 년간 헐지. 일 년간.(일 년간 헐지. 일 년간.)

102006 @ 그 사람들, 연락하고 헐던 사람덜 산 사람 잇수과?(그 사람들, 연락하고 헐던 사람들 산 사람 있습니까?)

102006 #1 엇어, 다 죽언.(없어, 다 죽었어.)

102006 @ 다 죽언. 삼촌만 살안?(다 죽었어. 삼촌만 살았어?)

102006 #1 아이.(아니.)

102006 @ 그 현장을 한번 굴아 봅서. 도대체 어떻게 살안, 거기 있는 사람들?(그 현장을 한번 말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어, 거기 있는 사람들?)

102006 #1 산에 강 허는 것이 조직부 에이부²⁶⁾가 있어. 조직부에 ㄱ트면, 그냥 이제 거트민 동사무실 닭곡 에이부에는 그 인민통신 새소식 만드는 디더라고, 만드는데 디라. 만드는데 디민 그딘 뒤 그 옛날에 사삼사건 때, 이제 이 말해도 돼나?(산에

25) '성'은 표준어의 '형'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언니'를 가리킨다.

26) '에이부'는 알파벳의 'A'에 부서를 의미하는 '부'가 결합한 말이다.

가서 하는 것이 조직부 에이부가 있어. 조직부에 같으면, 그냥 이제 같으면 동사무소 같고 에이부에는 그 인민통신 새소식 만드는 데더라고, 만드는 데야. 만드는 데면 거긴 뭐 그 옛날에 사삼사건 때, 이제 이 말해도 되냐?)

102006 @ 예게. 지금은, 이제는 다.(예. 지금은, 이제는 다.)

102006 #1 아지트 광은에 땅속에만 들어강 그 일을 해. 땅속에서. 땅속에서 행은에 그 글도 쓰곡 등사판 행은에 짧게 밀영 인민통신 새소식을 막 만들양은에 몇 봉을 해. 내치민 그 공부헌 사람은 그것만 만들지. 시에 다 걸영, 시내레 내영 그걸 눈으로 보아야 그 남로당 허는 사람덜이 이해가 가근에 움직일 거난. 우리가 안 허민 우리 연락병이 안 해 주민 자기넨.(아지트 파서 땅속에만 들어가서 그 일을 해. 땅속에서. 땅속에서 해서 그 글도 쓰고 등사판 해서 짧게 밀어서 인민통신 새소식을 마구 만들어서 몇 봉을 해. 내치면 그 공부한 사람은 그것만 만들지. 시에 다 걸어서, 시내에 내어서 그걸 눈으로 보아야 그 남로당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연락병이 안 해 주면 자기들은.)

102006 #2 못 허지.(못 하지.)

102006 #1 그것만 해 놓민게.(그것만 해 놓으면.)

102006 #2 게 그거 배달해야 헐 거난.(그래 그거 배달해야 할 거니까.)

102006 #1 배달을 해 줘야 자기네가 **이가 날 거난. 나가 혼번 갖당 그걸 허단 경찰에 심언.(배달을 해 줘야 자기들이 **이가 날 거니까. 내가 한번 갔다가 그걸 하다가 경찰에 잡았어.)

102006 @ 잡현?(잡혔어?)

102006 #1 잡현.(잡혔어.)

102006 @ 삼춘이?(삼춘이?)

102006 #1 응. 너이 잡현게.(응. 넷이 잡혔어.)

102006 @ 여자만?(여자만?)

102006 #1 여자만 너이 다 잡혔어.(여자만 넷이 다 잡혔어.)

102006 @ 큰일날 뻔 했구나?(큰일날 뻔 했구나?)

102006 #1 다 잡형은에 팔월 추석, 추석 흥뽀 흥 삼 일 전에게. 겐 잡혀근에, 잡힌 장소가 어딘고 허민 저 남조봉²⁷⁾ 그 영통매²⁸⁾ 사이에 사람 사는 디가 이십디다. 그때 이시난.(다 잡혀서 팔월 추석, 추석 조금 한 삼 일 전에. 그래서 잡혀서, 잡혀서, 잡힌 장소가 어딘가 하면 저 ‘남조봉’ 그 ‘영통매’ 사이에 사람 사는 데가 있습디다. 그때 있으니까.)

102006 @ 남 무신 봉마씨?(남 무슨 봉요?)

102006 #1 남조봉.(‘남조봉’.)

102006 @ 남조봉 잇수과?(‘남조봉’ 있습니까?)

102006 #1 잇어. 제일 큰 산.(잇어. 제일 큰 산.)

27) ‘남조봉’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28) ‘영통매’는 제주시 지경 이름이다.

102006 #2 수목원²⁹⁾ 동쪽 산.(수목원 동쪽 산.)

102006 #1 남조봉 높은 산.(‘남조봉’ 높은 산.)

102006 #2 큰 산 이거 남조봉이주게.(큰 산 이거 남조봉이지.)

102006 #1 그디 산이 총총 세 갠디.(거기 산이 총총 세 개인데.)

102006 @ 남조봉 어디서 잡현마씨?(‘남조봉’ 어디서 잡혔어요?)

102006 #1 남조봉 동녘 굴렁에서. 겐 굴렁에 갈 때는 어떻게 가시고 허민, 올라 갈 때는 이제 시아방뽕 뒸는 어른이라. 양○○이엔 현 사람이영 그치 올라간디 다 이꺼지 막 왔어. 막 막 막 년 못 뜨라가난 이디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고 자기는 그 꼭대기까지 가난 살안. 그때 안 심언게. 나만 잡혔지. 게난 나가 그거 올라갈 수가 없어. 그거 인민통신이엔 현 거 등에 젖지. 구덕에 땀. 게난 지니까 이 집이 들어가렌 헨 그 집이 들어강. 그 집이 들어가난 빨래를 막 허던 게 잇더라고. 게난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그쪽인 생이라. 이레 부리렌 헨 반앙 빨렐 언저 붙어. 그 인민통신 논 구덕더레. 게난 빨래 구덕으로 알앙 그 사람네 봐도 못 가져가지.(‘남조봉’ 동녘 구렁에서. 그래서 구렁에 갈 때는 어떻게 갔는가 하면, 올라갈 때는 이제 시아방뽕 되는 어른이야. 양○○이라고 하는 사람랑 같이 올라갔는데 다 이까지 마구 왔어. 막 막 막 년 못 따라가니까 여기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고 자기는 그 꼭대기까지 가니까 살았어. 그때 안 잡았어. 나만 잡혔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올라갈 수가 없어. 그거 인민통신이라고 하는 거 등에 젖지. 바구니에 넣어서. 그러니까 지니까 이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빨래를 막 하던 게 잇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그쪽인 모양이야. 이리 부리라고 해서 받아서 빨래를 얹어 버려. 그 인민통신 놓은 바구니에. 그러니까 빨래 바구니로 알아서 그 사람들 봐도 못 가져가지.)

102006 #2 그렇지.(그렇지.)

102006 #1 갠헨 나허고 여자 서이가, 여자 고등학생덜 서이가, 여고생덜. 겐 서이가 심은디, 나 헨 너이라. 겐 심영은에 우리가 이제 차에 시꺼근에 그때는 경찰서가 관덕정 마당에 이실 때 경찰서가. 관덕정 마당에 이실 때 딱 들어가는 거라. 들어강 보난 흥나 아이 여고생은 자기네 웨삼촌이 경찰이난 어명이 왕 확 빼어 가고.(그래서 나하고 여자 셋이, 여자 고등학생들 셋이, 여고생들. 그래서 셋이 잡았는데, 나 해서 넷이야. 그래서 잡아서 우리가 이제 차에 실어서 그때는 경찰서가 관덕정 마당에 있을 때 경찰서가. 관덕정 마당에 있을 때 딱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 아이 여고생은 자기네 외삼촌이 경찰이니까 어머니가 와서 확 빼어 가고.)

102006 @ 아.(아.)

102006 #2 으.(으.)

102006 #1 확 빼어 가고 둘은 또 그런 뻥이 없어. 뻥이 었인디 이제 그트민 관덕정 마당에 저 옛날에 무시거 잇어났잖아. 거기서 저 물건 푸는 디. 잇어난네이? 관덕정 마당 곧 알녁집이 이제 차부 알녁집 대성 한의원 흥는 디.(확 빼어 가고 둘은

29) ‘수목원’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라수목원을 말한다.

또 그런 백이 없어. 백이 없는데 이제 같으면 관덕정 마당에 저 옛날에 뭐 있었잖아. 거기서 저 물건 파는 데. 있었지? 관덕정 마당 곧 아랫집에 이제 정류장 아랫집 대성 한의원 하는 데.)

102006 @ 예.(예.)

102006 #1 대성 한의원 쪽에. 그 집으로 쪽 들어간 디더라. 이녁네 집이.(대성 한의원 쪽에. 그 집으로 쪽 들어간 데더라. 자기네 집이.)

102006 #2 으.(으.)

102006 #1 두 아이가 그디고.(두 아이가 거기고.)

102006 #2 으.(으.)

102006 #1 나는 노형이고.(나는 노형이고.)

102006 #2 으.(으.)

102006 #1 경혜연. 게난 이제 가인 하나 심어가 불고, 어멍은 확 내어가 불고, 아이허고 나허고 서이만 있어. 게난 방 막 좁안. 우린 방도 안 줘. 허리띠허곡이 신발 놓는 디 수랑헌 디 그디 이시렌. 그디서 딱 흐를밤 잔. 아인 첫날에 심어가 불고, 어멍 왕 같이 돌아가 불고. 야이허고 나허고 이신디 날ㄱ라 그때는, 이제는 호적 이름으로 무싱거 해도 그때는 호적 이름으로 아이 불르더라. 그때는 ○○로 통해. 야, 문○○ 멧질 먹고정³⁰⁾ 허지? 영 해. 예게, 예게. 허난 멧질 먹으레 가렌 날 확 내쳐 불어.(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갠 하나 잡아가 버리고, 어머니는 확 내어가 버리고, 아이하고 나하고 셋만 있어. 그러니까 방 아주 좁았어. 우린 방도 안 줘. 허리띠하고 신발 놓는 데 기름한 데 거기 있으라고. 거기서 딱 하룻밤 잤어. 아인 첫날에 잡아가 버리고, 어머니가 와서 같이 데려가 버리고. 애하고 나하고 있는데 나보고 그때는, 이제는 호적 이름으로 뭐 해도 그때는 호적 이름으로 안 부르더라. 그때는 ○○로 통해. 야, 문○○ 멧질 지내고 싶지? 이렇게 해. 예, 예. 하니까 멧질 지내러 가라고 날 확 내쳐 버려.)

102006 @ 문○○가 아니고 문○○파?(문○○ 아니고 문○○입니까?)

102006 #2 응. ○○, ○○.(응. ○○, ○○.)

102006 #1 그냥 불르는 이름은 ○○디 그땐 ○○로 안 통해. 사삼스건 땐.(그냥 부르는 이름은 ○○인데 그땐 ○○로 안 통해. 사삼사건 땐.)

102006 @ 하하하.(하하하.)

102006 #1 사삼사건 땐 호적도 필요 엇더라, 그때는.(사삼사건 땐 호적도 필요 없더라, 그때는.)

102006 @ 아, ○○로 불렀구나.(아, ○○로 불렀구나.)

102006 #1 문○○ 멧질 먹고정 허지? 예게, 예. 허난에 난 나가렌 헨 나오는 사람이 저 삼양 뒤에 설레엔 헌 디 사람이 우리 ㄱ튼 문씨라. 문썸디 이제 우리 오빠가 관덕정 마당 우넉집이 제일 양복점 헤여, 스춘 오빠가. 게난 그디 알아게, 아난 문썸디 어떻행 형님 알 수 어시쿠젠. 데려와 보렌 허난 데려가난 스춘 오빠라.(문○

30) ‘멧질 먹다’는 ‘멧질을 지내다, 쇠다’의 의미다.

○ 명질 지내고 싶지? 예, 예. 하니까 난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이 저 삼양 뒤에 ‘설레’라고 하는 데 사람이 우리 같은 문씨야. 문씨인데 이제 우리 오빠가 관덕정 마당 윗집에 제일 양복점 해, 사촌 오빠가. 그러니까 거기 알아, 아니까 문씨인데 어떡해서 형님 알 수 없겠습니까. 데려와 보라고 하니까 데려가니까 사촌 오빠야.)

102006 @ 아이고야.(아이고야.)

102006 #1 초창기난 살아신가? 재수 었이민 뭐 열일곱 설 여자가?(초창기니까 살았나? 재수 없으면 뭐 열일곱 살 여자가?)

102006 #1 경허난 이제 멧질 먹으레 가렌 헨 멧질 먹으레 오빠네 집으로 완 집이 완 멧질 먹엇주게. 멧질 먹영 이젠 멧질 먹어도 그때 검질도 다 안 허고 허난 검질도 뭇 거 싯고 행은에 멧질 먹영 혼 일뤼썸 이실 땀디 또 우리 그때 갓잖아. 두유 아지바님이 완 우리 아버지신디 막 저주할 말을 막 곱아. 우리는 몸똥아리고 우리는 혈로 생각해이. 혈이 었시민 움직이질 못합니텐.(그러니까 이제 명질 지내러 가라고 해서 명질 지내러 오빠네 집으로 와서 집에 와서 명질 지냈지. 명질 지내서 이젠 명질 지내도 그때 김도 다 안 하고 하니까 김도 뭇 거 있고 해서 명질 지내서 한 이레썸 있을 때인데 또 우리 그때 갓잖아. 두유 아주버님이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마구 저주할 말을 마구 말해. 우리는 몸똥이고 우리는 혈로 생각해. 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고.)

102006 #2 그렇지.(그렇지.)

102006 #1 어떻습니겐 막 스정을 허는 거라. 허난 셋년아 가라 혈 수 었다. 가야 똬켜. 겐 그냥 돌아가 불언게. 일뤼 살앙.(어떡하냐고 막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야 가라 할 수 없다. 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데려가 버렸어. 이레 살고.)

102006 @ 어디?(어디?)

102006 #1 딱시 산에 가는 거지.(또 산에 가는 거지.)

102006 #2 딱시 연락병으로 또 완 돌아가 불엇구나.(또 연락병으로 또 와서 데려가 버렸구나.)

102006 #1 연락병으로.(연락병으로.)

102006 @ 무섭지도 안행예?(무섭지도 았고요?)

102006 #1 게난.(그러니까.)

102006 @ 초창기 닳다.(초창기 같다.)

102006 #2 초창기라.(초창기야.)

102006 #1 아버지 가렌 흥곡 허난 가난 이제 오는 게 이호릴³¹⁾ 와. 이호이동, 그덜 아지트가 왔드라고. 그덜 왕 허난 이호이동서 혼 일주일썸 살앗어. 일주일썸, 그디도 막 팡 놔둔 디가 잇어. 그디 들어가근에 막 등사판 해근에 짹짹 밀민 그 이호에서도 나 혼 시에 혼 다섯 번썸 가진 거 닳아. 거 지영. 지영 갈 때민 그 주인이 그 주인 할망이 쓸을 혼 두 말썸 쥐.(아버지 가라고 하고 하니까 가니까 이제 오는

31) ‘이호리’는 제주시 이호동을 말한다.

게 이호리를 와. 이호이동, 거기 아지트가 왔더라고. 거길 와서 하니까 이호이동에서 한 일주일쯤 살았어. 일주일쯤, 거기도 마구 파서 놔둔 데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마구 등사판 해서 짹짹 밀면 그 이호에서도 나 한 시에 한 다섯 번쯤 간 거 같아. 거 지고. 지고 갈 때면 그 주인이 그 주인 할머니가 쌀을 한 두 말쯤 줘.)

102006 #2 으.(으.)

102006 #1 아래 거 낱 쫄 놔 불민 몰라.(아래 거 놔서 쌀 놔 버리면 몰라.)

102006 #2 몰르지게.(몰리지.)

102006 #1 쫄 빵 더퍼 불민, 만일에 심으민 쫄로 보주게. 영 소곱에 아이 봐.(쌀 봐서 덮어 버리면, 만일에 잡으면 쌀로 보지. 이렇게 속에 안 봐.)

102006 #2 그렇지.(그렇지.)

102006 #1 게민 따시 저기 가근에 이제, 저디 간 딴 관덕정 마당 우녁집 또 우녁집이라. 그 사는 디가이, 아지트가. 게민 그디 강은에 그 인민통신 놓아뒀 따시 그디 준 거 쫄 이레 비와 뒀 그디서 논 서류 낱 또 쫄을 더경 정 나와. 옛안나와, 옛안. 어떤 땐 주사기도 막, 주사 쿵랑쿵랑 소리 나. 게민 가까이 가문 듣주만은 그런 거 관심 안 두민 모르주게. 소리 나도이.(그럼 다시 저기 가서 이제, 저기 간 텨 관덕정 마당 윗집 또 윗집이야. 그 사는 데가, 아지트가. 그럼 거기 가서 그 인민통신 놓아두고 다시 거기 준 거 쌀 이리 부어 두고 거기서 놓은 서류 놔서 또 쌀을 덮어서 지고 나와. 몰래 나와, 몰래. 어떤 땐 주사기도 막, 주사 쿵랑쿵랑 소리 나. 그럼 가까이 가면 듣지만 그런 거 관심 안 두면 모르지. 소리 나도.)

102006 #2 그렇지.(그렇지.)

102006 #1 나 속으로만 야 이거 주사기가 쿵당쿵당 해 가민. 경허명 이젠 살당 그디서 누게, 거기서 그 오도롱³²⁾서 올라가는 게 연동³³⁾ 우이로 올라가서 또. 이호이동서 올라가민, 그디 강 오래 살았지. 연동 위에 삼등이³⁴⁾엔 현 디가 있어. 삼등인 그 남조봉³⁵⁾ 곧 밑에 바로 북바리³⁶⁾라. 그 북바리 집 짓은 디가 일름이, 동네 이름이 삼등이라.(나 속으로만 야 이거 주사기가 쿵당쿵당 해 가면. 그러면서 이젠 살다가 거기서 누가, 거기서 그 ‘오도롱’에서 올라가는 게 연동 위로 올라가서 또. 이호이동에서 올라가면, 거기 가서 오래 살았지. 연동 위에 ‘삼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삼등이’는 그 ‘남조봉’ 곧 밑에 바로 ‘북바리’야. 그 ‘북바리’ 집 지은 데가 이름이, 동네 이름이 ‘삼등이’야.)

102006 @ 지금은 엇어져 불었구나?(지금은 없어져 버렸구나?)

102006 #1 지금 삼등이도 있어, 있어. 잇인디 일름은 엇인디 난 그디 보민 우리 옛날에 셔난 디로구나 헤져.(지금 ‘삼등이’도 있어, 있어. 있는데 이름은 없는데 난 거기 보면 우리 옛날에 있던 데로구나 할 수 있어.)

32) ‘오도롱’은 제주시 이호동의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33) ‘연동’은 제주시 연동 지역을 말한다.

34) ‘삼등이’은 제주시 지경 이름의 하나다.

35) ‘남조봉’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36) ‘북바리’은 제주시 연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2006 @ 아.(아.)

102006 #1 우리 작은 사돈집이 간 보난 그디더라. 계난 나가 이거 삼등이여. 허난 우리 작은아덜이 동네, 이거 동네 이름이 삼등이 맞아. 겐 건 모르주게. 곧지 안 허난게. 나 이런 말 아이덜ㄱ라 안 곴으니까. 이거 삼등이엔 옛날엔. 이거 삼등이 어머니 맞아. 옛날 이름이 이디 삼등이엔 험디다. 경허드라고. 이제 그 동네 다 사름덜 살아.(우리 작은 사돈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삼등이’야. 하니까 우리 작은아들이 동네, 이거 동네 이름이 ‘삼등이’ 맞아. 그래서 건 모르지. 말하지 았으니까. 나 이런 말 아이들에게 안 말하니까. 이거 ‘삼등이’라고 옛날에는. 이거 ‘삼등이’이 어머니 맞아. 옛날 이름이 여기 ‘삼등이’라고 함디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 동네 다 사람들 살아.)

102006 #2 큰 동네 뻬어.(큰 동네 뻬어.)

102006 #1 집덜 짓엉 살아.(집들 지어서 살아.)

102006 #2 큰 동네 뻬엇어.(큰 동네 뻬엇어.)

102006 #1 집덜 짓엉 삼등이, 바로 남주봉 북방.(집들 지어서 ‘삼등이’. 바로 ‘남주봉’ 북방.)

102006 @ 그때 잡혀간 사람들도 혼 일 년은 같이 헤신가? 삼촌만 경 헤신가?(그때 잡혀간 사람들도 한 일 년은 같이 했나? 삼촌만 그렇게 했나?)

102006 #1 계난 그때.(그러니까 그때.)

102006 @ 겁도 엇이?(겁도 없이?)

102006 #1 그때 강은에 나만 허질 안허고 그 아이덜은이 서이가 심어가난 혼 아인 허곡 하나토 안 올라완. 여고생덜은. 하나토 못 올라완게. 그루후제부터는. 난 두 번차 갓인디. 경헨 그디 갓당 예휴, 또 산엘 갓지. 글로 저 산에. 바로 산속에. 아이고, 나 ○○ 오라바님 쓴 걸 보난 뭐 청산이도 큰도리이여, 작은도리이여 현 거 그 산 안에 가민 곳, 오름 일름덜이라. 그 도리가. 작은도리, 큰도리가. 그디 가난, 그디 간도 막 지꾸자꾸 다녔어. 산에 가난. 다니단에 이제 이제 우리 신랑을 만났어. 산에서.(그때 가서는 나만 하지 았고 그 아이들은 셋이 잡아가니까 한 아이는 하고 하나도 안 올라왔어. 여고생들은. 하나도 못 올라왔어. 그 후부터는. 난 두 번째 갔는데. 그래서 거기 갔다가 어휴, 또 산에를 갓지. 그리로 저 산에. 바로 산속에. 아이고, 나 ○○ 오라바님 쓴 걸 보니까 뭐 청산에도 ‘큰도리’다, ‘작은도리’다 하는 거 그 산 안에 가면 숲, 오름 이름들이야. 그 ‘도리’가. ‘작은도리’, ‘큰도리’가. 거기 가니까, 거기 가서도 마구 자꾸자꾸 다녔어. 산에 가니까. 다니다가 이제 이제 우리 신랑을 만났어. 산에서.)

102006 @ 아.(아.)

102006 #1 딱 만난게.(딱 만났어.)

102006 @ 산에서, 산 사람이었구나예?(산에서, 산 사람이었군요?)

102006 #1 으, 산 사름. 겐 만나난이 막 어떻헐래, 어떻헐래 헤. 경헌디 쿵, 놀쿵 게. 놀쿵은 혼 요만인 무경 창, 놀쿵을 씹엉 먹는 거야. 굶으난. 그걸 야, 봉자야 이

거라도 너 먹으라. 이거 어떻 먹냐, 허난. 이거 우리도 이거 먹영 살암저. 겐 콩 요만인 주멍.(으, 산 사람. 그래서 만나니까 마구 어떡할래, 어떡할래 해. 그런데 콩, 날콩. 날콩은 한 요만큼 묶어서 차서, 날콩을 씹어서 먹는 거야. 굵으니까. 그걸 야, 봉자야 이거라도 너 먹어라. 이거 어떻게 먹냐, 하니까. 이거 우리도 이거 먹고 살고 있어. 그래서 콩 요만큼 주면서.)

102006 @ 보곤 것도 아니고?(복은 것도 아니고?)

102006 #1 늘콩게, 늘콩. 겐 그걸로 헤어전. 헤어전 헌디 그디가 나보단 먼저 잡현게. 먼저 잡형 심언, 헌병대로 심언 내려와 불고. 나는 경 텡기단 그디가 헤어졌어 이젠. 산에 놔달이 헤어졌어. 다 해산했어. 헐 수가 없어. 그디 가니까. 헐 수 없으난 이제 나는 아버지영 어머니영 산에 올라완. 이호 잣단. 이호서 우이서 가난 잡현 올라완. 올라가난 죽은도리이엔 혼, 그디가 장소가 죽은도리이라. 그딜 갔어.(날콩, 날콩. 그래서 그걸로 헤어졌어. 헤어져서 했는데 거기가 나보다는 먼저 잡혔어. 먼저 잡혀서 잡아서, 헌병대로 잡아서 내려와 버리고. 나는 그렇게 다니다가 거기가 헤어졌어, 이젠. 산에 놔들이 헤어졌어. 다 해산했어. 할 수가 없어. 거기 가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산에 올라왔어. 이호 잣다가. 이호에서 위에서 가니까 잡혀서 올라왔어. 올라가니까 ‘죽은도리’라고 하는, 거기가 장소가 ‘죽은도리’야. 거기를 갔어.)

102006 @ 건 피신히레 간 거?(건 피신히러 간 거?)

102006 #1 피신히영 사는 데. 아버지영 어무니영 간 혼디 살았어. 동생이영 우리 조카영 저.(피신히서 사는 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가서 같이 살았어. 동생이랑 우리 조카랑 저.)

102006 @ 산속에서예?(산속에서요?)

102006 #1 산속에서 아주망이영. 조카 두 명허고. 경허영 살단 흐끔 흐끔 내려왔어. 죽은도리 살다근에 어디 저 모살디³⁷⁾엔 헌 디가 모살디엔 허민 이디서 일로 금방 서쪽으로 짹 산에 올라가면은 을마 안 간 영 췌췌헌 디가 있었어. 장소가. 겐 그디 가근에, 동네가 전부 내려완, 글로. 글로 내려왕 영 헨 사는디. 글로 내려완 사는디 우리 아버지가 허는 말이, 친정아버지가 국 엇이 먹으난 속 몰랑 못 살켄. 요 내창으로 내려가다근에, 내려가당 어떻게 안현텐. 막 아래서 팡팡 험젠 허는디. 내려가근에 우영팃디 마농 싱그난 마농 강 행 오랑 국이나 끌렁 먹어사지 살지 못허켄. 마농 멍 오켄게. 경행 그날이 음력으로 이월 열여드레날이라. 그 내려온 날이. 이월 열여드레.(산속에서 아주머니랑. 조카 두 명하고. 그래서 살다가 조금 조금 내려왔어. ‘죽은도리’ 살다가 어디 저 ‘모살디’라고 하는 데가 ‘모살디’라고 하면 여기서 이리고 금방 서쪽으로 짹 산에 올라가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편편한 데가 있었어. 장소가. 그래서 거기 가서, 동네가 전부 내려왔어, 그리로. 그리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사는데. 그리로 내려와서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친정아버지가 국 없이 먹으니까 속 말라서 못 살겠다고. 요 내로 내려가서, 내려가다가 어떻지도 않

37) ‘모살디’는 제주시 지경 이름이다.

다고. 아주 아래서 팡팡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려가서 터알에 마늘 심으니까 마늘
가서 하고 와서 국이나 끓여서 먹어야지 살지 못하겠다고. 마늘 매서 오겠다고. 그
래서 그날이 음력으로 이월 열여드레야. 그 내려온 날이. 이월 열여드레.)

102006 @ 사십구 년? 오십 년?(사십구 년? 오십 년?)

102006 #1 사십구 년이지.(사십구 년이지.)

102006 @ 사삼 헌 지 일 년쯤 지났?(사삼 한 지 일 년쯤 지나서?)

102006 #1 일 년 지났지. 새해 나니까. 묵은해 나가 나갔으니까. 새해 냐, 게난
그 멧질을 산에서 행 먹었어. 멧질도 허는 사름덜은 막 해. 겐 우리 어무니도 허더
라. 그 도제³⁸⁾로 막.(일 년 지났지. 새해 나니까. 묵은해 내가 나갔으니까. 새해 돼
서, 그러니까 그 멧질을 산에서 해서 먹었어. 멧질도 하는 사람들은 마구 해. 그래
서 우리 어머니도 하더라. 그 ‘도제’로 마구.)

102006 @ 사려니숲길 거기, 사려니숲길은 봉개³⁹⁾ 사름덜이 거기 강 살았텐 험디
다. 막 곱닥헌 길이 잇수다게. 그렇게 좋텐 막 관광객덜이 어마어마 담아지는 디가
사삼 때 저 봉개³⁹⁾가 어디 사름덜이 다 거기 올라강 살았텐.(사려니숲길 거기, 사려니
숲길은 봉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았다고 합디다. 아주 고운 길이 있습니다. 그렇
게 좋다고 마구 관광객들이 어마어마 모여드는 데가 사삼 때 저 봉개인가 어디 사
람들이 다 거기 올라가서 살았다고.)

102006 #1 건 동쪽이주게. 우린. 게난 아버지가 내려오다근에 그 산에서, 찜, 산
에서라. 토벌대에서 심젠게. 심젠. 칼로 막 칼로 찢러 죽여 불언게. 총도 안 쏘앙.
총 쏘민.(건 동쪽이지. 우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려오다가 그 산에서, 찜, 산에서
야. 토벌대에서 잡으려고. 잡으려고. 칼로 마구 칼로 찢러서 죽여 버렸어. 총도 안
쏘고. 총 쏘면.)

102006 @ 몇 명이나, 아버지 혼자?(몇 명이나, 아버지 혼자?)

102006 #1 혼자만 내려왔주게. 게난 총으로 앓사리⁴⁰⁾ 죽으민 복 존 거지.(혼자만
내려왔지. 그러니까 총으로 시원스럽게 죽으면 복 좋은 거지.)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1 창으로 쏘는 건이 막 여기저기 찢러근에 죽여 불언.(창으로 쏘는 건
마구 여기저기 찢러서 죽여 버렸어.)

102006 #2 거 무사 곧느니게.(거 왜 말하니?)

102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6 #1 게난 우리 큰아버지 죽은아덜이 다니단 보난에 죽은아방이 죽언 잇언.
게난 눈만, 자기 수건 앓안에 눈만 짹 무꺼 텅게. 눈 놔두민 뭐 그 가마귀 파 간덴.
가마귀 경 잘 파간덴. 게난 눈만 무꺼 텅 뭐 허지도 못허고, 지나가단 보난 게난 연
락만 해 불언게. 이디 죽엇텐.(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들이 다니다가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죽어 있었어. 그러니까 눈만, 자기 수건 가져서 눈만 짹 묶어 뒀어.)

38) ‘도제’로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인 ‘도’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39) ‘봉개’는 제주시 봉개동을 말한다.

40) ‘앓사리’는 일본어 ‘あっさり’에서 온 말로, ‘담박하게, 산뜻하게, 시원스럽게’라는 의미다.

눈 놔두면 뭐 그 까마귀 파 간다고. 까마귀 그렇게 잘 파간다고. 그렇다고 눈만 묶어 두고 뭐 하지도 못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연락만 해 버렸어. 여기 죽었다고.)

102006 #2 경 혈 수밖에 어섯주게.(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102006 #1 경허난 그디 영 무신 대원들이 있어. 경헤민 묻는 뭐 헌 사람덜이 왕 쪼끔만 팜은에게 쪼끔만 팜 흑만 씩왕 놔둬.(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무슨 대원들이 있어. 그러면 묻는 뭐 한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파서 조금만 파서 흙만 씩워서 놔두고.)

102006 #2 임시 경혈 수벳기 엇엇주게. 그 상황에게.(임시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 상황에.)

102006 #1 경헛당 다음에 내려왕은에.(그랬다가 다음에 내려와서는.)

102006 @ 메칠 뒤에 소식 들영 울고불고 난리 났겟다예?(며칠 뒤에 소식 들어서 울고불고 난리 났겟네요.)

102006 #1 그때 소식은 들었지. 계난 가지 맙서, 가지 맙서. 막 그 입초 산 사람덜도 헛텐. 경헤도 아이고, 가지 맙서, 가지 맙서 경헤도. 아이고 나 혼자만 솔썩솔썩 울로 강은에이 아멩헤도 우영에 강 마농을 메영 와야 돼쥬. 쥬 가당 그날. 쥬 안 나와시민, 아멩헤도 죽기야 죽지. 안 죽진 안헤여. 심어 왕 수사받당 가도 갈 거, 우리 아버지.(그때 소식은 들었지.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마구 그 입초 선 사람들도 했다고. 그래도 아이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아이고 나 혼자만 살썩살썩 이리로 가서 아무래도 터알에 가서 마늘을 매서 와야 되겟다고. 그래서 가다가 그날. 그래서 안 나왔으면, 아무래도 죽기야 죽지. 안 죽지는 았아. 잡아 와서 수사받다가 가도 갈 거, 우리 아버지.)

102006 @ 어머니도 많이 울고 그다음 어머니는 몇 형제를 경 키운 것파? 아이고 세상에 았이 캄캄허다예?(어머니도 많이 울고 그다음 어머니는 몇 형제를 그렇게 키운 겁니까? 아이고 세상에 았이 캄캄하네요?)

102006 #1 계난 우리 아주망도 아덜 시 성제 들앙 갓어. 우이 산에. 시 성제 들앙 가신디 헛나는 막 억세고 더 잘난 건 어린 거난 죽어 불언게, 아래 내려왕. 아래 내려왕 죽어 불고 우이로 둘만 살안. 산디 이제 헛난 죽은 건 살고 큰 건 아기덜이 영 다 나 뵤 간. 가 불언.(그러니까 우리 아주머니도 아들 세 형제 데리고 갔어. 위에 산에. 세 형제 데리고 갔는데 하나는 아주 억세고 더 잘난 건 어린 거니까 죽어 버렸어, 아래 내려와서. 아래 내려와서 죽어 버리고 위로 둘만 살았어. 살았는데 이제 하나는 작은 건 살고 큰 건 아기들이랑 다 낳아 두고 갔어. 가 버렸어.)

102006 @ 이것만 헤도 하루 종일 얘기헤도 쫓이 엇이켜예. 경헛 산에서 살당 다시 내려왕 어무니가 아이덜 다 키우멍 살았다는 거다예?(이것만 헤도 하루 종일 얘기헤도 끝이 없겟네요. 그래서 산에서 살다가 다시 내려와서 어머니가 아이들 다 키우면서 살았다는 거네요?)

102006 #1 우리 어머니가.(우리 어머니가.)

102006 @ 예.(예.)

102006 #1 아니, 우리 어머니는 계난 우리 성제만 키운 거라. 우리 아주망이 또 이시난 그 손지덜은 키우고 우리 아버지 가 불고, 우리 오빠는 일본 잇고. 그때 죽지 않은 때 일본 잇엉.(아니,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만 키운 거야. 우리 아주머니가 또 있으니까 그 손자들은 키우고 우리 아버지 가 버리고, 우리 오빠는 일본 잇고. 그때 죽지 않은 때 일본 있어서.)

102006 #2 아주망이 고생했주게. 애기덜 어린 때난.(아주머니가 고생했지. 아기들 어렸을 때니까.)

102006 #1 우리 아주망이 고생했주. 계난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도 거류민단⁴¹⁾ 이라이, 일본서.(우리 아주머니가 고생했지.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도 거류민단이야, 일본에서.)

102006 @ 조총련이 아니고?(조총련이 아니고?)

102006 #1 조총련⁴²⁾인가 거류민단인가.(조총련인지 거류민단인지.)

102006 @ 거류민단은, 민단은 대한민국이고.(거류민단은, 민단은 대한민국이고.)

102006 #2 조총련, 조총련.(조총련, 조총련.)

102006 @ 저쪽이 조총련.(저쪽이 조총련.)

102006 #2 거류민단은 아래고.(거류민단은 아래이고.)

102006 @ 대한민국 쪽이고.(대한민국 쪽이고.)

102006 #1 계난 그 일본서 오는 말이 이북 갓덴. 이북 강 확실히 이북 간에 위 수술했젠 말은 헌디 일본허고 이북은 연락허니까. 위 수술행 죽엇덴 허난 죽은 걸로 알렌 확실히 곱안, 우리도 죽은 걸 확실히 몰란. 누게 경 곱아 주지 안허난. 계난 야네 친척분 어른이 왓단 나 가시난 경 곱으난 그때부턴 알안. 죽은 날 헛자 생일 제사해, 이제도. 생일로.(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오는 말이 이북 갔다고. 이북 가서 확실히 이북 가서 위 수술했다는 말은 했는데 일본하고 이북은 연락하니까. 위 수술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거로 알라고 확실히 말해, 우리도 죽은 걸 확실히 몰랐어. 누가 그렇게 말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네 친척분 어른이 왔다가 내가 갔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는 알았어. 죽은 날 해도 생일 제사해, 이제도. 생일로.)

102006 @ 거기가 오빠?(거기가 오빠?)

102006 #1 오빠.(오빠.)

102006 #2 죽은 날 잘 모르난 경헐 수벳기 엇주게.(죽은 날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102006 #1 생일 제사해. 계난 우리 친정에도 나가 이디 왕 보난 이디 시아주방도

41) '거류민단'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말한다. 1946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9월 28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 4월 20일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본인에 의한 법적 경제적 차별 철폐, 일본지방참정권부여, 한일교류 촉진 등의 주요 활동을 하고 있다.

42) '조총련'은 '재일본조선인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의 약칭으로, 조선총련(朝鮮總聯)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총련이라고 부른다.

죽은 날 몰랑 생일로 허곡. 우리 오빠도 생일로 허곡. 형무소 강은에 죽은 날 몰라 부난, 확실히.(생일 제사해. 그러니까 우리 친정에도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시아주버니도 죽은 날 몰라서 생일로 하고. 우리도 생일로 하고. 형무소 가서 죽은 날 몰라 버리니까, 확실히.)

102006 @ 겐 그 산에서 만난 인연이었겠냐예? 그 저기 결혼하신 아저씨도예?(그래서 그 산에서 만난 인연이었겠네요? 그 저기 결혼하신 아저씨도요?)

102006 #1 아이, 잘 알아.(아니, 잘 알아.)

102006 @ 동네니까, 노형?(동네니까, 노형?)

102006 #2 으, 동네난게.(으, 동네니까.)

102006 #1 동네난 알아. 게곡 동갑이고.(동네니까 알아. 그리고 동갑이고.)

102006 @ 동갑이고?(동갑이고?)

102006 #1 으.(으.)

102006 @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구나예. 겐 소개는 그런 산에만 가고 해변에는 안 갔수과? 이호?(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군요. 그래서 소개는 그런 산에만 가고 해변에는 안 갔습니까? 이호?)

102006 #1 우리 아버지네가 이호이동⁴³⁾ 내렸다근에 나가 이호이동을 갖어. 이호이동을 가난에 아부지가 빨리 가 불렌. 너 이디 살 거민 허지만 살지 안헐 거민 빨리 안 가민 동네 사름덜. 허난 빨리 와 분 게 아부지넌 이익 봤지. 경숙이는 흐끔 살안 나오난 아부지 죽여 불엇젠 허여. 겐 빨리 그 말 들어근에 어슬어슬헐 때 가 신디 빨리 가 불렌 허난 빨리 와 부난. 그 해변서가이 산에서 누게 왓당 갓덴 허민 그디 부모네 죽여 불어.(우리 아버지네가 이호이동 내렸다가 내가 이호이동을 갖어. 이호이동을 가니까 아버지가 빨리 가 버리라고. 너 여기 살 거면 하지만 살지 않을 거면 빨리 안 가면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 와 버린 게 아버지네는 이익 봤지. 경숙이는 조금 살고 나오니까 아버지 죽여 버렸다고 해. 그래서 빨리 그 말 들어서 어슬어슬할 때 갔는데 빨리 가 버리라고 하니까 빨리 와 버리니까. 그 해변에서가 산에서 누구 왔다 갔다고 하면 거기 부모네 죽여 버려.)

102006 #2 그렇지.(그렇지.)

102006 #1 살리질 안해. 게난 나는이 아버지가 빨리 가 불렌. 빨리 가 불렌 허는 말이 아부지가.(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빨리 가 버리라고. 빨리 가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102006 @ 삼촌 완전 위험했었구나?(삼촌 완전 위험했었구나?)

102006 #1 소를 드룻구릉⁴⁴⁾ 앓다근에 몰 ㄱ레에 메영 놔뒀시메 강 곶양근에 소 앓당 잡양 먹으라 허여게. 검은 부룻이 질와신디.(소를 ‘드룻구릉’ 가져다가 연자매에 매서 놔뒀으니 가서 말해서 소 가져다가 잡아서 먹으라고 해. 검은 부룻소 길렀는데.)

43) ‘이호이동’은 제주시 이호이동을 말한다.

44) ‘드룻구릉’은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2006 @ 아.(아.)

102006 #1 아버지네는 소 키울 의사가 었주게. 출 었어 부난. 게난 이디 온 때, 드룻구렁이엔 현 딘 야네 옛날 동네라. 이디 시집 동네. 겐디 그디 알드룻구렁⁴⁵⁾이 몰그레에 메영 놔두그렌. 왕 그난 윈 종텐 해근에게.(아버지네는 소 키울 의사가 없지. 풀 없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 때, ‘드룻구렁’이라고 하는 데는 애네 옛날 동네야. 여기 시집의 동네. 그런데 거기 ‘알드룻구렁’이 연자매에 매서 놔뒀다고. 와서 말하니까 윈 좋다고 해서.)

102006 #2 그렇지.(그렇지.)

102006 @ 그냥 거기서 잡앙은에 반찬으로 먹주게, 산에서. 소만 봐지민 막 잡앙 먹어. 소도 봐지민 잡앙 먹고 몰도 봐지민 잡앙 먹고. 산에서는 먹을 것이 었어노난.(그냥 거기서 잡아서 반찬으로 먹지, 산에서. 소만 보이면 마구 잡아서 먹어. 소도 보이면 잡아서 먹고 말도 보이면 잡아서 먹고. 산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102006 #2 먹을 게 셔게?(먹을 게 있어?)

102006 @ 겐 잡앙 먹언마씨?(그래서 잡아서 먹었어요?)

102006 #1 잡앙 먹언. 나가 왕, 아니 아멩해도 잡앙 먹을 건 잡아먹을 건디 또 허락도 받고게. 아버지가 강 잡앙 먹으렌 골으렌.(잡아서 먹었어. 내가 와서, 아니 아무래도 잡아서 먹을 건 잡아먹을 건데 또 허락도 받고. 아버지가 가서 잡아서 먹으라고 말하라고.)

102006 #2 골으렌 해부난 골으난게 어디 십테겐 해영.(말하라고 하니까 말하니까 어디 있습디까 해서.)

102006 #1 잡앙 먹으렌 골으라. 그디 강 메영 놔뒀저.(잡아서 먹으라고 말해라. 거기 가서 매서 놔뒀다고.)

102006 @ 큰일헛구나예.(큰일헛군요.)

102006 #1 잡앙 먹으렌 안 해도 잡앙 먹어.(잡아서 먹으라고 안 해도 잡아서 먹어.)

102006 @ 노형 사람이 많이들 산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예? 많이도, 피해도 많았겠대예?(노형 사람이 많이들 산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군요? 많이도, 피해도 많았겠네요?)

102006 #1 이호이동도 많이 갔어. 이호이동 사람덜도. 이 남로당 당원들이 제주에서 쥔 일 위가 조천이라야. 조천이고 그다음 이호엔 해.(이호이동도 많이 갔어. 이호이동 사람덜도. 이 남로당 당원들이 제주에서 제일 일 위가 조천이야. 조천이고 그다음 이호라고 해.)

102006 @ 여기가?(여기가?)

102006 #1 이호이동.(이호이동.)

102006 @ 조천이 이덕구가 선생이엇주게.(조천이 이덕구가 선생이었지.)

102006 #1 조천이허고 두 번째로가 이호이동이엔 해.(조천하고 두 번째가 이호이

45) ‘알드룻구렁’은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동이라고 해.)

102006 #2 책에 나온 거 보난 노형이더라, 두 번째가.(책에 나온 거 보니까 노형이더라, 두 번째가.)

102006 #1 두 번째가 노형은 사람덜 하영 죽어 부난게.(두 번째가 노형은 사람들 많이 죽어 버리니까.)

102006 #2 경허여 부난.(그래 버리니까.)

102006 #1 겐디 어떻행 이호이동이엔 헤신고 허민이 이호이동은이 김○○이, 양○○이가 잇어부난게. 그디가 주두머리야. 김○○이.(그런데 어떡해서 이호이동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호이동은 김○○, 양○○이 있으니까. 거기가 주동자야. 김○○.)

102006 @ 삼촌 살아남은 게 신기허다예?(삼촌 살아남은 게 신기하네요?)

102006 #1 김○○이가 잇어부난. 김○○이 농업학교 선생 아니가.(김○○이 있으니까. 김○○이 농업학교 선생 아니니.)

102006 @ 나중에는 산사람 현 거 모른 척행 그냥 삭 여자니까 그냥 살았수과?(나중에는 산사람 한 거 모른 척해서 그냥 삭 여자니까 그냥 살았습니까?)

102006 #1 아니 산사람도 문딱 흔 밧딜로 멘들앗지. 산사람은 무신 딱로 행 살았나?(아니 산사람도 모두 한 군데로 만들었지. 산사람은 무슨 따로 해서 살았니?)

102006 @ 아니, 게도 주위에서 알민, 다른 데서는 막 여자덜 가만 놔두지도 않고 잘도 많이 죽언. 저 하귀⁴⁶⁾ 어디는예 임신헌 사람 애기도 뭐 해 불고.(아니, 그래도 주위에서 알면, 다른 데서는 마구 여자들 가만 놔두지도 않고 아주 많이 죽었어. 저 하귀 어디는요 임신한 사람 애기도 뭐 해 버리고.)

102006 #1 거는 그 채 안 똥 때지게. 우리 산에 신 때지. 신 때. 아니 여기도.(거는 그 채 안 똥 때지. 우리 산에 있을 때지. 있을 때. 아니 여기도.)

102006 @ 나중에도 산에 갔다 온 거 알민 빨갱이 집안이렌 행 막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나중에도 산에 갔다 온 거 알면 빨갱이 집안이라고 해서 마구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

102006 #1 아이, 건 완전 안 현 때. 흥품 영 안 현 때.(아이, 건 완전 안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안 했을 때.)

102006 #2 경 안 현 때주게.(그렇게 안 했을 때지.)

102006 #1 안 현 때.(안 했을 때.)

102006 @ 다행이다.(다행이다.)

102006 #1 안 현 때.(안 했을 때.)

102006 @ 경해도 어머니 쉬쉬해서쿠다.(그래도 어머니 쉬쉬했겠습니까.)

102006 #1 경해도 나도이 순경 허민 흥품 미와게. 순경이민 막 그냥 순경덜 사람 심영강은에 아버지도 경행 죽여 불곡.(그래도 나도 순경 하면 조금 미워. 순경이면 마구 그냥 순경들 사람 잡아가서 아버지도 그래서 죽여 버리고.)

102006 @ 그지.(그렇지.)

46)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102006 #1 미왕은에 순경은 덜 뽕은에 아방도 나도 덜 봐신디 우리 딱 아덜이 시험을 보난 우리 아지방이 완에 이해를 시키더라고.(미워서는 순경은 덜 봐서 아버지도 나도 덜 봤는데 우리 딱 아들이 시험을 보니까 우리 아주버니가 와서 이해를 시키더라고.)

<전화>

102006 #1 ○○이도 오랜 안 해도 흐뭇 처음엔 했어.(○○이도 오랜 안 해도 조금 처음에는 했어.)

102006 @ ○○이가 경헛잖아.(○○이 그랬잖아.)

102006 #1 겐디 나중에깁진 안 해 불언.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안, 말은 못허주게. 아버지가 허락행 보낸. 아버지가 안 웬다 헤시민 못 가주게.(그런데 나중에까지는 안 해 버렸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안, 말은 못 하지. 아버지가 허락해서 보냈어.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으면 못 가지.)

102006 #2 못 갓주게, 맞주게.(못 갓지, 맞지.)

102006 @ 아이고, 아버지도 대단헌 사람이다.(아이고,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다.)

102006 #1 아버지가 이해행 가야 뉼켜, 셋년아 가라이.(아버지가 이해해서 가야 되겠어, 둘째야 가라.)

102006 @ 경해도 딸.(그래도 딸.)

102006 #1 가라이.(가라.)

102006 @ 그 큰딸, 세 딸 다 이신디 삼촌한테만 시켰다는 거마씨?(그 큰딸, 세 딸 다 있는데 삼촌에게만 시켰다는 거요?)

102006 #1 게, 나가 나이가 맞추게. 큰딸은 시집가 불고.(그래, 내가 나이가 맞지. 큰딸은 시집가 버리고.)

102006 @ 하하하.(하하하.)

102006 #1 작은딸은 세나 아래고.(작은딸은 셋이나 아래이고.)

102006 #2 으, 작은딸은 어리고.(으, 작은딸은 어리고.)

102006 #1 허여 뽕 스정해도 안 웬텐 허민 흘 수 엇주, 가 불주게.(해 봐서 사정해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 가 버리지.)

102006 #2 그렇지. 아버지가 가렌 허난 따라간 거지.(그렇지.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따라간 거지.)

102006 @ 삼촌 보기는 잘도.(삼촌 보기는 아주.)

102006 #1 나 그때 막 죽고 헐. 키도 죽아.(내가 그때 아주 작고 했어. 키도 작아.)

102006 @ 약허게 보이는데.(약하게 보이는데요.)

102006 #1 약해.(약해.)

102006 @ 그거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쉬운 게 아닌디게.(그거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쉬운 게 아닌데.)

102006 #1 아니, 나이 그 주사 펑 낱 허민 골른 거난이 정 와 가민, 속으로 콩당 콩당콩당 그때 차 시민, 걸음은에 아이구.(아니, 나 그 주사 병 놔서 하면 굶는 거니까 지고 와 가면, 속으로 콩당콩당콩당. 그때 차 있으면, 걸어서 아이고.)

102006 #2 걸언 남주봉⁴⁷⁾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헛 거 아니라?(걸어서 ‘남주봉’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거 아니야?)

102006 #1 남주봉, 그 관덕정 마당까지 가.(‘남주봉’, 그 관덕정 마당까지 가.)

102006 @ 삼촌은 막 으망질 거 님아?(삼촌은 아주 야무질 거 같아?)

102006 #1 야이 그때 집이 었어난 때지.(애 그때 집에 없었던 때지.)

102006 #2 나 그때 서울 간 살아 부난 사삼 나던 해에. 정월 명월 먹언에 서울 가 부난에 그 해 가을 드난 사삼이 난 거라. 계난 사삼은 피헛주게.(나 그때 서울 가서 살아 버리니까 사삼 나던 해에. 정월 명월 지내고 서울 가 버리니까 그 해 가을 드니까 사삼이 난 거야. 계난 사삼은 피헛지.)

102006 @ 사십칠 년쯤? 사십팔 년쯤?(사십칠 년쯤? 사십팔 년쯤?)

102006 #2 사삼 피허고 또 서울에 살당 또 내려올 무렵에 또 육이오가 날 무렵에 또 내려와 부난 육이오도 아이 당허고. 난 곳은 꼴을 안 뵈. 이레저레 피헛전. (사삼 피하고 또 서울에 살다가 또 내려올 무렵에 또 육이오가 날 무렵에 또 내려와 버리니까 육이오도 안 당하고. 난 곳은 꼴을 안 뵈어. 이리저리 피할 수 있었어.)

102006 @ 삼촌도 잊어서민 산에 갔겄다예?(삼촌도 있었으면 산에 갔겄네요?)

102006 #2 응. 나 여기 이신 때에, 이신 때에 우리 밤이 야간⁴⁸⁾ 다니는디 그때부터 흐뭇 뒤송송헛어.(응. 나 여기 있을 때에, 있을 때에 우리 밤에 야간 다니는디 그때부터 조금 뒤송송헛어.)

102006 #1 야, 느네 아버지네 산에 안 가 완?(야, 너희 아버지네 산에 안 갔다 왔어?)

102006 #2 무사 안 가 와게?(왜 안 갔다 와?)

102006 #1 가 완, 가 완.(갔다 왔어, 갔다 왔어.)

102006 @ 노형 사람덜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난. 정으로 무꺼져 노난 다.(노형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정으로 묶여 놓으니까 다.)

102006 #1 야이가 육지 가난 안 갓주.(애가 육지 가니까 안 갔지.)

102006 #2 나 혼자 육지 간 살아 부난 안 갓주, 우리 친정아버지넨 다 산에 간 살안.(나 혼자 육지 가서 살아 버리니까 안 갔지, 우리 친정아버지네는 다 산에 가서 살았어.)

102006 @ 아오야, 대단허다예. 무섭지 안헤마씨? 혼자만도 가고?(아이고, 대단하네요. 무섭지 않아요? 혼자만도 가고?)

102006 #1 아니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산에는 그때는이 막 그냥 줄 잊어근에

47) ‘남주봉’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48) 여기서 ‘야간’은 ‘야간 학교’를 말한다.

막 갓다리 왔다리, 갓다리 왔다리 이녁 집ㄴ추룩 그냥 해신디, 좀 틀린 사람 봐지민 서로가 막 해 줘. 빨리 가 불렌 허곡이 저레 왓텐 허곡 경 굴아 줘.(아니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산에는 그때는 마구 그냥 줄 있어서 마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기 집처럼 그냥 했는데, 좀 다른 사람 보이면 서로가 마구 해 줘. 빨리 가 버리라고 하고 저리 온다고 하고 그렇게 말해 줘.)

102006 @ 뭘 행 먹언마씨? 거기 강 밥을?(뭘 해서 먹었어요? 거기 가서 밥을?)

102006 #2 서로 연락덜 헛주게.(서로 연락들 했지.)

102006 #1 아이고.(아이고.)

102006 @ 솟도 짹어정 가?(솟도 짹어지고 가?)

102006 #1 솟이엔 현 건 무신 냄비덜이나 가정 가근에 저. 불 습는 것도이 멍겅냥 알아, 멍겅냥? 멍겅냥 물론 건이 연기가 안 나. 그것만 해당 짹어라. 멍겅냥.(솟이라고 하는 건 무슨 냄비들이나 가지고 가서 저. 불 때는 것도 청미래덩굴 알아,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마른 것은 연기가 안 나. 그것만 해당가 때더라. 청미래덩굴.)

102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6 #1 건 낮에 불 습아도 연기가 안 나. 멍겅냥만 해당근에.(건 낮에 불 때도 연기가 안 나. 청미래덩굴만 해당가.)

102006 #2 게난 산에서난게 연기만 나도 걸리카 부텐 못 허곡게.(그러니까 산에서니까 연기만 나도 걸릴까 봐 못 하고.)

102006 #1 짹을거 낭 그것만 막 해 와. 멍겅냥.(빨감 나무 그것만 마구 해 와. 청미래덩굴.)

102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6 #1 멍겅냥이 만허기도 해, 산에.(청미래덩굴이 많기도 해, 산에.)

102006 @ 세상에. 연기 안 피우젠.(세상에. 연기 안 피우려고.)

102006 #1 응. 연기 피우민 연기 따랑 와.(응. 연기 피우면 연기 따라서 와.)

102006 #2 연기, 연기 나민.(연기, 연기 나면.)

102006 #1 가만이 잇당이 연기만 봐, 아래서. 겐 잡아 오게.(가만히 있다가 연기만 봐, 아래서. 그래서 잡아 오도록.)

102006 @ 멍겅냥 연기 안 나마씨?(청미래덩굴 연기 안 나요?)

102006 #1 안 나. 연기 하나토 안 나.(안 나. 연기 하나도 안 나.)

102006 @ 아고야, 세상에.(아고, 세상에.)

102006 #1 멍겅냥 연기 하나토 안 나.(청미래덩굴 연기 하나도 안 나.)

102006 @ 겐 걸로 뭘 행 먹언마씨? 뭘 쌍 가? 좁쌀밥, 보리밥?(그래서 걸로 뭘 해서 먹어요? 뭘 싸서 가? 좁쌀밥, 보리밥?)

102006 #1 거기서도 주는 디가 있어. 아래 강 뭘 앓다당은에 갈라 주는 디가 있어. 배급 줘.(거기에서도 주는 데가 있어. 아래 가서 뭘 가져다가 나눠 주는 데가 있어. 배급 줘.)

102006 #2 배급식으로 줘실 테주.(배급식으로 줬을 테지.)

102006 #1 청년덜이. 게민 강.(청년들이. 그럼 가서.)

102006 @ 밥허는 사람 잇어실 거 아니?(밥하는 사람 있었을 거 아니?)

102006 #1 이녁냥으로, 주민게 아무것이나 행 먹지.(자기대로, 주민 아무것이나 해서 먹지.)

102006 @ 여자덜이 헛을 거 아니?(여자들이 헛을 거 아니?)

102006 #1 부모덜이 허지. 경허민 매 사름이, 혼 막에 세 사람, 세 살림 살릴 막을 멩글아. 집도 다 만들어 줘. 임시 영 굽영 덩기렌. 세 살림 ㄴ짜 살게 해 주민, 그 사름이 ㅎ나만 솟이 시민, 혼 사람만 해 나민, ㄴ짜 해. 이 사름 해 나민 또 허곡 또 허곡 행. 그 세 사름이 다 밥허는 게 없지게, 그릇이.(부모들이 하지. 그러면 매 사름이, 한 막에 세 사람, 세 살림 살게 할 막을 만들어. 집도 다 만들어 줘. 임시 이렇게 굽어서 다니라고. 세 살림 같이 살게 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만 솟이 있으면, 한 사람만 하고 나면, 같이 해. 이 사람 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 세 사람이 다 밥하는 게 없지, 그릇이.)

102006 #2 맞아.(맞아.)

102006 #1 경허민 해 나민 허곡, 해 나민 허곡. 경헌디 이 문○○이 할망이 막 잘행 살앗텐 해. 거 어멍은 간에 어멍 지금사 오난에.(그러면 하고 나면 하고, 하고 나면 하고. 그런데 이 문○○의 할머니가 아주 잘해서 살았다고 해. 거 어머니는 가서 어머니 지금에야 오니까.)

102006 #2 ○○이 할마니?(○○의 할머니?)

102006 #1 ○○이 각시.(○○의 각시.)

102006 #2 문○○이 각시.(문○○의 각시.)

102006 #1 그디가 그 어멍이 애기 낳게 똥난 올라강은에 아기 난게. 아덜 난게. 아덜 나난 아래서 청년덜 다올리난 다 가 분디 그 사람 하나만 지난 아기영 어멍이 영 다 죽여 불언게. 아긴 살리주, 아기 살령 뉘 허느냐만은이 왕 보난 산에 갓단 내려갓텐 해근에 내려갓젠 허민 영 큰 남을 세와 줘. 그 청년덜이 빗게 사는 사름덜이 있어. 경 행 왕 보난 아기영 어멍이영 다 죽여 불언게. 칼로 팍팍 찢렁 죽여 불었어.(거기가 그 어머니가 아기 낳게 되니까 올라가서 아기 낳았어. 아들 낳았어. 아들 낳으니까 아래서 청년들 쫓으니까 다 가 버렸는데 그 사람 하나만 있으니까 아기랑 어머니랑 다 죽여 버렸어. 아기는 살리지, 아기 살려서 뉘 하느냐만 와서 보니까 산에 갔다가 내려갔다고 해서 내려갔다고 하면 이렇게 큰 나무를 세워 줘. 그 청년들이 보초 서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아기랑 어머니랑 다 죽여 버렸어. 칼로 팍팍 찢려서 죽여 버렸어.)

102006 @ 삼촌 본 거? 보지 앓고 애기만 들언?(삼촌 본 거? 보지 앓고 애기만 들었어?)

102006 #1 아니, 애기 나니까 아래서 습격 완저 허난에이 산에 도망을 못 갓어. 애기 어멍이난. 게난 그디 산에 갓단 것들 다 내려가 부난 내려갓젠 해근에 청년덜

이 빗게 상 뭐 높은 냥을 세우민 거 뽕 내려와. 내려왕 보난 그 애기 난 어머하고 애길 죽여 텅 가 불언. 애기도 죽이고.(아니, 아기 낳으니까 아래서 습격 온다고 하니까 산에 도망을 못 갔어. 아기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산에 갔다가 것들 다 내려가 버리니까 내려갔다고 해서 청년들이 보초 서서 뭐 높은 나무를 세우면 거 봐서 내려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아기 낳은 어머니하고 아길 죽여 두고 가 버렸어. 아기도 죽이고.)

102006 #2 아래서가?(아래서가?)

102006 #1 아래서가. 경허난 ○○이가 어멍, 어멍이 ○○이영 그 ○○이 누이영 둘앙 땡견네. 어멍, 각시 죽어 부난 어멍이. 게가민 그 오라방이 어디 강사 해왔신디 좁쌀도 해 왕 좁쌀밥도 막 해영 먹고이, 좁쌀죽도 썰 먹고. 게민 우리 조케 어린 거난이 하웃하웃해 가민 우리 아버지가 영 보다근에 아주머니 그거 흔 숟가락만 줍서. 흔 숟가락만 줍서. 허민이 두어 숟갈 거렁 주민 거 먹고 해났어. 어디 강 해 왔신지 그 ○○이는 잘해 와. 지네 먹을 건 경. 게난 경 곶아. 저 사람은 산에 와도 아덜 잘 들이니까이 우리처럼 굶지 안헐젠. 겐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빌영은에, 손지 하웃하웃해 가민 죽 두어 숟갈 빌영. 좁쌀죽.(아래에서가. 그러니까 ○○이가 어머니, 어머니가 ○○이랑 그 ○○이 누이랑 데려서 다녔잖아. 어머니, 각시 죽어 버리니까 어머니. 그러면 그 오라버니가 어디 가서 하고 오는지 좁쌀도 해 와서 좁쌀밥도 마구 해서 먹고, 좁쌀죽도 썰서 먹고. 그럼 우리 조카 어린 거니까 기웃기웃해 가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다가 아주머니 그거 한 숟가락만 주세요. 한 숟가락만 주세요. 하면 두어 숟가락 떠서 주면 거 먹고 했었어. 어디 가서 해 오는지 그 ○○이는 잘해 와. 자기네 먹을 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저 사람은 산에 와도 아들 잘 들이니까 우리처럼 굶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빌어서, 손주 기웃기웃해 가면 죽 두어 숟가락 빌어서. 좁쌀죽.)

102006 @ 아이고, 진짜. 탄 사람덜은 뭘 먹고 주로 살안마씨, 보리쌀?(아이고, 진짜. 탄 사람들은 뭘 먹고 주로 살았어요, 보리쌀?)

102006 #1 보리로, 조로 가져왕 주민이, ㄴ레도 올라갓드라. ㄴ레로 영 곶으민 비시시시 막 나와. 나오민 그거 행 죽정⁴⁹⁾ 범벽정 허민 그거 먹으민 아이덜 똥 못 싸 또꼬망 막아. 그 체 느실양. 게민 우리 ○○이 또꼬망 두 번이나 막아났어.(보리로, 조로 가져와서 주면, 땃돌도 올라갓드라. 땃돌로 이렇게 갈면 비시시시 마구 나와. 나오면 그거 해서 ‘죽정’ 뒤엿켜서 하면 그거 먹으면 아이들 똥 못 싸서 똥구멍 막아. 그 겨 날카로워. 그럼 우리 ○○이 똥구멍 두 번이나 막았었어.)

102006 #2 체 서꺼진 거 행 먹어노난게.(겨 섞인 거 해서 먹으니까.)

102006 #1 게민이 굶으렌 해근에 그 곶쟁이가 있어, 검질매는 곶쟁이. 곶쟁이로 그 주위를 막 소곱에 걸, 딱딱헌 걸 파내민이 또 똥이 쪽 나와. 또꼬망으로. 그 도에 걸 파 불민.(그럼 굶으라고 해서 그 호미가 있어, 김매는 호미. 호미로 그 주위를 마구 속의 것을, 딱딱한 것을 파내면 또 똥이 쪽 나와. 똥구멍으로. 그 입구의

49) ‘죽지다’는 죽처럼 뒤엿킨 상태를 말한다.

것을 파 버리면.)

102006 @ 아이구,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6 #1 우리 조케가 경도 행 큰 아이가 있어.(우리 조카가 그렇게도 해서 큰 아이가 있어.)

102006 @ 케른 거기서 뭐 느멀도 엇고 송진이나 뭐 뭐 먹어난 기억 잇수과?(그럼 거기서 뭐 나물도 없고 송진이나 뭐 뭐 먹었던 기억 있습니까?)

102006 #1 봄 나 가난 멜순. 멜순 모르지? 멥게낭⁵⁰⁾에서 나오는 순이 있어. 것강은에 막 들어얏앙 막 해 와. 겐디 멥겟낭이 제일 하드라, 산에. 잘도 멥겟낭 많아. 그거 해당 그냥, 그거를 그냥 밥도 쌍 먹곡 국에도 넣 끓영 먹곡 멥게순, 멥게순. (봄 돼 가니까 밀나물. 밀나물 모르지? 청미래덩굴에서 나오는 순이 있어. 것을 가서 마구 들어얏아서 마구 해 와. 그런데 청미래덩굴이 제일 많더라, 산에. 아주 청미래덩굴이 많아. 그거 해다가 그냥, 그거를 그냥 밥도 싸서 먹고 국에도 넣어서 끓여서 먹고 ‘멥게순’, ‘멥게순’.)

102006 #2 멥게순 그거이 먹어지민 몸에 경 좋텐 허잖아.(‘멥게순’ 그것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

102006 #1 몸에 좋은 것보다도 굶으니까.(몸에 좋은 것보다도 굶으니까.)

102006 @ 하하하.(하하하.)

102006 #2 그 당시엔 굶언 먹엇주만은.(그 당시에는 굶어서 먹엇지만.)

102006 @ 몸에 좋주게.(몸에 좋지.)

102006 #2 어, 지금 막 약초 낭이 경 좋텐, 몸에.(어, 지금 아주 약초 나무가 그렇게 좋다고, 몸에.)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1 그거벧기 숭키가 없어.(그거밖에 푸성귀가 없어.)

102006 @ 그거벧기 엇어.(그거밖에 없어.)

102006 #1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래 나는 건 안 난 때 와 불언게. 나 갈 때 우리가 내려왔지. 봄 나난에.(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래 나는 건 안 난 때 와 버렸어. 나 갈 때 우리가 내려왔지. 봄 되니까.)

102006 #2 ○○인 부지런허고 쉼 사람이난 어디 강 먹을 거도 경 잘해났구나.(○이는 부지런하고 쉼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먹을 것도 그렇게 잘했었구나.)

102006 #1 그 쫄 거튼 거.(그 쌀 같은 거.)

102006 #2 게메.(그러게.)

102006 #1 훌떡훌떡허멍.(훌떡훌떡하면서.)

102006 @ 물은 또 허벅도 가져갔겠다예?(물은 또 ‘허벅’도 가져갔겠네요?)

102006 #1 어디 허벅⁵¹⁾이 있어게? 무스거로 그, 그 사는 디가이 빵 영 물 흙 신

50) ‘멥게낭’은 표준어의 ‘청미래덩굴’에 대응한다. ‘멜순’은 ‘밀나물’인데, 제보자는 ‘멜순’을 ‘청미래덩굴’의 순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밀나물’과 ‘청미래덩굴’은 모두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로 모양이 비슷하다. ‘밀나물’의 잎은 끝이 뾰족한 긴 달걀 모양인데, ‘청미래덩굴’은 원형이거나 넓은 타원형이다.

디만 강 집을 짓어.(어디 ‘허벅’이 있어? 뭐로 그, 그 사는 데가 봐서 이렇게 물 흠
있는 데만 가서 집을 지어.)

102006 #2 물 신 디만 짓어실 테주게.(물 있는 데만 지었을 테지.)

102006 #1 게민 강 거려 와. 무시걸로 강. 겐 늬 거려 오민 빌영도 먹고 또 거려
다 주기도 허곡게.(그럼 가서 떠 와. 뭐로 가서. 그리고 남이 떠 오면 빌려서도 먹
고 또 떠다 주기도 하고.)

102006 @ 허벅은 깨지카 부덴.(‘허벅’은 깨질까 봐.)

102006 #1 허벅, 허벅은 우리 가져가지도 못해.(‘허벅’, ‘허벅’은 우리 가져가지도
못해.)

102006 @ 이불은 가정 가고예?(이불은 가지고 가고요?)

102006 #1 이불 가정 간 사름 벨로 못 받.(이불 가지고 간 사람 별로 못 봤어.)

102006 @ 여름에 올라가니까?(여름에 올라가니까?)

102006 #2 가을에 가난.(가을에 가니까.)

102006 #1 가을에, 가을 흐뭇 지평 가진 가난디.(가을에, 가을 조금 깊어서 가진
가난데.)

102006 #2 늦은 가을에 가실 테주.(늦은 가을에 갔을 테지.)

102006 #1 산으로 산으로 가노난이 입을 거, 입을 거허고 먹을 거 흐뭇 정 가야
주게, 이불은 큰 거난게. 게곡이 올라갈 때 혼 멧 밤만 장 내려온덴 막 허난 올라가
주. 경 오래오래 산덴은 안 곱아.(산으로, 산으로 가니까 입을 거, 입을 거하고 먹을
거 조금 저서 가야지, 이불은 큰 거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 한 몇 밤만 자서 내려온
다고 마구 하니까 올라가지. 그렇게 오래오래 산다고는 안 말해.)

102006 @ 춤잡습니까?(춤잡습니까?)

102006 #1 그 심어가는 사름덜이.(그 잡아가는 사람들이.)

102006 #1 막 높으게 안 지서. 일로 테역이영 막 올려줘.(아주 높게 안 지어. 이
리로 잔디랑 마구 올려줘.)

102006 #2 높은 딴 우이서 보일 거난게. 그 안에서만.(높은 데는 위에서 보일 거
니까. 그 안에서만.)

102006 #1 곤작 상도 안 다녀. 집안에서 아이덜은 상 다니고 어른덜은 굽영 다니
지.(곧게 서서도 안 다녀. 집안에서 아이들은 서서 다니고 어른들은 굽어서 다니지.)

102006 @ 춤잔아?(춤잔아?)

102006 #1 경 노프게 안 짓어, 집이. 땅이 반은 파근에 들어앉앙 집 짓어근에 일
로 테역이영 막 올령.(그렇게 높게 안 지어, 집이. 땅 반은 파서 들어앉아서 집 지
어서 이리로 잔디랑 마구 올려서.)

102006 #2 노프민 우이서 보일 거난.(높으면 위에서 보일 거니까.)

102006 #1 게난 노프지 안해. 그 안에서만 영 행 영 행 다녀. 곤작 상도 안 다녀.
집 안에서. 아이덜은 상 다니고 어른덜 굽영 다니지.(그러니까 높지 않아. 그 안에

51)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녀. 곧게 서서도 안 다녀. 집 안에서. 아이들은 서서 다니고 어른들 굽어서 다니지.)

102006 @ 밤에 잘 땀 흘렀어.(밤에 잘 땀 흘렀어.)

102006 #1 막 추우면 으랏이 뭉쳐 자니까, 뭉쳐.(많이 추우면 여럿이 뭉쳐서 자니까, 뭉쳐서.)

102006 @ 불도 피우고?(불도 피우고?)

102006 #1 아이고, 불 못 피우지. 불 피우면 연기 나. 하나 사람으로 행 다 심어가 불지. 욱 듣지.(아이고, 불 못 피우지. 불 피우면 연기 나서. 한 사람으로 해서 다 잡아가 버리지. 욱 듣지.)

102006 #2 마음부터가 겁먹어노난 추운 줄도 몰라실 거라게.(마음부터가 겁먹으니까 추운 줄도 몰랐을 거야.)

102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6 #2 마음부터가 겁먹어노난게.(마음부터가 겁먹으니까.)

102006 @ 병 걸려 죽은 사람도 이실 건디.(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건데.)

102006 #1 ○○이 어머니 그 삭삭한 어른도 ○○이 아시 거 업영 바깥디만 살아신디 막 영 영 허명. 굶영 배고팠 울어 가민게 그 막에 사름덜은 애기 울민 자기네 꺼지 심어간덴 막 나가렌 욱허는데 나가민 어떻허여게?(○○이 어머니 그 삭삭한 어른도 ○○이 아우 거 업어서 밖에서만 살았는데 마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굶어서 배고파서 울어 가면 그 막에 사람들은 아기 울면 자기네까지 잡아간다고 마구 나가라고 욱하는데 나가면 어떡해?)

102006 #2 맞다게.(맞다.)

102006 #1 게난 배고프곡 굶곡 행 아래 왕 죽어 불고.(그러니까 배고프고 굶고 해서 아래 와서 죽어 버리고.)

102006 #2 배고프난 울엇주게.(배고프니까 울었지.)

102006 @ 그 애기도 죽고?(그 아기도 죽고?)

102006 #1 아래 왕 죽언. 내려완. 겐 그때 산에 갔다 온 애기덜 거자 죽언, 거자 죽언게. 아는 사름.(아래 와서 죽었어. 내려와서. 그래서 그때 산에 갔다 온 아기들 거의 죽었어, 거의 죽었어. 아는 사름.)

102006 @ 뭇 설짜리덜이 올라갓당 내려오난? 어린덜예?(뭇 살짜리들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어려서들요?)

102006 #2 어린 것덜 가노난게.(어린 것들 가니까.)

102006 #1 혼 세 설, 다섯 설짜리 다 죽어 불언.(한 세 살, 다섯 살짜리 다 죽어 버렸어.)

102006 #2 어린 가노난. 그 굶어나고게.(어려서 가니까. 그 굶었었고.)

102006 @ 살 수가 엇수다게.(살 수가 없습니다.)

102006 #2 살 수가 엇인 거라.(살 수가 없는 거야.)

102006 #1 우리 조카도 니 설짜리 죽었네. 니 설에 으섯 설에 두 설 묻이난. 으

셋 살 난 건 살고. ○○이도 아들 두 개더라. 두 개 나뉘더라.(우리 조카도 네 살짜리 죽었어. 네 살에 여섯 살에 두 살 만이니까. 여섯 살 난 건 살고. ○○이도 아들 두 개더라. 두 개 났었더라.)

102006 #2 음.(음.)

102006 #1 아덜 두 개 다 죽어 불고. 산에 갓당 살아온 애기덜 하나토 었어.(아들 두 개 다 죽어 버리고. 산에 갔다가 살아온 아기들 하나도 없어.)

102006 @ 그때 거기 남자덜은 거의 다 죽었다예?(그때 거기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네요?)

102006 #2 거의 죽었주.(거의 죽었지.)

102006 @ 게도 삼촌 아저씨라든가 누구네는 잘 그래도 뻘수다예. 나중에도 그 무신거 예비 검속해근에 또 막.(그래도 삼촌 아저씨라든가 누구네는 잘 그래도 뻘네요. 나중에도 그 뭐 예비 검속해서 또 마구.)

102006 #1 겐 또 심어강 막 죽게 맞안. 막 맞안, 막 죽게 살게 맞은디 흠뽀 이신 집이난 뭐 잘행 맥인, 맥인 모냥이라.(그래서 또 잡아가서 마구 죽게 맞았어. 마구 맞았어, 마구 죽게 살게 맞았는데 조금 있는 집이니까 뭐 잘해서 먹인, 먹인 모양이야.)

102006 @ 운명이다예.(운명이네요.)

102006 #1 또 그 우이 시아지방이 심어강은에 현디 우리 집 아방⁵²⁾ㄴ라 누게 연락 부짱게. 오랜. 흘루에 혼번씩 저 현병대 스무실에 해 둬서 산짓물⁵³⁾에 왔다 갓 닥 험덴. 계난에 ㄴ만이 영 사 시난에, 영 사 시난 지나가명 시게 하나 벗영 쥘렌 게. 성 올라가명 주난 그거 아전 왕 그거 폴아근에. 그 너븐드르⁵⁴⁾ ○○이네 ○○이네 그디 시난 막 뭐 내렌 잘도 때려렌. 경허난 그걸로 술 상 맥이고 빵 상 맥이고 행 살귀렌. 그 시게 폴앙. 경허난 술 사 맥이고. 빵 사 맥이고 그 시게 폴안 성 주난. 성은 형무소 간 죽어 불고.(또 그 위에 시아주버니가 잡아가서 했는데 우리 집 아버지에게 누가 연락 붙였어. 오라고. 하루에 한번씩 저 현병대 사무실에 해 두면서 ‘산짓물’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시게 하나 벗어서 주더라고. 형 올라가서 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팔아서. 그 ‘너븐드르’ ○○이네, ○○이네 거기 있으니까 마구 뭐 내라고 매우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술 사서 먹이고 빵 사서 먹이고 해서 살았다고. 그 시게 팔아서. 그러니까 술 사 먹이고. 빵 사 먹이고. 그 시게 팔아서 형 주니까. 형은 형무소 가서 죽어 버리고.)

102006 @ 찢찢, 삶과 죽음이예?(찢찢, 삶과 죽음이요?)

102006 #1 ○○이가 경 골안게. ○○는 돈 시난 돈 맥이난 매 덜 맞암젠. 경 안현 것덜은 막 맞암젠. ○○이도 잘도 맞앗데.(○○이가 그렇게 말하더라. ○○는 돈 있으니까 돈 먹이니까 매 덜 맞는다고. 그렇지 앓은 것들은 마구 맞는다고. ○○이

52)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53) ‘산짓물’은 제주시 건입동의 샘물 이름이다.

54) ‘너븐드르’는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도 매우 맞았다고.)

102006 #2 경혜부난 그 맞은 걸로 일 못 허영 경, 일 안 해 노난 스뭇 여편만 그 고생을 행 살았주게. 가이 살아온 말 들으난 기가 맥혀라, 진짜로.(그러니까 그 맞은 걸로 일 못 해서 그렇게, 일 안 해 놓으니까 사뭇 여편만 그 고생을 해서 살았지. 개 살아온 말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 진짜로.)

102006 #1 ○○이가 곧드라고 잘도 맞았젠. 계난 ○○는 돈 이시난.(○○이가 말하더라고 매우 맞았다고. 그러니까 ○○는 돈 있으니까.)

102006 @ 그 맞은 분은 지금 살아 계셔마씨?(그 맞은 분은 지금 살아 계세요?)

102006 #1 죽언, 죽언. ○○이도 죽고 ○○이도 죽고.(죽었어, 죽었어. ○○이도 죽고 ○○이도 죽고.)

102006 @ 억울행 어떻게?(억울해서 어떡해?)

102006 #1 또 ○○이도 죽고.(또 ○○이도 죽고.)

102006 @ 그거 한이라도 뭔가 기록으로 남겨근에 나중이라도 그거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그거 한이라도 뭔가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이라도 그거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102006 #1 아, 경은해도 살아근에 뭐 헌 때, 그 통에사 경 허주만은 헝뽀 넘어사민 그 원술 경 오래오래 가져집니까? 산 때까지.(아, 그래도 살아서 뭐 한 때, 그 통에야 그렇게 하지만 조금 넘어서면 그 원수를 그렇게 오래오래 가질 수 있습니까? 산 때까지.)

102006 @ 나쁜 짓 헌 사람들은 살았수과? 토벌대?(나쁜 짓 한 사람들은 살았습니까? 토벌대?)

102006 #2 다 죽언.(다 죽었어.)

102006 #1 다 죽언.(다 죽었어.)

102006 @ 거기도 다 죽고?(거기도 다 죽고?)

102006 #1 으.(으.)

102006 @ 순경이여 뭐여.(순경이야 뭐야.)

102006 #2 다 죽고.(다 죽고.)

102006 @ 그 자손덜은 잘행 사는 사름덜 잊지예?(그 자손들은 잘돼서 사는 사람들 잊지요?)

102006 #2 경해도 그 ○○이네.(그래도 그 ○○이네.)

102006 #1 잘 안 뵈텐 허드라.(잘 안 뵈었다고 하더라.)

102006 #2 ○○이네도 아이 뵈고게, 다.(○○이네도 안 되고, 다.)

102006 #1 ○○, ○○이네. ○○인 아예 아기 엇어 불고.(○○, ○○이네. ○○이는 아예 아기 없어 버리고.)

102006 @ 거기 순경에 부튼 디?(거기 순경에 붙은 데?)

102006 #1 아니, 우이 안 가 온 사름덜.(아니, 위에 안 갔다 온 사람들.)

102006 @ 으.(으.)

102006 #1 산에 안 가 오니까.(산에 안 갔다 오니까.)

102006 @ 계란 순경 쪽에 부튼 사람들?(그러니까 순경 쪽에 붙은 사람들?)

102006 #1 순경 펜이 펜이지. 경헌디 흥끔 지낭은에 해 가니까, 군인덜 잣다 왔다 해 가난 것이 었어져근에 혼 무데기 돼 불엇지.(순경 편이 편이지.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해 가니까, 군인들 잣다 왔다 해 가니까 것이 었어져서 한 무더기 돼 버렸지.)

102006 @ 게도 그 사람덜이 나중에 이 사람이 뭐 헛저, 뭐 헛저 막 나쁜 짓 헌 사람덜도 잇지예?(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뭐 했어, 뭐 했어 아주 나쁜 짓 한 사람들도 잇지요?)

102006 #1 그땐 이신디 산 사람이 었어, 이제.(그때는 있는데 산 사람이 었어, 이제.)

102006 @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나쁜 짓 행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돈을 모양 놔두난 자손덜은 더 잘 산텐마썸. 우리나라 현실이.(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나쁜 짓 해서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돈을 모아서 놔두니까 자손들은 더 잘 산대요. 우리나라 현실이.)

102006 #1 앓다, 거 텔레비에 나온 거 보난이 그 일본 할무니들 나이 하영 먹은 할무니들 잘도 이백 멧 명이렌 이백육십 명이렌.(아, 거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일본 할머니들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들 아주 이백 몇 명이라고 이백육십 명이라고.)

102006 @ 예, 다 잡아강 그추록.(예, 다 잡아가서 그처럼.)

102006 #1 이백육십 명이 지금 살아잇어이. 죽은 사람은 반. 그게 해결될 건가?(이백육십 명이 지금 살아잇어. 죽은 사람은 반. 그게 해결될 건가?)

102006 @ 그게 돈으로가 아니렌. 할망이 이제 구십 다 돼 가난 지금 일본에서 얼마 준텐 행 그걸로는, 돈 반앙은 명예회복은 안 해 주고 돈으로 지금. 잘못헛덴은 안 헌텐 지금. 징용을 안 헛덴. 개인이 다 해 갓덴 저추록 해 부난예.(그게 돈으로가 아니라고. 할머니가 이제 구십 다 돼 가니까 지금 일본에서 얼마 준다고 해서 그걸로는, 돈 받아서는 명예회복은 안 해 주고 돈으로 지금. 잘못했다고는 안 한다고 지금. 징용을 안 했다고. 개인이 다 해 잣다고 저처럼 해 버리니까요.)

102006 #2 으, 으.(으, 으.)

102006 @ 진실은 그거 아니주게.(진실은 그거 아니지.)

102006 #2 아니주게.(아니지.)

102006 @ 어쩔 수 었이 간 거주, 그거 돈 벌레 간 것과?(어쩔 수 없이 간 거지, 그거 돈 벌러 간 겁니까?)

102006 #2 아이, 어쩔 수 었인 게 아니고 완 꺾어 간젠 허난. 꺾어 간.(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와서 끌고 잣다고 하니까. 끌고 잣어.)

102006 @ 맞수다게. 말이 안 되는 소리덜.(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들.)

102006 #2 말이 안 돼주게. 꺾어 가 가난 그땐에 열다섯 설만 돼민 시집덜 보내

곡 막 헛주게.(말이 안 되지. 끌고 가 가니까 그때에 열다섯 살만 되면 시집들 보내고 막 했지.)

102006 @ 그게 진실이라마씨.(그게 진실이에요.)

102006 #2 으, 으. 우리가 그건 알주게, 우리가.(으, 으. 우리가 그건 알지, 우리가.)

102007 @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

102007 #1 중매결혼헐.(중매결혼했어.)

102007 #2 그 시절엔 다 중매주게.(그 시절에는 다 중매지.)

102007 @ 계도 다 알고 지내난 어떤 분은 또 연애도 가능했겠다예. 사주는 보셨습니까?(그래도 다 알고 지내니까 어떤 분은 또 연애도 가능했겠네요. 사주는 보셨습니까?)

102008 #1 몰라, 사주 봐신디 말아신디.(몰라, 사주 봤는지 말았는지.)

102009 @ 어른덜이 다.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하셨습니까? 뭐 কে, 이불?(어른들이 다.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하셨습니까? 뭐 কে, 이불?)

102009 #2 으, 무시거 이불이나베틀기 무시거 해 가.(으, 뭐 이불이나밖에 뭐 해 가.)

102009 @ 요강 또?(요강 또?)

102009 #1 요강은 꼭 해 줘.(요강은 꼭 해 줘.)

102009 #2 요강은 꼭 허여.(요강은 꼭 해.)

102009 #1 오줌 싸렌 해 줘신가? 요강에.(오줌 싸라고 해 줬는가? 요강에.)

102009 #2 것도 예방으로 헌 거라.(것도 예방으로 한 거야.)

102009 #1 쓸 담곡 썰 담곡 행.(쓸 담고 실 담고 해서.)

102009 #2 계난 쓸 담고 썰 담곡 허는 게 거 다 뜻이 잇언 헌 거라.(그러니까 쓸 담고 실 담고 하는 게 거 다 뜻이 있어서 한 거야.)

102009 @ 나이 든 할무니라도 이시민 물어봅서예.(나이 든 할머니라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102009 #1 나이 든 할무니, 우리가 질 나이 들었주, 어디?(나이 든 할머니, 우리가 제일 나이 들었지, 어디?)

102009 @ 구십 넘은 분 엇수과?(구십 넘은 분 없습니까?)

102009 #1 구십 넘은 어른.(구십 넘은 어른.)

102009 @ 저기 이십 직합디다. 월랑⁵⁵⁾에, 월랑에 구십 멧 난 할무니 뭐 조사 나 왔수다 허난 무슨 사삼 얘기만 허는 거라. 그 징그럽텐 허멍. 그 옛날 생각. 구십 멧 난 할무니 하나 이십디다.(저기 있음 직합디다. '월랑'에, '월랑'에 구십 멧 된 할머니 뭐 조사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사삼 얘기만 하는 거야. 그 징그럽다고 하면서.

55) '월랑'은 제주시 노형동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그 옛날 생각. 구십 몇 난 할머니 하나 있습니다.)

102009 #1 누겐고?(누구지?)

102009 @ 월랑에.(‘월랑’에.)

102009 #1 ○○ 어멍 님다.(○○ 어머니 같다.)

102009 #2 게메게.(글쎄.)

102009 @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아까 삼촌은 뭐 뭐 가져갔수과? 누가 해 줘 디가?(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아까 삼촌은 뭐 뭐 가져갔습니까? 누가 해 줬습니까?)

102009 #1 어머니가 해 줬지.(어머니가 해 줬지.)

102009 #2 어무니가 해 주지.(어머니가 해 주지.)

102009 #1 아이고, 이불 두 개, 요 험나.(아이고, 이불 두 개, 요 하나.)

102009 @ 그거허고?(그거하고?)

102009 #1 요강 험나, 베개 두 개.(요강 하나, 베개 두 개.)

102009 @ 베개 두 개. 하하하.(베개 두 개. 하하하.)

102009 #1 하하하.(하하하.)

102009 @ 켜 엇고?(켄는 없고?)

102009 #1 켜 엇고. 나 켄 안 해 켜. 아니, 헝 갖저, 헝 갖저.(켄는 없고. 나 켄 안 해 줬어. 아니, 해서 갖어, 해서 갖어.)

102009 #2 켄 안 해 줄 리가 셔?(켄 안 해 줄 리가 있어?)

102009 #1 서문시장에 강 우리 성님이 험나. 건 성님이 해 준 거 님다. 켄, 언니가 해 준 거 님다.(서문시장에 가서 우리 형님이 하나. 건 형님이 해 준 거 같아. 켄, 언니가 해 준 거 같다.)

102009 @ 아.(아.)

102009 #1 켄 헛저.(켄 했어.)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102010 #1 그냥 그 시집이 마당에 강 해연.(그냥 그 시집의 마당에 가서 했어.)

102010 @ 거기가 노형이파?(거기가 노형입니까?)

102010 #1 노형 아니.(노형 아니.)

102010 #2 옛날은 대개 마당에서 헛주게.(옛날은 대개 마당에서 했지.)

102010 @ 계난 시집 노형 분 아니? 신랑이?(그러니까 시집 노형 분 아니? 신랑이?)

102010 #1 으.(으.)

102010 @ 노형이 아니?(노형이 아니?)

102010 #1 나 팔자가 막 굳인 사름. 막 곴아가난 안 곴던 말도 막 나왓서.(나 팔자가 아주 굳은 사람. 막 말해 가니까 안 말하던 말도 막 나오고 있어.)

102010 @ 그러면 사진을 찍었습니까? 요전에 잇엇잖아예, 나중에 찍엇주만은.(그러면 사진을 찍었습니까? 요전에 잇엇잖아요, 나중에 찍엇지만.)

102010 #1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는 아방⁵⁶⁾이고. 나 시집가근에 혼 들도 안 살 양 군인 간 죽어 불언게.(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는 아버지고. 나 시집가서 한 달도 안 살고 군인 가서 죽어 버렸어.)

102010 @ 애기도 엇꼭?(아기도 없고?)

102010 #1 아이.(아이.)

102010 #2 혼 들도 안 산디 애긴 셔게?(한 달도 안 살았는데 아긴 있어?)

102010 #1 어린 때고 허난. 나 스물에 가신디. 시집.(어렸을 때고 하니까. 나 스물에 갔는데. 시집.)

102010 @ 아이고.(아이고.)

102010 #1 스물에 간에 그때가 섣달인가 십일월 달인가 모르크라. 그때 강 정월 열엿세날, 음력으로 열엿세날 군인 가 불언.(스물에 가서 그때가 섣달인가 십일월 달인가 모르겠어. 그때 가서 정월 열엿새, 음력으로 열엿새 군인 가 버렸어.)

102010 #2 참, 혼 털이나 살아신가?(참, 한 달이나 살았나?)

102010 #1 시집이 혼 세 번쯤 가진 거 님아. 그 사이에.(시집에 한 세 번쯤 간 거 같아. 그 사이에.)

102010 @ 많이 울었겠다예.(많이 울었겠네요.)

102010 #1 아기도 안 나고.(아기도 안 낳고.)

102010 @ 경행 집으로 돌아와 불언마씨? 친정집으로?(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친정집으로?)

102010 #1 으. 죽어 부니까게.(으. 죽어 버리니까.)

102010 @ 게민 그 집안은 자식이 엇는 거. 게도 동생덜은 있어, 시동생은?(그럼 그 집안은 자식이 없는 거. 그래도 동생들은 있어, 시동생은?)

102010 #1 아래영 우이영 행 나가 세 번째로 간.(아래랑 위랑 해서 내가 세 번째로 갔어.)

102010 @ 살기는 잘 살아?(살기는 잘 살아?)

102010 #2 기구나. 셋놈으로 간 거라?(그렇구나. 둘째로 간 거야?)

102010 #1 으.(으.)

102010 #2 그디도 셋이랏구나.(거기도 셋이었구나.)

102010 #1 살기는 잘 살아. 그 성은 일본 잇고이 아시도 이디 잇고 현디 중간에 봐지민 막 아주머니엔 허고이 날ㄱ라이. 아주머니엔. 혼번은 병원에서 보언게. 난 물론디 아주머니 해도. 이상허다. 나 몰르쿠과? 예구, 나 몰르큰게. 경허난 다끄네⁵⁷⁾ 아니과게. 계난 그뻘 캄짝헤져. 으라 번 보질 안허난게. 보지 안허연.(살기는 잘 살아. 그 형은 일본 잇고 아우도 여기 잇고 한테 중간에 보이면 막 아주머니라고 하고 나보고. 아주머니라고. 한번은 병원에서 보였어. 난 모르는데 아주머니 해도. 이상하다. 나 모르겠습니까? 예구,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끄네’ 아닙니까. 그

56)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57) ‘다끄네’는 제주시 용담동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러니까 그땐 깜짝해. 여러 번 보지 않으니까. 보지 않았어.)

102010 #2 게도 그런 디서 아는 척허난 것도 고마운 일이여이.(그래도 그런 데서 아는 체하니까 것도 고마운 일이야.)

102010 #1 아주머니, 영 허난 아이고 날ㄴ라 안 골암시카 부덴 영 영 혜영 막 보난이.(아주머니,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보고 안 말하고 있을까 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보니까.)

102010 @ 소설 같은 얘기들이다예.(소설 같은 얘기들이네요.)

102010 #1 영 영 보난 아주머니. 아이고, 어땜헐? 나 다끄네마씨. 경허난 깜짝해저라.(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니. 아이고, 어떡해서? 나 ‘다끄네’요. 그러니까 깜짝했어.)

102010 #2 게, 경 혜질 거주.(그래, 그렇게 할 거지.)

102010 @ 다끄네는 어디파?('다끄네'는 어디니까?)

102010 #2 저 비행장 앞 동네.(저 비행장 앞 동네.)

102010 @ 아, 거기가 다끄네.(아, 거기가 ‘다끄네’.)

102010 #1 금치락해저라게.(깜짝 놀랐어.)

102010 #2 금착해지주게. 게도 느 모른 척허민 모른 척함직해도이 아는 척허난.(깜짝 놀라지. 그래도 너 모른 척하면 모른 척함직해도 아는 척하니까.)

102010 #1 아예 몰란, 아예. 몰르크란게.(아예 몰랐어, 아예. 모르겠더라.)

102010 #2 몰르주게.(모르지.)

102010 #1 겐 장게간? 예. 헐게, 장게가귀렌.(그래서 장가갔어? 예. 하더라, 장가갔다고.)

102010 #2 장게간?(장가갔어.)

102010 @ 세상이라는 게예, 경행 집에, 노형에 오셨다가 또 이렇게?(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집에, 노형에 오셨다가 또 이렇게?)

102010 #2 으.(으.)

102012 @ 그럼 아이덜은 지금 아들 둘에 딸 몇?(그럼 아이들은 지금 아들 둘에 딸 몇?)

102012 #1 딸 셋, 셋.(딸 셋, 셋.)

102013 @ 아구, 그래도예.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어머니하고 싸우거나 이런 그런 건 엿수파?(아이고, 그대로요.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어머니하고 싸우거나 이런 그런 건 없습니까?)

102013 #1 난 시어머니영 혼번도 안 싸와 뵈. 혼번도.(난 시어머니랑 한번도 안 싸워 뵈어. 한번도.)

102013 #2 싸울 일이 셔게?(싸울 일이 있어?)

102013 #1 싸울 일이 엿지.(싸울 일이 없지.)

102013 @ 시집살이도 모질게 허는 사름 모질게 험디다. 사이가 안 좋젠 허민.(시집살이도 모질게 하는 사람 모질게 합니다. 사이가 안 좋으려고 하면.)

102013 #2 메뉴리 어떻 ㅁ음에 안 들엉 허민 미우민.(며느리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면 미우면.)

102013 @ 아니면 거기서 밥상 찰령 시누이 밥 먹이고 시동생 뭐 찰리고 고생하는.(아니면 거기서 밥상 차려서 시누이 밥 먹이고 시동생 뭐 차리고 고생하는.)

102013 #1 건 어릴 때, 아기덜 신 때에 장손으로 시집가민 경허주만은 다 시집가분 후제 가니까.(건 어릴 때, 아기들 있을 때에 장손으로 시집가면 그렇지만 다 시집가 버린 후에 가니까.)

102013 @ 게도 고생은 허잖아?(그래도 고생은 하잖아?)

102013 #1 고생 난 벨로 늑으로 생각허민 나 고생허명 산 편은 아니. 다른 사람덜 더 고생헌 사름도 많이 이시난. 흥품 집안이, 시집이가 이신 집이난. 이녁 거로 먹영 사니까.(고생 난 벨로 남으로 생각하면 나 고생하면서 산 편은 아니. 다른 사람들 더 고생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집안이, 시집이 있는 집이니까. 자기 거로 먹고 사니까.)

102013 #2 신 집안이난게.(있는 집안이니까.)

102013 #1 신 집안이난.(있는 집안이니까.)

102013 @ 경해도 밥해 먹는 건 다 똑같지 안허여. 불 숨고 뭐.(그래도 밥해 먹는 건 다 똑같지 않아. 불 때고 뭐.)

102013 #2 으.(으.)

102015 @ 메뉴리와 사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며느리와 사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15 #1 아직까지 못허는 게 엇어. 착해.(아직까지 못하는 게 없어. 착해.)

102015 @ 이밖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큰딸, 셋딸, 말젼딸 다 잘합니까?(이밖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큰딸, 둘째딸, 셋째딸 다 잘합니까?)

102015 #1 으, 아직꺼진 못허는 거 엇어. 다 잘 허는 폭이라.(으, 아직까지는 못하는 거 없어. 다 잘하는 편이야.)

102015 @ 사위덜도 착허여?(사위들도 착해?)

102015 #1 착허여.(착해.)

102015 @ 손지가 총 몇 명 웹수파? 웨손지, 성손지? 성손지는 세 명?(손주가 총 몇 명 됩니까? 외손주, 친손주? 친손주는 세 명?)

102015 #1 세 명. 우리 ○○이네 셋, 우리 ○○이네 둘, 다섯.(세 명. 우리 ○○이네 셋, 우리 ○○이네 둘, 다섯.)

102015 @ 아이고.(아이고.)

102015 #1 우리 ○○이네 세 개.(우리 ○○이네 세 개.)

102015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15 #1 으답.(여덟.)

102015 @ 으답에 셋 허면 열한 명?(여덟에 셋 하면 열한 명?)

102015 #1 우리 ○○이네 헉나 허민 아홉, ○○이네 둘에 허민.(우리 ○○이네 하나 하면 아홉, ○○이네 둘이 하면.)

102015 @ 열한 명.(열한 명.)

102015 #1 열헉나.(열하나.)

102015 @ 야, 삼촌 사삼 때 진짜 살아남으난 이런.(야, 삼촌 사삼 때 진짜 살아남으니까 이런.)

102015 #2 맞추게.(맞지.)

102015 @ 하하하.(하하하.)

102015 #1 열한 명사 한 건 아니지. 게도 아기, 우린 누계가 하영 나난 거주. ○○이가 셋, 서 오누이 나난 그거주.(열한 명이야 많은 건 아니지. 그래도 아기, 우린 누가 많이 낳으니까 거지. ○○이가 셋, 서 오누이 낳으니까 그거지.)

102015 #2 ○○이가 서 오누이 나난.(경숙이가 서 오누이 낳으니까.)

102015 #1 벌써 우리 ○○이 벌써 쉬게 돼시난.(벌써 우리 ○○이 벌써 쉬게 됐으니까.)

102015 #2 그렇지.(그렇지.)

102015 #1 삼 남매, 나 증손이 세 개라.(삼 남매, 나 증손이 세 개야.)

102015 @ 세상에. 대단허다예.(세상에 대단하네요.)

3. 밭일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지일 처음에, 보리농사 지젠 허민 질 옛날에는이 걸름이 아니고 콩을 갈았어, 콩. 콩을 갈아근에 칠월 그물어 가면은이, 음력 칠월 그물어 가면은이 그 콩을 비연 고랑에 짹짹 깔아. 거름으로 짹짹 깔아. 밭 헉나 전부를 깔아. 경헉 그거 깔아 낱.(제일 처음에, 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제일 옛날에 거름이 아니고 콩을 갈았어, 콩. 콩을 갈아서 칠월 저물어 가면, 음력 칠월 저물어 가면 그 콩을 베어서 고랑에 짹짹 깔아. 거름으로 짹짹 깔아. 밭 하나 전부를 깔아. 그래서 그거 깔아 놔서.)

103002 #2 갈아.(갈아.)

103002 #1 소로 갈아. 거 묻어지게, 묻어지게 갈앙 그걸 썩여. 그걸 썩으면은 딱 시 이제 소걸름을 이제 벤소레, 통시엔 허여 우린. 통시레 막 영 갖다 놔. 갖다당 도새기가 막 불랑은에 똥을 싸. 게민 것이 이제 일 년이 되어, 일 년이 돼민 가을 들민 걸 내쳐. 내치민⁵⁸ 이제 물 빠져. 물 빠지민 그 걸름물 빠지민 밭디 시꺼다 놔. 게민 시꺼다 낱 막.(소로 갈아. 거 묻히게, 묻히게 갈아서 그걸 썩여. 그걸 썩으

면 또 이제 소두엄을 이제 변소에, 돼지우리라고 해 우린. 돼지우리에 마구 이렇게 갖다 놔. 가져다가 돼지 마구 밟아서 똥을 싸. 그럼 것이 이제 일 년이 되어, 일 년이 되면 가을 되면 그걸 ‘내치면’ 이제 물 빠져. 물 빠지면 그 거름물 빠지면 밭에 실어다 놔. 그럼 실어다 놓고 마구.)

103002 #2 뿌려근에.(뿌려서.)

103002 #1 뿌려. 경행 씨 뿌려. 씨 뿌령 이제 갈아. 게민 보리야. 거름을 경 옛날엔 경행 허민 거름이 이만이 막 나고 경 좋아.(뿌려. 그래서 씨 뿌려. 씨 뿌려서 이제 갈아. 그럼 보리야. 거름을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거름이 이만큼 마구 나고 그렇게 좋아.)

103002 #2 비료가, 비료가 없을 때니까.(비료가, 비료가 없을 때니까.)

103002 #1 비료 없으니까 콩으로 허곡. 소똥, 도새기 똥으로 걸름허고.(비료 없으니까 콩으로 하고. 소똥, 돼지 똥으로 거름하고.)

103002 @ 다 마을마다 틀리다예? 노형은 경.(다 마을마다 다르네요? 노형은 그렇게.)

103002 #1 그래.(그래.)

103002 @ 지금은 콩 비싸고?(지금은 콩 비싸고?)

103002 #1 옛날에만게.(옛날에만.)

103002 @ 옛날에.(옛날에.)

103002 #1 옛날에. 우리도, 나도 콩을 경 헛어.(옛날에. 우리도, 나도 콩을 그렇게 헛어.)

103002 #2 우리도 경 해난.(우리도 그렇게 헛었어.)

103002 #1 콩 메여근에 고랑에 깔린 해. 고랑에 짹 짹 깔아 낱.(콩 매서 고랑에 깔라고 해. 고랑에 짹 짹 깔아 놔서.)

103002 #2 겐 갈앙 콩을 더퍼 놔야 거 썩엉 거름이 되기 때문에.(그렇게 갈아서 콩을 덮어 놔야 거 썩어서 거름이 되기 때문에.)

103002 #1 그것이.(그것이.)

103002 @ 콩깍지만이 아니고 콩 자체도 다.(콩깍지만이 아니고 콩 자체도 다.)

103002 #2 예, 다.(예, 다.)

103002 #1 콩깍지 안 헛 때.(콩깍지 안 했을 때.)

103002 @ 보리를 위해서 콩을 장만해영 다 버려 버리는구나예? 다 썩히는구나예?(보리를 위해서 콩을 장만해서 다 버려 버리는군요? 다 썩히는군요?)

103002 #1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콩 갈앙.(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콩 갈아서.)

103002 #2 그것이 열기 전에. 각메기 열기, 부르기 전에.(그것이 열기 전에. ‘각메기’ 열기, 불기 전에.)

103002 #1 걸름으로, 걸름으로.(거름으로, 거름으로.)

58) ‘내치다’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나가게 하다는 의미다.

103002 #2 이파리 막 헐 때.(잎 막 할 때.)

103002 #1 콩으로 고장도 안 핀 때에.(콩으로 꽃도 안 피었을 때에.)

103002 @ 고장도 안 필 때?(꽃도 안 필 때?)

103002 #1 걸름이야 건.(거름이야 건.)

103002 #2 걸름 돼게,(거름 되게.)

103002 @ 나는 콩 다 낱?(나는 콩 다 나서?)

103002 #1 아이, 아니.(아니, 아니.)

103002 @ 가을에 나는 거난.(가을에 나는 거니까.)

103002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02 #1 칠월달에. 칠월달에 영 비워 낱 거 밧 갈앙 낱 콩을 썩여.(칠월에. 칠월에 이렇게 부어 놓고 거 밧 갈아서 놔서 콩을 썩여.)

103003 @ 세상에. 그른 보리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추름.(세상에. 그른 보리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처럼.)

103003 #1 걸름 마련할 때는 그 걸름이 소 메민이 소똥 싸잖아. 똥 싸면 그 출맥인 거 영허민 그 똥 싹 거를 도새기통시에 갖다 낱, 담아 낱, 담아 놓은 도새기가 밟으잖아. 밟으곡 자기도 똥 싸곡. 경허민 그것이 걸름이지.(거름 마련할 때는 그 거름이 소 매면 소똥 싸잖아. 똥 싸면 그 꼴 먹인 거 이르면 그 똥 싹 거를 돼지 우리에 갖다 놔서, 담아 놔서, 담아 놓으면 돼지가 밟잖아. 밟고 자기도 똥 싸고. 그러면 그것이 거름이지.)

103003 #2 경헨 거름 만들앙.(그래서 거름 만들어서.)

103003 #1 것이 보리에 거름이지.(것이 보리의 거름이지.)

103003 @ 가을에?(가을에?)

103004 #1 으, 경허영 그 거름 허영 보리 갈앙 보릴 비민, 보리 다시 비어. 비면은 혼번 갈앙 어퍼. 어프면은 흥곰 또 이따근에 그 보리 줄기가 좀 삭아. 삭으면 또 갈앙 조, 조씨 빼영은에 밟아. 조, 줍쌀 잇잖아. 줍쌀.(으, 그렇게 그 거름 해서 보리 갈아서 보리를 베면, 보리 다시 베어. 베면 한번 갈아서 얹어. 얹으면 조금 또 이따 그 보리 줄기가 좀 삭아. 삭으면 또 갈아서 조, 조씨 뿌려서 밟아. 조, 줍쌀 잇잖아. 줍쌀.)

103004 @ 아, 조 그게 몇 월 텅니까?(아, 조 그게 몇 월 텅니까?)

103004 #2 오월달에.(오월에.)

103004 @ 아, 유월에?(아, 유월에?)

103004 #1 오월, 오월.(오월, 오월.)

103004 @ 오월.(오월.)

103004 #2 유월은 나민 검질메고 오월달에, 오월달에.(유월은 되면 김매고 오월에, 오월에.)

103004 #2 오월달에.(오월에.)

103004 @ 보리헤난 그 보리낭쟁이를?(보리했던 그 보릿대를?)

103004 #2 예.(예.)

103004 #1 보리 비어난 그땐에 조 가는 거. 조 가는 거. 거 절기로 가. 절기로 강
은에 절기가 일르면.(보리 베었던 그땐에 조 가는 거. 조 가는 거. 거 절기로 가. 절
기로 가서 절기가 이르면.)

<전화>

103004 @ 조가 봄에 허는 게 아니고?(조가 봄에 하는 게 아니고?)

103004 #2 예, 여름에, 여름에.(예, 여름에, 여름에.)

103004 @ 거의 여름에 들어가는 거구나예?(거의 여름에 들어가는 거군요?)

103004 #2 예.(예.)

103004 @ 게문 보리 고고리는 다 거뒀들이고.(그럼 보리 이삭은 다 거뒀들이고.)

103004 #2 예.(예.)

103004 @ 그 보리낭쟁이?(그 보릿대?)

103004 #1 거뒀들이고 보리낭쟁이 낄었다근에 그냥 검질로 막 불 습아. 불 때
여.(거뒀들이고 보릿대는 가렸다가 그냥 검불로 마구 불 때. 불 때.)

103004 #2 보릿대로 불 때여.(보릿대로 불 때.)

103004 #1 옛날엔 불 때영 밥행 먹어.(옛날에는 불 때서 밥해서 먹어.)

103004 #2 건 땔감, 땔감. 보릿대.(건 땔감, 땔감. 보릿대.)

103004 #1 으.(으.)

103004 @ 보리 거름을 그렇게 해서 마련행 보리밭 걸름, 누가 그거를 또 다
뒀?(보리 거름을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보리밭 거름, 누가 그거를 또 다 뒀?)

103004 #1 잇는 집에는 사람 사서 허지. 우리대로, 없는 사람은 자기대로 막 해.
자식도 시키고, 어명도 허곡 아방도 허곡. 잇는 집인 사람 사서 허지.(잇는 집에는
사람 사서 하지. 우리대로, 없는 사람은 자기대로 마구 해. 자식도 시키고, 어머니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잇는 집의 사람 사서 하지.)

103004 #2 게난 옛날은 밭디 강 검질 뽑았으니까.(그러니까 옛날은 밭에 가서 검
뽑았으니까.)

103004 #1 학교도 안 시켜. 학교 가는 시간이 없어.(학교도 안 시켜. 학교 가는
시간이 없어.)

103004 #2 학교 갈 시간이 없어.(학교 갈 시간이 없어.)

103004 #1 저기 저 가을 들어 가민 좀 밤에가 길어 가면 밤에 야학.(저기 저 가
을 들어 가면 좀 밤이 길어 가면 밤에 야학.)

103004 @ 야학.(야학.)

103004 #1 야학이나 혼 땀 들간만 밤에.(야학이나 한 몇 달간만 밤에.)

103004 #2 농한기에만.(농한기에만.)

103004 #1 것도이 내내 안 허고이. 겨울, 가을 늦어 가민 가을서부터.(것도 내내
안 하고. 겨울, 가을 늦어 가면 가을에서부터.)

103004 #2 겨울 석 달만.(겨울 석 달만.)

103004 #1 봄이까지만 봄이까지만 해.(봄까지만 봄까지만 해.)

103004 @ 야학을?(야학을?)

103004 #1 야학을.(야학을.)

103004 #2 겨울 삼 개월만. 농한기.(겨울 삼 개월만. 농한기.)

103004 #1 것도 일 년 내내 허민 좋지.(것도 일 년 내내 하면 좋지.)

103004 #2 농번기엔 못허고, 농한기에만.(농번기라고 못하고, 농한기에만.)

103004 @ 게민 삼촌네 두 분은 한 살 못이난 자꾸 봐놔수과, 어릴 때도?(그럼 삼촌네 두 분은 한 살 만이니까 자꾸 봤었습니까, 어릴 때도?)

103004 #2 예.(예.)

103004 #1 ㄴ찌 살았지. 우알 동네야.(같이 살았지. 위아래 동네야.)

103004 @ 세상에.(세상에.)

103004 #1 이제는 막 ㄴ찌, ㄴ찌 허난. 옛날엔이 요디라도 요건 웃동네 요건 알 동네 해.(이제는 마구 같이, 같이 하니까. 옛날에는 여기라도 요건 윗동네 요건 아랫동네 해.)

103004 @ 두 분 다 똑똑하셨을 거 다했어?(두 분 다 똑똑하셨을 거 같아요?)

103004 #1 아니, 똑똑허지도 안허고 그냥.(아니, 똑똑하지 않고 그냥.)

103004 #2 아이고, 똑똑허고 무싱거고 옛날에 우리 커 올 때야 무신. 아이구, 진짜로 야간도 참 우리 아부진 야간도 안 보내 주켄.(아이고, 똑똑하고 뭐고 옛날에 우리 커 올 때야 무슨. 아이고, 진짜로 야간도 참 우리 아버지는 야간도 안 보내 주겠다고.)

103004 @ 일본도 안 가고?(일본도 안 가고?)

103004 #1 일본 가민 좋지. 그때 시절 일본 간 사람은.(일본 가면 좋지. 그때 시절 일본 간 사람은.)

103004 @ 겐 여기에서만 살았수과?(그래서 여기에서만 살았습니까?)

103004 #1 으, 여기서.(으, 여기서.)

103004 @ 여기 남자 또 만나고?(여기 남자 또 만나고?)

103004 #2 일본 가시민 돈 벌엇주게.(일본 갔으면 돈 벌었지.)

103004 @ 여기 남자 정해 주면은 그냥 결혼행 여기 살고?(여기 남자 정해 주면 그냥 결혼해서 여기 살고?)

103004 #1 으, 그렇지.(으, 그렇지.)

103004 @ 그런 경우도?(그런 경우도?)

103004 #1 아니, 우리 나인 다 경헛어 우리 나이 흥뽀 잇당 간 사람은 자기대로 연애도 허곡 뭐 허주만은이 우리 팔십 넘었으니까 그때가 어느 때요. 하하하.(아니, 우리 나이는 다 그랬어, 우리 나이 조금 있다가 간 사람은 자기대로 연애도 하고 뭐 하지만 우리 팔십 넘었으니까 그때가 어느 때요. 하하하.)

103004 #2 우리 연세 팔십ㄴ진 다 경헛 갖어.(우리 연세 팔십까지는 다 그렇게 갖어.)

103004 @ 아이고.(아이고.)

103004 #1 부모네가 여기 가렌 허민 나빠도 좋아도 가야지. 뭐 언제 한번 뭐 얼굴 보고 말곤고 행 갑니까?(부모네가 여기 가라고 하면 나빠도 좋아도 가야지. 뭐 언제 한번 뭐 얼굴 보고 말하고 해서 갑니까?)

103004 @ 게도 다행이우다. 사삼 때 막 곱닥헤실 건디.(그래도 다행입니다. 사삼 때 아주 고왔을 텐데.)

103004 #1 곱닥허긴 뭐.(곱긴 뭐.)

103004 @ 베라벨 인생덜이 다 이십테다게.(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습니다.)

103004 #2 맨날 밧디 강 일만 허는디 고을 게 뭐 잇나게? 고을 게. 에이고.(맨날 밧에 가서 일만 하는데 고을 게 뭐 있나? 고을 게. 아이고.)

103004 #1 그때는 세숫비누도 없어. 그냥 세수해. 물에다 그냥.(그때는 세숫비누도 없어. 그냥 세수해. 물에다 그냥.)

103004 #2 세숫비누가 어디 시니?(세숫비누가 어디 있니?)

103004 #1 세숫비누도 없어.(세숫비누도 없어.)

103004 @ 제주도분치고는 피부가 하얗하니까.(제주도분치고는 피부가 하얗니까.)

103004 #1 세숫비누 잇엉 세수하는 사람은 일본 강 온 사람이나. 나도 일본 갔다 오난 우리 큰 사촌 아주망이 수건 하나 비누 하나 주난, 그 비누로 씻지를 못해. 아까왕. 얼굴도 못 시쳐, 아까왕 보기만 해. 수건 하나 비누 하나 주난. 처음에 일본서 완. 그 생각이 나.(세숫비누 있어서 세수하는 사람은 일본 가서 온 사람이나. 나도 일본 갔다 오니까 우리 큰 사촌 아주머니가 수건 하나 비누 하나 주니까, 그 비누로 씻지를 못해. 아까워서. 얼굴도 못 씻어, 아까워서 보기만 해. 수건 하나 비누 하나 주니까. 처음에 일본에서 와서. 그 생각이 나.)

103004 @ 아유, 정정해근에 말씀도 잘하시고.(아휴, 정정해서 말씀도 잘하시고.)

103004 #1 그 생각이 나. 젠디 우리 언니는 나 것도 막 앗앙 시쳐 불곡.(그 생각이 나. 그런데 우리 언니는 내 것도 막 가져서 씻어 버리고.)

103004 #2 너네 언닌 잘도 뽀쟁이⁵⁹⁾라났어.(너희 언니는 아주 ‘뽀쟁이’였어.)

103004 #1 칠 년 차이니까이. 우리 언니는 그 사이에 하나 죽어 불었어. 우리 언니 하나. 나가 곱정 놔두민 앗아근에, 비누 써 나민 알아지잖아. 깨끗허영. 그거 생각나.(칠 년 차이니까. 우리 언니는 그 사이에 하나 죽어 버렸어. 우리 언니 하나. 내가 숨겨서 놔두면 가져서, 비누 쓰고 나면 알 수 있잖아. 깨끗해서. 그거 생각나.)

103005 @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1 보리씨는이 옛날에 짬으로 줄은 망탱이가 있어. 끈 행 이렇게 들앙.(보리씨는 옛날에 짬으로 결은 망태기가 있어. 끈 해서 이렇게 달아서.)

103005 @ 으, 씨망탱이⁶⁰⁾.(으, ‘씨망탱이’.)

59) ‘뽀쟁이’는 밧 부리는 것을 좋아하거나 밧을 잘 부리는 사람을 말한다.

60) ‘씨망탱이’는 짬으로 둥그스름하게 엮어 아가리를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해서 목이 있게 만든 작은 먹등구미로 씨앗을 넣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씨앗 주머니이다. ‘씨맹탱이’, ‘씨부게기, 씨부게, 부게기’라고도 한다.

103005 #2 벗집, 벗집을 째 그 요만현.(벗짚, 벗짚을 째 그 요만현.)

103005 @ 벗집?(벗짚?)

103005 #1 벗집으로 짜는 망텡이라고 있어.(벗짚으로 짜는 망태기라고 있어.)

103005 #2 남저덜이 줄아.(남자들이 걸어.)

103005 #1 씨망텡이라고.(‘씨망텡이’라고.)

103005 #2 건 메여근에. 독지에 걸러멧 이렇게.(건 매서. 어깨에 걸쳐서 이렇게.)

103005 #1 한꺼번에 이 고랑을 두 고랑씩 잡아. 두 고랑씩 잡아 짹 짹 빼어 가.
(한꺼번에 이 고랑을 두 고랑씩 잡아. 두 고랑씩 잡고 짹 짹 뿌려 가.)

103005 #2 영 해근에 영. 영 해근에 영.(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3005 #1 잘하는 사람은 이거 이만이도 잡아, 쓱쓱 허고. 우리 아버지는이 서
틀어. 우리 아버진 옛날에 한문만 현 어른이라. 요것만 줄 줄 뜨게, 뜨게. 헤헤 게
민.(잘하는 사람은 이거 이만큼도 잡아, 쓱쓱 하고. 우리 아버지는 서틀러. 우리 아
버진 옛날에 한문만 한 어른이야. 요것만 줄 줄 뜨게, 뜨게. 헤헤 그림.)

103005 #2 겐디 그것도이 우리 아버지도 그 일본 강 살앙 그걸 일을 안 해나니
까 막 정성 들영 썰 뿌려이.(그런데 그것도 우리 아버지도 그 일본 가서 살아서 그
걸 일을 안 했어서 아주 정성 들여서 썰 뿌려.)

103005 #1 게메.(글썸.)

103005 #2 요 고지 두 고지만 잡아근에 경 정성 들영 뿌려도이 낭 보민 똑 밧
가운데 들라정, 반쯤은 들라지더라게.(요 이랑 두 이랑만 잡아서 그렇게 정성 들여
서 뿌려도 나서 보면 똑 가운데 떼어져. 반쯤은 떼어지더라.)

103005 #1 어.(어.)

103005 #1 요거 흥난 안 빼영 내부는 디도 잇고이. 더러 빼영.(요거 하난 안 뿌
려서 내버리는 데도 있고. 덜 뿌려서.)

103005 #2 겐디 우리 어머니는 그디 이거 두 고질 안 잡아. 그냥 그레 들어상 작
작 뿌리고 저레 들어상 작작 뿌리고. 막 영 뿌려도이 그런 디가 없어. 하이고, 경허
더라게.(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거기 이거 두 이랑을 안 잡아. 그냥 그리 들어서서
작작 뿌리고 저리 들어서서 작작 뿌리고. 아주 이렇게 뿌려서도 그런 데가 없어. 하
이고, 그러더라.)

103005 @ 어머니가 더 잘했다는 거지예?(어머니가 더 잘했다는 거지요?)

103005 #1 게난 아버지는 어릴 때 그 일본 강 살멍 잘 연습을 못 현 거지.(그러
니까 아버지는 어릴 때 그 일본 가서 살면서 잘 연습을 못 한 거지.)

103005 #2 우리 어머니도 저 딸이니까 무조건 해 봤던 거라. 한림이주만은 경
우리 어머니 경 이렇게 고질 영 잡지 안행 그레 돌아상 작작 저레 돌아상 영 막 뿌
리곡 해도이 그런 디가 없더라고.(우리 어머니도 저 딸이니까 무조건 해 봤던 거
야. 한림이지만 그렇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이렇게 이랑을 이렇게 잡지 았고 그리
돌아서서 작작 저리 돌아서서 이렇게 막 뿌리고 해도 그런 데가 없더라고.)

103005 #1 우리 어머니 경 안 해봤어. 아버지가 허긴 다 해.(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 해봤어. 아버지가 하긴 다 해.)

103006 @ 원래는 남자가 뿌리는 건디 이젠 여자가 다 잘해 불었구나. 세상에, 그 큰 보리씨는 경 뿌리고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리 종류?(원래는 남자가 뿌리는 건디 이제는 여자가 다 잘해 버렸구나. 세상에, 그럼 보리씨는 그렇게 뿌리고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리 종류?)

103006 #1 보리 종류가이 이제 세 가지야.(보리 종류가 이제 세 가지야.)

103006 @ 세 가지.(세 가지.)

103006 #1 곶보리, 줄보리, 쌀보리.(곶보리, ‘줄보리’, 쌀보리.)

103006 @ 아.(아.)

103006 #2 맥주보리도 잇저.(맥주보리도 있어.)

103006 #1 줄보리가 맥주보리지.(‘줄보리’가 맥주보리지.)

103006 #2 응. 줄보리도 잇고, 검정 보리도 잇고, 보리가 여러 가지라.(응. ‘줄보리’도 잇고, 검정 보리도 잇고, 보리가 여러 가지야.)

103006 #1 검정 보리 난 땐 얼마 안 땀어.(검정 보리 난 때는 얼마 안 땀어.)

103006 #2 으, 검정 보리 난 땐 얼마 안 땀.(으, 검정 보리 난 때는 얼마 안 땀.)

103006 #1 한 혼 십 년, 십 년은 더 땀다이. 검정 보리.(한 혼 십 년, 십 년은 더 땀다. 검정 보리.)

103006 #2 십 년 더 땀지이.(십 년 더 땀지.)

103006 @ 줄보리.(‘줄보리’.)

103006 #1 으.(으.)

103006 @ 솔보리.(쌀보리.)

103006 #2 솔보리.(쌀보리.)

103006 #1 곶보리.(곶보리.)

103006 @ 곶보리예? 주로 먹는 보리가 솔보리?(곶보리요? 주로 먹는 보리가 쌀보리?)

103006 #1 어.(어.)

103006 @ 곶보리 뭐허는 것과?(곶보리 뭐하는 겁니까?)

103006 #1 곶보리 처음에 솔보리가 나중에 났어. 맨 처음엔 곶보리만 났어. 맨 처음에는.(곶보리 처음에 쌀보리가 나중에 났어. 맨 처음에는 곶보리만 났어. 맨 처음에는.)

103006 #2 맨 처음에 곶보리만.(맨 처음에 곶보리만.)

103006 #1 한쪽만.(한쪽만.)

103006 @ 한쪽만예?(한쪽만요?)

103006 #2 중간에 거 쌀보리엔 현 거 중간에 나온 거. 맥주보리는 중간에 나온 거. 맥주보리는 지금 맥주허는 보리.(중간에 거 쌀보리라고 하는 거 중간에 나온 거. 맥주보리는 중간에 나온 거. 맥주보리는 지금 맥주하는 보리.)

103006 #1 지금 맥주 담그는 보리.(지금 맥주 담그는 보리.)

103006 @ 예. 겉보리는 어렸을 때도 잇었지예?(예. 겉보리는 어렸을 때도 있었지요?)

103006 #2 예예. 맨 처음에부터.(예예. 맨 처음에부터.)

103006 #1 질 처음에부터, 겉보리가 무정해⁶¹⁾.(제일 처음에부터, 겉보리가 ‘무정해’.)

103006 @ 무정해예?(‘무정해요’?)

103006 #1 지일 무정해. 겐디 밥허민 막 거칠어.(제일 ‘무정해’. 그런데 밥하면 아주 거칠어.)

103006 @ 밥허민 거칠어?(밥하면 거칠어?)

103006 #1 겉보리가 막 부트는 게 잇어근에 까락까락해근에.(겉보리가 막 붙는 게 있어서 까끌까끌해.)

103006 @ 그믐 나중엔 다 솔보리 헛수과?(그믐 나중에는 다 쌀보리 했습니까?)

103006 #1 겉보리 안 허고.(겉보리 안 하고.)

103006 @ 안 허고.(안 하고.)

103006 #1 나중엔 겉보린 제외하고 줄보리, 살보리만 갈았지.(나중에는 겉보리는 제외하고 ‘줄보리’, 쌀보리만 갈았지.)

103006 @ 아, 줄보리 솔보리만.(아, ‘줄보리’ 쌀보리만.)

103006 #2 줄보린 지금 맥주보리.(‘줄보리’는 지금 맥주보리.)

103006 @ 맥주보리예. 나도 어렸을 땐 보리 방학도 허고예.(맥주보리요. 나도 어렸을 때 보리 방학도 하고요.)

103006 #1 농촌에 혼 집에 보리 멧 가마 안 현 때 바치렌 헐 때는 맥주보리 많이 갈았지. 맥주보리가이 무게가 잘 나가.(농촌에 한 집에 보리 멧 가마 안 할 때 바치라고 할 때는 맥주보리 많이 갈았지. 맥주보리가 무게가 잘 나가.)

103006 @ 아.(아.)

103006 #1 알맹이가 커. 겉보리보다.(알맹이가 커. 겉보리보다.)

103006 #2 무게도 잘 나감 뿐더러 거 맥주공장에 들이젠, 맥주보리덜 막 행 바치고 헛네. 웨정 때.(무게도 잘 나갈 뿐더러 거 맥주공장에 들이려고, 맥주보리들 마구 해서 바치라고 했어. 왜정 때.)

103006 #1 웨정 때 막 그거 바칠 때.(왜정 때 마구 그거 바칠 때.)

103006 @ 웨정 때 공출을 이걸로 허렌 막 헛구나?(왜정 때 공출을 이걸로 하라고 마구 헛구나?)

103006 #2 예, 예. 공출 많이 해난. 웨정 때 공출 안 해난 게 없어. 목화도 헛지. 감저뻬테기도 헛지.(예, 예. 공출 많이 했었어. 왜정 때 공출 안 했던 게 없어. 목화도 헛지. 절간고구마도 헛지.)

103006 #1 그 머윗대도 헛어, 우리.(그 머윗대도 헛어, 우리.)

61) ‘무정하다’는 병이나 별 탈 없이 잘 자라는 것을 말한다.

103006 #2 머윗대도 차 만들 거엔 해근에.(머윗대도 차 만들 거라고 해서.)

103006 @ 에구, 세상에.(에구, 세상에.)

103006 #2 줄.(줄.)

103006 #1 그것도 나 허레. 나 어린아이이가 그걸 허레 가 왔어. 그 내창에.(그것도 내가 하러. 나 어린아이가 그걸 하러 갔다 왔어. 그 내에.)

103006 @ 내창에.(내에.)

103006 #1 저울로 떠근에 얼마씩 혼 집이 할당을 시켜. 할당을 시켜.(저울에 떠서 얼마씩 한 집에 할당을 시켜. 할당을 시켜.)

103006 @ 머윗대도 야생 머윗대는 몸에 좋은 거 알앙예.(머윗대도 야생 머윗대는 몸에 좋은 거 알아서요?)

103006 #2 해당 몇 키로 행 바치렌. 할당을 시켜 놓난. 웨정시대에 얼마나 뭐 해난 줄 알암서?(해다가 몇 킬로그램 해서 바치라고. 할당을 시켜 놓으니까. 왜정시대에 얼마나 뭐 했던 줄 알고 있어?)

103006 @ 처음 들어봬수다예.(처음 들어봅니다.)

103006 #1 나 머윗대 행 저 온 생각은 생생해.(나 머윗대 해서 저 온 생각은 생생해.)

103006 #2 자골도 해낫네. 자골도.(차풀도 했었어. 차풀도.)

103006 @ 자골?(차풀?)

103006 #1 자골 잇어.(차풀 잇어.)

103006 #2 자골이엔 현 거.(차풀이라고 하는 거.)

103006 #1 출 나는 건데.(꿀 나는 건데.)

103006 #2 목초, 목초밭데 해근에 소나 말 맥이민 막.(목초, 목초밭에 해서 소나 말 먹이면 아주.)

103006 #1 그것이 웨정 때이.(그것이 왜정 때.)

103006 #2 종텐 허는 거주게.(종다고 하는 거지.)

103006 #1 총 알맹이 들어간텐.(총 알맹이 들어간다고.)

103006 @ 화약총?(화약총?)

103006 #1 화약에 들어간텐 자골 씨가.(화약에 들어간다고 차풀 씨가.)

103006 #2 거 행 바치고 해낫어.(거 해서 바치고 했었어.)

103006 #1 자골 씨가.(차풀 씨가.)

103007 @ 아. 그믐 보리밧기는 어떻게 험니까?(아. 그럼 보리밧기는 어떻게 험니까?)

103007 #1 보리밧기?(보리밧기?)

103007 @ 밧는 거. 밧는 거.(밧는 거. 밧는 거.)

103007 #2 밧는 거.(밧는 거.)

103007 #1 보리 밧는 거는이 그 섬피엔 현 거 잇어.(보리 밧는 거는 그 꿈계라고 하는 거 잇어.)

103007 @ 섬피.(꾸게.)

103007 #1 섬피엔 현 것이 이름이 섬핀데 팡나무가 있어, 팡나무. 이렇게 덩어리진 거, 그것을 파당 이만인허게 영 만들야. 대낭 무경 겐로 이거 돌 세 개 놔근에 일로 막 쪼아. 사름이 막 쪼아. 쪼으민 민작 다려져. 그 영 지그자그 현 것이 싹 갓다 왔다 허민.(꾸게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꾸게인데 팡팡나무가 있어, 팡팡나무. 이렇게 덩어리진 거, 그것을 파다가 이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대나무 묶어서 겐로 이거 돌 세 개 놔서 이리로 마구 끌어. 사름이 마구 끌어. 끌면 미끈 다려져. 그 이렇게 지그재그 한 것이 싹 갓다 왔다 하면.)

103007 @ 섬피를 헛구나예.(꾸게를 헛군요.)

103007 #2 헛지.(헛지.)

103007 @ 청수나 이런 텐 안 헛어.(청수나 이런 데는 안 헛어.)

103007 #1 그것이 섬피야.(그것이 꾸게야.)

103007 @ 그거는 씨 뿌려근에 현 거고.(그거는 씨 뿌려서 한 거고.)

103007 #1 으.(으.)

103007 @ 그거 말고 이제 보리가 과랑허게 자라면 보리 밟으레 다녔수께. 보리 밟으는 거?(그거 말고 이제 보리가 과랑게 자라면 보리 밟으러 다녔지요. 보리 밟는 거?)

103007 #1 으, 그거는이 여기는 경. 경해도 밟으긴 밟은디. 밭브민이 보리, 보리 알맹이가 무게가 잘 나간덴.(으, 그거는 여기는 그렇게. 그래도 밟기 밟는데. 밟으면 보리, 보리 알맹이가 무게가 잘 나간다고.)

103007 @ 아.(아.)

103007 #1 게니까 밟아 줘야.(그러니까 밟아 줘야.)

103007 @ 아.(아.)

103007 #1 무게가 잘 나가렌.(무게가 잘 나가라고.)

103007 @ 무게가 나가렌.(무게가 나가라고.)

103007 #1 으, 무게 잘 나가렌.(으, 무게 잘 나가라고.)

103007 #2 밟은 밭디 보리허고 안 밟은 디 보리허고 영 무꺼 보면은 밟은 디 보리가 무게가 더 나간덴.(밟은 밭에 보리하고 안 밟은 데 보리하고 이렇게 묶어 보면 밟은 데 보리가 무게가 더 나간다고.)

103007 @ 아.(아.)

103007 #1 그 알맹이가 땡땡헤영. 밭 블라 준 것이.(그 알맹이가 땡땡해서. 밭 밟아 준 것이.)

103007 #2 보리 다리 들러지지 말앙 땅속에 잘 들어가렌 밟아 주는 거주께.(보리 다리 들러지 말고 땅속에 잘 들어가라고 밟아 주는 거지.)

103008 @ 그렇지. 다리 들러지지 말렌. 그른 보리밭 검질매는 거는 몇 번 헉니까?(그렇지. 다리 들러지 말라고. 그럼 보리밭 김매는 거는 몇 번 헉니까?)

103008 #2 보리 검질은 혼번 메면 말고.(보리 김은 한번 매면 말고.)

103008 #1 왜 두 번 허지.(왜 두 번 하지.)

103008 @ 두 번?(두 번?)

103008 #1 정월에 메고 막꿋데 혼번 메고.(정월에 매고 끝에 한번 매고.)

103008 #2 예, 보리 검질은 대개 혼불 메고게. 조팍디 검질만 두 번 매지.(예, 보리 김은 대개 초벌 매고. 조발 김만 두 번 매지.)

103008 @ 한번도 메고 두 번도 메고?(한번도 매고 두 번도 매고?)

103008 #1 예.(예.)

103008 @ 정월에 메고?(정월에 매고?)

103008 #1 정월에 메는 사람은 두 번 메야 되고. 혼꺼번에 좀 잇당은에이 이월 말에 메민 혼번만 메민 말고.(정월에 매는 사람은 두 번 매야 되고. 한꺼번에 좀 잇다가 이월 말에 매면 한번만 매면 말고.)

103008 @ 혼번.(한번.)

103008 #2 보리밭은 두 번 메는 사람이 드물고.(보리밭은 두 번 매는 사람이 드물고.)

103009 @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보리밭에는 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103009 #2 보리밭에는.(보리밭에는.)

103009 #1 지일, 이제는 엇인디 복사쿨⁶²⁾이엔 혼 검질이 있어, 복사쿨.(제일, 이제는 없는데 ‘복사쿨’이라고 하는 김이 있어, ‘복사쿨’.)

103009 #2 복사쿨, 쉼시락쿨⁶³⁾.(‘복사쿨’, ‘쉼시락쿨’.)

103009 #1 쉼시락쿨은 쉼 아래 나는데 복사쿨이 지일 먼저 나근에 더글더글더글해⁶⁴⁾. 게민 우리가 걸 그것이 그거 혼번 메민 두불이엔 해. 것만 돌아댕기멍 혼번 메 낱 내중에 거 복사쿨, 저 쉼시락쿨, 알로만 기어 나는 거. 경헨 복사쿨 아니 메 어난 밋디는 검질메기가 더 힘들어. 큰 것이 막 살아나니까.(‘쉼시락쿨’은 제일 아래 나는데 ‘복사쿨’이 제일 먼저 나서 ‘더글더글더글해’. 그럼 우리가 걸 그것이 그거 한번 매면 두벌이라고 해. 것만 돌아다니면서 한번 매 놓고 나중에 거 ‘복사쿨’, 저 ‘쉼시락쿨’, 아래로만 기어 나는 거. 그래서 ‘복사쿨’ 안 땀던 밧에는 김매기가 더 힘들어. 큰 것이 막 살아나니까.)

103009 @ 이름도, 어떻 우리 압니까게.(이름도, 어떻게 우리 압니까.)

103009 #1 복사쿨.(‘복사쿨’.)

103009 @ 그런 거 이름이영 이제.(그런 거 이름이랑 이제.)

103009 #1 근디 그거 왜정 때 먹기도 했어.(그런데 그거 왜정 때 먹기도 했어.)

103009 @ 복사쿨을?(‘복사쿨’을?)

103009 #1 으.(으.)

103009 @ 어떻 먹어마씨, 반찬?(어떻게 먹어요, 반찬?)

62) ‘복사쿨’은 풀 이름의 하나다

63) ‘쉼시락쿨’은 풀 이름의 하나다

64) ‘더글더글더글하다’는 풀이 무성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09 #2 데퍼근에게.(데워서.)

103009 @ 솥양?(솥아서?)

103009 #1 우리 이제 먹는다, 게민이 복사쿨이니까 문작허지 안헤게. 먹는다 까
실까실헤. 솥아도.(우리 이제 먹는데, 그럼 ‘복사쿨’이니까 미끈하지 았아. 먹는데 까
슬까슬헤. 솥아도.)

103009 @ 툼장에 찍엉 먹언?(툼장에 찍어서 먹었어?)

103009 #1 그때가, 복사쿨이 먹어난 때가 사삼사건 그 뒗헤도 먹었어.(그때가,
‘복사쿨’이 먹었던 때가 사삼사건 그 이듬헤도 먹었어.)

103009 @ 사삼 때도.(사삼 때도.)

103009 #1 뒗헤ㄱ지 먹었어.(이듬헤까지 먹었어.)

103009 @ 다른 검질은 아니고 복사쿨을 먹었다?(다른 김은 아니고 ‘복사쿨’을 먹
었다?)

103009 #1 복사쿨이 질, 먹는 것엔 질 하풀⁶⁵⁾이지. 질 하풀이야.(‘복사쿨’이 제일,
먹는 것에는 젤 ‘하풀’이지. 제일 ‘하풀’이야.)

103009 @ 다른 검질은 안 먹잖아예?(다른 김은 안 먹잖아요?)

103009 #1 다른 검질은 뭇 썩도 검질이니까. 것도 건 막 양반이지.(다른 김은 뭇
썩도 김이니까. 것도 건 아주 양반이지.)

103009 #2 거고 달래.(그리고 달래.)

103009 @ 달래. 달랜 썰마농?(달래. 달래는 ‘썰마농’?)

103009 #1 으. 것도 양반이고.(으. 것도 양반이고.)

103009 #2 사삼 꺄에 거 잘도 많이 먹었주게.(사삼 꺄에 거 잘도 많이 먹었지.)

103009 @ 복사쿨?(‘복사쿨’?)

103009 #1 썩은 쪼금 놓고이 것만 행 막 버무려은에 어머니가 밥을 줘. 밥에도
막 낭 헤 썩을.(썩은 쪼금 놓고 것만 해서 마구 버무려서 어머니가 밥을 줘. 밥에도
마구 넣어서 헤 썩을.)

103009 @ 복사쿨을?(‘복사쿨’을?)

103009 #2 아니, 썩게.(아니, 썩.)

103009 @ 썩이야.(썩이야.)

103009 #1 달래는 막 그냥 막 미쳐은에 먹고 막 국도 행 먹고 그냥.(달래는 마구
그냥 막 무쳐서 먹고 막 국도 해서 먹고 그냥.)

103009 @ 뭇행 먹어마씨?(뭇해서 먹어요?)

103009 #1 국, 국.(국, 국.)

103009 @ 국은 괜창아.(국은 괜창아.)

103009 #1 죽도, 콩 곶아 낭 죽도 썬 먹고.(죽도, 콩 곶아 넣고 죽도 썬 먹고.)

103009 @ 달래 낭 콩ㄱ루 낭 죽도 썬 먹고. 아, 이런 것도 잇구나예?(달래 넣어서
콩가루 넣어서 죽도 썬 먹고. 아, 이런 것도 있군요?)

65) ‘하풀’은 제일 질이 낮은 풀이라는 뜻이다.

103009 #2 콩가루 낱 죽 많이 썰 먹었주게.(콩가루 넣어서 죽 많이 썰서 먹었지.)

103009 @ 아아.(아아.)

103009 #1 가루를 많이 놓민 맛잇는데 가루를 조금 놓고이 그 달래만 막 담아 낱은에게. 그런 걸 우리가이. 공출 다 해 불면은 보리 공출해 불면 먹을 게 작거든.(가루를 많이 넣으면 맛있는데 가루를 조금 넣고 그 달래만 마구 담아 넣어서. 그런 걸 우리가. 공출 다 해 버리면 보리 공출해 버리면 먹을 게 적거든.)

103009 @ 으.(으.)

103009 #1 게난 작으니까 걸로 때와.(그러니까 적으니까 걸로 때워.)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 베기, 묶기.(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 베기, 묶기.)

103010 #1 테작허고.(타작하고.)

103010 @ 테작허기 이거는. 홀트기 도끼질허기 이거 차례차례.(타작하기 이거는. 훑는 도리깨질하기 이거 차례차례.)

103010 #1 것이 테작이지. 우리 베는 건 어떻게합니까, 보리?(것이 타작이지. 우리 베는 건 어떻게합니까, 보리?)

103010 #2 그냥 호미로.(그냥 낫으로.)

103010 @ 호미로 베고, 베엥은에 어떻 앓앙덜, 몇 명이 혼 고지에?(낫으로 베고, 베서는 어떻게 앓아서들, 몇 명이 한 이랑에?)

103010 #1 이거 혼 고지민이 이거 두 고지 잡으민 좀 좁아. 못 놓아, 못 놓아. 세 고지 잡아. 잡으민 긴 걸 놓지게. 영 짹 잡아 가민.(이거 한 이랑이면 이거 두 이랑 잡으면 조금 좁아. 못 놓아, 못 놓아. 세 이랑 잡아. 잡으면 긴 걸 놓지. 이렇게 짹 잡아 가면.)

103010 @ 경행 몇 명이? 밧테따라?(그렇게 몇 명이?)

103010 #1 밧테 따라.(밭에 따라서.)

103010 @ 비영 그다음 무끄는 건 어떻 무릅니까?(베어서 그다음 묶는 건 어떻게 묶습니까?)

103010 #1 무끄는 거는 몰려 노면은, 이렇게 모여서게 보리로 무끄는 걸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 톱 해 낱 오고령은에 무껴.(묶는 거는 말려 놓으면, 이렇게 모여서 보리로 묶는 걸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 톱 해 놔서 오그러서 묶어.)

103010 @ 무껴.(묶어.)

103010 #1 겐 무껴근에.(그래서 묶어서.)

103010 @ 어 만큼씩 묶이?(어느 만큼씩 묶이?)

103010 #1 요만큼씩.(요만큼씩.)

103010 @ 경행 무껍?(그래서 묶어서?)

103011 #1 타작허주.(타작하지.)

103011 @ 타작기 나기 전에 어렸을 때?(타작기 나기 전에 어렸을 때?)

103011 #2 도리깨로.(도리깨로.)

103011 @ 도리깨로 다?(도리깨로 다?)

103011 #2 도리깨로.(도리깨로.)

103011 @ 집이 가정옵니까, 밧디서 험니까?(집에 가져옵니까, 밧에서 함니까?)

103011 #1 집이 와서 마당에서.(집에 와서 마당에서.)

103011 #2 집이 시경당.(집에 실어다가.)

103011 @ 집인 뭐가 실영 와, 췌가?(집에는 뭐가 실어 와, 소가?)

103011 #2 소로.(소로.)

103011 #1 지어도 오고 등으로.(지어도 오고 등으로.)

103011 #2 등으로도 지어 오고. 게난 멧 처레 날라 와야 췌 거주.(등으로도 지어 오고. 그러니까 멧 차례 날라 와야 췌 거지.)

103011 #1 밤이 그런 거 막 허고 낮이랑 보리 비고 검질메고이. 줌자는 시간도 얼마 없었어. 그 시절엔.(밤에 그런 거 마구 하고 낮이랑 보리 베고 김매고. 잠자는 시간도 얼마 없었어. 그 시절에는.)

103011 @ 밤이 날라 와?(밤에 날라 와?)

103011 #1 밤이 강 잘 저 와.(밤에 가서 잘 저 와.)

103011 #2 밤이 혼 열 시 췌도록 일허니까.(밤에 한 열 시 되도록 일하니까.)

103011 #1 보리가이 ㄴ시락 잇어 부난 까끌까끌허고.(보리가 까끄라기 잇어 버리니까 까끌까끌하고.)

103011 @ 경헨 이것도 해 봤수과? 홀트는 거?(그래서 이것도 해 봤습니까? 훑는 거?)

103011 #1 으, 것도. 건 흐품 내중에지.(으, 것도. 건 조금 나중에지.)

103011 #2 중간에야. 중간에 그거 생겨 가지고 홀텃주.(중간에야. 중간에 그거 생겨 가지고 훑었지.)

103011 #1 거 지난 좋았지.(거 있으니까 좋았지.)

103011 #2 처음엔 도리깨로 막.(처음에는 도리깨로 마구.)

103011 @ 남자들이 허는 거 아니고, 홀트는 거?(남자들이 하는 거 아니고, 훑는 거?)

103011 #2 에이고, 남자도 허고 여자도 허고.(에이고,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103011 #1 잇는 집인 여자덜이 허고.(잇는 집은 여자들이 하고.)

103011 @ 홀튼 다음?(훑은 다음?)

103011 #1 홀튼 다음에 도께로 두드려야지.(훑은 다음에 도리깨로 두드려야지.)

103011 @ 홀트기도 허고 도께로 두드리기도 허고?(훑기도 하고 도리깨로 두드리기도 하고?)

103011 #1 으, 게도 그거 두드리는 건 쉬와. 나무차 허는 거보다.(으, 그래도 그거 두드리는 건 쉬워. 나무째 하는 거보다.)

103011 @ 도께는 아버지가 만듭니까?(도리깨는 아버지가 만듭니까?)

103011 #1 아부지가.(아버지가.)

103011 @ 것도 낭도 잇고, 무사 도깨아덜, 도깨아덜 험신고예?(것도 나무도 있고, 왜 도리깃열, 도리깃열 하는가요?)

103011 #1 영 영 허민 이거 영 때리는 건 아덜⁶⁶⁾이고 영 잡는 건 어시⁶⁷⁾야.(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때리는 건 도리깃열이고 이렇게 잡는 건 도리깃장부야.)

103011 @ 예, 어시.(예, 도리깃장부.)

103011 #1 겐 도깨어시 도깨아덜 해. 영 돌령 이디 때리는 건 아덜, 손 잡는 건 어시.(그래서 도리깃장부 도리깃열 해. 이렇게 돌려서 여기 때리는 건 아덜, 손 잡는 건 도리깃장부.)

103011 @ 무사 아덜이엔 험신고예?(무사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103011 #1 게메.(글쎄.)

103011 #2 도깨아덜이엔 현 이유는 그 도리깨 그 철에만 쓰잖아.(‘도깨아덜’이라고 한 이유는 그 도리깨를 그 철에만 쓰잖아.)

103011 @ 예.(예.)

103011 #2 철에만 쓰기 때문에 이 아덜놈이 좀 뭐헌 아덜놈은 저 도깨아덜 경헌 거 같아.(철에만 쓰기 때문에 이 아덜놈이 좀 뭐한 아덜놈은 저 ‘도깨아덜’ 그런 거 같아.)

103011 #1 철에만, 아무 때만 안 쓰니까.(철에만, 아무 때나 안 쓰니까.)

103011 #2 아무 때나 안 쓰는 거니까.(아무 때나 안 쓰는 거니까.)

103011 #1 아덜은게 소소헌, 경 부모 말을 잘 들어 주나? 게니까 도깨아덜거치 혼번씩 튀어 난다.(아들은 소소한,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들어 주니? 그러니까 ‘도깨아덜’같이 한번씩 튀어 난다.)

103011 #2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현 거 아닌가?(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103012 @ 게메예. 경헌 그거 장만허민 보리쌀은 연자매, 맷돌, ㄹ래?(글쎄요. 그래서 그거 장만하면 보리쌀은 연자매, 맷돌, 맷돌?)

103012 #1 물류와.(말려.)

103012 @ 물류와?(말려?)

103012 #2 게난 도리깨로 헤근에 장만헤근에 털어놓면은.(그러니까 도리깨로 해서 장만하면 털어놓으면.)

103012 #1 불려.(불려.)

103012 #2 불려야 돼잖아. 불려 놓고 이젠 딱시 이제 널영 말리와. 말렸다가 이제 딱시 그 옛날에 저 방앗간 잇잖아. 방앗간.(불려야 되잖아. 불려 놓고 이젠 또 이제 널어서 말려. 말렸다가 이제 다시 그 옛날에 저 방앗간 잇잖아. 방앗간.)

103012 #1 맷돌 영 돌아가는 거.(맷돌 이렇게 돌아가는 거.)

66) 여기서 ‘아덜’은 ‘도깨아덜’로, ‘도리깃열’을 말한다.

67) 여기서 ‘어시’는 ‘도깨어시’로, ‘도리깃장부’를 말한다.

103012 #2 멧돌 영 돌아가는 거. 옛날.(멧돌 이렇게 돌아가는 거.)

103012 @ 물방에?(연자매?)

103012 #2 응, 물방에 알았신게. 물방에. 물방에 가근에게 물 서꺼근에 헤여근에.(응, 연자매 알고 있네. 연자매. 연자매 가서 물 섞어서 해서.)

103012 #1 앞에 소나 뭐 물이나 메왕.(앞에 소나 뭐 말이나 메워서.)

103012 #2 소나 물이나 메왕은에게 ㄴ치 돌아가멍 그걸 막 꺾테기 베껴지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저 저 가운데 지등 앞이 간 건 내리고 도에 나온 건 올리고 그 멧돌 발라야, 잇어야 깎아지니까. 게근에 그거 체에 베껴당 또 널영 물리와. 물리왕 다시 물리와. 그 체 나가게. 쟁은에 거 멧돌에 갈아. 쟁헨 밥헨 먹어.(소나 말이나 메워서 같이 돌아가면서 그걸 마구 꺾테기 벗겨지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저 저 가운데 기등 앞에 간 것은 내리고 입구에 나온 건 올리고 그 멧돌 발라야, 잇어야 깎기니까. 그래서 그거 체에 벗겨다가 또 널어서 말려. 말려서 다시 불려. 그 체 나가게. 그래서 거 멧돌에 갈아. 그래서 밥해서 먹어.)

103012 @ 무사 갈아야 밥을 허여마썬? 더 많이 나와?(왜 갈아야 밥을 해요? 더 많이 나와?)

103012 #1 너무 굵어.(너무 굵어.)

103012 #2 너무 흙어 가지고.(너무 굵어 가지고.)

103012 #1 벌르는 거지. 벌러.(쪼개는 거지. 쪼개.)

103012 #2 벌러야 빨리 풀어지지 쌀이.(쪼개야 빨리 풀어지지 쌀이.)

103012 @ 겨민 여기 멧 개 정도 잇어신고예, 물방에가?(그럼 여기 멧 개 정도 있었나요, 연자매가?)

103012 #1 동네가 크면 두 개 잇고.(동네가 크면 두 개 있고.)

103012 #2 두 개.(두 개.)

103012 #1 작으면 하나.(작으면 하나.)

103012 #2 큰 동네 두 개, 작은 딴 하나.(큰 동네 두 개. 작은 데는 하나.)

103012 @ 지금 어디가 어딘지 아는 사람 이시카? 어디가 물방에라나신디. 뭐 다른 건물 지어져 분 거 아니예? 어쨌든예.(지금 어디가 어딘지 아는 사람 있을까? 어디가 연자매였는지. 뭐 다른 건물 지어져 버린 거 아니요? 어쨌든요.)

103012 #2 예게. 게난 잘 몰라.(예. 그러니까 잘 몰라.)

103012 #1 아멩헨도 옷벵일⁶⁸⁾은 죽으난 하나다이. 알벵일⁶⁹⁾은 두 개.(아무래도 ‘옷벵일’은 좁으니까 하나네. ‘알벵일’은 두 개.)

103012 #2 그렇지게. 옷벵일은 멧 사람, 멧 가구 엇네. 게난 하나네.(그렇지. ‘옷벵일’은 멧 사람, 멧 가구 없지. 그러니까 하나지.)

103012 @ 아, 옷방에, 알방에 두 개 잇었다는 거라예? 정존마을은예?(아, ‘옷방에’, ‘알방에’ 두 개 있었다는 거지요? ‘정존마을’은요?)

68) ‘옷벵일’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69) ‘알벵일’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103012 #1 아니, 거 이 동네가 뽕일인⁷⁰⁾디.(아니, 거 이 동네가 ‘뽕일이’인데.)
 103012 @ 뽕디?('뽕디'?)
 103012 #1 웃뽕일, 알뽕일이렌 해.('웃뽕일', '알뽕일'이라고 해.)
 103012 #2 저 웃동네.(저 윗동네.)
 103012 @ 뽕일이?('뽕일이'?)
 103012 #1 동네 이름이 뽕일이야.(동네 이름이 '뽕일이'야.)
 103012 #2 방일이⁷¹⁾, 방일이.('방일이', '방일이'.)
 103012 #1 방일이 동산도 있어이.('방일이' 동산도 있어.)
 103012 @ 아.(아.)
 103012 #1 동산도 잘도 좋아. 우리 그디 강 노는 것이 경 좋아, 어릴 때.(동산도 아주 좋아. 우리 거기 가서 노는 것이 그렇게 좋아, 어릴 때.)
 103012 @ 방일이 동산이 어디 잇수과?('방일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103012 #1 이제 있어. 정수장[전수장] 쪼금 우에.(이제 있어. 정수장 쪼금 위에.)
 103012 @ 정수장[전수장]이 어디 잇는지 모르는데?(정수장이 어디 잇는지 모르는데?)
 103012 #1 정수장[전수장]이 어디냐 허면은이 요디 저 서울 주유소 잇잖아. 그 서 웃편이.(정수장이 어디냐 하면 여기 저 서울 주유소 잇잖아. 그 서 위편에.)
 103012 @ 아.(아.)
 103012 #1 한국주방.⁷²⁾(한국주방.)
 103012 @ 한국주방.(한국주방.)
 103012 #1 으, 그 우에.(으, 그 위에.)
 103012 #2 그 부튼 길로 남쪽으로 올라가면, 흐뽕 올라가민 정수장[전수장]이 야.(그 붙은 길로 남쪽으로 올라가면, 쪼금 올라가면 정수장이야.)
 103012 #1 겐 쪼금 올라가민 뽕일동산.⁷³⁾(그래서 쪼금 올라가면 '뽕일동산'.)
 103012 @ 지금도 동산 잇어마썸?(지금도 동산 잇어요?)
 103012 #1 으, 잇어.(으, 있어.)
 103012 #2 잇어.(있어.)
 103012 @ 한번 밥 먹고 글로 차 탕, 사진 찍으레 갓다 오게예?(한번 밥 먹고 그 리로 차 타서, 사진 찍으러 갓다 와요?)
 103012 #1 으.(으.)
 103012 @ 아, 이름도 예쁘고.(아, 이름도 예쁘고.)
 103012 #1 뽕일동산.('뽕일동산'.)
 103012 @ 아직도 잇다는 거구나. 그거는 개인 소윤가?(아직도 잇다는 거구나. 그

70) '뽕일'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71) '방일이'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중의 하나인 '뽕일이'를 말한다. 제보자는 '뽕일이'라고 하고 '방일이'라고도 하고 있다.

72) 여기서 '한국주방'은 상호명이다.

73) '뽕일동산'은 제주시 노형도 지경 이름의 하나다.

거는 개인 소유가?)

103012 #1 어?(어?)

103012 @ 개인 소유가?(개인 소유가?)

103012 #1 아니지.(아니지.)

103012 @ 시?(시?)

103012 #1 동네 사유, 동네. 뱅일이 동네 사유야. 겐 거기서 그거 세금 내주는 거지. 세금이 나오니까.(동네 소유, 동네. ‘뱅일이’ 동네 소유야. 그래서 거기서 그거 세금 내주는 거지. 세금이 나오니까.)

103012 @ 그거 아직까지 있다는 게 신기하다예. 거디 뽕방에가 잇었다는 거?(그거 아직까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거기 연자매가 있었다는 거?)

103012 #1 그 뽕방에는 그 동네에 이거 뱅일동산이민 요거는 옷뱅일이고이, 옷뱅일이고 요래 가민 알뱅일이가 있어.(그 연자매는 그 동네에 이거 ‘뱅일동산’이면 요거는 ‘옷뱅일’이고, ‘옷뱅일’이고 이리 가면 ‘알뱅일’이 있어.)

103012 #2 우알 동네가 있어 가지고.(위아래 동네가 있어 가지고.)

103012 #1 겐 나는 알뱅일이고 야인 옷뱅일이야. 요거 하나 걸렁. 밧 하나 걸렁.(그래서 나는 ‘알뱅일’이고 애는 ‘옷뱅일’이야. 요거 하나 걸러서. 밧 하나 걸러서.)

103012 @ 게른 막 거기 참석허젠 허민 줄 서고 새벽부터 강 뽕방에 해야 뉘곡? 거기 소 허젠 허른 아버지도?(그럼 마구 거기 참석하려고 하면 줄 서고 새벽부터 가서 연자매 해야 되고? 거기 소 하려고 하면 아버지도?)

103012 #1 그렇게 경 새벽부터 안 허곡 방에가 두 개니까 의논허명 해. 나는 아침 새벽에 허겔다, 너는 저녁때 허라, 영 허명.(그렇게 경 새벽부터는 안 하고 방아가 두 개니까 의논하면서 해. 나는 아침 새벽에 하겔다, 너는 저녁때 해라, 이렇게 하면서.)

103012 @ 아버지가 주로 험니까? 또 여자가 허여?(아버지가 주로 험니까? 또 여자가 해?)

103012 #1 아버지 허는 집인 좋지.(아버지 하는 집은 좋지.)

103012 #2 옛날은 인심덜이 좋고게.(옛날은 인심들이 좋고.)

103012 #1 남허고 수눌영도 해. 오늘랑 우리 거 허민 넬랑 느네 거 허게 헐.(남하고 품앗이해서도 해. 오늘은 우리 거 하면 내일은 너희 거 하자 해서.)

103012 @ 완전 시간 많이 걸리겔다예, 많이 헐 디는예?(완전 시간 많이 걸리겔네요, 많이 하는 데는요?)

103012 #2 아고, 많이 걸리고 말고.(아이고, 많이 걸리고 말고.)

103012 #1 게난 흔꺼번에 안 허고이 먹을 만씩 저 먹지.(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하고 먹을 만큼씩 쪼어 먹지.)

103012 @ 아, 흔꺼번에 안 행.(아, 한꺼번에 안 하고.)

103012 #1 으.(으.)

103012 @ 게민 고팡에 뉘당?(그럼 고팡에 뉘다가?)

103012 #1 어.(어.)

103012 @ 그런 식으로 허고.(그런 식으로 하고.)

103012 #1 다 먹어져 가민 또 이제 방에 지레 가자. 방에 지는 거렌 해, 것ㄴ라. 방에 지레 가자, 방에 지레 가자.(다 먹어 가면 또 이제 방아 찼으러 가자. 방아 찼는 거라고 해, 것보고. 방아 찼으러 가자, 방아 찼으러 가자.)

103012 @ 경 행 집이 왕 또 ㄴ레 ㄴ는 거는 그추룩 행 밥행 먹고?(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또 맷돌 가는 거는 것처럼 해서 밥해 먹고?)

103012 #1 들류왕 그 체 다 평 쌀만 해여근에 ㄴ레에 곶지.(말려서 그 체 다 퍼서 쌀만 해서 맷돌에 곶지.)

103012 @ 여자덜이 고생이.(여자들이 고생이.)

103012 #1 게. 옛날 살아난 생각허민이 이거이.(그래. 옛날 살았던 생각하면 이거.)

103012 #2 지긋지긋허여.(지긋지긋해.)

103012 #1 칠십 나민 막 꼬부랑 할머니 돼 붙어. 칠십만 돼민.(칠십 되면 아주 꼬부랑 할머니 돼 버려. 칠십만 되면.)

103012 @ 일 많이 해 부난.(일 많이 해 버리니까.)

103012 #1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칠십둘에 돌아가신디 잘도 영 영 굶어. 막 굶어났어. 일 하도 해 부난. 키는 막 커신디.(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칠십둘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이렇게 이렇게 굶어. 많이 굶었었어. 일 너무 해 버리니까. 키는 아주 컸는데.)

103013 @ 보리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밥, 미숫ㄴ루도 허고?(보리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밥, 미숫가루도 하고?)

103013 #1 미숫가루도 허고이.(미숫가루도 하고.)

103013 @ 밥도 해 먹고.(밥도 해 먹고.)

103013 #1 쉼다리⁷⁴⁾엔 해영은에이 쉼다리, 쉼다리 해여.(‘쉼다리’라고 해서 ‘쉼다리’, ‘쉼다리’ 해.)

103013 #2 식혜.(식혜.)

103013 @ 예, 쉼다리.(예, ‘쉼다리’.)

103013 #1 식혜보다 독해이. 그걸로 행 먹어. 밥, 밥 흥끔 먹당 남으민 쪼금 쉬어. 쉬민 쉼다리 허라 해.(식혜보다 독해. 그걸로 해서 먹어. 밥, 밥 조금 먹다가 남으면 조금 쉬어. 쉬면 ‘쉼다리’ 해라 해.)

103013 @ 예.(예.)

103013 #1 이걸랑 쉼다리 해 불라.(이걸랑 ‘쉼다리’ 해 버려라.)

103013 @ 지금도 해 먹엄수과? 요전에 우리 어무니 해십디다게.(지금도 해 먹습니까? 요전에 우리 어머니 했습디다.)

103013 #1 식혜로 헛지이?(식혜로 했지?)

74) ‘쉼다리’는 신밥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말한다.

103013 @ 저 원다리로. 쌀밥으로 해ship니다. 누룩 넣.(저 ‘원다리’로. 쌀밥으로 했습다. 누룩 넣어서.)

103013 #1 난 누룩이영 골이영 다 해사, 실편게.(난 누룩이랑 엇기름이랑 다 해야, 귀찮더라.)

103013 #2 저 무시거라 저.(저 뭐야 저.)

103013 @ 오일장.(오일장.)

103013 #2 지름집이 가난 그디 누룩 풀암더라.(기름집에 가니까 거기 누룩 팔고 있더라.)

103013 #1 누룩?(누룩?)

103013 #2 으, 나 그디 강 상 행 먹언.(으, 나 거기 가서 사서 해서 먹었어.)

103013 #1 난 나만 안 해 봤저게. 실편.(나는 나만 안 해 봤어. 귀찮았어.)

103013 @ 우리 어머니가 원다리 현 이유는 이른아홉이우다만은 그 뭐파, 보온 놀러 불언게 밥을. 보온 놀러 불민 밥을 못 먹읍니까. 해삭해삭해영. 게난 걸 원다리.(우리 어머니가 ‘원다리’ 한 이유는 이른아홉입니다만 그 뭇니까, 보온 놀러 버렸어, 밥을. 보온 놀러 버리면 밥을 못 먹지요. 허분허분해서. 그러니까 걸 ‘원다리’.)

103013 #2 맞다.(맞다.)

103013 @ 겐 나도 얻어먹엇수다게.(그래서 나도 얻어먹었습니다.)

103013 #2 기주게.(그렇지.)

103013 #1 우렁이⁷⁵⁾민이 우렁이 우에 절이 있어. 알아?('우렁이'면 '우렁이' 위에 절이 있어. 알아?)

103013 @ 우렁이?('우렁이'?)

103013 #1 우렁이 우이 절 잇네.('우렁이' 위에 절 있어.)

103013 @ 외도?(외도?)

103013 #1 외도⁷⁶⁾에 절.(외도에 절.)

103013 @ 예, 절덜 많아.(예, 절들 많아.)

103013 #1 많진 안해. 왕대사⁷⁷⁾ 하나지. 막 올라가야.(많진 않아. 왕대사 하나지. 막 올라가야.)

103013 @ 막 올라가근에.(막 올라가서.)

103013 #2 그디 왕대사 하나벳기 없어.(거기 왕대사 하나밖에 없어.)

103013 #1 막 올라가민 우리 절 하나 있어. 막 올라가야.(막 올라가면 우리 절 하나 있어. 막 올라가야.)

103013 @ 잘 알암다예.(잘 안네요.)

103013 #1 그디 나가 다녀, 우리 절도. 우리 손주가 다니난에 다녀.(거기 내가 다녀, 우리 절도. 우리 손주가 다니니까 다녀.)

103013 @ 게른 미숫가루 어떻 만듭니까?(그럼 미숫가루 어떻게 만듭니까?)

75) '우렁이'는 제주시 외도동 자연 마을 이름이다.

76) '외도'는 제주시 외도동을 말한다.

77) '왕대사'는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절 이름이다.

103013 #1 미숫가루는 만들기 쉽지.(미숫가루는 만들기 쉽지.)
 103013 @ 숯뚜껑이 이렇게 얹어 놔 보깁? 비 올 때?(숯뚜껑 이렇게 얹어 놔서
 볶아서? 비 올 때?)
 103013 #1 우리 옛날엔.(우리 옛날에는.)
 103013 #2 비 올 때.(비 올 때.)
 103013 #1 옛날엔 그.(옛날에는 그.)
 103013 #2 맷돌에 갈앙.(맷돌에 갈아서.)
 103013 @ 맷돌에 갈아?(맷돌에 갈아?)
 103013 #2 맷돌에 갈앙은에게 체로 치명.(맷돌에 갈아서 체로 치면서.)
 103013 @ 아, 보까근에 맷돌에 갈앙 체로 치명?(아, 볶아서 맷돌에 갈아서 체로
 치면서?)
 103013 #1 겨난 먹는 게 **허주게. 지금 기계로 ㄴ는 것보다.(그러니까 먹는 게
 **하지. 지금 기계로 가는 것보다.)
 103013 #2 게도 먹어 보민 맨질맨질헌 게 굵어. 체로 쳐도.(그래도 먹어 보면 매
 끈매끈한 게 굵어. 체로 쳐도.)
 103013 #1 에이구, 참 옛날 살아난 생각허믄.(어이구, 참 옛날 살았던 생각하면.)
 103014 @ 먹을 게 조팍보다 보리밥이 맛 좋아마씨?(먹을 게 조밥보다 보리밥이
 맛 좋아요?)
 103014 #2 맛 좋주게.(맛 좋지.)
 103014 #1 두 가지 서끈 게 더 맛 좋아. 서경 헌 게.(두 가지 섞은 게 더 맛 좋
 아. 섞어서 한 게.)
 103014 @ 지금은 다 비싸. 보리 ㄴ시락, 보리 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
 까?(지금은 다 비싸. 보리 까끄라기, 보리 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14 #1 보리 까끄레기가, ㄴ시락이라야.(보리 까끄라기가, ‘ㄴ시락’이야.)
 103014 #2 응. 보리 ㄴ시락은.(응. 보리 까끄라기는.)
 103014 #1 태와근에 불태왕.(태워서 불태워서.)
 103014 #2 불태와근에 그.(불태워서 그.)
 103014 #1 밧디 더꺼. 걸름으로이.(밭에 덮어. 거름으로.)
 103014 #2 걸름으로 더끄기도 허고.(거름으로 덮기도 하고.)
 103014 @ 굴묵?(‘굴묵’?)
 103014 #1 막 옛날엔 나무로 안 허니까이 그 보릿대는 막 불 숨아.(아주 옛날에
 는 나무로 안 하니까 그 보릿대는 마구 불 때.)
 103014 #2 보릿대 그 뽕감으로.(보릿대 그 뽕감으로.)
 103014 @ 놀 놀어?(가리 가려서?)
 103014 #1 놀엇당 뽕앙당.(가렸다가 뽕아다가.)
 103014 #2 놀엇당. 그 돼지 추우면은.(가렸다가. 그 돼지 추우면.)
 103014 @ 예.(예.)

103014 #2 돼지 집 속에도 거 담아 주곡. 사람이면 이불 주듯이 보릿대 담아 주고.(돼지 집 속에도 거 담아 주고. 사람이면 이불 주듯이 보릿대 담아 주고.)

103014 @ 애기구덕⁷⁸)에도 애기 오줌 쌀 때도 다 보리낭쟁이?('애기구덕'에도 애기 오줌 쌀 때도 다 보릿대?)

103014 #2 보릿대 깔앙.(보릿대 깔아서.)

103014 #1 아, 네.(아, 예.)

103014 @ 보릿대?(보릿대?)

103014 #2 보릿대 깔았어.(보릿대 깔았어.)

103014 #1 옛날엔이 기저귀도 안 깔앙 보릿낭에 그냥 눕혀. 눕형 오줌 싸면은이 오줌 싸면은 이제 뭐 기저귀 허지이. 그 아니 젖인 거 영 놓아. 윙이 거. 경행 그냥 채와. 그 아기덜을. 경해도 궁둥이가 포송포송해. 샷바 채운 거보다. 보리낭에 눕힌 아기가 포송포송해. 해해.(옛날에는 기저귀도 안 깔아서 보릿대에 그냥 눕혀. 눕혀서 오줌 싸면 오줌 싸면 이제 뭐 기저귀 하지. 그 아니 젖은 거 이렇게 놓아. 옆의 거. 그래서 그냥 채워. 그 아기들을. 그래도 궁둥이가 보송보송해. 기저귀 채운 거보다. 보릿대에 눕힌 아기가 보송보송해. 해해.)

103014 @ 겨난.(그러니까.)

103014 #2 경해도 건강하게 크곡.(그래도 건강하게 크고.)

103014 @ 계난예?(그러니까요?)

103014 #1 나도 우리 어머니 몇 번 허는 거 봤어. 오줌 싸면은 그거 보리낭 윙이 거 영 이레 놔. 계민 묻어지는 거야.(나도 우리 어머니 몇 번 하는 거 봤어. 오줌 싸면은 그거 보릿대 옆에 거 이렇게 이리 놔. 그럼 묻히는 거야.)

103015 @ 그 보리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 뭐 꿩독세기 봉갓저. 뭐 그런 거 더워 먹었저, 이런 옛날 이야기.(그 보리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 뭐 꿩알 주웠어. 뭐 그런 거 더워 먹었어, 이런 옛날 이야기.)

103015 #1 꿩독세기 난 맛은 보리가 좋아야. 보리 나쁘민 꿩이 보이니까 못 앓지. 좋은 맛디. 영 보리 비당 보민 파르르 놀아가. 놀아가민 꿩독세기 놔뒀근에이 막 꺾꺾지 비어가사 놀아나. 아까왕게.(꿩알 낳은 발은 보리가 좋아야. 보리 나쁘면 꿩이 보이니까 못 앓지. 좋은 발에. 이렇게 보리 베다가 보면 파르르 날아가. 날아가면 꿩알 놔두고 아주 끝까지 베어가야 날아나. 아까워서.)

103015 @ 아까왕.(아까워서.)

103015 #1 겐 어떤 사람은 걸 가져와 불어이.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민 뒷날 강 보민 다 웅겨 가, 어드레. 없어, 없어. 자기 좋은 딜로 강 또 새끼 꺾젠.(그래서 어떤 사람은 걸 가져와 버려.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면 뒷날 가서 보면 다 읊겨 가, 어디로. 없어, 없어. 자기 좋은 데로 가서 또 새끼 깨우려고.)

103015 @ 아.(아.)

103015 #1 계민 가져오는 사람은 영 가져와 가민 꿩이 막 운다. 꿩이.(그러면 가

78) '애기구덕'은 아기를 누일 수 있게 만든 대나무로 걸은 바구니다. 표준어 '요람'에 해당하는 말이다.

져오는 사람은 이렇게 가져와 가면 썩이 마구 울어. 썩이.)

103015 #2 그 옆이서만 살아. 날아가지 안혀고.(그 옆에서만 살아. 날아가지 안혀고.)

103015 @ 아.(아.)

103015 #2 옆이서만 막 감돌아.(옆에서만 마구 감돌아.)

103015 #1 게민 저 사름 나쁘다 허지, 썩이. 가져가 불민.(그럼 저 사름 나쁘다 하지, 썩이. 가져가 버리면.)

103015 @ 난 또 썩 발견웨민 썩이 안 나타난덴 들어신디 그게 아니구나예?(난 또 썩 발견되면 썩이 안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103015 #1 왕 뽕 엇이민 얼마나 아프냐, 속이. 우리가 애기 일러불민 아프듯이. 겐 어떤 사름은 많이 안 가져가는 사름이 있어. 그냥 돌랑봐 뉘, 그디. 봐두면 그 썩이 왕.(와서 보고 없으면 얼마나 아프냐, 속이. 우리가 아기 잃어버리면 아프듯이. 그래서 어떤 사름은 많이 안 가져가는 사름이 있어. 그냥 도려봐 뉘, 거기. 봐두면 그 썩이 와서.)

103015 #2 다음날은 가 보민 어드레 다 날라 가 불언 엇어.(다음날은 가 보면 어디 다 날라 가 버려서 없어.)

103015 #1 날라당 그 새끼 깨와.(날라다가 그 새끼를 깨워.)

103015 @ 썩득세기도 삶아 먹어난 기억이 있어노난.(썩알도 삶아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103015 #1 우리 어머님은 우리 ○○ 밧디 보리 빌 때이 우리 시어명이 원 못 가져가게 해. 내불라, 임제 다 잊저. 임제 이신 거여.(우리 어머님은 우리 ○○ 밧에 보리 벨 때 우리 시어머님이 원 못 가져가게 해. 내버려라, 임자 다 있다. 임자 있는 거야.)

103015 #2 아, 우리도.(아, 우리도.)

103015 #1 썩득세기 가져가 보질 못했어.(썩알 가져가 보질 못했어.)

103015 @ 마음이 좋았다예.(마음이 좋았네요.)

103015 #1 우리 시어머니가 경 시켜. 못 가져가게. 게난 속 아프지게, 우리가 아기 일러불듯이.(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켜.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 속 아프지, 우리가 아기 잃어버리듯이.)

103015 #2 불쌍허드라. 곡곡⁷⁹⁾ 허멍 그 옆이서 살아. 옆이서만 딴 디 안 가고.(불쌍하더라. ‘곡곡’ 하면서 그 옆에서 살아. 옆에서만 딴 데 안 가고.)

103015 @ 사람도 사람이지만 강생이나 뉘나 너무 사랑이 지독허드라고예. 그런 거 살면서 봐가난예. 진짜 뉘 같은 엄마로서 못해. 막 더위 먹거나 뱀 봐진 거나 이런 거 어릴 때 추억은 엇수과?(사람도 사람이지만 강아지나 뉘나 너무 사랑이 지독하더라고요. 그런 거 살면서 보니까요. 진짜 뉘 같은 엄마로서 못해. 아주 더위 먹거나 뱀 본 거나 이런 거 어릴 때 추억은 없습니까?)

79) ‘곡곡’은 썩이 우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103015 #1 왜? 보리, 아기, 아기 보명이 비레 가민이 아기 등에 업엉 이만헌 대가 있어. 것이 무신 대엔 허냐?(왜? 보리, 아기, 아기 보면서 베리 가면 아기 등에 업고 이만한 대가 있어. 것이 무슨 대라고 하냐?)

103015 @ 수리대?(이대?)

103015 #1 아니, 아니. 그냥 검질로 툰 거 이만이 진 게 있어. 게민 그거 딱 꼬차근에 율로 꺾탱이로 막 줄라메영 꺼꿀로 들렁 딸기 타근에 나가 그레 막.(아니, 아니. 그냥 김으로 된 거 이만큼 긴 게 있어. 그럼 그거 딱 자르면 요리로 꼬트머리로 마구 잘라매서 거꾸로 들고 딸기 타서 내가 그리 마구.)

103015 @ 아, 강생이풀 그거?(아, 강아지풀 그거?)

103015 #1 그거 뭘 풀이엔 허나, 그거? 딸기 껀는.(그거 뭘 풀이라고 하니, 그거? 딸기 껀는.)

103015 #2 게메.(글썸.)

103015 #1 그거 질어.(그거 길어.)

103015 #2 무신.(무슨.)

103015 #1 탈 껀는 이만이 진 게 있어. 겐 거 두 개나 헤영 와. 집이 가정 와.(딸기 껀는 이만큼 긴 게 있어. 그래서 거 두 개나 해서 와. 집에 가져서 와.)

103015 #2 난이 탈 껀미, 탈 껀미 헤낫어. 탈 껀미엔.(난 딸기 껀미, 딸기 껀미 했었어. 딸기 껀미라고.)

103015 @ 탈 껀미?(딸기 껀미?)

103015 #2 으, 그 탈 타근에게 영 껀영은에게.(으, 그 딸기 따서 이렇게 껀어서)

103015 #1 그 진 거?(그 긴 거?)

103015 #2 으.(으.)

103015 #1 그 이름을 모르겠어.(그 이름을 모르겠어.)

103015 #2 탈 껀미, 탈 껀미 불러낫저게, 그 탈 껀미.(딸기 껀미, 딸기 껀미 불렀었어, 그 딸기 껀미.)

103015 @ 탈 껀미.(딸기 껀미.)

103015 #1 겐 이만이 질게 헤영 두 꺽 가정 와. 아래 동생이 있어. 하나 줘, 하나 줘 허민 처음에 아정 왕 줄걸. 주면 돼는디, 안 돼, 안 돼. 막 헛단 내중에 주는 건디 허나. 주젠 탕 와신디 허나만.(그래서 이만큼 길게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와. 아래 동생이 있어. 하나 줘, 하나 줘 하면 처음에 가지고 와서 줄걸. 주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마구 했다가 나중에 주는 건데 하나. 주려고 타서 왔는데 하나만.)

103015 #2 탕 왕은에 동생덜 막 줘낫어.(타고 와서 동생들 막 줬었어.)

103015 @ 남동생마씨?(남동생요?)

103015 #1 아니, 여동생.(아니, 여동생.)

103015 @ 자매가 이시난 좋지예, 그래도?(자매가 있으니까 좋지요, 그래도?)

103015 #2 하여튼 요만이 진 거라. 요만이.(하여튼 요만큼 긴 거야. 요만큼.)

103015 #1 더 진 것도 있어, 것이. 막 진 것도 있어. 게민 꺾탱이 무꺼근에 우이

로 꿰어는에.(더 긴 것도 있어, 것이. 아주 긴 것도 있어. 그럼 꼬트머리 묶어서 위로 꿰어서.)

조농사

103016 @ 조농사 들어감수다예, 조농사.(조농사 들어갑니다, 조농사.)

103016 #1 으.(으.)

103016 @ 조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조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1 조농사를 허젠 허민 그 보리, 보리 그르에, 보리 그를 혼번 갈앙 어퍼. 어프민 그 보리 비여난 게 조금 썩어.(조농사를 하려고 하면 그 보리, 보리 그루에, 보리 그루를 한번 갈아서 얹어. 얹으면 그 보리 베었던 게 조금 썩어.)

103016 @ 썩어.(썩어.)

103016 #1 흑으로 묻으니까 썩으면은 이제 매칠 돼면은 또 갈아. 갈아근에 이레 막 벤벤허게 골와 낭 섬피로 곳엉 골와 낭 썰 뿌려, 줍씨를. 뿌려근에 뭐 소영 돌이영 이신 집인 막 불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막 소리허멍이.(흑으로 묻으니까 썩으면 이제 며칠 되면 또 갈아. 갈아서 이리 마구 평평하게 골라 놓고 콩게로 끌어서, 골라 놓고 씨를 뿌려, 줍씨를. 뿌려서 뭐 소랑 말이랑 있는 집은 마구 밟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마구 소리하면서.)

103016 @ 소리 해지쿠과?(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103016 #2 으.(으.)

103016 @ 오게. 해 봅서, 혼번.(오. 해 보세요, 한번.)

103016 #1 밧 불리는 소리⁸⁰⁾ 혼번 해 봐.(‘밧 불르는 소리’ 한번 해 봐.)

103016 #2 행 무시거 헐 거라게.(해서 뭐 할 거야.)

103016 #1 어랑하랑 허는 거가?(어랑하랑 하는 건가?)

103016 #2 어. 어러러러러러 요 믱쉬야 혼저 가라. 경행 허주게.(어. 어러러러 요 마소야 어서 가라. 그렇게 하지.)

103016 @ 좋다예.(좋네요.)

103016 #1 경해근에 어러러러러러 얼얼얼얼얼 행은에 얼 하랑. 하랑 허민 쫓이야. 얼 하랑.(그래서 어러러러러러 얼얼얼얼얼 해서 얼 하랑. 하랑 하면 끝이야. 얼 하랑.)

103016 #2 경허멍 노래 불르멍 불려났어, 우리. 말이영 쉼영 행.(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밟았었어, 우리. 말이랑 소랑 해서.)

103016 @ 아니, 남자가 허는 게 아니고 여자도 해?(아니,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해?)

103016 #2 남자가 있으면 허는데 남자가 없으면. 난 만팔로 나기 때문에 나가 주

80) ‘밧 불르는 소리’는 조를 파종할 때 마소 떼를 앞세우고 밭을 다지기 위해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로 해놔주게. 게민 물이고 췌고 여러 마리 있으면은 거 줄 해근에게 영 모가지 걸러멧 영 쭈르륵해. 한 사람이 영 하나 이끄민 다 가게끔 줄을.(남자가 있으면 하는데 남자가 없으면. 난 만팔로 낚기 때문에 내가 주로 했었지. 그럼 말이고 소고 여러 마리 있으면 거 줄 해서 이렇게 모가지 붙잡아 매서 이렇게 쭈르륵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 이끌면 다 가게끔 줄을.)

103016 #1 그 하나에 서너네 개까지 메여.(그 하나에 서너 개까지 매.)

103016 #2 다 메여 놓니까 하나 이끄민 다 따라가게 매니까 한 사람만 하나 이끄 가면은 다 따라가게끔.(다 매 놓으니까 하나 이끌면 다 따라가게 매니까 한 사람만 하나 이끌고 가면 다 따라가게끔.)

103016 #1 게근에 소리가 얼렁얼렁얼렁 해 가민 췌가 물이영 다 들영 가는 거야. 얼렁얼렁 허는 소리에. 그냥 하나만은 얼렁얼 려 수가 없어. 그냥 어러, 어러 영헝 물고이. 으라 개 려 땐 얼렁얼렁얼렁 하하하.(그래서 소리가 얼렁얼렁얼렁 해 가면 소가 말이랑 다 들어서 가는 거야. 얼렁얼렁 하는 소리에. 그냥 하나만은 얼렁얼 려 수가 없어. 그냥 어러, 어러 이렇게 물고. 여러 개 할 때는 얼렁얼렁얼렁 하하하.)

103016 #2 갱 영 가근에게 저 어염에 구석데기에 강 돌릴 때는 얼렁얼렁 려 확 영 돌려근에 돌아오멍 그 노래허멍 갱.(그래서 이렇게 가서 저 옆에 구석에 가서 돌릴 때는 얼렁얼렁 려 확 이렇게 돌려서 돌아오면서 그 노래하면서 그렇게.)

103016 @ 소보다 말이 더 잘 밟아요?(소보다 말이 더 잘 밟아요?)

103016 #1 예. 빠르고.(예. 빠르고.)

103016 #2 지금은 안 밟아도 행 먹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밟았는지 모르겠어.(지금은 안 밟아도 해서 먹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밟았는지 모르겠어.)

103016 @ 씨가 잘 들어가라고.(씨가 잘 들어가라고.)

103016 #1 지금도 조 허민 불리더라.(지금도 조 하면 밟더라.)

103016 #2 지금도 불럼신가?(지금도 밟고 있나?)

103016 #1 으, 불리더라.(으, 밟더라.)

103016 #2 아이 불럼.(안 밟아.)

103016 #1 아니, 아니. 불려, 불려야 나오지.(아니, 아니. 밟아, 밟아야 나오지.)

103016 #2 씨를 뿌리니까 안 불릴 수는 엇지.(씨를 뿌리니까 안 밟을 수는 없지.)

103016 #1 그래 그래, 불려야 나오지. 지금도 불리더라.(그래 그래, 밟아야 나오지. 지금도 밟더라.)

103016 #2 기이. 난 지금은 섬피로만 꾹영 내불엄시카 부덴 헛주게.(그래. 난 지금은 꾹게로만 끌어서 내버리고 있을까 봐 했지.)

103016 #1 불리드라고.(밟더라고.)

103016 @ 소도 데려가고.(소도 데려가고.)

103016 #1 그 불린 디를 보면은 불린 자국에는 많이 잘 나.(그 밟은 데를 보면 밟은 자국에는 많이 잘 나.)

103016 #2 잘 나.(잘 나.)

103016 #1 잘 나는데 이디 무상헌 딴 잘 안 나. 하나씩 나도이 휘척휘척허고⁸¹⁾ 이. 이 블린 딴 제각헝⁸²⁾ 잘 돼. 블린 디.(잘 나는데 여기 무상헌 텐 잘 안 나. 하나씩 나도 ‘휘척휘척하고’. 이 밍은 텐 ‘제각해서’ 잘 돼. 밍은 데.)

103016 @ 신기하다예.(신기하네요.)

103016 #1 발자국이 난게. 게난 조는 블리렌 현 거야.(발자국이 나더라. 그러니까 조는 밍으라고 하는 거야.)

103016 #2 게난 그 종자가 나도 발이 통통해지렌. 겐 더 블르는 거지.(그러니까 그 종자가 나도 발이 탄탄하라고. 그래서 더 밍는 거지.)

103016 #1 산디도 블려.(발벼도 밍아.)

103016 @ 산디도 블리고?(발벼도 밍고?)

103016 #1 으, 나룩 말앙 산디가 잇어이. 밍디 가는 산디.(으, 벼 말고 발벼가 있어. 밍에 가는 발벼.)

103016 @ 예.(예.)

103016 #1 것도 블려이.(것도 밍아.)

103016 #2 것도 블려.(것도 밍아.)

103016 @ 씨 뿌리멍 언제 허여마씨? 것도 조 헐 때?(씨 뿌리면서 언제 해요? 것도 조 할 때?)

103016 #1 아니 허기 전에.(아니 하기 전에.)

103016 #2 허기 전에. 늦은 봄에.(하기 전에. 늦은 봄에.)

103017 @ 여기 산디도 따로 잇수다. 게민 조팏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여기 발벼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 조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17 #1 조팏 걸름? 조팏은 거름이 없어.(조밭 거름? 조밭은 거름이 없어.)

103017 #2 조팏은 거름 엇이.(조밭은 거름 없이.)

103017 #1 그 보리에 거름 헝 놔뒀네. 보리 그르에 가니까. 보리 헤 나쁜 가니까.(그 보리에 거름 해서 놔뒀어. 보리 그루에 가니까. 보리 하고 나쁜 가니까.)

103017 @ 보리 그르. 보리 뿌리나 이런 것들이 다 걸름이 뒀었다는 말이다예.(보리 그루. 보리 뿌리나 이런 것들이 다 거름이 되었다는 말이네요.)

103017 #1 으.(으.)

(전화)

103018 @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1 조?(조?)

103018 @ 예, 멍 월달?(예, 멍 월?)

103018 #2 조는 오월달에.(조는 오월에.)

103018 @ 유월?(유월?)

81) ‘휘척휘척허다’는 가늘고 긴 나뭇가지나 풀 따위가 탄력 있게 휘어지면서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82) ‘제각허다’는 싹이 촘촘하게 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18 #2 오월, 오월.(오월, 오월.)

103018 @ 오월.(오월.)

103018 #1 그 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허는 거니까이.(그 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하는 거니까.)

103018 @ 음력.(음력.)

103018 #1 으, 일를 때는, 일르게 허면은 오월덜도 같고이, 오월 막 그물영도 허고이. 우리가 유월 열흘날 제사가 있어. 제사가, 일르게 갈 때 그때 검질을 메여, 초벌 검질.(으, 이를 때는, 이르게 하면 오월도 같고, 오월 막 저물어서도 하고. 우리가 유월 열하룻날 제사가 있어. 제사가, 일르게 갈 때 그때 김을 매, 초벌 김.)

103018 #2 그렇지계.(그렇지.)

103018 #1 열흘날 제사에.(열하룻날 제사에.)

103018 #2 그렇지.(그렇지.)

103018 #1 조 검질매 텡 왕 제사행 먹어.(조 김매 두고 와서 제사해서 먹어.)

103018 #2 그러니까 오월에 가는 거지.(그러니까 오월에 가는 거지.)

103018 #1 이 농사허는 게.(이 농사하는 게.)

103018 #2 하여튼 이 조는 오월 중순 돼면은 뿌려.(하여튼 이 조는 오월 중순 되면 뿌려.)

103019 @ 거른 좁씨는 어떻 뽕니까? 보리허고 똑같아?(그럼 조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보리하고 똑같아?)

103019 #1 줌진 거니까게. 그냥 보리씨 뿌리 듯 뿌리지.(가는 거니까. 그냥 보리씨 뿌리 듯 뿌리지.)

103019 #2 줌진 거니까 혼 주먹 췌면은 열 번 뿌려야 돼어. 열 번.(가는 거니까 한 주먹 쥐면 열 번 뿌려야 돼. 열 번.)

103019 #1 뿌릴 충 모르는 사람은 팍팍 나가 불민 막 덩어리로 나 불고.(뿌릴 줄 모르는 사람은 팍팍 나가 버리면 마구 덩어리로 나 버리고.)

103019 #2 게난 너미 많이 뿌리민 존이 뽑아 줘야 허기 때문에 뽑젠 허민 그것도 막.(그러니까 너무 많이 뿌리면 조는 뽑아 줘야 하기 때문에 뽑으려고 하면 그것도 막.)

103019 @ 기술이라예?(기술이지요?)

103019 #2 인력이 많이 들주게. 너미 경 많이 뿌리민 안 돼주게.(인력이 많이 들지. 너무 그렇게 많이 뿌리면 안 되지.)

103019 @ 여자도 뿌리고 남자도 뿌리고? 조건에 맞춰.(여자도 뿌리고 남자도 뿌리고? 조건에 맞춰서.)

103019 #2 으.(으.)

103020 @ 게른 조팏은 어떻게 밟습니까? 말테, 남테나 돌테, 끄게 이런 거 잇수과? 말테 들어봤수과? 남테 들어봤수과?(그럼 조밭은 어떻게 밟습니까? ‘말테’, ‘남테’나 돌번지, 끄게 이런 거 있습니까? ‘말테’ 들어봤습니까? ‘남테’ 들어봤습니까?)

103020 #2 말테?('말테'?)
 103020 @ 남테?('남테'?)
 103020 #2 남테⁸³⁾ 몰라.('남테' 몰라.)
 103020 @ 조팏 뽕을 때?(조발 뽕을 때?)
 103020 #2 으, 뽕을 때.(으, 뽕을 때.)
 103020 @ 소 뭉 사름덜.(소 말 사람들.)
 103020 #2 뭉테는.('뭉테'는.)
 103020 @ 뭉테는 들어봤수과?('뭉테'는 들어봤습니까?)
 103020 #2 뭉테는.('뭉테'는.)
 103020 @ 남텐 안 들어봤수과?('남테'는 안 들어봤습니까?)
 103020 #2 남텐 안 허여.('남테'는 안 해.)
 103020 @ 나무로 만들어근에 볼록볼록헤근에.(나무로 만들어서 볼록볼록해서.)
 103020 #1 그거는이 동쪽에 있어. 이렌 없어. 동쪽에.(그거는 동쪽에 있어. 이리
 는 없어. 동쪽에.)
 103020 #2 그거 잇는 디가 있어.(그거 잇는 데가 있어.)
 103020 @ 남테는 동쪽.('남테'는 동쪽.)
 103020 #1 구좌읍부떠 잇더라, 구좌읍부떠.(구좌읍부터 있더라, 구좌읍부터.)
 103020 #2 아, 구좌읍부떠.(아, 구좌읍부터.)
 103020 #1 탁탁 텅굴영 탁탁. 쉼로, 쉼로.(탁탁 텅굴어서 탁탁. 소로, 소로.)
 103020 @ 뭉테는? 뭉테도 구좌?('뭉테'는? '뭉테'도 구좌?)
 103020 #1 것도 구좌.(것도 구좌.)
 103020 @ 여긴 섬피렌 헛구나예?(여긴 콩게라고 했군요?)
 103020 #1 여기는 우리 나무로 현 섬피고 그딘 큰 토막에 툽툽 부쳐.(여기는 우
 리 나무로 하는 콩게이고 거긴 큰 토막에 툽툽 붙여서.)
 103021 @ 으, 경 헛더라고예. 조팏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으, 그렇게 헛더라고
 요. 조발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21 #2 두 번.(두 번.)
 103021 @ 두 번? 두벌 검질예?(두 번? 두벌 김요?)
 103021 #2 으.(으.)
 103021 @ 시불도 멧텐은 헛디다만은예?(세벌도 땀다고 합디다만?)
 103021 #2 시불도 매는 사름 잇고.(세벌도 매는 사람 잇고.)
 103021 @ 어떻 검질을 멧수과?(어떻게 김을 땀습니까?)
 103021 #1 어떻 메나? 영 앓앙. 영 해야 돼, 이거 똥고망 들렁.(어떻게 매니? 이
 령게 앓아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똥구멍 들어서.)
 103021 #2 경 안허민 종자가 막 뽕아져 불주게.(그렇지 않으면 종자가 마구 뽕혀

83)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 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러서 밭을 놀
 려 다지는 농기구를 말한다.

버리지.)

103021 @ 아.(아.)

103021 #2 눌러져 불어.(눌러 버려.)

103021 #1 영 들렁. 이제는 뭐 방식 꿀앙 앓지만 그런 거 꿀앙 안 돼. 그냥 영 영 매멍 나가야지. 하하하.(이렇게 들고. 이제는 뭐 방식 깔아서 앓지만 그런 거 깔아서 안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매면서 나가야지. 하하하.)

103021 #2 항상 궁둥인 들러 줘야 허기 때문에.(항상 궁둥이는 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103021 #1 항상 들러야 돼.(항상 들어야 돼.)

103022 @ 그든 그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그럼 그 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103022 #1 제완지가 젤 주로 나고이. 제완지엔 헌 검질이 있어, 제완지.(바랭이가 제일 주로 나고. 바랭이라고 하는 김이 있어, 바랭이.)

103022 @ 여름 검질.(여름 김.)

103022 #1 제완지, 복쿨. 복쿨도 있어.(바랭이, 깨풀. 깨풀도 있어.)

103022 #2 독쿨?('독쿨'?)

103022 #1 복, 복쿨.(복, 깨풀)

103022 @ 복쿨. 아까.(깨풀. 아까.)

103022 #1 복쿨, 제완지.(깨풀, 바랭이.)

103022 @ 거 두 가지 생각납수과?(거 두 가지 생각납니까?)

103022 #1 다른 건, 복쿨, 제완지 다른 건. 뭐 썩 검질도. 썩도 나와.(다른 건, 깨풀, 바랭이 다른 건. 뭐 썩 김도. 썩도 나와.)

103023 @ 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23 #2 조는 수확은 이렇게 호미로.(조는 수확은 이렇게 낫으로.)

103023 @ 베고.(베고.)

103023 #2 베여 놓면은 그 고고리만, 꼭대기만. 꼭대기만.(베어 놓으면 그 이삭만, 꼭대기만. 꼭대기만.)

103023 @ 홀터? 호미로 따?(홀어? 낫으로 따?)

103023 #2 호미로 따. 호미로 따근에 이제 저 가마니나 밧에 담아다가 집이 갖다 낫다가.(낫으로 따. 낫으로 따서 이제 저 가마니나 밧에 담아다가 집에 갖다 낫다가.)

103023 #1 밀류왕, 밀류왕.(말려서, 말려서.)

103023 #2 밀리와근에 저.(말려서 저.)

103023 #1 밀려야지.(말려야지.)

103023 #2 저 무시거라?(저 뭐야?)

103023 #1 도리깨로.(도리깨로.)

103023 #2 저 도리깨로 털든지 아니면은 그 밀방에, 밀방에로 가근에 둥그려근에 게 터는 수벳기.(저 도리깨로 털든지 아니면 그 연자매, 연자매로 가서 둥글려서 터

는 수밖에.)

103023 @ 두 가지. 어느 게 좋고 나쁘곤 엇고마씨?(두 가지.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없고요?)

103023 #1 두드리는 것이 많아.(두드리는 것이 많아.)

103023 @ 두드리는 것이.(두드리는 것이.)

103023 #1 들방에는 혼자 못하는 거니까.(연자매는 혼자 못하는 거니까.)

103023 @ 아.(아.)

103023 #1 혼자 두드리는 건 허지, 도리께는. 족으나 하나.(혼자 두드리는 건 하지, 도리께는. 적으나 많으나.)

103023 @ 족으나 하나(적으나 많으나.)

103023 #2 두 가지로, 타작허는 게 두 가지로 했어.(두 가지로, 타작하는 게 두 가지로 했어.)

103024 @ 게민 이삭 호미로 툇고. 덩드렁마께도 씹니까?(그럼 이삭 낫으로 뜯고, ‘덩드렁마께’도 씹니까?)

103024 #1 으.(으.)

103024 @ 덩드렁마께로도.(‘덩드렁마께’로도.)

103024 #1 밤이도 앓앙 막 두드려. 밤이도. 거 덩드렁마꺼⁸⁴⁾ 적어지난 알안? 하하하.(밤에도 앓아서 마구 두드려. 밤에도. 거 ‘덩드렁마께’는 적어지니까 알았어? 하하하.)

103024 @ 영 저 도고리에 낱은에 영 그 감 뺏는 것처럼?(이렇게 저 함지박에 넣어서 이렇게 그 감 뺏는 것처럼?)

103024 #2 으, 그게 덩드렁마께주게.(으, 그게 ‘덩드렁마께’지.)

103024 #1 도고리에 놔근에 꺼 뺏을 때, 삶앙 뺏을 때.(함지박에 넣어서 꺼 뺏을 때, 삶아서 뺏을 때.)

103024 @ 아, 삶앙 뺏을 때.(아, 삶아서 뺏을 때.)

103024 #1 으, 덩드렁마께로 영 영 뺏아.(으, ‘덩드렁마께’로 이렇게 이렇게 뺏아.)

103024 @ 그믄 그거 뺏일 땐 어디에 낱? 명석에 낱?(그럼 그거 뺏을 때는 어디에 놔서? 명석에 놔서?)

103024 #1 아니, 아니. 영 무신 다라나 뭘 잇지.(아니, 아니. 이렇게 무슨 대야나 뭘 잇지.)

103024 #2 주로 명석에서.(주로 명석에서.)

103024 @ 명석에서. 게민 베고 무끄는 거는 보리허곡 크기가 또 틀립니까? 벨 때 영 무끌 때 비슷허여?(명석에서. 그럼 베고 묶는 거는 보리하고 크기가 또 다른니까? 벨 때 이렇게 묶을 때 비슷해?)

103024 #1 조?(조?)

84) ‘덩드렁마께’는 바구니나 가마니 따위를 만들기 위해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103024 @ 조.(조.)

103024 #1 조 빌 땀이 앓앙 잘 못 비어. 굽언 막 비어 낡 못도 커.(조 벨 때는 앓아서 잘 못 베어. 굽어서 마구 베어 놔서 못도 커.)

103024 #2 존 무꺼 놓민 이만큼.(조는 묶어 놓으면 이만큼.)

103024 #1 조를 무꺼 놓민 두 못 지민 무겁지. 두 못 진덴 허여, 혼 짐에 두 못.
(조를 묶어 놓으면 두 못 지면 무겁지. 두 못 진다고 해, 한 짐에 두 못.)

103024 @ 혼 짐에 두 못? 말한테 소한테?(한 짐에 두 못? 말한테 소한테?)

103024 #1 아니, 사람 지는 거, 소한테는 여섯 못 해.(아니, 사람 지는 거, 소한테는 여섯 못 해.)

103024 #2 양쪽으로 서 못씩 으섯 못.(양쪽으로 세 못씩 여섯 못.)

103024 @ 저 조가예?(조 조가요?)

103024 #1 으.(으.)

103024 @ 사람은 두 못 지고예?(사람은 두 못 지고요?)

103024 #1 으.(으.)

103025 @ 조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헛고 좁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그것도 조금씩 합니까?(조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헛고 좁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그것도 조금씩 합니까?)

103025 #1 게, 조 타작이 아까 말했네.(그래, 조 타작이 아까 말했네.)

103025 @ 예.(예.)

103025 #1 방에에도 뽏곡게, 들방에도 강.(방아에도 뽏고, 연자매에도 가서.)

103025 #2 조 타작행 그것도 바람에 띄시 체를 날려. 체를 날려 뒤근에 이젠 물류와.(조 타작해서 그것도 바람에 또 체를 날려. 체를 날려 뒤서 이젠 말려.)

103025 @ 물려?(말려?)

103025 #2 으, 물리와근에 이제 띄시 그걸 들방에 강 띄시 저.(으, 말려서 이제 또 그걸 연자매에 가서 또 찢어.)

103025 @ 흔꺼번에 다 허진 안허고 그것도?(한꺼번에 다 하진 앓고 그것도?)

103025 #2 먹을 거만.(먹을 거만.)

103025 #1 물려야지, 물려야.(말려야지, 말려야.)

103025 #2 물려야.(말려야.)

103025 #1 물려야 벗지. 껍죽이 안 물리민 안 벗어정 빠져져 불어.(말려야 벗지. 껍질이 안 마르면 안 벗겨져서 부서져 버려.)

103025 #2 덜 물르민 뿌서져 불어, 잘 물려사.(덜 마르면 부서져 버려, 잘 말려야.)

103025 #1 알맹이가 뽏아져 불어.(알맹이가 뽏여 버려.)

103025 @ 조코코리를 이신 체 일단 말령?(조이삭을 있는 체 일단 말려서?)

103025 #1 조코코리 이신 체도 물리고 또 두드려 낡도 조로도 물려야 돼.(조이삭 있는 체도 말리고 또 두드려 놔서도 조로도 말려야 돼.)

103025 @ 조로도 말리고?(조로도 말리고?)

103025 #2 으, 잘 물려야 돼.(으, 잘 말려야 돼.)

103025 #1 명석에 널엉, 명석에 널엉은에이.(명석에 널어서, 명석에 널어서.)

103025 @ 어쨌든 조코고리를 물리는 게 중요하디예?(어쨌든 조이삭을 말리는 게 중요하네요?)

103025 #1 으.(으.)

103025 @ 경헨 맥에 담앗당?(그래서 맥에 담았다가?)

103025 #1 어. 맥에 담앗당.(어. 맥에 담았다가.)

103025 #2 툇아 놔근에게 헛빛에 막 물리놔근에 그날 밤이 이젠 두들기는 거라. 덩드렁마께로.(뜯어 놓고 헛별에 마구 말려서 그날 밤에 이젠 두드리는 거야. ‘덩드렁마께’로.)

103025 @ 향아리에 담아?(향아리에 담아?)

103025 #2 경혜근에 두드려 낱 이제 겨른 털어질 거 아니라?(그래서 두드려 놔서 이제 그러면 떨어질 거 아니야?)

103025 @ 으.(으.)

103025 #2 털어지민 이제 바람에 날려. 그 체를.(떨어지면 이제 바람에 날려. 그 겨를.)

103025 @ 체를.(겨를.)

103025 #1 불려, 불려.(불려, 불려.)

103025 #2 바람에 날려 놓고, 이제 또 말려. 말려근에 이제 향아리에 담아 둬서 먹을 만큼씩 들방에 행 저당 먹고.(바람에 날려 놓고, 이제 또 말려. 말려서 이제 향아리에 담아 두면서 먹을 만큼씩 연자매에 해서 찢어다가 먹고.)

103026 @ 껌데기 그거는 나중예. 그른 줍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조밥도 해 먹고, 떡, 감주, 술?(껌데기 그거는 나중예. 그럼 줍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조밥도 해 먹고, 떡, 감주, 술?)

103026 #2 감주, 술.(감주, 술.)

103026 @ 이런 거?(이런 거?)

103026 #2 으. 어떤 걸 또 해 먹읍니까, 오메기떡⁸⁵은?(으. 어떤 걸 또 해 먹습니까, ‘오메기떡’은?)

103026 #1 오메기떡 행 먹지. 주로 오메기떡 먹지.(‘오메기떡’ 해서 먹지. 주로 ‘오메기떡’ 먹지.)

103026 @ 오메기떡은 뭐파?(‘오메기떡’은 뭐니까?)

103026 #2 오메기, 줍쌀 ㄱ를 갈아다가, 줍쌀 ㄱ를 빠다가 이제 반죽허여.(‘오메기’, 줍쌀 가루를 갈아다가, 줍쌀 가루를 뺏아다가 이제 반죽해.)

103026 #1 옛날은 오메기떡 ㄱ라이 소곱에 풋 안 담은 걸 오메기떡이엔 헛어이.

85)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옛날은 ‘오메기떡’보고 속에 팔 안 담은 걸 ‘오메기떡’이라고 했어.)

103026 #2 으게.(그래.)

103026 #1 팏 안 담앙 그냥 헤이. 오메기떡은이.(팔 안 담고 그냥 해. ‘오메기떡’은.)

103026 @ 좁쌀로예?(좁쌀로요?)

103026 #2 응. 좁쌀로, 좁쌀 ㄱ루로.(응. 좁쌀로, 좁쌀 가루로.)

103026 @ 그걸 어떻 동그락허게 지금 오메기떡처럼?(그걸 어떻게 동그랗게 지금 ‘오메기떡’처럼?)

103026 #2 으, 막 크게, 막 크게 이렇게 췌 가지고.(으, 아주 크게, 아주 크게 이렇게 쥐어 가지고.)

103026 #1 건 술떡이지.(건 술떡이지.)

103026 #2 게메 오메기떡은.(글쎄 ‘오메기떡’은.)

103026 #1 막걸리 떡. 막걸리 만들 때.(막걸리 떡. 막걸리 만들 때.)

103026 #2 막걸리 만드느 그 오메기떡은 둥그렇게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익지 안허니까 가운데 영 구멍을 뚫어. 이 손가락 영 디물라근에게.(막걸리 만드느 그 ‘오메기떡’은 둥그렇게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익지 않으니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 이 손가락 이렇게 들이밀어서.)

103026 @ 익지 안허니까?(익지 않으니까?)

103026 #1 영 영 영 영 둘러 가민이.(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둘러 가면.)

103026 #2 손가락 디밀앙 영 영 둘러 가민 구멍 뚫리지잖아? 경헐 숯앙 건져 놔근에게 저 찌근에게.(손가락 들이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둘러 가면 구멍 뚫리지잖아? 그래서 삶아서 건져 놔서 저 찌서.)

103026 #1 누룩.(누룩.)

103026 #2 누룩 ㄱ루 서팅 찌근에게 이제 물 낱 막 짓엉 배합시켜근에 향아리 담앙, 막걸리.(누룩 가루 섞어서 찌서 이제 물 넣어서 마구 저어서 배합시켜서 향아리 담아, 막걸리.)

103026 @ 헤낫수과?(했었습니까?)

103026 #1 헤낫지.(했었지.)

103026 #2 아고, 허지게. 우리, 우리가.(아이고, 하지. 우리, 우리가.)

103026 #1 우리네이 바깥주인이 술을 잘 자시고이. 학교에 다니명 학교 직원덜이 청주를 경 좋아해. 그 막걸리 나기 전에 청주가 나와. 그 청주를 좋아하니까 그 선생덜 울영근에⁸⁶⁾ 우리 집 아방⁸⁷⁾이 서무과장 해나니까 그 아래 선생덜 울영 해마다 해마다 흔 해도 아니 아니 해 봤어. 아니 걸러 봤어. 계속 술 헤여, 계속. 일 년에 흔 번씩.(우리는 바깥주인이 술을 잘 자시고.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직원들이 청주를 그렇게 좋아해. 그 막걸리 나기 전에 청주가 나와. 그 청주를 좋아하니까 그

86) ‘울다’는 어떤 대상을 위한다는 의미다.

87)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선생들 위해서 우리 집 아버지가 서무과장 했었으니까 그 아래 선생들 위해서 해마다 해마다 한 해도 아니 아니 해 봤어. 아니 걸러 봤어. 계속 술 해, 계속. 일 년에 한 번씩.)

103026 @ 청주도 잘하시고?(청주도 잘하시고?)

103026 #1 으.(으.)

103026 @ 그 저 고소리 뽑는 것도?(그 저 ‘고소리’ 뽑는 것도?)

103026 #1 그런 건 안 했어, 나.(그런 건 안 했어, 나.)

103026 @ 고소린 안 허고?(‘고소리’는 안 하고?)

103026 #1 으, 고소리 뽑는 건 안 허고.(으, ‘고소리’ 뽑는 건 안 하고.)

103026 #2 고소리 허는 건 오메기떡으로 허는 게 아니고 걸보리민 걸보리, 맥주보리민 맥주보리이.(‘고소리’ 하는 건 ‘오메기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걸보리면 걸보리, 맥주보리면 맥주보리.)

103026 #1 시루에 찜.(시루에 찜서.)

103026 #2 응. 그거 저 두 개 세 개에 영 벌렁 이제 쌀 만들아근에게 시리에 찜, 물에 영 낡은에게 막 짓, 배합시켜근에 시리에 담양 찜근에게 누룩 해근에게 버무려근에게 향아리에 담양 놔두민 이제.(응. 그거 저 두 개 세 개 이렇게 쪼개서 이제 쌀 만들어서 시루에 찜서, 물에 이렇게 넣어서 마구 저어, 배합시켜서 시루에 담아서 찜서 누룩 해서 버무려서 향아리에 담아서 놔두면 이제.)

103026 #1 부구락해⁸⁸.(‘부구락해’.)

103026 @ 청주 담는 거는 그렇게.(청주 담그는 거는 그렇게.)

103026 #2 그 저 발효되면은 이제 그 고소리에 담아근에게 그거 저 소주 빼엿주게.(그 저 발효되면 이제 그 ‘고소리’에 담아서 그거 저 소주 뺐지.)

103026 @ 해냏수과?(했었습니까?)

103026 #2 아니, 난 해나진 안해신디 우리 어머니가 주로 행.(아니, 난 했었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주로 해서.)

103026 #1 나는이 우리 어머니 때부터도 우리 아버지도 술 잘 먹는 때문 청주허는 거만, 탁베기엔 허여. 막걸리엔 안 해영 탁베기, 청주 탁베기만 주로 해냏어.(나는 우리 어머니 때부터도 우리 아버지도 술 잘 먹는 때문 청주하는 거만, ‘탁베기’라고 해. 막걸리라고 안 하고 ‘탁베기’, 청주 ‘탁베기’만 주로 했었어.)

103026 #2 으, 그런 것도 잘허고 저런 것도 잘해냏주.(으, 그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했었지.)

103026 #1 우리 아시가 소주 잘했주. 현○○이허곡.(우리 아우가 소주 잘했지. 현○○하고.)

103026 #2 ○○이 잘했주.(○○이 잘했지.)

103026 #1 군인 가 분 때, 스나이덜 군인 가 분 때 그것만 주로 헐에. 우리 아시도 허고 가이도.(군인 가 버렸을 때, 사나이들 군인 가 버렸을 때 그것만 주로 해

88) ‘부구락하다’는 술이 발효하여 거품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서. 우리 아우도 하고 개도.)

103026 @ 그 아시가 잇어마씨, 지금도 살아 계셔?(그 아우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

103026 #1 저 월랑⁸⁹⁾ 가민 가이 만날 겨우다. 대보탕 주인 할망이엔 허민이.(저 ‘월랑’ 가면 개 만날 겁니다. 대보탕 주인 할머니라고 하면.)

103026 @ 대보탕?(대보탕?)

103026 #1 으.(으.)

103026 @ 동생마씨?(동생요?)

103026 #1 으.(으.)

103026 @ 거긴 월랑으로 시집갔수파?(거기는 ‘월랑’으로 시집갔습니까?)

103026 #1 월랑 누게네, 누게네 곶앙 놔두난 거 김○○이네 안 올라간?(‘월랑’ 누구네, 누구네 말해서 놔두니까 거 김○○이네 안 올라갔어?)

103026 @ 할무닌 못 만나고 저기 하르부지만 헛는다.(할머닌 못 만나고 저기 할아버지만 헛는데.)

<중략>

103026 @ 계난 삼촌은 탁베기를 잘했다는 거 아니?(그러니까 삼촌은 막걸리를 잘했다는 거 아니?)

103026 #1 하여튼 일 년에 혼 번씩은 계속 헤시난. 아방이 술을 좋아행.(하여튼 일 년에 한 번씩은 계속 했으니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서.)

103026 @ 조 떡은, 요즘 오메기떡 거 진짜 아니지예? 그런 식으로 안 만들었지예? 요즘 거 다 찹쌀이라.(조 떡은, 요즘 ‘오메기떡’ 거 진짜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안 만들었지요? 요즘 거 다 찹쌀이야.)

103026 #2 찹쌀, 찹쌀.(찹쌀, 찹쌀.)

103026 #1 찹쌀 들어야 맛도 나지게.(찹쌀 들어야 맛도 나지.)

103026 @ 예게.(예.)

103026 #1 좁쌀로만 허민 그렇게 흐릴 수가 없어.(좁쌀로만 하면 그렇게 차질 수가 없어.)

103026 #2 좁쌀이 비싸 노니까.(좁쌀이 비싸 놓으니까.)

103026 @ 비싸 노니까. 더 이젠 거꾸로 돼 불언.(비싸 놓으니까. 더 이젠 거꾸로 돼 버렸어.)

103026 #2 먹어 보민 좁쌀 오메기떡⁹⁰⁾ 아니라.(먹어 보면 좁쌀 ‘오메기떡’ 아니야.)

103026 @ 계난 그 오메기떡이 경 만들영 먹긴 헛수과?(그러니까 그 ‘오메기떡’이 그렇게 만들어서 먹기는 했습니까?)

103026 #1 나 알아정 질 잘헤난 건이 그 술 막걸리 헤영 영 청주허는 거 허곡

89) ‘월랑’은 제주시 노형동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90)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오합주⁹¹⁾가 있어. 오합주, 현디 난 육합주⁹²⁾를 했어. 그레 마농 하나 더 넣어.(나
알아서 제일 잘했던 건 그 술 막걸리 해서 이렇게 청주하는 거 하고 ‘오합주’가 있
어. ‘오합주’, 그런데 난 ‘육합주’를 했어. 그리 마늘 하나 더 넣었어.)

103026 @ 뭐마씨? 마농?(뭐요? 마늘?)

103026 #1 마늘, 마늘. 그거 노니까 육합주가 됐언. 오합주에서.(마늘, 마늘. 그거
넣으니까 ‘육합주’가 됐어. ‘오합주’에서.)

103026 #2 경헌 거주게.(그런 거지.)

103026 #1 오섯 가지가 돼어. 다섯 가진 다른 사람 다 허는데.(여섯 가지가 돼.
다섯 가지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103026 @ 그 탁베기에?(그 막걸리에?)

103026 #1 탁베기가 아니고.(막걸리가 아니고.)

103026 #2 탁베기가 아니고.(막걸리가 아니고.)

103026 #1 청주 혼 돼, 참기름 혼 돼.(청주 한 되, 참기름 한 되.)

103026 @ 참기름?(참기름?)

103026 #1 참기름 혼 돼, 꿀 혼 돼, 계란 백 개.(참기름 한 되, 꿀 한 되, 계란 백
개.)

103026 @ 하하하. 재미있다예.(하하하. 재미있네요.)

103026 #1 생강 두 근, 계민 다섯 가지지이.(생강 두 근, 그럼 다섯 가지지.)

103026 #2 계난 오합주엔 허는 거주게.(그러니까 ‘오합주’라고 하는 거지.)

103026 #1 다섯 가지에 마늘 들어가. 우린 마늘을 아방이 좋아하니까.(다섯 가지
에 마늘 들어가. 우린 마늘을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103026 @ 아니, 계난 술 좋아하던 시작헌 게 이렇게 된 거우과? 누구안티 배완
마씨?(아니, 그러니까 술 좋아하니까 시작한 게 이렇게 된 겁니까? 누구한테 배웠어
요?)

103026 #1 배운 게 아니고 우리 시어머님도 잘하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친정아
버지도 술 잘 마시고.(배운 게 아니고 우리 시어머님도 잘하고, 우리 어머니도, 우
리 친정아버지도 술 잘 마시고.)

103026 @ 이거 문화재로 어떻 만들 수 엇이카?(이거 문화재로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103026 #1 우리 시아바님도 술 잘하니까, 그걸 잘헤영 안내. 계난 그걸 보앗당.
(우리 시아버님도 술 잘하니까, 그걸 잘해서 드려. 그러니까 그걸 보았다가.)

103026 #2 술덜을 좋아하니까.(술들을 좋아하니까.)

103026 @ 건강하실 때예?(건강하실 때요?)

103026 #2 옛날 어른덜은 경.(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103026 #1 어릴 때부터 헛지게, 어릴 때부터.(어릴 때부터 했지, 어릴 때부터.)

91) ‘오합주’는 청주, 달걀, 참기름, 꿀, 생강 등 다섯 가지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제주의 전통 민속주를 말한다.

92) ‘육합주’는 제보자가 ‘오합주’를 만들 때 마늘까지 더 넣어서 만든 술을 말한다.

103026 @ 예고게.(어이구.)

103026 #1 계란이 그때 헐 팬이 어려운 건 꿀이더라고.(그러니까 그때 할 때는 어려운 게 꿀이더라고.)

103026 #2 꿀이 질 어렵지.(꿀이 제일 어렵지.)

103026 #1 질 어려와, 사는 게.(제일 어려워, 사는 게.)

103026 @ 아.(아.)

103026 #1 기름도 빠 부니까 술도 뺏곡 허난, 다 뺏으니까 꿀이 질 어려와. 꿀 사는 게.(기름도 뺏아 버리니까 술도 뺏고 하니까, 다 뺏으니까 꿀이 제일 어려워. 꿀 사는 게.)

103026 @ 건디 그건 남자덜만 먹는 거 아니, 술로?(그런데 그건 남자들만 먹는 거 아니, 술로?)

103026 #1 여자도 먹어지민 좋아. 애기 어명이 애기 나근에 얼마 안 돼근에 헐 때도 그거 먹으면 잘도 든든허여, 신체가.(여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아. 아기 어머니가 아기 낳아서 얼마 안 돼서 할 때도 그거 먹으면 아주 든든해, 신체가.)

103026 @ 술인데도?(술인데도?)

103026 #2 응, 그건 만병통치에 먹는 거.(으, 그건 만병통치에 먹는 거.)

103026 #1 여러 가지 만든 거니까게.(여러 가지 만든 거니까.)

103026 #2 춤지름, 꿀게 들어가 봐게. 얼마나 몸에 좋은 거라게.(참기름, 꿀 들어가 봐. 얼마나 몸에 좋은 거야.)

103026 @ 술에 그런 거 들어간다는 거는 거 상상이 안 돼는데예.(술에 그런 거 들어간다는 거는 거 상상이 안 되는데요.)

103026 #1 혼 돼니까 혼 돼씩 나가는 거니까.(한 되니까 한 되씩 나가는 거니까.)

103026 #2 다섯 가질 낱 둥근 거난게.(다섯 가지를 넣어서 담근 거니까.)

103026 @ 지금 그런 거 어디 강 좇지 못허켜예?(지금 그런 거 어디 가서 찾지 못하겠어요?)

103026 #2 지금 사람덜은 헐 줄도 몰르고.(지금 사람들은 할 줄도 모르고.)

103026 #1 여러 가지난 허젠도 안 허고게.(여러 가지니까 하려고도 안 하고.)

103026 @ 아는 사람도 두 분밖에.(아는 사람도 두 분밖에.)

103026 #1 아니, 나 맨날 곱아. 우리 집 아방⁹³⁾이 오민 친구들 와근에 주멍, 야, 우리 집이 거는 육합주여이, 오합주 아니여이. 너넨 오합주만 허지이. 우린 육합주여이. 경 잘 곱아. 하하, 마늘 하나 들어갓덴. 겐 아방이 마늘을 좋아하니까 육합주엔 곱아. 본인이 육합주 먹엿덴. 다른 집인 오합주 만드는데. 아니 그때는 오합주를 많이 허긴 헛어.(아니, 나 매일 말해. 우리 집 아버지가 오면 친구들 와서 주면서, 야, 우리 집의 거는 ‘육합주’야, ‘오합주’ 아니야. 너희는 ‘오합주’만 하지. 우린 ‘육합주’야. 그렇게 잘 말해. 하하, 마늘 하나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늘을 좋아하니까 ‘육합주’라고 말해. 본인이 ‘육합주’ 먹는다고. 다른 집은 ‘오합주’ 만드는

93) ‘아방’은 ‘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자기 ‘남편’을 가리킨다.

데. 아니 그때는 ‘오합주’를 많이 하긴 했어.)

103026 #2 그때들은 많이 했어.(그때들은 많이 했어.)

103026 #1 술을 많이 하니까. 겐디 우리 집이만 마늘을 더 낫지. 딴 집보다.(술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만 마늘을 더 넣었지. 다른 집보다.)

103026 @ 마늘이 좋긴 종텐마씨.(마늘이 좋긴 종대요.)

103026 #1 좋으니까.(좋으니까.)

103026 #2 난 우린, 우리 친정아버지도 술 안 마시지, 우리 영감도 술 안 마시지.(난 우린, 우리 친정아버지도 술 안 마시지, 우리 영감도 술 안 마시지.)

103026 @ 계난 안 허고.(그러니까 안 하고.)

103026 #2 겨난.(그러니까.)

103026 #1 우린 밧거리가 이신디 밧거리 부엌에 술 담그는 향아리 흐나허고 술떡 허는 솜이 딱 정해져 있어. 그디 강 술떡 행 솜앙 그 옆이 술 향아리가 있어. 그레 담아근에 가맹이가 있어. 가맹이 뜯엉 뽕 둘렁, 둘렁은에 뜯시게게 뜯시게 헤여근에 우이 담요나 뭐.(우린 바깥채가 있는데 바깥채 부엌에 술 담그는 향아리 하나 하고 술떡 하는 술이 딱 정해져 있어. 거기 가서 술떡 해서 삶아서 그 옆의 술 향아리가 있어. 그리 담아서 가마니가 있어. 가마니가 뜯어서 뽕 둘려서, 둘려서 따듯하게 따듯하게 해서 위에 담요나 뭐.)

103026 @ 더퍼?(덜어?)

103026 #1 도구리로 더퍼. 나무 도구리 딱 더퍼 낱.(함지박으로 덜어. 나무 함지박 딱 덜어 놔서.)

103026 @ 계도 하르부지가 잘, 경 만들어 주는데.(그래도 할아버지가 잘,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103026 #1 성격이 영 해 놓난 성격대로 생각해 불민 그냥 넘어가. ㄴ찌 마주치민 씹는데 혼 사람만 골아 뵈자.(성격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성격대로 생각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 같이 마주치면 싸우는데 한 사람만 말해 봐도.)

103026 @ 계난예 살아보난 경 험디다. 신랑 비위 맞춰 딱 부딪칠 건 안 부딪치게 만들민 그게 제일이라. 굳이 경 싸울 필요가 없어.(그러니까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험디다. 신랑 비위 맞춰서 딱 부딪칠 건 안 부딪치게 만들면 그게 제일이야.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103026 #2 싸울 필요가 엇지게.(싸울 필요가 없지.)

103026 @ 손해라, 손해.(손해야, 손해.)

103026 #2 서로가 참 손해지.(서로가 참 손해지.)

103026 #1 육십다섯에 가불엇어게. 심장마비로 누웠 줌자당. 줌자다근에 말 그냥 몰라 가난 병원에 가난 별씨 심장마비로 반이 갓텐.(육십다섯에 가버렸어. 심장마비로 누워서 잠자다가. 잠자다가 말 그냥 몰라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별씨 심장마비로 반이 갔다고.)

103026 @ 어떻게 보민 참예. 아프지도 안행 고통 없이.(어떻게 보면 참요. 아프

지도 않고 고통 없이.)

103026 #1 경헌디 나가 영 꺾어 보니까이 줌잘 때 코 카카카각 크게 골지. 그런 사람이 심장마비가 많더라고.(그런데 내가 이렇게 꺾어 보니까 잠잘 때 코 카카카각 크게 골지. 그런 사람이 심장마비가 많더라고.)

103026 @ 그러니까.(그러니까.)

103026 #1 코를 그냥 쫘쫘허게 골당 말꼭 허잖아. 우리 집이⁹⁴⁾가 경 코를 골아. (코를 그냥 잠잠하게 골다가 말고 하잖아. 우리 남편이 그렇게 코를 골아.)

103026 @ 감주도 해봤수과?(감주도 해봤습니까?)

103026 #1 감주사 제사 때마다 우린 헛어. 어떻 행 해신고 허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술을 안 자서게.(감주야 제사 때마다 우린 헛어. 어떻게 해서 했는가 하면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술을 안 자서.)

103026 @ 아, 하하.(아, 하하.)

103026 #1 경헨 우리 시어머님이 그걸 쪽 델 잇어 왔어.(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그걸 쪽 대를 이어 왔어.)

103026 #2 해야주게.(해야지.)

103026 #1 감주 허는 거, 겐 많인 안 해. 쪼금 해. 그디만 올려, 감주.(감주 하는 거, 그래서 많이는 안 해. 조곰 해. 거기만 올려, 감주.)

103026 #2 우린 술 안 허영 감주만 주로 올리는데.(우린 술 안 해서 감주만 주로 올리는데.)

103026 #1 그 어른은 술을 입에 안 대 봤덴. 겨난 시어머님이 영 해나난.(그 어른은 술을 입에 안 대 봤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이렇게 했었으니까.)

103026 @ 감주는 또 줌잘이 비싸 부난, 조로 허는 게 감주지예?(감주는 또 줌잘이 비싸 버리니까, 조로 하는 게 감주지요?)

103026 #1 으.(으.)

103026 @ 게난 진짜 맛 좋아예. 쉰다리허고 비교가 안 되는 거 닷아.(그러니까 진짜 맛 좋아요. ‘쉰다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같아.)

103026 #1 겐디 이젠 버치덴 안 해 부니까. 하하하.(그런데 이제 부치다고 안 해 버리니까. 하하하.)

103026 @ 그믐 줌잘 가루가 필요헌 거파? 줌잘이 필요헌 거파?(그럼 줌잘 가루가 필요한 겁니까? 줌잘이 필요한 겁니까?)

103026 #1 줌잘로 가루 허주게.(줍쌀로 가루 하지.)

103026 #2 차줍쌀.(차줍쌀.)

103026 @ 차줍쌀.(차줍쌀.)

103026 #1 으, 차줍잘로.(으, 차줍잘로.)

103026 @ 이거허고 또 누룩?(이거하고 또 누룩?)

103026 #2 차줍잘로 거 밥해영.(차줍쌀로 거 밥해서.)

94) 여기서 ‘집이’는 ‘집의 사람’으로 남편을 가리킨다.

103026 @ 밥행.(밥해서.)

103026 #1 골, 골.(엿기름, 엿기름.)

103026 #2 밥해근에 그 골가루.(밥해서 그 엿기름가루.)

103026 @ 골가루.(엿기름가루.)

103026 #2 으. 밥해근에 식혀근에게.(으. 밥해서 식혀서.)

103026 #1 골을 뿔으로 허느냐른 밀로 해.(엿기름을 뿔로 하느냐면 밀로 해.)

103026 @ 아.(아.)

103026 #1 밀 해근에이 물 웃정 영 놔두민 발⁹⁵⁾ 나와. 발 나오면은 들류와. 그것이 골이야.(밀 해서 물 얹어서 놔두면 짹 나와. 짹 나오면 말려. 그것이 엿기름이야.)

103026 @ 보리싹이 아니고? 난 보리 골로만 알아신디.(보리싹이 아니고? 난 보리 엿기름만 알았는데.)

103026 #1 밀, 밀. 밀로 해.(밀, 밀. 밀로 해.)

103026 @ 밀 골이구나.(밀 엿기름이구나.)

103026 #1 보리로 골 안 해. 밀로 해.(보리로 엿기름 안 해. 밀로 해.)

103026 @ 오일장에 팝니까, 지금 안 팔지예?(오일장에 팝니까, 지금 안 팔지요?)

103026 #1 팔아, 팔아. 골가루로 해영 영 썬은에 일 키로에 얼마씩 행 팔아. 골가루.(팔아, 팔아. 엿기름가루로 해서 이렇게 썰어서 일 킬로그램에 얼마씩 해서 팔아. 엿기름가루.)

103026 @ 게민 거 섞어?(그럼 거 섞어?)

103026 #1 밥행 섞어.(밥해서 섞어.)

103026 #2 밥해근에 퍼 낱. 큰 다라에 퍼 놔근에게 식혀. 뜨거울 때 골꺾를 놓민 그 골에 힘이 없어서 불주게.(밥해서 퍼 놔서 식혀. 뜨거울 때 엿기름가루 넣으면 그 엿기름 힘이 없어서 버리지.)

103026 #1 게고 좀 시고.(그리고 좀 시고.)

103026 #2 좀 식은 다음에.(좀 식은 다음에.)

103026 #1 건 김 나강 미지근할 때.(건 김 나가서 미지근할 때.)

103026 #2 골가루 낱은에 배합시켜. 게근에게 그릇에 뒀.(엿기름가루 넣어서 배합시켜. 그래서 그릇에 뒀.)

103026 #1 낱 더깁 좀 따스게 놔두면.(넣어서 덮어서 좀 따뜻하게 놔두면.)

103026 #2 요만은헌 향아리에 담아근에게 아까 야이 말쩍 아니라도 놔두민 부꺾이⁹⁶⁾ 올라와근에 발효돼어. 경허민 이제 영 치는 체로 청은에 그 주지 빼여. 겐 물만 해여근에 솟디 놔근에게 나무로 불을 은근이 떼어근에게 한참 막 여러 시간 걸려.(요만한 향아리에 담아서 아까 애 말 아니라도 놔두면 ‘부꺾이’ 올라와서 발효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는 체로 쳐서 그 찌꺼기 빼. 그래서 물만 해서 술에 넣어서

95) ‘발’은 엿기름을 만들 때 물에 불린 보리나 밀 따위에서 나는 싹을 말한다.

96) ‘부꺾이’는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나무로 불을 은근히 때어서 한참 아주 여러 시간 걸려.)

103026 #1 게민 잘도 맛있어.(그럼 아주 맛있어.)

103026 #2 경혜야 맛있어.(그래야 맛있어.)

103026 @ 베와시민 좋켜예.(배웠으면 좋겠어요.)

103026 #1 잘도 맛있어. 아이구, 이제 그거. 옛날엔 그거를 쉼나 닭이나 쥐 불주게. 것도 나 먹어난 거 봤어.(아주 맛있어. 아이고, 이제 그거. 옛날에는 그거를 소나 닭이나 쥐 버리지. 것도 내가 먹었던 거 봤어.)

103026 #2 게 어떻게 할 말이라.(그래 어떻게 할 말이야.)

103026 #1 삶앙 먹어.(삶아서 먹어.)

103026 #2 삶앙 먹어. 먹을 거 없이니까.(삶아서 먹어. 먹을 거 없으니까.)

103026 @ 게니까.(그러니까.)

103026 #1 그 주생이도 먹어. 켜디 내중엔 안 먹었어. 득 쥐 불언.(그 찌꺼기도 먹어. 그런데 나중에는 안 먹었어. 닭 쥐 버렸어.)

103026 #2 아이, 비작비작행⁹⁷⁾ 못 먹겠더라게.(아, ‘비작비작해서’ 못 먹겠더라.)

103026 #1 나가 먹는 거, 삶앙 먹는 걸 판.(내가 먹는 거, 삶아서 먹는 거 봤어.)

103026 @ 엇인 땀게. 그땐 좁쌀도 싸난게 버릴 수도 잇엇주만 지금 거트민 먹을 수도 잇주게.(없을 때는. 그때는 좁쌀도 싸니까 버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 같으면 먹을 수도 있지.)

103026 #1 에이, 지금은 아이 먹어. 어디 그런 거 먹어. 돈 주켄 해도 아이 먹을 거여.(에이, 지금은 안 먹어. 어디 그런 거 먹어. 돈 주겠다고 해도 안 먹을 거야.)

103026 #2 그럼.(그럼.)

103026 @ 먹어나질 안헤노난예, 그런 거.(먹었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

103026 #2 에이구, 감주 지리게.(어이구, 감주 질리게.)

103026 @ 것도 다 솜씨가 다르지예? 다 비슷비슷할 건가?(것도 다 솜씨가 다르지요? 다 비슷비슷할 건가?)

103026 #1 나는 조금씩 해. 그 하르부지 혼 어른만이.(나는 조금씩 해. 그 할아버지 한 어른만.)

103026 #2 느넌 술을 경 많이?(너희는 술을 그렇게 많이?)

103026 #1 으, 술만 많아, 술만.(으, 술만 많아, 술만.)

103026 #2 우린 술덜을 별로 안 마시니까.(우린 술들을 별로 안 마시니까.)

103026 #1 딱 증조하르부지 혼 분만 경. 증조하르부지가 ○○ 웨하르부지라게. 켜 그 하르부지가 술을 입을 안 대어 봤덴. 우리 시어머님 말이. 게난 이 하르부지는 꼭 멩질에도 헤영 꼭 맥주로 혼나썩벳기 안 허더라, 감주. 헤영 꼭 그 상 앞이만 놔. 게난 그 본 봤당 나 허당 우리 ○○, ○○ 허단 지제헤 불언.(딱 증조할아버지 한 분만 그렇게. 증조할아버지가 ○○ 외할아버지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술을 입을 안 대 봤다고. 우리 시어머님 말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꼭 멩질에도 해서

97) 여기서 ‘비작비작하다’는 술을 담았던 지게미의 흐물흐물한 맛을 나타낸 말이다.

꼭 맥주로 하나씩밖에 안 하더라, 감주. 해서 꼭 그 상 앞에만 놔. 그러니까 그 본
봤다가 내가 하다가 우리 ○○, ○○ 하다가 지체해 버렸어.)

103027 @ 조찹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조찹?(조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조짚?)

103027 #1 조찹은 활용할 것도 없어.(조짚은 활용할 것도 없어.)

103027 @ 소 먹습니까?(소 먹습니까?)

103027 #1 소 먹지. 소출이지.(소 먹지. 쇠풀이지.)

103027 @ 아.(아.)

103027 #2 소 목출.(소 목초.)

103027 #1 맛있게 잘 먹어.(맛있게 잘 먹어.)

103027 @ 그믐 조찍은 또 놓습니까?(그믐 조짚은 또 가릅니까?)

103027 #2 그럼.(그럼.)

103027 #1 그 대가리만 못 먹고 다 먹어.(그 대가리만 못 먹고 다 먹어.)

103027 @ 놀영 낫당?(가려 왔다가.)

103027 #2 으, 놀영 낫다근에게.(으, 가려서 왔다가.)

103027 #1 뽐아근에.(뽐아서.)

103027 #2 뽐으멍 쥐.(뽐으면서 쥐.)

103027 @ 아니믄 그 저 고고리째도 눕니까? 경은 안 허지예?(아니면 그 저 이삭
째도 가릅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요?)

103027 #1 고고리째 못 허고.(이삭째 못 하고.)

103027 #2 고고리째 못 놀어. 고고리 셔부난 영 자빠정.(이삭째 못 가려. 이삭 있
어서 이렇게 자빠져서.)

103027 @ 자빠져.(자빠져.)

103027 #1 우선 고고리만.(우선 이삭만.)

103027 @ 그럼 보리낭쟁이 쓰는 용도, 보릿대 쓰는 용도랑 조찍 쓰는 용도가 다
르고?(그럼 보릿대 쓰는 용도, 보릿대 쓰는 용도랑 조짚 쓰는 용도가 다르고?)

103027 #1 다르지.(다르지.)

103027 @ 조찍은 일단은 소를 먹이는?(조짚은 일단은 소를 먹이는?)

103027 #1 으.(으.)

103027 @ 소출로 쓴다는.(쇠풀로 쓴다는.)

103027 #1 소만 먹이고 보릿대는 낱고 그 도새기, 도새기 깃 주는 거야. 딱시게.
(소만 먹이고 보릿대는 때고 그 돼지, 돼지 깃 주는 거. 따뜻하게.)

103027 @ 그 겨울에 주로 줍니까? 조찍은?(그 겨울에 주로 줍니까? 조짚은?)

103027 #2 겨울에도 주주.(겨울에도 주지.)

103027 @ 놀엇당.(가렸다가.)

103027 #2 놀엇당.(가렸다가.)

103027 @서경도 준텐 험디다예? 가네들도, 콩깍지 콩?(섞어서도 준다고 합디다?)

개들도, 콩깍지 콩?)

103027 #2 으, 콩깍지도 주곡, 콩대도 주고.(으, 콩깍지도 주고, 콩대도 주고.)

103027 #1 건 소 주는 거.(건 소 주는 거.)

103027 @ 소 주는 거.(소 주는 거.)

103027 #1 잘 먹어, 콩깍지.(잘 먹어, 콩깍지.)

103027 @ 어릴 때 소 다 잇어수과?(어릴 때 소 다 있었습니까?)

103027 #1 잇었지. 우린 췌도 몰도 두 개.(있었지. 우린 소도 말도 두 개.)

103027 #2 옛날에사.(옛날에야.)

103027 #1 친정에선 몰 쪽 질완게, 몰은. 쪽 몰 질루고, 소 질루고.(친정에서는 말 쪽 길렀어, 말은. 쪽 말 기르고, 소 기르고.)

103028 @ 조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 조농사 검질메멍이라든가 조농사에 얹힌 무슨 거 잇수과?(조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 조농사 김매면서라든가 조농사에 얹힌 무슨 거 있습니까?)

103028 #1 그런 건 뭐.(그런 거 뭐.)

103028 @ 건 가을에 허는 거잖아예?(건 가을에 하는 거잖아요?)

103028 #1 으, 가을에.(으, 가을에.)

103028 @ 그걸 저 가지고 막 힘들었다든가 검질메멍 힘들었다든가?(그걸 저 가지고 아주 힘들었다던가 김매면서 힘들었다던가?)

103028 #2 보리 헐 때는, 보리 거둘 때는.(보리 할 때는, 보리 거둘 때는.)

103028 #1 아니, 조 헐 때 말 골으렌 험네.(아니, 조 할 때 말하라고 하네.)

103028 @ 으, 조.(으, 조.)

103028 #1 가을에.(가을에.)

103028 @ 조농사 헐 때 경험, 추억.(조농사 할 때 경험, 추억.)

103028 #1 조 헐 때에 우리는이 그 조를 우리 소가 잇어근에 앞이 영 방아에 방앗간에 메우민 땡겨 주는 소가 있어, 소. 말도 있고, 말은 뒤로 메고 소는 앞으로 메여. 두 밧덜로 메와. 메우민 방아가 두 개야. 동쪽에 있는 건 작은 방에, 우리 쪽에 있는 건 큰 방에. 큰 방에난 이 맷돌이 막 커. 이렇게 크니까이 뭐 소소한 힘은 허질 못 해. 뭐 고고리 장만할 때는 소에 몰에 두 겔 헤영 허여. 경허면은이 뭐 사람 힘, 앞서서 소 헉나 아버지가 허고 뒤에서 어머니영 막 허민 후딱후딱 해. 우린 뭐 갓닥 왓닥. 무시거 아저 땡기단 보민 혼번 확 허민 나와.(조 할 때에 우리는 그 조를 우리 소가 있어서 앞에 이렇게 방아에 방앗간에 메우면 당겨 주는 소가 있어, 소. 말도 있고, 말은 뒤로 메고 소는 앞으로 메. 두 군데로 메워. 메우면 방아가 두 개야. 동쪽에 있는 건 작은 방아, 우리 쪽에 있는 건 큰 방아. 큰 방아니까 이 맷돌아 아주 커. 이렇게 크니까 뭐 소소한 힘은 하지를 못 해. 뭐 이삭 장만할 때는 소에 말에 두 개를 해서 해. 그러면 뭐 사람 힘, 앞에서 소 하나 아버지가 하고 뒤에서 어머니랑 마구 하면 후딱후딱 해. 우리는 뭐 갔다 왔다. 뭐 가지고 다니다가 보면 한번 확 하면 나와.)

103028 #2 그렇지.(그렇지.)

103028 #1 경 나오면은 그 소가이 쫘 까다로운 쉼이 있어, 우리 쉼 하나가. 뿔이 막 왕장해⁹⁸⁾. 켜 그때 한번, 나는 아닌데 나 조름에 우리 오래비가 잇어났어. 우리 아시, 아래 거. 아 그거 이신디 그 어리버리가 소도 알아이, 알아. 영 따라근에 가는데 나는 확 가근에 가져가고 가져오는데 어느 동안에 그 아기가 그냥 영 허난 이우이 올라완게, 아기가.(그렇게 나오면 그 소가 좀 까다로운 소가 있어, 우리 소 하나가. 뿔이 아주 ‘왕장해’. 그래서 그때 한번, 나는 아닌데 내 꿈무니에 우리 오라비가 있었어. 우리 아우, 아래 거. 아 그거 있는데 그 어리바리가 소도 알아, 알아. 이렇게 따라서 가는데 나는 확 가서 가져가고 가져오는데 어느 동안에 그 아기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 위에 올라왔어, 아기가.)

103028 #2 뿔에 걸려?(뿔에 걸려서?)

103028 #1 뿔에 걸려게. 켜 그때는이 옷에 걸려, 옷에. 아기 옷에. 그냥 아버지가 그냥 열이 낭 그걸 그냥 그 아기 해근에 그 방에 그땐 그냥 안 져 불언.(뿔에 걸려서. 그래서 그때는 옷에 걸렸어, 옷에. 아기 옷에. 그냥 아버지가 그냥 열이 나서 그걸 그냥 그 아기 해서 그 방아 그땐 그냥 안 찢어 버렸어.)

103028 #2 그렇지.(그렇지.)

103028 #1 경허난 아기 죽어불더라.(그러니까 아기 죽어버리더라.)

103028 #2 아고야.(아고야.)

103028 #1 막 오래오래 막 헤어근에.(막 오래오래 막 해서.)

103028 @ 떨어지지도 안헐는데도예?(떨어지지도 았았는데도요?)

103028 #1 떨어지지 안헤신디 그 쉼뿔에 확, 나 조름에 가신디 나도 막 겁나고이. 게난 아기 옷에 뿔 영현 게 걸렁 올라간 거야.(떨어지지 았았는데 그 소뿔에 확, 내 꿈무니에 았는데 나도 겁나고. 그러니까 아기 옷에 뿔 이런 게 걸려서 올라간 거야.)

103028 #2 아고야.(아고야.)

103028 #1 진짜 거 잘난 건디이. 우리 아시 아래게. 두 설 아래. 죽어 불언.(진짜 거 잘난 건데. 우리 아우 아래. 두 살 아래. 죽어 버렸어.)

103028 @ 순간에 그냥.(순간에 그냥.)

103028 #2 이 짐승덜이 아이덜은 알아근에 더 경허주게.(이 짐승들이 아이들은 알아서 더 그러지.)

103028 #1 켜 심방 해당 빌다근에 죽어신디 죽엇텐 행 심방이 막 내놓렌 해도 우리 아버지 막 안앙이 죽은 애기를. 막 안앙. 그건 눈에 막, 그 애기 뿔에 해난 것에 죽은 애기 아버지 안아난 건 죽도록 가정 땡기크라. 잇어불지 안허여.(그래서 무당 하다가 빌다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해서 무당이 마구 내놓으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 막 안아서 죽은 애기를. 막 안아서. 그건 눈에 막, 그 애기 뿔에 했던 것에 죽은 애기 아버지 안앗던 건 죽도록 가지고 다니겠어. 잇어버리지 았아.)

98) ‘왕장하다’는 왕성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여기서는 소의 뿔이 성한 것을 나타낸다.

103028 #2 잊어버리지느냐?(잊어버릴 수 있냐?)

103028 @ 땃 설 때마씨?(땃 살 때요?)

103028 #1 눈에 흰허여.(눈에 흰해.)

103028 #2 잊어볼 수가 잇나게?(잊어버릴 수가 있니?)

103028 #1 혼 일곱 설쫘은 췌 거 닳다. 일곱 설이지.(한 일곱 살쫘은 된 거 같아. 일곱 살이지.)

103028 @ 아고야, 어린 시절에.(아고야, 어린 시절에.)

103028 #1 일곱 설이지 우리 아시 아래 거니까. 우리 아시가 시 설 아래니까. 겐 나 조름에 가나니까, 가이가. 겐디 것이 세 설, 아부지 밧 갈당 장기 영행 놔두민이 그 췌 영혜영 쉬왕, 밧 갈당 쉬왕. 두 번을 경 아기가 양지머리 영 잡앙이 그 가린석⁹⁹⁾으로 착 허민 췌 가잖아?(일곱 살이지 우리 아우 아래 거니까. 우리 아우가 세 살 아래니까. 그래서 내 꿈무니에 갔었으니까, 개가. 그런데 것이 세 살, 아버지 밧 갈다가 쟁기 이렇게 놔두면 그 소 이렇게 쉬게 해서, 밧 갈다가 쉬게 해서. 두 번을 그렇게 아기가 양지머리 이렇게 잡아서 그 ‘가린석’으로 착 하면 소 가잖아?)

103028 #2 으.(으.)

103028 #1 그거 봤다근에 그 어린 것이 그 췌를 혜근에 착 때려 불언게. 때리난 췌 가게, 췌긋혜영 앞더레 가지.(그거 봤다가 그 어린 것이 그 소를 해서 착 때려 버렸어. 때리니까 소 가게, 췌긋해서 앞으로 가지.)

103028 #2 그렇지.(그렇지)

103028 #1 아이구, 어떻사 겁이 나신디이. 경혜연 저디 옷베락고룡¹⁰⁰⁾ 너 알아지 나?(아이고, 어떻게 겁이 났는지. 그래서 저기 ‘옷베락고룡’ 너 아니?)

103028 #2 으.(으.)

103028 #1 옷베락고룡 세 칭 갈 때라게. 세 칭이민 아래칭어리가 영헐 때라.(‘옷베락고룡’ 세 층 갈 때야. 세 층이면 아래층이 이럴 때야.)

103028 #2 어게. 경헌 밧이주게.(어. 그런 밧이지.)

103028 #1 경헌 땀디 아부진 저디 강 무시거 영허다근에. 아이고, 겁낭. 경헌디 그때는 그해, 그해 닳다. 그해 가을에 닳아. 그디 조 갈 때난.(그런 때인데 아버지는 저기 가서 뭐 이러다가. 아이고, 겁나서. 그런데 그때는 그해, 그해 같아. 그해 가을에 같아. 거기 조 갈 때니까.)

103028 #2 으.(으.)

103028 #1 그 아기 험 때가. 그때 가을에가 아기 뽕 걸어질 때라. 경 험 가이가 불언게. 겐 그때도 우리 아버지도 심방을 막 싫어허는디 하도 우리 셋어머니영 큰어머니영 막 그냥 빌어 주라, 빌어 주라 하도 허난에, 광평¹⁰¹⁾ 도남 할망¹⁰²⁾이엔

99) ‘가린석’은 밭을 갈 때, 소를 물거나 부리려고 좌우 뽕에 잡아매어 쟁기의 손잡이인 양지머리까지 달는 두 가닥의 기다란 줄을 말한다.

100) ‘옷베락고룡’은 제주시 노형동의 지경 이름이다.

101) ‘광평’은 제주시 노형동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102) ‘도남 할망’은 제주시 도남동에 살고 있는 할머니, 또는 도남동에서 온 할머니라는 의미다.

허는 심방 할망 셔낫어.(그 아기 했을 때가. 그때 가을이 아기 뽕 걸릴 때야. 그렇게 해서 개가 가 버렸어. 그래서 그때도 우리 아버지도 무당을 아주 싫어하는데 하도 우리 둘째어머니랑 큰어머니랑 마구 그냥 빌어 줘라, 빌어 줘라 하도 하니까, ‘광평’ ‘도남 할머니’라고 하는 무당 할머니가 있었어.)

103028 #2 셔낫주게.(있었지.)

103028 #1 그 할망 빌어다근.(그 할머니 빌려다가.)

103028 @ 광평에 무신 할망마씨?(‘광평’에 무슨 할머니요?)

103028 #1 도남 할망이엔 현, 도남서 친정이 도남이난이 도남 할망이엔 해. 심방 ㄴ라.(‘도남 할머니’라고 하는, 도남에서 친정이 도남이니까 도남 할머니라고 해. 무당보고.)

103028 @ 심방 잇엇수과?(무당 있었습니까?)

103028 #1 겐 그 할망 빌어단 그 애기에 빌어 가난 혼변 영 빌언게. 비난 그냥 아버지가 애기 안아신디 그냥 눈이 허영케 트멍이, 아기 내려 노라, 아기 내려 노라 막 해. 우리 셋어머니영 큰어머니 신 때난 막. 우리 아버지가 작은, 막내야. 안양이, 결국은 죽어근에 그냥 묻엇어. 그 우리 동알펜이 이제 한라대 현 디, 머세¹⁰³⁾야 머세.(그래서 그 할머니 빌려다가 그 애기에 빌어 가니까 한번 이렇게 빌더라. 비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기 안았는데 그냥 눈이 하얗게 트면서, 아기 내려 놓아라, 아기 내려 놓아라 마구 해. 우리 둘째어머니랑 큰어머니 있을 때니까 마구. 우리 아버지가 작은, 막내야. 안아서, 결국은 죽어서 그냥 묻엇어. 그 우리 동쪽 아래편에 이제 한라대 하는 데, ‘머세’야, ‘머세’)

103028 @ 머세?(‘머세’?)

103028 #1 삼동나무 막 많이 잇는 데. 공지야 공지. 공진디.(삼동나무 아주 많이 잇는 데. 공지야 공지. 공지인데.)

103028 @ 공지가 뭐파?(공지가 뭘니까?)

103028 #1 공지는 아무 이름도 없는데 밋도 아니고 현 데. 노형 사람 이름에 행 놔뒀시민 세금 내카 부덴이 안 행 놔두난 시청 땅 해 불언. 그 노형서 돈 하영 내 불엇지. 시청 묘지로 돼 불언게. 계난에 한라대 왕 시청더레 돈 줄 거 아니가? 살 때, 한라대 원장이. 계난 노형 사람이 그디 돈 못 받지. 세금 안 냥 놔두니까 세금 내야 노형 사람 이름에 행 놔뒀시민 아무 이름 둘만 행 놔뒀시민 세금 나오민 세금 물어야 권리가 잇었게. 한라대 헐 때, 겐 그디 우리 얘기가 묻엇어. 우리 어머니 아기 다섯 개 묻언. 아홉에 난에.(공지는 아무 이름도 없는데 밋도 아니고 한 데. 노형 사람 이름에 해서 놔뒀으면 세금 낼까 봐 안 하고 놔두니까 시청 땅 해 버렸어. 그 노형에서 돈 많이 내버렸지. 시청 묘지로 돼 버렸어. 그러니까 한라대 와서 시청에 돈 줄 거 아니니? 살 때, 한라대 원장이. 그러니까 노형 사람이 거기 돈 못 받지. 세금 안 내고 놔두니까 세금 내야 노형 사람 이름에 해서 놔뒀으면 아무 이름 둘만 해서 놔뒀으면 세금 나오면 세금 물어야 권리가 있어서. 한라대 할 때, 그래서

103) ‘머세’는 돌이 영기정기 쌓이고 잡목이 우거진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거기 우리 아기가 묻었어. 우리 어머니 아기 다섯 개 묻었어. 아홉 낳아서.)

103028 @ 아홉 명 낳는데 네 명 살았?(아홉 명 낳았는데 네 명 살았어?)

103028 #1 아홉 명 낳는데 네 명벳기 안 살았.(아홉 명 낳았는데 네 명밖에 안 살았어.)

103028 @ 아이고, 세상에. 병원도 엇고게 경혈 수밖에 엇주게, 옛날엔.(아이고, 세상에. 병원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 옛날에는.)

103028 #1 옛날엔이 아기 그냥 설사 나근에, 설사 낭 확 홀트민 가 불더라. 경 오래 아프지도 안허고. 다른 애긴 모른디 그 아기 하나만 나가 실명히 알아저게.(옛날에는 아기 그냥 설사 나서, 설사 나서 확 훑으면 가 버리더라. 그렇게 오래 아프지도 않고. 다른 아기는 모르는데 그 아기 하나만 내가 선명히 알아.)

103028 @ 쉼뿔에?(소뿔에?)

103028 #1 응, 쉼뿔에 영행 그냥 그르후제부터 아픈 거주게.(응, 소뿔에 이렇게 그냥 그 후부터 아픈 거지.)

103028 @ 그믐 형제가 아들 뗏에 뗏 뗏?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거파?(그럼 형제가 아들 뗏에 딸 뗏?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겁니까?)

103028 #1 우리 어머니가 아들 세 개.(우리 어머니가 아들 세 개.)

103028 @ 딸 여섯? 낳는데 남은 사람이 딸만?(딸 여섯? 낳았는데 남은 사람이 딸만?)

103028 #1 딸만 아덜 세 개 다 죽언. 다 죽언 우리 큰어머니가 아덜, 단아덜 돌아가셔부난 우리 어머니가 왓주게. 겐 그 오빠가 그 오빠가 아덜 세 개 나신디 그 오빠도 아덜 하난 가 불고 두 개가 살았어. 오빠도 어디 이북 간 죽어 불고. 이제 백삼십오. 살아시민. 아니 백오, 백오. 우리 아버지가 백 삼십오.(딸만 아들 세 개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우리 큰어머니가 아들, 외아들 돌아가셔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왔지. 그래서 그 오빠가 그 오빠가 아들 세 개 낳았는데 그 오빠도 아들 하나는 가 버리고 두 개가 살았어. 오빠도 어디 이북 가서 죽어 버리고. 이제 백삼십오. 살았으면. 아니 백오, 백오. 우리 아버지가 백 삼십오.)

103028 @ 계난예 속 사정덜 들여다보민 제주도 사람덜이.(그러니까요 속 사정들 들여다보면 제주도 사람들.)

103028 #1 다른 생각은 원 안 나는데 그 아기 하나만 살아도. 이제 뭐 조카덜 이시난, 아무 생각도 안 허긴 한다만은게. 겐디 우리 어머님도 잘도 무정헌 어른이라. 우리 거트민이 그추룩 행 아기 허민 뒷날은 ㄱ만이 누나 앓으나 허는디 뒷날 그냥 밧디 가 불더라. 뒷날 그냥 밧디 강 검질 박박박박. 일은 막 잘허주게. 아이고야, 그 생각허민.(다른 생각은 전혀 안 나는데 그 아기 하나만 살아도. 이제 뭐 조카들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긴 한다만. 그런데 우리 어머님도 아주 무정한 어른이야. 우리 같으면 그처럼 해서 하기 하면 뒷날은 가만히 눕거나 앓거나 하는데 뒷날 그냥 밧에 가 버리더라. 뒷날 그냥 밧에 가서 김 박박박박. 일은 아주 잘하지. 아이고야, 그 생각하면.)

103028 #2 속상해 더 밧딘 가는 거주게.(속상해서 더 밧에 가는 거지.)

103028 @ 그렇지.(그렇지.)

103028 #2 밧디 검질이라도 매영게 속을게 다시려야 텔 거 아니? 집이 시민 더 그냥.(밧에 김이라도 매서 속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 집에 있으면 더 그냥.)

103028 #1 옛날 어른덜 사는 거 생각허민 지금 사는 건 영웅 사는 거야.(옛날 어른들 사는 거 생각하면 지금 사는 건 영웅 사는 거야.)

103028 #2 그렇지.(그렇지.)

103028 @ 게도 아덜은 하나 잇영 나중에 결혼은 시켰구나예?(그래도 아들은 하나 있어서 나중에 결혼은 시켰군요?)

103028 #1 아니, 우리 큰어무니에 오빠니까.(아니, 우리 큰어머니의 오빠니까.)

103028 @ 아니, 친어무니에 아덜은 엇어?(아니, 친어머니의 아들은 엇어?)

103028 #1 엇어. 다 죽어 불언. 어릴 때 세 개 다. 세 개 다 죽어 불언.(엇어. 다 죽어 버렸어. 어릴 때 세 개 다. 세 개 다 죽어 버렸어.)

103028 @ 아이고, 어무니가 진짜.(아이고, 어머니가 진짜.)

103028 #2 아고, 시 성제나 나나샤?(아이고, 세 형제나 낳았었니?)

103028 #1 시 성제.(세 형제.)

콩농사

103029 @ 이번에는예 콩농사, 콩예. 콩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이번에는요 콩농사, 콩요. 콩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콩은 질 쉬와.(콩은 제일 쉬워.)

103030 #2 준비가 벨로 엇어.(준비가 별로 엇어.)

103030 #1 그냥 밧디 콩씨만 뿌령 갈민 나와.(그냥 밧에 콩씨만 뿌려서 갈면 나와.)

103030 @ 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1 유월절¹⁰⁴⁾ 전후로 가는 거라이. 유월절 고비에 갈아. 유월절 한 삼 일 전이 가는 게 많아. 삼 일 전에, 유월절.(‘유월절’ 전후로 가는 거야. ‘유월절’ 고비에 갈아. ‘유월절’ 한 삼 일 전에 가는 게 많아. 삼 일 전에. ‘유월절’.)

103031 @ 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31 #1 게메, 거름이 엇어. 콩밭은.(글쎄, 거름이 엇어. 콩밭은.)

103031 #2 콩밭은 쉬와. 거름도 엇지.(콩밭은 쉬워. 거름도 엇지.)

103032 @ 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1 그냥 드문드문 뿌리는 게 좋아. 드문드문 뿌린 게.(그냥 드문드문 뿌리는 게 좋아. 드문드문 뿌린 게.)

103033 @ 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33 #1 이제는 보통 두 번 메어이. 두 번 메어 깨끗해.(이제는 보통 두 번 매.

104) ‘유월절’은 24절기 중 소서 전후를 말한다.

두 번 때, 깨끗해.)

103034 @ 콩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콩밭에는 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103034 #1 그냥 그 검질이지. 제완지허곡 찜, 쉼터럭이다.(그냥 그 김이지. 바랭이하고 찜, 김의털이다.)

103034 #2 쉼터럭.(김의털.)

103034 #1 쉼터럭에 제완지. 히히히, 복쿨.(김의털에 바랭이. 히히히, 깨풀.)

103034 @ 여름 검질예?(여름 김요?)

103034 #1 으.(으.)

103034 @ 쉼비름 이런 거는?(쇠비름 이런 거는?)

103034 #1 쉼비눔도 헛어. 나는 밧딘 많이 나. 쉼비눔도, 그딘 그 쉼비눔은 골랑나이. 아무 디나 안 나.(쇠비름도 헛어. 나는 밧에는 많이 나. 쇠비름도, 거긴 그 쇠비름은 골라서 나. 아무 데나 안 나.)

103034 @ 아.(아.)

103034 #2 쉼비눔 나는 밧이, 나는 땅이 잇어.(쇠비름 나는 밧이, 나는 땅이 잇어.)

103034 #1 밧마다 나질 안헤.(밭마다 나질 았아.)

103034 @ 아.(아.)

103034 #2 콩밧디도 뭐 복쿨, 쉼터럭.(콩밭에도 뭐 깨풀, 김의털.)

103034 #1 쉼터럭은 인칙에 생각을 못 헤라이. 쉼터럭이 많이 나는데. 물숨¹⁰⁵⁾ 허는 딴.(김의털은 일찍이 생각을 못 하더라. 김의풀이 많이 나는데. ‘물숨’ 하는 데는.)

103035 @ 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콩을 꺾는덴 헛니까?(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콩을 꺾는다고 합니까?)

103035 #1 응. 꺼끈덴 허여.(응. 꺾는다고 해.)

103035 @ 뭇로 꺾어마씨?(뭇로 꺾어요?)

103035 #2 호미로.(낫으로.)

103035 @ 호미로?(낫으로?)

103035 #1 으.(으.)

103035 @ 굴갱이로도?(호미로도?)

103035 #1 아니 아니, 굴갱이로도 헤지나? 허는 사람 허드라이. 막 잘 익은 거 이.(아니 아니, 호미로도 할 수 있니? 하는 사람 하더라. 아주 잘 익은 거.)

103035 #2 잘, 거 콩낭이 막 바라야 굴갱이로 허주, 굴갱이로 잘 못헤.(잘, 거 콩대가 아주 아래야 호미로 하지, 호미로 잘 못헤.)

103035 #1 굴갱이로 허는 디가 드물어. 게난 호미로 허지.(호미로 하는 데가 아주 드물어. 그러니까 낫으로 하지.)

103035 @ 도께질 이거 역시 이거?(도리깨질 이거 역시 이거?)

105) 여기서 ‘물숨’은 물이 잘 드는 밧을 가리킨다.

103035 #1 것도 옛날엔 도끼로 두드렸지, 콩도.(것도 옛날에는 도리깨로 두드렸지, 콩도.)

103035 @ 이거 밧디서 안 행 집이 가정왕?(이거 밧에서 안 하고 집에 가져와서?)

103035 #2 아니, 밧디서.(아니, 밧에서.)

103035 @ 이건 밧디서?(이건 밧에서?)

103035 #2 실르고 가 소에.(싣고 가 소에.)

103035 #1 명석.(명석.)

103035 @ 아, 소에 명석을 실렁 강?(아, 소에 명석을 싣고 가서?)

103035 #2 경행 펼쳐 놔근에 밧디서.(그래서 펼쳐 놔서 밧에서.)

103035 @ 무사 콩만 밧디서 험니까?(왜 콩만 밧에서 험니까?)

103035 #1 가정 오는 게 좀 덤데기가 크지.(가져서 오는 게 좀 덩치가 크지.)

103035 @ 보리는 밧디서 안 허고?(보리는 밧에서 안 하고?)

103035 #2 예.(예.)

103035 @ 조도 밧디서 안 허고?(조도 밧에서 안 하고?)

103035 #1 으.(으.)

103035 @ 이 콩만 밧디서?(이 콩만 밧에서?)

103035 #1 으.(으.)

10303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35 #2 부피가 많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불편했어. 그 무끄는 것도 막 불편해여.(부피가 많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불편했어. 그 묶는 것도 아주 불편해.)

103035 @ 무끄는 것도 불편허고?(묶는 것도 불편하고?)

103035 #1 몽클락해¹⁰⁶⁾ 부난.(‘몽클락해’ 버리니까.)

103035 @ 몽클락해 부난.(‘몽클락해’ 버리니까.)

103035 #2 콩대가 요만씩벧기 안 허기 때문에.(콩대가 요만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103035 @ 어쨌든 콩댄 또 가져와야 될 거 아니파?(어쨌든 콩대는 또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3035 #1 아니, 내불어.(아니, 내버려.)

103035 #2 아, 내부는 수도 잇곡 또 실러다근에.(아, 내버리는 수도 있고 또 실어다가.)

103035 #1 소나 신 사람은 소 멕이지.(소나 있는 사람은 소 먹이지.)

103035 #2 소출로.(쇠꼴로.)

103035 #1 잘 먹어.(잘 먹어.)

103035 @ 아메도 맛이 엇인 생이여예, 조보다는예?(아마도 맛이 없는 모양이네요, 조보다는요?)

106) ‘몽클락허다’는 길이가 짧게, 둥글고 통통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35 #1 아니, 소도 콩 담아져난 거난 소 잘 먹어. 소 잘 먹어. 콩꼬질이엔 허연. 콩꼬질, 콩꼬질.(아니, 소도 콩 담겼던 거니까 소 잘 먹어. 소 잘 먹어. ‘콩꼬질’이라고 했어. 콩깍지, 콩깍지.)

103035 @ 겐 소 키우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이로구나예?(그래서 소 키우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이로군요?)

103035 #1 소 엇는 사람은 늬도 쥐 불곡게.(소 없는 사람은 남도 쥐 버리고.)

103035 @ 콩 놀어?(콩 가려?)

103035 #1 놀기도 허주만은 이제는 누는 사람, 벨로 누는 사람 엇어. 그냥 해 놓민 모아 낳은에이.(가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가리는 사람, 벨로 가리는 사람 없어. 그냥 해 놓으면 모아 놔서.)

103035 @ 옛날, 옛날?(옛날, 옛날?)

103035 #1 옛날도 경해. 누는 것도 인력이주게.(옛날도 그래. 가리는 것도 인력이지.)

103035 @ 그난 남자덜이 다 허잖아예?(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하잖아요?)

103035 #1 그 콩 아무나 놀질 못해.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데미기나 허지이.(그 콩 아무나 가리질 못해.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기나 하지.)

103036 @ 거민 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그럼 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36 #1 콩주름도 허고.(콩나물도 하고.)

103036 @ 콩ㄱ루로 뭐 행 먹고?(콩가루로 뭐 해서 먹고?)

103036 #1 콩ㄱ루도 행 먹고게. 콩으로게 장도 허곡게.(콩가루도 해서 먹고. 콩으로 장도 하고.)

103036 @ 장?(장?)

103036 #1 웬장. 웬장 담가근에 간장 뜨고 웬장 따로 허곡.(된장. 된장 담가서 간장 뜨고 된장 따로 하고.)

103036 @ 콩주름도 해 봤수과?(콩나물도 해 봤습니까?)

103036 #1 응.(응.)

103036 @ 콩나물이엔 험니까, 콩주름이엔 험니까?(콩나물이라고 합니까, ‘콩주름’이라고 합니까?)

103036 #1 콩주름이엔 해. 콩나물이엔 벨로 안 헛어, 옛날엔. 콩주름 놓라, 콩주름, 콩주름이 옛날 말이야.(‘콩주름’이라고 해. 콩나물이라고 벨로 안 헛어, 옛날에는. ‘콩주름’ 놓아라, ‘콩주름’, ‘콩주름’이 옛날 말이야.)

103036 @ 콩주름예? 건 언제 험니까?(‘콩주름’요? 건 언제 합니까?)

103036 #1 제사 때 주로 해. 벨로 이거 행 먹젠 허는 사름이 드물어.(제사 때 주로 해. 벨로 이거 해서 먹으려고 하는 사름이 드물어.)

103036 @ 그른 콩주름하고 메주, 둬비 만들어 봤수과?(그럼 콩나물하고 메주, 두부 만들어 봤습니까?)

103036 #1 나는 안 해 봤어.(나는 안 해 봤어.)

103036 @ 게든 메주 해 봤수과?(그럼 메주 해 봤습니까?)

103036 #1 메주사 허지. 일 년에 혼 번은 꼬박꼬박허지. 게 지금은 뭐 혼 삼 년에 혼 번도 허고. 난 재재작년에 한 거 이제 먹엄서.(메주야 하지. 일 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하지. 그래 지금은 뭐 한 삼 년에 한 번도 하고. 난 재재작년에 한 거 이제 먹고 있어.)

103036 #2 그렇지.(그렇지.)

103036 @ 것도 직접 허는 게 몸에 좋덴 험디다. 요즘 하도 유전자 콩예, 들어온 것이 그렇게 안 좋덴.(것도 직접 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합디다. 요즘 하도 유전자 콩요, 들어온 것이 그렇게 안 좋다고.)

103036 #2 맞아.(맞아.)

103036 #1 말은 경 해도게 허는 사람이 멏이나 잇어? 막 착헌 사람이나 허주.(말은 그렇게 해도 하는 사람이 멏이나 잇어? 아주 착한 사람이나 하지.)

103036 @ 콩ㄴ루로 뭇 행 먹읍니까?(콩가루로 뭇 해서 먹습니까?)

103036 #1 뭇?(뭇?)

103036 @ 콩ㄴ루?(콩가루?)

103036 #2 죽 썰 먹고, 국도 끓여 먹고.(죽 썰서 먹고, 국도 끓여 먹고.)

103036 #1 그래, 콩죽도 썰 먹고 콩국이 좋지.(그래, 콩죽도 썰서 먹고 콩국이 좋지.)

103036 @ 콩국이 좋아예?(콩국이 좋아요?)

103036 #1 으.(으.)

103036 @ 그것도 저 뭇로 물에 컷당 솥앙 물에 컷당 그걸 갈아? 아니민 콩ㄴ루?(그것도 저 뭇로 물에 담갔다가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그걸 갈아? 아니면 콩가루?)

103036 #2 ㄴ른 차.(마른 채.)

103036 #1 ㄴ른 차이.(마른 채.)

103036 #2 ㄴ른 차 그냥.(마른 채 그냥.)

103036 @ 거 어떻 갈앙?(거 어떻게 갈아서?)

103036 #1 ㄴ는 디 잇잖아. 기름집에 가민 곶아 줘.(가는 데 잇잖아. 기름집에 가면 갈아 줘.)

103036 @ 아, 옛날?(아, 옛날?)

103036 #2 옛날엔 멏돌에 갈앙.(옛날에는 멏돌에 갈아서.)

103036 @ 그 두꺼운 걸 어떻?(그 두꺼운 것을 어떻게?)

103036 #2 멏돌에.(멏돌에.)

103036 #1 거 ㄴ류왕.(거 말려서.)

103036 #1 파실파실파실파싯¹⁰⁷⁾ 행 곶앙 나와.(‘파실파실파싯’ 해서 갈아서 나와.)

103036 @ 아, 말리민 그게 가루가 뛴는구나. 멏돌에 뛴도예. 그렇구나. 경행 콩

107) ‘파실파실파싯’은 가루 따위에 엉기지 않고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ㄴ루로 국 끓여 먹고?(아, 말리면 그게 가루가 되는구나. 맷돌에 놔도요. 그렇구나. 그렇게 콩가루로 국 끓여 먹고?)

103036 #2 으, 죽도 썰 먹고.(으, 죽도 썰서 먹고.)

103036 @ 메주도 담고. 언제 메주 담고 이진 또 나중에 물어볼 또 질문이 이실 거우다.(메주도 담그고. 언제 메주 담그고 이진 또 나중에 물어볼 또 질문이 있을 겁니다.)

103036 #1 메주는이 콩 해영 다 메주를 삶아.(메주는 콩 해서 다 메주를 삶아.)

103036 #2 십일월덜 돼민 삶고.(십일월 되면 삶고.)

103036 @ 날 보명 허지예? 이것도.(날 보면서 하지요? 이것도.)

103036 #2 예, 날 보명.(예, 날 보면서.)

103036 #1 좋은 날에 해. 쉼날에 허면은이 그 뜰 때 쉼터럭ㄴ치 막 나온덴게. 난 거 안 봐신디 막 경 곱아, 어른덜이. 모날을 잘 허드라. 모날.(좋은 날에 해. 소날에 하면 그 뜰 때 김의털같이 마구 나온대. 난 거 안 봤는데 막 그렇게 말해, 어른들이. 말날 잘 하더라. 말날.)

103036 @ 모날?(말날?)

103036 #2 모날, 개날, 토날.(말날, 개날, 토끼날.)

103036 @ 득날?(답날?)

103036 #1 토.(토.)

103036 @ 도새기?(돼지?)

103036 #1 도새기 아니고 토날이지.(돼지 아니고 토끼날이지.)

103036 #2 토끼.(토끼.)

103036 @ 토끼날.(토끼날.)

103036 #1 아, 토끼날.(아, 토끼날.)

103037 @ 콩찍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콩찍?(콩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콩짚?)

103037 #1 콩찍은 내분텐 허난.(콩짚은 내버린다고 하니까.)

103037 @ 아까 소?(아까 소?)

103037 #2 소 먹이라. 대부분.(소 먹이야. 대부분.)

103037 #1 소 잇인 사람은 그냥 밧디 내불어.(소 없는 사람은 그냥 밧에 내버려.)

103037 #2 그냥 밧디 내불고.(그냥 밧에 내버리고.)

103037 @ 이진 쓸모가 엇어, 소 잇인 사람은?(이진 쓸모가 없어, 소 없는 사람은?)

103037 #2 으.(으.)

103037 #1 겐디 가져가렌 허믄 가져가기도 해여. 소 잇인 사람은.(그런데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기도 해. 소 있는 사람은.)

103037 #2 소 잇인 사람은 가져가지.(소 있는 사람은 가져가지.)

103038 @ 콩농사에 엮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콩농사에 엮힌 추억

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3038 #1 콩 얹힌 때는이. 콩 해 놔근에에 막 물리왕 데작하게 똥 때라이. 그때 비 오면은 그 잘, 못할 때 막 불안허지. 나 한번 경헨 역사가 있어. 콩 해 놔근에 날이민 다 행 헐 건디 그냥, 밤이 그냥 비 온 줄 모르게 빌 와 불언게. 아이구, 아방¹⁰⁸⁾은 심드랑편편 허고이. 농사 안 짓고 허는 아방이난. 아이고, 계난 경헌디 우리 시어머님이 가까운 디 살잖아. 사난 아이구, 대단해. 우리 시어머니. 무신 초석이영 가맹탱이영 앓단에이 틈틈이 낱, 거 혼디 어울렁 놓지 안허고 틈틈이 낱 걸 더 정은에. 셋담¹⁰⁹⁾ 이시난 탁탁 올려난. 경허난 하영 안 젖엇더라.(콩 얹힌 때는. 콩 해 놓고 막 말려서 타작하게 똥을 때야. 그때 비 오면 그 잘, 못할 때 아주 불안하지. 나 한번 그런 역사가 있어. 콩 해 놓고 내일이면 다 해서 할 건데 그냥, 밤에 그냥 비 온 줄 모르게 비가 와 버렸어. 아이고, 아버지는 ‘심드랑편편’ 하고. 농사 안 짓고 하는 아버지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이 가까운 데 살잖아. 사니까 아이고, 대단해. 우리 시어머니. 무슨 초석이랑 가마니랑 가져다가 틈틈이 낱, 거 같이 어울려서 놓지 않고 틈틈이 낱 걸 덮어서. ‘셋담’ 있으니까 탁탁 올려놔. 그러니까 많이 안 젖엇더라.)

103038 #2 경허민 덜 젖주, 아메도.(그러면 덜 젖지, 아무래도.)

103038 #1 시어머님이 해 쥬게.(시어머님이 해 줘서.)

103038 @ 급허난 그냥.(급하니까 그냥.)

103038 #1 아이고, 나 그때 생각허민.(아이고, 나 그때 생각하면.)

103038 #2 계난 혼 밧디 다 모두젠 허민 시간 걸리난게.(그러니까 한 군데 다 모으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103038 #1 시어머님이영 정 엇인 것도 그런 걸로 막 정 부뜨는 거. 아이고, 늬이사 그 밤이 강 거 해 주느냐?(시어머님이랑 정 없는 것도 그런 걸로 막 정 붙는 거. 아이고, 남이야 그 밤에 가서 거 해 주냐?)

103038 #2 맞주.(맞지.)

103038 @ 그렇지.(그렇지.)

103038 #1 원 그거 잊어불지 안허여. 그 영 놓민 더끄는 게 족으니까 잘, 못 더끄니까 이디 낱 더꺼 똥 이디 땃 못 낱 더끄고.(원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 그 이렇게 놓으면 덮는 게 적으니까 잘, 못 덮으니까 여기 낱서 덮어 두고 여기 땃 못 낱서 덮고.)

103038 #2 계난 혼자만 혼디 다 모이젠 허민 더 젖어 불 거 아니냐. 계난 흐끔씩 흐끔씩 모이명 쉽게 헐 거지. 계난 머리가 존 거지.(그러니까 혼자만 같이 다 모으려고 하면 더 젖어 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서 쉽게 한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지.)

103038 @ 아이고.(아이고.)

108)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109) ‘셋담’은 발과 발 사이에 쌓여 있는 담을 가리킨다.

103038 #1 조그마헌 가빠영 멍석도 조그만헌 거 잇더라. 가맹이영.(조그마한 카파랑 멍석도 조그마한 거 잇더라. 가마니랑.)

103038 @ 어려운 일을 도와줘사 서로가.(어려운 일을 도와줘야 서로가.)

103038 #1 거 셋담이, 우알력 밧이난 그 담 앓아당 지들령 저디 강 헤 두고 다섯 밧딜 행 놔뒀어. 계난 ○○이 어명이 그쁜 문씨 아니가. 계난 날ㄱ라 ○○야. 예. 시어멍 고생헌 거 알라이.(거 ‘셋담’이, 위아래 밧이니까 그 담 가져다가 지질러서 저기 가서 헤 두고 다섯 군데 해서 놔뒀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같은 문씨 아니니. 그러니까 나보고 ○○야. 예. 시어머니 고생한 거 알아라.)

103038 #2 맞다게.(맞다.)

103038 #1 아이, 알암수다게, 알암수다.(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03038 @ 큰메누리로 갓수과?(큰머느리로 갓습니까?)

103038 #1 으.(으.)

103038 @ 아이고.(아이고.)

103038 #1 경허난 그때 우리 친목회에서 담요 하나씩을 다 샀어이. 나가 하날 더 샀어. 동문시장 강 산. 집이 아저 오난 이제 두 개 아정 와서라. 그해에, 담요. 계난 아방ㄱ라 나 이거 어머니 거 하나 더 사 왕 안네쿠다. 막 지꺼정 나 가져가크라, 나가져가크라.(그러니까 그때 우리 친목회에서 담요 하나씩을 다 샀어. 내가 하나를 더 샀어. 동문시장에 가서 샀어. 집에 가지고 오니까 이제 두 개 가지고 왔더라. 그해에, 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고 나 이거 어머니 거 하나 더 사 와서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빠서 내가 가져가겠어, 내가 가져가겠어.)

103038 @ 하하하.(하하하.)

103038 #1 하하하. 나 그때 어린아이 님더라이. 막 지가 가져가켄. 겐 난 내불엇주게.(하하하. 나 그때 어린아이 같더라. 마구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난 내버렸지.)

103038 #2 지 가져강 착허텐 듣젠.(자기가 가져가서 착하다고 들으려고.)

103038 #1 가져강 안네난 우리 시어머님이 소문은 다 내운 거라. 우리 셋메누리가, 셋메누리 담요 사 완, 담요 사 완. 계난 아방¹¹⁰⁾이 어디 강 그 말을 들영 완 당신 소문 막 낫어. 높은 소문.(가져가서 드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소문을 다 낸 거야. 우리 둘째며느리가, 둘째며느리 담요 사 왔어, 담요 사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서 그 말을 듣고 와서 당신 소문 마구 낫어. 높은 소문.)

103038 @ 하하하.(하하하.)

103038 #1 계난 그건 생각 안 허고이 아이고, 무신 소문 허난. 생각해 봐, 생각해 봐 허난 무신 소문이 나신고? 담요 생각은 요만이도 안 허고 무신 소문이 나신고 허난 말째엔 보난 담요 사 가난 우리 시어머님이 동네레.(그러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무슨 소문 하니까. 생각해 봐, 생각해 봐 하니까 무슨 소문이 났는가? 담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니까 말째엔 보니까 담요 사

110)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가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동네에.)

103038 #2 막 자랑했구나.(마구 자랑했구나.)

103038 #1 메뉴리 친목회에 강 담요 상 왕, 하나 더 상 왕 나 찍시 가져왔덴. 그땐 담요 좀 어려울 때.(며느리 친목회에 가서 담요 사고 와서, 하나 더 사고 와서 내 뭇 가져왔다고. 그땐 담요 좀 어려울 때.)

103038 #2 맞추게.(맞지.)

103038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밭벼 농사

103039 @ 자, 산디우다예. 산디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자, 밭벼입니다. 밭벼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39 #1 산디 농사허젠 허민이 산디엔 좀 걸어야 돼니까 불치, 불치. 불 솜아난.(밭벼 농사하려고 하면 밭벼에는 좀 걸어야 되니까 재, 재. 불 땀던.)

103039 #2 그 불 때어난.(그 불 땀던.)

103039 #1 그거 그걸 자꾸 놓더라구. 우리 어머니 헐 때 보난이.(그거 그걸 자꾸 놓더라고. 우리 어머니 할 때 보니까.)

103039 @ 으.(으.)

103039 #2 그게 거름이주게 옛날엔.(그게 거름이지, 옛날엔.)

103039 #1 그것이 그 밖에 영 내놔. 내놔엔에 옛날엔 오줌을 싸면은이 버려 불치 안헤영 향아리 큰 것에 비와. 밤에 오줌 싸면은 요강 앓당 그레 비와이. 게민 그 오줌이 막 먼저 논 거 말째 논 거 허민 썩잖아. 냄새가 막 나주게. 게민 불치 영 놔놔 그 오줌 해당 이렇게 이렇게 헤영 줘. 경 행 또 불치 놔. 경 행 썩영은에 허민 그 산디 갈 때가 이렇게 냇은에 씨 뿌리민 산디가 그렇게 막 올라오드라고.(그것이 그 밖에 이렇게 내놓아. 내놓고 옛날엔 오줌을 싸면 버려 버리지 않고 향아리 큰 것에 부어. 밤에 오줌 싸면 요강 가져다가 그리 부어. 그럼 그 오줌이 아주 먼저 넣은 거 말째 넣은 거 하면 썩잖아. 냄새가 마구 나지. 그럼 재 이렇게 놔서 그 오줌 해당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줘. 그렇게 해서 또 재 넣어. 그렇게 해서 썩혀서 하면 그 밭벼 갈 때가 이렇게 놔서 씨 뿌리면 밭벼가 그렇게 마구 올라오더라고.)

103039 #2 그거 거름으로 허터 냇.(그거 거름으로 섞어 놓고.)

103039 #1 나 어머니 허는 거 봤어. 어릴 때, 허터 놔근에. 옛날 사람은 허는데 신식 사람은 거 안 헤. 더럽고이 거 냄새나잖아, 오줌 냄새.(나 어머니 하는 거 봤어. 어릴 때, 섞어 놔서. 옛날 사람은 하는데 신식 사람은 거 안 헤. 더럽고 거 냄새나잖아, 오줌 냄새.)

103039 @ 산디 씨는 어떻 놔둬마씨?(밭벼 씨는 어떻게 놔둬요?)

103039 #1 그냥 거는 이, 씨 놔둘 때는, 우리 어머니는 허벅¹¹¹⁾에 담양 놔두더라. 허벅.(그냥 거는 이, 씨 놔둘 때는, 우리 어머니는 ‘허벅’에 담아서 놔두더라.

111)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허벅’.)

103039 @ 아.(아.)

103039 #1 이 부리 죽은 거 잇잖아. 가냥 좋아, 중이도 안 들어가고. 겐 돌맹이 영 딱 찢렁 놔두고. 그 돌맹이 그 허벅 부리에. 난 그걸 눈으로 보니까 알아지크라.(이 부리 작은 거 있잖아. 간수 좋아, 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돌맹이 이렇게 딱 찢러서 놔두고. 그 돌맹이 그 ‘허벅’ 부리에. 난 그걸 눈으로 보니까 알겠어.)

103039 #2 옛날 어른덜은 대개 경헐.(옛날 어른들은 대개 그랬어.)

103039 #1 졸랑헌 그 돌맹이 앓당 꼭 씹왕.(짧은 그 돌맹이 가져다가 꼭 씹워.)

103039 #2 그것에 맞는 돌맹이.(그것에 맞는 돌맹이.)

103039 @ 그 허벅은 물만 질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곡식도 보관했다는 거라예?(그 ‘허벅’은 물만 길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곡식도 보관했다는 거네요?)

103039 #1 허벅이 물 지당 어떻게 잘못돼민 금 나지. 게민 걸 아이 버령 물은 못 놓게 웬 거지. 겐 아이 버령 그런 걸 담아.(‘허벅’이 물 지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금 나지. 그럼 걸 안 버리고 물은 못 놓게 된 거지. 그래서 안 버려서 그런 걸 담아.)

103039 @ 요즘도 그 페트병 거기에 곡식 담앙 좀 안 인텐 경 곡식덜 놔둬니께?(요즘도 그 페트병 거기에 곡식 담아서 좀 안 인다고 그렇게 곡식들 놔두지요?)

103039 #1 으, 그 옛날엔.(으, 그 옛날에는.)

103039 #2 물 못 질을 정도 돼면은 버리지 안헤근에게 그런 것덜.(물 못 질을 정도 되면은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

103039 #1 아이, 난 우리 어머니가 경 허는 걸 봐 부난.(아, 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봐 버리니까.)

103039 #2 말리와근에.(말려서.)

103039 #1 눈으로 보니까 알아.(눈으로 보니까 알아.)

103039 @ 그게 중요한 겨우다게. 이거 누가 압니까?(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가 압니까?)

103039 #2 종자덜을 그런 것에 질어근에게 곳간에 앓당 낫다근에게.(종자들을 그런 것에 길어서 곳간에 가져다 낫다가.)

103039 #1 게난 쥐가 얼마나 많으나, 쥐가 하영 먹카 부덴 돌맹이 딱 허허.(그러니까 쥐가 얼마나 많니, 쥐가 많이 먹을까 봐 돌맹이 딱 허허.)

103039 @ 고망 막아 불고.(구멍 막아 버리고.)

103039 #1 막아 불어. 돌맹인 무거우니까, 탄 거 허민 빠 불어. 중이 입으로. 무싱거이 험벅이라도 딱 막아도 그냥 빠 불어. 돌맹일 해야 돼.(막아 버려. 돌맹이는 무거우니까, 탄 거 하면 빠 버려. 쥐 입으로. 뭐 형겔이라도 딱 막아도 그냥 빠 버려. 돌맹이를 해야 돼.)

103040 @ 밧벼는, 산디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밭벼는, 밧벼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40 #1 삼월, 삼월에 산디 같지이?(삼월, 삼월에 밧벼 같지?)

103040 #2 삼월 말 돼민 같지.(삼월 말 되면 같지.)

103040 #1 삼월에 산디 갈면은 또이 조 해난 끝에 내중에 산딜 해여. 먼저 같고 내중에 비곡, 빌 때는 내중에 비어. 조보다는, 조는.(삼월에 받벼 갈면 또 조 했던 끝에 나중에 받벼를 해. 먼저 같고 나중에 베고, 벨 때는 나중에 베어. 조보다는, 조는.)

103040 @ 오월?(오월?)

103040 #1 오월 그믐에 해도 혼 구월 구물어 가민 비어. 구월 구물어 가민 비어. 산디는 혼 양력, 양력 시월이민 음력으로 혼 십일월 거자 웨크라이.(오월 그믐에 해도 한 구월 저물어 가면 베어. 구월 저물어 가면 베어. 받벼는 한 양력, 양력 시월 이면 음력으로는 한 십일월 거의 되겠어.)

103040 #2 십일월 7진 안 간다게, 시월. 시월 중순 돼민 다 허주.(십일월까지는 안 간다, 시월. 시월 중순 되면 다 하지.)

103041 @ 산디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 골앗다예.(받벼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 말했네요.)

103041 #2 예.(예.)

103041 #1 그거 허고이 간 후에 나면은 비료 해. 비료 두 번 해. 초벌행 혼번 허곡 또 막 켕 다 검질멘 후에 또 해. 계민이 그 으물 좋으렌, 비료 두 번 허드라고 산디에.(그거 하고 간 후에 나면 비료 해. 비료 두 번 해. 초벌해서 한번 하고 또 아주 커서 다 김멘 후에 또 해. 그럼 그 알맹이 좋으라고, 비료 두 번 하더라고 받벼에.)

103041 #2 산딘 잘 걸려야 되는 때문에.(받벼는 잘 걸게 해야 되는 때문에.)

103041 @ 나중에 비료가 난 후로, 이루후제 애기지요?(나중에 비료가 난 후로, 그 후에 애기지요?)

103041 #1 응. 비료가 난 후에.(응. 비료가 난 후에.)

103041 @ 무슨 비료는 뭐 그런 건 나중예?(무슨 비료는 뭐 그런 건 나중예?)

103041 #1 아니 저, 질 처음에는 복합 해영 복합 뿌령 같고, 그다음엔 요소를 두 번 줘. 초불도 요소, 두불도 요소.(아니 저, 제일 처음에는 복합 해서 복합 뿌려서 같고, 그다음에는 요소를 두 번 줘. 초벌도 요소, 두벌도 요소.)

103041 #2 저 비료 나기 전에는 그런 불치 해근에 그런 거름만 허면은 거름이 없잖아. 비료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를 못해 가지고 요만씩벧기 안 허여.(저 비료 나기 전에는 그런 재 해서 그런 거름만 하면 거름이 없잖아. 비료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를 못해 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해.)

103041 @ 산디가?(받벼가?)

103041 #2 으, 크지를 못해 가지고.(으, 크지를 못해 가지고.)

103041 #1 그 비료 허는 사람이 좀 돈 잇어사 것도 해당 놔뉘. 켜 비료 헌 밧은 알아져. 곡식 커 가는 게.(그 비료 하는 사람이 좀 돈 있어야 것도 해다가 놔뉘. 그래서 비료 한 밧은 알 수 있어. 곡식 커 가는 게.)

103041 #2 내중에, 내중에 비료 나온 다음에.(나중에, 나중에 비료 나온 다음에.)

103041 @ 불치도 마찬가지로?(재도 마찬가지로?)

103041 #2 돈 신 사람덜은 비료 사당 많이 주기 때문에 나무가 그만큼 길주게.
(돈 있는 사람들은 비료 사다가 많이 주기 때문에 나무가 그만큼 길지.)

103041 @ 그전에는 그 불치를?(그전에는 그 재를?)

103041 #1 요만씩.(요만큼씩.)

103041 #2 으.(으.)

103041 @ 어떻 그거 밧디 일단 뿌려?(어떻게 그거 밧에 일단 뿌려?)

103041 #2 파종할 때만.(파종할 때만.)

103041 @ 파종허기 전에 뿌령?(파종하기 전에 뿌려서?)

103041 #1 응. 파종허는 날 뿌려 낱 같아. 갈기 전에 밑바닥에 불치를 앓당은에
탁탁탁탁 뿌려 낱 같아 낱 간 후에 또 씨 뿌리지.(으. 파종하는 날 뿌려 놓고 같아.
갈기 전에 밑바닥에 재를 가져다가 탁탁탁탁 뿌려 놓고 같아 놓고 간 후에 또 씨
뿌리지.)

103041 @ 아아, 뿌려 낱 같아 낱 거기에.(아아, 뿌려 놓고 같아 놓고 거기에.)

103041 #1 씨 뿌리지.(씨 뿌리지.)

103041 @ 그날 다 이루어지는 일이구나예?(그날 다 이루어지는 일이군요?)

103041 #1 으.(으.)

103041 #2 갈앙 또 산딘 불려야 돼어.(갈아서 또 밧벼 밟아야 돼.)

103042 @ 아, 산딘 또 불려야 돼어? 산디 씨는 어떻게 뿌릅니까?(아, 밧벼는 또
밟아야 돼? 밧벼 씨는 어떻게 뿌릅니까?)

103042 #1 그냥 이렇게 뿌려.(그냥 이렇게 뿌려.)

103042 #2 이렇게 뿌리는데 산디허고 저 조는 이 씨가 약하기 때문에 미리 밑바
닥에 씨를 뿌려서 갈면은 올라오기가 힘든 것 같애. 그래 가지고 우에 뿌리는 것
같애. 우에 뿌려근에게 씨 막아지는 거 불리는 거주게. 밟아 주는 거는.(이렇게 뿌
리는데 밧벼하고 저 조는 이 씨가 약하기 때문에 미리 밑바닥에 씨를 뿌려서 갈면
올라오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위에 뿌리는 것 같아. 위에 뿌려서 씨 막는
거 밟는 거지. 밟아 주는 거는.)

103042 @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 소 다 대동행?(이것도 마찬가지로 말, 소 다 대
동해서?)

103042 #1 아니, 아니. 막 세게 안 불려도 돼, 산디는.(아니, 아니. 아주 세게 안
밟아도 돼, 밧벼는.)

103042 #2 산디는 경 세게 안 불려도 돼.(밧벼는 그렇게 세게 안 밟아도 돼.)

103042 #1 사람만?(사람만?)

103042 #2 응, 사람으로만 영 잣다 왔다 행 좀 불려도 되고.(응, 사람으로만 이러
게 잣다 왔다 해서 좀 밟아도 되고.)

103042 #1 섬피로 꺾어도 돼곡.(꿈계로 끌어도 되고.)

103042 #2 꺾어도 돼곡.(꺾어도 되고.)

103042 @ 설피로?(꿇게로?)

103042 #1 밧 갈레 가젠 허민 설피 지영 가야 돼.(밧 갈러 가려고 하면 꿇게 저서 가야 돼.)

103042 #2 지영 가든지 밧디 가근에 끈영, 나무 끈영 만들든지.(지고 가든지 밧에 가서 꿇어서, 나무 꿇어서 만들든지.)

103042 @ 하루에 다 아버지가 밧 갈고?(하루에 다 아버지가 밧 갈고?)

103042 #2 예.(예.)

103042 @ 또 여자덜은 씨 뿌리면서 갈고?(또 여자들은 씨 뿌리면서 갈고?)

103042 #2 남자덜이 다 씨 뿌리고 여자덜은 거름만 뿌리고.(남자들이 다 씨 뿌리고 여자들은 거름만 뿌리고.)

103042 #1 거름 뿌리고 집이 오랑 점심해 가곡게. 막 ㄴ치 대동해야지.(거름 뿌리고 집에 와서 점심해 가고. 마구 같이 대동해야지.)

103042 @ 밧 갈기 전에 거름 뿌리는 건 여자?(밧 갈기 전에 거름 뿌리는 건 여자?)

103042 #2 으.(으.)

103042 @ 경행은에 밧 갑서 헤 텅 밥허레 왕 또 밥 가정 강.(그래서 밧 가세요 해 두고 밥하러 와서 또 밥 가지고 가서.)

103042 #1 밥 먹영 또 간 후에 또 씨가 아버지가 뿌려 주민 또 우리는 불려야지.(밥 먹고 또 간 후에 또 씨가 아버지가 뿌려 주면 또 우리는 밭아야지.)

103042 @ 불리고.(밭고.)

103042 #1 으.(으.)

103042 @ 멧 시간 그냥 도근도근 한번씩 불리민 웨는 거?(멧 시간 그냥 차근차근 한번씩 밭으면 되는 거?)

103042 #1 밧로 팍팍 차명 거 씨 막아지렌이.(밧로 팍팍 차면서 거 씨 막아지라고.)

103042 #2 밧도 소로 갈잖아. 소로 갈기 때문에 갈다근에 소 좀 쉬어서 갈라고 쉬울 때는 목초도 해다 줘야 웨어.(밧도 소로 갈잖아. 소로 갈기 때문에 갈다가 소 좀 쉬어서 갈려고 쉬게 할 때는 목초도 해다 줘야 돼.)

103042 #1 소 먹을 거.(소 먹을 거.)

103042 #2 응, 여자분들은.(으, 여자분들은.)

103042 @ 모싯잎이여 뉘영 배당.(모싯잎이랑 뉘랑 배어다가.)

103042 #2 여자분들은 모싯잎이랑 무시거 그 소 먹는 목초 비어다근에 소신디 먹이 줄 거 해다 놓고. 여자도 부지런히 해야 웨어.(여자분들은 모싯잎이랑 뉘 그 소 먹는 목초 배어다가 소에게 먹이 줄 거 해다 놓고. 여자도 부지런히 해야 돼.)

103042 @ 계난, 저 남편 밥 먹는다.(그러니까, 저 남편 밥 먹는데.)

103042 #1 준일은 여자가 더 많아.(잔일은 여자가 더 많아.)

103042 @ 준일은예.(잔일은요.)

103042 #1 농사짓는 사람덜이. 남자는 그냥 밭 헛나 싹 갈아 불민 쉬는 날도 있고이. 준일 안 해 주는 사람덜은. 허는 사람덜은 ㄴ치 해 주는디 경.(농사짓는 사람들. 남자는 그냥 밭 하나 싹 갈아 버리면 쉬는 날도 있고. 잔일 안 해 주는 사람덜은. 하는 사람들은 같이 해 주는데 그렇게.)

103042 #2 옛날 남자분덜은 경 여자 헐 일은.(옛날 남자분들은 그렇게 여자 할 일은.)

103042 #1 준일 안 해.(잔일 안 해.)

103042 #2 여자 허는 일은 여자 허는 거렌 딱.(여자 하는 일은 여자 하는 거라고 딱.)

103042 @ 그니까예.(그러니까요.)

103042 #2 우선 더군다나 우리 노형은 양촌이라났어. 더 그런 걸 구분헌 거 같애.(우선 더군다나 우리 노형은 양촌이었어. 더 그런 걸 구분한 거 같아.)

103042 #1 남자 헐 일만 딱 행 여자 헐 일은 거들어 주질 안해.(남자 할 일만 딱 해서 여자 할 일은 거들어 주질 않아.)

103042 #2 거들어 주질 안해. 거들어 주민 팔불출로, 팔불출 취급해영.(거들어 주질 않아. 거들어 주민 팔불출로, 팔불출 취급해서.)

103042 #1 옛날 어른덜 장난말로 부엌에 들어가민.(옛날 어른들 장난말로 부엌에 들어가면.)

103042 @ 뭐 허듯이예?(뭐 하듯이요?)

103042 #1 으, 불 떨어져 분덴, 부엌에 남자 들어가면은 장난말로 막.(으, 불 떨어져 버린다고, 부엌에 남자 들어가면 장난말로 마구.)

103043 @ 산디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밭벼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43 #1 세 번, 세 번.(세 번, 세 번.)

103043 #2 두 번도 허곡 세 번도 허곡.(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103043 #1 세 번 해.(세 번 해.)

103043 #2 대개 세 번.(대개 세 번.)

103043 #1 먼저 가니까 먼저 메곡.(먼저 가니까 먼저 매고.)

103043 @ 이것도 그러면 더우कु다예? 조밭 김질보단 낫고?(이것도 그러면 덤쫈네요? 조밭 김보다는 낫고?)

103043 #1 거의 비슷해.(거의 비슷해.)

103043 #2 비슷해도 조는 뽑아 줘야 되는디 건 뽑아 주는 게 벨로 없으니까.(비슷해도 조는 뽑아 줘야 되는데 건 뽑아 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103043 #1 산디도 좇인 딴 뽑아 주고, 갈 때부터 산디는 쪼금 정식으로 뿌려. 메지 말젠이. 드문드문하게 뿌리고 조는 막 뿌령 보민 어떤 딴 많이 가면은 뽑아 주곡.(밭벼도 땀 데는 뽑아 주고, 갈 때부터 밭벼는 쪼금 정식으로 뿌려. 매지 말려고. 드문드문하게 뿌리고 조는 마구 뿌려서 보면 어떤 데는 많이 가면은 뽑아 주고.)

103043 #2 존 알맹이가 좋아 놓니까이 경찰 수벳기 었은 거.(조는 알맹이가 좋아 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103044 @ 음, 맞아예. 산디에는 또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음, 맞아요. 발벼에는 또 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103044 #2 산디에도 뭐 조팏디 나는.(발벼에는 뭐 조발에 나는.)

103044 #1 잊어버런, 그때이 쉼터럭 벤데가 잊어. 벤데 검질 막 더 잘 나잖아. 쉼터럭 벤데, 존존하게 그냥 곧 나명 씨 사 불어.(잊어버렸어. 그때는 김의털 아욱메풀이 있어. 아욱메풀 김이 막 더 잘 나잖아. 김의털 아욱메풀, 자잘하게 그냥 곧 나면서 씨 서 버려.)

103044 @ 존존하게 나명 씨?(자잘하게 나면서 씨?)

103044 #1 벤데가 그냥 나명 요만허민 씨가 나. 벤데엔 검질이 벤데가 많이 나. 물 잇는 밧은 더 많이 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 밧이라신디 그렇게 잘 낫어. 쉼터럭 벤데가.(아욱메풀이 그냥 나면서 요만하면 씨가 나. 아욱메풀이라는 김이 아욱메풀이 많이 나. 물 잇는 밧은 더 많이 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 밧이었는데 그렇게 잘 낫어. 김의털 아욱메풀이.)

103044 @ 어떤 검질인지 거를 사진 찍어야 돼는데 언제 혼번? 하하.(어떤 김인지 거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언제 한번? 하하.)

103044 #2 으,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어이.(으,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어.)

103044 #1 벤데는 벨로 없어. 쉼터럭은 보이는데.(아욱메풀은 별로 없어. 김의털은 보이는데.)

103044 #2 쉼터럭은 보이는데.(김의털은 보이는데.)

103044 #1 벤데가, 옛날은 벤데 잘 낡 골갱이로 막 잘 굵으꼭 헤신디.(아욱메풀이, 옛날은 아욱메풀 잘 나서 호미로 막 잘 굵고 했는데.)

103044 @ 여름에는 쉼터럭 벤데, 또 제완지?(여름에는 김의털 아욱메풀, 또 바랭이?)

103044 #1 제완지.(바랭이.)

103044 @ ㄹ라지?(가라지.)

103044 #2 복쿨.(깨풀.)

103044 @ 복쿨, ㄹ라지는?(깨풀, 가라지는?)

103044 #1 ㄹ라지는 그 검질멘 후에 걸 나와근에 메여이. 내중에.(가라지는 그 김맨 후에 걸 나와서 매어. 나중에.)

103044 #2 ㄹ라지는 종자 때 저기 조 비슷허기 땀에 잘 몰라.(가라지는 종자 대 저기 조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몰라.)

103044 @ 아.(아.)

103044 #1 겨문 그 떨어진 거 내중에 막 걸어 다니명 매어. 경 바팏디 내쳐.(그러면 그 떨어진 거 나중에 마구 걸어 다니면서 매. 그래서 밖에 내쳐.)

103044 #2 그것만 일부러 들어상 메야 웨어.(그것만 일부러 들어서서 매야 돼.)

103044 #1 보리밭딘 대우리 메렌 허곡 조팏딘 ㄱ라지 메렌 허고, ㄱ라지.(보리밭에는 귀리 매라고 하고 조밭은 가라지 매라고 하고, 가라지.)

103045 @ 예. 밧벼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베는 거랑 도리깨질은 어떻 합니까? (예. 밧벼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베는 거랑 도리깨질은 어떻게 합니까?)

103045 #1 산디도이 비어근에 하루쫘 물리왓당 좀 그냥 땅에서 물류와 낱 무꺼 오면은 장만헛기가 쉬워. 존존허게 무끄면은이 이렇게 영 낱, 이렇게 영 낱.(밭벼도 베어서 하루쫘 말렸다가 좀 그냥 땅에서 말려 놓고 묶어 오면 장만하기가 쉬워. 자 잘하게 묶으면 이렇게 놔서, 이렇게 이렇게 놔서.)

103045 @ 마주 낱.(마주 놔서.)

103045 #1 이것 영 둘이 상, 일로 사람 시민 일로 사근에 도끼로, 도끼로 이렇게 때려.(이것 이렇게 둘이 서서, 이리로 사람 있으면 이리로 서서 도리깨로, 도리깨로 이렇게 때려.)

103045 #2 요만씩 무꺼 요만씩.(요만큼씩 묶어 요만큼씩.)

103045 #1 줄게.(잘게.)

103045 #2 요만씩 헤영 마주 쭉 벌여 낱.(요만큼씩 해서 마주 쭉 벌여 놔서.)

103045 #1 헤 낱 뒤집어 놔. 아이덜이 뒤집어 주면 또 이디 또 때려.(헤 놔서 뒤집어 놔. 아이들이 뒤집어 주면 또 여기 또 때려.)

103045 @ 마주 보게 행은에?(마주 보게 해서?)

103045 #2 으, 거의 뜯려지민 이게 뜯시 옆으로 또 세와 놔. 그 옆이 거 안 때려 지니까 경 행 뜯시 두들려. 게난이 가운데 들어상 심부름허는 사람은 부지런히 해야 돼여. 도끼 맞िका 봐 그냥 피허면서.(으, 거의 때리면 이게 또 옆으로 또 세워 놔. 그 옆에 거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또 두들려.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서서 심부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해야 돼. 도리깨 맞을까 봐 그냥 피하면서.)

103045 #1 경헤도 씨가 남아 있어. 남아 이시민 그 짚을 쓰게 돼여. 쓰게 돼면은 우리 어머니 허는 거 봤어. 이렇게 이렇게 치는 체 잊지이.(그래도 씨가 남아 있어. 남아 있으면 그 짚을 쓰게 돼. 쓰게 되면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봤어. 이렇게 이렇게 치는 체 잊지.)

103045 #2 챗망.(챗바퀴.)

103045 #1 그 체 헤영 못 쓰게 돼면은 망¹¹²⁾만 있어. 영 망.(그 체 해서 못 쓰게 되면 챗바퀴만 있어. 이렇게 챗바퀴.)

103045 #2 둘러지는 망.(둘러진 챗바퀴.)

103045 #1 영 망만 잇으면은 이디 아래에 도마 깔아. 그 산디 낱¹¹³⁾ 하나씩 있어.(이렇게 챗바퀴만 있으면 여기 아래에 도마 깔아. 그 밧벼 짚 하나씩 있어.)

103045 #2 그 속에 묻어진 거, 안 떨어진 거.(그 속에 묻힌 거, 안 떨어진 거.)

103045 #1 이시민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영 막 훑어, 엇이. 산디 하나토 엇이. 경

112) 여기서 '망'은 '챗바퀴'를 가리킨다.

113) '낱'은 표준어의 '나무'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짚'을 가리킨다.

행 놔둬사 그것이 신도 삼곡 맥도 줄고 명석도 줄고.(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구 훑어, 없이. 발벼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 놔둬야 그것이 신도 삼고 맥도 곁고 명석도 곁고.)

103045 #2 경 안허민 쥐 들엉 문딱 쏘아 불어.(그렇지 않으면 쥐 들어서 모두 쏘아 버려.)

103045 #1 쥐가 그 먹으멍 쏘아 불어. 게민 것도 일 삼앙 해.(쥐가 그 먹으면서 쏘아 버려. 그럼 것도 일 삼아서 해.)

103045 @ 아.(아.)

103045 #2 잘라 불영 못 쓰게 만들어 불어.(잘라 버려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려.)

103045 #1 나도 그거 했어, 나도 우리 어머니랑.(나도 그거 했어, 나도 우리 어머니랑.)

103045 @ 아, 못 쓰게 만들어 부니까.(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103045 #2 경헌 때문에.(그런 때문에.)

103045 #1 나도 했어.(나도 했어.)

103045 @ 아까왕 경헌 줄 알아신디 그게 아니구나.(아까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103045 #2 아깝기도 허주만은.(아깝기도 하지만.)

103045 #1 우리 어무니가 너무 하니까 너도 허라, 너도 허라 허니까 나도 해.(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으니까 너도 해라, 너도 해라 하니까 나도 해.)

103045 #2 아깝기도 허주마는 그대로 놔두민은 쥐가 그거 먹으면서 그냥 그 벧대를 다 잘라 불영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아깝기도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쥐가 그거 먹으면서 그냥 그 벧짚을 다 잘라 버려서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103045 #1 그 짚을 쓸 거니까 안 썩 내부는 건 돼지만은.(그 짚을 쓸 거니까 안 썩서 내버리는 건 되지만.)

103045 #2 명석도 만들어야 돼지.(명석도 만들어야 되지.)

103045 #1 명석 줄고. 맥도 줄고.(명석 곁고. 맥도 곁고.)

103045 #2 맥도 만들어야지.(맥도 만들어야지.)

103045 #1 신도 삼고.(신도 삼고.)

103045 #2 신도 삼아야 돼지, 배도 만들어야 돼지. 질빵이 그땐 없었어.(신도 삼아야 되지, 배도 만들어야 되지. 질빵이 그때는 없었어.)

103045 #1 노를 이렇게 꼬아서.(노를 이렇게 꼬아서.)

103045 #2 경허기 때문에.(그러기 때문에.)

103045 #1 게난 그 챗망을 나가 영 헌 걸 알아지크라.(그러니까 그 챗바퀴를 내가 이렇게 한 걸 알겠어.)

103045 #2 아유, 우리도 해 봤주게.(아휴, 우리도 해 봤지.)

103045 #1 느도 허라, 느도 허라, 엄마가. 해해해. 엄마만 다 못 허난게.(너도 해라, 너도 해라, 엄마가. 해해해. 엄마만 다 못하니까.)

103045 #2 게. 비 왕 밧디 일 못 허민게 그거 내놔 그걸 해야 돼여. 이레 낱 걸 조악조악.(그래. 비 와서 밧에 일 못 하면 그거 내놓고 그걸 해야 돼. 이리 와서 걸 ‘조악조악’.)

103045 #1 소리가 자르륵자르륵 나, 소리가.(소리가 자르륵자르륵 나, 소리가.)

103045 #2 자르륵자르륵.(자르륵자르륵.)

103045 @ 어떻게 헐다는 거?(어떻게 한다는 거?)

103045 #1 영.(이렇게.)

103045 @ 체 나무만, 나무 테만 잇고?(체 나무만, 나무 테만 잇고?)

103045 #1 으, 으.(으, 으.)

103045 @ 엇이믄?(없으면?)

103045 #2 똥그랑헌 나무로.(똥그란 나무로.)

103045 #1 게민 산디 흠뽀 남아 잇는 걸 영 등기민.(그럼 밧벼 조금 남아 잇는 걸 이렇게 당기면.)

103045 @ 아, 이걸 가운데 낱 이걸 누르땡?(아, 이걸 가운데 와서 이걸 눌러서?)

103045 #1 누르땡 땡겨.(눌러서 당겨.)

103045 #2 땡겨.(당겨.)

10304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45 #2 게민 이걸 작작.(그럼 이걸 작작.)

103045 #1 소리가 나. 자르륵자르륵.(소리가 나. 자르륵자르륵.)

103045 @ 세상에.(세상에.)

103045 #1 게민 이디 산디 아니 헤진 거 남아 잇잖아. 흠뽀 죽은 것도 잇고이. (그럼 여기 밧벼 안 한 거 남아 잇잖아. 조금 죽은 것도 잇고.)

103045 @ 경행은에 도깨질을 행 그추룩 헛다는 거라예?(그래서 도리깨질을 해서 것처럼 했다는 거지요?)

103045 #1 으, 내중에.(으, 나중에.)

103045 @ 그 원래 산디쩍보다 나룩쩍이 좋덴 행은에.(그 원래 밧벧짚보다 벧짚이 좋다고 해서.)

103045 #2 예.(예.)

103045 #1 더 좋지.(더 좋지.)

103045 @ 허긴 헛덴 헛디다예.(하긴 했다고 함디다.)

103045 #1 질고.(길고.)

103045 @ 아, 질고. 겐 건 돈 주고 사야 돼고.(아, 길고. 그래서 건 돈 주고 사야 되고.)

103045 #1 저 아래 덕지동¹¹⁴⁾.(저 아래 ‘덕지동’.)

103045 @ 들어봤수다.(들어봤습니다.)

103045 #1 덕지동 그 논 이시난 그디 강, 우리 큰어머니 그디 논밭이 두 개 있

114) ‘덕지동’은 제주시 이호동 자연 마을 중 하나다.

언, 두 필. 겐 우리 큰어머니넨 그 산디를 막 두드령 던져 불지. 경 건 안 써. 나룩
짹 이시난.('덕지동' 그 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큰어머니 거기 논밭이 두 개
있었어, 두 필.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네는 그 밭벼를 마구 두드려서 던져 버리지.
그렇게 그건 안 써. 벧짚 있으니까.)

103045 #2 나룩짹 이시니까.(벧짚 있으니까.)

103045 #1 이시난.(있으니까.)

103045 #2 그렇지개.(그렇지.)

103045 #1 게민 막 췌게 막 두드령은에 안 쓸 걸로 내불어. 막 때려 불어. 경허
른 낫당 거 소도 주고이 검질도 허곡 허는다. 우린 나룩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냥 너도 허라, 너도 허라.(그럼 마구 세게 마구 두드려서 안 쓸 것으로 내버
려. 마구 때려 버려. 그러면 왔다가 거 소도 주고 검불도 하고 하는데. 우린 벧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꾸 너도 해라, 너도 해라.)

103045 @ 것도 놀읍니까, 산디쩍도?(것도 가렵니까, 밭벧짚도?)

103045 #1 응. 놀어야지. 놀영은에 느라미 영 췌와야 안 췌지.(응. 가려야지. 가려
서 이영 이렇게 췌워야 안 췌지.)

103045 @ 덕지동 미나리 허는디 거기도 벧가 그렇게 잘 자랐다는 거?('덕지동'
미나리 하는데 거기도 벧가 그렇게 잘 자랐다는 거?)

103045 #1 잘했어, 거기.(잘했어, 거기.)

103045 @ 내도 거기 도근내¹¹⁵⁾ 거기서 나는 벧만 허는 줄 알았주게.(내도 거기
'도근내' 거기서 나는 벧만 하는 줄 았았지.)

103045 #1 아니.(아니.)

103045 @ 덕지동도 했구나?('덕지동'도 했구나?)

103045 #1 덕지동에도 있었어. 우리 큰아버지네도, 이디 광수네도 셔났어.('덕지
동'에도 있었어. 우리 큰아버지네도, 여기 광수네도 있었어.)

103045 @ 미나리 허기 전엔 다 논을 했다는 말이구나예?(미나리 하기 전에는 다
논을 했다는 말이군요?)

103045 #2 예.(예.)

103045 @ 게난 물이 거기 항상 잇언게.(그러니까 물이 거기 항상 있더라.)

103045 #2 게난 벧짚이 막 크주게. 벧짚이 막 길고 부드럽고 벧짚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이런 농촌에서 논 엮은 사람은 산디짚을 쓰기 때문에.(그러니까 벧
짚 아주 크지. 벧짚이 아주 길고 부드럽고 벧짚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이런
농촌에서 논 엮는 사람은 밭벧짚을 쓰기 때문에.)

103045 #1 그 남자분들 그 일할 때 맥 줄을 때 나룩짚으로 허는 사람은 손이 막
좋고이. 산디짚으로 허는 사람은 손이 벌게, 췌어서. 이렇게 줄아 가명.(그 남자분들
그 일할 때 맥 줄을 때 벧짚으로 하는 사람은 손이 아주 좋고. 밭벧짚으로 하는 사
람은 손이 벌게, 세서. 이렇게 걸어 가면서.)

115) '도근내'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103045 #2 썰기 때문에.(썰기 때문에.)

103045 #1 우리 큰아버진 맥도 잘 줄주만은 맥 줄은 것이 경 손도 안 아프고.(우리 큰아버지는 맥도 잘 걸지만 맥 걸은 것이 그렇게 손도 안 아프고.)

103045 #2 곱주게.(곱주게.)

103045 #1 하루에 하나 줄아. 맥 하나 줄아. 하루에 하나. 줄앙 이레 내쳤당 또 다른 거 줄아 텅 혼 멧 개 줄아 놓민 바위가 있어, 또 바위 허는 게이 이렇게 곱닥 허게 만드는 거.(하루에 하나 걸어. 맥 하나 걸어. 하루에 하나. 걸어서 이리 내쳤다가 또 다른 거 걸어 두고 한 멧 개 걸어 놓으면 바위가 있어, 또 바위 하는 게 이렇게 곱게 만드는 거.)

103045 @ 이젠 아무도 그런 어른 엇주게.(이젠 아무도 그런 어른 없지.)

103045 #1 게난 우리 때나 거 봤지.(그러니까 우리 때나 거 봤지.)

103045 #2 그렇지.(그렇지.)

103045 #1 영수네 십 년, 말짜 나니까 잘 안 봐실 거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해 부난이 맥 즈는 걸 못 봤어.(영수네 십 년, 말째 되니까 잘 안 봤을 거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해 버리니까 맥 걷는 걸 못 봤어.)

103045 #2 못 봐실 거여게.(못 봤을 거야.)

103045 @ 보관헌덴 해도 삭아 봄데다. 놔둬 가민 햇빛 맞고 허당 보민.(보관한다 고 해도 삭아 버립데다. 놔둬 가면 햇빛 맞고 하다가 보면.)

103045 #1 잘 아니 허연은. 건 자꾸 써야, 자꾸 쓰고 내치곡 들이치곡 해야 오래 가지, 그냥 놔두민 썩어 봄도 허곡 삭아 봄도 허곡 해.(잘 안 했어. 건 자꾸 써야, 자꾸 쓰고 내치고 들어뜨리고 해야 오래가지, 그냥 놔두면 썩어 버리기도 하고 삭아 버리기도 하고 해.)

103045 @ 할무니네 썼던 거 백 년 뒀난 삭을 만도 허주예?(할머니네 썼던 거 백 년 되니까 삭을 만도 하지요?)

103045 #2 그렇지.(그렇지.)

103046 @ 바구니 그래도 오래가도. 그믄 이 산디쌀로 밥해 먹고 떡 허는 걸 곱아 봄서. 무슨 떡을 허고 밥은 언제 해 먹고?(바구니 그래도 오래가도. 그럼 이 발벼쌀로 밥해 먹고 떡 하는 걸 말해 보세요. 무슨 떡 하는 걸 말해 보세요. 무슨 떡을 하고 밥은 언제 해 먹고?)

103046 #2 옛날에는 그.(옛날에는 그.)

103046 #1 속담에, 옛날에이 육지 사름덜이이 제주도 아가씨덜은 시집가도록 오래 먹어야 쫄 혼 말 먹넌 해. 이런 뒀로 네 개민 혼 말이야.(속담에, 옛날에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아가씨들은 시집가도록 오래 먹어야 쌀 한 말 먹는다고 해. 이런 뒀로 네 개면 한 말이야.)

103046 @ 예, 뒀로 네 개.(예, 뒀로 네 개.)

103046 #1 거 혼 말 먹영 시집간덴 해.(거 한 말 먹어서 시집간다고 해.)

103046 #2 쌀이 귀허니까.(쌀이 귀하니까.)

103046 #1 식게 멩질헐 때만 곤밥을 먹으니까. 곤밥 허질 안헤. 생일 때나, 아버지 생일 때나 곤밥허지.(제사 멩질할 때만 때만 흰밥을 먹으니까. 흰밥 하지 않아. 생일 때나, 아버지 생일 때나 흰밥하지.)

103046 @ 아버지 생일이 중요하구나?(아버지 생일이 중요하구나?)

103046 #1 응, 나도 우리 아버지 생일 때만 곤밥 행, 어무니 생일엔 안 행 먹어. 아니 허여.(응, 나도 우리 아버지 생일 때만 흰밥 해서, 어머니 생일에는 안 해서 먹어.)

103046 @ 아이덜도 안 헤 주고.(아이들도 안 헤 주고.)

103046 #2 안 헤 줘.(안 헤 줘.)

103046 #1 안 헤, 아버지 생일 때만 곤밥 먹어.(안 헤, 아버지 생일 때만 흰밥 먹어.)

103046 @ 세상에.(세상에.)

103046 #1 게난게 시집가도록 혼 스물 멧, 스물. 빨리 가민 스물에 갓어. 열아홉에도 가고 스물에도 가고. 그때까지 허민 혼 말 먹으나마나 헐 거야.(그러니까 시집가도록 한 스물 멧, 스물. 빨리 가면 스물에 갓어. 열아홉에도 가고 스물에도 가고. 그때까지 하면 한 말 먹으나마나 할 거야.)

103046 @ 식게 때 진짜 혼 숟가락씩 나눠줬수과?(제사 때 진짜 한 숟가락씩 나눠줬습니까?)

103046 #1 으.(으.)

103046 @ 그 메만 딱 헛다는 거?(그 메만 딱 헛다는 거?)

103046 #1 더러 먹을 거 허긴 허는데 이제 치면 사발로 허민 족은 반은 허여. 반도 안 거려.(더러 먹을 거 하긴 하는데 이제 치면 사발로 하면 작은 반은 헤. 반도 안 떠.)

103046 #2 반도 안 거려.(반도 안 떠.)

103046 #1 족은 반은 거려 줘. 사발로 치민, 밥공기에.(작은 반은 떠 줘. 사발로 치면, 밥공기에.)

103046 #2 많이 뜨민 세 숟가락 뜨민 말주.(많이 뜨면 세 숟가락 뜨면 말지.)

103046 #1 게메, 뽀뽀 뜨민 세 숟갈 뜨지.(글쎄, 뽀뽀 뜨면 세 숟가락 뜨지.)

103046 @ 산디밥을 곤밥이렌 무사 헛신고예?(발벼발을 흰밥이라고 왜 했지요?)

103046 #2 희난.(희니까.)

103046 @ 히양허니까?(하야니까?)

103046 #2 으, 게난 곱텐 말로 곤밥 이름 지어실 테주.(으, 그러니까 곱다는 말로 흰밥 이름 지었을 테지.)

103046 @ 아.(아.)

103046 #1 하하. 잔치헐 때도이 그 신랑 신부만, 그 우시 허는 사름만 곤밥 해주지. 게난 반 서꺼.(하하. 잔치할 때도 그 신랑 신부만, 그 위요 하는 사름만 흰밥 해주지. 그러니까 반 섞어서.)

103046 @ 아.(아.)

103046 #1 서경 먹고 막 아기덜은이 안 서경 보리쌀만 낱 밥해. 보리쌀허고이 풋허고.(섞어서 먹고 마구 아기들은 안 섞어서 보리쌀만 넣어서 밥해. 보리쌀하고 팔하고.)

103046 #2 풋허고.(팔하고.)

103046 @ 풋허고?(팔하고?)

103046 #2 으.(으.)

103046 #1 그 쌀 서끈 것도 흐끔 우이 사름덜만 해 줘. 아이덜허고 뭐 헌 사름은 맨보리밥 줘.(그 쌀 섞은 것도 조금 위의 사름들만 해 줘. 아이들하고 뭐 한 사름은 맨보리밥 줘.)

103046 @ 떡은마씨?(떡은요?)

103046 #2 떡도.(떡도.)

103046 @ 다 줍쓸허고 모멸로만 해신가?(다 줍쌀하고 메밀로만 했나?)

103046 #2 아니, 아니. 그 쌀.(아니, 아니. 그 쌀.)

103046 @ 곤떡?(흰떡?)

103046 #2 그 우리 노형은 양촌으로 이 준떡¹¹⁶⁾을 많이 허주게. 준떡을 많이 행다숫 가지를 허는다.(그 우리 노형은 양촌으로 그 ‘준떡’을 많이 하지. ‘잔떡’을 많이 해서 다섯 가지를 하는데.)

103046 #1 준떡이민 곶아 봐이, 솔벤¹¹⁷⁾.(‘잔떡’이면 말해 봐, 솔편.)

103046 #2 솔벤이엔 허민 알카?(솔편이라고 하면 알까?)

103046 #1 일름 곶아야지.(이름 말해야지.)

103046 @ 으, 옛날 이름으로.(으, 옛날 이름으로.)

103046 #1 솔벤, 절벤, 인절미, 세미떡¹¹⁸⁾ 또 저, 아니 저 무시거 지름떡 말앙 무시거엔 곶으니?(솔편, 절편, 인절미, ‘세미떡’ 또 저, 아니 저 뭐 기름떡 말고 뭐라고 말하니?)

103046 #2 곶미¹¹⁹⁾.(곶무떡.)

103046 #1 곶미떡도 맨 우이 거고이. 동곶랑 곤떡이냐?(곶무떡도 맨 위의 거고. 동그란 ‘곤떡’이냐?)

103046 #2 그게 절벤이지게.(그게 절편이지.)

103046 #1 절벤. 절벤.(절편. 절편.)

103046 #2 절벤 솔벤 허민.(절편 솔편 하면.)

103046 #1 절벤 솔벤 세미떡은 들어갔네.(절편 솔편 ‘세미떡’은 들어갔어.)

116) ‘준떡’은 잔 떡이라는 말로 시루떡처럼 크게 만들어 자르는 떡이 아니라, 절편처럼 크기가 작은 떡을 말한다.

117)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 반달 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찐 떡을 말한다.

118)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안에 팔소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삶거나 찐 떡을 말한다.

119) ‘곶미’는 표준어의 ‘곶무떡’에 대응한다. 이를 제보자는 ‘곶미떡’, ‘권미떡’이라고도 했다.

103046 #2 세미떡 인절미 네 가지 아니냐.('세미떡' 인절미 네 가지 아니니.)

103046 #1 으, 네 가지.(으, 네 가지.)

103046 #2 **영 허고 권미떡¹²⁰⁾ 허민 다섯 가지, 으섯 가지.(**랑 하고 골무떡 하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103046 #1 그 권미떡 허는 집이가 종손 칩벧긴 안 허여. 종손 집만.(그 골무떡 하는 집이 종손 집밖에 안 해. 종손 집만.)

103046 #2 권미떡 말앙 딱시 그 쉼질메가지¹²¹⁾ 영 오그라지는 거.(골무떡 말고 또 그 '쉼질메가지' 이렇게 오그라지는 거.)

103046 #1 영 오그라진 거 허고 영 숟가락으로 뜨는 거 허는 거이. 우리 큰어머니네 집인 큰.(이렇게 오그라진 거 하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뜨는 거 하는 거. 우리 큰어머니네 집은 큰.)

103046 #2 병거떡¹²²⁾ 안 허곡?('병거떡'은 안 하고?)

103046 #1 응, 안 해. 우리 큰어머니만 해. 큰 멧질 허니까. 우리 아버지도 큰어머니 가서 부난 멧질 허고 우리 셋어머니도.(응, 안 해. 우리 큰어머니만 해. 큰 멧질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큰어머니 가서 버리니까 멧질 하고 우리 둘째어머니도.)

103046 #2 우린 친척이고 양척이도 다 허여.(우린 친척이고 양씨 집안도 다 해.)

103046 #1 아래 가지 안 해. 우리 큰아버지 집만 그 떡을 허여. 또 ○○네 집에도 강 보민, 그 도남¹²³⁾ 삼촌네 집은 안 허곡 ** 삼촌네 집이 가민 허고, 그 병거떡은. 안 허는 집은 안 허더라.(아래 가지 안 해. 우리 큰아버지 집만 그 떡을 해. 또 ○○네 집에도 가서 보면, 그 도남 삼촌네 집은 안 하고 ** 삼촌네 집에 가면 하고, 그 '병거떡'은. 안 하는 집은 안 하더라.)

103046 #2 우린 다 허여. 다 허민 일곱 가지라.(우린 다 해. 다 하면 일곱 가지야.)

103046 #1 그런 떡이 보기 좋난 먹어시민 허는 생각이 나는데 잘 안 줘, 우린.(그런 떡이 보기 좋으니까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는데 잘 안 줘, 우린.)

103046 #2 멧 개 안 허니까게.(멧 개 안 하니까.)

103046 #1 하영 안 허니까.(많이 안 하니까.)

103046 #2 그건 멧 개 안 허주.(그건 멧 개 안 하지.)

103046 @ 하나토 먹어 보지도 못헐?(하나토 먹어 보지도 못했어?)

103046 #2 예, 예.(예, 예.)

103046 #1 어찌다가 혼번.(어찌다가 한번.)

103046 #2 그건 상에 올릴 거만 딱 허주, 여러 갠 허질 안허주게.(그건 상에 올릴 거만 딱 하지, 여러 개를 하지를 않지.)

120) '권미떡'은 표준어의 '골무떡'에 대응한다.

121) '쉼질메가지'는 떡의 한 종류로, 떡 모양이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엮는 길마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22) '병거떡'은 떡 종류의 하나다.

123) '도남'은 제주도 도남동을 가리킨다.

103046 @ 먹고 싶엉 헐 때도 이시켜예?(먹고 싶어서 할 때도 있겠어요?)

103046 #1 계난 그 맛은 마찬가지로 보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건가 생각 허여게.(그러니까 그 맛은 마찬가지로 보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건가 생각해.)

103046 @ 세상에.(세상에.)

103046 #1 고기, 고기 적갈도이 혼 고지에 일곱 점씩 웨어. 일곱 점. 일곱 점 덜도 아니곡 더도 아니곡.(고기, 고기 적도 한 꼬치에 일곱 점씩 웨어. 일곱 점. 일곱 점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103046 #2 일곱 점씩 더 웨저게?(일곱 점씩 더 썰 수 있어?)

103046 #1 고챙이 하나에. 소고기도 그렇게, 돼지고기도 그렇게.(고챙이 하나에. 소고기도 그렇게, 돼지고기도 그렇게.)

103046 @ 첫갈예?(적요?)

103046 #1 일곱 점씩.(일곱 점씩.)

103046 @ 지금도 경 험수과?(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3046 #1 지금도.(지금도.)

103046 #2 지금도 경허여.(지금도 그래.)

103046 #1 여덟 점 안 웨여.(여덟 점 안 웨어.)

103046 #2 홀수로 웨기 때문에.(홀수로 웨기 때문에.)

103046 @ 홀수로?(홀수로?)

103046 #2 으. 웨기도, 적고지에 웨는 것도 홀수로 웨고 올리는 것도 홀수로.(으. 웨기도, 적꼬치에 웨는 것도 홀수로 웨고 올리는 것도 홀수로.)

103046 #1 어떤 때이 고지가 적어근에 많이 허민 아홉 점을 썰 때도 있어. 아홉 점은 두 점이 더 놔 가지고.(어떤 때 적꼬치 적어서 많이 하면 아홉 점을 썰 때도 있어. 아홉 점은 두 점 더 놔 가지고.)

103046 #2 너무 커근에 둔헤영 안 좋아.(너무 커서 둔해서 안 좋아.)

103046 #1 그냥 먹을 걸로게. 적고지 작으민 경 웨 불라 해.(그냥 먹을 걸로. 적꼬치 작으면 그렇게 웨어 버리라 해.)

103046 #2 우린 다 일곱 점 웨여.(우린 다 일곱 점 웨어.)

103046 #1 그거는 상에는 못 올리고 그냥 먹을 거.(그거는 상에는 못 올리고 그냥 먹을 거.)

103046 #2 우린 먹는 건 웨지도 안허여. 그릇에 낱 초저녁에 그냥덜 먹엇주.(우린 먹는 건 웨지도 았아. 그릇에 놔서 초저녁에 그냥들 먹엇지.)

103046 @ 제사 때는 막 못 먹엉, 곧밥 혼 숟가락 못 얻어먹엉 우는 아이도 잇고 막?(제사 때는 막 못 먹어서, 흰밥 한 숟가락 못 얻어먹어서 우는 아이도 잇고 마구?)

103046 #1 아이구, 예.(아이고, 예.)

103046 #2 옛날은 잔치에 신부 데려오잖아. 신부 데려오민 신부방에 이런 창문에

사람이 그냥 애들이 가득아. 막 밀리멍 그냥.(옛날은 잔치에 신부 데려오잖아. 신부 데려오면 이런 창문에 사람이 그냥 애들이 가득해. 마구 밀리면서 그냥.)

103046 #1 그 밥 흔 사발이.(그 밥 한 사발이.)

103046 #2 신부 받아난 그 밥을 흔 숟갈씩 다 나눠 주거든.(신부 받았던 그 밥을 한 숟가락씩 다 나눠 주거든.)

103046 #1 그 열 숟갈 흔 스무 숟갈 험직해. 숟갈로 펜직펜직 거렁 손에.(그 열 숟가락 한 스무 숟가락 함직해.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손에.)

103046 #2 손에 낱 손에.(손에 놔서 손에.)

103046 #1 손 내밀라 허민 손에 강 탁 놔주민 영 영.(손 내밀어라 하면 손에 가서 탁 놔주면 이렇게 이렇게.)

103046 #2 그거 흔 숟가락씩 주민 그거 반앙은에.(그거 한 숟가락씩 주면 그거 받아서.)

103046 #1 흔 숟갈이민 그거 경 하나, 흔 사발이?(한 숟가락이면 그거 그렇게 많냐, 한 사발이?)

103046 #2 그러게.(그러게.)

103046 #1 아이가 이 문으로 저 문, 두 밧디로 왕 영이 거 얻어먹젠.(아이가 이 문으로 저 문, 두 군데로 와서 이렇게 그거 얻어먹으려고.)

103046 #2 막 밀리멍 그냥 땡기멍.(마구 밀면서 그냥 당기면서.)

103046 #1 곤밥을 입에 안 놔 보니까.(흰밥을 입에 안 넣어 보니까.)

103046 @ 못 먹은 아인 어떻게?(못 먹은 아이는 어떡해?)

103046 #1 전지로 하나 주는 사람, 어떤 땐 반착씩 찰랑 모지레민.(전으로 하나 주는 사람, 어떤 땐 반쪽씩 잘라서 모자라면.)

103046 @ 다 친척 아이덜이잖아예?(다 친척 아이들이잖아요?)

103046 #1 늬이라도.(남이라도.)

103046 #2 친척 아니고 동네 아이덜. 이웃에 아이덜게.(친척 아니고 동네 아이들. 이웃에 아이들.)

103046 @ 아이고.(아이고.)

103046 #2 신부상 받아난 건 문딱 그냥.(신부상 받았던 건 모두 그냥.)

103046 #1 신부는 막 먹으민 흔 서너 번 그냥 밥 헝끔 먹는 체혜영 내불민.(신부는 마구 먹으면 한 서너 번 그냥 밥 조금 먹는 체해서 내버리면.)

103046 #2 쫄 서너 방울씩 행은에게 서너 숟가락 올라 가민 그냥 밀리민게.(쫄 서너 방울씩 해서 서너 숟가락 올라가면 그냥 밀면.)

103046 #1 마당에서 놀당 새각시 밥 갈라 줘져 허민 막 문에 강 엉켜. 거 얻어먹젠.(마당에서 놀다가 새색시 밥 나눠 준다고 하면 마구 문에 가서 엉켜. 거 얻어먹으려고.)

103046 @ 물명진 아이는 못 먹어?('물명진' 아이는 못 먹어?)

103046 #1 그디 못 강, 알로 강 영해도 거 주는 사람이 잘 뿡 하하하. 우리 ○○

이 알아지커냐?(거기 못 가서, 아래로 가서 이래도 거 주는 사람이 잘 봐서 하하하. 우리 ○○이 알겠니?)

103046 #2 ○○이 알주, 무사 몰라.(○○이 알지, 왜 몰라.)

103046 #1 우리 큰어머니 손지?(우리 큰어머니 손주?)

103046 #2 ㄴ게.(어.)

103046 #1 아, 그건 아메도 대문집 사니까 자게 오렌, 자게 오렌. 우린 막 얻어 먹젠 경허는디 알로 강 영, 사람이 하니까 알로 강 영허민 ○○이도 주라, ○○이도 주라 허민이 히히. 알로 보는 아이 흥품 주긴 줘. 위로 못 봐, 알로. 나 그 생각이 나.(아, 그건 아무래도 대문집 사니까 재게 오라고, 재게 오라고. 우리는 마구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래로 가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아래로 가서 이러면 ○○이도 줘라, ○○이도 줘라 하면 히히. 아래로 보는 아이 조금 주긴 줘. 위로 못 봐, 아래로. 나 그 생각이 나.)

103046 #2 무사 ○○이 키 크꼭 허난 경?(왜 ○○이 키 크고 하니까 그렇게?)

103046 #1 어릴 때주게. 키 큰 거 경 허나게? 게민 사름 이던 딱 부뜨고 영 우인 상 알러레 영 허라 허민, 알로 빵 ○○이도 주라, ○○이 주라. 우리 큰어머니가. 웨 손지난게.(어릴 때지. 키 큰 거 그렇게 하니? 그럼 사람 여긴 딱 붙고 이렇게 위에는 서서 아래로 이렇게 해라 하면, 아래로 봐서 ○○이도 줘라, ○○이 줘라. 우리 큰어머니가. 외손주니까.)

103046 #2 웨손지난 경허주. 안 허느냐게.(외손주니까 그렇지. 안 하겠니?)

103046 #1 그 생각이 남서게. ○○이 주라, 주라. 흐흐.(그 생각이 나. ○○이 줘라, 줘라. 흐흐.)

103046 #2 작년엔가 죽엇주?(작년엔가 죽었지?)

103046 #1 작년엔가?(작년엔가?)

103046 #2 재작년엔가?(재작년엔가?)

103046 #1 알아시민 강 볼 건디 곧지도 안허고.(알았으면 가서 볼 건데 말하지도 않고.)

103046 @ 게난 멧 살 돼난 곤밥 실피 먹어집디가?(그러니까 멧 살 되니까 흰밥 실컷 먹을 수 있습니까?)

103046 #1 시집가게 돼사지. 시집가게 돼사.(시집가게 돼야지. 시집가게 돼야.)

103046 @ 세월이 참 바뀌 가지고.(세월이 참 바뀌어 가지고.)

103046 #1 ○○이네도 아이 봐시카?(○○이네도 아니 봤을까?)

103046 #2 ○○이네도 소문, 소식 못 받았 못 본 말추록 그때 곶양 나가 들어진 거 다텔디.(○○이네도 소문, 소식 못 받아서 못 본 말처럼 그때 말해서 내가 들은 거 같은데.)

103046 #1 나보다 흥나 우이주게.(나보다 하나 위지.)

103046 #2 경 돼주.(그렇게 되지.)

103046 #1 경해도 남편 복이 신 생이라. 시집을 잘 간게.(그래도 남편 복이 있는

모양이야. 시집을 잘 가더라.)

103046 @ ○○인 누게마씨?(○○이는 누구요?)

103046 #1 우리 큰아버지 웨손지. 어멍 시집가근에 딸 하나만 나 똥 빨리 가 부난 웨가집에 살안게.(우리 큰아버지 외손주. 어머니 시집가서 딸 하나만 낳아 두고 빨리 가 버리니까 외갓집에 살았어.)

103046 #2 웨할머니 손에서 자랐주게.(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지.)

103046 #1 큰어머니 웨손지. 큰딸에.(큰어머니 외손주. 큰딸의.)

103046 @ 아졌다, 게도 웨손진디도예.(아졌다, 게도 외손주인데도요.)

103046 #1 으. 경행 살앙.(으. 그렇게 살아서.)

<중략>

103048 @ 산디는 보리 이런 거보다 잘 안 돼는가 보다예? 추억이나 경험, 산디 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밭벼는 보리 이런 거보다 잘 안 되는가 보네요? 추억이나 경험, 밭벼 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

103048 #1 산디가 경 많이 갈지 안허메. 어떤 사람은 아이 가는 사람도 있어. 헛살림덜은이. 제사 멧질허는, 헛는 사름은 다 갈지. 거 행 먹젠. 겐디 제사 멧질 안허는 사람도 좀 잇주게. 드문드문 이시민 그런 사람덜은 안 해. 밧이나 족으고.(밭벼가 그렇게 많이 갈지 앓아. 어떤 사람은 아니 가는 사람도 있어. 새살림들은. 제사 멧질하는, 하는 사름은 다 갈지. 거 해서 먹으려고. 그런데 제사 멧질 안 하는 사람도 좀 있지. 드문드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안 해. 밧이나 작고.)

103048 @ 어려운 생이라예?(어려운 모양이지요?)

103048 #1 조, 보리허곡 콩이나 햅품 갈까. ○○네 어멍은 그 세간 놔 분 후젠 그런 거 일절 안 해. 조, 보리만. 밧 하나만 갈젠 허니까.(조, 보리하고 콩이나 조금 갈까. ○○네 어머니는 그 세간 놔 버린 후에는 그런 거 일절 안 해. 조, 보리만. 밧 하나만 갈려고 하니까.)

103048 @ 돈이 돼나 보다예, 그건 게도?(돈이 되나 보네요, 그건 그래요?)

103048 #1 아니, 자기네가 제사허젠 허민 안 사니까, 돈 행은 사야지. 그거 안 갈민.(아니, 자기네가 제사하려고 하면 안 사니까, 돈 해서 사야지. 그거 안 갈면.)

103048 @ 오일장 그런 디 강 산디를 제사할 때만.(오일장 그런 데 가서 밭벼를 제사할 때만.)

103048 #1 쌀도 사 오꼭게.(쌀도 사 오고.)

103048 #2 오일장 날 강 사 와사주.(오일장 날 가서 사 와야지.)

103048 @ 으.(으.)

103048 #1 콩도 아이 갈민 사사 메주 쭈고.(콩도 아니 갈면 사야 메주 쭈고.)

고구마농사

103049 @ 이제 고구마로 감수다예. 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이제 고구마로 갑니다. 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49 #1 고구마 농사는이 청명, 이월들 낭 청명 돼민 고구마를 묻어. 땅속에 종자를. 종자를 쪽 묻어. 혼 요만이 묻엉 그걸 나면은 잘 가꾸왕은에 줄을 막 내와. 줄 나면은 이제 고구마 심을 밧을 갈아.(고구마 농사는 청명, 이월 돼서 청명 되면 고구마를 묻어. 땅속에 종자를. 종자를 쪽 묻어. 한 요만큼 묻어서 그걸 나면 잘 가꿔서 줄을 마구 내. 줄 나면 이제 고구마 심을 밧을 갈아.)

103049 #2 고구마 농사는 쉬와.(고구마 농사는 쉬워.)

103049 #1 소로 막 갈아근에, 골이 이렇게 둥둥허게 갈아. 판 밧보다 가는 것을 잘 갈아야 돼. 영 골이 영 올라오게. 갱헨 갈민 그디 쪽 허게 심엉 많이 헨 사람은 많이 심지. 막 눅도 빌엉 심고. 옛날에 웨정 댕이 고구마 공출헛잖아. 공출, 그 감제 뵈데기 해근에 바치렌 헨게. 썰엉 물류왕, 갱헨 바칠 때는 많이 갈아근에 막 그 조살 해. 시청에서 직원들이 왕 댕 말지기, 댕 평 갈라 해영. 걸 다 갈아야 돼. 다른 농산 못 해도 우선 고구마 농사. 그 뵈다기 풀 거난.(소로 마구 갈아서, 골 이렇게 ‘둥둥하게’ 갈아. 판 밧보다 가는 것이 잘 갈아야 돼. 이렇게 골이 이렇게 올라오게. 그렇게 갈면 거기 쪽 하게 심어서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심지. 마구 눅도 빌려서 심고. 옛날에 왜정 때는 고구마 공출헛잖아. 공출, 그 고구마 절간고구마 해서 바치라고 했어. 썰어서 말려서, 그렇게 바칠 때는 많이 갈아서 마구 그 조사를 해. 시청에서 직원들이 와서 댕 말지기, 댕 평 갈라 해서. 걸 다 갈아야 돼. 다른 농사는 못 해도 우선 고구마 농사. 그 절간고구마 팔 거니까.)

103049 @ 아.(아.)

103049 #1 뵈다기도 바쳐. 고구마로, 건 누게가 받아먹어신디, 웨정 때. 저 이호일동¹²⁴⁾ 강 우리 폴아난 거 알아져. 가망이 큰 것에 무꺼근에, 딱딱 새끼로 졸라메영 강 폴아신디.(절간고구마도 바쳐. 고구마로, 건 누가 받아먹었는지, 왜정 때. 저 이호일동 가서 우리 팔았던 거 알아. 가마니 큰 것에 묶어서, 딱딱 새끼로 졸라매서 가서 팔았는데.)

103049 @ 뵈데기 헨 거마씨?(절간고구마 한 거요?)

103049 #1 뵈데기 물룬 거.(절간고구마 말린 거.)

103049 @ 물룬 거예?(말린 거요?)

103049 #1 으, 물룬 거.(으, 말린 거.)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고구마 처음에 갈 때가 청명이엔 있어, 청명.(고구마 처음에 갈 때가 청명이라고 있어, 청명.)

103050 @ 청명, 사월?(청명, 사월?)

103050 #1 사월, 청명. 아, 청명 전에 놓겠다.(사월, 청명. 아, 청명 전에 놓겠다.)

103050 #2 전에 놔야 돼지.(전에 놓아야 되지.)

103050 #1 혼 정월 말 돼민 남직허다이.(한 정월 말 되면 놓음직하다.)

103050 #2 으, 정월 말은 아니라도 이월 초에 놔야지. 이월 초에 종자 그 씨를

124) ‘이호일동’은 제주시 이호일동을 가리킨다.

땅속에 쪽 허게 묻엉.(으, 정월 말은 아니어도 이월 초에 낚야지. 이월 초에 종자 그 씨를 땅속에 쪽 하게 묻어서.)

103050 #1 줄 내왕.(줄 나게 해서.)

103050 #2 요만큼 묻어근에게 순 나오면은 그거 걸름 주면서 그 오줌.(요만큼 묻어서 순 나오면 그거 거름 주면서 그 오줌.)

103050 #1 나도 올리 지금 심었어.(나도 올해 지금 심었어.)

103050 #2 그거 받아근에게 발효되면은 그거 저다가 뿌리면서 그 순을 막 키워. 계민 순 하나가 저만치 뻗어가게 길어. 경 길게 키워 놔근엔에 이제 그 보리 해 난 다음에 그 밭을 갈아근엔에 그 줄을 비어다가 요만큼씩 잘라.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라 가지고.(그거 받아서 발효되면 그거 저다가 뿌리면서 그 순을 마구 키워. 그럼 순 하나가 저만큼 뻗어가게 길어. 그렇게 길게 키워 놔서 이제 그 보리 하고 난 다음에 그 밭을 갈아서 그 줄을 베어다가 요만큼씩 잘라.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라 가지고.)

103050 #1 이디 그 썸이 있어. 썸 네 개 부터.(여기 그 잎이 있어. 잎 네 개 붙어.)

103050 #2 이파리.(잎.)

103050 #1 네 개. 네 막작 허영.(네 개. 네 마디 해서.)

103050 #2 이파리 네 개 사이를 잘라 가지고 이 고구마 심는 밭고지는 굵게 해야 돼어. 계근에 허민 그레 이게 밭고지면은 요게 큰 고지 요게 쪽은 고지가 있어 예. 경허면은 그 사이레 줄 놔근에게 이 흙을 막 강 쪽 들어 올려. 등실하게 올려근에.(잎 네 개 사이를 잘라 가지고 이 고구마 심는 밭이랑은 굵게 해야 돼. 그래서 하면 그리 이게 밭이랑이면 요게 큰 이랑 요게 작은 이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줄 놓아서 이 흙을 마구 가서 쪽 들어 올려. 등실하게 올려서.)

103050 #1 나 경 안 헛젠 한○○ 막 승허덴¹²⁵⁾. 땅에 부짱 내불엇젠. 아니 올렛덴.(나 그렇게 안 했다고 한○○ 마구 흥봐. 땅에 붙여서 내버렸다고. 아니 올렸다고.)

103050 #2 응, 경 허드라. 계근에 해야 그 고구마가 줄 많이 들었은엔에 크주게. 계근에게 허민 팔월만 나면은 팔월 추석 돼면은 그 고구마 처음에 심어근에 순 나온 딜로 보면은 땅이 영 벌어진 디가 있어게. 그런 디 강 영 파 보민 고구마가 이만씩 커.(응,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해야 그 고구마가 줄 많이 들어서 크지. 그래서 하면 팔월만 되면 팔월 추석 되면 그 고구마 처음에 심어서 순 나온 데로 보면 땅이 이렇게 벌어진 데가 있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파 보민 고구마가 이만큼씩 커.)

103050 #1 이젠 아니 들엇드라. 이번에 팡 보난.(이젠 아니 들엇더라. 이번에 파서 보니까.)

103050 #2 계난게. 느 흑도 안 올렛는디 들 리가 있나?(그러니까. 너 흑도 안 올렛는데 들 리가 있나?)

125) ‘승’은 표준어의 ‘흥’에 대응한다. 여기서 ‘승허다’는 ‘흥보다’의 의미다.

103050 #1 아니라. 경 안 들 정도로.(아니야. 그렇게 안 들 정도로.)

103050 #@ 쟁헨 요만큼씩 처음, 처음 생긴 거라이. 쟁헨 요만큼씩 허민 그거 파다가 이젠 쟁은에게 애들 초등학교 운동할 때 옛날에 뭐 줄 게 없잖아. 계민 그걸 벨미로. 그걸 벨미로 간식으로 그걸 파당 쟁은에게 아이덜 운동하는 날은 먹으렐 허고.(그래서 요만큼씩 처음, 처음 생긴 거야. 그래서 요만큼씩 하면 그거 파다가 이젠 썬서 애들 초등학교 운동할 때 옛날에 뭐 줄 게 없잖아. 그럼 그걸 벨미로. 그걸 벨미로 간식으로 그걸 파다가 썬서 아이들 운동하는 날은 먹으라고 하고.)

103050 #1 고구마가 큰 거야, 큰 거. 고구마허고 계란 삶아 주는 거.(고구마가 큰 거야, 큰 거. 고구마하고 계란 삶아 주는 거.)

103050 #2 응, 먹으렐 주면.(응, 먹으라고 주면.)

103050 @ 계란 삶아 줘.(계란 삶아 줘.)

103050 #2 계란 삶았주.(계란 삶았지.)

103050 #1 계란은 득 질봐, 집에.(계란은 닭 길러, 집에.)

103050 #2 계란 가을 들었 다 가을 농사 거두와들영 똥, 고구마도 내중엔 이젠 손으로, 많이 놓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팔 수가 없어. 소로 딱시 갈아. 갈민 뒤에 이제 굴채 들렁은에 줘. 멧 사람이 뒤에 따라 땡기멍 줘어은에 줄거리 다 이젠 팔란에 다듬아근에게 이제 출발에 그 목초, 쉼 먹으렐 출 비어 분, 목초 비어 분 그 밭에 가근에게 기계로 막.(그러니까 가을 들어서 다 가을 농사 거두어들여 두고, 고구마도 나중에는 이젠 손으로, 많이 놓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팔 수가 없어. 소로 또 갈아. 갈면 뒤에 이제 삼태기 들어서 주워. 멧 사람이 뒤에 따라 다니면서 주워서 줄거리 다 이제는 잘라서 다듬어서 이제 풀밭에 그 목초, 소 먹으라고 풀 베어 버린, 목초 베어 버린 그 밭에 가서 기계로 마구.)

103050 #1 썬는 거 나와. 착착착.(썬는 거 나와. 착착착.)

103050 #2 저 팔라지는 기계가 잇었어. 그걸로 헨 팔라근에, 영 돌려 가민 착착 착착 팔라지멍 나가민 그거 해근에게 문딱 이젠 들에 넣어.(저 잘리는 기계가 있었어. 그걸로 해서 잘라서, 이렇게 돌려 가면 착착착착 잘리면서 나가면 그거 해서 모두 이젠 들어 넣어.)

103050 #1 삼십육 년간이, 삼십육 년간 그 허당은에 우리 해방 똥난 안 헛네. 왜 정 때.(삼십육 년간, 삼십육 년간 그 해다가 우리 해방되니까 안 헛어. 왜정 때.)

103050 #2 응, 널은에 말르민게 딱시 그 글갱이로 막 굽어. 굽영 모두와다 놔근에게 불령.(응, 널어서 마르면 또 그 갈퀴로 마구 굽어. 굽어 모아다 놓아서 불려서.)

103050 #1 폴아.(팔아.)

103050 #2 목초 그 이파리 들잖아. 계란 불려근에 그 먼지 이젠 다 빼어 똥 그 가마니에 담양은에게.(목초 그 잎 들잖아. 그러니까 불려서 그 먼지 이젠 다 빼어 두고 그 가마니에 담아서.)

103050 #1 너네 어느 밧디 경 해 완?(너희 어느 밧에 그렇게 해 왔어?)

103050 #2 우린 뽕일이 굴렁 잇잖아, 그 출밧.(우린 ‘뽕일이’ 굴렁 잇잖아, 그 풀 밧.)

103050 #1 아, 우리도 서넉 출밧디, 알쪽으로 두 밧디 강 허엿네.(아, 우리도 서넉 풀밧, 아래쪽으로 두 밧에 가서 했어.)

103050 #2 알력 출밧, 우린 우넉 출밧디 늘엇네. 헤영케 스몫 그냥.(아래쪽 풀밧, 우리 위쪽 풀밧에 가렸어. 하얏게 사몫 그냥.)

103050 #1 일로 행 느 거 나 거 허멍.(이리로 해서 네 거 나 거 하면서.)

103050 #2 계근에 공출헤영 바찌고 헤낫수다게.(그래서 공출해서 바치고 했었습니니다.)

103050 #1 에이고.(어이구.)

103050 #2 바찌고 이제 나머진게 딱시 그 들방에에 뽕아다근에 ㄴ를 헤영 수제비도 헤영 먹고.(바치고 이제 나머지는 다시 그 연자매에 뽕아서 가루를 해서 수제비도 해서 먹고.)

103050 @ 아이고야.(아이고야.)

103050 #1 즈베기 허지, 즈베기.(수제비 하지, 수제비.)

103050 #2 수제비도 허영 먹고, 떡도 만들앙 쟁 먹고. 간식으로.(수제비도 해서 먹고, 떡도 만들어서 썬서 먹고. 간식으로.)

103050 #1 감제떡은 거멍헤. 시커멍헤. 게도 맛은 좋아.(고구마떡은 거메. 시커메. 그래도 맛은 좋아.)

103050 @ 그게 어떤 모양으로 만듭니까?(그게 어떤 모양으로 만듭니까?)

103050 #1 영 행 반죽행은에 손으로 영 영 행 동글락동글락허당 보든 뵈어.(이렇게 해서 반죽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다가 보면 돼.)

103050 @ 납작허게? 돌레떡 식으로?(납작허게? 도래떡 식으로?)

103050 #2 으, 납작허게.(으, 납작허게.)

103050 #1 돌려가멍 영 영 허멍. 경허영 솟디 낱 찌면은이 색깔이 까망헤.(돌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술에 넣어서 찌면 색깔이 까매.)

103050 #2 까망헤도 맛잇어.(까매도 맛있어.)

103050 #1 아무것도 안 놔.(아무것도 안 넣어.)

103050 #2 쫄깃쫄깃.(쫄깃쫄깃.)

103050 #1 이제 거트민 막 설탕 ㄴ루 넣고 허주만은 그냥 고구마 맛도 맛 좋아. 맛 존 게 엇어 노난게.(이제 같으면 마구 설탕 가루 넣고 하지만 그냥 고구마 맛도 맛 좋아. 맛 좋은 게 없어 놓으니까.)

103050 #2 맛 존 게 잇어게?(맛 좋은 게 있어?)

103050 #1 겐디 우리 큰어머니는이 애기덜도 엇어도 그걸 헤영은에,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애기를 막 막 하영 나난 자꾸 우리 집이 가져와. 감제떡을 헤영게. 저 그 도 육냥 알로 셋년아 헤영 불러, 불르민 양 허민 차룽착에 이거 ㄴ정 강 아이덜이영 먹으라. 아, 식구 엇어도.(그런데 우리 큰어머니는 아기들도 없어도 그걸 해서, 우리

는 우리 어머니 아기를 아주 아주 많이 낳으니까 자꾸 우리 집에 가져와. 고구마떡을 해서. 저 그 무환자나무 아래로 둘째야 해서 불러, 부르면 예 하면 채롱짝에 이거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랑 먹어라. 아, 식구 없어도.)

103050 #2 ○○이 성님은 할머니영 살았잖아.(○○이 형님은 할머니랑 살았잖아.)

103050 #1 으.(으.)

103050 #2 ○○이 성님은 할머니영 살아난, 그 할머니가 그런 걸 잘허더라게.(○○이 형님은 할머니랑 살았던, 그 할머니가 그런 걸 잘하더라.)

103050 #1 잘헤여.(잘해.)

103050 #2 밤이 야학에 강 오민 그 우린 저 ○○이 고모네 안 텅기니까 난 그 성님 그레 들어가 불민 우린 영 나강 저 알러레 쪽 들어가민 그 올레가 얼마나 기냐?(밤에 야학에 가서 오면 그 우리는 저 ○○이 고모네 안 다니니까 난 그 형님 그리 들어가 버리면 우린 이렇게 나가서 저 아래로 쪽 들어가면 그 ‘올레’가 얼마나 기냐?)

103050 #1 맞다. 맞다.(맞다. 맞다.)

103050 #2 겐 양펜으로 대나무 잇기 때문에 무서왕이 나 혼자 그레 갈 수가 없어. 게면은.(그래서 양편으로 대나무 잇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 혼자 그리 갈 수가 없어. 그러면.)

103050 #1 대나무 누게네 대나무야?(대나무는 누구네 대나무야?)

103050 #2 그 ○○네 집광 그 ○○이네 집도 그 대나무로 어우러졌지. 딱시 알러레 들어가도 딱시 그디 대나무로 어우러졌지.(그 ○○네 집과 그 ○○이네 집도 그 대나무로 어우러졌지. 또 아래도 들어가도 또 거기 대나무로 어우러졌지.)

103050 #1 알러레 들어가민 누게네 대나무?(아래도 들어가면 누구네 대나무?)

103050 #2 그 저 ○○이네게.(그 저 ○○이네.)

103050 #1 아아, ○○이 할망네.(아아, ○○이 할머니네.)

103050 #2 ○○이 큰 할망네게.(○○이 큰 할머니네.)

103050 #1 이제 생각남다.(이제 생각난다.)

103050 #2 아유 계난 우리 올렌 막 길잖아.(아휴 그러니까 우리 ‘올레’는 아주 길잖아.)

103050 #1 야넌 뽕일이¹²⁶⁾, 일름이 웃뽕일이¹²⁷⁾, 우린 알뽕일이¹²⁸⁾야.(애네는 ‘뽕일이’, 이름이 ‘웃뽕일이’, 우린 ‘알뽕일이’야.)

103050 #2 게민 ○○이 성님이 나영 ㄱ찌 자당 아침이랑 가라, 아침이 가라. 경헤여게. 계난 노상 그 성님이영 ㄱ찌.(그럼 ○○이 형님이 나랑 같이 자다가 아침에 가라, 아침에 가라. 그래. 그러니까 노상 그 형님이랑 같이.)

103050 #1 강 자?(가서 자?)

103050 #2 으, 자당 아침에 가.(으, 자다가 아침에 가.)

126) ‘뽕일이’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뽕일’이라고도 한다.

127) ‘웃뽕일이’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웃뽕일’이라고도 한다.

128) ‘알뽕일이’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알뽕일’이라고도 한다.

103050 #1 어머니 욱 안 허여?(어머니 욱 안 해?)

103050 @ 계난.(그러니까.)

103050 #2 아니, 어머니 경 뭐 험수텐 허민 욱 안 허여.(아니, 어머니 그렇게 뭐 한다고 하면 욱 안 해.)

103050 #1 무서우니까.(무서우니까.)

103050 #2 경험 강 보민, 강 보민 그 할머니가 꼭 그 감제떡을 쳐당 경 놔뒀더라 게.(그래서 가서 보면, 가서 보면 그 할머니가 꼭 그 고구마떡을 찌다가 그렇게 놔 뒀더라.)

103050 #1 간식 먹으렌.(간식 먹으라고.)

103050 #2 간식 먹으렌.(간식 먹으라고.)

103050 #1 거 봐. 그 할머니 얘기도 험나토 안 나 봐도.(거 봐. 그 할머니 아기도 하나도 안 낳아 봐도.)

103050 #2 그러게. 그렇게 잘해 줘.(그러게. 그렇게 잘해 줘.)

103050 #1 그 손질 들양 살멍게.(그 손주를 데리고 살면서.)

103050 #2 감제떡 행은에 칭 놔두고 어떤 땐 고구마 쳐당 꼭 방에 놔뒀더라고.(고구마떡은 해서 찌서 놔두고 어떤 때는 고구마 찌다가 꼭 방에 놔뒀더라고.)

103050 #1 두 설 문이로 메뉴리가 애길 나난이 양제 메뉴리가 애길 나난 두 설 문이 건 나영 동갑에 거 딸 나난 그거 돌아단 살안게. 그 우이 손지는. 그 할망이 옷도 해 주곡 먹을 것도 해 주고 시집갈 때 광목도 해당 빌로 막, 빌로 해영 숲아 근에 이호일동¹²⁹⁾ 그 남당¹³⁰⁾이엔 현 디가 있어.(두 살 터울로 며느리가 아기를 낳 으니까 양자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니까 두 살 터울의 거는 나랑 동갑의 거 딸 낳으 니까 그거 데려다가 살았어. 그 위의 손주는. 그 할머니가 옷도 해 주고 먹을 것도 해 주고 시집갈 때 광목도 해다가 필로 마구, 필로 해서 삶아서 이호일동 그 ‘남당’ 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103050 @ 예, 남당.(예, ‘남당’.)

103050 #1 그디 가근에 막 발레여, 해영게. 경해영은에 시집갈 때 해 주곡게.(거 기 가서 마구 바래서, 하얏게. 그래서 시집갈 때 해 주고.)

103050 @ 어머니.(어머니.)

103050 #1 할머니가. 어머니가 하나도 안 해 쥘, 시집갈 때.(할머니가. 어머니가 하나도 안 해 쥘어, 시집갈 때.)

103050 @ 본인에 손지?(본인의 손주?)

103050 #1 손지지. 계난 자기 들양 사니까게 손지를 경 해 쥘어. 시집갈 때. 경 해 쥘, 사삼사건 나 부니까 스나인 사삼사건에 죽어 불언게.(손주지. 그러니까 자기 데리고 사니까 손주를 그렇게 해 쥘어. 시집갈 때. 그래 쥘어. 사삼사건 나 버리니 까 사나인 사삼사건에 죽어 버렸어.)

129) ‘이호일동’은 제주시 이호일동을 말한다.

130) ‘남당’은 제주시 이호일동에 있는 당 이름이다.

103050 @ 손지에?(손주의?)

103050 #2 손지 사위가 죽어 부난.(손주 사위가 죽어 버리니까.)

103050 #1 손지 사위가 오도룡¹³¹⁾ 사람인디 죽어불었어. 죽어부난 이제 그 성님이 막 고집해여게. 막 착허곡 글도 잘허곡 공부도 잘허곡 해나신디.(손주 사위가 ‘오도룡’ 사람인디 죽어 버렸어. 죽어 버리니까 이제 그 형님이 아주 고집해. 아주 착하고 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했었는데.)

103050 #2 원 말수가 엇주게.(원 말수가 없지.)

103050 #1 마음이 착헌 사람게. 경허난 막 여기저기 말해, 막 돌아 가켄. 경해도 이 아무 디도 안 가켄 막 해도. 어디 광령¹³²⁾ 사람이 막 돌아가켄 헛어. 중매를 난이. 계난 그디 갈 때 나가 걸 봐난, 지금도 정말. 그냥 그 몸빼만 입영 다니난 치멜 입으민 저 사름 놀레 감텐 허카 부덴 몸빼 바람에이 치마영 저고리영 썬 물구덕¹³³⁾ 빈 허벅¹³⁴⁾ 낳은에. 저디 강 물 질영 먹었어. 구릉물¹³⁵⁾. 겨난 그 광령 시집이 오렌 허난 갈 때, 시집이가 스나이 아니 와도 미리 가는 거야. 웨삼촌네 웨가 그디 이시난, 웨가에. 갈 때 나가 봐신디 그 허벅 정 가근에 뽕일이 가근에 굴렁에 물통에 부러 뒹 갓네게. 부러 뒹 그디서 옷도 안 입영 그냥 안앙 가더라.(마음이 착한 사람. 그러니까 마구 여기저기 말해, 마구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도 아무 데도 안 가겠다고 마구 해도. 어디 광령 사람이 마구 데려가겠다고 헛어. 중매를 봐서. 그러니까 거기 갈 때 내가 걸 보니까, 지금도 정말. 그냥 그 몸빼만 입고 다니니까 치마를 입으면 저 사람 놀러 간다고 할까 봐 몸빼 바람에 치마랑 저고리랑 싸서 ‘물구덕’ 빈 ‘허벅’ 봐서. 저기 가서 물 길어서 먹었어. ‘구릉물’. 그러니까 그 광령 시집에 오라고 하니까 갈 때, 시집에 사나이 안 와도 미리 가는 거야. 외삼촌네 외가 거기 있으니까, 외가에. 갈 때 내가 봤는데 그 ‘허벅’ 지고 가서 ‘뽕일이’ 가서 구렁에 물통에 부러 두고 갔어. 부러 두고 거기서 옷도 안 입고 그냥 안아서 가더라.)

103050 #2 갈 때 만난?(갈 때 만난?)

103050 #1 갈 때 나가 보난 알지. 치마저고리.(갈 때 내가 보니까 알지. 치마저고리.)

103050 #2 기냐?(그래?)

103050 #1 계난 그 시집이 오닐 저녁 돌아갈 거니까 지만 스나이 오민 안텐 오지 말렌 현 거 닐아이. 글로 강 광령으로 강 만날 거야. 웨가집으로 강.(그러니까 그 시집에 오늘 저녁 데려갈 거니까 자기만 사나이 오면 안다고 오지 말라고 한 거 같아. 그리로 가서 광령으로 가서 만날 거야. 외갓집으로 가서.)

103050 #2 사삼 후에 갓잖아?(사삼 후에 갓잖아?)

103050 #1 후에, 후에주게. 사삼사건 후에 우리 물 먹었네. 너 그때 육지 가 분

131) ‘오도룡’은 제주시 이호동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132) ‘광령’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를 말한다.

133) ‘물구덕’은 ‘물허먹’을 넣고 지고 다니는 바구니를 말한다.

134)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135) ‘구릉물’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샘물 이름이다.

땡가, 어디 가 분 땡가?(후에, 후에지. 사삼사건 후에 우리 물 먹었지. 너 그때 육지가 버린 때인가, 어디 가 버린 때인가?)

103050 #2 나 육지 가 분 때지. 계난 사삼사건 후에 계난 뽕일이 물 먹었나?(나 육지 가 버린 때지. 그러니까 사삼사건 후에 그러니까 ‘뽕일이’ 물 먹었냐?)

103050 #1 아휴, 사삼사건 후에게 뽕일이 구릉 물 지어당 먹어서네게. 이 성안¹³⁶)에서게.(아휴, 사삼사건 후에 ‘뽕일이’ 구릉 물 지어다가 먹었어. 이 ‘성안’에서.)

103050 #2 아, 이 성안에서.(아, 이 ‘성안’에서.)

103050 #1 성안에서. 구릉물 저당 먹언.(‘성안’에서. ‘구릉물’ 저다가 먹었어.)

103050 #2 기?(그래?)

103050 #1 구릉 두 개 다, 그 상 우테 강 뽕 뽕꼭 씻꼭. 계난 그디 가근에 어멍 허꼭 약속헌 거라. 친정어멍허꼭이.(구릉 두 개 다, 그 서서 위에 가서 뽕 뽕고 씻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머니하고 약속한 거야. 친정어머니하고.)

103050 #2 그렇지.(그렇지.)

103050 #1 그디 강 물구덕 저당 내불 거니까 어무니 강 물랑 지영 읍서, 집이. 이레 지어 읍서. 자기는 시집이, 스나이 오지 말렌 약속행은에, 그디가 왜가니까. 그디 강 만나근에.(거기 가서 ‘물구덕’ 저다가 내버릴 거니까 어머니 가서 물이랑 저서 오세요, 집에. 이리 지고 오세요. 자기는 시집에, 사나이 오지 말라고 약속해서, 거기가 외가니까. 거기 가서 만나서.)

103050 #2 남뽕 데리레 오민 동네 사람 뽕 알카 부덴.(남뽕 데리러 오면 동네 사람 봐서 알까 봐.)

103050 @ 두 번째 가는 거난?(두 번째 가는 거니까?)

103050 #1 으, 쟁허영 아들 시 개 뽕 하나 놔뽕 죽어불언게. 근디 스나인 지금 살고. 큰아덜이 잘도 머리가 종양은에 고시원만 살당 지금 장게도 안 잤어. 육십 넘었어. 장게 안 간.(으, 그래서 아들 세 개 딸 하나 놔두고 죽어버렸어. 그런데 사나인 지금 살고. 큰아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서 고시원만 살다가 지금 장가도 안 잤어. 육십 넘었어. 장가 안 잤어.)

103050 #2 우리 큰아덜이영 동갑이라.(우리 큰아들이랑 동갑이야.)

103050 #1 겐 육십 넘었지.(그래서 육십 넘었지.)

103050 #2 게메. 육십둘.(글쎄. 육십둘.)

103050 #1 장게 안 가근에, 하도 고시원에 살앙 시험을 몇 번 봐도 그 판사시험을 안 뽕니까이 그냥 그디 총무 혜영.(장가 안 가서, 하도 고시원에 살아서 시험을 몇 번 봐도 그 판사시험을 안 뽕니까 그냥 거기 총무 해서.)

103050 #2 일 차는 뽕꼭게.(일 차는 되고.)

103050 #1 주인을 햐뽕.(주인을 하고 있대.)

103050 #2 일 차는 뽕꼭 이 차 가민 떨어지고 떨어지고 허난 고시병 들언.(일 차

136) ‘성안’은 성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성’은 제주목의 성을 말한다.

는 되고 이 차 가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고시병 들었어.)

103050 #1 경허난 고시병 들었은에 집이 오지도 안허여은에, 이 집인 오민 장게 가라, 장게가라. 오지도 안헤. 식게 때고 멧질 때고. 오랜 헤도 아니 와.(그러니까 고시병 들어서 집에 오지도 았고, 이 집엔 오면 장가가라, 장가가라. 오지도 았아. 제사 때고 멧질 때고. 오라고 헤도 아니 와.)

103050 #2 집이도 딱 일절 끈어 불고.(집에도 딱 일절 끊어 버리고.)

103050 #1 게난 두 번째 아덜은 양제 쥐 불고 죽은아덜만 이제 있어. 죽은아덜. 겐디 하르방 이제 죽어신가? 어떻 헤신고 몰라?(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양자 쥐 버리고 작은아들만 이제 있어. 작은아들. 그런데 할아버지 이제 죽었나? 어떻게 했는지 몰라?)

103050 #2 죽엇젠 말은 엇어.(죽었다는 말은 없어.)

103050 #1 그때 혼번 보난 판지랑헤¹³⁷⁾서라. 나신디 인사도 막 허고이.(그때 한번 보니까 ‘판지랑’했더라. 나에게 인사도 마구 하고.)

103050 @ 결혼행 잘 돼난예. 겐디 그 아덜이 잘도.(결혼해서 잘 되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103050 #1 경허난 그때 나 그 생각만 허민 난 이상헌 것만 봤어. 아니 그 저고리 치마, 저고리도, 저고린 잘 모르크라. 치만 이런 검은 다우다¹³⁸⁾ 치메더라. 다우다 치메. 옛날은 다우다엔 헤연, 나이롱 다우다 치메 막.(그러니까 그때 나 그 생각만 하면 난 이상한 것만 봤어. 아니 그 저고리 치마, 저고리도, 저고린 잘 모르겠어. 치만 이런 검은 태피터 치마더라. 태피터 치마. 옛날은 태피터라고 했어, 나일론 태피터 치마 마구.)

103050 @ 웨할머니가 허락헌 거 아니, 가렌?(외할머니가 허락한 거 아니, 가라고?)

103050 #1 가렌게. 좋은 디 막, 아기도 엇곡게. 그디도 각시도 죽어 분 디게, 죽어 분 디. 겐 아무것도 엇인 데라. 뭐 그냥 시집 장게간 거 닳아. 게난 강 아덜 시개 낳고 딸 하나 나신디게 자기 죽어 부난.(가라고. 좋은 데 마구, 아기도 없고. 거기도 각시도 죽어 버린 데, 죽어 버린 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야. 뭐 그냥 시집 장가간 거 같아. 그러니까 가서 아들 세 개 낳고 딸 하나 낳았는데 자기 죽어 버리니까.)

103050 @ 웨할머니는 그 손지를 경 아꼈 키와신디 돌아가시고?(외할머니는 그 손주를 그렇게 아껴서 키웠는데 돌아가시고?)

103050 #1 웨할머니가 아니고 성할머니. 아기도 안 나 본 어른인디 그 양¹³⁹⁾을 돌아서이, 시아지방 아덜을. 양 들안에, 그 양제 손지주게. 아기 혼번 안 나 본 어른.(외할머니가 아니고 친할머니. 아기도 안 낳아 본 어른인데 그 양자를 데렸어, 시아주버니 아들을. 양자 데려서, 그 양자 손주지. 아기 한번 안 낳아 본 어른.)

137) ‘판지랑허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38) ‘다우다’는 옷감 종류의 하나다.

139) 여기에서 ‘양’은 ‘양자’를 말한다.

103050 @ 아아, 경도 헛다예. 옛날에는.(아아, 그렇게도 헛네요. 옛날에는.)

103050 #2 옛날엔 경헌 집이 많아.(옛날엔 그런 집이 많아.)

103050 #1 아기도 안 나도 봐근에 그냥 ㄱ만이 살았저, 할망 하르방이.(아기도 안 낳아 보고 그냥 가만히 살았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103050 @ 얼마나 고마운 뉘파게.(얼마나 고마운 뉘니까.)

103050 #1 옛날엔 경헌 디 많아.(옛날엔 그런 데 많아.)

103050 @ 계난.(그러니까.)

103050 #2 옛날은 집안 가문 지키젠.(옛날은 집안 가문 지키려고.)

103050 #1 이상하게 그 집안엔 광령서 온 어른이 세 어른이라.(이상하게 그 집안에는 광령에서 온 어른이 세 어른이야.)

103050 #2 다 광령서 온 어른이라이.(다 광령에서 온 어른이야.)

103050 #1 응. 그 ○○네 어머니, ○○네 할무니, 또 그 ○○네 할머니에 어머니에 서이가 와서, 광령에서. 또 문딱 김칩이라. 김칩이서 왔어, 강칩더레.(응. 그 ○○네 어머니, ○○네 할머니, 또 그 ○○네 할머니에 어머니에 셋이 왔어, 광령에서. 또 모두 김씨 집안이야. 김씨 집안에서 왔어, 강씨 집으로.)

103050 @ 자식이 아예 없을 수도 잇구나?(자식이 아예 없을 수도 있구나?)

103050 #2 형제간에도 어릴 때부터 헤어져 살면 정이 없는 거 같애. 가네 허는 거 보민.(형제간에도 어릴 때부터 헤어져 살면 정이 없는 거 같아. 개네 하는 거 보면.)

103050 #1 ○○허고 ○○허고이.(○○하고 ○○하고.)

103050 #2 으, ○○ 성님허고 ○○허고 허는 거 보민 완전히 이건 형제가 아니라. 한배로 난 형제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정이 없더라고.(으, ○○ 형님하고 ○○하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건 형제가 아니야. 한배로 난 형제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정이 없더라고.)

103050 #1 저 성질도 흥품 틀리곡게.(저 성질도 조금 달라.)

103050 #2 스몏 틀려.(사몏 달라.)

103050 #1 죽은아신 팔팔팔팔 허고 큰성은 조용해. 춤 셋성이라. 큰성은 일본에 잇고.(작은아우는 팔팔팔팔 하고 큰형은 조용해. 참 둘째형이야. 큰형은 일본에 잇고.)

103051 @ 그른 고구마도 걸름을 헛다예? 아까처럼, 오줌으로?(그럼 고구마도 거름을 헛네요? 아까처럼, 오줌으로?)

103051 #2 고구마도 옛날에는 그.(고구마도 옛날에는 그.)

103051 #1 그거 씨 놀 때게. 모종 씨, 줄 크렌.(그거 씨 놓을 때. 모종 씨, 줄 크라고.)

103051 #2 줄, 그 순을 킵젠 허민 거름을 줘야 크주게.(줄, 그 순을 키우려고 하면 거름을 줘야 크지.)

103051 #1 줄을 많이 커야 멘적을 많이 놓지.(줄을 많이 커야 면적을 많이 놓지.)

103051 @ 이견 불치 안 허고 오줌만?(이견 재 안 하고 오줌만?)

103051 #1 응, 불치. 아니, 고구마 헐 때 불치 놔, 아래.(응, 재. 아니, 고구마 할 때 재 놔, 아래.)

103051 #2 고구마 줄 잘라당 놀 때는 불치 이시민 놓민 막 고구마가 많이 들어. 흙기도 허곡.(고구마 줄 잘라다가 놓을 때는 재 있으면 놓으면 아주 고구마가 많이 들어, 굵기도 하고.)

103051 #1 겐디 우리 어머니 허는 거 보민이 그냥 불 영 솜앙 영허민 거름이 안 돼여. 영 바깳디 낱 그 오줌을 쥐야. 오줌을 쥐야 오줌에 서경 썩어야 거름이 잘돼 곡 걸고.(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보면 그냥 불 이렇게 때서 이러면 거름이 안 돼. 이렇게 밖에 놔서 그 오줌을 쥐야. 오줌을 쥐야 오줌에 섞어서 썩어야 거름이 잘되고 걸고.)

103051 @ 불치 놓는, 따른 뭐 잇수과?(재 놓는, 다른 뭐 있습니까?)

103051 #1 그거 하지.(그거 하지.)

103051 @ 구석에?(구석에?)

103051 #1 집 주위에.(집 주위에.)

103051 #2 옛날엔 집 주위에 그냥 막.(옛날엔 집 주위에 그냥 마구.)

103051 #1 오줌향¹⁴⁰⁾ 논 디 옆에. 오줌향이 막 큰 거 해, 이만이 오줌향을.(‘오줌향’ 놓은 데 옆에. ‘오줌향’이 아주 큰 거 해, 이만큼 ‘오줌향’을.)

103051 @ 오줌향 속에 놓는 것 아니잖아예?(‘오줌향’ 속에 놓는 건 아니잖아요?)

103051 #1 속에 놓지 안 허고 오줌을 거려당 이 불치에 영 영 영 허지.(속에 놓지 않고 오줌을 떠다가 이 재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103051 @ 서꺼?(섞어서?)

103051 #1 으. 또 불치 놔 낱 또 영 허곡.(으. 또 재 놓고 나서 또 이렇게 하고.)

103051 @ 거 거름처럼 영 넣어?(거 거름처럼 이렇게 쌓아?)

103051 #1 그 거름이 오줌에 반죽 돼면은 썩지. 썩으면 거름이.(그 거름이 오줌이 오줌에 반죽되면 썩지. 썩으면 거름이.)

103051 #2 발효돼주게, 발효.(발효되지, 발효.)

103051 @ 보리에는 건 안 하고 별도로?(보리에는 건 안 하고 별도로?)

103051 #1 아이, 것이 경 많지 안해.(아니,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103051 #2 부엌에 그 뽕감으로 때난 거난 많질 안허주게.(부엌에 그 뽕감으로 뽕땀 거니까 많지 않지.)

103051 #1 게난 고구마도 하영 안 허는 거난 허곡, 산디도 많이 안 허는 거난 산디에도 허는 거. 그냥 보리에 많이 허니까 거 헐 수가 없어.(그러니까 고구마도 많이 안 하는 거니까 하고, 밭벼도 많이 안 하는 거니까 밭벼에도 하는 거. 그냥 보리에 많이 하니까 거 할 수가 없어.)

103051 #2 고구마 찹 줄 놓는 딴 불치 놓난 고구마 잘 들고이.(고구마 찹 줄 놓

140) ‘오줌향’은 거름 등으로 쓰기 위해 오줌을 받아서 모으는 향아리다.

는 텐 재 놓으니까 고구마 잘 들고.)

103051 #1 잘 들고 맛도 있고.(잘 들고 맛도 있고.)

103051 #2 맛도 있고이 경헌 거더라.(맛도 있고 그런 거더라.)

103051 #1 이젠 불치가 없어.(이젠 재가 없어.)

103052 @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아까처럼 세 막작 그거 해영 찰랑 심는 거고예?(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아까처럼 세 마디 그거 해서 잘라서 심는 거고요?)

103052 #1 네 막작, 네 막작.(네 마디, 네 마디.)

103052 #2 이파리 넷 남겨 놔.(있 네 개 남겨 놓고.)

103052 #1 세 막작은 너무 짧아. 그거이 왜정 때 시청 서기가 왕 다 말해 주더라. 영 네 개씩 찰랑 심어야 면적에, 영 길게 놔 불민 면적에 많이 못 싱그고 이 줄과 줄 사이에.(세 마디가 너무 짧아. 그거 왜정 때 시청 서기가 와서 다 말해 주더라. 이렇게 네 개씩 잘라서 심어야 면적에, 이렇게 길게 놔 버리면 면적에 많이 못 싱고 이 줄과 줄 사이에.)

103052 #2 면적을 많이 들어가면은 또 고구마 안 들주게.(면적을 많이 들어가면 또 고구마 안 들지.)

103052 #1 줄 사이에 주먹 하나 사이 노렌 해. 이 줄광 이 줄 사이에 그냥 부쳐 놓지 말앙, 딱 그 사람이.(줄 사이에 주먹 하나 사이 놓으라고 해. 이 줄과 이 줄 사이에 그냥 붙여서 놓지 말고, 딱 그 사람이.)

103052 #2 흠뽀씩 사이 떼어야.(조금씩 사이 떼어야.)

103052 #1 시청 서기가 왕 말해 줘.(시청 서기가 와서 말해 줘.)

103052 #2 게난 이 끄트머리 이레 열매가 부트면은 막 크고, 요쪽 끄트머리 것도 이레 들면은 열매가 막 크고, 영 공간이 있어야.(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이리 열매가 붙으면 아주 크고, 요쪽 끄트머리 것도 이리 들면 열매가 아주 크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103052 #1 영 공간 엇이 줄을 영 부쳐 해 불민이 이 사이에 고구마가 들지 못허 지게.(이렇게 공간 없이 줄을 이렇게 붙여서 해 버리면 이 사이에 고구마가 들지 못하지.)

103052 #2 공간 없었어.(공간 없었어.)

103052 #1 게난 그때 그 시청 서기가 완 허는 것이 막 눈에 흰해. 네 막작 그치렌 현 거 허고 주먹 하나 사이에 딱 놓렌. 주먹 췌언, 그때가 왜정 때니까.(그러니까 그때 그 시청 서기가 와서 하는 것이 아주 눈에 흰해. 네 마디 자르라고 하는 거 하고 주먹 하나 사이에 딱 놓으라고. 주먹 쥐었어, 그때가 왜정 때니까.)

103053 @ 경헌 고구마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그래서 고구마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53 #2 한번.(한번.)

103053 @ 한번?(한번?)

103053 #2 으, 고구마줄 막 낭 엉켜지민 풀이 경 자라질 못허주게.(으, 기는줄기 마구 나서 엉키면 풀이 그렇게 자라지를 못하지.)

103053 #1 또 옛날엔 경 ㄱ쿨이 허지 안행 내불어. 혼번만 메영 내불어. 좀 남아도, 떨어져도.(또 옛날에는 그렇게 깨끗이 하지 않고 내버려. 한번만 매서 내버렸어. 좀 남아도, 떨어져도.)

103053 #2 혼번만 메도 깨끗허여. 막 줄로 엉켜정은에.(한번만 매도 깨끗해. 마구 줄로 엉켜서.)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줄 베는 거, 파는 거?(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줄 베는 거, 파는 거?)

103055 #2 줄 베어근에 다 걷어 내쳐.(줄 베어서 다 걷어 내쳐.)

103055 @ 걷어 내청?(걷어 내쳐서?)

103055 #2 어.(어.)

103055 @ 그다음 아버지가 소로 갈양예?(그다음은 아버지가 소로 갈아서요?)

103055 #2 으.(으.)

103055 #1 뒤에서 좇어.(뒤에서 주워.)

103055 @ 좇어.(주워.)

103055 #1 겐 모아 낵.(그래서 모아 봐서.)

103055 #2 줄기 다 다듬앙.(줄기 다 다듬어서.)

103056 @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103056 #1 또 그 영 파.(또 그 이렇게 파.)

103056 #2 땅을 막 깊숙허게 파. 땅을 둥그렇게 깊숙허게 파근에.(땅을 마구 깊숙하게 파. 땅을 둥그렇게 깊숙하게 파서.)

103056 #1 곡괭이로 파근에게 삽으로 내치멍.(곡괭이로 파서 삽으로 내치면서.)

103056 #2 으, 흙을 바깥디 다 내치멍 사근에.(으, 흙을 밖에 다 내치면서 서서.)

103056 #1 영 사름이, 사름이 이거 들어가민 이거 보일 등 말 등 파. 막 하영.(이렇게 사름이, 사름이 이거 들어가면 이거 보일 등 말 등 파. 아주 많이.)

103056 # 2 어, 계난.(어, 그러니까.)

103056 #1 사름 키만이 파.(사름 키만큼 파.)

103056 #2 이 땅바닥엔 이젠 저 보릿대, 보릿대 앓당 많이 깔아 놔.(이 땅바닥에는 이제는 저 보릿대, 보릿대 가져다가 많이 깔아 놔.)

103056 #1 보릿대 깔아 낵 그 우이 우리.(보릿대 깔아 놔서 그 위에 우리.)

103056 #2 경헐 또 읍으로 이 가쟁이엔 딱시 이젠.(그래서 또 옆으로 이 가지는는 또 이제는.)

103056 #1 어욱 깔아 낵 그다음엔 조집.(억새 깔아 놔서 그다음에는 조짚.)

103056 #2 어욱 세와 낵은에 그다음엔 조집, 조나무¹⁴¹⁾, 좇대¹⁴²⁾. 그거 행 세와

141) '조나무'는 조의 줄기를 말한다.

142) '좇대'는 조의 줄기를 말한다.

냥.(억새 세워 놔서 그다음에는 조짚, ‘조나무’, ‘쫓대’. 그거 해서 세워 놔서.)

103056 #1 또 그 아래도이 지일 내중 허는 건 조 털어난 그 조 곡메기.(또 그 아래도 제일 나중 하는 건 조 털었던 그 조 ‘곡메기’.)

103056 #2 곡메기.(‘곡메기’.)

103056 @ 으?(으?)

103056 #1 조 곡메기.(조 ‘곡메기’.)

103056 @ 조 곡메기.(조 ‘곡메기’.)

103056 #1 조 곡메기엔 현 게 있어. 조 다 떨어져 불민 요만씩헌 것이 막 나와. (조 ‘곡메기’라고 하는 게 있어. 조 다 떨어져 버리면 요만한 것이 마구 나와.)

103056 #2 열매 다 떨어져 불민.(열매 다 떨어져 버리면.)

103056 @ 아. 조코고리 그거?(아. 조이삭 그거?)

103056 #1 그것ㄴ라 조 각메기.(그것보고 조 ‘각메기’.)

103056 #2 각메기엔 허주게. 그거 깔아근에게.(‘각메기’라고 하지. 그거 깔아서.)

103056 #1 그거 깔앙 고구마를 놓아. 그 속에.(그거 깔아서 고구마를 놓아. 그 속에.)

103056 #2 겐 고구마를 앓당 막 쏘아 놔. 막 쏘아 놔근에 그거 짹차게 쏘아 놔근에 허면은.(그래서 고구마를 가져다가 마구 쏘아 놔. 마구 쏘아 놔서 그거 짹차게 쏘아 놔서 하면.)

103056 #1 영 이제 어울령.(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103056 #2 어욱이영 그 줄기 그 대영 해근에게 이 바위를 만들야. 영 여평, 돌아가명 쪽 허게 영 쪼영은에게.(억새랑 그 줄기 그 대랑 해서 이 가장자리 만들어. 이렇게 엮어서, 돌아가면서 쪽 하게 이렇게 조여서.)

103056 #1 경허영 우이 뭐 더프지.(그래서 위에 뭐 덮지.)

103056 #2 영 영 만들아근에게 우엔 딱시 느람지라고 해근에게 덮어. 돌아가명 더프고, 우이 딱시 모자, 사람의 모자 모양에 주쟁이엔 현 것이 있어. 우이 더프는 게. 그거 썩와. 그거 썩와 놔둬서 햇빛 난 땀 열아 주곡 그 공기 통허렌. 공기 통허렌 열아 주곡. 이제 날 밤인, 비 온 땀 더프고. 게난 그것도 막 참 신경 써야 돼여.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는 또 이영이라고 해서 덮어. 돌아가면서 덮고, 위에 또 모자, 사람의 모자 모양의 주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위에 덮는 거. 그거 썩워. 그거 썩워 놔두면서 햇빛 날 때는 열어 주고 그 공기 통하라고. 공기 통하라고 열어 주고. 이제 날 밤엔, 비 올 때는 덮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참 신경 써야 돼.)

103056 #1 신경 쓰는 거라.(신경 쓰는 거야.)

103056 #2 아침이 강 열아 주고 저녁인 더프고.(아침에 가서 열어 주고 저녁엔 덮고.)

103056 #1 고구마 올라, 어디 가젠 허민. 어머니가 고구마 올라이, 또 갓당 왕 고구마 더꺼샤, 고구마. 비나 왓직허민이 막 것도.(고구마 열어라, 어디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고구마 열어라, 또 갔다가 와서 고구마 덮어야, 고구마. 비 옵직하면 아주

것도.)

103056 #2 비 왕 물 들어 불민 썩어 불기 때문에.(비 와서 물 들어 버리면 썩어 버리기 때문에.)

103056 #1 고구마 많이 허민 두 놀¹⁴³도 놀어.(고구마 많이 하면 두 가리도 가려.)

103056 #2 두 놀 놀어. 봄 돼영 먹을 거하고 종자 그 놓젠 혼 놀은 행 놔두고. 혼 놀은 겨울 내내 파멍 그걸 옴파다근에 쟁 먹주게.(두 가리 가려. 봄 돼서 먹을 거하고 종자 그 놓으려고 한 가리는 해서 놔두고. 한 가리는 겨우내 파면서 그걸 옴파다가 썩서 먹지.)

103056 #1 양식으로 먹어. 공출 다 해 불민 뭐 쏘 잇나? 왜정 때.(양식으로 먹어. 공출 다 해 버리면 뭐 쌀 잇나? 왜정 때.)

103056 @ 아이구, 세상에. 고구마 어시민 어떻 살아시코예?(아이고, 세상에. 고구마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103056 #1 고구마도 공출도 허멍도이 것도 감제 뺏테기로 행 바찌니까.(고구마도 공출도 하면서도 것도 고구마 절간고구마로 해서 바치니까.)

103056 @ 바찌니까.(바치니까.)

103056 #1 그 그디 시청에서 직 울어근에 기계 흥나 줘. 걸로 썰엉 물리우렌. 혼 반에 두 개 주는 디 흥나 주는 디 해여.(그 거기 시청에서 직 위해서 기계 하나 줘. 걸로 썰어서 말리라고. 한 반에 두 개 주는 데 하나 주는 데 해.)

103056 #2 호수에 따라근에. 호수 많은 반은 두 개 주고.(호수에 따라서. 호수 많은 반은 두 개 주고.)

103056 #1 어우르멍 오늘랑 이디 널랑 너. 영 허멍 그 기계, 돌아가멍 써.(어울리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너. 이렇게 하면서 그 기계, 돌아가면서 써.)

103056 #2 게난 돌아가멍.(그러니까 돌아가면서.)

103056 @ 느람지 이런 건 누가 만들어마씨?(이영 이런 건 누가 만들어요?)

103056 #1 아버지.(아버지.)

103056 #2 아버지.(아버지.)

103056 #1 나도 해놔어.(나도 했었어.)

103056 #2 뭐를?(뭐를?)

103056 #1 느라미. 야, 느네 시누이 주쟁이 잘허더라.(이영. 야, 너희 시누이 주저리 잘하더라.)

103056 #2 어느 시누이?(어느 시누이?)

103056 #1 ○○이 어멍.(○○이 어머니.)

103056 @ 하하.(하하.)

103056 #1 나 두 개나 빌영 헤세.(나 두 개 빌려서 했어.)

143) ‘놀’은 표준어의 ‘가리’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해 땅을 파서 짚을 깔고 고구마를 쌓은 놓은 더미를 말한다.

103056 #2 우리 시누이 못허는 게 엇나.(우리 시누이 못하는 게 없어.)

103056 #1 여자가 주쟁이 모르지이?(여자가 주저리 모르지?)

103056 @ 아, 저 봐낫주마씨.(아, 저 봤었지요.)

103056 #1 우이 질 나중에 더끄는 거.(위에 제일 나중에 덮는 거.)

103056 @ 모자 닮은 거.(모자 같은 거.)

103056 #1 알아? 질 마주막에 영 행 영 허는 거 이거네 시누이가 나영 동갑인디 경 잘헤게.(알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네 시누이가 나랑 동갑인데 그렇게 잘해.)

103056 @ 지금 살아 계셔마씨?(지금 살아 계셔요?)

103056 #2 아니 돌아간.(아니 돌아갔어.)

103056 #1 아이고, 나 가이 빌영 두 개 헨게.(아이고, 나 개 빌려서 두 개 했어.)

103056 @ 어떻 경 남자같이 손재주가 좋은 생이여?(어떻게 그렇게 남자같이 손재주가 좋은 모양이야?)

103056 #1 딱 허게 무견만 놓라, 나 해 주마. 야, 흔 해에 두 개 해 주난, 우리 집 아방¹⁴⁴도이 이거 누게 해연? ○○이 어떻 해연. 야, 영 영 보멍 이거 잘헨네이, 잘헨네이 따시 허더라, 거 봐 나니까.(딱 하게 묶어서만 놓아라, 나 해 줄게. 야, 한 해 두 개 해 주니까, 우리 집의 아버지도 이거 누가 했어? ○○이 어머니 했어. 야,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이거 잘헨네, 잘헨네 또 하더라, 거 보고 나니까.)

103056 #2 봐 나민 허주게.(보고 나면 하지.)

103056 #1 다음엔 안 빌영 해연. 아방이 해연.(다음에는 안 빌려서 했어. 아버지가 했어.)

103056 #2 게에, 허는 거 봐 나민 허주게.(그래, 하는 거 보고 나면 하지.)

103056 #1 농사일 안 저난 사람이난 몰랐다근에. 아이고야, 그때 두 개 어욱 해 근에 막 끄덕끄덕 행 무꺼근에 가이 빌영 두 개 해연.(농사일 안 지었던 사람이니까 몰랐다가. 아이고야, 그때 두 개 역새 해서 마구 끄덕끄덕 해서 묶어서 개 빌려서 두 개 했어.)

103056 @ 감저눌예? 감저눌을 그렇게 두 개씩 헸다는 거다예?('감저눌'요? '감저눌'을 그렇게 두 개씩 헸다는 거네요?)

103056 #2 감저눌¹⁴⁵이엔 허주, 감저눌.('감저눌'이라고 하지, '감저눌')

103056 @ 이렇게 세세허게 말허는 분은 어십디다만은. 조찍이여, 거 보리낭깁이여 막 여러 개 들어가는 줄은 몰랐수다.(이렇게 세세하게 말하는 분은 없습디다만. 조짚이다, 거 보릿짚이다 아주 여러 개 들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103056 #1 거 끌아야게.(거 깔아야.)

103056 #2 경 안허믄 썩어 불주게.(그렇지 않으면 썩어 버리지.)

103056 #1 흑이 있으니까게 이건 흑이 백이니까이. 처음엔 어욱, 그다음엔 조집,

144)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145) '감저눌'은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해 땅을 파서 쌓은 더미를 말한다.

빙 돌아가며.(흙이 있으니까 이건 흙이 벽이니까. 처음에는 억새, 그다음에는 조짚, 빙 돌아가면서.)

103056 #2 밑에도 막 두껍게 깔아야 되고.(밑에도 아주 두껍게 깔아야 되고.)

103056 @ 우리 옛날에 나 어렸을 때 할머니 궤 놓는 그쪽에 튼튼하게 그냥 거푸대에 담양 딱뚝하게 놔둬야 튼튼 고구마.(우리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궤 놓는 그쪽에 탄탄하게 그냥 거푸대에 담아서 따뜻하게 놔둬야 된다고 고구마.)

103056 #1 게난 궤 놓는 디 백장 우이지.(그러니까 궤 놓는 데 백장 위지.)

103056 #2 건 뜨신 방에.(건 따뜻한 방에.)

103056 @ 놔둬놔수다.(놔뒀었습니다.)

103056 #1 우리는 왜정 때 해난 말 곤는 거야. 삼십육 년간 허는 거.(우리는 왜정 때 했던 말 말하는 거야. 삼십육 년간 하는 거.)

103056 @ 세상에.(세상에.)

103056 #1 왜정 때 녀영은 경 고구마 하영 안 심어. 그때는 공출 막 하영.(왜정 때 녀어서는 그렇게 고구마 많이 안 심어. 그때는 공출 아주 많이.)

103056 #2 그때는 왜정 시대에 그 왜놈덜게 그 공출허렌 행은에 할당시켜 놓민 더 많이 허주게.(그때는 왜정 시대에 그 왜놈들 그 공출하라고 해서는 할당시켜 놓으면 더 많이 하지.)

103056 #1 밧 평수 알앙 아무 집이 밧 평이민 밧 평 심으라 행 조사해.(밭 평수 알아서 아무 집에 밧 평이면 밧 평 심어라 해서 조사해.)

103056 #2 다 조사허여.(다 조사해.)

103056 #1 시청에서 왕 조사허여. 그거 다 안 심으면 막 벌 줘. 막 세금도 바락바락.(시청에서 와서 조사해. 그거 다 안 심으면 마구 벌 줘. 마구 세금도 바락바락.)

103056 #2 옛날은 실퍼도 해야 돼여. 살아남젠 허믄.(옛날은 싫어도 해야 돼. 살아남으려고 하면.)

103056 #1 진짜로 삼십육 년간 잘도 고생했지.(진짜로 삼십육 년간 아주 고생했지.)

103056 #2 게난 많이 허게 튼 거주게.(그러니까 많이 하게 된 거지.)

103056 #1 아니 허영 바찌는 거 없어. 그 자기네 그 총 허는 디 안 허는 디 쓰는 걸 다 제해도 도민덜 다 행 바쳐시난.(아니 해서 바치는 거 없어. 그 자기네 그 총하는 데 안 하는 데 쓰는 걸 제해도 도민들 다 해서 바쳤으니까.)

103057 @ 걸 절간고구마렌 헛수과? 절간헌텐 해낫수과, 뺏데기틀?(걸 절간고구마라고 했습니까? 절간한다고 했었습니까, 절간고구마를?)

103057 #1 절간고구마엔 헛어. 그거 물리는 거 절간고구마. 절간이 물리는 거지.(절간고구마라고 했어. 그거 말리는 거 절간고구마. 절간이 말리는 거지.)

103057 @ 씨고구마는 아까처럼 놀에 놔뒀당 꺼냉예?(씨고구마는 아까처럼 ‘놀’에 놔뒀다가 꺼내서요?)

103057 #1 으, 씨.(으, 씨.)

103058 @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옛날 고구마 줄기로 뭐 반찬 행 먹 어났수과?(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옛날 고구마 줄기로 뭐 반찬 해서 먹 었습니까?)

103058 #1 맛있어, 지금은.(맛있어, 지금은.)

103058 @ 지금은 막 육지에서도 많이 먹주게.(지금은 아주 육지에서도 많이 먹 지.)

103058 #2 으.(으.)

103058 @ 지금은 먹주만 옛날에?(지금은 먹지만 옛날에?)

103058 #1 옛날에는 다른 누물 많이 허난 그건 먹을 걸로 안 알안.(옛날에는 다 른 나물 많이 하니까 그건 먹을 걸로 안 알았어.)

103058 @ 게난.(그러니까.)

103058 #1 이제는 먹어도.(이제는 먹어도.)

103058 #2 옛날에는 위낙 땅덜이 많이 잇기 때문에 먹을 걸로 벨로 안 알앗주마 는 중간부터 먹엇주게.(옛날에는 위낙 땅들이 많이 잇기 때문에 먹을 걸로 벨로 안 알았지만 중간부터 먹었지.)

103058 #1 집집마다 거의 다 무우 갈앗어이.(집집마다 거의 다 무 갈았어.)

103058 #2 으.(으.)

103058 #1 무우 갈앙 이녁 무우를 막 메당 먹고 허난이. 지금은 고구마 줄기 막 벨미로.(무 갈아서 자기 무를 마구 매다가 먹고 하니까. 지금은 고구마 줄기 아주 벨미로.)

103058 #2 집 옆이덜 텃밭덜 많이 잇기 때문에 보통 채소 엇이덜 갈앙 행 먹엇 주게.(집 옆에들 텃밭들 많이 잇기 때문에 보통 채소 엇이들 갈아서 해서 먹었지.)

103058 @ 호박 줄긴 먹어도 고구마 줄긴 어렸을 때 벨로 안 먹엇잖아예?(호박 줄긴 먹어도 고구마 줄긴 어렸을 때 벨로 안 먹엇잖아요?)

103058 #1 호박잎은 막 먹엇지.(호박잎은 마구 먹엇지.)

103059 @ 고구마 농사에 었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삼사건 때라 든가?(고구마 농사에 었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삼사건 때라든가?)

103059 #1 우리 이제 말헌 건 사삼사건 전에 헌 말이야.(우리 이제 말한 건 사삼 사건 전에 하는 말이야.)

103059 #2 으, 전에.(으, 전에.)

103059 #1 웨정 때 헌 말이야. 웨정 때. 사삼사건 념영은이 경 막 강이로 허라 말라 허진 안헛지. 웨놈덜은 그냥 막 밧덜로 텅기멍.(웨정 때 하는 말이야. 웨정 때. 사삼사건 념어서는 그렇게 마구 강요로 해라 말라 하진 았았지. 웨놈들은 그냥 마 구 밧으로 다니면서.)

103059 @ 널엇당 비 맞앙 욱 들엇다던가 뭐 이런?(널었다가 비 맞아서 욱 들었 다든가 뭐 이런?)

103059 #1 비 맞앙 해 가민 막 이웃 사람덜 혼디 강 막 담아주고, 서로가게. 비 맞아 가민 거 감저뵈데기 물론 거 젖어 가민 덮어 주고 막 앓당덜.(비 맞고 해 가민 막 이웃 사람들 같이 가서 막 담아주고, 서로가. 비 맞아 가민 거 절간고구마 마른 거 젖어 가민 덮어 주고 막 가지고들.)

103059 #2 서로가 같이덜 막 헛주게.(서로가 같이들 마구 했지.)

103059 #1 동네 사름덜이 ㄴ찌. 느도 해 주고 나도 해 주고 해신디 그 해방뵈 후 제 사삼사건 지나믄이.(동네 사람들이 같이. 너도 해 주고 나도 해 주고 했는데 그 해방뵈 후에 사삼사건 지나면.)

103059 @ 감제 팡 또 찌끄레기, 그 쭈시 감제 쭈시, 아니 저 그런 거 잇수게? 감제 쭈시는 도새기도 줘나고 또 무신 그 쪼트머리 새끼 감자 낭은에 그거 파레 막 아이덜 다녀랏수게?(고구마 파서 또 찌꺼기, 그 찌꺼기 고구마 찌꺼기, 아니 저 그런 거 잇지요? 고구마 찌꺼기는 돼지도 쫘엇고 또 무슨 그 쪼트머리 새끼 고구마 나서 그거 파러 마구 아이들 다녀엇지요?)

103059 #1 이삭 줍는 거 이삭.(이삭 줍는 거 이삭.)

103059 #2 이삭 줍는 거.(이삭 줍는 거.)

103059 #1 감저 해난 이석 줍는 거(고구마 했던 거 이삭 줍는 거.)

103059 #2 고구마 줏어 난 다음에 그 준준헌 거, 흑 묻어전 못 좇아온 거.(고구마 줍고 난 다음에 그 자잘한 거, 흑 묻혀서 못 찾아온 거.)

103059 #1 땅 파 가민 걸러진 거 내분 거 줏어당. 겐디 우린 그런 거 안 해 봤어. 집이 거 이시난 집이 것도.(땅 파 가민 걸러진 거 내버린 거 주워다가. 그런데 우린 그런 거 안 해 봤어. 집의 거 있으면 집의 것도.)

103059 @ 붉은 감제여 흰 감제여 어느 게 맛 좋다 모이다 뭐 이런 거?(붉은 고구마다 흰 고구마다 어느 것이 맛 좋다 메지다 뭐 이런 거?)

103059 #2 어, 아이덜 줏이레 막 많이 다녔.(어, 아이들 주우러 아주 많이 다녔어.)

103059 #1 그건이 맛이 조금 작은 사람은, 안 허는 사람도 있어, 고구마줄 아니 낫 허는 사람도 있어. 우린 고구마줄 항상 해마다 놓니까이. 늬이 거 흘 시간이 었어.(그건 맛이 조금 작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기는줄기 아니 놔서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기는줄기 항상 해마다 놓으니까. 남의 거 할 시간이 없어.)

103059 @ 사삼사건 때도 고구마가 많이 주식이 뵈지예. 그걸로 살고?(사삼사건 때도 고구마가 많이 주식이 뵈지요. 그걸로 살고?)

103059 #2 아니 그때는 사삼사건 후에는 많이 놓는 사람이 었어.(아니 그때는 사삼사건 후에는 많이 놓는 사람이 없어.)

103059 @ 사삼사건 때?(사삼사건 때?)

103059 #2 사삼사건 때도.(사삼사건 때도.)

103059 #1 사삼사건 때 우리 산에 막 그냥 고생고생허멍 숨으멍 곱으멍 살아 부난이.(사삼사건 때 우리 산에 아주 그냥 고생고생하면서 숨으면서 곱으면서 살아 버

리니까.)

103059 @ 뭘 먹었?(뭘 먹고?)

103059 #1 에이고, 먹는 것이 뭐 에이고, 그때 살아난 생각허민 진짜. 어디 아래 그냥 다 해영 가을 들었 몬딱 해영 안네 들여놓은에 산에 올라가는 사름, 아래 내려강은에 심어가는 사름, 또 아래 갓당도 산에 올라가는 사름. 경हे노난 어느 날에 마음 놓고 행 밥행 식구들이영 앗앙 바롱바롱 먹어본 역사가 없어. 일 년 동안, 일 년 동안은 경 살았어. 어승비승. 야인 그 시절에 육질 가 불었어. 서울을 가 부난 걸 몰라게. 막 그 곱앙 돌아댁기는 거 곱는 거 걸 잘 몰라.(어이구, 먹는 것이 뭐 어이구, 그때 살았던 생각하면 진짜. 어디 아래 그냥 다 해서 가을 들어서 모두 해서 안에 들여놓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 아래 내려가서 잡아가는 사람, 또 아래 갔다가도 산에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날에 마음 놓고 해서 밥해서 식구들이랑 앉아서 ‘바롱바롱’ 먹어본 역사가 없어. 일 년 동안, 일 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어. ‘어승비승’. 애는 그 시절에 육지를 가 버렸어. 서울을 가 버리니까 걸 몰라. 아주 그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거 숨는 거 걸 잘 몰라.)

103059 @ 뭐 허레 육지 간마씨?(뭐 하러 육지 가세요?)

103059 #1 돈 벌레 갓지.(돈 벌러 갔지.)

103059 #2 돈 벌레 갓주게.(돈 벌러 갔지.)

103059 @ 해녀는 아니고.(해녀는 아니고.)

103059 #2 방직.(방직.)

103059 @ 게도 다행이다예, 어쨌든.(그래도 다행이네요, 어쨌든.)

103059 #2 열여섯에.(열여섯에.)

103059 #1 그 고생은 안 했지.(그 고생은 안 했지.)

103059 @ 살아남을 수 잇었다는 게.(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게.)

103059 #1 살아나고 그 고생이, 그거 더러운 고생이야, 고생이. 말도 못 해.(살아나고 그 고생이, 그거 더러운 고생이야, 고생이. 말도 못 해.)

103059 @ 여자덜 얼마나 많이 죽었수과게. 젊은, 곱닥헌.(여자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젊은, 고운.)

103059 #2 나 정월에 가고 그해 가을 드난 사삼이 낫주게. 그때 나 신 때부터 시작이야.(내가 정월에 가고 그해 가을 드니까 사삼이 낫지. 그때 내가 있을 때부터 시작이야.)

103059 #1 정월에 가니까 경헛지. 나가 산에 땡기기 시작헌 때가 여름에 검질멜 때부터 갔어.(정월에 가니까 그랬지. 내가 산에 다니기 시작한 때가 여름에 검멜 때부터 갔어.)

103059 #2 그러니까 나 신 때에 우리 밤이 그 야간 헛잖아. 학교 하숙집이서. 어느 날은 우리 간에 그 호야 다 다깁 기름 낚이 불이 켜 이신디 선생님이 완에 불 끄렌 막 야단헛잖아. 불 끄렌 막 야단헛 불 켜 조용허렌 허난에 이젠 불 켜 조용헛에. 아메도 혼 삼십 분 더 앉아서, 불 켜. 조용헛 앉아신디 이 앞이 큰길 잇잖아, 지

금. 길이, 이제 이 길이 바로 그 길이주게. 막 그냥 워카 신은 발자국 소리가 후닥
 닥닥 후닥닥닥 막 달려드는 소리가 나더라고. 경헨 헨게 한참 지났 불 키렌 헨 불
 켜 그때 수업 안 행 그냥 집이 가렌 헛네.(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에 우리 밤에 그
 야간 했잖아. 학교 하숙집에서. 어느 날은 우리 가서 그 호롱 다 닦아서 기름 넣어
 불 켜서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불 끄라고 마구 야단했잖아. 불 끄라고 마구 야단해
 서 불 꺼서 조용하라고 하니까 이제 불 꺼서 조용해서. 아마도 한 삼십 분 더 앓아
 서, 불 꺼서. 조용해서 앓았는데 이 앞에 큰길 있잖아, 지금. 길이, 이제 이 길이 바
 로 그 길이지. 마구 그냥 워커 신은 발자국 소리가 후닥닥닥 후닥닥닥 마구 달려드
 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하더니 한참 지나서 불 켜라고 해서 불 켜서 그때 수
 업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잖아.)

103059 #1 그때가이 남로당이엔 헛어, 남로당.(그때가 남로당이라고 헛어, 남로
 당.)

103059 #2 그때가 시작인 것 같아. 나가 가만이.(그때가 시작인 것 같아. 내가 가
 만히.)

103059 #1 그때가 그때 불 끈 사람이 우리 ○○ 아주버님이라.(그때가 그때 불
 끈 사람이 우리 ○○ 아주버님이야.)

103059 @ 야학 선생이?(야학 선생이?)

103059 #2 그때가 시작인 거 같애. 나가 가만이 서울 강 생각을 해 보니까.(그때
 가 시작인 거 같아. 내가 가만히 서울 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

103059 #1 큰시아주버니.(큰시아주버니.)

103059 @ 야학 선생이랴수파?(야학 선생이었습니까?)

103059 #1 선생이 아닌디 농업 학생이라. 그때는 농업 학교가 사 학년 할 때라
 게. 서울대, 그땐 서울대 안 나온 때. 서울대 대리로 농업학교 생겼어, 제주도에. 게
 난 농업 학생인디 야간에 허는 사람은 시청 직원이, 저 무료로 강 시청 직원이니까
 노형에 강 석유팔을 얻어 와. 석유를 그냥, 돈 우리가 안 내도이. 석유팔 해다근에
 양○○이엔 현 사람이 허여. 경 허는디 동네 친족이고 허난 원조해 주는 거, 왕. 원
 조허는 거. 선생은 아니고. 양○○이가 제라현 선생이고.(선생이 아닌디 농업 학생
 이야. 그때는 농업 학교가 사 학년 할 때야. 서울대, 그때는 서울대 안 나온 때. 서
 울대 대리로 농업학교 생겼어, 제주도에. 그러니까 농업 학생인데 야간에 하는 사람
 은 시청 직원이, 저 무료로 가서 시청 직원이니까 노형에 가서 석유팔을 얻어 와.
 석유를 그냥, 돈 우리가 안 내도. 석유팔 해다가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 그
 령게 하는데 동네 친족이고 하니까 원조해 주는 거, 와서. 원조하는 거. 선생은 아
 니고. 양○○이가 정확한 선생이고.)

103059 #2 ○○이가 주장 그때 헛주게.(○○이가 주로 그때 헛지.)

103059 #1 시청 직원이난.(시청 직원이니까.)

103059 #2 게난 그때 석유 몇 통 가근에게, 시청으로 가근에게 사다근에.(그러니
 까 그때 석유 몇 통 가서, 시청으로 가서 사다가.)

103059 #1 멧 달 쓸 거난. 게난 뭐 반년도 안 허연, 야학은.(멧 달 쓸 거니까. 그러니까 뭐 반년도 안 했어, 야학은.)

103059 #2 농한기 삼 개월게. 겨울 들영 삼 개월.(농한기 삼 개월. 겨울 들어서 삼 개월.)

103059 #1 삼 개월 동안 허는 거.(삼 개월 동안 하는 거.)

103059 #2 삼 개월 쓸 거.(삼 개월 쓸 거.)

103059 #1 무료로 강 해 줘, 무료로.(무료로 가서 해 줘, 무료로.)

103059 #2 돌아가명 조 짜근에 호야 따까 기름 놓고 경해근에 불 키주게.(돌아가면서 조 짜서 호롱 닦아 기름 넣고 그래서 불 켜지.)

103059 @ 그때 야학 여학생덜이 멧 명 잇었수과?(그때 야학 여학생들이 멧 명 있었습니까?)

103059 #2 아이고, 여학생덜 멧 명 었은 때.(아이고, 여학생들 멧 명 없을 때.)

103059 @ 아.(아.)

103059 #1 그때도 오 학년꺼지 잇었어.(그때도 오 학년까지 있었어.)

103059 #2 오 학년꺼지야 잇었지.(오 학년까지야 있었지.)

103059 #1 우리 언니네가 오 학년.(우리 언니네가 오 학년.)

103059 #2 그럼게.(그럼.)

103059 @ 멧 설부터 멧 설까지?(멧 살부터 멧 살까지?)

103059 #1 거의 시집가기 직전에꺼지 했어. 우리 언니 시집가기 직전에꺼지 허더라고. 시집가 불민 안 해.(거의 시집가기 직전에까지 했어. 우리 언니 시집가지 직전까지 하더라고. 시집가 버리면 안 해.)

103059 #2 우리 때를 잘못 태어나 가지고 웨정 시대도, 웨정 시대도 입학허연에 뭐, 뭐 가기구게고¹⁴⁶⁾ 나니누네노¹⁴⁷⁾ 그거 뽕당 보난 해방돼 불었지.(우리 때를 잘못 태어나 가지고 왜정 시대도 입학해서 뭐, 뭐 가기구게고 나니누네노 그거 배우다가 보니까 해방돼 버렸지.)

103059 #1 그때 조금 배웠어, 조금.(그때 조금 배웠어, 조금.)

103059 #2 으, 조금 배웠지.(으, 조금 배웠지.)

103059 #1 일본 글을.(일본 글을.)

103059 #2 조금 뽕단 그냥 해방돼 부난 해방웨연 딱시 삼 년 동안을 그냥 놀아 불었지. 겐 삼 년 동안 놀단 딱시 그 야간으로 딱시 동네 사름덜 참, 유지급덜 주장 허연 허겐 허난 그거 막 삼 년 헤사? 삼 년 허난 사삼¹⁴⁸⁾ 나 불었지. 공부할 여유가 없었어.(조금 배우다가 그냥 해방돼 버리니까 해방되어서 또 삼 년 동안을 그냥 놀아 버렸지. 그래서 삼 년 동안 놀다가 또 그 야간으로 또 동네 사람들 참, 유지급들 주장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거 막 삼 년 했나? 삼 년 하니까 사삼 나 버렸지. 공부할 여유가 없었어.)

146) '가기구게고'는 일본어 자모인 'かきくけこ'를 말한다.

147) '나니누네노'는 일본어 자모인 'なにぬねの'를 말한다.

148) 여기서 '사삼'은 '사삼사건'을 말한다.

103059 @ 그래도 그 와중에예.(그래도 그 와중에요.)

103059 #2 아유, 경허난 막 억울하고. 나 우리 딸도 뭐엔 골민, 어무니 잘도 기억력 좋아, 허민 야 나이 느네만이 공부허민 박사 해 불켜.(아휴, 그러니까 아주 억울하고. 나 우리 딸도 뭐라고 말하면, 어머니 아주 기억력 좋아, 하면 야 나 너희만큼 공부하면 박사 해 버리겠어.)

103059 @ 하하, 우리 어무니도 경 골아.(하하,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말해.)

103059 #2 느네만이 공부해서민 나 박사 해 불켜, 나 경 골았어.(너희만큼 공부했으면 내가 박사 해 버리겠어, 내가 그렇게 말했어.)

103059 @ 사삼 때, 이 학년 때 학교 불타 부난 못 가니까 한이더라고 우리 엄마도.(사삼 때, 이 학년 때 학교 불타 버리니까 못 가니까 한이더라고 우리 엄마도.)

103059 #1 게난 그때가 삼백육십오 일 다니민 좋주게.(그러니까 그때가 삼백육십오 일 다니면 좋지.)

103059 #2 그렇지게. 그 겨울 석 달이 거 무시거, 그때.(그렇지. 그 겨울 석 달 거 뭐, 그때.)

103059 @ 게난.(그러니까.)

103059 #2 삼 년 헛덴 헛자 몇 달 똔, 텅긴 거라게. 아이구, 참말로.(삼 년 했다고 해도 몇 달 된, 다닌 거지. 아이고, 참말로.)

103059 @ 거기서 무슨 창가 그런 거 배운 거 기억 안 남수과?(거기에서 무슨 창가 그런 거 배운 거 기억 안 납니까?)

103059 #2 창가?(창가?)

103059 @ 으.(으.)

103059 #2 우리 그때 맨 처음에 해방똔 후에, 해방똔 후에 배운 게 이제 목포에 눈물.(우리 그때 맨 처음에 해방똔 후에, 해방똔 후에 배운 게 이제 목포의 눈물.)

103059 @ 예?(예?)

103059 #2 목포에 눈물, 두만강.(목포의 눈물, 두만강.)

103059 @ 두만강.(두만강.)

103059 #2 그거 ○○이안티 그거 두 개, 두 가지 배완네.(그거 ○○이한테 그거 두 개, 두 가지 배웠어.)

103059 #1 나 왜정 때 나도 영 생각 안 해신디 ○○이가 곤더라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거 일본 노래라이.(나 왜정 때 나도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가 말하더라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거 일본 노래야.)

103059 #2 일본 노래주게.(일본 노래지.)

103059 #1 도레미파솔라시도 학예회 헐 때 합창단 나강 헛어.(도레미파솔라시도 학예회 할 때 합창단 나가서 헛어.)

103059 @ 하하하, 노래를 잘헛구나예.(하하하, 노래를 잘헛군요.)

103059 #1 겐 ○○이가 무사 느 노래도 불러난 거 싯네. 나 언제 노래 불러났나? 너 웨 도레미파솔라시도 안 불렀나? 아, 딱 ○○이가 경 곤더라이.(그래서 ○○이가

왜 너 노래도 불렀던 거 있어. 나 언제 노래 불렀었어? 너 왜 도레미파솔라시도 안 불렀나? 아, 딱 ○○이가 그렇게 말하더라.)

기타 농사

103060 @ 수박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박은 농사 안 해 봤지예?(수박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박은 농사 안 해 봤지요?)

103060 #2 수박 농사는 안 해 봤.(수박 농사는 안 해 봤어.)

103060 #1 사 먹기만 했어.(사 먹기만 했어.)

103061 @ 참외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참외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1 #1 것도 안 해 보고.(것도 안 해 보고.)

103061 #2 참외 농사 ㄱ튼 건 이 노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부업 허는 사람이 없어.(참외 농사 같은 건 이 노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부업 하는 사람이 없어.)

103061 #1 노형이 양촌이라이. 양촌이난이 막 경 잡농살 벨로 안 해.(노형이 양촌이야. 양촌이니까 마구 그렇게 잡농사를 벨로 안 해.)

103061 #2 으.(으.)

103061 #1 거의 다 안 허는 폭이라.(거의 다 안 하는 편이야.)

103061 #2 응. 거의 다 안 허여.(응. 거의 다 안 해.)

103062 @ 고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고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103062 #1 고추는 그냥 우영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행 먹언 사 먹진 안허드라. 우리 어머니가.(고추는 그냥 터알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해서 먹고 사 먹지는 않더라. 우리 어머니가.)

103062 #2 으, 옛날에 경 했주.(으, 옛날에 그렇게 했지.)

103062 #1 고추 해영은에 아유, 그 힘들어, 남방에엔 현 게 있어.(고추 해서 아휴, 그 힘들어, ‘남방에’라고 하는 게 있어.)

103062 @ 예, 남방에.(예, 나무절구.)

103062 #1 거기서 납작납작 그것에 뺏앙 먹어. 게민 이만씩 납작납작헌 거.(거기서 납작납작 그것에 뺏아서 먹어. 그럼 이만큼씩 납작납작한 거.)

103062 #2 경해도이 보까근에, 야썩 솟창에 울리근에 보까근에 뺏으민 막 쿠셔.(그래도 볶아서, 조금 솔바닥에 붙어서 볶아서 뺏으면 아주 고소해.)

103062 @ 보까마씨, 고추를?(볶아요, 고추를?)

103062 #2 으.(으.)

103062 @ 붉은 고추를?(붉은 고추를?)

103062 #2 고추를.(고추를.)

103062 @ 후라이팬에 보까?(프라이팬에 볶아?)

103062 #2 아니, 아니. 그때는 후라이판도 엇고.(아니, 아니. 그때는 프라이팬도

없고.)

103062 #1 솟디.(술에.)

103062 #2 솟창에, 솟창에.(술바닥에, 술바닥에.)

103062 @ 솟창?(술바닥?)

103062 #1 경허민 빨리 뺏아지렌게.(그러면 빨리 뺏이라고.)

103062 @ 아.(아.)

103062 #2 큰 솟창에.(큰 술바닥에.)

103062 #1 빨리 뺏아지렌.(빨리 뺏이라고.)

103062 #2 큰 솟창에 놔근에게 막 영 것이멍.(큰 술바닥에 넣어서 마구 이렇게 저으면서.)

103062 #1 올렁.(불려서.)

103062 #2 으, 막 것이멍 올르민 와상이 물르면서 흐뎡 꺼뭇꺼뭇하게 경 행.(으, 마구 저으면 불면 ‘와상이’ 마르면서 조금 꺼뭇꺼뭇하게 그렇게 해서.)

103062 #1 겐 남방에 막 지어.(그래서 나무절구에 마구 쥘어.)

103062 @ 물 낱?(물 넣어서?)

103062 #2 아니 그냥 것만. 믹른 대로.(아니 그냥 것만, 마른 대로.)

103062 #1 해마다 경 행 뺏아. 경 행 김치 행 먹어.(해마다 그렇게 해서 뺏아서. 그렇게 해서 김치 해서 먹어.)

103062 #2 경혜영 뺏아, 경혜영 ㄱ를 만드아근에.(그렇게 뺏아서,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103062 #1 짐친 해마다 허니까. 김치 ㄴ물은 자기가 갈앙 행 먹어.(김치는 해마다 하나까 김치 나물은 자기가 갈아서 해서 먹어.)

103062 #2 경헌디 쿠셔.(그런데 구수해.)

103062 @ 쿠셔?(구수해?)

103062 #2 으, 맛이 좋아. 너풀너풀해근에.(으, 맛이 좋아. ‘너풀너풀해서’.)

103062 #1 고치가 이만씩 그냥 부터. 이만씩 부터.(고추가 이만큼씩 그냥 붙어. 이만큼씩 붙어.)

103062 #2 응. 겐디 맛은 쿠성 좋아.(응. 그런데 맛은 구수해서 좋아.)

103062 #1 김치 계속행 먹어신디.(김치 계속해서 먹었는데.)

103062 @ ㄴ멸김치여, 물김치도 해 먹었수과?(나물김치다, 물김치도 해 먹었습니까?)

103062 #1 물김치도 행 먹지.(물김치도 해서 먹지.)

103062 #2 물김치도 행 먹지.(물김치도 해서 먹지.)

103062 #1 ㄴ멸 이시난 딱딱 행은에.(나물 있으니까 딱딱 해서.)

103062 #2 옛날에사.(옛날에야.)

103062 #1 겐디 건 김치물이 이제 알아지크라. 불그롱허여. 좀 붙어. 히히.(그런데 건 김치물이 이제 알겠어. 불그레해. 좀 붙어. 히히.)

103062 @ 갓이렌 현 김치 잇수께? 들에 나는 것도 갓다당 허고?(갓이라고 하는 김치 있지요? 들에 나는 것도 가져다가 하고?)

103062 #1 응. 아니, 옛날엔 그 갓늬물. (응. 아니, 옛날에는 그 갓.)

103062 @ 갓늬물, 갓늬물.(갓, 갓.)

103062 #2 갓늬물. 옛날 갓늬물.(갓. 옛날 갓.)

103062 #1 들에는 별로 안 허고 우린 갓늬멸 같더라. 우리 어머니가. 요만인 갈아. 갈민 요만인 커, 무룩허게이. 경 행 크민 영 손으로 딱딱딱딱 해근에 짐치 허민 우리 아버지가 잘 자서게. 경행 허민 또 나와 또. 또 나오민 그때 혼번 행 먹영 메어 불어.(들에는 별로 안 하고 우린 갓 같더라. 우리 어머니가. 요만큼 갈아. 갈면 요만큼은 커, 수두룩하게. 그렇게 해서 크면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딱 해서 김치 하면 우리 아버지가 잘 자서. 그래서 하면 또 나와 또. 또 나오면 그때 한번 해서 먹고 매 버려.)

103062 #2 아, 그 접순 나완.(아, 그 접순 나왔어.)

103062 #1 응. 접순 나오더라고.(응. 접순 나오더라고.)

103062 @ 동지 짐치도 맛 좋고?(동지 김치도 맛 좋고.)

103062 #1 응. 동지 짐치도 꺼경 행 먹어.(응. 동지 김치도 꺾어서 해서 먹어.)

103062 @ 새우린?(부추는?)

103062 #1 새우린 김치 행 먹어 보지 안해서. 옛날에.(부추는 김치 해서 먹어 보지 않았어. 옛날에.)

103062 #2 응. 옛날에, 새우린 짐친 행 안 먹어 봤어.(응. 옛날에, 부추는 김치는 해서 안 먹어 봤어.)

103062 #1 그냥이 데왕은 먹더라고. 김치 헐 줄 모른 거 다향. 새우리짐치, 짐치 건 허는 거 봤.(그냥 데워서 먹더라고. 김치 할 줄 모른 거 같아. 부추김치, 김치 건 하는 거 봤어.)

103062 @ 꿩마농 김치 그런 거?(달래 김치 그런 거?)

103062 #1 꿩마농 김치도 허는 거 봤어. 거는 그냥 므르게 안 허고이 물김치로. (달래 김치도 하는 거 봤어. 거는 그냥 마르게 안 하고 물김치로.)

103062 @ 아.(아.)

103062 #2 물김치로.(물김치로.)

103062 #1 물김치로 막 그냥이 영 무신 자박지에 행 것이 막 국물 근근하게 행 떠먹어.(물김치로 마구 그냥 이렇게 무슨 자배기에 해서 것이 마구 국물 근근하게 해서 떠먹어.)

103062 @ 그렇구나. 늬뻘 놓고?(그렇구나. 무 넣고.)

103062 #1 늬뻘도 좀 서끄더라고. 나박, 나박으로 썰영,(무도 좀 섞더라고. 나박, 나박으로 썰어서.)

103062 #2 무 흐뻐 서경 헐 때 잇고.(무 조금 섞어서 할 때 잇고.)

103062 #1 것도 나 현 거 먹어 봤. 어머니 현 거.(것도 나 한 거 먹어 봤어. 어머

니 한 거.))

103062 #2 갯늬멀도 물김치 허른 좋아.(갯도 물김치 하면 좋아.)

103062 #1 으, 갯도 허여.(으, 갯도 해.)

103063 @ 갯늬물도 물김치. 배추 용시는 어떻게 합니까? 배추는 신촌이나 함덕이 유명헛텐 헛디다.(갯도 물김치. 배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배추는 신촌이나 함덕이 유명헛다고 합디다.)

103063 #2 어, 그디 유명허주게.(어, 거기 유명하지.)

103063 #1 으, 이렌 안 해.(으, 이리는 안 해.)

103063 @ 노멀만예?(나물만요?)

103063 #2 으.(으.)

103063 #1 늬물 어디 현 디 강 김치 담젠 우리 어머니 사 오더라고. 사당 행 먹어 사당.(나물 어디 하는 데 가서 김치 담그려고 우리 어머니 사 오더라고. 사다가 해서 먹어 사다가.)

103063 @ 육지 늬물이 더 맛 좋텐 헛게.(육지 나물이 더 맛 좋다고 하더라.)

103063 #2 김장 늬물덜은 사당.(김장 나물들은 사다가.)

103063 #1 집이서 그냥 조금조금 허는 건 해도 하영 허는 건 사 와. 헛 중 모른 거 같애.(집에서 그냥 조금조금 하는 건 해도 많이 하는 건 사 와. 할 줄 모른 거 같아.)

103064 @ 늬뻬, 무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무, 무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4 #1 아이, 무 농산 흐끔씩 우영에 가난 뵤더라고 그건. 무우는 안 사. 그 배추 그 포기는 사당 김치 행 먹는데. 우영팻이 널르게 잇어낫주게. 우영팻 이시난.(아, 무 농사는 조금씩 터알에 가니까 되더라고 그건. 무는 안 사. 그 배추 그 포기는 사다가 김치 해서 먹는데. 터알이 넓게 있었지. 터알 있으니까.)

103064 @ 무는 언제 씨 뿌령 언제? 겨울무가 유명하잖아예?(무는 언제 씨 뿌려서 언제? 겨울무가 유명하잖아요?)

103064 #2 음, 겨울무가 유명허주게.(음, 겨울무가 유명하지.)

103064 #1 칠월덜에 갈주.(칠월에 갈지.)

103064 #2 음력 칠월덜 뵤민, 칠월 중순 뵤면은 무운 가니까.(음력 칠월 되면, 칠월 중순 되면 무는 가니까.)

103064 #1 이제 흐끔 시민 갈 거다이.(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거네.)

103064 #2 갈앙 놔두민 겨울 내내 먹으니까.(갈아서 놔두면 겨우내 먹으니까.)

103064 #1 나 작년이 씨.(나 작년에 씨.)

103064 @ 무우로 해서 먹는 거는 어떤 것이 제일 생각납수과?(무로 해서 먹는 거는 어떤 것이 제일 생각납니까?)

103064 #2 무우, 각두기도 해 먹고, 채 썰어근에 데퍼근에 채로 무청도 먹고.(무, 각두기도 해서 먹고, 채 썰어서 데워서 채로 무쳐서도 먹고.)

103064 @ 아, 채로 무청도 먹고. 콩국 끓일 때도?(아, 채로 무쳐서도 먹고. 콩국

끓일 때도?)

103064 #2 국도 끓여 먹고. 무슨 해 먹는 게 많지.(국도 끓여 먹고. 무슨 해 먹는 게 많지.)

103064 @ 고등어 이런 거 지질 때도 무우 낫수과?(고등어 이런 거 지질 때도 무 넣었습니까?)

103064 #1 응, 툭툭 흐뭇 좀 살찌게, 그거 이빨로 그차 먹는 맛이 좋아. 알브게 허지 말앙 뚜박뚜박 썰엉.(응, 툭툭 조금 좀 살찌게, 그거 이빨로 잘라 먹는 맛이 좋아. 얇게 하지 말고 듬성듬성 썰어서.)

103065 @ 감자, 지실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감자, 감자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5 #1 그것도이 우리 노형은 벨로 경 흐뭇씩 사다 먹곡 허는 집이 드물었어.(그것도 우리 노형은 벨로 그렇게 조금씩 사다 먹고 하는 집이 드물었어.)

103065 #2 안 허여.(안 해.)

103065 @ 고산 쪽이 많이 허는 거 닻아.(고산 쪽이 많이 하는 거 같아.)

103065 #2 으.(으.)

103065 @ 땅이예?(땅이요?)

103065 #2 그것도이 저 불치거름이 제일 최고로 궁합이라.(그것도 저 재거름이 제일 최고로 궁합이야.)

103065 @ 들었수과, 건? 지실?(들었습니까, 건? 감자?)

103065 #2 응, 그것도, 그것도 고구마 심듯이.(응, 그것도, 그것도 고구마 심듯이.)

103065 @ 아까 감자는 불치가 필요하다고예?(아까 감자는 재가 필요하다고요?)

103065 #1 으.(으.)

103065 @ 하는 거 봐 봤수과?(하는 거 봐 봤습니까?)

103065 #2 응.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주위에 텃밭이 막 널르게 이섯 주게. 계민 우리 친정어머니가 멧 구루마 심어이.(응.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주위에 텃밭이 아주 넓게 있었지. 그럼 우리 친정어머니가 멧 달구지 심어.)

103065 #1 야네 어머니도 서쪽이주게.(얘네 어머니도 서쪽이지.)

103065 @ 아.(아.)

103065 #1 계난 더러 봐낫주게.(그러니까 더러 봤었지.)

103065 #2 계근에게 멧 고지 심으면은 지실은 하나민 그 눈 따라 순 나올 디, 굵은 거민 세 개, 네 개 찰라이. 찰라근에게 이 땅을 영 파면은 그디 불치를 놓아. 불치 낱은에 땅에 영 서터근에 배합을 시켜. 계근에 그거 하나 낱은에 영 올려놔. 흙을 막 올려칭 놔뒀.(그래서 멧 고지 심으면 감자는 하나면 그 눈 따라 순 나올 데, 굵은 거면 세 개, 네 개 잘라. 잘라서 이 땅을 이렇게 파면 거기 재를 놓아. 재 놔서 땅에 이렇게 섞어서 배합을 시켜. 그래서 그거 하나 놔서 이렇게 올려놔. 흙을 마구 올려줘서 놔뒀.)

103065 @ 아.(아.)

103065 #1 계민 이제 순 나근에 크면서 딱시 검질매면서 거 또 올려 줘. 굽을 막 흑으로 막 올려 줘. 겨민 열매 열아근에 막 붙어.(그럼 이제 순 나서 크면서 또 검 매면서 거 또 올려 줘. 그럼 열매 열어서 마구 붙어.)

103065 #1 그거이 일 년에 두 번 심으니까 봄에 심는 건 눈 따당 허고, 또 이 가을에 심는 건 절대 아멩 커도 하나로 헤사. 눈 안 따.(그거 일 년에 두 번 심으니까 봄에 심는 건 눈 따다가 하고, 또 이 가을에 심는 건 절대 아무리 커도 하나로 해야. 눈 안 따.)

103065 #2 우린 봄에만 심는 거 알아져.(우린 봄에만 심는 거 알아.)

103065 #1 봄에 심는 건 눈 따라 팔랑 허고이. 또 여름에 심는 건 또 가을에 먹 어이.(봄에 심는 건 눈 따라 잘라서 하고. 또 여름에 심는 건 또 가을에 먹어.)

103065 @ 거 들었수과?(거 들었습니까?)

103065 #1 어. 가을에 먹는 건 온차.(어. 가을에 먹는 건 통째.)

103065 #2 하나로. 가을 고구마가, 찹 가을 감자가 맛있어.(하나로. 가을 고구마가, 찹 가을 감자가 맛있어.)

103065 #1 건 하나로 먹어. 가을에 먹는 거.(건 하나로 먹어. 가을에 먹는 거.)

103065 @ 가을 감제가 맛있구나.(가을 감자가 맛있구나.)

103065 #2 우리 어머니 봄에만 경 심더라.(우리 어머니 봄에만 그렇게 심더라.)

103065 @ 모이고예?(모이고요?)

103065 #1 아니, 건 모이는 건 밭딜로 가는 생이더라.(아니, 건 메진 건 밭으로 가는 모양이더라.)

103065 @ 밭딜로 가. 종자, 종자로도 가고?(밭에 가. 종자, 종자로도 가고?)

103065 #2 땅으로 가주게.(땅으로 가지.)

103065 #1 땅으로.(땅으로.)

103065 @ 겐디 고구마허고 지실허고.(그런데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103065 #1 서쪽 지실이 맛있어.(서쪽 감자가 맛있어.)

103065 @ 서쪽이예, 맞아. 고산?(서쪽이요, 맞아. 고산?)

103065 #1 폭삭폭삭해¹⁴⁹⁾. 작년에도 차로 왕 서쪽 거렌 헨 나 하나 사신디 잘도 폭삭폭삭허드라. 찌신디. 남제가 서쪽이우텐 허명 나 안 속엿수다예, 허명.(‘폭삭폭삭해’. 작년에도 차로 와서 서쪽 거라고 해서 나 하나 샀는데 아주 ‘폭삭폭삭하더라’. 찼는데. 남자가 서쪽이라고 하면서 나 안 속였습니다, 하면서.)

103065 @ 옛날에 뭐 사삼이나 어떤 때 지실허고 고구마, 감자허고 헛을 때 어느 걸 많이 먹어신고예?(옛날에 뭐 사삼이나 어떤 때 감자하고 고구마, 감자하고 헛을 때 어느 걸 많이 먹었나요?)

103065 #2 고구마가 많이 먹어실 거라.(고구마가 많이 먹었을 거야.)

103065 #1 고구마가 많이 먹었지. 이 세계는 지슬 벨로 안 허는 디난. 고구마로 거의 때 살았지. 뭐 우리는 하도 해영 바쳐 부난이, 우리 먹는 건 잘도 힘들고.(고

149) ‘폭삭폭삭하다’는 감자 따위가 잘 익어서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구마가 많이 먹었지. 이 세계는 감자 별로 안 하는 데니까. 고구마로 거의 때 살았지. 뭐 우리는 하도 해서 바쳐 버리니까, 우리 먹는 건 아주 힘들고.)

103065 @ 지슬예?(감자요?)

103065 #1 아이고, 삼십육 년간 그 부역허는디.(아이고, 삼십육 년간 그 부역하는 데.)

103065 @ 그른 지실 가정도 이거 뭐 갈앙은에 떡 만들고 이런 건 없지예? 고구마는 잊지만은?(그럼 감자 가져서도 이거 뭐 갈아서 떡 만들고 이런 건 없지요? 고구마는 있지만?)

103065 #1 지금은 경 손이 하고 또 배운 것도 많고 허난 다 갈앙 이것도 저것도 허는 거지, 그때사. 얼른얼른 솥앙 먹영 밧디 강 일만 허젠.(지금은 그렇게 손이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하니까 다 갈아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지, 그때야. 얼른얼른 삶아서 먹어서 밧에 가서 일만 하려고.)

103066 @ 피 농사, 그 도리 송당에 피 방에?(피 농사, 그 교래 송당에 피 방아?)

103066 #1 그렌 땅이 안 좋난이 그게 잘 돼는가 봐. 여기는 그런 거 없어.(그리는 땅이 안 좋으니까 그게 잘 되는가 봐. 여기는 그런 거 없어.)

103067 @ 피 안 헨. 그른 믰덜?(피 안 했어. 그럼 메밀?)

103067 #1 믰덜도 그쪽에.(메밀도 그쪽에.)

103067 #2 믰덜도 그디.(메밀도 거기.)

103067 #1 여기는 그런 것도이. 이디가이 웃드르도 아니고 막 해촌도 아니고 중간이라. 이디, 중간.(여기는 그런 것도. 여기가 ‘웃드르’도 아니고 아주 해촌도 아니고 중간이야. 여기, 중간.)

103067 @ 믰덜 ㄱ루는 어디 강 사당, 게도 떡은 해 먹어실 거 아니짜?(메밀 가루는 어디 가서 사다가, 그래도 떡은 해 먹었을 거 아닙니까?)

103067 #2 아니, 저 집이 옛날에는 저 목장 밧을 이겨근¹⁵⁰⁾에 믰덜 간 사람도 이섯주게.(아니, 저 집에 옛날에는 저 목장 밧을 일궈서 메밀 간 사람도 있었지.)

103067 #1 경허민 그거 흥뽀 사당은에, 믰덜쌀 헤영 쌀로 사. 쌀로.(그러면 그거 조금 사다가, 메밀쌀 해서 쌀로 사. 쌀로.)

103067 #2 믰덜쌀 만드는 게 멧돌에 곶앙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막 여러 불 해야 돼어. 우리 어머니가 믰덜을 우리 어릴 때 믰덜을 헤근에게 그 멧돌에 갈면서 그 쫄을 허는 걸 봤는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갈 수가 없어. 믰덜을 헤다가 이제 도리깨로 막 털어. 말리와근에 도리깨로 영, 나무를, 대를 이렇게 세워.(메밀쌀 만드는 게 멧돌에 갈아서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주 여러 번 해야 돼. 우리 어머니가 메밀을 우리 어릴 때 메밀을 해서 그 멧돌에 갈면서 그 쌀을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갈 수가 없어. 메밀을 하다가 이제 도리깨로 마구 털어. 말려서 도리깨로 이렇게, 나무를, 대를 이렇게 세워.)

103067 #1 으물을 우터레 가게.(알맹이를 위로 가게.)

150) 여기서 ‘이기다’는 ‘땅을 일구다’의 의미다.

103067 #2 응. 으물 우터레 가게.(응. 알맹이 위로 가게.)
 103067 @ 께 허듯이?(깨 하듯이?)
 103067 #2 께 허듯이.(깨 하듯이.)
 103067 #1 께야 뭐 무껏당 영 영 털민 돼거든.(깨야 뭐 묵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털면 되거든.)
 103067 #2 세왓당 물리민 털민 돼는다.(세웠다가 말리면 털면 되는데.)
 103067 @ 으.(으.)
 103067 #2 믰밀은.(메밀은.)
 103067 #1 믰밀은 도깨로 두들기민.(메밀은 도리깨로 두들기면.)
 103067 @ 두드릴 때 경 세왕?(두드릴 때 그렇게 세워서?)
 103067 #2 어, 세왕.(어, 세워서.)
 103067 #1 으물 물르렌게.(알맹이 마르라고.)
 103067 #2 으물 플랑 털기 조렌, 경 세와근에게 헤둠서 도리깨로 때리면은 도리깨로 바로 이렇게 때리민 나무가 이 들어가 붙언 안 떨어지잖아.(알맹이 말라서 털기 좋으라고, 그렇게 세워서 해 두면서 도리깨로 때리면 도리깨로 바로 이렇게 때리면 나무가 이 들어가 버려서 안 떨어지잖아.)
 103067 @ 예.(예.)
 103067 #2 게민 도리깨로 갈겨. 옆으로.(그런 도리깨로 갈겨. 옆으로.)
 103067 #1 그거 힘없는 사람은 못해. 그 힘이 좋아야.(그거 힘없는 사람은 못해. 그 힘이 좋아야.)
 103067 @ 믰밀이 어렵구나, 도리깨질이?(메밀이 어렵구나, 도리깨질이?)
 103067 #1 힘없는 사람은이 이렇게 하지, 착 그냥 끌기질 못해. 힘이 있어야지.(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착 그냥 갈기지를 못해. 힘이 있어야지.)
 103067 #2 우리 아바진 그런 거 잘 갈겨났어.(우리 아버진 그런 거 잘 갈겼었어.)
 103067 #1 게난 남자분이니까. 여자분은 이거 영 끌기는 사람이 경 드물어. 힘이 원간 좋아야.(그러니까 남자분이니까. 여자분은 이거 이렇게 갈기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 힘이 여간 좋아야.)
 103067 @ 아.(아.)
 103067 #2 착 옆으로 영 착.(착 옆으로 이렇게 착.)
 103067 #1 거 힘이 좋아야.(거 힘이 좋아야.)
 103067 #2 경 허여야 그게 떨어지드라고.(그렇게 해야 그게 떨어지더라고.)
 103067 @ 다른 콩이나 이런 것보다 믰밀 도깨질이 어렵구나예?(다른 콩이나 이런 것보다 메밀 도리깨질 어렵군요?)
 103067 #2 예. 경헨에 떨어근에게 이젠 다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댄 대대로 이젠 골라내고, 쳐내고, 으물은 이젠 딱시 이젠 좁팍¹⁵¹⁾에 헤근에 바람에 체를 날려. 날

151) '좁팍'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뜯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좁박, 손박, 솔박'이라고도 한다.

려 놔근에게 딱시 이제 널영 몰려. 바싹 물리와의 돼여. 막 여라 번 바싹 물리와근
에 이제 그 쓸을 만들젠 허면은 그 맏돌에, 맏돌에 ㄱ는디 영 바르르르 하게 혼
불 굴아 놓면은.(예. 그래서 떨어져서 이젠 다 이제 떨어지면 이제 댄 대대로 이젠 골
라내고, 쳐내고, 알맹이는 이젠 또 이젠 ‘죤팍’에 해서 바람에 체를 날려. 날려 놓고
또 이제 널어서 말려. 바싹 말려야 돼. 아주 여러 번 바싹 말려서 이제 그 쓸을 만
들려고 하면 그 맏돌에, 맏돌에 가는데 이렇게 바르르르 하게 초벌 갈아 놓으면.)

103067 #1 맏돌, 맏돌도이 두 개라. 그런 거 거피는 맏돌이 또 딱로 있어.(맏돌,
맏돌도 두 개야. 그런 거 거피하는 맏돌이 또 따로 있어.)

103067 #2 그러게. 아무 맏돌이나 안 해.(글쎄. 아무 맏돌이나 안 해.)

103067 #1 ㄱ를 ㄱ는 거 말고.(가루 가는 거 말고.)

103067 @ 아.(아.)

103067 #1 ㄱ떨 거피는 ㄱ를 ㄱ레가 있어. ㄱ떨 거피는 ㄱ레 빌리라, 빌리라 해
여. 게난 아무 디나 없어. 혼 동네에 혼.(메밀 거피하는 가루 맏돌이 있어. 메밀 거
피는 맏돌 빌려라, 빌려라 해. 그러니까 아무 데나 없어. 한 동네에 한.)

103067 #2 ㄱ레 ㄱ는 맏돌로 해 불면은 봇아져근에 쓸을 못 멘들아.(가루 가는
맏돌로 해 버리면 마여서 쓸을 못 만들어.)

103067 #1 게난 거피는 ㄱ레가 있어.(그러니까 거피하는 맏돌이 있어.)

103067 #2 게근에게 허면은 ㄱ떨 거피는 ㄱ레로 행 맏돌로 행은에 영 돌르멍 허
면은 이제 그거 떨어지면은 그걸 딱시 이젠 이 저 킬로 킬로 이제 다 퍼내어.(그래
서 하면 메밀 거피하는 맏돌로 해서 맏돌로 해서 이렇게 두르면서 하면 이제 그거
떨어지면 그걸 또 이젠 이 저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제 다 퍼내어.)

103067 #1 푸는체.(키.)

103067 @ 체, 푸는체.(체, 키.)

103067 #2 푸는체로 영 다 퍼내어. 체 갈라져. 갈라지민 딱시 이제 또 낱 갈아.
쟁 딱시 경행 허고. 경행은에 흥뽀 쓸 췌 건 딱시 다른 체로 딱시 걸러근에게 쓸은
빠어 뿔 딱시 같고. 열두 번 굴아야 열두 번.(체로 이렇게 다 퍼내어. 체 가를 수
있어. 가르면 또 이제 또 놔서 갈아.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조금 쓸 된 건
또 다른 체로 또 걸러서 쓸은 빠 두고 또 같고. 열두 번 갈아야 열두 번.)

103067 #1 경해야 그 주쟁이 엇이 다 곤텐 해야. 잘도 힘들어.(그래야 그 찌꺼기
없이 다 간다고 해. 아주 힘들어.)

103067 #2 열두 번 거퍼야 다 헛 쓸이 되는 거.(열두 번 거피해야 다 한 쌀이 되
는 거.)

103067 #1 자꾸 나고 자꾸 치민 또 나고 또 나고. 그거 안 굴아진 거 또 나와.
게난 안 굴아진 거 다 허도록 허민 열두 번 곤텐 허는 거지.(자꾸 나고 자꾸 치면
또 나고 또 나고. 그거 안 갈린 거 또 나와. 그러니까 안 갈린 거 다 하도록 하면
열두 번 간다고 하는 거지.)

103067 #2 아이고, 그거.(아이고, 그거.)

103067 #1 잘도 힘든 거. 지금은 므멸 거피는 기계가 있어.(아주 힘든 거. 지금은 메밀 거피하는 기계가 있어.)

103067 #2 기계가 잇언 혼불에 싹 강 허는디 옛날엔 그 멧돌에 허민 경허더라고.(기계가 있어서 초벌에 싹 가서 하는데 옛날엔 그 멧돌에 하면 그렇더라고.)

103067 @ 보리도 안 나올 때는 조허고 므멸에만 의지했으니까 므멸이 정말 여자덜이 힘들게 했었던 거다예?(보리도 안 나올 때는 조하고 메밀에만 의지했으니까 메밀이 정말 여자덜이 힘들게 했었던 거네요?)

103067 #1 아니, 사람마다 못 해, 안 해.(아니, 사람마다 못 해, 안 해.)

103067 #2 아무나 므멸을 경 매 사람 안, 같지 안허더라고.(아무나 메밀을 그렇게 매 사람 안, 같지 않더라고.)

103067 #1 힘든 거니까.(힘든 거니까.)

103067 @ 우리 이제 서쪽에 다 므멸떡?(우리 이제 서쪽에 다 메밀떡?)

103067 #1 이제는 기계로 싹 거꾸니까.(이제는 기계로 싹 거피하니까.)

103067 @ 옛날에.(옛날에.)

103067 #1 장만도 기계로 장만허잖아. 무신 두드리냐? 겐 장만행 가정 가민 이젠 기계로 강 싹 므멸 행 나오민.(장만도 기계로 장만하잖아. 무슨 두드리냐? 그래서 장만해서 가지고 가면 이젠 기계로 가서 싹 메밀 해서 나오면.)

103067 @ 겨난 제주도가 여자덜 노래 중에 ㄱ레 ㄱ는 소리¹⁵²⁾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였구나예?(그러니까 제주도가 여자들 노래 중에 ‘ㄱ레 ㄱ는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103067 #1 서쪽 그거 잘헤여. 서쪽, 동쪽이 므멸 잘허주. 이 제주시 바다는 별로.(서쪽 그거 잘해. 서쪽, 동쪽이 메밀 잘하지. 이 제주시 바다는 별로.)

103067 #2 아이고, 나 원 므멸 거피렌 허른 원 징글징글헤여.(아이고, 나 원 메밀 거피하라고 하면 원 징글징글해.)

103067 #1 게난 야이네 어머니도 서쪽에서 오니까 좀 알아서 거 허는 거야.(그러니까 애네 어머니도 서쪽에서 오니까 좀 알아서 거 하는 거야.)

103067 #2 우리 어머니는 모든 걸 잘헤도.(우리 어머니는 모든 걸 잘해도.)

103067 #1 보아나니까. 거 뭐 아이 봐난 사람은 벨로 허젠 안 허여. 나도 영 므멸 거피는 건 안 헤난. 말만 들었지.(봤었으니까. 거 뭐 안 봤던 사람은 별로 하려고 안 해. 나도 이렇게 메밀 거피하는 건 안 했었어. 말만 들었지.)

103067 #2 아이, 우리 어머니는 막 여러 번 우린.(아니, 우리 어머니 아주 여러 번 우린.)

103067 @ 거퍼난 저 뭐봐, 꺾테기는 베갯잇 허고?(거피했던 저 뭇니까, 꺾테기는 베갯잇 하고?)

103067 #1 으, 좋아. 잘도 머리 좋아. 거 이제는 것도 없어.(으, 좋아. 아주 머리 좋아. 거 이제는 것도 없어.)

152) ‘ㄱ레 ㄱ는 소리’는 멧돌로 곡식을 갈며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103067 #2 없어. 없어, 이젠.(없어. 없어, 이젠.)

103067 #1 오일장에도 폴앙은에이 우리 시집갈 때 사당 담양 다 해 주고 그것도 해 주고 해신디 이젠 거 파는 디 었더라.(오일장에도 팔아서 우리 시집갈 때 사다가 담아서 다 해 주고 그것도 해 주고 했는데 이젠 거 파는 데 없더라.)

103067 #2 었어, 었어.(없어, 없어.)

103067 #1 거 어떻 험신고이? 데껴 불엄신가?(거 어떻게 하는가? 던져 버리는 가?)

103067 #2 데껴 부는 생이라.(던져 버리는 모양이야.)

103067 #1 기갯방에서이.(정미소에서.)

103067 #2 아, 저.(아, 저.)

103067 #1 겐디 기갯방에서 허는 건 멘짝해 불 거라이. ㄴ레로 허믄 복삭허잖 아.(그런데 정미소에서 하는 건 납작해 버릴 거야. 맷돌로 하면 폭삭하잖아.)

103067 #2 그렇지.(그렇지.)

103067 @ 믋멸 안 험수케.(메밀 안 하잖아요.)

103067 #1 이젠 안 나와.(이젠 안 나와.)

103067 @ 믋멸 안 허여.(메밀 안 해.)

103067 #1 으. 아니, 우리 딸덜 헐 때 다 사당 해 쥐신디.(으. 아니, 우리 딸들 할 때 다 사다가 해 줬는데.)

103067 #2 나도 경해신디.(나도 그랬는데.)

103067 #1 이젠 아메도 기계로 허니까 안 나는 것 같애.(이젠 아무래도 기계로 하니까 안 나는 것 같아.)

103067 #2 오일장에서 사당 해나신디.(오일장에서 사다가 했었는데.)

103067 #1 것이 멘짝해 불어. 그 ㄴ레로 헐 때는 그것이 보골보골해.(것이 납작해 버려. 그 맷돌로 할 때는 그것이 ‘보골보골해’.)

103067 #2 자르르르르 하게 굴면은 그 꺾테기가 굵게 나오주게. 게민 그런 건 베개에 담고.(자르르르 하게 갈면 그 꺾테기가 굵게 나오지. 그럼 그런 건 베개에 담고.)

103067 #1 아니, 파는 걸 못 봤어. 오일장에서.(아니, 파는 걸 못 봤어. 오일장에서.)

103067 #2 게민 믋멸이 믋멸쫄도 두 가지고, 두 가지로 빼야 돼고.(그럼 메밀이 메밀쫄도 두 가지고, 두 가지로 빼야 되고.)

103067 @ 아.(아.)

103067 #2 굵은 쫄 잇고, 줌진 쫄 잇어. 경헐 믋멸쫄도 두 가지로 빼야 돼고.(굵은 쫄 잇고, 가는 쫄 잇어. 그래서 메밀쫄도 두 가지로 빼야 되고.)

103067 #1 짹 갈라진 거허고 온차 쫄허고.(짹 갈린 거하고 통째 쫄하고.)

103067 #2 딱시 ㄴ루도 또 두 가지라, ㄴ루도. 그 막 꺾테기 헤뜩헤뜩 부튼 것도 굴면은 그거 느쟁이 ㄴ루. 완전히 게난 그 ㄴ루이 뭐 헤도 꺼며. 그 꺾테기 굴아지

기 때문에.(또 가루도 또 두 가지야, 가루도. 그 마구 껌데기 희끗희끗 붙은 것도
같면 그거 메밀나깨가루. 완전히 그러니까 그 가루 뭐 해도 거메. 그 껌데기 갈리기
때문에.)

103067 @ 아.(아.)

103067 #2 겨곡 또 중간 논쟁이 ㄴ루엔 헨 딱시 흐뎡 ㄴ루이 딱시 잇어. 게민 그
ㄴ루도 두 가지고 빼고 쓸도 두 가지로 빼어.(그리고 또 중간 메밀나깨 가루라고 해
서 또 조금 가루가 또 있어. 그럼 그 가루도 두 가지고 빼고 쌀도 두 가지로 빼.)

103067 #1 제주 차부 허잖아. 제주 차부 가든 그거 똑 사. 혼 뉘에 만 원씩 행
사당 먹어신디 이젠 올라실 거라.(제주 차부 하잖아. 제주 차부 가면 그거 꼭 사.
한 뉘에 만 원씩 해서 사다가 먹었는데 이젠 올랐을 거야.)

103067 @ 그거 사당 범벅 해 먹으데가?(그거 사다가 범벅 해 먹습데가?)

103067 #1 아니, 수제비.(아니, 수제비.)

103067 @ 수제비. 즈베기.(수제비. 수제비.)

103067 #2 해마다 나도 혼 뉘씩 사당.(해마다 나도 한 뉘씩 사다가.)

103067 @ 즈베기 허고.(수제비 하고.)

103067 #2 금년은 혼 뉘 안 사난.(금년은 한 뉘 안 사니까.)

103067 @ 칼국은 아니?('칼국'은 아니?)

103067 #1 칼국수도 허긴 해.(칼국수도 하긴 해.)

103067 @ ㄴ뎡 칼국?(메밀 '칼국'?)

103067 #1 으, 영 헨에 영.(으,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3067 #2 빙떡¹⁵³도 지저져.(‘빙떡’도 지질 수 있어.)

103067 @ 빙떡.(‘빙떡’.)

103067 #1 영 해연 칼로 썰민 칼국수 뉘지.(이렇게 해서 칼로 썰면 칼국수 되지.)

103067 @ 칼국이렌 안 헛수과, 여긴?('칼국'이라고 안 했습니까, 여긴?)

103067 #1 칼국수엔 허여. 우린 칼국수.(칼국수라고 해. 우린 칼국수.)

103067 #1 칼국수.(칼국수.)

103067 @ 동쪽엔 칼국이렌 헛디다게. 많이 행 먹엇드라고.(동쪽에는 '칼국'이라고
합디다. 많이 해서 먹엇더라고.)

103067 #1 아, 이딘 칼국수엔 해. 저 오일장에도이 저 막 서쪽 꾹텅이 푸는 디
잇잖아. ㄴ뎡쫄.(아, 여긴 칼국수라고 해. 저 오일장에도 저 막 서쪽 ㄲ트머리 파는
데 잇잖아. 메밀쫄.)

103067 @ 다 중국산이주게.(다 중국산이지.)

103067 #1 나 그디 강 두 번 사온디, 올헨 안 사완.(나 거기 가서 두 번 사 왔는
데, 올해는 안 사 왔어.)

103067 #2 나도 금년 안 사 오난 생각남저.(나도 금년 안 사 오니까 생각난다.)

153) '빙떡'은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전기, 빙'이라고도 한다.

103067 @ 뭐 는쟁이 ㄱ루로 뭐 해 먹었수과, 떡?(뭐 메밀나깨 가루로 뭐 해 먹었습니까, 떡?)

103067 #1 는쟁이 ㄱ루가 아니고 ㄹ멸ㄱ루더라.(메밀나깨 가루가 아니고 메밀가루더라.)

103067 #2 막 빙떡 지저도 그냥 ㄱ루나 마찬가지로 색깔도 좋고이.(막 ‘빙떡’ 지저도 그냥 가루나 마찬가지로 색깔도 좋고.)

103067 #1 좋더라, 좋아. 나도이 ○○ 각시 행 먹으난 해 보난 진짜 좋더라.(좋더라, 좋아. 나도 ○○ 각시 해서 먹으니까 해 보니까 진짜 좋더라.)

103067 @ 밀가루 서경 허는 거 아니?(밀가루 섞어서 하는 거 아니?)

103067 #1 아니, 그냥 그것만 해. 그디 강 사 오난. ㄹ멸ㄱ루만 해도 좋안게.(아니, 그냥 그것만 해. 거기 가서 사 오니까. 메밀가루만 해도 좋았어.)

103067 #2 는쟁이 ㄱ루엔 해도 중간 는쟁이 ㄱ루인 생이라.(메밀나깨 가루에는 해도 중간 메밀나깨 가루인 모양이야.)

103067 #1 는쟁이가 안 닮아.(메밀나깨가 안 같아.)

103067 #2 안 닮아이. 색깔도이 빙떡 지저도이?(안 같아. 색깔도 ‘빙떡’ 지저도?)

103067 #1 그냥 ㄹ멸ㄱ루 닮아.(그냥 메밀가루 같아.)

103067 @ 싸른 다 중국 거우다게.(싸면 다 중국 겁니다.)

103067 #1 아니, 아니. 기계방이니까이.(아니, 아니. 정미소니까.)

103067 @ 아.(아.)

103067 #1 요기 오일장 이 아래, 기계방이 흐나 있어.(여기 오일장 이 아래, 정미소가 하나 있어.)

103067 #2 기계가 잇주게. 방앗간 있어, 그디.(기계가 있지. 방앗간 있어, 거기.)

103067 #1 그디 가른 폴아 줘.(거기 가면 팔아 줘.)

103067 #2 나도 그디 강 사단 먹어신디.(나도 거기 가서 사다가 먹었는데.)

103067 #1 이제 만 원 넘엄젠 허는 거 닮드라.(이제 만 원 넘었다고 하는 거 같더라.)

103067 #2 넘엄젠. 몰라, 난 올린 안 산게.(넘었다고. 몰라, 난 올해는 안 샀어.)

103067 @ 흐 뒬에?(한 뒬에?)

103067 #1 어, 흐 뒬에.(어, 한 뒬에.)

103067 #2 난 금년 안 사부난 막 생각남서.(난 금년 안 사 버리니까 막 생각나.)

103067 #1 멧 번 안 먹엉 다 먹어지긴 허드라.(멧 번 안 먹고 다 먹긴 하더라.)

103067 @ 뭐가 맛 좋습니까? 어떤 딴 ㄹ멸범벅이 최고 맛 좋덴 헐게.(뭐가 맛 좋습니까? 어떤 데는 메밀범벅이 최고 맛 좋다고 하던데.)

103067 #1 ㄹ멸범벅은 벨로고게.(메밀범벅은 벨로고.)

103067 #2 빙떡, 빙떡.(‘빙떡’, ‘빙떡’.)

103067 #1 빙떡이 제일 좋아.(‘빙떡’이 제일 좋아.)

103067 #2 빙떡도 좋고 칼국수도 좋주, 뒬.(‘빙떡’도 좋고 칼국수도 좋지, 뒬.)

103067 #1 빙떡이 허긴 뭐 허긴 해도이 빙떡이 제일 좋아. 속에 무우채 담으니까. 제일 먹기 좋아.('빙떡'이 하긴 뭐 하긴 해도 '빙떡'이 제일 좋아. 속에 무채 담으니까. 제일 먹기 좋아.)

103067 @ 게민 빙떡도 제사 명절에 다 했다는 것과?(그럼 '빙떡'도 제사 명절에 다 했다는 겁니까?)

103067 #1 멧질엔 벨로고 제사 때.(멧질에는 벨로고 제사 때.)

103067 #2 제사 때, 대목¹⁵⁴⁾ 헛주. 제사 때.(제사 때, 주로 했지. 제사 때.)

103067 @ 여름에도 해마씨? 무우도 엇인디?(여름에도 해요? 무도 없는데?)

103067 #1 아니, 여름엔 안 허고.(아니, 여름엔 안 하고.)

103067 #2 여름엔 안 허고게.(여름엔 안 하고.)

103067 #1 철 따라. 철 따라 허는디, 이 멧질엔 우수가 하영 허곡 제사는 혼 디만 허는 거난게.(철 따라. 철 따라 하는데, 이 멧질엔 우수가 많이 하고 제사는 한 데만 하는 거니까.)

103067 #2 건디 또 빙떡도 허는 집안이 따로 있어. 우리 저 친정에 저 거릿¹⁵⁵⁾ 삼춘네. 거릿 삼춘네 예편 삼춘은 손이 흐뭇 븓든¹⁵⁶⁾ 거라도 빙떡만 주로 제사 때고 멧질 때고 해난 생이라.(그런데 또 '빙떡'도 하는 집안이 따로 있어. 우리 저 친정에 저 '거릿' 삼춘네. '거릿' 삼춘네 예편 삼춘은 손이 조금 작은 거여도 '빙떡'만 주로 제사 때고 멧질 때고 했던 모양이야.)

103067 #1 아.(아.)

103067 #2 우리 어무니 곤는 거 보든. 우리 할무니가 저 그릇칩이 강 보라 빙떡이나 맛 좋게 지점시냐. 경 골아렌. 경헌디 그 빙떡 지정 허는 게 벨로 존 게 아니렌 허잖아. 게난 적도 웬만허민.(우리 어머니 말하는 거 보면. 우리 할머니가 저 그릇집에 가서 봐라 '빙떡'이나 맛 좋게 지지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그 '빙떡' 지저서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적도 웬만하면.)

103067 #1 쭈영 허지.(쭈어서 하지.)

103067 #2 쭈영 지지지 말앙 허렌 허는 거지.(쭈어서 지지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지.)

103067 #1 겐디 이제는 벨로 지지지 안허지 안허냐?(그런데 이제는 별로 지지지 않지 않나?)

103067 #2 게메.(글쎄.)

103067 #1 옛날에 엇으난 지졌지.(옛날에 없으니까 지졌지.)

103067 #2 엇으난 그거, 어려우니까.(없으니까 그거, 어려우니까.)

103067 #1 엇이난에 그 믫물궤를만도 못 해여근에이 보리궤루 서터. 경혜근에 흐

154) '대목'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의 의미로 쓰였다.

155) '거릿'은 제주시에 있는 자연 마을의 하나로, '거릿 삼춘'은 '거릿' 마을에 살고 있는 삼춘을 말한다.

156) '븓뜨다'는 표준어의 '발다'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앞의 손과 함께 '손이 븓뜨다'의 형태로 쓰여, 물건이나 재물의 썸썸이가 깐깐하고 작다는 '손이 작다'의 의미로 쓰였다.

뽕 두텁게 지정 영 썰영 껀여이, 고지에.(없으니까 그 메밀가루만도 못 해서 보릿가루 섞어. 그래서 조금 두껍게 지져서 이렇게 썰어서 껀어, 꼬챙이에.)

103067 @ 아, 봐난 거 닻수다. (아, 봤던 거 같습니다.)

103067 #2 두부, 두부 대신.(두부, 두부 대신.)

103067 #1 게난 좋은 건 아니지. 맨 믋물만 행 껀는 것보단 안 좋지.(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 맨 메밀만 해서 껀는 것보다는 안 좋지.)

103067 #2 그렇지. 그 우리 거룻 삼촌은 손이 브따근에게 경. 우리 할무니 막 손이 걸어났저게.(그렇지. 그 우리 ‘거룻’ 삼촌은 손이 작아서 그렇게. 우리 할머니 아주 손이 걸었었어.)

103067 #1 ○○이 양제지.(○○이 양자지.)

103067 #2 어게. 우리 할무니 손이 걸어근에.(어. 우리 할머니 손이 걸어서.)

103067 #1 게도 양젠 잘 뒀네.(그래도 양자는 잘 되었네.)

103067 #2 으, 즈손덜도 하곡 허난 이 제사 때고 멩질 때고 가민 우리 할무닌 이 즈손덜 먹일 거부터. 조상 상에 올릴 거 말앙 즈손덜 가민 먹을 거부터 모녀 흥썰 확 행 내놔근에 아기덜 가민 먹으렌 헤 뒤근에 상에 올릴 걸 만들엇젠 허드라고.(으, 자손들도 많고 하니까 이 제사 때고 멩질 때고 가면 우리 할머니 이 자손들 먹일 거부터. 조상 상에 올릴 거 말고 자손들 가면 먹을 거부터 먼저 조금 확 해서 내놓아서 아기들 가면 먹으라고 해 두고 상에 올릴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103067 #1 우리도 어머니네가 시 동세라. 큰어머니, 셋어머니, 우린 족은 집. 우리 큰어머니가 손이 커. 손이 켁 고기 장시 오민 고기 장실 다 비와. 구덕에 비와근에.(우리도 어머니네가 세 동서야. 큰어머니, 둘째어머니, 우린 작은 집. 우리 큰어머니가 손이 커. 손이 커서 고기 장수 오면 고기 장사를 다 부어. 바구니에 부어서.)

103067 #2 우리 할무니 닻아나신게. 우리 할무니가 경 헤났젠 현다게.(우리 할머니 닻았었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

103067 #1 구덕에, 구덕에 콩이영 풋이영 헤여근에 그 고기 장시 혼 짐 잔뜩 정가.(바구니에, 바구니에 콩이랑 팔이랑 해서 그 고기 장수 한 짐 잔뜩 쳐서 가.)

103067 #2 큰어무닌 저 ○○이 할무니?(큰어머닌 저 ○○이 할머니?)

103067 #1 으. 게민 고기도 그냥 놔둡 가.(으. 그럼 고기도 그냥 놔두고 가.)

103067 #2 우리 할무니가 경 헤났젠 허여.(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었다고 해.)

103067 #1 게난게 곡석에 바파. 게난 우리 큰어무니 집에 가면은 어느 때 고기 엇은 때가 엇어. 게민 난이 가민이 셋년에 이레 오라. 겐 난 불을 잘 습아 어린 때 부터이. 겐 우리 큰어무니가 혼자뿐이라이. 메누리도 일본 가 불고 뜰도 흥나 신 거 시집가 불고 큰뜰은 시집장 죽어부난 아무도 엇으난 술떡을 잘허여게. 술떡 헐 때 마다 날 불러게. 셋년아 오라이. 우리 도육낭 시난 도육낭 알로 영 보단 나 보민 셋년아 여기 셋년아.(그러니까 곡식에 바뀐.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 집에 가면 어느 때 고기 없을 때가 없어. 그럼 난 가면 둘째야 이리 와라. 그래서 난 불을 잘 때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린 큰어머니가 혼자뿐이야. 며느리도 일본 가 버리고 딸도 하나 있는 거 시집가 버리고 큰딸은 시집가서 죽어버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술떡을 잘해. 술떡 할 때마다 날 불리. 둘째야 와라. 우리 무환자나무 있으니까 무환자나무 아래로 이렇게 보다가 나 보면 둘째야, 여기 둘째야.)

103067 @ 으.(으.)

103067 #1 오라. 행 가민 보그랑케¹⁵⁷⁾ 떡 행 먹고 고쟁이에 영 행 이만이 꿰영 쥐게. 손도 커. 하하하.(와라. 해서 가면 ‘보그랑하게’ 떡 해서 먹고 꼬챙이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 꿰어서 쥐. 손도 커. 하하하.)

103067 @ 도웨낭이 복숭아낭? (‘도웨낭’이 복숭아나무?)

103067 #2 도옥낭이엔 현 게 잇수다.(무환자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3067 #1 도옥낭이엔 이만이현 거 까만 거이, 물레에도 쓰곡 허는 도옥낭 큰 낭이라. 우리 우영बाट다.(무환자나무라고 이만한 거 까만 거, 물레에도 쓰고 하는 무환자나무 큰 나무야. 우리 터알에.)

103067 @ 그 열매는 무슨 열매마씨?(그 열매는 무슨 열매요?)

103067 #1 도옥이 올라, 도옥. 새까망해.(무환자가 열어, 무환자. 새까매.)

103067 @ 도옥이 뭐?(무환자가 뭐?)

103067 #2 절간에 가민 염주 잇지 안허파? 절간에 염주.(절간에 가면 염주 있지 않습니까? 절간에 염주.)

103067 @ 아.(아.)

103067 #1 큰 염주.(큰 염주.)

103067 @ 아, 그런 거.(아, 그런 거.)

103067 #2 큰 염주 굵은 거. 꺼먼 거. 그게 도옥이라.(큰 염주 굵은 거. 꺼먼 거. 그게 무환자야.)

103067 #1 영 준 거 말고 큰 거. 시커멍헌 거, 큰 거.(이렇게 잔 거 말고 큰 거. 시꺼먼 거, 큰 거.)

103067 #2 경 곴아야 쉽게 잘 알주게.(그렇게 말해야 쉽게 잘 알지.)

103067 @ 그거 봐낫수다게. 목걸이 만듭디다예.(그거 봤었습니다. 목걸이 만듭니다.)

103067 #2 으, 으.(으, 으.)

103067 #1 큰 거. 게난 우리 우영에 도옥낭이 이시난.(큰 거. 그러니까 우리 터알에 무환자나무가 있으니까.)

103067 #2 야네 뒤에 큰 나무가 그런 나무가 잇어낫수다.(애네 뒤에 큰 나무가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103067 @ 그 열매가 지금 막 열기 귀허덴 허던데.(그 열매가 지금 아주 열기 귀하다고 하던데.)

103067 #2 없어, 이젠 도옥낭이엔 현 거 없어.(없어, 이젠 무환자나무라고 하는

157) ‘보그랑허다’는 떡 따위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거 없어.)

103067 #1 막 잘 올양 허당 사삼사건에 망해 불언게. 그것이 망해 불언.(아주 잘 열어서 하다가 사삼사건에 망해 버렸어. 그것이 망해 버렸어.)

103067 #2 야네 뒤에 그것이 막 큰 나무 있어났수다.(애네 뒤에 그것이 아주 큰 나무 있었습니다.)

103067 @ 그거예.(그거요.)

103067 #1 게난 우영팟 영 행 막 노는 자릴 잡안. 우리 큰아버지네가 그디 앓앙 놀고. 저녁이도 줌도 자고. 아이덜은 이디 앓앙 놀고 어른덜은 이디 앓앙 놀고. 어떤 아이덜은 낭에 올랑도 놀고. 낭이 커 놓난. 경허멍 헌디 큰어무니가 우리 셋년은 불 숨으민 연기도 안 나고 히히히.(그러니까 터알 이렇게 해서 막 노는 자릴 잡았어. 우리 큰아버지네가 거기 앉아서 놀고. 저녁에도 잠도 자고. 아이들은 여기 앉아서 놀고 어른들은 여기 앉아서 놀고. 어떤 아이들은 나무에 올라서도 놀고. 나무가 커 놓으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큰어머니가 우리 둘째는 불 때면 연기도 안 나고 히히히.)

103067 #2 게난 너 셋년이 너네 켜당덜이 질 착허텐 해넛네. 연기도 안 나고 불도 잘 숨넨. 불도 게난 아무거나 숨암나? 멘네가 있어, 멘네. 미녕 허는 멘네.(그러니까 너 둘째가 너희 켜당들이 제일 착하다고 했었어. 연기도 안 나고 불도 잘 땀다고. 불도 그러니까 아무거나 땀냐? 목화가 있어, 목화. 무명 하는 목화.)

103067 @ 예, 면화.(예, 면화.)

103067 #2 목화.(목화.)

103067 @ 목화.(목화.)

103067 #1 멘네 낭을 메여근에 돌르민 걸 진어게.(목화 나무를 매서 마르면 걸 때.)

103067 @ 아.(아.)

103067 #1 걸 진으민, 걸 꺼꾸로 진어야 돼. 불리로. 혼 세 개씩만 해여근에. 세 개씩만 해영 손 잡앙 꺼꾸로 진으민 일로 가쟁이 영 행 해 가민 소록소록혈¹⁵⁸⁾ 건디 그냥 일로 진으민이.(걸 때면, 걸 거꾸로 때야 돼. 뿌리로. 한 세 개씩만 해서. 세 개씩만 해서 손 잡아서 거꾸로 때면 이리로 가지 이렇게 해서 해 가면 ‘소록소록혈’ 건데 그냥 이리로 때면.)

103067 @ 아.(아.)

103067 #2 멘네 낭도 경 불 때넛나?(목화 나무도 그렇게 불 땀었어?)

103067 #1 쪽 때더라고 우리 큰어무니가. 게난 일로 진으면은게 그것이 막 걸러근에 허는디 이 덩가리¹⁵⁹⁾로 진으민 속속속 들어가.(쪽 때더라고 우리 큰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리로 때면 그것이 마구 걸려서 하는데 이 ‘덩가리’로 때면 속속속 들어가.)

158) ‘소록소록허다’는 불이 잘 타들어 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59) ‘덩가리’는 나무나 줄기 식물의 밑동 부분을 가리킨다.

103067 #2 그렇지게.(그렇지.)

103067 #1 게난 우리 셋년은 불도 잘 습아, 연기도 안 나고. 그런 말을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불도 잘 때, 연기도 안 나고. 그런 말을 들었지.)

103067 #2 난 멘네, 목화남은 안 때 봤어.(난 목화, 목화나무는 안 때 봤어.)

103067 #1 그슬지도 안허고.(그슬지도 앓고.)

103067 @ 보통 말쑤년이 막 칭찬 많이 받는다.(보통 셋째가 마구 칭찬 많이 받는데.)

103067 #1 게난 미리미리 걸 생각해야 돼. 자꾸자꾸 미리미리 걸 낀지 안허민 동 끈어지민 불지도 못 해.(그러니까 미리미리 걸 생각해야 돼. 자꾸자꾸 미리미리 걸 때지 앓으면 동 끊어지면 불지도 못 해.)

103067 #2 그렇지.(그렇지.)

103067 #1 불지도 못해.(불지도 못해.)

103067 #2 불 일어나지 안헐 거주게.(불 일어나지 앓을 거지.)

103067 #1 게민 그 떡을 다 허도록, 물 췌와근에 떡 찌여근에 또 습으도록 그 불은 내가 습아. 습을 때 솥이 두 개라, 두 개. 이것도 큰솥, 이것도 큰솥 허민 우리 큰아부지도 술 잘 자시난 우리 큰어머니 술 하영 행 늑도 잘 주곡. 떡도 좀 흔 말 이민 헐 건디 흔 말 반쯤 허여근에이 막 이웃더레 줘 불어. 우녜집이 ○○네 어멍 이영.(그럼 그 떡을 다 하도록, 물 끓여서 떡 찌서 또 삶도록 그 불은 내가 때. 삶을 때 솥이 두 개야, 두 개. 이것도 큰솥, 이것도 큰솥 하면 우리 큰아버지도 술 잘 자시니까 우리 큰어머니 술 많이 해서 남도 잘 주고. 떡도 좀 한 말이면 할 건데 한 말 반쯤 해서 마구 이웃에 줘 버려. 윗집 ○○네 어머니랑.)

103067 @ 무슨 걸로 만듭니까, 밀가루로 아니민?(무슨 걸로 만듭니까, 밀가루로 아니면?)

103067 #1 줍쌀로.(줍쌀로.)

103067 #2 줍쌀로게. 술떡이난.(줍쌀로. 술떡이니까.)

103067 #1 줍쌀도 종류가 두 가지라. 줍쌀이 두 가지라이. 모인줍쌀, 흐린줍쌀 있어. 흐린조 갈앗당 술 해.(줍쌀도 종류가 두 가지야. 줍쌀이 두 가지야. 메조, 차조 있어. 차조 갈앗다가 술 해.)

103067 @ 술떡은 밀가루 낱 막 부풀민 영 시리에 낱 허곡 그거 아니고?(술떡은 밀가루 넣어서 마구 부풀면 이렇게 시루에 넣어서 하고 그거 아니고?)

103067 #1 그런 거 아니고.(그런 거 아니고.)

103067 #2 그거 아니.(그거 아니.)

103067 #1 그냥 줍쌀 ㄱ를 해근에 줍쌀 헐 거 영.(그냥 줍쌀 가루 해서 줍쌀 한 거 이렇게.)

103067 #2 차줍쌀로, 차줍쌀.(차줍쌀로, 차줍쌀.)

103067 #1 물 흐끔 담강 싯다근에 물방에 강 영 막 뵈앙. 물방에 영 큰 거니까 남방엔 못 뵈으니까 뭐 췌나 물이나 메왕 막 어러러 허영.(물 조금 담가서 있다가

연자매에 가서 이렇게 마구 빵아서. 연자매에 이렇게 큰 거니까 연자매에는 못 빵으니까 뭐 소나 말이나 메워서 마구 어러러 해서.)

103067 #2 만허부난 도고방엔 못 허고.(많으니까 절구는 못 하고.)

103067 #1 겐 뵈아다근에 허젠 허민 날 불러게, 우리 큰어무니가.(그래서 빵아다가 하려고 하면 날 불러, 우리 큰어머니가.)

103067 @ 막걸리 낱 부풀령 경은 안 허고?(막걸리 넣어서 부풀려서 그렇게는 안 하고?)

103067 #1 아니, 아니. 그건 밀떡이고. 건 민 상웨떡이고이. 술떡으로 술떡. 술 오메기떡¹⁶⁰.(아니, 아니. 그런 밀떡이고. 건 민 상화떡이고. 술떡으로 술떡. 술 ‘오메기떡’.)

103067 #2 그 막걸리 만드는 술떡.(그 막걸리 만드는 술떡.)

103067 #1 우리 어무니도 잘했주만은 우리 어무닌 족게 허는디 우리 큰어무닌 하영 행 잘해. 겐 나 해마다 강 그 떡을 얻어먹고 불 습고. 하하하. 잘헌텐 허여, 우리 셋년은 불도 잘 습아. 연기도 안 나고 끈어지지도 안허고.(우리 어머니도 잘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작게 하는데 우리 큰어머니는 많이 해서 잘해. 그래서 나 해마다 가서 그 떡을 얻어먹고 불 때고. 하하하. 잘한다고 해, 우리 둘째딸는 불도 잘 때. 연기도 안 나고 끓기지도 않고.)

103067 @ 추억이다예, 진짜.(추억이네요, 진짜.)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이번엔 들이에.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이번에는 들이요.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1 기르는 거야 뭐.(기르는 거야 뭐.)

104001 @ 농사는 끝나고 이제 소로 감수다예.(농사는 끝나고 이제 소로 갑니다.)

104001 #1 으.(으.)

104001 @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1 소는 겨울 돼면은 집이 출 해당은에 그냥 출 맥영 쪽 저 점심 때 돼민 강 물 강 맥영 와이. 들양 강 물 맥영 왕 출 주명 조짚도 놀엇당 주곡 그냥 그 출도 비영 물리왕 무경 놀엇당 빠 주곡, 흐를 흐 다섯 번씩은 줘실 거라.(소는 겨울 되면 집에 꼴 해다가 그냥 꼴 먹여서 쪽 저 점심 때 되면 가서 물 가서 먹여서 와. 데리고 가서 물 먹여서 와서 꼴 주면서 조짚도 가렸다가 주고 그냥 그 꼴도 베어서 말려서 묶어서 가렸다가 빠 주고, 하루 한 다섯 번씩은 주고 있을 거야.)

160)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104001 #2 그렇지.(그렇지.)

104001 @ 다섯 번?(다섯 번?)

104001 #1 응. 혼 번은 조짚 주고 혼 번은 그 풀 출, 것ㄴ라 쉼출이엔 허여이. 쉼출, 쉼출 주곡.(응. 한 번은 조짚 주고 한 번은 그 풀 풀, 것보고 쇠꼴이라고 해. 쇠꼴, 쇠꼴 주고.)

104001 @ 물 먹이레 가 본 적도 있어마씨?(물 먹으러 가 본 적도 있어요?)

104001 #1 으?(으?)

104001 @ 여자덜도?(여자들도?)

104001 #2 여자덜이 주로 주주게.(여자들도 주로 주지.)

104001 #1 여자덜이 주고, 걸 땔 때고, 봄 나면은 또 봄 나면은 그 출이 다 먹영 없어. 없으면 쉼을 이제 땔 집 행 어울렁은에이 들에 강 맥여 와. 낮이 강 풀 맥영은에이 늪의 쉼덜이영 막 모양게, 수눌영 느 쉼 나 쉼 엇이 혼 열 집 헤영 열 사람이 하루씩 강, 경헤영 먹영 어둡으민 집이 와. 메엇당 또 닐 붉으민 또 맥이레 가. 판 사람이.(여자들이 주고, 걸 땔 때고, 봄 되면 또 봄 되면 그 풀 다 먹어서 없어. 없으면 소를 이제 땔 집 해서 어울려서 들에 가서 먹여 와. 낮에 가서 풀 먹여서 남의 소들이랑 마구 모아서, 품앗이해서 너 소 나 소 없이 한 열 집 해서 열 사람이 하루씩 가서, 그래서 먹어서 어두우면 집에 와. 땔다가 또 내일 밝으면 또 먹이러 가. 판 사람이.)

104001 @ 건 남자덜이 헛지예, 건?(건 남자들이 헛지요, 건?)

104001 #1 응. 남자덜이 대목 허지.(응. 남자들이 주로 하지.)

104001 #2 남자덜이 주로 남자덜이 헛주기.(남자들이 주로 남자들이 헛지.)

104001 #1 남자덜이 대목 허지. 없는 집인 아이덜도 맥여 와. 나도 강, 나도 막 맥이레 다녀난.(남자들이 주로 하지. 없는 집은 아이들도 먹여 와. 나도 가서, 나도 마구 먹이러 다녔었어.)

104001 @ 야, 대단허다예.(야, 대단하네요.)

104001 #1 오빠가 일본 강 살고, 아버지 자꾸 향교엘 많이 다녀. 향교, 향교에만 살아. 향교에만 살아, 아버지가. 계난 아버지 소 맥일 때가 벨로 엇었어. 밤이 밤 자는 건 여름 나면은이 여름 나근에 그 조농사 다 끝나면 이제 산에 강 사름이 그 소 임제가 강 밤을 자. 밤 장 맥이면 뒷날은 판 사름이 그 밤 잔 사름 조반을 싸다 줘. 그거 먹영 오렌, 싸당 주민 그 조반 가정근에 조반 주고 그 사람은 내려오곡, 조반 먹영. 또 판 사름이 그 맥이민 또 뒷날은 또 그처럼 해. 경헨 그처럼 허당.(오빠가 일본 가서 살고, 아버지는 자꾸 향교에를 많이 다녀. 향교, 향교에만 살아. 향교에만 살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소 먹일 때가 별로 없었어. 밤에 밤 자는 건 여름 되면 여름 돼서 그 조농사 다 끝나면 이제 산에 가서 사름이 그 소 임자가 가서 밤을 자. 밤 자서 먹이면 뒷날은 판 사름이 그 밤 잔 사름 조반을 싸다 줘. 그거 먹어서 오라고, 싸다가 주면 그 조반 가져서 조반 주고 그 사람은 내려오고, 조반 먹고. 또 판 사름이 그 먹이면 또 뒷날은 또 그처럼 해. 그래서 그처럼 하다가.)

104001 #2 당번대로.(당번대로.)

104001 #1 출 비게, 출 비게 돼어이. 여름에 경 맥이당 보민 바깥에 그 출 출, 쉼 출, 출을 행 막 크게 행 산에 행 놔둔 거 이녁만씩 헛당, 출 비게 돼민 쉼을 아래 내려와. 출 이제 빈 거 시경 오젠게, 쉼로. 그때는 구루마가 잘 없어, 옛날엔. 쉼로 만 시꺼와. 쉼영 들이영 해영. 흥품 있어 가난에 구루마 있어근에 구루마로 막 시꺼 오민 쉽곡 빨르곡 현디 그 막 옛날엔 다 지어 오고 쉼로 시꺼 오고 경헛.(꿀 베게, 꿀 베게 돼. 여름에 그렇게 먹이다가 보면 바깥에 그 꿀 꿀, 쇠꿀, 꿀을 해서 마구 크게 해서 산에 해서 놔둔 거 자기만큼씩 했다가, 꿀 베게 되면 소를 아래 내려와. 꿀 이제 벤 거 실어 오려고, 소로. 그때는 달구지가 잘 없어, 옛날에는. 소로만 실어 와. 소랑 말이랑 해서. 조금 있어 가니까 달구지 있어서 달구지로 마구 실어 오면 쉽고 빠르고 하는데 그 아주 옛날엔 다 지어 오고 소로 실어 오고 그랬어.)

104001 #2 우리 어릴 때 마차 엇엇주게.(우리 어릴 때 마차 없었지.)

104001 #1 엇엇지, 마차.(없었지, 마차.)

104002 @ 아이고, 여자들이 대단허다예.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아이고, 여자들이 대단하네요.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2 #1 소의 종류, 숫소, 암소.(소의 종류, 수소, 암소.)

104002 #2 빨건 것도 있고, 노랑 것도 있고, 얼룩도 있고.(빨건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얼룩도 있고.)

104002 #1 숫소는이, 숫소는이 그 암소허고 둘이 허민 교매허면 새끼도 나이. 교매허민 새끼도 강 낭은에 봄 나민 소 새끼 낭은에 헤헤.(수소는, 수소는 그 암소하고 둘이 하면 교미하면 새끼도 낳아. 교미하면 새끼도 가서 나서 봄 되면 소 새끼 낳아서 헤헤.)

104002 @ 아까 얼룩, 검은쉼 이런 거 다 이름이 이실 건디 그런 건 몰르쿠과?(아까 얼룩, 검정소 이런 거 다 이름이 있을 건데 그런 건 모르겠습니까?)

104002 #1 잊지. 얼룩소, 검은소.(있지. 얼룩소, 검정소.)

104002 #2 검은손 지금 흑소 보고 검정소.(검정손 지금 흑우 보고 검정소.)

104002 #1 또 털이 노랑허민 노랑헌 암쉼엔도 허고, 붉으면은 흥품 영 황색 헌 거ㄴ란이 붉은 암쉼엔도 허고. 빨 오그라지민 그 쉼 좇으레 간 때 잊어불면 빨 오그라진 암쉼 봐지민 곱아 줍서. 하하하. 경허민 어찌다가 걸 보여, 허민 아이고, 여기 빨 오그라진 암쉼 잇수다. 일로 왕 앓아 갑서, 일로 왕 심영 갑서, 헤여. 우리는 암쉼 별로 안 메언. 언제나 그 숫소만 메언. 숫소.(또 털이 노래면 노란 암소라고도 하고, 붉으면 조금 이렇게 황색 한 것보고는 붉은 암소라고도 하고. 빨 오그라지면 그 소 좇으러 갔을 때 잊어버리면 빨 오그라진 암소 보이면 말해 주세요. 하하하. 그러면 어찌다가 걸 보여, 하면 아이고, 여기 빨 오그라진 암소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가지고 가세요, 이리로 와서 잡아 가세요, 해. 우리는 암소 별로 안 땀어. 언제나 그 수소만 땀어. 수소.)

104002 @ 숫쉼을 부랭이렌 험니까?(수소를 부록소라고 합니까?)

104002 #1 부룽이 소만, 부룽이 소 매당은에이 나이 들민 불까 불어. 불까 불어. 막 어른덜 모영은에이 야, 그 쉼 무꺼근에이 발 무경 탁 눅혀.(부룩소 소만, 부룩소 소 매다가 나이 들면 불까 버려. 불까 버려. 마구 어른들 모여서 야, 그 소 묶어서 발 묶어서 탁 눅혀서.)

104002 #2 양착 다 무경 눅져야 돼여.(양쪽 다 묶어서 눅혀야 돼.)

104002 #1 나 그거 받게. 무경은에 그 눅드령, 그 어른덜이 모영은에 야, 짹 무경 눅드려근에.(나 그거 봤어. 묶어서 그 눌러서, 그 어른들이 모여서 야, 짹 묶어서 눌러서.)

104002 #2 동네 사름덜 다 모여.(동네 사람들 다 모여.)

104002 #1 그 혼 사름은 불을 칼로 이렇게 해영 두 개라. 혼나 아닌 두 개 뽕룩 내왕.(그 한 사름은 불을 칼로 이렇게 해서 두 개야. 하나 아닌 두 개 불룩 내서.)

104002 #2 줍으민 뽕룩 나오주.(집으면 불룩 나오지.)

104002 #1 뽕룩 나와 똥, 그디 똥장 박박박 부비더라고 그디 똥장.(불룩 내 두고, 거기 똥장 박박박 부비더라고 거기 똥장.)

104002 #2 똥장 부벼?(똥장 부벼?)

104002 @ 하하하.(하하하.)

104002 #1 똥장 부벼근에이 이제 일로 무꾼 거 풀민 와들랭이 일어나 쉼. 게민 그 쉼불을이 놔두지 안행 막 시쳐근에 술 안주해.(똥장 부벼서 이제 이리로 묶은 거 풀면 벌떡 일어나, 소. 그럼 그 소불알을 놔두지 않고 마구 찢어서 술 안주해.)

104002 @ 하하하. 그 쉼불을. 나가 그걸 두 번을 받게. 우린 부룽이만 매니까.(하하하. 그 소불알을. 내가 그걸 두 번을 봤어. 우린 부룩소만 매니까.)

104002 #2 술안주 해여.(술안주 해.)

104002 #1 술안주 해여. 내불지 아녀.(술안주 해. 내버리지 않아.)

104002 #2 우린 암소만 메영 새끼 낳 키왕 허곡 허난.(우린 암소만 매서 새끼 낳아서 키워서 하고 하니까.)

104002 #1 우린 아버지가이 허질 안허난이 암술 매질 못해. 부룽이만 메영은에.(우린 아버지가 하지를 얹으니까 암소를 매지를 못해. 부룩소만 매서.)

104002 @ 부룽이가 밧 갈잖아예?(부룩소가 밧 갈잖아요?)

104002 #1 크면은, 경 커근에 불까 불면은 쉼가 어질어게.(크면, 그렇게 커서 불까 버리면 소가 어질어.)

104002 @ 하하하.(하하하.)

104002 #1 왕왕도 안 허고 그 부룽이 헐 뎀이 암소 봐지민 막 뛰어냥 뭐 가 불곡 헌디, 이 그 소 불까 불민 중성기엔 해, 중성기. 이름이. 부룽이는 소 그 불 안 갈 때 부룽이고이 또 불까 불민 중성기, 중성기 해해해. 중성기는 좀 어질어. 불이 엇으난이, 암소 봐져도 막 안 뛰어. 부룽인 암소 봐진민 막 뛰어.(왕왕도 안 하고 그 부룩소 할 때는 암소 보이면 마구 뛰어나서 뭐 가 버리고 하는데, 이 그 소 불까 버리면 불친소라고 해, 불친소. 이름이. 부룩소는 소 그 불 안 갈 때 부룩소이고

또 불까 버리면 불친소, 불친소 해헤헤. 불친소는 좀 어질어. 불알이 없으니까, 암소 보여도 마구 안 뛰어. 부록소는 암소 보이면 마구 뛰어.)

104002 #2 불까 부니까 뭐가 서야 뛰든지 말든지 호호.(불까 버리니까 뭐가 있어 뛰든지 말든지 호호.)

104002 #1 막 뛰어 부릉이는. 암소 봐지민.(마구 뛰어 부록소는. 암소 보이면.)

104002 @ 도새기도 마찬가지로 아니꽈?(돼지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104002 #2 도새기도 마찬가지로.(돼지도 마찬가지로.)

104002 @ 도새기도 불 청 것도 먹지 안허여, 안주로?(돼지도 불알 쳐서 것도 먹지 않아, 안주로?)

104002 #1 도새기는 애왕 질루는 거난 몰라. 먹나, 도새기 불 먹나?(돼지는 에워서 기르는 거니까 몰라. 먹냐, 돼지 불알 먹어?)

104002 @ 먹어난 거 닳아 막 사람덜 막. 삶아서 먹었는지?(먹었던 거 같아 마구 사람들 마구. 삶아서 먹었는지?)

104002 #1 삶양은 아니고 불까긴 칸디 막 찌렁내 난텐 허드라. 도새기불 먹는 건 난 못 본디, 소불 먹는 건 우리 췌가 잇언 허난. 소불도 크주게.(삶아서는 아니고 불까기는 까는데 마구 지린내 난다고 하더라. 돼지불알 먹는 건 난 못 봤는데, 소불알 먹는 건 우리 소가 있어서 하니까. 소불알도 크지.)

104002 #2 크주게.(크지.)

104002 #1 크난 막 시청은에 히히히. 불 숨은 그 잉걸에 구웁, 구웁 썰은은에 막 술덜, 하하. 나 우리 ** 혈 때 불쌍도 허고이 막 깔아 안고 막 무꺼근에 데뎡이 깔아 앓양 움직이지 안 해사. 영 칼 막 신들에 곶양.(크니까 마구 썰어서 히히히. 불뎡 그 잉걸에 구워서, 구워서 썰어서 마구 술들, 하하. 나 우리 ** 할 때 불쌍하기도 하고 마구 깔아 안고 마구 묶어서 대가리 깔아 앓아서 움직이지 안 해야. 이렇게 칼 마구 솟돌에 갈아서.)

104002 #2 게, 누슬어사 혈 거난.(그래, 날이 서야 할 거니까.)

104002 #1 곶양은에 짹 해영 뽕룩, 영 뽕룩 줍으민이 영 허민 줄거리 신 거 칼로 영 짹 졸랑. 나 거 직접 보니까 알아.(갈아서 짹 해서 불룩, 이렇게 불룩 줍으면 이렇게 하면 줄거리 있는 거 칼로 이렇게 짹 잘라서. 나 거 직접 보니까 알아.)

104002 #2 그런 건 안 봐났어.(그런 건 안 봤었어.)

104002 #1 소문만 들으민 잘 모를 건디 눈으로 보니까.(소문만 들으면 잘 모를 건데 눈으로 보니까.)

104002 @ 대단허우다게.(대단합니다.)

104002 #1 솟소만 메난게, 부릉이만 송아지 행 커 가민 부릉이 돼주게이. 부릉이 뎡에 너미 몹쓸야¹⁶¹⁾ 가민 졸라 불어.(수소만 매니까, 부록소만 송아지 해서 커 가면 부록소 되지. 부록소 돼서 너무 ‘몹쓸어’ 가면 잘라 버려.)

104002 @ 뎡 설까지 키웁니까? 거, 가족처럼 살당 불까지 치명?(뎡 살까지 키웁

161) ‘몹쓸다’는 성질이 악독하면 고약하다는 의미다.

니까? 거, 가족처럼 살다가 불알까지 치면서?)

104002 #1 열두 설, 열세 설 소.(열두 살, 열세 살 소.)

104002 @ 수명이?(수명이?)

104002 #1 경혜 가민 힘이 없어. 게민 그 도술장이 있어이. 도술장에 쉼 해당 잡
앙 폭는디 거기서 왕 사 가. 거기 사람덜 왕 사 갈 때도 있고, 어떤 켜 동네에서 추
렴도 해여.(그래 가면 힘이 없어. 그럼 그 도살장이 있어. 도살장에 소 해당가 잡아
서 파는데 거기서 와서 사 가. 거기 사람들 와서 사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동네
에서 추렴도 해.)

104002 @ 추렴?(추렴?)

104002 #1 모여근에 잡앙 그 돈 혜영 술값 줘 뒵 갈랑 먹어.(모여서 잡아서 그
돈 해서 술값 줘 두고 갈라서 먹어.)

104002 @ 건데 정들고 뭘 허면 그런 것도.(그런데 정들고 뭘 하면 그런 것도.)

104002 #1 게난 웨정 때 경 허는 거 봤지이. 사삼스건 후엔 나 그런 거 경 봐 보
지도 안허고 몰르고. 웨정 때에.(그러니까 왜정 때 그렇게 하는 거 봤지. 사삼사건
후에 나 그런 거 그렇게 봐 보지도 않고 몰르고. 왜정 때에.)

104002 @ 소의 나이가예, 제일 오래 키와 본 게?(소의 나이가요, 제일 오래 키워
본 게?)

104002 #1 열시 설.(열세 살.)

104002 @ 경 키와 봤수과?(그렇게 키워 봤습니까?)

104002 #1 우리 열시 설까지 키와난, 힘이 없으고이 그 부룽이 와 가민 막 도망
가 불고이. 쉼가. 나이 이거 이거 이거 영 누난 쉼가 이디 빨락 불랑 넘어가 부난.
게도 꺾어지진 안허곡이.(우리 열세 살까지 키웠었어, 힘이 없고 그 부룽소 와 가면
마구 도망가 버리고. 소가. 나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누우니까 소가 여기 ‘빨락’ 밟
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도 꺾어지지는 않고.)

104002 @ 아고야.(아이고.)

104002 #1 이것이가 다섯 설인가 일곱 설인가. 우리 아버지가 항상, 늙의 어른덜
은 소 장기 지고 술 혜근에 이 술대왔디¹⁶²⁾ 오는디 우리 아버진 꼭 술 이경 글렌
헤, 날ㄴ라. 앞이 이경 가고 아버진 뒤에 장기 정 막 뜨게 뜨게 와. 켜 소 이경은에
이꺼지 와신디 정존이¹⁶³⁾ 알로이 부룽이 셋번¹⁶⁴⁾게, 중동¹⁶⁵⁾ 박 서방 딸이 셋번 보
렌 흥난 쉼를 확 들어쌍 ㄴ찌 몰아야 혈 건디 막 늘어지게 느런이 들앙 가니까, 나
가 이제 쉼 이경 누게네 가니까 우리 쉼가 중성기니까 그 부룽이난 중성기난 사름
ㄴ트민 뭘 쟁헨 강 확 찢러 불언게. 부룽이가 우리 중성기 쉼를, 뒤로 찢러 부난 나
가 그냥 탁 엮어지난 이거 불랑 막 넘어가 불어도 꺾어지지 아년.(이것이 다섯 살인

162) ‘술대왔디’는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이다.

163) ‘정존’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164) ‘셋번’은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소를 돌보는데, 당번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65) ‘중동’은 마을의 중간에 있는 동네를 가리킨다. 제보자는 이를 ‘중통’이라고 했다.

가 일곱 살인가. 우리 아버지 항상, 남의 어른들은 소 쟁기 지고 소를 해서 이 ‘술대왔디’ 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꼭 소를 이끌어서 가라고 해, 나보고. 앞에 이끌어서 가고 아버지는 뒤에 쟁기 져서 마구 뜨게 뜨게 와. 그래서 소 이끌어서 이까지 왔는데 정존 아래로 ‘셋번’, ‘중동’ 박 서방 딸이 ‘셋번’ 보라고 하니까 소를 확 둘러싸서 같이 몰아야 할 건데 마구 늘어지게 느런히 데리고 가니까, 내가 이제 소를 이끌어서 누구네 가니까 우리 소가 불친소니까 그 부룩소니까 불친소니까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가서 확 찢러 버렸어. 부룩소가 우리 불친소 소를, 뒤로 찢러 버리니까 내가 그냥 탁 엎어지니까 이거 밟아서 딱 넘어가 버려도 꺾어지지 않았어.)

104002 @ 큰일날 뻔했다예.(큰일날 뻔했네요.)

104002 #1 산디 갈 땀디 그때가.(밭벼 갈 때인데 그때가.)

104002 @ 인생이 달라질 뻔 했네.(인생이 달라질 뻔했어.)

104002 #1 게메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정허지. 게난 산디 갈땀 불리더라고 산디 갈앙 그걸 허난 막 아광 울어가난 그 아래 동네 동산 아래 ○○이네 집 알아? ○○이네 집이 그거 하인 아이가 그디 딸의 성제가 흐나는 나영 동갑에 거고 우이 건 성이라.(글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정하지. 그러니까 밭벼 갈면서 밟더라고 밭벼 갈아서 그걸 하니까 마구 아파서 울어가니까 그 아래 동네 동산 아래 ○○이네 집 알아? ○○이네 집에 그거 하인 아이가 거기 딸의 형제가 하나는 나랑 동갑의 거고 위의 건 형이야.)

104002 #2 셋게 느영 동갑일 거여.(둘째가 너랑 동갑일 거야.)

104002 #1 경혜신디 우리 아버지가 막 울어 가난이 그디 강 소금을 혼 줌 빌어 완. 소금을 혼 줌 빌어오민 그땐 막 그 초봄이난 속이 안 난 거라. 속이 존디 소행이가 묻저 나. 소행이 해당 박박 부병은에 소금혜영 이디 딱 부썬 텅, 그 산디 혼 스분에 일은 갈았어, 술대왔디. 그거 갈앙은에 다 불령은에 허난 낮 돼는 거라. 낮 돼민 그날 들앙 우리 어머니 업영 오더라고 날. 업영 와도 집이 와도 막 아판.(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구 울어 가니까 거기 가서 소금을 한 줌 빌려왔어. 소금을 한 줌 빌려오면 그때는 마구 아주 초봄이니까 속이 안 난 거야. 속이 좋은데 영경퀴가 먼저 나. 영경퀴 해다가 박박 부벼서 소금해서 여기 딱 붙여 두고, 그 밭벼 한 사분의 일은 갈았어, ‘술대왔디’. 그거 갈아서 다 밟아서 하니까 낮 되는 거야. 낮 되면 그날 데려서 우리 어머니 업어서 오더라고 날. 업어서 와도 집에 와도 아주 아팠어.)

104002 #2 아프주게.(아프지.)

104002 #1 겐 아프난, 도남 아지방 허민 ○○ 어멍이라.(그래서 아프니까 도남 아주머니 하면 ○○ 어머니야.)

104002 #2 으, ○○ 어멍.(으, ○○ 어머니.)

104002 #1 완에 아이고, 아지방 그 검은소, 똥 해당 이디 블르렌, 검은소 똥 해당 험벽에 담앙 화리에 불살황 딱뚝허게 허민 이디 험벽 낱 그 우이 울러. 그 우이 울러, 경허난에 검은소 똥이 누구네 집이 신고 허민 ○○이 집이 있텐, 검은소난.(와

서 아이고, 아주버니 그 검정소, 똥 해다가 여기 바르라고, 검정소 똥 해다가 형겅에 담아서 화로에 불살라서 따뜻하게 하면 여기 형겅 와서 그 위에 불어. 그 위에 불어, 그러니까 검정소 똥이 누구네 집에 있는가 하면 ○○이 집에 있다고, 검정소니까.)

104002 #2 으.(으.)

104002 #1 그거 요만이 간에 담아단에, 삼 가정 강 담아단에 아, 그거 허난 줌이 들어게. 녹이난. 아고, 녹이난 줌자저게.(그거 요만큼 가서 담아다가, 삼 가지고 가서 담아다가 아, 그거 하니까 잠이 들어. 녹이니까. 아이고, 녹이니까 잠잘 수 있어.)

104002 #2 옛날엔 약 엇으난 검은소 똥.(옛날에는 약 없으니까 검정소 똥.)

104002 #1 검은소 똥으로 이디 불량. 게난 요디도.(검정소 똥으로 여기 발라서. 그러니까 여기도.)

104002 @ 게난 어무니가 똥을 구해 왔수과? 삼촌이 직접 강?(그러니까 어머니가 똥을 구해 왔습니까? 삼촌이 직접 가서?)

104002 #1 어무니가 허지. 삼촌이 왕 골으난.(어머니가 하지. 삼촌이 와서 말하니까.)

104002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4002 #1 경허단 또 산디 불르레 또 가 불어. 큰 새왓¹⁶⁶디, 또 가 불언. 겐 허난 혼 닷새쫘 이시난에 잘도 아프난 것이 그냥. 봄이난이 아이고, 나 그 생각허민, 야 이디 그냥 냄새나난에 이거 썩으난 프리가 앓앙 똥 싸 불언게. 똥 싸 부난이 영 썩맨 디 옆으로 보난에 꼬물락꼬물락헌 거 보난 버랭이가 일언게. 버랭이가 나와.(그러다가 또 발며 밟으라고 또 가 버려. 큰 ‘새왓’에, 또 가 버렸어. 그래서 하니까 한 닷새쫘 있으니까 잘도 아프니까 것이 그냥. 봄이니까 아이고, 나 그 생각하면, 야 여기 그냥 냄새나니까 이거 썩으니까 파리가 앓아서 똥 싸 버렸어. 똥 싸 버리니까 이렇게 처맨 데 옆으로 보니까 꼬물꼬물한 거 보니까 벌레가 일었어. 벌레가 나와.)

104002 #2 아이고, 징그럽다.(아이고, 징그럽다.)

104002 #1 게난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들이 ○○이 아니가? ○○이 오라버니가 왕 봐근에 서문통¹⁶⁷ 성신디 강 골은 거라. 스촌성신디 강 아이고, 저 셋년은 그냥 쉼 볼른 걸 작은아버지 내부난에 프리똥 싸 부난 버랭이가 바글바글험덴, 하하하하.(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들이 ○○이 아니냐? ○○이 오라버니가 와서 보고 ‘서문통’ 형에게 가서 말한 거야. 사촌형에게 가서 아이고, 저 둘째는 그냥 소 밟은 걸 작은아버지 내버니까 파리똥 싸 버리니까 벌레가 바글바글한다고, 하하하하.)

104002 @ 하하하.(하하하.)

104002 #1 버랭이가 바글바글 험덴 골아 부난 그냥 ○○ 오라방이 돌아완게.(벌

166) ‘새왓’은 지붕에 일 띠가 나서 자라는 발을 말한다.

167) ‘서문통’은 현재 제주서문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명으로, 옛 제주읍성의 서문(西門)이 있었던 거리를 가리킨다.

레가 바글바글 한다고 말해 버리니까 그냥 ○○ 오라버니가 데려왔어.)

104002 @ 하하하.(하하하.)

104002 #1 죽은아버지 너무 무심허덴 허멍 이추룩 행 내불엇덴 허멍 하하하하.
(작은아버지 너무 무심하다고 하면서 이처럼 해서 내버렸다고 하면서 하하하하.)

104002 @ 하하하.(하하하.)

104002 #1 자전거에 시끄난이 우리 오라방이 흐뎡 약해났어.(자전거에 실으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조금 약했었어.)

104002 @ 으, 약허다게.(으, 약하다.)

104002 #1 멍글락멍글락허멍, 나가 봐도이, 병원에 간.(흐느적흐느적하면서, 내가
봐도, 병원에 갔어.)

104002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4002 #2 왕 자전거 태왕 간?(와서 자전거 태워서 갔어?)

104002 #1 문○○ 병원이 잇었어. 아이고, 이디 거죽 빠작빠작 뱃겨 불더라이. 요
디영 요디 시 밧디 거죽 작작 뱃겨 뒤근에 소독허영 약 싹 처멘. 게난 성님네 그
오라방네도 서문통 이제 바로 이제 그 집 잇지. 대성한의원 바로 동녱 집게. 높은
집 잇잖아, 건물. 그 건물 바로 우녱 집이 제일 양복점이라. 그디 사니까 방 하나에
점방 하나에 살아. 방 두 개도 아니라. 겐 나 놀 디가 없어.(문○○ 병원이 있었어.
아이고 여기 가죽 빠작빠작 뱃겨 버리더라. 여기랑 여기 세 군데 가죽 작작 뱃겨
두고 소독해서 약 싹 처맸어. 그러니까 형님네 그 오라버니네도 ‘서문통’ 이제 바로
이제 그 집 잇지. 대성한의원 바로 동쪽 집. 높은 집 잇잖아, 건물. 그 건물 바로 위
쪽 집이 제일 양복점이야. 거기 사니까 방 하나에 점방 하나에 살아. 방 두 개도 아
니야. 그래서 내가 누울 데가 없어.)

104002 #2 그렇지.(그렇지.)

104002 #1 그디 살민, 바이다¹⁶⁸ 아래 그 재단흐는 그 우이 상 그 아래 바이다엔
허여. 그 아래 요 깔앙 자, 나가. 방 엇으난게.(거기 살면, ‘바이다’ 아래 그 재단하
는 그 위에 서서 그 아래 ‘바이다’라고 해. 그 아래 요 깔아서 자, 내가. 방 없으니
까.)

104002 #2 그렇지.(그렇지.)

104002 #1 겐 그디서 일주일 살았어. 병원 다니멍.(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살았어.
병원 다니면서.)

104002 #2 그디서?(거기서?)

104002 #1 으. 겐 그디 강 사난, 말째 식계가 돌아와, 제사. 제사가 돌아와 가난
찰룩찰룩허멍 걸어전게.(으. 그래서 거기 가서 사니까, 말째 제사가 돌아와, 제사.
제사가 돌아와 가니까 절룩절룩하면서 걸을 수 있었어.)

104002 #2 스촌오라방도 잘했저야.(사촌오라버니도 잘했네.)

104002 #1 ○○이 오라방이 강게 버랭이 바글바글헤부난 경흐난 그 통에 그냥,

168) ‘바이다’는 일본어 ‘베니다(べにいた)’에서 온 말로 합판을 가리킨다.

그냥 뛰어완.(○○이 오라버니가 가서 벌레 바글바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통에 그냥, 그냥 뛰어왔어.)

104002 #2 겐 돌아왕 죽전게 실렁 간? 게도 고맙다야.(그래서 달려와서 자전거 실어서 갔어? 그래도 고맙네.)

104002 @ 계난 경 안 헤시믄 어떻힐 뻔헛수과?(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104002 #2 진짜로 어머니 아버지 싯곡 헛디이.(진짜로 어머니 아버지 있고 한테.)

104002 #1 아니, 셋오라방이 막 착허여.(아니, 둘째 오라버니가 아주 착해.)

104002 @ 찢룩찢룩 결혼도 못헛 뻔헛네.(찢룩찢룩 결혼도 못할 뻔헛네.)

104002 #1 우리 오라바님은 아래.(우리 오라버님은 아래.)

104002 @ 이건 진짜로 재밋다예.(이건 진짜로 재밋네요.)

104002 #1 아이고, 나 그때, 그냥 쉼뚱으로만 불랑은에 다른 건 헛꿈도 안 헛근 에에, 하하하하.(아이고, 나 그때, 그냥 소뚱으로만 발라서 다른 건 조금도 안 하고, 하하하하.)

104002 #2 큰큰헛 쉼 뽀아근에 빼영 몬 상헛 거 내부난게.(크디큰 소 뽀아서 빼랑 모두 상한 거 내버리니까.)

104002 #1 어리니까 빼 안 상헛 거라이. 빼는 안 상헛 생이라 계난. 빼 상헛시믄 찢룩찢룩헛 건디, 술만 떼전. 밍클락헛.(어리니까 빼 안 상헛 거야. 빼는 안 상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빼 상헛으면 찢룩찢룩할 건데, 살만 떼지고. 뭉글해서.)

104002 @ 변상도 못 받고?(변상도 못 받고?)

104002 #1 그때 뽀상이 싯느냐?(그때 뽀상이 있니?)

104002 @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104002 #1 왕 볼 생각도 안 헛고. 중뚱¹⁶⁹⁾ 박 서방이엔 중뚱 박 서방이엔 허연. 박썩 박썩디 뚱을 잘 꺾어이. 방꺽 뚱기명도 박, 박 허난.(와서 볼 생각도 안 하고. ‘중뚱’ 박 서방이라고 ‘중뚱’ 박 서방이라고 헛어. 박썩는 박썩인데 뚱을 잘 꺾어. 방꺽를 다니면서도 박, 박 하니까.)

104002 #2 계난 중뚱 박 서방 불럿주게.(그러니까 ‘중뚱’ 박 서방 불럿지.)

104002 @ 박썩가 아난테?(박썩가 아난테?)

104002 #1 박썩 박썩디 중뚱을 헛헛헛 방구 막 꺾 노난 중뚱 박서방. 겐디 이제 는 그 썩가 없어. 사삼스건 후에 어디 아이덜 나가 불언 안 들어완게.(박썩는 박썩인데 ‘중뚱’을 헛헛헛, 방꺽 마구 꺾어 놓으니까 ‘중뚱’ 박서방. 그런데 이제는 그 썩가 없어. 사삼사건 후에 어디 아이들 나가 버려서 안 들어왔어.)

104003 @ 아이고.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잠대로 헛영 밧 가는 겐로?(아이고.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쟁기로 해서 밧 가는 겐로?)

104003 #1 밧 가는 겐로. 출도 시껴 오고, 짐 실러 오고 밧 갈곡 허지.(밧 가는 겐로. 꼴도 실어 오고, 짐 실어 오고 밧 갈고 하지.)

169) ‘중뚱’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의 하나다. 마을 가운데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4003 #2 밧 갈곡게.(밭 갈고.)

104003 #1 옛날에는이.(옛날에는.)

104003 #2 농사지민 농사들을, 거 농사지은 거를 해 시켜왔주.(농사지으면 농사들을, 거 농사지은 거를 많이 실어왔지.)

104003 #1 사람은 혼 놈역 허는디 소는 두 놈역 헌덴 해. 소는 맥이면은 자기도 먹곡, 자기 먹을 것도 허곡 주인도 맥인덴 해. 소는 두 놈역 헌데 해.(사람은 한 놈역 하는데 소는 두 놈역 한다고 해. 소는 먹이면 자기도 먹고, 자기 먹을 것도 하고 주인도 먹인다고 해. 소는 두 놈역 한다고 해.)

104003 #2 두 놈역 헌덴 헛주게.(두 놈역 한다고 했지.)

104003 #1 사람은, 아멩 잘허느렌 해도 혼 놈역 소는 두 놈역 어른덜 말이, 어른덜 말에. 두 놈역 흐는 말을 몰라?(사람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 놈역 소는 두 놈역 어른들 말이, 어른들 말에. 두 놈역 하는 말을 몰라?)

104003 #2 아니 허게 웬 거주게.(아니 하게 된 거지.)

104003 #1 세니까?(세니까?)

104003 #2 세니까게. 농사저도 소가 다 날라 오니까. 주인 먹을 것도 날라 오니까 두 놈역 허는 거주게.(세니까. 농사저도 소가 다 날라 오니까. 주인 먹을 것도 날라 오니까 두 놈역 하는 거지.)

104003 #1 아멩 잘난 책해도 사람은 혼 놈역이라게. 소는 두 놈역이라도 경, 경 굴아.(아무리 잘난 책해도 사람은 한 놈역이야. 소는 두 놈역이어도 그렇게, 그렇게 말해.)

104003 #2 옛날 어른덜 경 굴아났어.(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었어.)

104003 #1 잘난 책해도 혼 놈역.(잘난 책해도 한 놈역.)

104003 @ 검은소는 아니고 그냥 황쇄 키웠지예?(검정소는 아니고 그냥 황소 키웠지요?)

104003 #1 우리는 검은손 안 질러 뵈.(우리는 검정소는 안 길러 뵈어.)

104003 #2 우리도 검은소는 안 질러 뵈어.(우리도 검정소는 안 길러 뵈어.)

104003 #1 맨날 황소만 길러 뵈. 황소만 질르고 암소도 안 질러 뵈. 그 부룽이만 질러.(매일 황소만 길러 뵈어. 황소만 기르고 암소도 안 길러 뵈어. 그 부록소만 길러.)

104003 @ 밧 갈젠 그추룩 헛구나.(밭 갈려고 것처럼 헛구나.)

104003 #1 그 부룽이 질랑 그 불까는 것만.(그 부록소 길러서 그 불까는 것만.)

104003 @ 밧 갈젠 해도 이거 길들여사 웬덴 허멍예, 질들여사.(밭 갈려고 해도 이거 길들여야 된다고 하면서요, 길들여야.)

104003 #2 예, 처음부터 잘 가르쳐 줘야.(예, 처음부터 잘 가르쳐 줘야.)

104003 @ 걸 어떻 질들입니까?(걸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3 #1 우린 아버지네가 허지 못헿.(우린 아버지네가 하지 못해서.)

104004 #2 길들이젠 허면은.(길들이려고 하면은.)

104004 #1 젊은 사람이 해.(젊은 사람이 해.)

104004 #2 혼 사람은 앞으로 그 쉼줄 잇잖아, 걸러 매는 줄.(한 사람은 앞으로 그 소줄 잇잖아, 걸러 매는 줄.)

104004 #1 이끄는 거, 쉼석.(이끄는 거, 쇠고삐.)

104004 @ 쉼석?(쇠고삐?)

104004 #2 예, 줄을 이제 혼 사람은 앞에서 그 소를 끌어.(예, 줄을 이제 한 사람은 앞에서 그 소를 끌어.)

104004 #1 경 허기 전에 돌 끄어근에 질렐 막 다녀. 돌 끄엉.(그렇게 하기 전에 돌 끌어서 길에 마구 다녀. 돌 끌어서.)

104004 #2 게메.(글쎄.)

104004 #1 우리 그 이제 ○○이 아버지.(우리 그 이제 ○○이 아버지.)

104004 #2 으.(으.)

104004 #1 셋어무니 큰아덜이 일을 잘해. 게민 우리 그 오라방더레 몇 번을 쉼 ㄱ리쳐. 게민 그냥 그 돌 뒤에 끄어근에 쉼 이경 막 세게 막 빨리 걸어.(둘째어머니 큰아들이 일을 잘해. 그럼 우리 그 오라버니에게 몇 번을 소를 가르쳐. 그럼 그냥 그 돌 뒤에 끌어서 소 이끌어서 마구 세게 마구 빨리 걸어.)

104004 #2 끄엉 텅기는 것도, 너도 잘 모르는 거라. 돌 끄엉 텅기는 것도 부롱이는 돌 끄엉 텅기는데.(끌고 다니는 것도, 너도 잘 모르는 거야. 돌 끌고 다니는 것도 부록소는 돌 끌고 다니는데.)

104004 #1 우린 부롱이만 매니까.(우린 부록소만 매니까.)

104004 #2 암소는 그런 게 없어.(암소는 그런 게 없어.)

104004 #1 으.(으.)

104004 #2 암소는 순허기 때문에, 약허고 순허기 때문에 그런.(암소는 순하기 때문에, 약하고 순하기 때문에 그런.)

104004 #1 우리는 계속 부롱이만 매난.(우리는 계속 부록소만 매니까.)

104004 #2 그렇지. 그런 거 없이 부롱이는 위낙 쉼기 때문에 억세기 때문에 처음에 질을 들일라면은 큰 둥그런 나무토막이나 돌맹이나 경혜근에게 끄네기 혜근에 뒤로 무꺼근에게 끄엉 막 텅겨근에게 질을.(그렇지. 그런 거 없이 부록소는 위낙 세기 때문에 억세기 때문에 처음에 질을 들이려면 큰 둥근 나무토막이나 돌맹이나 그래서 끈 해서 뒤로 묶어서 끌고 마구 다녀서 질을.)

104004 #1 아고, 나 그 생각.(아이고, 나 그 생각.)

104004 #2 초기는 들이는데, 들여놔 허는데 암소는 그런 게 없어. 암소는 약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초답에 질을 안 들이거든. 사 가지고 그냥 밧디 가서 장기 메와 가지고 남자는 양주머리 심영 영 허고 이제 혼 분은, 남저분이든 여저분이든 혼 분은 줄 잡아근에 영.(초기는 들이는데, 들여놔서 하는데 암소는 그런 게 없어. 암소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처음에 질을 안 들이거든. 사 가지고 그냥 밧에 가서 쟁기 메워 가지고 남자는 양지머리 잡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분은, 남자분이든 여

자분이든 한 분은 줄 잡아서 이렇게.)

104004 #1 이꺼.(이끌어.)

104004 #2 이끄주게.(이끌지.)

104004 #1 나도 건 해놔어.(나도 그건 했었어.)

104004 #2 밧 불리민 영.(발 밟으면 이렇게.)

104004 #1 셋년아 쉼 이끄라, 쉼 이끄라 행.(둘째야, 소 이끌어라, 소 이끌어라 해서.)

104004 #2 쉼 이끄렌 행 이끄민 뒤에서 남자분은 장기 심어근에 영 갈기 시작행 허면은 착헌 거는 이끈 대로 졸졸 가면 돼는디 착허지 안헌 거는 이레 갖다가 저레 갖다가 막 해 버리면은 뒤에 남자분이 막 성질내어.(소 이끌라고 해서 이끌면 뒤에서 남자분은 쟁기 잡고 이렇게 갈기 시작해서 하면 착한 거는 이끈 대로 졸졸 가면 되는데 착하지 않은 거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구 해 버리면 뒤의 남자분이 마구 성질내어.)

104004 #1 밧 가는 게 안 돼주게.(발 가는 게 안 되지.)

104004 #2 똑바로 안 심영 이끄텐. 경허명 욱 들으명 그걸 허여근에 질을 들여근에 허민 내중에 완전히 질들여 놓면은 사람이 이끌지 안해도 소가 다 알아근에게 졸졸졸졸 메우민 가근에 행 저 엠에 가민 영 돌리민 소가 제대로 돌아왕 또 갈곡 경허는디. 또 이 부룽이는 이끄는 사람을 찢러 불어, 이 빨로.(똑바로 안 잡고 이끈다고. 그러면서 욱 들으면서 그걸 해서 길을 들여서 하면 나중에 완전히 질들여 놓으면 사람이 이끌지 않아도 소가 다 알아서 졸졸졸졸 메우면 가서 해서 저 옆에 가면 이렇게 돌리면 소가 제대로 돌아와서 또 갈고 그러는데. 또 이 부룽소는 이끄는 사람을 찢러 버려, 이 빨로.)

104004 #1 하하하.(하하하.)

104004 #2 받아 불어. 게문 그 이끄는 사람은 무서와근에 똑바로 이끄당도 무서왕 못 허잖아.(받아 버려. 그럼 그 이끄는 사람은 무서워서 똑바로 이끌다가도 무서워서 못 하잖아.)

104004 #1 코 켜 이디.(코 켜 여기.)

104004 #2 어.(어.)

104004 #1 코에 켜어. 코에 석 디물앙 게민 영 들어 불민 코 아팡 잉잉잉잉.(코에 켜. 코에 고삐 집어넣어서 그림 이렇게 들어 버리면 코 아파서 잉잉잉잉.)

104004 @ 하하하.(하하하.)

104004 #1 하하하.(하하하.)

104004 #2 경헨 질들여근에.(그렇게 질들여서.)

104004 #1 나 석 디물앙 이꺼난. 버청.(나 고삐 집어넣어서 이끌었었어. 힘들어서.)

104004 #2 우리도 우리도 부룽이 경 해놔어.(우리도 우리도 부룽소 그렇게 했었어.)

104004 #1 영 들러 불민이 코 아팠 영 췌가 막.(이렇게 들어 버리면 코 아파서 이렇게 소가 마구.)

104004 #2 계난 육지 사람덜은 소 커 가민 꿔어근에 뭐 허는 게 경행 허는 거.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은 소 커 가면 꿔어서 뭐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

104004 #1 나 흥나 말할 거 있어이.(나 하나 말할 거 있어.)

104004 @ 으.(으.)

104004 #1 나가이 말해도 돼나? 옛날에는이 일 년에 두 번 거리 질을 다까. 일 년에 두 번. 봄에 흥 번, 팔 월에 흥 번 따까. 경 따끄는디 이 정존동¹⁷⁰⁾ 동네 거리 질을 다끄게 췌어.(나가 말해도 되나? 옛날에는 일 년에 두 번 거리 길을 닦아. 일 년에 두 번. 봄에 한 번, 팔 월에 한 번 닦아. 그렇게 닦는데 이 정존 동네 거리 길을 닦게 췌어.)

104004 #2 다끈텐 허민 아나게? 보수허는 거엔 골아야지.(닦는다고 하면 아냐? 보수하는 거라고 말해야지.)

104004 @ 질 다끈다는 게 보수허는 거짜?(길 닦는다는 게 보수하는 겁니까?)

104004 #1 육지 아난 알주게.(육지 아니니까 알지.)

104004 #2 길 보수허는 거. 육지 아니라도 요즘 사름덜.(길 보수하는 거. 육지 아니라도 요즘 사람들.)

104004 @ 원래 말 보수.(원래 말 보수.)

104004 #1 그래. 다끄난에 허는디 절로 쪽 다까 와근에 허는디 요디 바로 이거 우리 밭이니까 요디로구나, 요디 삼거리가 있었어, 삼거리. 쪽 오당 요디 소릿질 나가는 디가 있어. 그 질가에 뜰돌이엔 흥 돌이, 하난 이만이 크고 그다음은 요만이 그다음은 요만이.(그래. 다끄니까 하는데 저리로 쪽 닦아 와서 하는데 여기 바로 이거 우리 밭이니까 요기로구나, 요기 삼거리가 있었어, 삼거리. 쪽 오다가 요기 오솔길 나가는 데가 있어. 그 길가에 뜰돌이라고 하는 돌이, 하나는 이만큼 크고 그다음은 요만큼 그다음은 요만큼.)

104004 @ 으.(으.)

104004 #1 계민 요건 나룩돌,¹⁷¹⁾ 요거는 콩돌, 요거는 믰말돌, 돌이 세 개라. 이름 지웠어. 돌이 세 개.(그럼 요건 ‘나룩돌’, 요거는 ‘콩돌’, 요거는 ‘믹말돌’, 돌이 세 개야. 이름 지웠어. 돌이 세 개.)

104004 @ 재미있다예.(재미있네요.)

104004 #2 옛날엔 부락마다, 이 저 동네마다 뜰돌이 있어났주게.(옛날에는 부락마다, 이 저 동네마다 뜰돌이 있었어.)

104004 #1 계난 그 뜰돌 큰 건 못 들르고 크니까. 못 들르고 콩돌도 못 들러. 콩¹⁷²⁾이 무거우니까. 믰말돌이 있어. 게 믰말돌이 잇는, 뜰돌이 잇는데 아래 줄을

170) ‘정존동’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171) ‘나룩돌’은 몸을 단련하거나 힘자랑을 하기 위해 들었다 놓았다 하는 돌들 중 하나를 가리킨다. 크기에 따라, ‘믹말돌’, ‘나룩돌’, ‘콩돌’이라고 이름을 붙여 불렀다.

172) 여기서 ‘콩’은 돌들 중 중간 크기의 ‘콩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야 줄로 영 동글락허게 허영 그 줄에 그 돌을 이렇게 놓아서 그 줄을 영
헤영 들러.(그러니까 그 들돌 큰 건 못 들고 크니까. 못 들고 ‘콩돌’도 못 들어. 콩
이 무거우니까. ‘므멀돌’이 있어. 그래 ‘므멀돌’이 있는, 들돌이 있는데 아래 줄을 이
렇게 해야 줄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 줄을 그 돌을 이렇게 놓아서 그 줄을 이
렇게 해서 들어.)

104004 @ 예.(예.)

104004 #1 들르는 걸 해. 경헌디 ○○이 오라방이 느시 못 들러, 그걸. 이렇게 이
렇게 해도 걸. 영 들러야 들르는 건디.(드는 걸 해. 그런데 ○○이 오라버니가 도무
지 못 들어,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해도 걸. 이렇게 들어야 드는 건데.)

104004 #2 요령도 있어야주게.(요령도 있어야지.)

104004 #1 요령은 무신 요령게. 나가 우리 ○○일 업영 왔주게. 게난 걸랭이도
아니고 그냥 알로 업엇어. 업영 오논디 ㄱ만이 상 영 보단에 오라버니 영 험서. 무
사. 나가 혼번 들러 보카 허난 예, 허멘게. 영 험서. 겐 난 줄도 아니 헨게. 줄도 안
헨에 그냥 손에 영 들리지더라. 그거 야기 업은 사람이. 영 들렁 배까지 왔어, 그
돌이. 오니까 요레 가민 광수네 밧이라야.(요령은 무슨 요령. 내가 우리 ○○이를
업고 왔지. 그러니까 띠도 아니고 그냥 아래로 업엇어. 업고 오는데 가만히 서서 이
렇게 보다가 오라버니 이렇게 하세요. 왜. 내가 한번 들어 볼까 하니까 예, 해. 이러
게 하세요. 그래서 난 줄도 아니 했어. 줄도 안 하고 그냥 손에 이렇게 들을 수 있
더라. 그거 야기 업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 배까지 왔어, 그 돌이. 오니까 요리 가
면 광수네 밧이야.)

104004 #2 으.(으.)

104004 #1 광수네 밧 그 우터레 획 올려 불언게, 나가.(광수네 밧 그 위로 획 올
려 버렸어, 내가.)

104004 #2 힘이 세나신게.(힘이 세었네요.)

104004 #1 그 돌을. 그때가 스물일곱이야.(그 돌을. 그때가 스물일곱이야.)

104004 @ 하하하.(하하하.)

104004 #1 스물일곱 설에.(스물일곱 살에.)

104004 #2 한창이주게.(한창이지.)

104004 @ 아까 므멀돌을?(아까 ‘므멀돌’을?)

104004 #1 므멀돌을.(‘므멀돌’을.)

104004 @ 거난.(그러니까.)

104004 #1 나룩돌에 콩돌은 못 들린 므멀돌을. 경허난 이제 그거 본 사람이 ○○
이 하나벳기 었어. ○○이 오라버님, ○○이 맨날 나 봐지민 자이 뭐 므멀돌 들른
아이. 뭐, 쉰 거난 ㄱ딱엇어. 장난으로 경 해.(‘나룩돌’에 ‘콩돌’은 못 들고 ‘므멀돌’
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본 사람이 ○○이 하나밖에 없어. ○○이 오라버님, ○○이
맨날 나 보이면 재 뭐 ‘므멀돌’ 들은 아이. 뭐, 쉰 거니까 까딱없어. 장난으로 그
렇게 해.)

104004 @ 아이고, 대단허다예.(아이고, 대단하네요.)

104004 #1 다른 사람덜은 봄만이고 그 ○○인 야, 그거 못 들르더라이, ○○이가. 줄 놔도, 줄로도 못 들러. 난 줄도 엇이 맨손에 들른다. 들렁 이거 부찌니까이 영 올려져. 아기 업고. 아기도 일로 안 업영 일로만 영 준등이로 업언. 애긴 죽아.(다른 사람들은 보기만이고 그 ○○인 야, 그거 못 들더라, ○○이가. 줄 놔도, 줄로도 못 들어. 난 줄도 없이 맨손에 들었는데. 들어서 이거 붙이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어. 아기 업고. 아기도 이리로 안 업고 이리로만 이렇게 등으로 업었어. 아긴 작아.)

104004 #2 커 올 때도 경 약허게 컷젠 허는디 경 일을 경.(커 올 때도 그렇게 약하게 컷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을 그렇게.)

104004 #1 이제, 이제 그 오라방 생각남신디 ○○이도 막 경허단 죽어부난. 겐 그때 본 사람덜 다 죽어불언게. 그 돌 들을 때 본 사람들이.(이제, 이제 그 오라버니 생각나는데 ○○이도 막 그러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그 돌 들을 때 본 사람들이.)

104004 @ 하하하.(하하하.)

104004 #1 헉나 잇어, 헉나.(하나 잇어, 하나.)

104004 @ 아이고야, 젊었을 때는 힘 센나 보다예?(아이고, 젊었을 때는 힘 세었나 보네요?)

104004 #1 아니, 센 것도 아닌디 그렇게. 하도 어느 때덜 모영, 질 다 다간에 이제 모여 사근에 그걸 헉나 들러 본다고 줄 행 허난.(아니, 센 것도 아닌디 그렇게. 하도 어느 때들 모여서, 질 다 닦아서 이제 모여 서서 그걸 하나 들어 본다고 줄 해서 하나까.)

104004 #2 옛날 청년덜은 막 경헤났어.(옛날 청년들은 마구 그랬었어.)

104004 @ 힘자랑?(힘자랑?)

104004 #2 남자덜은 힘자랑 힘으로.(남자들은 힘자랑 하기로.)

104004 #1 아무도 덤비지 안허연. 들르젠. 아이 덤벼게. 경헌디 하도 못 행 해 가난 혼번 경 무거운가. 돌도 벨로 안 커. 침 믱덜돌이난. 콩돌은 둥그렁허고 나룩돌은 막 커. 경헌디 그거 누게 다 가져가 불언게. 나 밧디 텅기멍, 우리 밧 에염이난 게. 줄자로 막 재염선게 뒷날은 누게 시꺼 가불어선게.(아무도 덤비지 않았어. 들으려고. 안 덤벼. 그런데 하도 못 해서 해 가니까 한번 그렇게 무거운가. 돌도 벨로 안 커. 참 ‘믹덜돌’이니까. ‘콩돌’은 둥그렁고 ‘나룩돌’은 아주 커. 그런데 그거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 나 밧에 다니면서, 우리 밧 옆이니까. 줄자로 마구 재고 있더니 뒷날은 누가 신고 가버렸더라.)

104004 #2 문화재로 시꺼 가불엇주.(문화재로 신고 가버렸지.)

104004 @ 문화재로 시꺼 가민 좋은디예, 개인이 가정 가민 거 나쁜 사람.(문화재로 신고 가면 좋은데요, 개인이 가지고 가면 거 나쁜 사람.)

104004 #1 그때도 사람덜이 뭐 허난 그런 생각을 안 허연.(그때도 사람들이 뭐 하나까 그런 생각을 안 했어.)

104004 #2 안 헛주게.(안 했지.)

104004 #1 유산될 건디, 정존이 유산인데.(유산될 건데, ‘정존’의 유산인데.)

104004 @ 계난.(그러니까.)

104004 #2 **도 퐁방에 뜰돌 두 개나 잇어났어.(**도 연자매 들돌 두 개나 있었어.)

104004 #1 돌 세 개 다 일러불언.(돌 세 개 다 잃어버렸어.)

104004 #2 납읍¹⁷³도 막 여러 개 싣더라. 세 개 잇언. 나 왜가에 왔다 갔다 허멍 보난 납읍 청년덜도 그 농한기에 나왕 막 그거 들렀당 낫당 허멍이. 막 그냥 사거리에 모여정 해근에게.(납읍도 아주 여러 개 있더라. 세 개 있었어. 나 외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납읍 청년들도 그 농한기에 나와서 마구 그거 들었다가 낫다가 하면서. 마구 그냥 사거리에 모여서 해서.)

104004 #1 계난 누게사 굴안 들어산디 우리 ○○가 어머니 돌 들러난? 건 무신 말이나? 어머니 돌 들렀젠 막 곤더라.(그러니까 누가 말해서 들었는지 우리 ○○가 어머니 돌 들었었어? 건 무슨 말이나? 어머니 돌 들었다고 마구 말하더라.)

104004 @ 하하하.(하하하.)

104004 #1 무신 돌? 몰라 무신 돌산디 몰라 돌 들렀덴 어머니. 하하하. 계난 네 어머니 옛날에 돌 들렀젠 누게사 굴아신디 몰라.(무슨 돌? 몰라 무슨 돌인지 몰라. 돌 들었다고 어머니. 하하하.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옛날에 돌 들었다고 누구인지 말했는지 몰라.)

104004 #2 누게 굴앗주.(누가 말했지.)

104004 #1 들은 말이지.(들은 말이지.)

104004 #2 게. 굴안 들어났주.(그래. 말해서 들었었지.)

104004 #1 계난 돌 들러난? 그거 무신 말고, 돌 들러난? 아, 돌사게 담 멀어정 답젠 허민 돌 들러야 답주게. 아니 그런 거 말앙 돌 들러났젠.(그러니까 돌 들었었어? 그거 무슨 말이니, 돌 들었었어? 아, 돌이야 담 허물어지면 썩으려고 하면 돌 들어야 썩지. 아니 그런 거 말고 돌 들었었다고.)

104004 #2 누게 굴앙 들났구나.(누가 말해서 들었었구나.)

104006 @ 쟁기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쟁기를 잠대렌 험니까, 제주도 말로?(쟁기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쟁기를 ‘잠대’라고 합니까, 제주도 말로?)

104006 #1 으, 잠대. 잠대엔도 허고 쟁기엔도 허곡.(으, ‘잠대’. ‘잠대’라고도 하고 ‘쟁기’라고도 하고.)

104006 @ 이거 나중에 또예 췌석, 양지머리 무신거 그거 명칭을 다?(이거 나중에 또요 소고뼈, 양지머리 뭐 그거 명칭을 다?)

104006 #2 양지머리는 거 쟁기에.(양지머리는 거 쟁기에.)

104006 #1 멩에?(멩에?)

173) ‘납읍’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를 말한다.

104006 #2 아니, 아니. 영 심는 게 양주머리지. 심영 영.(아니, 아니. 이렇게 잡는 게 양지머리지. 잡아서 이렇게.)

104006 #1 아.(아.)

104006 #2 손 잡는 거 양주머리. 양작 손으로 영 잡는 게 그게 양주머리주게.(손 잡는 거 양지머리. 양쪽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게 그게 양지머리지.)

104007 @ 그다음 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마가 쉼질메, 질메렌 헤신가?(그다음 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마가 소길마, 길마라고 했는가?)

104007 #1 으.(으.)

104007 #2 질메.(길마.)

104008 @ 질메예. 멩에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길마요. 멩에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8 #2 멩엔 그 밧 갈 때에 이 모가지에, 모가지에 나무 영 꼬부라지게 만들 주게. 만들아근에 가운데로 구멍을 두 개 뚫어. 똑바로. 가운데로 고망을 두 개 뚫어근에게 딱시 나뭇가지를 요만큼, 요만큼 한 거 두 개 구워근에게 영 꼬부라지게 만들아근에 이 위에 꼭지 신 걸 해야 돼.(멩에는 그 밧 갈 때에 이 모가지에, 모가지에 나무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들지. 만들어서 가운데로 구멍을 두 개 뚫어. 똑바로. 가운데로 구멍을 두 개 뚫어서 또 나뭇가지를 요만큼, 요만큼 한 거 두 개 구워서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이 위에 꼭지 있는 걸 해야 돼.)

104008 @ 예?(예?)

104008 #2 그 나뭇가지 그디 꿰는 거를 두 개를 만드는데 우에는 꼭지를.(그 나뭇가지 거기 꿰는 거를 두 개 만드는데 위에는 꼭지를.)

104008 @ 꼭지.(꼭지.)

104008 #2 꼭지 있어야 돼. 경해야 그 쉼 멩에 그 나무 구멍 두 개 뚫은 딜로 그 나뭇가지 두 개 꿰영 이레 내려와근에 영, 그게 영.(꼭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소 멩에 그 나무 구멍 두 개 뚫은 데로 그 나뭇가지 두 개 꿰어서 이리 내려와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104008 #1 우리 집이 쉼 멩에영 잠대 느네 아방이 다 가져가드라. 문화재 허켄. (우리 집의 소 멩에랑 쟁기 너희 아버지가 다 가져가더라. 문화재 하겠다고.)

104008 @ 하하.(하하.)

104008 #2 아덜이 우리 옥상에 낫당 데껴사 붙어신디 지금 신디사 모르켜게.(아들이 우리 옥상에 났다가 던져 버렸는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104008 @ 찾아 봅서.(찾아 보세요.)

104008 #1 쟁기도?(쟁기도?)

104008 #2 아, 쟁긴 었어.(아, 쟁기는 없어.)

104008 #1 쟁기영 멩에영. 아주머니 가져가쿠파? 우리 갓당 뭐 험니까? 아방도 가 불고 한 때에.(쟁기랑 멩에랑. 아주머니 가져가겠습니까? 우리 가져다가 뭐 합니

까? 아버지도 가 버리고 한 때에.)

104008 #2 멩엔 무시것에 비료 푸대에 담앙 이신디사 몰르크라.(멍에는 뭐에 비료 푸대에 담아서 있는지 모르겠어.)

104008 #1 멩에영 잠대영 그거 줍서 허멍.(멍에랑 쟁기랑 그거 주세요 하면서.)

104008 #2 경혜영 나무때기로 꼭질 만들어야 구멍더레 꿰어도 빠지지 아니허게. 턱저근에게 턱지게 만들야. 겐 두 개 영 꿰근에게 나뭇가지도 비틀어지게 불에 영 구멍 영 휘와. 영 쪼라지게 영 휘영 그거 꿰근에게 영행 모가지 일로 꿰왕 딱시 무꺼, 꼬네기 해근에. 든든헌 꼬네기 해근에게 무꺼야 이게 그 힘으로 쟁길 땡기는 거라.(그래서 나무때기로 꼭지를 만들어야 구멍에 꿰어도 빠지지 않게. 턱저서 턱지게 만들어. 그래서 두 개 이렇게 꿰어서 나뭇가지도 비틀어지게 불에 이렇게 구우면서 이렇게 휘게. 이렇게 조여지게 이렇게 휘어서 그거 꿰어서 이렇게 모가지 이리로 꿰어서 또 묶어, 끈 해서. 든든한 끈 해서 묶어야 이게 그 힘으로 쟁기를 당기는 거야.)

104008 @ 으.(으.)

104008 #1 소 야가게 딱 썩왕.(소 목 딱 썩워서.)

104008 #2 그 남으로, 둥근 남으로 이레 썩왕 그 가운데 구멍 두 개 뚫은 것에 또 나무때기 두 개 잇게 만들앙 딱시 불에 구멍 휘어지게 영 비틀어지게 휘어지게 그걸 두 개 쪼아근에게 요레 와근에게 영 마주 영 해근에게 이젠 꼬네기 질게 해근에 영 무꺼.(그 나무로, 둥근 나무로 이리 썩워서 그 가운데 구멍 두 개 뚫은 것에 또 나무때기 두 개 잇게 만들어서 또 불에 구우면서 휘어지게 이렇게 비틀어지게 휘어지게 그걸 두 개 쪼아서 요리 와서 이렇게 마주 이렇게 해서 이제는 끈 길게 해서 이렇게 묶어.)

104008 #1 막 못 견디주, 쉼 그거.(아주 못 견디지, 소 그거.)

104008 #2 무꺼근에게 그거 힘으로 소가 땡기민 밧 갈아지게.(묶어서 그거 힘으로 소가 당기면 밧 갈아지게.)

104008 @ 멩에예?(멍에요?)

104008 #2 멩에, 그게 멩에고.(멍에, 그게 멩에고.)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노형에도 잇엇수파?(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노형에도 있었습니까?)

104009 #1 잇고 말고게.(잇고 말고.)

104009 #2 목장은 일 년에 한번. 봄 돼면은.(목장은 일 년에 한번. 봄 돼면은.)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4009 #1 목장은 그냥이 사름 하나 그 여름 나 가민 보리 줘이. 보리 닷 돼씩 줘근에 사름 하나 상 관리해. 케왓 보는 하르방엔 헨. 케왓¹⁷⁴⁾ 보는 사름 정허영. (목장은 그냥 사람 하나 그 여름 돼 가면 보리 줘. 보리 닷 되씩 줘서 사람 하나 사

174) '케왓'은 '케+왓'의 구성으로, 목장을 말한다. '케'는 지역의 공동 농경지로 마을의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땅을 말한다. '왓'은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서 관리해. ‘케왓’ 보는 사람 정해서.)

104009 #2 그거 관리허기 전에 그 동네 사람덜이.(그거 관리하기 전에 그 동네 사람덜이.)

104009 @ 테우리엔 험니까, 테우리?(‘테우리’라고 합니까, ‘테우리’?)

104009 #1 테우리는 소 먹이는 게 테우리고 케왓 보는 하르방엔 허여. 케왓 보는 하르방.(‘테우리’는 소 먹이는 게 ‘테우리’고 ‘케왓’ 보는 할아버지라고 해. ‘케왓’ 보는 할아버지.)

104009 @ 예?(예?)

104009 #1 케왓 보는 하르방이엔 허여.(‘케왓’ 보는 할아버지라고 해.)

104009 @ 케왓?(‘케왓’?)

104009 #1 케왓.(‘케왓’.)

104009 @ 케왓은?(‘케왓’은?)

104009 #2 목장, 목장.(목장, 목장.)

104009 #1 목장ㄹ라 케왓이엔 곁아.(목장보고 ‘케왓’이라고 말해.)

104009 @ 아.(아.)

104009 #2 목장 돌보는 사람.(목장 돌보는 사람.)

104009 #1 그냥 케왓이렌 곁아. 목장이엔 곁아.(그냥 ‘케왓’이라고 말해. 목장이라고 말해.)

104009 @ 케왓 보는 하르방.(‘케왓’ 보는 할아버지.)

104009 #1 으.(으.)

104009 @ 테우리엔 안 행예?(‘테우리’라고 안 하고요?)

104009 #1 테우리는 소 먹이는 게 테우리지.(‘테우리’ 소 먹이는 게 ‘테우리’지.)

104009 @ 소 먹이는 사람?(소 먹이는 사람?)

104009 #1 으, 소만 그냥 목장에 살명, 그냥 올려근에이 내내 이녁 사람 아이 강 그 사름이 그냥 주어근에 봄에 가면은 겨울에, 밧 갈 때까지 먹여 주는 사람이 있어.(으, 소만 그냥 목장에 살면서, 그냥 올려서 내내 자기 사람 안 가고 그 사람 그냥 줘서 봄에 가면은 겨울에, 밧 갈 때까지 먹여 주는 사람이 있어.)

104009 #2 소 마탕 관리허는 사람 보고.(소 말아서 관리하는 사람 보고.)

104009 #1 돈 반양. 멧 사람이 경 이녁네 거 허게 못허게 돼민이. 우린 게도 경은 안 해 봤어. 아버지 강 멧 번은 보양 와. 테우리 메껴 보지 안허연.(돈 받아서. 멧 사람이 그렇게 자기네 거 하게,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해 봤어. 아버지 가서 몇 번은 보고 와. ‘테우리’ 맡겨 보지 않았어.)

104009 @ 목장 많아났수과, 멧 마리 키와났수과? 삼촌은 어떻 멍에 그런 거꺼지 다 알 정도로 소를 다?(목장 많았었습니까, 멧 마리 키웠었습니까? 삼촌은 어떻게 멍에 그런 거까지 다 알 정도로 소를 다?)

104009 #2 소를 집이 메영 자꾸 관리허곡게.(소를 집에 매서 자꾸 관리하고.)

104009 #1 쉼 멍엔 밧 가는 사름은 다 잇지.(소 멍에는 밧 가는 사름은 다 있지.)

104009 #2 으.(으.)

104009 #1 집집마다 다.(집집마다 다.)

104009 #2 밭 가는 것도 봐근에 허는 거 봐나난.(밭 가는 것도 봐서 하는 거 봤었으니까.)

104009 @ 땃 마리 키와낫수과?(땃 마리 키웠었습니까?)

104009 #1 우리네이 소 하나, 물 하나. 소도 부룽이 물도 그냥 출 시경 탕기는 거 그냥. 물은 불 안 치는 거니까. 호호호. 물은 그냥 솟물 하나 질르고 암물도 아니, 솟물 하나.(우리는 소 하나, 말 하나. 소도 부록소 말도 그냥 풀 실어서 다니는 거 그냥. 말은 불알 안 치는 거니까. 호호호. 말은 그냥 수말 하나 기르고 암말도 아니, 수말 하다.)

104009 #2 소 큰 거 작은 거 송아지, 새끼ㄷ장 행 세 마리 네 마리.(소 큰 거 작은 거 송아지, 새끼까지 해서 세 마리 네 마리.)

104009 #1 우린 암소 안 행 언제나 부룽이 하나 메당.(우리는 암소 안 하고 언제나 부록소 하나 매다가.)

104009 @ 아버지가 그런 거 잘하시고? 아덜덜은, 형제가 어떻 돼마씨?(아버지가 그런 거 잘하시고? 아들들은, 형제가 어떻게 돼요?)

104009 #2 난 오 남매에 만이.(난 오 남매에 만이.)

104009 @ 아, 만이니까 경 일을 잘했구나예?(아, 만이니까 그렇게 일을 잘했군요?)

104009 #2 으, 만이난 나가 주장행 나가 모든 게, 아버지영 ㄴ찌.(으, 만이니까 내가 주장해서 내가 모든 게, 아버지랑 같이.)

104009 @ 아.(아.)

104009 #2 계난 아침 새벽이 일어남 출밧디도 아버지영 ㄴ찌. 밧딧일은 주로 아버지영 ㄴ치. 우리 어무닌 겨울 들어도 그 미, 그 무시거라, 길쌈.(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꼴밭에도 아버지랑 같이. 밧일은 주로 아버지랑 같이. 우리 어머닌 겨울 들어도 그 미, 그 뭐야, 길쌈.)

104009 @ 아, 것도 물어봐야.(아, 것도 물어봐야.)

104009 #2 뭐 길쌈허느라고 집이 가정 살림을 안 살았어.(뭐 길쌈하느라고 집의 가정 살림을 안 살았어.)

104009 @ 납읍예, 납읍이난 경 잘했구나.(납읍요, 납읍이니까 그렇게 잘했구나.)

104009 #1 납읍¹⁷⁵⁾이 아니지. 어디?(납읍이 아니지. 어디?)

104009 #2 우리 웨가에는 한림¹⁷⁶⁾인디.(우리 외가에는 한림인데.)

104009 #1 선돌¹⁷⁷⁾이엔 허여, 선돌.(‘선돌’이라고 해, ‘선돌’.)

104009 #2 선돌 우리 어린 때에 막.(‘선돌’ 우리 어렸을 때에 막.)

104009 #1 선돌 할머니, 선돌 할머니.(‘선돌’ 할머니, ‘선돌’ 할머니.)

175) ‘납읍’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를 말한다.

176)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를 말한다.

177) ‘선돌’은 한림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104009 @ 선돌이민 어디파?('선돌'이면 어딴니까?)

104009 #2 한림.(한림.)

104009 @ 명월?(명월?)

104009 #2 명월¹⁷⁸⁾이 아니고 저 한림 동녘 선돌이엔 현 마을이 있어.('명월'이 아니고 저 한림 동녘 '선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

104009 #1 선돌이엔 허여. 선돌 할망, 선돌 할망.('선돌'이라고 해. '선돌' 할머니, '선돌' 할머니.)

104009 #2 올 어무니 결혼허기 전에.(우리 어머니 결혼하기 전에.)

104009 @ 딸 하나?(딸 하나?)

104009 #2 아니, 둘인디 스몫 밑에주게, 스몫 밑에난.(아니, 둘인데 사몫 밑이지, 사몫 밑이니까.)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 쉼뿔 뭐 이런 거라던가 녀 난 적은 없고예?(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 쉼뿔 뭐 이런 거라던가 녀 나간 적은 없고요?)

104010 #2 그런 적은 없고.(그런 적은 없고.)

104010 @ 아버지도 잘, 겐 열 멧 설까지 키워 본 적, 오랫동안 키우고?(아버지도 잘, 그래서 열 멧 살까지 키워 본 적, 오랫동안 키우고?)

104010 #2 세 설만 돼민, 두 설만 돼민 송아지 낳 두 설, 세 설 돼민 팔아 불주게. 게난 우리는 그 암소를 메는 이유가 그 새끼 나근에 폴앙 돈 받을 생각해근에 게 암소를 메낫주게.(세 살만 되면, 두 살만 되면 송아지 낳아서 두 살, 세 살 되면 팔아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암소는 매는 이유가 그 새끼 낳아서 팔아서 돈 받을 생각해서 암소를 땀었지.)

104010 @ 새끼 난예, 폴젠예?(새끼 낳아서요, 팔려고요?)

104010 #1 우린 시 성제 집이 문딱 부룻이만 땀어. 암췌 안 메여.(우린 세 형제 집에 모두 부룻소만 땀어. 암소는 안 매.)

104010 #2 우린 셋아버지네도 암췌 메연 땀 므리 메연.(우리는 둘째아버지도 암소 매어서 땀 마리 땀어.)

104010 #1 거는 돈 벌젠 거라이.(거는 돈 벌려고 거지.)

104010 #2 어.(어.)

104010 #1 돈을 보젠.(돈을 보려고.)

104010 #2 땀 므리 메여근에 허고.(땀 마리 매어서 하고.)

104010 #1 아메도 돈이 더 가지, 암소가. 새끼 나는 거난. 우린 그런 건 없어. 시집이 다 부룻이만 메여.(아무래도 돈이 더 가지, 암소가 새끼 나는 거니까 우린 그런 건 없어. 시집에 다 부룻소만 매.)

104010 @ 밧 갈 때 아부지 이렇게 아까처럼 막 이렇게 헤 보고, 노형에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허는 사람이 잇수케. 완전 잘해 가지고?(밭 갈 때 아버지 이렇게 아

178) '명월'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를 말한다.

까처럼 마구 이렇게 해 보고, 노형에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 잘해 가지고?)

104010 #1 전문이로 경 늙이 쉼 그리쳐 주는 사람 벨로 엇어. 우리 친족끼리 우린 스춘 오빠가 잘허니까 흥뽀 어수선할 땐 스춘 오빠가 오라근에 흥를 밧 확 갈고 허민이 그 밧이 쉼가 쭈글쭈글해. 죽은아방보단 형님 아덜이 더 잘해.(전문으로 그렇게 남의 소 가르쳐 주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 친족끼리 우리는 사춘 오빠가 잘하니까 조금 어수선할 때는 사춘 오빠가 와서 하루 밧 확 갈고 하면 그 밧에 소가 ‘쭈글쭈글해’. 작은아버지보다는 형님 아들이 더 잘해.)

104010 @ 그분 돌아가션마씨?(그분 돌아가셨어요?)

104010 #1 사삼사건에 가션.(사삼사건에 가셨어.)

104010 #2 사삼사건에 갓주게.(사삼사건에 갔지.)

104010 #1 잘도 착헌 오빠.(아주 착한 오빠.)

104010 @ 밧 가는 소리 혹시 아부지 해난 거 기억나는 거 엇수과?(밧 가는 소리 혹시 아버지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4010 #2 밧 가는 소린 못 들어 뵈.(밧 가는 소리는 못 들어 뵈어.)

104010 #1 밧 가는 소리 웨게, 머시끼 허민게 머식 머식. 경헐 머식 허민 쉼가 지르륵 가.(밧 가는 소리 쳐, 이러 하면 이러, 이러. 그렇게 이러 하면 소가 ‘지르륵’ 가.)

104010 #2 거 읍에, 읍에 벳줄 메주게. 벳줄 메민 그걸로 착.(거 옆에, 옆에 붓줄 매지. 붓줄 매면 그걸로 착.)

104010 #1 것마라 가린석¹⁷⁹⁾이엔 해, 가린석.(것보고 ‘가린석’이라고 해, ‘가린석’.)

104010 #2 가린석으로 착 베떼기 때리면 쉼가 그냥 싹 허게 땡겨. 한걸리 헛당 때리면. 맞으면 아프니까게.(‘가린석’으로 착 베떼기 때리면 소가 그냥 싹 하게 당겨. 한가히 했다가 때리면. 맞으면 아프니까.)

104010 @ 머시끼가 무슨 말이파?(이러가 무슨 말입니까?)

104010 #1 머싹 흥 말 흥저 글라 흥는 거라이. 사름 거트민 머싹 허는 거.(이러 하는 말 어서 가자 하는 거야. 사람 같으면 이러 하는 거.)

104010 @ 노래나 해 봄서.(노래나 해 보세요.)

104010 #1 노래. 밧 불리는 소릴¹⁸⁰⁾ 흥번 혈까?(노래. ‘밧 불리는 소리’를 한번 할까?)

104010 #2 밧 가는 소리 허는 건 못 들어보고.(밧 가는 소리 하는 건 못 들어보고.)

104010 @ 밧 불리는 거나.(밧 밟는 거나.)

104010 #1 밧 불리는 소린이 우리 아버지, 든 조 불릴 때 오후 뒤희 흥 세 시쯤

179) ‘가린석’은 밧을 갈 때, 소를 물거나 부리려고 좌우 뿔에 잡아매어 쟁기의 손잡이인 양지머리까지 닿는 두 가닥의 기다란 줄을 말한다.

180) ‘밧 불리는 소리’는 조를 파종하고 나서 마소를 이용하여 흙을 다지며 불렀던 노동요를 말한다.

웨민 우리 그 사촌 오빠가 조 할 때 ㄴ찌 허니까, 우리 집 큰 밧 이시난 그때 할 때 왕, 밧 다 갈아 불민 밧 가는 쉼도 메왕 허민 앞이 탁 이꺼근에 게민 그때는 소리 둘이가 허젠 아버지도 뒤로 와.(‘밧 불리는 소리’는 우리 아버지, 모두 조 밧을 때 오후 돼서 한 세 시썸 되면 우리 그 사촌 오빠가 조 할 때 같이 하니까, 우리 집 큰 밧 있으니까 그때 할 때 와서, 밧 다 갈아 버리면 밧 가는 소도 메워서 하면 앞에 탁 이꺼어서 그럼 그때는 소리 둘이 하려고 아버지도 뒤로 와.)

104010 #2 그렇지.(그렇지.)

104010 #1 뒤로, 쉬당. 조케 왕 해 주민 쉬당 뒤로 오고. 오빠 혼번 허민 아버지 혼번 허곡 겐 그 밧 다 불리도록 허민 잘도 한결허고이 소리 들으멍이 지치질 안 해.(뒤로, 쉬다가. 조카 와서 해 주면 쉬다가 뒤로 오고. 오빠 한번 하면 아버지 한번 하고 그래서 그 밧 다 밧도록 하면 아주 한가하고 소리 들으면서 지치지 않아.)

104010 @ 아, 그니까 소리가 중요헌 거 그거우다.(아,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한 거 그겁니다.)

104010 #1 지치질 안허여. 게민 쉼 어덜덜덜덜 영 영 허민 쉼이 덜덜덜덜 걸어. 영 할 때 얼덜덜덜 허는 소리에. 어랑 하랑 허여 놓고 느도 혼발 나도 혼발 걸어라. 해는 서산에 다 떨어점저. 어덜덜덜덜 또 허당, 어랑 하랑 허멍 밧 불리난 정신도 시원하다. 어덜덜덜덜. 영 행 우리 사촌 오빠가. 경허다근에, 어 하아랑. 끝에. 막 쉼 돌려. 겐 우리 아버지도 그건 잘헌디 아버지 허는 건 못 허크라. 아버지 자꾸 들으니까 아버지 벨로 혼번씩 그냥.(지치질 않아. 그럼 소 어덜덜덜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가 덜덜덜덜 걸어. 이렇게 할 때 얼덜덜덜 하는 소리에. 어랑 하랑 해 놓고 한발 나도 한발 걸어라. 해는 서산에 다 떨어진다. 어덜덜덜덜 또 하다가, 어랑 하랑 하면서 밧 밧으니까 정신도 시원하다. 어덜덜덜덜. 이렇게 해서 우리 사촌 오빠가. 그러다가, 어 하아랑. 끝에. 마구 소 돌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건 잘했는데 아버지 하는 건 못 하겠어. 아버지는 자꾸 들으니까 아버지는 별로 한번씩 그냥.)

104010 #2 우리 아부진 워낙 목청이 좋은 밧이 떠나게 잘허여.(우리 아버지는 워낙 목청이 좋아서 밧이 떠나게 잘해.)

104010 #1 우리 아부지도 목청은 아주 좋아.(우리 아버지도 목청은 아주 좋아.)

104010 #2 우리도 셋아버지허고 우리허고 어울려근에 여름 농사할 땐 허주게. 경 허민 조는 조 파종은 우선 불리기 위해서 아니 할 수가 없어. 겐 합작해영 ㄴ찌 허영 허민 쉼 두세 개 행 갈양 다 ㄴ짜지면은 그 밧 갈던 쉼도 풀어 놔근에 같이 연저근에게 불리는 디 ㄴ찌 허영 허민. 뒤에 와근에 아부지 성제덜이 사근에게 허영 소리해 가민 뭐 시간 간 중도 모르고 일헤진 거 닻지 아녀.(우리도 둘째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어울려서 여름 농사할 때는 하지. 그러면 조는 조 파종은 우선 밧기 위해서 아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합작해서 같이 해서 하면 소 두세 개 해서 갈아서 다 마치면 그 밧 갈던 소도 풀어 놓아서 같이 연 지어서 밧는 데 같이 해서 하면. 뒤에 와서 아버지 형제들이 서서 해서 소리해 가면 뭐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일한 거 같지 않아.)

104010 #1 우리 아버지 일 잘하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 이실 때 밭을 제일 좋은 밭을 우리 아버지가 줬텐. 우리 아버진 글만 읽으멍 농사를 지지 못허난.(우리 아버지 일 잘하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 있을 때 밭을 제일 좋은 밭을 우리 아버지가 줬다고. 우리 아버지는 글만 읽으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104010 @ 큰아들?(큰아들?)

104010 #1 아니 작은아덜인디.(아니 작은아들인데.)

104010 @ 아.(아.)

104010 #1 할아버진 일찍 가버리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친정이 아라리¹⁸¹⁾라. 아라리 어른인데, 아라리 김씨인데. 작은아덜은 나쁜 밭 주민 누게 병작도 안 헌텐. 일헐충 모르니까 병작을 주젠 허민 좋은 밭을 쥐사 병작이 뒤편에 농사정 산텐. 겐 좋은 밭을 줬어. 겐 주어도 우리 셋아버지 아덜이 경 착해. 우린 강 흐꿈도 안 해 줘. 당신네 거 그날 강 싹 제기제기 못춰 텡 낮만 비습허민 돌아와, 우리 밭디. 거 장기 지고 쉼 아지곡 행. 게난 그 자기 장기로 밭 갈곡 우리 아버지 장기로 갈민 둘이 갈민게.(할아버지는 일찍 가버리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친정이 아라동이야. 아라동 어른인데, 아라동 김씨인데. 작은아들은 나쁜 밭 주면 누구 병작도 안 한다고. 일할 줄 모르니까 병작을 주려고 하면 좋은 밭을 줘야 병작이 되어서 농사지어서 산다고. 그래서 좋은 밭을 줬어. 그래서 주어도 우리 둘째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착해. 우린 가서 조금도 안 해 줘. 당신네 거 그날 가서 싹 빨리빨리 맞춰 두고 낮만 비슷하면 달려와, 우리 밭에. 거 쟁기 지고 소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 장기로 밭 갈고 우리 아버지 쟁기로 갈면 둘이 갈면.)

104010 #2 그렇지.(그렇지.)

104010 #1 그 밭 흐를에 열두 마지길 허젠 허민게.(그 밭 하루에 열두 마지기를 하려고 하면.)

104010 #2 그렇지.(그렇지.)

104010 #1 경헐 다 해 놓민 경 소리 좋게 불려난 생각허민 얼마나 마음이 좋까? 작은아방은 밭도 좋은 거 주고 공부도 가리키고. 우리 셋아버진 일찍 가버리니까, 삼 남매 나 텡 가불엇어. 삼 남매 아니고 사 남매. 딸 하나 아덜 하나 죽어불엇주게, 셋어머닌가. 게난 사 남매 텡 일찍 가버난 우리 셋어머니 그 사 남매 들앙 훌어멍으로 살안게. 저기 이호이동 어른인디.(그렇게 다 해 놓으면 그렇게 소리 좋게 밟았던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작은아버지는 밭도 좋은 거 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우리 둘째아버지는 일찍 가버리니까, 삼 남매 나 두고 가 버렸어. 삼 남매 아니고 사 남매. 딸 하나 아들 하나 죽어버렸지, 둘째어머니인가. 그러니까 사 남매 두고 일찍 가버리니까 우리 둘째어머니 그 사 남매 데리고 훌어머니로 살았어. 저기 이호이동 어른인데.)

104010 #2 으.(으.)

181) '아라리'는 제주시 아라동을 말한다.

104010 #1 경헨 사난 공부도 게난, 공부엔 현 건 옛날에 글청에 강 글 읽는 거라이. 글청도 못 땡겨 봤지게. 셋아버지 빨리 가 부난.(그렇게 사니까 공부도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건 옛날에 글방도 못 다녀 봤지. 둘째아버지도 빨리 가 버리니까.)

104010 #2 그디 딸은 누게라.(거기 딸은 누구야.)

104010 #1 죽어불언게. 막 곱닥해낫덴.(죽어버렸어. 아주 고왔었다고.)

104010 #2 아, 게난 나가 몰르거든.(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거든.)

104010 #1 몰르지. 다섯 설엔가 죽엇덴, 우리 어무니 말이. 딸도 막 고와낫덴. 오라방은 더 말째에, 말째에 죽고. 일본 강 공부허단 왕 죽어불고. 상업학교꺼지 허당. 죽은아덜. 겐디 딸이 먼저 죽어불언.(몰리지. 다섯 살인가 죽었다고, 우리 어머니 말이. 딸도 아주 고왔다고. 오라버니는 더 말째에, 말째에 죽고. 일본 가서 공부하다가 와서 죽어버리고. 상업학교까지 하다가. 작은아들. 그런데 딸이 먼저 죽어버렸어.)

104010 #2 ○○ 아버지가 큰집이고?(○○ 아버지가 큰집이고?)

104010 #1 으, 그 셋오라방 알로 둘 죽엇어. 경허난 나 이제 생각허민 죽은아방 밍지.(으, 그 둘째 오라버니 아래로 둘 죽엇어. 그러니까 나 이제 생각하면 작은아버지 밍지.)

104010 #2 게난 ○○이 아버지 밑으로 둘 죽엇덴 말이라.(그러니까 ○○이 아버지 밑으로 둘 죽었다는 말이야.)

104010 #1 으. 죽은아방은 공부도 시켰지, 할무니가.(으, 작은아버지는 공부도 시켰지, 할머니가.)

104010 #2 그렇지.(그렇지.)

104010 #1 밧도 존 거 줏지. 경해도 농사도 와근에 막 경 거들어 줘. 우리 해 주지 안허여, 강. 안 해도 빨리빨리 해 텅 왕 그 큰 밧이난 그날에 다 밍취 주젠 경 소리허멍 그 밧을 불러 준 생각허민 스춘 오빠라도 당오빠보단 더, 우리 오빠영 같은 동갑인디 들로 혼 들 먼저 낫어. 우리 오빠 일본 강 살아 부난 농사질 줄 몰라.(밭도 좋은 거 줏지. 그래도 농사도 와서 마구 그렇게 거들어 줘. 우리 해 주지 않아, 가서. 안 해도 빨리빨리 해 두고 와서 그 큰 밧이니까 그날에 다 밍취 주려고 그렇게 소리하면서 그 밧을 밟아 준 생각하면 사춘 오빠라도 당오빠보단 더, 우리 오빠랑 같은 동갑인데 달로 한 달 먼저 낫어. 우리 오빠는 일본 가서 살아 버리니까 농사지를 줄 몰라.)

104010 #2 ○○이 아부진 위낙 좋덴 현 어른이주게.(○○이 아버지인 위낙 좋다고 하는 어른이지.)

104010 #1 혼덜 먼저 나난이 게도 성님 성님 해. 게난 그 이제 생각허민 진짜로 일 미왕도 안 해 줌직허여, 죽은아방.(한달 먼저 나니까 그래도 형님 형님 해. 그러니까 그 이제 생각하면 진짜로 일 미워도 안 해 줌직해, 작은아버지.)

104010 #2 맞추게.(맞지.)

104010 #1 겐디 할무니가 다 해 줘 부난. 좋은 밧 줏지 공부 가르켜 줏지.(그런

데 할머니가 다 해 줘 버리니까. 좋은 밭 줬지 공부 가르쳐 줬지.)

104010 #2 저 미와도 안 해 주주게.(저 미워도 안 해 주지.)

104010 #1 겐 우리 아버지가 한문 선생을 했주게. 서당질. 경해도 경 스춘 오빠
덜이. 우리 큰아버지도이 아시 말이엔 허민 흥쑤도 안 허영 기여, 기여.(그래서 우
리 아버지가 한문 선생을 해지. 서당질. 그래도 그렇게 사춘 오빠들. 우리 큰아버지
도 아우 말이라고 하면 조금도 안 해서 그래, 그래.)

104010 #2 옛날 어른덜은 참말로 그렇게 의리를 잘 지켰어.(옛날 어른들은 참말
로 그렇게 의리를 잘 지켰어.)

104010 @ 계난예.(그러니까요.)

104010 #1 이제 ㄴ트민 막 밍지.(이제 같으면 아주 밍지.)

104010 #2 그럼. 지금 같으면.(그럼. 지금 같으면.)

104010 #1 작은아방만 공부 ㄴ리키고 좋은 밭 주고.(작은아버지만 공부 가르치고
좋은 밭 주고.)

104010 #2 지금 같으면 어디 시난.(지금 같으면 어디 있으니까.)

104010 #1 겐 우리 사춘 오빠 잘도 착해. 이제 생각허민 그 밭 오랑 확 갈앙 블
려 준 생각허민.(그래서 우리 사춘 오빠는 아주 착해. 이제 생각하면 그 밭 와서 확
갈아서 밟아 준 생각하면.)

말 기르기

104011 @ 오늘은예 말, 물, 뭉생이.(오늘은요 말, 말, 망아지.)

104011 #1 으.(으.)

104011 @ 물은 어떻게 지릅니까? 집에 물도 길랏텐 허명예?(말은 어떻게 기릅니
까? 집에 말도 길렀다고 하면서요?)

104011 #1 우린 물 길룬디 암말 안 질랑 숫물만 길루더라.(우린 말 길렀는데 암
말 길러서 수말만 기르더라.)

104011 @ 아, 소처럼?(아, 소처럼?)

104011 #1 으. 숫물만. 겐 망아지 나는 것도 없어. 게민 숫물 길루단에 막 늑으민
이 동네 어른덜 행 추렴해근에 잡앙 먹어 불어이. 경해 텅 또 사. 또 짐 시끄는 것
만 사 와.(으. 수말만. 그래서 망아지 나는 것도 없어. 그럼 수말 기르다가 아주 늑
으면 동네 어른들 해서 추렴해서 잡아서 먹어 버려. 그래 두고 또 사. 또 짐 싣는
것만 사 와.)

104011 @ 아.(아.)

104011 #1 겐 쉼영 물이영 짐 시끄고. 출 행 시경 오는 걸로.(그래서 소랑 말이
랑 짐 싣고. 풀 해서 실어 오는 걸로.)

104011 @ 소가 더 잘 시꺼오지예?(소가 더 잘 실어 오지요?)

104011 #1 응. 경헌디 물이 우리 아이덜은 좋아. 쉼은 뽕 셔 부난이 무서왕은예.
쉼도 부룽이만 질루와 부난 숫소만 질루와 부난. 게민 숫소는 그냥 목장에 올리왕

맥이는데 이 출 시작허젠 허민 이 몰만 해은에 두 번을 시켜, 나는. 경헨 점심 먹으민 또 왕 시경 집이 왕 퍼 텡, 또 밧디 가민 그자 올 때가 돼어. 놀멍 놀멍 가면은. 우리 밧이 생이오름¹⁸²⁾이야. 생이오름이난 멀진 안헨 디난, 집이 왓당 가민.(응. 그런데 말이 우리 아이들은 좋아. 소는 뽕 있어 버리니까 무서워서. 소도 부록소만 길어 버리니까 수소만 길러 버리니까. 그럼 수소는 그냥 목장에 올려서 먹이는데 이 풀 시작하려고 하면 이 말만 해서 두 번을 실어, 나는. 그래서 점심 먹으면 또 와서 실어서 집에 와서 퍼 두고, 또 밧에 가면 그저 올 때가 돼. 놀면서 놀면서 가면. 우리 밧이 ‘생이오름’이야. ‘생이오름’이니까 멀진 앓은 데니까, 집에 왔다가 가면.)

104011 #2 생이오름 멀진 안헨 디주. 우리 출도 비어나신디.(‘생이오름’ 멀진 앓은 데지. 우리 풀도 베었었는데.)

104011 #1 우린 생이오름만 쪽 비어. 출밧, 생이오름.(우린 ‘생이오름’만 쪽 베어. 풀밧, ‘생이오름’.)

104011 @ 자기만씩 밧이 이신 것과, 빌렁?(자기만큼씩 밧이 있는 겁니까, 빌려서?)

104011 #1 아니, 이녀 밧, 밧.(아니, 자기 밧, 밧.)

104011 #2 자기만씩, 자기 밧.(자기만큼씩, 자기 밧.)

104011 @ 그때 다 건.(그때 다 건.)

104011 #2 자기만씩 목장 밧, 출밧이 싯주게.(자기만큼씩 목장 밧, 풀밧이 있지.)

104011 @ 그른 출밧도 다 씨 뿌렁?(그럼 풀밧도 다 씨 뿌려서?)

104011 #1 지냥으로 나. 테역밧이난 출 나와.(자기대로 나. 떼밧이니까 풀 나와.)

104011 #2 아니, 아니 옛날부터 잔디밧이니까.(아니, 아니 옛날부터 잔디밧이니까.)

104011 @ 베어 불민 또 나고 그런 식으로예?(베어 버리면 또 나고 그런 식으로요?)

104011 #2 으, 으.(으, 으.)

104011 #1 일 년에 혼 번씩 비어 와사.(일 년에 한 번씩 베어 와야.)

104012 @ 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도 털 색깔, 모양에 따라서.(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도 털 색깔, 모양에 따라.)

104012 #1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아버진 그냥 그 붉은 몰만 사와. 빨간색.(우리는 언제나 우리 아버진 그냥 그 붉은 말만 사 와. 빨간색.)

104012 @ 아, 아.(아, 아.)

104012 #1 흰 몰도 아니고, 검은 몰도 안 질루고. 얼룩몰도 싯고이 검은 몰도 있고, 흰몰도 있어.(흰 말도 아니고, 검은 말도 안 기르고. 얼룩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흰말도 있어.)

104012 #2 으, 몰도 여러 가지 잇주.(으, 말도 여러 가지 있지.)

104012 #1 겐디 우리 아버진 맨날 검은 몰.(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검은 말.)

182) ‘생이오름’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이다. ‘상여오름’이라고도 한다.

104012 @ 붉은 말?(붉은 말?)

104012 #1 으, 붉은 말만 질봐.(으, 붉은 말만 길러.)

104012 @ 물이엔 험니가? 뭉생이, 새끼를 뭉생이?(말이라고 합니까? 망아지, 새끼를 망아지?)

104012 #2 물, 물.(말, 말.)

104012 #1 그냥 물이엔 허여.(그냥 말이라고 해.)

104012 #2 제주도 물.(제주도 말.)

104012 #1 뭉생인 거, 새끼 난 것ㄴ라 뭉생이지. 암말 질뤄야 뭉생이 나와.(망아지인 거, 새끼 난 것보고 망아지지. 암말 길러야 망아지 나와.)

104012 @ 삼촌네는 말은 안 길렀수과?(삼촌네는 말은 안 길렀습니까?)

104012 #2 으, 우린.(으, 우린.)

104012 #1 이딘 암소렌, 암소. 새끼 나는 거.(여긴 암소라고, 암소. 새끼 낳는 거.)

104013 @ 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운반은 소허고 말 중에 소허고 말허고 비교했을 때?(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운반은 소하고 말 중에 소하고 말하고 비교했을 때?)

104013 #1 말이 덜 시꺼 와. 시끄는 게 소가 많이 시꺼. 힘이 더 좋아.(말이 덜 실어 와. 실는 게 소가 많이 실어. 힘이 더 좋아.)

104013 #2 소보단.(소보단.)

104013 #1 말은 많이 소만이 시끄민 일어사질 못해. 막 뽕락뽕락해¹⁸³⁾ 불어.(말은 많이 소만큼 실으면 일어서지를 못해. 아주 ‘뽕락뽕락해’ 버려.)

104013 @ 무사 물을 길워신고예?(왜 말을 길렀나요?)

104013 #1 겐디 말이 소ㄴ치 우리도 영 아정 땡기기 좋아게. 찢레질 허젠 안허곡 게 이경 다니민 졸졸졸 다니니까 아정 땡기는 게.(그런데 말이 소같이 우리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좋아. ‘찢레질’ 하려고 앓고 이끌고 다니면 졸졸졸 다니니까 가지고 다니는 게.)

104013 #2 이 길가에도 메영 놔두민 그.(이 길가에도 매어서 놔두면 그.)

104013 #1 풀 뜯어 먹어.(풀 뜯어 먹어.)

104013 #2 엠에 풀 뜯엉 먹엉은에 살곡 그 관리허기도 좋주게. 말이.(옆에 풀 뜯어서 먹어서는 살고 그 관리하기도 좋지. 말이.)

104013 @ 말이.(말이.)

104013 #1 그 물ㄴ레 방에 정 먹을 때난이 말은 우리도 그걸 메우민 영 헐 수셔. 밧갈소¹⁸⁴⁾는 좀 버청은에 아버지가 똑 들어야 거 해.(그 연자매 방아 찧어서 먹을 때니까 말은 우리도 그걸 메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밧갈소’는 좀 부쳐서는 아버지가 똑 들어야 거 해.)

183) ‘뽕락뽕락하다’는 단단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한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여기서는 말이 힘을 못 쓰고 쓰러지거나 바닥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나타낸다.

184) ‘밧갈소’는 밭을 가는 힘센 부록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104013 @ 물 ㄱ레는 말이 좋다는 거지요?(연자매는 말이 좋다는 거지요?)

104013 #1 응, 말이 좋아.(응, 말이 좋아.)

104013 @ 물 ㄱ레 허젠 물을 길렀구나. 버천예, 소는예, 밧갈쇄는예?(연자매 하려고 말을 길렀구나. 부쳐서요, 소는요, ‘밧갈소’는요?)

104013 #1 응.(응.)

104013 @ 그믄 운반허고 밧 밍기에는 말이 좋아예?(그럼 운반하고 밧 밍기에는 말이 좋아요?)

104013 #2 으.(으.)

104013 #1 말.(말.)

104013 @ 잘 뛰난?(잘 뛰니까?)

104013 #1 말 하나만 아니고 혼 물 두 개, 세 개 해야 밧 불리는 것도 좋고이. 빨라. 영 걸어감이. 하나만 허민 막 둘둘둘 허민이 잣다 왔다 헛자 얼마 못, 말이 죽으니까게, 그자 딱 세 개가 좋아. 밧 불릴 땐 세 마리.(말 하나만 아니고 한 말 두 개, 세 개 해야 밧 밍는 것도 좋고. 빨라. 이렇게 걸어가기가. 하나만 하면 마구 둘둘둘 하면 잣다 왔다 해도 얼마 못, 말이 작으니까, 그저 딱 세 개가 좋아. 밧 밍을 때는 세 마리.)

104013 @ 세 마리에. 어느 게 비쌉니까? 소허고 말 중에?(세 마리오. 어느 게 비쌉니까? 소하고 말 중에?)

104013 #1 소가 비싸지.(소가 비싸지.)

104013 #2 소가 비싸주게.(소가 비싸지.)

104013 @ 고기를 먹어도 소고기가 더.(고기를 먹어도 소고기가 더.)

104013 #2 으, 그렇지.(으, 그렇지.)

104013 @ 말고기는 잘 안 먹었지요?(말고기는 잘 안 먹었지요?)

104013 #1 우리는 제사 때는 말고기 먹지도 안허고 쓰지도 안허는디 아이, 뉴스에 나올 때는 뭐 임금님 상에 말고기 올린덴 말 자꾸 나와. 말고기, 임금님 상에 말고기 올린덴 말. 거 당치않은 말 다향.(우리는 제사 때는 말고기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아, 뉴스에 나올 때는 뭐 임금님 상에 말고기 올린다는 말 자꾸 나와. 말고기, 임금님 상에 말고기 올린다는 말. 거 가당찮은 말 같아.)

104013 #2 그러게.(그러게.)

104013 #1 뉴스에 자꾸 나와. 임금님 상에 제주도 말고기렌. 소고기 안 행 말고기만 나와.(뉴스에 자꾸 나와. 임금님 상에 제주도 말고기라고. 소고기 안 하고 말고기만 나와.)

104013 @ 말을 진상은 헛수다.(말을 진상은 했습니다.)

104013 #1 아니 고기를 그냥. 임금 상에 말고기 올린덴 말을 자꾸 그냥.(아니 고기를 그냥. 임금 상에 말고기 올린다는 말을 자꾸 그냥.)

104013 #2 게난 말고기 구시고 부드럽기 때문에.(그러니까 말고기 구수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104013 #1 그건 허는디 우리 제사 때도 안 쓰고이.(그건 하는데 우리 제사 때도 안 쓰고.)

104013 #2 으, 쓰지는 안허주게.(으, 쓰지는 않지.)

104013 #1 제사 돌아와 가민 말고기 먹지도 안헤.(제사 돌아와 가면 말고기 먹지도 않아.)

104013 #2 먹지도 안허고.(먹지도 않고.)

104013 #1 먹지도 안헤. 제사 넘어 불민 먹고.(먹지도 않고. 제사 넘어 버리면 먹고.)

104013 #2 부정 탄덴.(부정 탄다고.)

104013 @ 영리하고, 안 먹젠덜.(영리하고, 안 먹으려고들.)

104013 #2 부정 탄다고.(부정 탄다고.)

104013 #1 겐디 물은.(그런데 말은.)

104013 @ 개허고 말은 영리허난예.(개하고 말은 영리하니까요.)

104013 #1 소는이 그냥 그 영 혈 때 소 새끼 낳은에 세 살만 돼민 어멍 타 앓아 이. 이녁 어멍이라도 소는. 경헌디 물은 육촌꺼지 가려. 육촌꺼지 교매를 안 헤. 물은 육촌 넘어야 교매를 헌덴. 육촌꺼진 안 헤. 다 알아. 경헌덴 곱아. 경허민 흐끔 영 저 친족끼리 알앙 허민 물만도 못흔 거엔. 물도 육촌 가리는데. 어른덜이 경헌 말 자꾸 나 들어났어. 우리 큰어머니가 그런 말은 잘 곱아. 물만도 못흔 인간덜.(소는 그냥 그 이렇게 할 때 소 새끼 낳아서 세 살만 되면 어머니 타 앓아. 자기 어머니라도 소는. 그런데 말은 육촌까지 가려. 육촌까지 교미를 안 헤. 말은 육촌 넘어야 교미를 한다고. 육촌까지는 안 헤. 다 알아. 그런다고 말해.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저 친족끼리 알아서 하면 말만도 못한 거라고. 말도 육촌 가리는데. 어른들이 그런 말 자꾸 나 들었었어. 우리 큰어머니가 그런 말은 잘 말해. 말만도 못한 인간들.)

104013 #2 그렇지.(그렇지.)

104013 #1 켜당끼리 그 좋아헬젠 현 말로이.(권당끼리 그 좋아한다고 하는 말로.)

104013 #2 음.(음.)

104013 @ 그런 일도 있었구나예?(그런 일도 있었군요?)

104013 #1 물도 육촌 가리는데.(말도 육촌 가리는데.)

104014 @ 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허고 말 중에 거의?(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하고 말 중에 거의?)

104014 #2 거의 비슷허주게.(거의 비슷하지.)

104014 #1 나이는 거자이 십오 세꺼진 질뤄. 십오 세.(나이는 거의 십오 세까지는 길러. 십오 세.)

104014 #2 말이나 소나 비슷해.(말이나 소나 비슷해.)

104014 @ 오래 길뤄 본 말이나 소 잇어수과, 늙도록?(오래 길러 본 말이나 소 있었습니까, 늙도록?)

104014 #1 아니 일부 돼 가민 풀곡 사곡 헤. 흐끔 나이 들어 가민 일허는 게.(아

니 일부 돼 가면 팔고 사고 해. 조금 나이 들어 가면 일하는 게.)

104014 #2 버치주게.(부치지.)

104014 #1 일이 버치근에 힘이 었어. 겐디 소는 해도 물은 십오 세 못 길룸직헤여.(일이 부쳐서 힘이 없어. 그런데 소는 해도 말은 십오 세 못 기름직해.)

104014 #2 십오 세 못허여, 물은.(십오 세 못해, 말은.)

104014 #1 혼 열둘이나 열이나 경.(한 열둘이나 열이나 그렇게.)

104014 #2 혼 팔 년.(한 팔 년.)

104014 #1 음, 경해 가민 또 새로 풀곡 사곡 해. 폴아당 또 새로 사.(음, 그래 가면 또 새로 팔고 사고 해. 팔아다가 또 새로 사.)

104014 @ 폰다는 거는?(판다는 거는?)

104014 #1 남신디 돈 받고.(남에게 돈 받고.)

104014 @ 허는구나예.(하는군요.)

104014 #1 우리 집 물을 쪽 질렀어. 계속 질봐, 물은.(우리 집 물을 쪽 길렀어. 계속 길러, 말은.)

104014 @ 어느 게 아까웁니까, 소허고 말 중에?(어느 게 아깝습니까, 소하고 말 중에?)

104014 #1 말이, 말이 아깝지. 찢르젠도 안허고이. 소는 물 찢르젠 해 막 팍팍 물을. 이 빨로 막 찢르젠 해. 겐 물은 도망가. 도망가 불어.(말이, 말이 아깝지. 찢르려고도 앓고. 소는 말 찢르려고 해 마구 팍팍 말을. 이 빨로 마구 찢르려고 해. 그래서 말은 도망가. 도망가 버려.)

104014 @ 말도 게도 위험허텐 험디다. 타당 떨어지거나 뒷발로 탁 차 분덴.(말도 그래도 위험하다고 함디다. 타다가 떨어지거나 뒷발로 탁 차 버린다고.)

104014 #1 아니, 그런데 소허고 말허고는 행은에이, 저 방에 지레 가민 소 보리고고리 혈, 조코고리 혈 땀 우리 둘이 혈 때가 셔나신디 그 그 가명도 이 빨로 헛걸 나가 받. 물을 영 영 찢르젠 허여. 겐 물은 저레 도망가고 아멩해도 문몬헤 벤생이라, 소가.(아니, 그런데 소하고 말허고는 해서, 저 방아 찢으러 가면 소 보리 이삭 할, 조이삭 할 때는 우리 둘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 그 가면서도 이 빨로 하는 걸 내가 봤어. 말을 이렇게 이렇게 찢르려고 해. 그래서 말은 저리 도망가고 아무래도 만만해 보이는 모양이야, 소가.)

104015 @ 물을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말을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15 #1 물은 숫돌만 질루난이 뭐 스건도 없어. 새끼가 없으난 그냥 웨톨베기로 질루단 나 생각은 열 설이나 웨민 다른 거 교체허는 거 닷아.(말은 수말만 기르니까 뭐 사건도 없어. 새끼가 없으니까 그냥 외톨박이로 기르다가 내 생각은 열 살이나 되면 다른 거 교체하는 거 같아.)

104015 @ 먹는 거나 뭐 이빨이 잇저, 없저?(먹는 거나 뭐 이빨이 있어, 없어?)

104015 #1 물은 잘 먹어. 이빨이 앞니가 좋으니까이 소는 이 어금니로 영 영 영

영 먹는다, 물은이 막 풀이 죽어도 뽕뽕 뜯어 먹는 소리가 뽕뽕뽕뽕 나와게. 이 풀 뜯는 게.(말은 잘 먹어. 이빨은 앞니가 좋으니까 소는 어금니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는데, 말은 마구 풀이 작아도 뽕뽕 뜯어 먹는 소리가 뽕뽕뽕뽕 나와. 이 풀 뜯는 게.)

104015 #2 이 앞니가 세기 때문에.(이 앞니가 세기 때문에.)

104015 #1 이 풀이 짧아도, 풀이 짧아도.(이 풀이 짧아도, 풀이 짧아도.)

104015 @ 소는 이빨 엇텐 누가 곱읍디다?(소는 이빨 없다고 누가 말합디다?)

104015 #1 소는이 세로, 이 세가 확 어울렁은에 이레 감아져야 일로 씹어이. 일로 씹영 뜯어 먹어.(소는 혀로, 이 혀가 확 어울려서 이리 감겨서 일로 씹어. 일로 씹어서 뜯어 먹어.)

104015 @ 이빨은 잇수과, 소도?(이빨은 있습니까, 소도?)

104015 #1 잇지.(있지.)

104015 #2 이빨 잇지.(이빨 있지.)

104015 @ 없텐 험디다.(없다고 함디다.)

104015 #1 이빨 있어. 이빨 엇이면 출 먹영 살아지나게?(이빨 있어. 이빨 없으면 꿀 먹어서 살 수 있냐?)

104015 @ 계난.(그러니까.)

104015 #1 있어.(있어.)

104015 #2 이빨 잇는데 이 말은 이 앞니가 썰렁은에 앞니 주장 쓰는데 소는.(이빨 잇는데 이 말은 이 앞니가 세서 앞니 주로 쓰는데 소는.)

104015 #1 어금니 주장 허는 거 같애. 세로 확.(어금니 주로 하는 거 같아. 혀로 확.)

104015 #2 출은 쥐도 세로 확 언주와당은에.(꿀은 쥐도 혀로 확 그러모아서.)

104015 #1 걸렁.(걸려서.)

104015 #2 일로 이 어금닛빨로 씹영 먹고.(이리로 이 어금니로 씹어서 먹고.)

104015 #1 그냥 영 먹질 안허고 세로 영 행은에 탁 걸려이. 세.(그냥 이렇게 먹질 않고 혀로 이렇게 해서 탁 걸려. 혀.)

104015 #2 물은 그냥 이 앞니빨로 박박 뜯어 먹는데.(말은 그냥 이 앞니로 박박 뜯어 먹는데.)

104015 #1 소리가 나, 바드득바드득.(소리가 나, 바드득바드득.)

104015 #2 그런 증세가 달라.(그런 증세가 달라.)

104015 @ 말 타 보거나 이런 건 엇수과?(말 타 보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104015 #1 여자니까 경, 막 이제덜은 경 물 타는디 강 아이덜도 텡곡 다 허는디 옛날사 경 그런 삶을.(여자니까 그렇게, 마구 이제들은 그렇게 말 타는디 가서 아이들도 태우고 다 하는데 옛날에야 그렇게 그런 삶을.)

104015 @ 말고기 그런 것도 안 먹어 보고?(말고기 그런 것도 안 먹어 보고?)

104015 #1 말고기야 먹지. 말고기도 질루당은에 좀 늙으면게 추렴행게.(말고기야

먹지. 말고기도 기르다가 좀 늙으면 추렴해서.)

104015 @ 어떻게 말고기 먹습니까?(어떻게 해서 말고기 먹습니까?)

104015 #1 멧이, 흔 멧이 행 경 행 잡으민 고기로 갈라. 갈르민게 더러 줄 사람도 주곡게. 약에도 먹곡 혈 때. 고기는 그냥 무맛이라. 겐디 흐뭇 쿠시긴 헤. 겐디 쓰지 안허니까 제스 때 안 쓰난 그냥 입에만 먹어.(멧이, 한 멧이 해서 그렇게 해서 잡으면 고기로 갈라. 가르면 더러 줄 사람도 주고. 약에도 먹고 할 때. 고기는 그냥 무맛이야. 그런데 조금 고소하긴 헤. 그런데 쓰지 않으니까 제사 때 안 쓰니까 그냥 입에만 먹어.)

104015 #2 국도 끌여 먹곡게.(국도 끓여서 먹고.)

104015 @ 국도 끓이곡?(국도 끓이고?)

104015 #1 그냥 막 끓영 양념행 먹으민 잘도 부드럽고 좋아. 소고기 먹는 것보다 더.(그냥 마구 끓여서 양념해서 먹으면 아주 부드럽고 좋아. 소고기 먹는 것보다 더.)

104015 #2 부드럽지게. 소고기 닭지 안행.(부드럽지. 소고기 닭지 않아.)

104015 @ 냄새난텐 누가 곤던데?(냄새난다고 누가 말하던데?)

104015 #1 냄새나는 건 안 나. 냄새가 왜 나?(냄새나는 건 안 나. 냄새가 왜 나?)

104015 #2 냄새 안 나.(냄새는 안 나.)

104015 #1 뭐이 풀 먹을 때이, 봄 낭 풀 뜯어 먹으민 풀냄새 난텐 헤. 봄에 물 잡으민 풀냄새 난텐 헤. 소나 물이나이 이 가을엔 존데 가을엔 이 풀이 다 슬으니까 쿠성 존데, 봄에는 풀내 남젠 고기에.(뭐 풀 먹을 때, 봄 돼서 풀 뜯어 먹으면 풀냄새 난다고 해. 봄에 말 잡으면 풀냄새 난다고 해. 소나 말이나 이 가을에는 좋은데 가을에는 이 풀이 다 스니까 구수해서 좋다고, 봄에는 풀냄새 난다고 고기에.)

먹이

104016 @ 소허고 물은 똑같은 거 먹습니까, 먹는 것도 똑같아?(소하고 말은 똑같은 거 먹습니까, 먹는 것도 똑같아?)

104016 #1 으.(으.)

104016 @ 쿡, 조?(쿡, 조?)

104016 #1 으.(으.)

104016 #2 으, 먹는 건 똑같애.(으, 먹는 건 똑같아.)

104016 @ 먹이에, 말허고 소 먹는 거에, 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먹이에, 말하고 소 먹는 거에, 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2 비슷허지 뭐. 소 먹는 거나 소먹이나, 뭐 말먹이나.(비슷하지 뭐. 소 먹는 거나, 소먹이나 뭐 말먹이나.)

104016 #1 똑같은디 양은 소가 더 많이 먹고. 소가 양이 크니까 배가.(똑같은데 양은 소가 더 많이 먹고. 소가 양이 크니까 배가.)

104016 @ 어떤 걸 먹습니까, 출?(어떤 걸 먹습니까, 풀?)

104016 #1 저 조집, 조집이엔 해, 조집.(저 조짚, 조짚이라고 해, 조짚.)

104016 @ 조집.(조짚.)

104016 #1 좇대 그거 먹고 출 낫당 출.(조짚 그거 먹고 꼴 났다가 꼴.)

104016 @ 또?(또?)

104016 #1 또 우리.(또 우리.)

104016 #2 고구마줄도 걷영은에게 이 담 위에 넣어놔당 말리민 거 잘 먹어.(고구마덩굴도 걷어다가 이 담 위에 넣어놔다가 말리면 거 잘 먹어.)

104016 #1 질 맛싯텐 해. 우리 ㄱ트민 막 고기 먹는 맛으로 맛 좋텐 허는 식으로 막 잘 먹어.(젤 맛있다고 해. 우리 같으면 마구 고기 먹는 맛으로 맛 좋다고 하는 식으로 아주 잘 먹어.)

104016 #2 말이던 소든.(말이든 소든.)

104016 #1 흥나토 지꺼기 엇이 먹어, 감저줄기는. 계곡 콩도 콩 해 나민 그 콩ㄱ질이엔 허여. 콩대ㄱ라.(하나도 찌꺼기 없이 먹어, 고구마덩굴은. 그리고 콩도 콩 하고 나면 그 콩깍지라고 해. 콩대보고.)

104016 #2 콩낭때기.(콩대.)

104016 #1 콩ㄱ질, 거 행 놀엇당 빵 흔 아릅씩 안아당 주민 것도 잘 먹어.(콩깍지를, 거 해서 가렸다가 빵 한 아릅씩 안아다가 주면 것도 잘 먹어.)

104016 #2 것도 막 잘 먹어.(것도 아주 잘 먹어.)

104016 #1 조짚보다 잘 먹어.(조짚보다 잘 먹어.)

104016 #2 아메도 이 곡식 나무때기¹⁸⁵⁾난 곡식 냄새나는 것 같애. 계난 이 짐승덜이 잘 먹는 것 같애.(아무래도 이 곡식 줄기니까 곡식 냄새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잘 먹는 것 같아.)

104016 #1 콩ㄱ질 잘 먹어.(콩깍지를 잘 먹어.)

104016 @ 버릴 게 없다예?(버릴 게 없네요?)

104016 #1 응. 아니, 소 질루민 버릴 거 없지. 더 이상헌 거는 또 돼지 먹고.(응. 아니, 소 기르면 버릴 거 없지. 더 이상한 거는 또 돼지 먹고.)

104016 @ 사람 먹던 거예.(사람 먹던 거요.)

104016 #1 으. 진짜 버리는 거 없어. 계난 쓰레기도 없지.(으. 진짜 버리는 거 없어. 그러니까 쓰레기도 없지.)

104016 @ 겨울에는 꿩영도 주잖아예, 뭐. 뭘 낱 꿩영 줘니까?(겨울에는 꿩영에서도 주잖아요, 뭐. 뭘 넣어서 꿩영에서 줘니까?)

104016 #1 건 소죽이엔 행은에이 켄디 우리는 경 육지 사람 경허주기게이. 저을 들민 막, 그 우리는 생차¹⁸⁶⁾ 막 주는데 육지 강 보난에 큰숫데.(건 소죽이라고 해서 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육지 사람 그렇지. 겨울 들면 마구, 그 우리는 ‘생차’ 마구 주는데 육지 가서 보니까 큰솔에.)

185) ‘나무때기’는 조금 길고 가느다란 나뭇조각을 말한다. 여기서는 콩이나 조 등의 ‘줄기’를 가리킨다.

186) ‘생차’는 낱것 그대로를 말한다.

104016 #2 솥앙.(삶아서.)

104016 #1 출 영 씨는 작두가 있어. 썰어근에 영 아땅 뉘은에 막 그디 체, 보리 저 쫄 다까난, 것ㄴ라 보미엔 허지이. 보미 ㄴ를이영 저 산디 네중에 저난 그 껌테기영 행은에 막 영 물 영 헤 뉘 폭 솥앙은에, 즈낙이 솥앙은에 아침이 허민 그거 열앙 보른 냄새가 그냥 그 보미, 보미엔 현 것이 쫄 껌테기라이. 쫄 껌테기에 지일 속에 껌테기. 것에 냄새가 폭 나드라. 나 저디 충남 간 때 그디 소 질루는 디 강 소 죽 썰 영 들른 거 보난. 쟁행은에 그거 다라에 뉘 그거는 여자가 아니, 바로 남자가.(쫄 이렇게 씨는 작두가 있어. 썰어서 이렇게 가져다가 놔서 마구 거기 겨, 보리 저 쌀 깎았던, 것보고 등겨라고 하지. 등겨 가루랑 저 받벼 나중에 쪼웠던 그 껌테기랑 해서 마구 이렇게 물 이렇게 해 넣어서 폭 삶아서, 저녁에 삶아서 아침에 하면 그거 열어서 보면 냄새가 그냥 그 등겨, 등겨라고 하는 것이 쌀 껌테기야. 쌀 껌테기에 제일 속에 껌테기. 것에 냄새가 폭 나드라. 나 저기 충남 갔을 때 거기 소 기르는 데 가서 소죽 썰서 이렇게 든 거 보니까. 그래서 그거 대야에 넣어서 그거는 여자가 아니, 바로 남자가.)

104016 #2 남자덜이 허드라고.(남자들이 하더라고.)

104016 #1 쭈곡 갖다 주고.(쭈고 갖다 주고.)

104016 @ 제주돈 그런 거 일체 엇어?(제주도는 그런 거 일체 없어?)

104016 #1 그런 거 없어. 그냥 믋른 차 줘, 믋른 차.(그런 거 없어. 그냥 마른 채 줘, 마른 채.)

104018 @ 출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출을, 출뵈디 출을 어떻게 베고?(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쫄을, 쫄발에 쫄을 어떻게 베고?)

104018 #1 출, 뵈디 가면은이 호미 헤영 쪽 비어 가. 저 꺾디서 꺾에ㄴ지.(쫄, 발에 가면 낫 해서 쪽 베어 가. 저 끝에서 끝까지.)

104018 #2 혼 줄 비여 가. 혼 줄, 혼 줄.(한 줄 베어 가. 한 줄, 한 줄.)

104018 #1 이거 담이민 저 담ㄴ지 쪽쪽 허영.(이거 담이면 저 담까지 쪽쪽 해서.)

104018 @ 땃 사람이?(땃 사람이?)

104018 #1 사람이 하민 한 대로 비곡, 엇이민 엇인 대로 비지. 건 뉘 규정이 없어.(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베고, 없으면 없는 대로 베지. 건 뉘 규정이 없어.)

104018 @ 호미로예?(낫으로요?)

104018 #1 호미로.(낫으로.)

104018 @ 땃 월달에, 가을?(땃 월에, 가을?)

104018 #2 팔월.(팔월)

104018 #1 팔월 중순부터.(팔월 중순부터.)

104018 @ 음력?(음력?)

104018 #1 응. 음력 팔월 중순부터이.(응. 음력 팔월 중순부터.)

104018 @ 연할 때 험니까, 흐뵀 다 익었다 싶으면 걸 다 베는 건 아니고?(연할 때 험니까, 조금 다 익었다 싶으면 걸 다 베는 건 아니고?)

104018 #1 이녀 밧디 출 이시민 다 비지. 그 출을 다 비어, 놀어.(자기 밧에 끌 있으면 다 बे지. 그 끌을 다 베어, 가려.)

104018 #2 이녀 소를 두 마리민 두 마리, 혼 마리민 혼 마리 길루잖아요.(자기 소를 두 마리면 두 마리, 한 마리면 한 마리 기르잖아요.)

104018 #1 먹을 만이.(먹을 만큼.)

104018 #2 게민 그 길루는 소 먹을 만큼은 해 와야 돼주게. 겨울내내 먹을 만큼.(그럼 그 기르는 소 먹을 만큼은 해 와야 되지. 겨우내 먹을 만큼.)

104018 @ 물리왕 놀읍니까?(말려서 가립니까?)

104018 #1 물리왕 무경 시켜 오지.(말려서 묶어서 실어 오지.)

104018 @ 거기서 물려?(거기서 말려?)

104018 #1 거기서.(거기서.)

104018 #2 으.(으.)

104018 #1 그냥 바닥에서 물르민.(그냥 바닥에서 마르면.)

104018 #2 줄 잡아근에 혼 줌씩 혼 줌씩 비여근에 쪽 허게 줄로 놔.(줄 잡아서 한 줌씩 한 줌씩 베어서 쪽 하게 줄로 놔.)

104018 #1 이거이 딱딱허민이 이걸로 녀 줌 허민 혼 못이라이. 이 손으로 췌 거. 두 줌씩 영 놔. 영, 영 허민 베껴지니까. 이거 이렇게 놔.(이거 딱딱하면 이걸로 녀 줌 하면 한 못이야. 이 손으로 췌 거. 두 줌씩 이렇게 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벗길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놔.)

104018 #2 막 긴 건 그냥 크똥허게 그냥 낱 무끄고, 짧은 거는 마주 낱.(아주 긴 건 그냥 가지런하게 그냥 놔서 묶고, 짧은 거는 마주 놔서.)

104018 @ 각단?('각단'?)

104018 #2 응.(응.)

104018 #1 각단¹⁸⁷⁾ㄴ찌 현 게 드물어.(‘각단’같이 한 게 드물어.)

104018 #2 마주 영 놔근에게 무꺼근에게 헤엇당 요만큼씩 무경.(마주 이렇게 놔서 묶어서 했다가 요만큼씩 묶어서.)

104018 #1 네 개가 혼 못.(네 개가 한 못.)

104018 @ 네 개가 혼 못예?(네 개가 한 못요?)

104018 #1 네 개가 혼 못.(네 개가 한 못.)

104018 #2 경헤근에게 무꺼근에게 오늘 비민 널, 모린 무꺼야 돼여.(그래서 묶어서 오늘 베면 내일, 모레는 묶어야 돼.)

104018 #1 널 하루 물랑.(내일 하루 말라서.)

104018 #2 으, 하루 딱 물리민. 게근에 무경은에게 게민 출밭에다가 놀영 놔뒤. 차근차근 놀영 이제 어욱 베당 더평은에게 행 낫다근에게, 놔둬서 낮에민 시경 보내주게.(으, 하루 딱 말리면. 그래서 묶어서 그럼 풀밭에 가려서 놔뒤. 차근차근 가려서 이제 역새 베어다가 덮어서 해서 왔다가, 놔두면서 낮이면 실어서 보내지.)

187) '각단'은 '집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104018 #1 그 출 거자 비어 가사. 나는 굴른사람이 이시난이 손 아니 대고 물로
행 처음 시작허민 맨날 혼 번씩 시켜 내려오는데 이런 아이덜 엇인 집인이 그 출
거자 비어야 걸 시켜 와. 거 다 행 놀엇당 다 비어 놔야 혼꺼번에. 뭐 마찰 빌던지
술 또 늡 다 허민 빌영. 이녁 소가 헉나민 두 개가 헉나 빌민 세 개도 뉘곡 둘도
뉘지게. 경헨 시켜 와.(그 꼴 거의 베어 가야. 나는 군사람이 있으니까 손 아니 대
고 말로 해서 처음 시작하면 맨날 한 번씩 싣고 내려오는데 이런 아이들 없는 집은
그 꼴 거의 베어야 걸 실어 와. 거 다 해서 가렸다가 다 베어 놔야 한꺼번에. 뭐 마
차를 빌리던지 소를 또 남 다 하면 빌려서. 자기 소가 하나면 두 개가 하나 빌리면
세 개고 되고 둘도 되지. 그래서 실어 와.)

104018 @ 메칠이민 물릅니까? 비라도 오민 어떻?(머칠이면 마릅니까? 비라도 오
면 어떻게?)

104018 #1 비 오민 안 좋지. 안 좋아도 헐 수 없지게. 밤이나 비 와 불민 젖으민
또 혼 번 뒤집어야 돼, 물르민.(비 오면 안 좋지. 안 좋아도 할 수 없지. 밤에나 비
와 버리면 젖으면 또 한 번 뒤집어야 돼, 마르민.)

104018 #2 만약에 비 왕 젖이민 다음 날 조민 우에 물르잖아요. 물르면은 또 뒤
집어야 돼어. 오후 뉘근에 이제 뒤집어 낫당 다음 날은 무끄고.(만약에 비 와서 젖
으면 다음 날 좋으면 위에 마르잖아요. 마르면 또 뒤집어야 돼. 오후 되어서 이제
뒤집어 낫다가 다음 날은 묽고.)

104018 @ 무경 걸 날랑 왕 놀영?(뭉어서 걸 날라서 와서 가려서?)

104018 #1 무꺼사 날라 올 거난. 비 맞은 건 제일 안 좋아게. 색깔도 안 좋고 맛
도 엇넌, 소가.(뭉어야 날라 올 거니까. 비 맞은 건 제일 안 좋아. 색깔도 안 좋고
맛도 없다고, 소가.)

104018 #2 게난 소도 덜 먹어.(그러니까 소도 덜 먹어.)

104018 #1 허허, 비 맞은 건.(허허, 비 맞은 건.)

104018 #2 잘 안 먹어.(잘 안 먹어.)

104018 #1 비 안 맞게 헤지민 막 이녁 마음이 좋아.(비 안 맞게 할 수 있으면 아
주 자기 마음이 좋아.)

104018 #2 사름도 한결허고.(사람도 한가하고.)

104018 #1 쉼 먹는 거.(소 먹는 거.)

104018 #2 뒤집는 인력은 안 드니까.(뒤집은 인력은 안 드니까.)

104018 #1 색깔도 안 좋아. 출 색깔도 안 좋아.(색깔도 안 좋아. 꼴 색깔도 안 좋
아.)

104018 #2 색깔도 안 좋주게. 새파랑허지 안헤.(색깔도 안 좋지. 새파랑지 았아.)

104018 #1 비 맞은 건.(비 맞는 건.)

104018 #2 비 안 맞는 건 파랑행 먹음직스럽주게, 보기에도.(비 안 맞는 건 파래
서 먹음직스럽지, 보기에도.)

104018 #1 냄새도 막 코시롱헤여, 풀 물론 냄새가이.(냄새도 아주 고소해, 풀 마

른 냄새가.)

104018 #2 으.(으.)

104018 #1 경헌디 비 맞으민이 냄새조차 안 좋아.(그런데 비 맞으면 냄새조차 안 좋아.)

104018 #2 응.(응.)

104018 @ 다음 가을까지 걸 먹이는 거지예, 낫당?(다음 가을까지 걸 먹이는 거지요, 낫다가?)

104018 #1 겨울, 으.(겨울, 으.)

104018 #2 겨울내내, 겨울내내. 봄 돼도록.(겨우내, 겨우내. 봄 되도록.)

104018 @ 봄 돼도록.(봄 되도록.)

104018 #2 봄풀 날 때까지.(봄풀 날 때까지.)

104018 @ 경허민 또.(그러면 또.)

104018 #1 소 저 산에 올라갈 때까지 먹여야 돼. 올릴 때까지.(소 저 산에 올라갈 때까지 먹여야 돼. 올릴 때까지.)

104018 #2 산에 목장에 풀 나근에 흠뻑 자랑 소덜 뜯어 먹을 만큼 해야 이제 목장에 소를 올릴 거니까.(산에 목장에 풀 나서 조금 자라서 소들 뜯어 먹을 만큼 해야 이제 목장에 소를 올릴 거니까.)

104018 #1 에이고, 참 우리 살아난 거, 소 흠뻑 봄 나 가민이 이 멧 집이 소 어울영 산에 강 맥영 와. 이녁, 오닐 우리 맥이고 닐은 이디 맥이곡 영 돌아가명. 수눌영 해. 경 맥이단에 풀이 막 나면은 이제는 그 허는 걸 치와 두고 이제 농사도 소영 돌이영 행 다 해 노민 또 산에 올려. 올리면 또 밤 자명 오닐 아침이 밥 쌍강은에 밤 장 닐 아침까지 맥여. 밤 장. 겐 닐 아침은 탄 사름이 이제 데리레 가. 그 사름.(어이구, 참 우리 살았던 거, 소 조금 봄 돼 가면 이 멧 집의 소 어울려서 산에 가서 먹여서 와. 자기, 오늘 우리 먹이고 내일은 여기 먹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품앗이해서 해. 그렇게 먹이다가 풀이 마구 나면 이제는 그 하는 걸 치워 두고 이제 농사도 소랑 말이랑 해서 다 해 놓으면 또 산에 올려. 올리면 또 밤 자면서 오늘 아침에 밥 싸서 가서 밤 자서 내일 아침까지 먹여. 밤 자고. 그래서 널 아침은 탄 사름이 이제 데리러 가. 그 사름.)

104018 @ 여자도 갑니까?(여자도 갑니까?)

104018 #2 여잔 아니. 남자만.(여자는 아니. 남자만.)

104018 #1 남자만. 벤또¹⁸⁸⁾ 이녁 거 닐 먹을 거 싸곡 조반도 님이 거 가정 가고. 조반은 수눌어 가명 다 갖다 줘. 그디 잔 사름. 경허당은에 이제 그 혼이 넘어강 출 시작할 때까지 경 허여. 출 시작할 때까지 돌아가명 맥여 주곡 이녁도 빌영 맥이곡. 수눌명, 수눌명.(남자만. 도시락 자기 거 내일 먹을 거 싸고 조반도 남의 거 가지고 가고. 조반은 품앗이해 가면서 다 갖다 줘. 거기 잔 사름. 그러다가 이제 그 한이 넘어가서 풀 시작할 때까지 그렇게 해. 풀 시작할 때까지는 돌아가면서 먹여 주고

188) '벤또'는 일본어 'べんとう'로 도시락을 말한다.

자기도 빌려서 먹이고. 품앗이하면서, 품앗이하면서.)

104018 @ 반찬은 뭐, 출레는?(반찬은 뭐, ‘출레’는?)

104018 #1 반찬은 그때는 다 그냥 마농.(반찬은 그때는 다 그냥 마늘.)

104018 #2 마늘장아찌.(마늘장아찌.)

104018 #1 그거 허곡이 웬장 미청 그거. 다른 거 없어. 어디 고기나 잇간?(그거 하고 된장 무쳐서 그거. 다른 거 없어. 어디 고기나 있어?)

104018 #2 고기가 어디 서게? 김치, 김치나 허곡 그자.(고기가 어디 있어? 김치, 김치나 하고 그저.)

104018 #1 고기는 제사할 때나 허썸 행 먹주, 무신. 반찬 행 먹는 사름이 막 잘사는 집이나, 막 잘사는 집이나 겨울 들민 그 추렴들 헤여근에. 우리도 그 추렴해 먹는 사람 몇 번 아버지가 갈라당 먹어난 거 알아져. 하하.(고기는 제사할 때나 조금 해서 먹지, 무슨. 반찬 해서 먹는 사람이 아주 잘사는 집이나, 아주 잘사는 집이나 겨울 들면 그 추렴들 해서. 우리도 그 추렴해 먹는 사람 몇 번 아버지가 갈라다가 먹었던 거 알아. 하하.)

104018 @ 출 베는 소리¹⁸⁹⁾ 불르명 헤난 기억은 남수과?(‘출 베는 소리’ 부르면서 했던 기억은 남니까?)

104018 #2 아이구, 출 베는 소리 우리 아부진 참 잘헤낫어.(아이고, ‘출 베는 소리’ 우리 아버진 참 잘했었어.)

104018 #1 그거는이 아무나 못헤여.(그거는 아무나 못해.)

104018 #2 아무나 못헤여.(아무나 못해.)

104018 #1 출 베는 소린 막 잘허는 사름이 혼 동네 혼 멧 어른이 이시나 마나 해. 우리 동네도 야네 아부지나벳기 없어.(‘출 베는 소리’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한 동네 한 멧 어른이 있으나 마나 해. 우리 동네도 애네 아버지나밖에 없어.)

104018 #2 우리 친정아버진 목청도 좋곡.(우리 친정아버진 목청도 좋고.)

104018 @ 잘했구나.(잘했구나.)

104018 #2 예.(예.)

104018 #1 다른 소리도 잘허곡 허난 현디 벨로 잇어.(다른 소리도 잘하고 하니까 그런데 별로 없어.)

104018 #2 출 베는 노래든 이제 그 행상.(꿀 베는 노래든 이제 그 행상.)

104018 #1 냥 까끄는 소릴 허는 거 나가 들어 봤어.(나무 깎는 소리를 하는 거 내가 들어 봤어.)

104018 #2 나갈 때에.(나갈 때에.)

104018 #1 잘도 좋아.(아주 좋아.)

104018 #2 그런 거 매언 나가는 선소리허고 못허는 게 없었어.(그런 거 매서 나가는 선소리하고 못하는 게 없었어.)

104018 #1 소리허는 사름이 야네 아버지나 우리 동네 잇주, 없어.(소리하는 사람

189) ‘출 베는 소리’는 꿀을 베면서 부르는 노동요를 말한다.

이 애네 아버지나 우리 동네 있지, 없어.)

104018 @ 언제 돌아가셨수과?(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04018 #2 우리 아부진 이디 완.(우리 아버진 여기 와서.)

104018 #1 사삼스건 넘언.(사삼사건 넘어서.)

104018 #2 사삼스건 지난.(사삼사건 지나서.)

104018 #1 지난 한 이십 년 살아시카?(지나서 한 이십 년 살았을까?)

104018 #2 으.(으.)

104018 #1 이십 년 살았어.(이십 년 살았어.)

104018 #2 혼 이십 년 살았어.(한 이십 년 살았어.)

104018 #1 이제가이 육십팔 년이라이. 사삼스건 지난 때가 이제까지 육십팔 년.
(이제가 육십팔 년이야. 사삼사건 지난 때가 이제까지 육십팔 년.)

104018 @ 생각나는 뭐 한 소절 불를 수 어싯쿠과? 홍애기 소리, 출 베는 소리를
홍애기 소리엔은 안 험니까?(생각나는 뭐 한 소절 부를 수 없겠습니까? ‘홍애기 소
리’, ‘출 베는 소리’를 ‘홍애기 소리’라고는 안 험니까?)

104018 #2 아이구, 홍애기 소리엔 허는디 게메.(아이고, ‘홍애기 소리’라고 하는데
글쎄.)

104018 #1 출 베는 소리 홍애기소리엔 허멍.(‘출 베는 소리’, ‘홍애기 소리’라고
하면서.)

104018 @ 홍애기가 무슨 말이우과?(‘홍애기’가 무슨 말입니까?)

104018 #1 노래, 그 출 베는 노래가 홍애기엔 해. 홍애기가 아무나 잘 못해.(노
래, 그 ‘출 베는 노래’가 ‘홍애기’라고 해. ‘홍애기’가 아무나 잘 못해.)

104018 #2 거 아무나 못허여.(거 아무나 못해.)

104018 #1 그 남자어른덜이나 경 행 홍애기가 아이구, 요 밋디 홍애기 불멍 출
뽕저, 막 구경덜 해.(그 남자어른들이나 그렇게 해서 ‘홍애기’가 아이고, 요 밋에 ‘홍
애기’ 부르면서 풀 베고 있어, 마구 구경들 해.)

104018 #2 우리 아부진.(우리 아버지는.)

104018 @ 무사 홍애기엔 해신고예?(왜 ‘홍애기’라고 했을까요?)

104018 #2 몰라.(몰라.)

104018 #1 출 베는 노래 이름이 홍애기로 허는 생이여.(출 베는 노래 이름이 ‘홍
애기’로 하는 모양이야.)

104018 @ 게난.(그러니까.)

104018 #1 게난 홍애기가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니까 거 아무나 못해. 혼
동네에 혼 어른 이시나 마나 해.(그러니까 ‘홍애기’가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
니까 거 아무나 못해. 한 동네에 한 어른 있으나 마나 해.)

104018 #2 그 홍애기, 홍애기 허멍 비는데 휘양청허게 빔질을 잘허드라고.(그 ‘홍
애기’, ‘홍애기’ 하면서 베는데 휘영청하게 베기를 잘하더라고.)

04018 #1 잘허고 막 구경해. 그 소리가 막 듣기도 좋아. 아이구, 이 밋딘 홍애기

불르멍 비염저야. 저 소리 보라, 저 소리 보라.(잘하고 마구 구경해. 그 소리가 아주 듣기도 좋아. 아이고, 이 밭에 ‘홍애기’ 부르면서 베고 있어. 저 소리 봐라, 저 소리 봐라.)

104018 #2 우리 질 엠에 우리 출밧디도이 우리 친족 자손덜이라이.(우리 길 옆에 우리 풀밭도 우리 친족 자손들이야.)

104018 #1 으.(으.)

104018 #2 우린 질 안쪽으로 앓고 그다음엔 우리 작은하르부지네 앓고 그다음은 우리 셋아부지.(우린 길 안쪽으로 앓고 그다음엔 우리 작은할아버지 앓고 그다음은 우리 둘째아버지.)

104018 #1 질 서넉 밧디?(길 서넉 밭에?)

104018 #2 으. 우리 셋아부지. 그다음엔 이제 저 ○○ 오라바님네, 오도롱¹⁹⁰⁾ 삼촌네. 그다음엔 거릿¹⁹¹⁾ 삼촌네. 우리 친척.(으. 우리 둘째아버지. 그다음 이제 저 ○○ 오라버니네, ‘오도롱’ 삼촌네. 그다음에는 거릿 삼촌네. 우리 친척.)

104018 #1 게난 그 밧디 다 짹짹이 갈랑?(그러니까 그 밭에 다 뭉뭉이 갈라서?)

104018 #2 으, 혼쪽서.(으, 한쪽에서.)

104018 #1 ○○이넌 그디 아니?(○○이넌 거기 아니?)

104018 #2 작은하르부지네가 허니까.(작은할아버지가 하니까.)

104018 #1 아.(아.)

104018 #2 게민 낮이 출 시꺼 오젠, 시경 보내젠 허민.(그럼 낮에 풀 실어서 오려고, 실어서 보내려고 하면.)

104018 #1 나 어린 때 생각에 느네 **이 **** 그 말을 아부지네 성 골아나니까 게.(나 어렸을 때 생각에 너희 **이 **** 그 말을 아버지네 있어서 말했었으니까.)

104018 #2 그렇지.(그렇지.)

104018 #1 겐 옛날에 다 ** 허고 혼장을 허여이. 우리 어른덜이이. 그 혼장 헌 어른덜은이 죽으면 그 지방 쓸 때 지방에.(그래서 옛날에 다 ** 하고 혼장을 해. 우리 어른들이. 그 혼장 한 어른들은 죽으면 그 지방 쓸 때 지방에.)

104018 @ 혼장이렌 허여?(혼장이라고 해?)

104018 #1 혼장이렌 쓰지 안허고.(혼장이라고 쓰지 않고.)

104018 @ 보통 사름덜허고 다르게?(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104018 #1 으. 학생이엔, 아닌 사름은 학생이엔 쓰는디 거 무슨 혼, 아이고, 잊어 불었다. 그 호칭이 있어.(으. 학생이라고, 아닌 사름은 학생이라고 쓰는데 거 무슨 혼, 아이고, 잊어버렸다. 그 호칭이 있어.)

104018 #2 그 저.(그 저.)

104018 #1 혼장 헌 사름만.(혼장 한 사람만.)

104018 @ 그 한자를 아니까. 똑똑허니까 혼장 소리를 들은 거주게.(그 한자를 아

190) ‘오도롱’은 제주시 이호동의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191) ‘거릿’은 제주시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니까. 똑똑하니까 훈장 소리를 들은 거지.)

104018 #1 아고, 자꾸 끝나만은 나도게 치매기가 이신 생이여게.(아이고, 자꾸 말하는데 나도 치매기가 있는 모양이야.)

104018 #2 잊어버린 생각이 안 나.(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

104021 @ 출 벨 때 얹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일 잘해 가지고 뭐. 게문 소 말 한 마리씩 키우는 만큼만 몇 번 저당 날르고 어머니는 누가 밥을 줬으며 또 누가 운반하고 저장하고?(꿀 벨 때 얹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일 잘해 가지고 뭐. 그럼 소 말 한 마리씩 키우는 만큼만 몇 번 쳐다가 나르고 어머니는 누가 밥을 줬으면 또 누가 운반하고 저장하고?)

104021 #1 어머니도 ㄴ찌, 출 ㄴ찌 해. 아버지만 허는 게 아니고 식구가 다 강해. 아이덜도 따라강 막 소덜도 맥이곡 혼디 강 출 비민, 막 멀리 비민 막 날라 오고. 날라당 혼 군데 행 데며야 돼, 혼 군데. 경허젠 허민 아이덜 시켜. 출 빌 때 아이덜 들양 가.(어머니도 같이, 꿀 같이 해.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고 식구가 다 가서 해. 아이들도 따라가서 마구 소들도 먹이고 같이 가서 꿀 베면, 아주 멀리 베면 마구 날라 오고. 날라다가 한 군데 해서 쟁여야 돼, 한 군데. 그러려고 하면 아이들 시켜. 꿀 벨 때 아이들 데리고 가.)

104021 #2 출 무꺼 놓민 그거 날라. 날랑 모여 놔야 돼기 때문에.(꿀 묶어 놓으면 그거 날라. 날라서 모아 놔야 되기 때문에.)

104021 #1 출 비진 못헌 아이도 걸라 해.(꿀 베지는 못하는 아이도 가라 해.)

104021 #2 아이덜도 필요허주게.(아이들도 필요하지.)

104021 #1 출 무꿀 거난 거 날르젠 빌어.(꿀 묶을 거니까 거 나르려고 빌려.)

104021 @ 점심을 어무니가 쌍 왕 먹고.(점심을 어머니가 싸서 와서 먹고.)

104021 #1 아침이 가명 다.(아침에 가면서 다.)

104021 @ 가정 가?(가지고 가?)

104021 #2 아침이 새벽 조반 행 강 출령 가야지.(아침에 새벽 조반 해서 가서 차려서 가야지.)

104021 #1 세 시만 돼민 일어낭 밥해. 세 시. 세 시만 돼민 일어낭 밥 먹영.(세 시만 되면 일어나서 밥해. 세 시. 세 시만 되면 일어나서 밥 먹어서.)

104021 #2 옛날 어른덜은 잠도 영 못 자주게. 잠잘 시간이 어디 셔?(옛날 어른들은 잠도 이렇게 못 자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104021 #1 겐디 우리는 경은 안 헌디 우리 웨가에 저 수산¹⁹²⁾, 아니 으상 강 보민이 우리 삼춘넌 방에 강 혼번 안 자 보귀렌. 부엌에 검질 이만이 쌍이민 검질에 직산허영 흐꿈 영 잣당 그냥 밥행. 출 빌 땐 구들에 강 몸냥 안 자 보귀렌. 우리 큰 웨삼춘 부인이 경 곱아. 어떤 사름이 방에 강 줌자느닌? 우린 출 빌 때 가젠 허민 그냥. 그냥 부엌에서 넷당 일어낭 밥행. 경 막, 그 삼춘 경 곱아. 훌어명이곡 허난 경 일을 더 헤신디 몰라.(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 외가에 저 수산,

192) '수산'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를 말한다.

아니 ‘으상’ 가서 보면 우리 삼촌넌 방에 가서 한번 안 자 봤다고. 부엌에 검불 이만큼 쌓이면 검불에 기대서 조금 이렇게 잤다가 그냥 밥해서. 꿀 벨 때는 방에 가서 마음대로 안 자 봤다고. 우리 큰외삼촌 부인이 그렇게 말해. 어떤 사람이 방에 가서 잠자냐고? 우리 꿀 벨 때 가려고 하면 그냥. 그냥 부엌에서 뉘다가 일어나서 밥해서. 그렇게 마구, 그 삼촌 그렇게 말해. 홀어머니이고 하니까 그렇게 일을 더 했는지 몰라.)

104021 #2 그렇지.(그렇지.)

104021 #1 우리 웨삼촌 돌아가서 부난.(우리 외삼촌 돌아가서 버리니까.)

104021 @ 차룽에 밥 담고.(채룽에 밥 담고.)

104021 #1 으, 그때 옛날에 무신 장통이 있어났어이. 요만한 장통, 사기로 현 거. 우리 어머님네 보민. 영 즈룩도 영 있어. 겐 그것에 흐뭇 요쪽엔 웬장 담곡 요쪽에 마농장아찌 담곡 경헨 두갱이 올앙 두께에 덜어 낵 이디 놓고 이디 놓곡 행 먹는 거 봐났어. 경허고 또 그디 가민 우리 아버지가 그 멜순 잇잖아, 멜순.(으, 그때 옛날에 무슨 ‘장통’이 있었어. 요만한 ‘장통’, 사기로 한 거. 우리 어머님네 보민. 이렇게 자루도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것에 조금 요쪽에는 된장 담고 요쪽에 마늘장아찌 담고 그래서 뚜껑 열어서 뚜껑에 덜어 놔서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해서 먹는 거 봤었어.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 밀나물 잇잖아, 밀나물.)

104021 @ 으.(으.)

104021 #1 그 출 빌 때 가민 막 커근에 썸이 나와게. 그 썸에 순에 강 툷아 와. 그 밧 엠에 신 거. 거 행 썸 싸 먹어. 그거 몇 번 먹는 거 봐난. 우리 아버지가.(그 꿀 벨 때 가면 아주 커서 잎이 나와. 그 잎에 순에 가서 뜯어 와. 그 밧 옆에 있는 거. 거 해서 썸 싸 먹어. 그거 몇 번 먹는 거 봤었어. 우리 아버지가.)

104021 #2 아, 우린 먹넌 말은 들어도 먹어 보진 안헤난.(아, 우린 먹는다는 말은 들어도 먹어 보지는 않았어.)

104021 #1 몇 번 먹더라고. 우리도 안 먹은디 우리 아바진 막 먹어. 그 멜순 낵. 밧디 영 난 거 시민 뜯아 와.(몇 번 먹더라고. 우리도 안 먹었는데 우리 아버진 마구 먹어. 그 밀나물 놔서. 밧에 이렇게 난 거 있으면 뜯어 와.)

104021 #2 올 아부진 안 먹어.(우리 아버진 안 먹어.)

104021 @ 가을에?(가을에?)

104021 #2 아니, 출 빌 때. 출 빌 때 밧디서.(아니, 꿀 벨 때. 꿀 벨 때 밧에서.)

104021 @ 출 빌 때가 구월달, 가을 뉘는 거 아니?(꿀 벨 때가 구월, 가을 되는 거 아니?)

104021 #1 초가을이지. 초가을에. 게난 여기서 무신 상추나 녹물이나 가정 강 싸 먹지 안허고 그 멜, 것이 이름이 멜순이라이, 멜순. 그거 처음 나올 때도 그건 껌꺼 당 막 먹어.(초가을이지. 초가을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상추나 나물이나 가지고 가서 싸 먹지 않고 그 밀, 것이 이름이 밀나물이야, 밀나물. 그거 처음 나올 때도 그건 껌꺼다가 마구 먹어.)

104021 #2 겐 먹넨 말은 들어도 우린.(그래서 먹는다는 말을 들어도 우린.)

104021 @ 자리 군 거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겠냐예?(자리 구운 거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겠네요??)

104021 #2 먹는 건 안 봐봤어.(먹는 건 안 봤었어.)

104021 #1 그거는이 어디 아래 헛꿈 잘사는 사름덜은 막 연기 나근에 냄새가 나. 구는 냄새가 나.(그거는 어디 아래 조금 잘사는 사람들은 마구 연기 나서 냄새가 나. 굽는 냄새가 나.)

104021 #2 아이 출 빌 때 고등어 거튼 거 말려근에 아정 강 쾡 먹었지.(아이 꼴 벨 때 고등어 같은 거 말려서 가지고 가서 구워서 먹었지.)

104021 #1 겐디 우리, 나 쾡 먹어 보지 안했어.(그런데 우리, 나 구워서 먹어 보지 않았어.)

104021 #2 우린 주로 구웁 먹었어.(우리는 주로 구워서 먹었어.)

104021 #1 고기?(고기?)

104021 #2 으. 가을 들어 가민, 가을 들민 부두에 가근에가 우리 어무니가 가근에 혼 바구니 강 사 와. 사근에 다 이제 잘랑.(으. 가을 들어 가면, 가을 들면 부두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가서 한 바구니 가서 사 와. 사서 다 이제 잘라서.)

104021 #1 부두꺼지 강?(부두까지 가서?)

104021 #2 으?(으?)

104021 #1 부두꺼지?(부두까지?)

104021 @ 부두 가야 싸니까.(부두 가야 싸니까.)

104021 #2 으, 그 옛날에도. 계근에게.(으, 그 옛날에도. 그래서.)

104021 @ 부두 배 맞췄, 시간 맞췄?(부두 배 맞춰서, 시간 맞춰서?)

104021 #2 으. 경해근에게 찰라근에 손 봐근에 소금 해근에게 이제 말리곡 이제 향아리에 젓 담아 낫다근에게 출 헐 때민 그거 먹주게. 출 헐 때민 그거 이제 하나 아정 가근에게 이제. 난 어리니까 출 베진 못허고 허니까 강 소 강 낮이 강 물 멕이고 소 저디 나가는 거 보렌 행 그거 보고 경해영 그런 식으로만 헛주게.(으, 그래서 잘라서 손 봐서 소금 해서 이제 말리고 이제 향아리에 젓 담가 낫다가 꼴 할 때면 그거 먹지. 꼴 할 때면 그거 이제 하나 가지고 가서 이제. 난 어리니까 꼴 베진 못하고 하니까 가서 소 가서 낮에 가서 물 먹이고 소 저기 나가는 거 보라고 해서 그거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했지.)

104021 #1 잘살았네. 우리도이 우리 큰어무닌 손이 커근에 그 고기 장시 해변서 오민이 고기 장시 탁, 원 많이 사 와. 무신거사 완신디 그냥 비와. 비와근에 빈 구덕에 어떤 때는 드러 쓸도 지영 보내고 웨상했다근에 뭐 콩이나 팥이나 나면은 그냥 오면은 혼 짐 지와 불어. 그 고깃잡으로. 경 우리 큰어무닌 경헌텐 소문난 어른이라.(잘살았네. 우리도 우리 큰어머닌 손이 커서 그 고기 장수 해변에서 오면 고기 장수 탁, 원 많이 사 와. 뭐가 오는지 그냥 부어. 부어서 빈 바구니에 어떤 때는 들이 쌀도 지어 보내고 외상했다가 뭐 콩이나 팥이나 나면 그냥 오면 한 짐 지워 버

려. 그 고깃값으로. 그렇게 우리 큰어머니는 그런다고 소문난 어른이야.)

104021 #2 우리 할무니가 경혜났젠 허메. 우리 할무니가.(우리 할머니가 그랬었다고 해. 우리 할머니가.)

104021 #1 구덕을 그냥 비와 불어. 아, 경허민 나 가시민 고기 혼 마리씩 줘.(바구니를 그냥 부어 버려. 아, 그러면 내가 갔으면 고기 한 마리씩 줘.)

104021 #2 게난 우리.(그러니까 우리.)

104021 #1 셋년아, 이거 가정 가근에 꿩 먹으라, 경. 여분이 많으니까.(둘째야, 이거 가지고 가서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여분이 많으니까.)

104021 #2 우리 어릴 때 할마니네 집 가민 꼭 고기반찬 잇주.(우리 어릴 때 할머니네 집 가면 꼭 고기반찬 있지.)

104021 #1 우리 큰어무니 경혜게.(우리 큰어머니 그래.)

104021 #2 반찬 엇은 밥을 안 먹더라.(반찬 없는 밥을 안 먹더라.)

104021 #1 겐 고기 장시가 단골이 있어, 단골.(그래서 고기 장수가 단골이 있어, 단골.)

104021 @ 아버지가 잇이난.(아버지가 있으니까.)

104021 #1 겐데 우리 어무닌 경 고기 행 먹는 걸 나가 못 봐봤어.(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고기 해서 먹는 걸 내가 못 봤었어.)

104021 #2 우린 팔월 나민 출 혈 때 먹젠 미리 강 사당 다 행 놔두더라고.(우리는 팔월 되면 풀 할 때 먹으려고 미리 가서 사다가 다 해서 놔두더라고.)

104021 #1 그 무시거 헌 걸 나가 먹어 받.(그 뭐 한 걸 내가 먹어 봤어.)

104021 @ 메칠 걸청 빙니까, 출은?(며칠 걸쳐서 뵙니까, 풀은?)

104021 #1 혼 십오 일 걸려이.(한 십오 일 걸려.)

104021 #2 십오 일 걸려.(십오 일 걸려.)

104021 @ 아, 베는 것만?(아, 베는 것만?)

104021 #1 이 주. 이 주 걸려.(이 주. 이 주 걸려.)

104021 @ 그자락?(그만큼?)

104021 #1 으, 이 주 걸려.(으, 이 주 걸려.)

104021 @ 뗏 사람이 집안 식구덜. 이 주나?(뗏 사람이 집안 식구들. 이 주나?)

104021 #1 이 주 걸령 이 주 해 놓민 그다음에는 집이 시꺼 왕 해 가민.(이 주 걸려서 이 주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집에 실어 와서 해 가면.)

104021 #2 날이나 좋아야 이 주에 허주.(날이나 좋아야 이 주에 하지.)

104021 #1 거저 이십 일 이상 걸려.(거의 이십 일 이상 걸려.)

104021 #2 이십 일 이상 걸려.(이십 일 이상 걸려.)

104021 #1 그 출 다 쫓내젠 허민.(그 풀 다 끝내려고 하면.)

104021 @ 이십 일.(이십 일.)

104021 #1 출 혈 때가 농촌에서 지일 힘든다게. 밭이 머니까 일찍 일어남 밥허곡 가는 거 오는 거 그 시간이.(풀 할 때가 농촌에서 제일 힘들다. 밭이 머니까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가는 거 오는 거 그 시간이.)

104021 @ 아이덜은 집이 그냥 ㄴ만 놔두주만은.(아이들은 집에 그냥 가만 놔두지만.)

104021 #1 아이덜은, 그때 아이덜사 아이구, 먹는 거고 입는 거고 이제 거트민 거지도 것보담 낮게 행 사는디.(아이들은, 그때 아이덜이야 아이고, 먹는 거고 입는 거고 이제 같으면 거지도 것보다 낮게 해서 사는데.)

104021 #2 그렇지.(그렇지.)

104021 #1 옛날사 무신 옷을 잘 빨아 주카. 무신 이쁜 걸. 켄디 우리 어무니는 그건 허드라. 가을 들면은 저고리 치마ㄴ슴을 딱 장에 강 상 와. 상 오민 우리 언니가 미리 시집을 갖어이.(옛날에야 무슨 옷을 잘 빨아 줄까. 무슨 예쁜 걸.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건 하더라. 가을 들면 저고리 치맛감을 딱 장에 가서 사서 와. 사서 오면 우리 언니가 미리 시집을 갖어.)

104021 #2 으.(으.)

104021 #1 시집 미리.(시집 미리.)

104021 #2 인척 가주게.(일찍 가지.)

104021 #1 열여덟에 시집을 가난 어머니가 허민 큰년아 옷ㄴ슴 사 와시메 느 아시덜 옷 강 해 줘 불라. 허민 성이 꼭 이리 끝동 놔. 이디, 이디 나 사진에도 잇언게. 끝동 낳 언니가 저고릴 성제 걸. 세 설, 세 설 차이로 동생 잇고 나 이시난게. (열여덟에 시집을 가니까 어머니가 하면 큰딸아 옷감 사 왔으니까 너의 아우들 옷가서 해 줘 버려라. 하면 형이 꼭 이리 끝동 놔. 여기, 여기 나 사진에도 있어. 끝동 놔서 언니가 저고리를 형제 걸. 세 살, 세 살 차이로 동생 잇고 나 있으니까.)

104021 #2 아, 언니가 강 해 와?(아, 언니가 가서 하고 와?)

104021 #1 지 손이로게. 손이로 해 줘. 어무닌 저를이 엇언게. 우리 어무닌, 우리 성님은 월랑¹⁹³⁾ 시집가니까 출은 안 헛지게. 소 물이 엇이난게.(자기 손으로. 손으로 해 줘. 어머니는 겨를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은 월랑 시집가니까 풀은 안 헛지. 소 말이 없으니까.)

104021 #2 그렇지.(그렇지.)

104021 #1 또 아주바님은 시청에 다니고 허니까. 계난 그거 성 해 준 저고리 몇 번 입어 봤어. 끝동 놓고 행.(또 아주버님은 시청에 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형 해 준 저고리 몇 번 입어 봤어. 끝동 놓고 해서.)

104021 #2 난 우리 어무니가 다 해 줘.(난 우리 어머니가 다 해 줘.)

104021 @ 어느 저를에예.(어느 겨를에요.)

104021 #1 끝동도 빨간 걸로 색동저고리.(끝동도 빨간 걸로 색동저고리.)

104021 @ 손도 베 먹고 허잖아예, 출 베당?(손도 베 먹고 하잖아요, 풀 베다가?)

104021 #1 비고말고게.(베고말고.)

104021 #2 게.(그래.)

193) '월랑'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104021 #1 거 서툰 사람은 많이 비지 또. 익숙은 사람은 경 아니 비는디. 손 비민 무슨 약이 있어, 아이고.(거 서툰 사람은 많이 베지 또. 익숙은 사람은 그렇게 아니 베는데. 손 베면 무슨 약이 있어, 아이고.)

104021 #2 출발에 나는 풀이 있어.(꿀밭에 나는 풀이 있어.)

104021 #1 들싸움고장이엔 흰 꽃이 있어, 들싸움꽃. 이름이 들싸움꽃이라. 그것이 해근에 영 영 비비민 흐뭇민질민질허드라. 기민 요레 딱 부떠근에 메민 이렇게 영 빈 것이 뽕뽕 부터게. 물만 안 들이민 혼 삼 일만 이시민. 나 그거 행 굳혀난.(제비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 제비꽃. 이름이 제비꽃이야. 그것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 조금 미끈미끈하더라. 그럼 요리 딱 붙어서 매면 이렇게 이렇게 빈 것이 뽕뽕 붙어. 물만 안 들이면 한 삼 일만 있으면. 나 그거 해서 굳혔었어.)

104021 @ 들싸움꽃. 쭈이 아니고예?(제비꽃. 쭈이 아니고요?)

104021 #1 쭈 아니고, 들싸움꽃.(쭈 아니고, 제비꽃.)

104021 #2 쭈 아니.(쭈 아니.)

104021 #1 게 들싸움에 꽃도 씻고 썸이 있어, 썸으로.(그래 제비꽃에 꽃도 있고 잎이 있어, 잎으로.)

104021 #2 들싸움꽃 말앙 그.(제비꽃 말고 그.)

104021 #1 썸.(잎.)

104021 #2 또 그 약 쓰는 풀이 있어.(또 그 약 쓰는 풀이 있어.)

104021 #1 난 들싸움꽃만 자꾸 행 부쳐났어.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해영 허렌 허여.(난 제비꽃만 자꾸 해서 붙였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해서 하라고 해.)

멜감

104022 @ 그다음은예, 멜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삭다리, 뭐 이런 거 있지예?(그다음은요, 멜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삭정이, 뭐 이런 거 있지요?)

104022 #2 삭다리 나무 삭은 거 보고 삭다리라고 허거든.(삭정이는 나무 삭은 거 보고 삭정이라고 하거든.)

104022 #1 삭다리 그 시절에 허는 사람은 일 막 없는 사람게. 집이 한걸리 잇는 사람은 삭다리 허레 산에 가. 우리 동네 삭다리 허는 사람이 ○○네 어떻허고 ○○ 어떻 두 사람뿐이야.(삭정이 그 시절에 하는 사람은 일 막 없는 사람. 집에 한가하게 잇는 사람은 삭정이 하러 산에 가. 우리 동네 삭정이 하는 사람이 ○○네 어머니하고 ○○ 어머니 두 사람뿐이야.)

104022 @ 맞아. 다 큰 세간 살믄 삭다리 헐 시간이 없어. 남편이 이신, 딱 그디는 훌어멍이라. 훌어멍이니까 일본 강 남편들 죽영 와 부난.(맞아. 다 큰 세간 살면 삭정이 할 시간이 없어. 남편이 잇는, 딱 거기는 훌어머니야. 훌어머니이니까 일본 가서 남편들 죽어서 와 버리니까.)

104022 #2 소 안 메곡 허는 게.(소 안 매고 하는 게.)

104022 #1 나 고사리 꺼끄당 보민 그 둘만 무시거 영 정은에 삭다리 허레 감서. 겐 내창에 들어가. 겐 그 삭다리 헨 건 자기대로 물랑 죽은 낭이지.(나 고사리 꺾다가 보면 그 둘만 뭐 이렇게 저서 삭정이 하러 가고 있어. 그래서 내에 들어가. 그래서 그 삭정이 한 건 자기대로 말라서 죽은 나무지.)

104022 #2 으, 삭은 낭.(으, 삭은 나무.)

104022 #1 그거 꺼깁은에 집이 저 오민 진짜 보기도 좋고 불 숨기도 좋곡이. 연기도 안 나고. 불 숨아 나민이 그거 영 그디서 고기도 구워 먹고.(그거 꺾어서 집에 저 오면 진짜 보기도 좋고 불 때기도 좋고. 연기도 안 나고. 불 때고 나면 그거 이렇게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104022 @ 잉겅으로?(잉겅로?)

104022 #2 잉겅으로.(잉겅로.)

104022 #1 잉겅로 겐 우리 동넨 그 두 어른만 삭다릴 허는 걸 봤어. 땀 사람은이 소 질루지, 농스허지, 남편 이시른 삭다린 한결해사 해 오지게.(잉겅로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 두 어른만 삭정이를 하는 걸 봤어. 땀 사람은 소 기르지, 농사하지, 남편 있으면 삭정이는 한가해야 해 오지.)

104023 @ 굴묵은 뭘로 짚어마썸?(‘굴묵’은 뭘로 때요?)

104023 #1 굴묵¹⁹⁴)은이 보리 해 나민 ㄴ시락 나와.(‘굴묵’은 보리 하고 나면 까끄라기 나와.)

104023 #2 ㄴ시락.(까끄라기.)

104023 #1 ㄴ시락. 경헨 ㄴ시락 나오는데, 흐뭇 멍심허민이 뭇똥을 좇어 와. 우린 뭇을 강은에 밤인 메주게. 출 그르에 강 줄 이만이 줄 행 강 메민 우리 어머니 뭇가지레 갈 땀 굴체 가정 가. 굴체가 있어. 그 굴체로 흐나 강 좇어당 좇은은에 물리곡 물리곡 허면은 막 불어낭 많지게. 막 많양은에 ㄴ시락에 써꺼근에.(까끄라기. 그래서 까끄라기 나오는데, 조금 멍심하면서 뭇똥을 주워 와. 우린 뭇을 가서 밤엔 매지. 풀 그루에 가서 줄 이만큼 줄 해서 가서 매면 우리 어머니 뭇가지러 갈 때는 삼태기 가지고 가. 삼태기가 있어. 그 삼태기로 하나 가서 주워다가 주워서 말리고 말리고 하면 아주 불어나서 많지. 아주 많아서 까끄라기에 섞어서.)

104023 #2 서꺼근에게.(섞어서.)

104023 #1 그 굴묵을 때면은 그추룩 따시고 오래 가곡.(그 ‘굴묵’을 때면 것처럼 따뜻하고 오래 가고.)

104023 @ 뭇똥만마썸? 소똥은?(뭇똥만요? 소똥은?)

104023 #1 소똥은 무랑헨은에 물리기가 힘들어.(소똥은 물켜해서 말리기가 힘들어.)

104023 #2 두껍고 허난 잘 물르지 안허여.(두껍고 하니까 잘 마르지 않아.)

104023 #1 아니, 어떤 사름은이 소똥도 질레에 가당 시민 영 행 놔뉘. 거르침 물르렌. 경헨당 물르민 가져오는 사름도 있어. 도남¹⁹⁵) 삼춘, ○○ 어머니 경 잘헤여.

194)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소똥도 길에 가다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놔둬. 뒤집어서 마르라고. 그랬다가 마르면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 도남 삼촌, ○○ 어머니 그렇게 잘해.)

104023 @ 하하하.(하하하.)

104023 #1 발로도 행 읍더레 낫당은에 몰르민 가져가. 판 사름은 벨로 허는디 그 삼촌은 똑 경 그냥 안 넘어가. 똥을 싸민 어떤 쉼이 혼 밧디 싸민 이만이 영 커게. 크민 흐뎡 몰라 가민 영허민 뒤집어져. 쟁 험 몰리민 가져가, 집에. 그 삼촌 자꾸 경해. 또 도남이 흐뎡 해변 아니가게. 해변에 살아나니까.(발로도 해서 옆으로 왔다가 마르면 가져가. 판 사름은 벨로 하는데 그 삼촌은 똑 그렇게 그냥 안 넘어가. 똥을 싸면 어떤 소는 한 군데 싸면 이만큼 이렇게 커. 크면 조금 말라 가면 이러면 뒤집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마르면 가져가, 집에. 그 삼촌 자꾸 그래. 또 도남이 조금 해변 아니니. 해변에 살았었으니까.)

104023 @ 삼촌넨 소똥은 안 허고 말똥은 헛다?(삼촌네는 소똥은 안 하고 말똥은 헛다?)

104023 #1 우리는 말 질루니까. 이녁 말똥 강 좇영 오민 실컷 해.(우리는 말 기르니까. 자기 말똥 가서 주워 오면 실컷 해.)

104023 #2 이녁 말 아니라도 늪이 말똥이라도 가을 들영 가을 끝에는 가을 곡식덜.(자기 말 아니어도 남의 말똥이라도 가을 들어서 가을 끝에는 가을 곡식들.)

104023 #1 게난 우린 일력 안 벌려도.(그러니까 우린 일력 안 벌여도.)

104023 @ 똥 좇으레 가 봤수파?(똥 주우러 가 봤었습니까?)

104023 #2 으, 밤에 영 낱 내불주게. 밧 흐나에 모아근에게 그레 낱은에게 이 돌담덜 이시니까. 경 나가지 못허게 영 에왕 놔두민 밤에 그디서 먹으멍 살렌.(으, 밤에 이렇게 놔서 내버리지. 밧 하나에 모아서 그리 놔서 이 돌담들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에워서 놔두면 밤에 거기서 먹으면서 살라고.)

104023 #1 혼 똥 몇 마리 행.(한 말 몇 마리 해서.)

104023 #2 똥 마리 행 놔두민 새벽이 아침에. 아메도 그자 똥똥 보일등 말똥 허게 똥면은 어머니가 막 일어난 강 어느 밧디 똥똥 좇어 오렌 해근에게. 경 나 경 강 똥 좇어근에 그 밧 에염에 널어똥 그 출밧디 출 해난 밧디 강 널어똥 오곡 해낫어.(몇 마리 해서 놔두면 새벽에 아침에. 아무래도 그저 말똥 보일락 말락 하게 되면 어머니가 막 일어나서 가서 어느 밧에 말똥 주어 오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가서 똥 주워다가 그 밧 옆에 널어똥서 그 꼴밧 꼴 했던 밧에 가서 널어똥서 오고 했었어.)

104023 @ 주인은 똥렌 안 허여?(주인은 똥라고 안 해?)

104023 #2 응. 똥렌 허진 안허여.(응. 똥라고 하지 않아.)

104023 #1 아니, 이녁 못 허민이 강 좇어 불어도 욕은 못해. 이녁이 게으르니까 늦은 거지. 인척 가근에 좇어.(아니, 자기 못 하면 가서 주워 버려도 욕은 못해. 자기가 게으르니까 늦은 거지. 일찍 가서 주워.)

195) '도남'은 제주시 도남동을 말한다.

104023 #2 므녀 좇어 오는 사람이 임제라.(먼저 주워 오는 사람이 임자야.)

104023 #1 그때는 다 경 해.(그때는 다 그렇게 해.)

104023 @ 물리는 것이 출발테 강 물렸다는 거?(말리는 것이 풀밭에 가서 말렸다는 거?)

104023 #2 으.(으.)

104023 @ 집이서 냄새나난?(집에서 냄새나니까?)

104023 #2 으.(으.)

104023 #1 그디서 물리민게 가져오기도 힘 안 들곡이 물리민 계법고게.(거기서 말리면 가져오기도 힘 안 들고 말리면 가볍고.)

104023 #2 응. 젖을 땀 므르지 않을 땀 막 무겁주게. 얼마 못 저 와.(응. 젖을 땀 마르지 않을 땀 아주 무겁지. 얼마 못 저 와.)

104023 @ 야, 진짜.(아, 진짜.)

104023 #1 에이고, 옛날에 살아난 생각허민 참.(에이고, 옛날에 살았던 생각하면 참.)

104024 @ 그믐 술가리 걷기, 술입 허레 가 본 적은 잇수과?(그믐 술가리 그러모으기, 술입 하러 가 본 적은 있습니까?)

104024 #2 응.(응.)

104024 @ 것도 굴묵 때고 지들커 저기 뭐 허젠?(것도 ‘굴묵’ 때고 땀감 저기 뭐 하려고?)

104024 #2 응.(응.)

104024 #1 술입 해근에, 술입 허는 글쟁이가 있어.(술입 해서, 술입 하는 갈퀴가 있어.)

104024 @ 예.(예.)

104024 #1 이만이헌 거 알지? 영 박박 굵영은에 막 행 모여 낱은에 배 영 헨 세 겹 나이. 요만씩 행 세 개 낱, 이렇게 이렇게 낱은에 딱 무경 걸 두 못 행, 나도 거 두 개 정은에, 하나 정 이디 갖다 놔똥 저만이 강 또 하나 지고. 흔꺼번에 못 저 오주게. 두 못 허민.(이만한 거 알지? 이렇게 박박 굵어서 마구 해서 모여 놔서 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놔. 요만큼씩 해서 세 개 놔, 이렇게 이렇게 놔서 딱 묶어서 걸 두 못 해서, 나도 거 두 개 저서, 하나 저서 여기 갖다 놔두고 저만큼 가서 또 하나 지고. 한꺼번에 못 저 오지. 두 못 하면.)

104024 #2 이만이 해 논란게.(이만큼 해 놓으니까.)

104024 #1 게난 막 조니까. 그거 어떻행 바람 불어난 디 가민 막 소나무 아래 그 낱 그 술입이 그냥 별정케 떨어져. 게민 굵당 보민 잘도 많아. 경 많으민.(그러니까 아주 좋으니까. 그거 어떡해서 바람 불었던 데 가면 마구 소나무 아래 그냥 그 술가리가 그냥 별정케 떨어져. 그럼 굵다가 보면 아주 많아. 그렇게 많으면.)

104024 #2 술입이 불을 때기도 좋아.(술가리가 불을 때기도 좋아.)

104024 #1 연기도 안 나고.(연기도 안 나고.)

104024 #2 연기도 안 나고 불불불불¹⁹⁶.(연기도 안 나고 불불불불.)

104024 #1 게민 그것도 그것에 소소한 고기 마른고길 굴 수 있어. 거 잉걸로, 그냥 검질보다 왕상해¹⁹⁷. 솔입 불이, 진짜 솔입 불 숨기 좋아.(그럼 그것도 그것에 소소한 고기 마른고기를 구울 수 있어. 거 잉걸로, 그냥 검질보다 ‘왕상해’. 솔가리 불이, 진짜 솔가리 불 때기 좋아.)

104024 @ 어느 오름?(어느 오름?)

104024 #1 그냥 우에 가민 소낭 밧디 많아. 것도이 영 굽어난 디가 굽기 좋아. 자갈도 엇곡이. 그 처음에 허젠 허민 돌멩이 잇영 막 걸령.(그냥 위에 가면 소나무 밧이 많아. 것도 이렇게 굽었던 데가 굽기 좋아. 자갈도 없고. 그 처음에 하려고 하면 돌멩이 있어서 마구 걸려서.)

104024 #2 돌멩이 이신 디도 녁쿨 이신 디도 못 굽어. 글쟁이 걸령.(돌멩이 있는 데도 녁쿨 있는 데도 못 굽어. 갈퀴 걸려서.)

104024 #1 게난 자꾸 헤난 디사. 헤난 딴 떨어져도 걷기가 좋아.(그러니까 자꾸 했던 데야. 했던 데는 떨어져도 그러모으기가 좋다.)

104024 @ 벋덜 행 멧 명 같이 가지예?(벋들 해서 몇 명 같이 가지요?)

104024 #2 으, 같이도 갈 수도 있고.(으, 같이도 갈 수도 있고.)

104024 @ 혼자는 무섭지 안해?(혼자는 무섭지 않아?)

104024 #1 옛날엔 경 무서운 사름이 벨로 없어.(옛날엔 그렇게 무서운 사름이 별로 없어.)

104024 @ 어머니영은 안 가고?(어머니와는 안 가고?)

104024 #1 어머니는 딴 일 허곡 그냥.(어머니는 딴 일 하고 그냥.)

104024 #2 아이고, 어머니 집잇일도 바빻 스몏.(아이고, 어머니 집안일도 바빠서 사몏.)

104024 #1 딴 일 허곡 그냥. 허ㄴ정 허믄 강 허여 오는 거주. 벨로 해 오젠 현 거 안 닙아, 어무니가.(딴 일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가서 해 오는 거지. 벨로 해 오려고 한 거 안 같아, 어머니가.)

104024 #2 헤여 오랜 현 거 누게가 해 오랜 허나게. 그냥.(해 오라고 한 거 누가 해 오라고 하니. 그냥.)

104024 #1 허렌 안 해도 우린 헤엿거든. 가카, 경헤영 멧이 강.(하라고 안 해도 우린 했거든. 갈까, 그래서 멧이 가서.)

104024 #2 아이구, 난 맏딸이기 때문에, 나가 그런 거고 저런 거고 안 해 오민 해 올 사름도 없어. 게난 주로 그런 것도 해 오곡.(아이고, 난 맏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고 저런 거고 안 해 오면 해 올 사름도 없어.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것도 해 오고.)

104024 #1 난이 ○○허고 ○○영만 가난. 솔입, 솔똥, 솔똥. 솔똥 낭에 가민 혼들

196) ‘불불불불’은 솔가리 등의 땔감이 불에 잘 타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97) ‘왕상허다’는 왕성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여기서는 잉걸의 불이 이글거린다는 의미다.

고 따고 경행 떨어추와은에 그거 가맹이가 얼마 안 들어.(난 ○○하고 ○○랑만 갔
었어. 술가리, 술방울, 술방울. 술방울 나무에 가면 흔들고 따고 그래서 떨어뜨려서
그거 가마니가 얼마 안 들어.)

104024 #2 얼마 안 들어.(얼마 안 들어.)

104024 #1 가맹이 하나만 지민 너무 게벼와게.(가마니 하나만 지면 너무 가벼워.)

104024 @ 하하하.(하하하.)

104024 #2 무게가 었은 거난.(무게가 없는 거니까.)

104024 #1 게벼와. 게민 푸대 가져강 푸대에 낱 그 푸대 우이 낱 정 와난 기억이
나. 우리 ○○영 ○○엔 현 아인 동갑이라. 동갑이난 헝곰 허민, 우리 술똥 좇이레
가카? 응, 가자. 겐 우리는 필요 셔도이 ○○는 허나 마나 해. 그디 가까우난이 그
하르부지가 막 잘해 와. 그런 거.(가벼워. 그럼 부대 가져가서 부대에 넣어서 그 부
대 위에 놔서 저서 왔던 기억이 나. 우리 ○○랑 ○○라고 하는 아인 동갑이야. 동
갑이니까 조금 하면, 우리 술가리 주우러 갈까? 응, 가자. 그래서 우리는 필요 있어
도 ○○는 하나 마나 해. 거기 가까우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주 잘해 와. 그런 거.)

104024 #2 으, 맞아.(으, 맞아.)

104024 #1 뭘 그냥 벨로 해 오랜 안 해도 벗 브룸에 가.(뭘 그냥 벨로 해 오라고
안 해도 벗 바람에 가.)

104024 #2 으, 경헛주.(으, 그랬지.)

104024 #1 열인 경 벨로 부모네가 헤여 오나 마나. 많이 잇는 디게.(열이는 그렇
게 벨로 부모네가 해 오나 마나. 많이 잇는 데.)

104024 #2 뽕감 허레 땡겨 보지, 가인 벨로 안 헛어.(뽕감 하러 다녀 보지, 개는
벨로 안 헛어.)

104024 #1 겐 우리 브룸에 간 거라.(그래서 우리 바람에 간 거야.)

104024 @ 밥헛 때 그걸 씹니까, 굴묵 진을 때?(밥할 때 그걸 씹니까, ‘굴묵’ 뽕
때?)

104024 #1 굴묵 진을 때 잘도 좋아.(‘굴묵’ 뽕 때 아주 좋아.)

104024 #2 술똥은 굴묵 지들 때가 막 좋아. 굴묵 때는 게.(술방울은 ‘굴묵’ 뽕 때
가 아주 좋아. ‘굴묵’ 때는 게.)

104024 #1 막 방이 막 와삭와삭 뜨거와. 장판이 막 카, 이만이.(아주 방이 아주
후끈후끈 뜨거워. 장판이 마구 타, 이만큼.)

104024 #2 굴묵 때는 게 좋아.(‘굴묵’ 때는 게 좋아.)

104024 #1 게민 막 요도 앓아 불고.(그럼 마구 요도 가져 버리고.)

104024 @ 가스 쓰멍 지금 다 지천으로 널려 잇고 소나무를 지금 다 잘라 부는.
(가스 쓰면서 지금 다 지천으로 널려 잇고 소나무를 지금 다 잘라 버리는.)

104024 #1 게난 사람이 얼마나 못 전당, 놀지 안헤영 이제는 스뭇.(그러니까 사
람이 얼마나 못 견뎌서, 놀지 앓고 이제는 사뭇.)

104024 #2 아이구, 그때 시절에사.(아이고, 그때 시절에야.)

104024 @ 버릴 게 하나 있어다예, 진짜?(버릴 게 하나 없었네요, 진짜?)

104024 #1 이제난 흥뽀 뉘게 컷지. 옛날엔 막 쪽아난. 게난 막 곱아. 저던 큰년도 죽은년도 큰디 셋년만 일 막 하영 헤 부난. 우리 오빠가 일본서 완이 날ㄱ라 물도 막 질어 오지 말렌. 죽은년보단 죽으켄 막.(이제니까 조금 뉘게 컷지. 옛날엔 아주 작았었어. 그러니까 마구 말해. 저긴 큰딸도 작은딸도 큰데 둘째 딸만 일 막 많이 해 버리니까. 우리 오빠가 일본에서 와서 나보고 물도 마구 질어 오지 말라고. 작은 딸보다 작겠다고 마구.)

104024 @ 뭐 허켄?(뭐 하겠다고?)

104024 #1 죽은년보단, 시나 알에 동생.(작은딸보다, 셋이나 아래 동생.)

104024 #2 밑에 동생보다 작으켄.(밑에 동생보다 작겠다고.)

104024 #1 물도이 물도 빨민이 저 서쪽에 게남절¹⁹⁸이엔 현 디가 도평¹⁹⁹이라, 도평 우에. 그디 강 물을 질어와게, 여름에.(물도 물도 빠면 저 서쪽에 ‘게남절’이라고 하는 데가 ‘도평’이야, ‘도평’ 위에. 거기 가서 물을 길어와, 여름에.)

104024 @ 게남지?(‘게남지’?)

104024 #1 게남절.(‘게남절’.)

104024 @ 게남절?(‘게남절’?)

104024 #1 으.(으.)

104024 #2 도평 우에 게남절이엔, 현 디가 잇주게.(도평 위에 ‘게남절’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104024 #1 절도 싣고 나는 물이 있어, 그디. 게민 그 물 강 질레 가게.(절도 있고 나는 물이 있어, 거기. 그럼 그 물 가서 길러 가.)

104024 @ 지금 엇어져신가?(지금 없어졌나요?)

104024 #1 이제도 잇언게.(이제도 있더라.)

104024 #2 지금도 실 거라.(지금도 있을 거야.)

104024 #1 그 물 잇어. 나 어떻게 거 봐신고 허난이. 가 보난 싣더라. 그디 집도 흔 채 짓영 싣고이. 게남절이엔 현 디.(그 물 잇어. 나 어떻게 거 봤는가 하니까. 가 보니까 있더라. 거기 집도 한 채 지어서 있고. ‘게남절’이라고 하는 데.)

104024 @ 도평마씨?(도평요?)

104024 #1 도평 우에, 도평 아주 우에라.(도평 위에, 도평 아주 위에야.)

104024 @ 게난 거기까지 강 물을 질영, 노형 사람덜이 물을.(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물을 길어서, 노형 사람들이 물을.)

104024 #1 으, 으.(으, 으.)

104024 @ 허벅에 질영 먹었다는 거마씨?(‘허벅’에 길어서 먹었다는 거요?)

104024 #2 영 ㄱ물 때는 물이 여기 없어. 물통에 물이 딱 말라.(이렇게 가물 때는 물이 여기 없어. 물통에 물이 딱 말라.)

198) ‘게남절’은 제주시 도두동의 절 이름이다.

199) ‘도평’은 제주시 도평동을 말한다.

104024 #1 계난 그때가이 나가 열두 설이라 딱, 일본서 올 때. 열두 설에 허벅²⁰⁰을 못 전 대바지²⁰¹, 허벅보다 좀 작은 거게. 그걸 정.(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열두 살이야 딱, 일본에서 올 때. 열두 살에 ‘허벅’을 못 지고 ‘대바지’, ‘허벅’보다 좀 작을 거. 그걸 저서.)

104024 @ 대바지렌 험니까?(‘대바지’라고 합니까?)

104024 #1 대바지엔 허메. 그걸 강 정 와.(‘대바지’라고 해. 그걸 가서 지고 와.)

104024 #2 허벅보다 작은 게 이만이.(‘허벅’보다 작은 게 이만큼.)

104024 #1 허벅 버쳐. 허벅 버쳐 못 저 와.(‘허벅’ 부쳐. ‘허벅’ 부쳐서 못 저 와.)

104024 #2 그거 두 개 놔야 허벅으로 하나 뒤후게.(그거 두 개 놔야 ‘허벅’으로 하나 되지.)

104024 @ 소바지 뭐파?(소바지 뭘니까?)

104024 #1 대바지, 대바지.(‘대바지’, ‘대바지’.)

104024 @ 대바지도 있고 소바지도 잇수파?(‘대바지’도 있고 소바지도 있습니까?)

104024 #1 소바지 아니. 대바지.(소바지 아니. ‘대바지’.)

104024 @ 어떤 사람 젊은 아이가 경 곤는다.(어떤 사람 젊은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104024 #1 소바지 아니. 대바지.(소바지 아니. ‘대바지’.)

104024 @ 대바지.(‘대바지’.)

104024 #1 계난 우리 오빠 그때 일본서 온 땀디 죽은년안티 가렌 행 셋년이랑 보내지 맙서. 어무님ㄱ라 경 고티. 죽은년은 도망 텅경 경 준일을 허젠을 안 해, 또.(그러니까 우리 오빠 그때 일본에서 온 때인데 작은딸에게 가라고 하고 둘째는 보내지 마세요.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해. 작은딸은 도망 다녀서 그렇게 잔일을 하려고를 안 해, 또.)

104024 #2 으, 맞다게.(으, 맞다.)

104024 #1 놀레만 돌아댕겨 불어.(놀러만 돌아다녀 버려.)

104024 #2 으.(으.)

104024 @ 그 죽은년은 어디 살았수파?(그 작은딸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104024 #2 월랑²⁰². 월랑 대보탕 주인아줌마가 죽은년이주게.(‘월랑’. ‘월랑’ 대보탕 주인아줌마가 작은딸이지.)

104024 #1 하하하. 경 어릴 때 준일 허지 안행 막 도망 텅겨 불언이. 겐 나는 집인일 영 해 가난. 일도, 웨정 때 일도 허레 우리 아버지가 일허레 보내민 우리 육촌 오빠 ○○이 오라바님이 십장 혈 때라이. 어떻 허느니? 나 일 못허난 느가 영행 ㄱ 쯔 일허라게. 웨정 때 그 군인덜 남주봉 오랑 막 굴 팔 때난.(하하하. 그렇게 어릴 때 잔일 하지 않고 마구 도망 다녀 버렸어. 그래서 나는 집안일 이렇게 해 가니까. 일도, 왜정 때 일도 하러 우리 아버지가 일하러 보내면 우리 육촌 오빠 ○○이 오

200)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는 아주 좁다.

201) ‘대바지’는 어린 아이들이 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허벅을 말한다

202) ‘월랑’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라버님이 십장 할 때야. 어떻게 하니? 나 일 못하니까 네가 이렇게 같이 일해라. 왜 정 때 그 군인들 ‘남주봉’ 와서 마구 굴 팔 때니까.)

104024 #2 굴 팔 때.(굴 팔 때.)

104024 #1 게난 가든 우리 그 육촌 오빠가 셋년 보냅서게. 날ㄱ라이 족아부난 죽은년이엔게. 자이 셋년 아니가. 양? 히히히 육촌 오빠가 양? 영 봐레멍, 춤 맞구나 게. 얼굴 빵. 지레 죽으난이 죽은년 보냅센. 아부지ㄱ라. 아, 나 거 잊어불지 안헤 게. 셋년 보냅서게. 가근에 나가 강 자꾸 가렌 험젠 아부지ㄱ라 경 헤가난. 기여 걸라, 강 조케ㄱ라 굴아사켜.(그러니까 가면 우리 그 육촌 오빠가 둘째 보내세요. 나 보고 작으니까 작은딸이라고. 재 둘째 아니냐. 예? 히히히 육촌 오빠가 예? 이렇게 보면서, 참 맞구나. 얼굴 보고. 키 작으니까 작은딸 보내세요. 아버지에게. 아, 나 거 잊어버리지 않아. 둘째 보내세요. 가서 내가 가서 자꾸 가라고 한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헤가니까. 그래 가자, 가서 조카보고 말해야겠어.)

104024 @ 아이구, 죽은년은 키 커마썸?(아이고, 작은딸은 키 커요?)

104024 #1 죽아, 나보다.(작아, 나보다.)

104024 @ 하하하.(하하하.)

104024 #2 야이가 늦엉 컷주게.(애가 늦어서 컷지.)

104024 #1 늦게 켜게.(늦게 컷어.)

104024 @ 신기하다예.(신기하네요.)

104024 #2 으, 늦엉 켜.(으, 늦어서 컷어.)

104024 #1 나보다 쪼금 죽아. 많인 안 죽고, 몸도 나아. 나보다 훌쩍.(나보다 쪼금 작아. 많이는 안 작고, 몸도 나아. 나보자 훌쩍.)

104024 #2 몸도 똥똥허곡.(몸도 똥똥하고.)

104025 @ 게든 나무도 헤 봤수과?(그럼 나무도 헤 봤습니까?)

104025 #2 나무도 헤 봤주게.(나무도 헤 봤지.)

104025 @ 도끼 헤근에 나무는 못 허지, 여자들은.(도끼 해서 나무는 못 하지, 여자들은.)

104025 #1 도끼 행 영 깨는 건 잘 못헤. 남자가 허지. 도끼 행 깨지 안허고 나무 헤영 오면은이 여기가 톱 영 발라. 나테²⁰³⁾가 있어, 나테엔 허는 거. 나테 이디 딱 놓아. 이디 딱 놓아근에이 이디 두드리는 저 자구엔 현 거 있어, 자구엔 현 거 깨는 거. 그 자귀로 울로 독독 울로 독독 허민 이 나무가 이레 짝 나와. 영행 안 깨도 나테로 낭 깨져.(도끼 해서 이렇게 깨는 건 잘 못헤. 남자가 하지. 도끼 해서 깨지 않고 나무 해서 오면 여기가 톱 이렇게 발라. ‘나테’가 있어, ‘나테’라고 하는 거. ‘나테’ 여기 딱 놓아. 여기 딱 놓아서 여기 두드리는 저 자귀라는 하는 거 있어, 자귀라고 하는 거 깨는 거. 그 자귀로 요리로 독독 요리로 독독 하면 이 나무가 이리 짝 나와. 이렇게 안 깨도 ‘나테’로 나무 깎 수 있어.)

104025 #2 나테로 낭 잘 깨지지게.(‘나테’로 나무 잘 깎 수 있지.)

203) ‘나테’는 나무 따위를 찍어 자르는 데 쓰는 연장을 말한다.

104025 #1 계난 ○○ 어멍이 걸 잘해. 계난 ○○ 어멍 허는 거 뽕 우리도 흐뎡
훤은 나무는 경 해. 이거 딱 낳은에 일로 혼번 일로 혼번 두드리민 이것이 쪽쪽 내
려오민 이것이 두 개 딱 갈라져게.(그러니까 ○○ 어머니 걸 잘해. 그러니까 ○○
어머니 하는 거 봐서 우리도 조금 굶은 나무는 그렇게 해. 이거 딱 봐서 이리로 한
번 이리로 한번 두드리면 이것이 쪽쪽 내려오면 이것이 두 개 딱 갈라져.)

104025 @ 남자가 해야 돼는디 남자 엇이든 여자덜이 했다는 거다예?(남자가 해
야 되는데 남자 없으면 여자들이 했다는 거네요?)

104025 #1 겐디 그거는 뽕나무니까게. 뽕나무가 아니고 폴앗지. 폴아. 정 강 폴
아.(그런데 그거는 뽕나무니까. 뽕나무가 아니고 팔앗지. 팔아. 지고 가서 팔아.)

104025 @ 해 봤수파?(해 봤습니까?)

104025 #1 난 그거 정 강 폴아 보진 안해신디 나가 해 오민, 경 하영 허진 안헌
디 우리 어머니가 몇 번 강 폴아 왔어. 폴아당 돈 날 줘.(난 그거 지고 가서 팔아
보진 않았는데 내가 해 오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몇 번 가
서 팔아 왔어. 팔아다가 돈 나를 줘.)

104025 @ 삼촌이 강 행 와?(삼촌이 가서 해서 와?)

104025 #1 나가 행 와.(내가 해서 와.)

104025 @ 어뎡 행 와?(어떻게 해서 와?)

104025 #1 막 하영 봄 나면은이 헐 거 어시민 막 허레 가. 나무덜 허레 막 가.
야인 안 가실 거여. 넌 나무 허레 안 가 와실 거라이.(아주 많이 봄 되면 할 거 없
으면 마구 하러 가. 나무들 하러 마구 가. 애는 안 갔을 거야. 넌 나무 하러 안 가
왔을 거야.)

104025 #2 난 시집간 후제만 헛저게.(난 시집간 후에만 했어.)

104025 #1 나도 하영은 안 해엿저만은 ㄴ찌 가민 그 낭 해여근에.(나도 많이는
안 했지만 같이 가면 그 나무 해서.)

104025 #2 시집가기 전엔게 사삼 나기 전에 서울 간 살앙 와 부니까이. 사삼 후
에는 나무허레 못 가게 허난에 나무도 엇고게. 나무도 엇고 다 비어 데껴 불언에
사삼에 다 비어 데껴 불언. 그 사람덜 강 숨을까 봐. 그 위에 나무가 하나토 없었
어. 싹 비어 데껴 불언. 법에서 비어 데껴 부난. 하나토 없었어. 나가 서울서 와 보
니까. 계난 아뜩헌 것도 없었어. 그 후에 하나씩 저거 심꼭 저 남 크고 남뱃들이 지
금 많지, 하나토 엇어. 겐 낭허젠 헛자 나무가 없었어. 경헌디 시집은 가난에, 결혼
허난에 우리 집 아방²⁰⁴⁾ 군인 가 부난, 우리 큰아덜 삼월에 낳고 동짓달 난 군인
가 부난 이제 살아 보젠 허난 뭐 해당 폴앙 돈 남을 게 없어. 계난 그때부터 나무
허레 뎡것주게. 저 산에, 한라산에.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났어. 그 남을 비레.(시
집가기 전엔 사삼 나기 전에 서울 가서 살고 와 버리니까. 사삼 후에는 나무하러
못 가게 하니까 나무도 없고. 나무도 없고 다 베어 던져 버려서 사삼에 다 베어 던
져 버렸어. 그 사람들 가서 숨을까 봐. 그 위에 나무가 하나토 없었어. 싹 베어 던

204)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져 버렸어. 법에서 베어 던져 버리니까. 하나도 없었어. 내가 서울에서 와 보니까. 그러니까 ‘아뜩한’ 것도 없었어. 그 후에 하나씩 저거 심고 저 나무 크고 나무밭들이 지금 많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무하려고 해도 나무가 없었어. 그런데 시집은 가니까, 결혼하니까 우리 집 아버지 군인 가 버리니까, 우리 큰아들 삼월에 낳고 동짓달 돼서 군인 가 버리니까 이제 살아 보려고 하니까 뭐 해다가 팔아서 돈 남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무하러 다녔지. 저 산에, 한라산에.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었어. 그 나무를 베러.)

104025 @ 여자들 몇 명?(여자들 몇 명?)

104025 #2 응, 여자들 혼 몇 명 벗덜 허영. 겐 가근에 나대로.(응, 여자들 한 몇 명 벗들 해서. 그래서 가서 나대로.)

104025 #1 골머리²⁰⁵⁾ 현 디 알아, 골머리?('골머리' 하는 데 알아, '골머리'?)

104025 @ 골머리?('골머리'?)

104025 #1 으.(으.)

104025 @ 아흔아홉골?('아흔아홉골'?)

104025 #2 으, 아흔아홉골²⁰⁶⁾.(으, '아흔아홉골'.)

104025 #1 그디 강 헤 와. 골머리 서우녁편²⁰⁷⁾이 어승생²⁰⁸⁾이라이.(거기 가서 해 와. '골머리' '서우녁편'이 '어승생'이야.)

104025 @ 으, 어승생.(으, '어승생'.)

104025 #1 어승생허고 골머리, 노형선 그디 두 밧디만 강 헤 와. 어승생도 강 헤 오고.('어승생'하고 '골머리', 노형선에 거기 두 군데만 가서 해 와. '어승생'도 가서 해 오고.)

104025 #2 그디 막 중간까지 막 올라가근에게.(거기 막 중간까지 막 올라가서.)

104025 #1 골머리도 강 행 오고.('골머리'도 가서 해서 오고.)

104025 @ 길을 누가 가르쳐 줘?(길을 누가 가르쳐 줘?)

104025 #1 그냥 길, 가 가민 막 가져.(그냥 길, 가 가면 막 갈 수 있어.)

104025 #2 사람덜 만허니까 왔다갔다 허니까 길덜이 막 잇주게.(사람들 많으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길들이 막 있지.)

104025 #1 골머리 가당 보민 절도 허나 있어. 천왕사²⁰⁹⁾ 말고 웃절²¹⁰⁾ 허나 있어, 또.('골머리' 가다가 보면 절도 하나 있어. 천왕사 말고 '웃절' 하나 있어, 또.)

104025 @ 옛날에?(옛날에?)

104025 #1 이제도 있어.(이제도 있어.)

104025 #2 이제도 있어.(이제도 있어.)

104025 #1 웃절이엔 현 절이 저 골머리로 쭉, 산봉우리 올라가민 있어. 천왕사

205) '골머리'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오름인 '골머리오름'을 말한다.

206) '아흔아홉골'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207) '서우녁편'은 서쪽 방향의 위편을 말한다.

208) '어승생'은 제주시에 있는 '어승생오름'을 말한다.

209) '천왕사'는 제주시에 있는 절 이름이다.

210) '웃절'은 위쪽을 위치한 절을 말한다.

말고. 천왕산 골머리광 어승생 사이에 큰 절로 잇곡. 웃절, 웃절 허영은에이.('웃절' 이라고 하는 절이 저 '골머리'로 쭉, 산봉우리 올라가면 있어. 천왕사 말고. 천왕사는 '골머리'와 '어승생' 사이에 큰 절로 있고. '웃절', '웃절' 해서.)

104025 #2 겐 강 나무도 아무거나 비면은 무거우니까 막 무거와근에 멧 개 못 정 오주게. 게난 가벼운 걸로 무게 안 나가는 거만 골랑 이제 나테로 짤랑 밀둥이 부떠 짤랑 이제 이만큼 크민 딱시 준둥으로 이제 요만큼씩 짤랑 겐 정 내쳐.(그래서 가서 나무도 아무거나 베면 무거우니까 마구 무거워서 멧 개 못 지고 오지. 그러니까 가벼운 걸로 무게 안 나가는 거만 골라서 이제 '나테'로 잘라서 밀둥부터 잘라서 이제 이만큼 크면 또 허리로 이제 이만큼씩 잘라서 그래서 지고 내쳐.)

104025 #1 생 거?(생 거?)

104025 #2 응?(응?)

104025 #1 놀랑?(날나무?)

104025 #2 통차.(통째.)

104025 #1 놀랑?(날나무?)

104025 #2 으, 놀랑.(으, 날나무.)

104025 #1 뭐 삭은 거 말고?(뭐 삭은 거 말고?)

104025 #2 으게.(어.)

104025 #1 난 삭은 건 해 봤지만은 늘거.(난 삭은 건 해 봤지만 날것.)

104025 #2 서리낭, 서리낭.(서어나무, 서어나무.)

104025 @ 사삼 이후에.(사삼 이후에.)

104025 #2 서리낭으로 서리나무가 깨기가 좋고이.(서어나무로 서어나무가 깨기가 좋고.)

104025 @ 사삼 후에, 돈 벌어 보젠?(사삼 후에, 돈 벌어 보려고?)

104025 #2 착착, 팔아근에 잘 나가고이 게벼와게.(착착, 말려서 잘 나가고 가벼워.)

104025 #1 사삼 후에야. 후에지게 다.(사삼 후에야. 후에지, 다.)

104025 #2 스몏 후에, 스몏 후에.(사몏 후에, 사몏 후에.)

104025 #1 스몏 후에지게.(사몏 후에지.)

104025 #2 경헐 그걸 이제 그 나무 바깥디 톱 바깥디 막 나와. 나왕 내창은 이만큼 큰 내창, 막 이렇게 얼벙이지민²¹¹⁾ 그거 정은 못 내려와. 게민 그 나무만 이제 그 질빵으로 막 데명은에 무껍은에게 착 밀령 털어치와 낱, 털어쳐 낱, 딱시 사람 이제 딱시.(그래서 그걸 이제 그 나무 밖에 톱 밖에 마구 나와. 나와서 내는 이만큼 큰 내, 마구 이렇게 '얼벙이지면' 그거 저서 못 내려와. 그럼 그 나무만 이제 그 질빵으로 마구 쟁여서 묶어서 착 밀려서 떨어뜨려 놔서, 떨어뜨려 놔서, 또 사람 이제 또.)

104025 @ 내려왕?(내려와서?)

211) '얼벙이지다'는 나무들이 우거져 엉켜 있는 것을 말한다.

104025 #2 으, 내려왕 돌 트명으로 돌 밭양 내려와근에게, 그 허릿당²¹²⁾ 내려오젠 허민.(으, 내려와서 돌 틈으로 돌 밭아서 내려와서, 그 ‘허릿당’ 내려오려고 하면.)

104025 @ 아이구,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4025 #1 거 허릿당이냐?(거 ‘허릿당’이냐?)

104025 #2 허릿당이주게.(‘허릿당’이지.)

104025 #1 허릿당은 요 아래 허릿당 싣고 그 우이 꺼 질메톡²¹³⁾이엔 허여게, ‘질메톡’.(‘허릿당’은 요 아래 ‘허릿당’ 있고 그 위의 거 ‘질메톡’이라고 해, ‘질메톡’.)

104025 #2 질메톡이냐?(‘질메톡’이냐?)

104025 #1 허릿당은 막 아래 잇지.(‘허릿당’은 아주 아래 잇지.)

104025 #2 맞아이. 어디 잇저.(맞아. 어디 있어.)

104025 #1 곶베술²¹⁴⁾ 그디 잇지.(‘곶베술’ 거기 잇지.)

104025 #2 응, 곶베술. 경헐 이제 경 헐 바깥디 나와근이 이제 뜯시 풀어 낳은에 나데로 낱을 깨여.(응, ‘곶베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또 풀어 놔서 ‘나데’로 나무를 깨.)

104025 #1 누게 빌영 깨여, 너냥으로?(누구 빌려서 깨, 너대로?)

104025 #2 나대로.(나대로.)

104025 #1 너 혼자만?(너 혼자만?)

104025 #2 게민 나무를 구작 세와, 너 말작 아니라도이. 이게 나무잖냐. 이게 나무민 이렇게 탁 세와. 탁 세우민, 나델 딱.(그럼 나무를 곧게 세워. 너 말 아니라도. 이게 나무잖아. 이게 나무면 이렇게 탁 세워. 탁 세우면, ‘나데’를 딱.)

104025 #1 벳, 벳 이시난 수눌영 헤실 테주.(벳, 벳 있으니까 품앗이해서 했을 테지.)

104025 #2 응, ㄴ찌게. 혼 뗏이덜게.(응, 같이. 한 뗏이들.)

104025 #1 ㄴ찌 허지.(같이 하지.)

104025 #2 일행이 가니까, 일행이 가니까. 딱 세와근에 나데로 탁 찍으민 서리낭이난 착 나가. 쟁 헐에 번들번들 깨영 이젠 경 행 정 와났어.(일행이 가니까, 일행이 가니까. 딱 세워서 ‘나데’로 탁 찍으면 서어나무이니까 짝 나가. 그렇게 해서 번들번들 깨서 이젠 그렇게 해서 지고 왔었어.)

104025 @ 대단헌 여자덜라예.(대단한 여자들이네요.)

104025 #1 우리 어머니가 곶야.(우리 어머니가 말해.)

104025 @ 남저덜은 뭐 헛수파?(남자들은 뭐 했습니까?)

104025 #2 짓궂으난, 아방 군인 가부난게.(짓말하니까, 아버지 군인 가버리니까.)

104025 @ 게른 땀 남자덜은?(그럼 땀 남자들은?)

212) ‘허릿당’은 제주시 지경 이름의 하나다.

213) ‘질메톡’은 제주시 천왕사 근처의 지경 이름이다. ‘질메톡’은 ‘질메+톡’으로 구성된 말로, ‘질메’는 표준어의 ‘길마’에, ‘톡’은 ‘턱’에 대응한다.

214) ‘곶베술’은 제주시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4025 #2 탄 남자덜은 그때덜은 대개 군인 가고 헤어 놓니까 남자덜이 몇 사람 잊어주게.(탄 남자들은 그때들은 대개 군인 가고 해 놓으니까 남자들이 몇 사람 있었지.)

104025 #1 남자덜은 그런 낭허레 탕기지 않은디 여자덜게 영 용돈 하나토 어시민 그것도.(남자들은 그런 나무하러 다니지 않았는데 여자들 이렇게 용돈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104025 #2 돈, 돈 여자덜 돈 만들 게 없어.(돈, 돈 여자들 돈 만들 게 없어.)

104025 #1 또 제사 멩질 돌아오지 안헉니까. 게민 그 제사 멩질 허젠 허민 적갈도 사야지.(또 제사 명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제사 명질 하려고 하면 적도 사야지.)

104025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4025 #1 생선도 사야지.(생선도 사야지.)

104025 @ 낭허레 여자가 영 다닌 거 나 처음 들었수다.(나무하러 여자가 이렇게 다닌 거 나 처음 들었습니다.)

104025 #2 아이고, 낭헤난 거 생각허민 진저리.(아이고, 나무했던 거 생각하면 진저리)

104025 #1 진짜 야인 막 아방²¹⁵⁾ 군인 가 부난, 그때 고생허멍 컷텐 늑덜이 다 곶아.(진짜 애는 아주 아버지 군인 가 버리니까, 그때 고생하면서 컷다고 남들이 다 말해.)

104025 #2 씨부모 잊은 디 가노니까, 씨부모 잊은 디 가노니까, 가는 날부터 그.(시부모 없는 데 가니까, 시부모 없는 데 가니까, 가는 날부터 그.)

104025 #1 씨누이, 씨아지방 다 결혼시켜 주고.(시누이, 시아버지 다 결혼시켜 주고.)

104025 @ 한라산도 그것 때문에 갔다는 거네. 지금 가트민 구경 가는디. 올라가당 숨도 못 쉬영 일일구 불르고예.(한라산도 그것 때문에 갔다는 거네. 지금 같으면 구경 가는데. 올라가다가 숨도 못 쉬고 일일구 부르고요.)

104025 #1 그때는 일일구가 없어.(그때는 일일구가 없어.)

104025 #2 일일구가 어디 셔?(일일구가 어디 있어?)

104025 @ 게난 그 고생허레. 그 절벽에 낭 탕끼멍.(그러니까 그 고생하러. 그 절벽에 나무 던지면서.)

104025 #1 야이 씨부모 잊인 디 강 고생허멍 살암젠 어른덜이 막 곶아, 어른덜이. 게난 그걸.(애 시부모 없는 데 가서 고생하면서 산다고 어른들이 마구 말해,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걸.)

104025 @그런 걸 몇 번 해 봤마씨? 한 백 번, 오십 번?(그런 걸 몇 번 해 봤어요? 한 백 번, 오십 번?)

104025 #2 나무? 오십 번은 헤져실 거라.(나무? 오십 번은 했을 거야.)

215)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104025 #1 수를 말할 수가 있어?(수를 말할 수가 있어?)

104025 #2 숫자로 셀 수가 있어.(숫자로 셀 수가 없어.)

104025 #1 몇 년을 그 삼 년 동안을 스나이 올 때까진 경 행 살았주.(몇 년을 그 삼 년 동안을 사나이 올 때까진 그렇게 해서 살았지.)

104025 #2 주로. 그때는 삼 년 육 개월 살더라고 군인도.(주로. 그때는 삼 년 육 개월 살더라고 군인도.)

104025 #1 경흐난 그땐 식게 멧질 허젠 허난 더게, 식게허젠, 멧질 허젠 헐 때. 애기 키우고 시아주방, 시누이 시집보내고 장게보내고 경흐난.(그러니까 그땐 제사 멧질 하려니까 더, 제사하려고, 멧질 하려고 할 때. 아기 키우고 시아주버니, 시누이 시집보내고 장가보내고 그러니까.)

104025 @ 그 공을 알았수과?(그 공을 알고 있습니까?)

104025 #2 계난 우리 죽은 시누이 흐루기도 전화 와선게.(그러니까 우리 작은 시누이 하루도 전화 왔던데.)

104025 #1 시집보내 주난 고맙텐?(시집보내 주니까 고맙다고?)

104025 @ 하하하.(하하하.)

104025 #2 시집만 보내시냐? 야, 우리 죽은 시누이 서울 간 살명, 그 우리 도두리²¹⁶⁾ 시아지방 그 큰누님이 서울 간 살아났어. 막 이빠. 난 사진만 봐신디, 막 이빠.(시집만 보냈냐? 야, 우리 작은 시누이 서울 가서 살면서, 그 우리 도두리 시아주버니 그 큰누님이 서울 가서 살았었어. 아주 예빠. 난 사진만 봤는데, 아주 예빠.)

104025 #1 큰시아지방.(큰시아주버니.)

104025 #2 도두리 시아주방.(도두리 시아주버니.)

104025 #1 도두리 예염에?(도두리 옆에?)

104025 #2 으게. 그 씨아지방 큰누님이 서울 간 살아신지 우리 씨누이가 가난 춤 친족 언니난 그딜 갖던 모양이라게. 간 그디 강 ㄴ짜 살아신디 어느 날은 갑자기 언니가 아판, 병원에 가난 죽영 와 분 거라게. 계난 아이가 막 그냥 의지할 곳 잡제기 죽어 불곡 허난, 그냥 친언니 ㄴ치 살단 죽어 부난 얼마나 서럽고 정말로 뭐 할 거라게. 막 울어져웁게. 겐디 오똥 체시질²¹⁷⁾에 걸려전게. 겐 아판.(어. 그 시아주버니 큰누님이 서울 가서 살았는지 우리 시누이가 갔던 참 친족 언니니까 거길 갔던 모양이야.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죽어서 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그냥 의지할 곳 잡자기 죽어 버리고 하니까, 그냥 친언니 같이 살다가 죽어 버리니까 얼마나 서럽고 정말로 뭐 할 거야. 마구 울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만 ‘체시질’에 걸렸어. 그래서 아팠어.)

104025 #1 죽은 씨누이가?(작은 시누이가?)

104025 #2 응. 겐 아팜 오질 안헤시느냐. 아판 오난에 우리 옛날에 양철집 짓젠 헐 때 왔드라고. 오난야. 거 단칸방에 살 때, 오난 ㄴ만이 누웁은에게 무신 밥을 행

216) ‘도두리’는 제주시 도두동을 말한다.

217) ‘체시질’은 병 종류의 하나다.

주민 먹느냐? 밥은 행 먹게 무신 반찬은 서게이?(응. 그래서 아파서 오질 않았니. 아파서 오니까 우리 옛날에 양철집 지으려고 할 때 왔더라고. 오니까. 거 단칸방에 살 때, 오니까 가만히 누워서 무슨 밥을 해서 주면 먹냐? 밥은 해서 먹게 무슨 반찬은 있어?)

104025 #1 아프니까 뵈지.(아프니까 누웠지.)

104025 #2 응. 아프니까 뉘근에 무시거 어디 통증이 있어근에 아팠 못 견딘 것도 없어. 조그렝이 눕기만 허연 밥행 쥐도 안 먹지. 죽을 썬도 안 먹지.(응. 아프니까 뉘서 뭘 어디 통증이 있어서 아파서 못 견딘 것도 없어. ‘조그렝이’ 눕기만 하고 밥해서 쥐도 안 먹지. 죽을 썬도 안 먹지.)

104025 #1 게난 그 육촌 언니 죽영 아픈 거다이?(그러니까 그 육촌 언니 죽어서 아픈 거네?)

104025 #2 응. 겐 아프길 언제부터 아파시넨 허난 그 언니 경 죽영 막 올멍 혜전 게. 그 꺾으로부터 경 아픈 줄 모르게 경 시름시름 아파집디텐 허더라고. 게도 그 집 짓저 그 애기덜에 살젠 허난 바빔 어디 강 들어볼 생각도 었고.(응. 그래서 아프길 언제부터 아팠냐고 하니까 그 언니 그렇게 죽어서 마구 올면서 했어. 그 끝으로부터 그렇게 아픈 줄 모르게 그렇게 시름시름 아프더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 집 지으랴 그 아기들에 살려고 하니까 바빠서 어디 가서 들어볼 생각도 없고.)

104025 #1 그 시절에사 경했주게.(그 시절에야 그랬지.)

104025 #2 경혜신디 우리 친정어머니가 혼번은 달려완에 아이고 아이 아팠은에 왕 정 눅정만 놔두민 어떻허젠 험시닌, 저 우리 셋시누이가 점쟁이 잘 돌아와났저 게.(그랬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한번은 달려와서 아이고 아이 아파서 와서 저렇게 눅혀만 놔두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저 우리 둘째 시누이가 점쟁이 잘 데려왔었어.)

104025 #1 하르방?(할아버지?)

104025 #2 게, 그 하르방도 싯주만은.(그래, 그 할아버지도 있지만.)

104025 #1 하하하. 하르방 점쟁이.(하하하. 할아버지 점쟁이.)

104025 #2 하르방은게 씨이모 남편이고. 씨이모라.(할아버지는 시이모 남편이고. 시이모야.)

104025 #1 씨이모주.(시이모지.)

104025 #2 이모 뵈 철이여. 남편인디. 게난 잘 돌아땡겨났어. 게난 우리 어머니가 오란 요 ○○이네 집이 저 점쟁이 잘허는 점쟁이 오란.(이모 뵈 철이야. 남편인데. 그러니까 잘 돌아다녔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와서 요 ○○이네 집에 저 점쟁이 잘하는 점쟁이 왔어.)

104025 #1 심방도 허고 점도 보고 허는.(무당도 하고 점도 보고 하는.)

104025 #2 어. 험젠 험게 강 물어라도 보렌. 경 허멍 막 욱허는 거라. 게난 이제 우알녁집이난게 무신 울타리가 시냐게, 넘어 아정 간 물어봤어. 딱 놓난에 그 사람 허는 말이 아고게, 이 사름 체시질에 거러졌구나. 딱 곧더라.(어. 한다고 하더라 가서 물어라도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구 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위아랫집이니

까 무슨 울타리가 있냐, 넘어 가지고 가서 물어봤어. 딱 놓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 ‘체시질’에 걸렸구나. 딱 말하더라.)

104025 #1 잘됐다이.(잘됐다.)

104025 #2 으. 체시질에 걸어져신게게. 닐랑 빌어 줘. 저 도꼬내²¹⁸⁾ 빠마쟁이²¹⁹⁾ 돌아당 빌어 줘, 영허더라고. 도근내 빠마쟁이 돌아당 빌어 주렌.(으. ‘체시질’에 걸렸네. 내일을 빌어 줘. 저 ‘도고네’ 파마쟁이 데려다가 빌어 줘, 이러더라고. 도근네 파마쟁이 데려다가 빌어 주라고.)

104025 #1 그 사람은 안 해 주켤?(그 사람은 안 해 주겠다고?)

104025 #2 으, 진 바쁘니까 지 해 주켤 허는 말은 안 허곡게. 난 들어보도 못허곡게. 경 골으멍 행 허길래 아이고, 게민 추물²²⁰⁾은 뭐 뭐 듬니까, 허난 뭐 뭐 헤근에 허영 당장 빌어 주지 안허민 안 뤄켤 허는 거라. 아이고, 돈이 셔? 아방²²¹⁾신더레 왕 이제 저녁에 아이고, 영 영 행 골으난 내불영 안 뤄쿠텐. 내일은 그뎨 도두리도 장 살 때라이. 게난 이제 넬이엔 현 날은 준비를 헤근에 뚫날 즈녁에 빌어 줘야 땔 건디 이젠 도두리 장에 이젠 낭 흔 짐 지곡 아방ㄹ라 돈 싯건 흥끔 줍센 헨 빌어 아지고 행 강 이제 추물을 출렁 오젠 허난 이제 또 또 빠마쟁이 빌레도 가야 땔 거 아니라. 나 혼자만.(으, 자기는 바쁘니까 자기 해 주겠다고 하는 말은 안 하고. 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해서 하길래 아이고, 그럼 ‘추물’은 뭐 뭐 듬니까, 하니까 뭐 뭐 하고 해서 당장 빌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야. 아이고, 돈이 있어? 아버지에게 와서 이제 저녁에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하니까 내버려서 안 되겠다고. 내일은 그뎨 도두리도 장 설 때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준비를 해서 뚫날 저녁에 빌어 줘야 땔 건데 이제 도두리 장에 이젠 나무 한 짐 지고 아버지에게 돈 있건 조금 주시라고 해서 빌려 가지고 해서 가서 이제 ‘추물’을 차려서 오려고 하니까 이제 또 또 파마쟁이 빌리러도 가야 땔 거 아니니. 나 혼자만.)

104025 #1 외도²²²⁾로.(외도로.)

104025 #2 외도로. 겐 어떨 거라. 아방ㄹ라 저 당신 가근에 그 빠마쟁이 점쟁이 신디 강 오라근에 영 영 행 와시메 빌어 줍센.(외도로. 그래서 어떨 거야. 아버지에게 저 당신 가서 그 파마쟁이 점쟁이에게 가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빌어 주라고.)

104025 #1 게, 이녁 형제고 허난.(그래, 자기 형제이고 하니까.)

104025 #2 왕 빌어 줍센 강 곶앙 빌어 땔 읍센 허난 남저가 가느넨 경헤.(와서 빌어 주시라고 가서 말하고 빌어 두고 오시라고 하니까 남자가 가느냐고 그래.)

104025 #1 하하. 남저민 어떻허여.(하하. 남자면 어떡해.)

218) ‘도꼬내’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 중 하나로 ‘도근내’를 말한다.

219) ‘빠마쟁이’는 ‘파마’ 머리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220) ‘추물’은 굿을 할 때 신에게 올리는 제물을 말한다.

221) ‘도두리’는 제주시 도두동을 말한다.

222) ‘외도’는 제주시 외도동을 말한다.

104025 #2 게메, 어떻습니겐.(글쎄, 어떡합니까 하고.)

104025 #1 이녁네 동생인디.(자기네 동생인디.)

104025 #2 나가 갈 시간이 엇어부난 나가 갈 시간이 엇어부난 어떻습니까 가근에게 곶아 빌어 댕 읍서게.(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서 말해서 빌어 두고 오세요.)

104025 #1 누이동생이난 가렌도 곶아져주게.(누이동생이니까 가라고도 말할 수 있었지.)

104025 #2 으게. 게난 이제 속습허더라. 경허권데 가근에 왕 빌어 줍센 허멍 경 곶읍서양. 우린 아무것도 엇인 집이난 왕 저녁밥이라도 얻어먹어지카 부텐 허지 말양.(그래. 그러니까 이제 잠잠하더라. 그러길래 가서 와서 빌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세요. 우린 아무것도 없는 집이니까 와서 저녁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봐 하지 말고.)

104025 #1 호호, 굶영.(호호, 굶고.)

104025 #2 으, 저 죽어가는 사름만 살려 주면은 죽도록 공 갓으켄 경 곶아 줍서양. 경 곶앗주. 줍줍허여. 우리 집이 아방은 뭐엔 말수가 원 엇인 사름이난 말을 안 곧주게. 줍줍허여. 아이, 믋음은 탁탁탁탁, 낭은 자게 안 사고, 요거 사 갑서, 사 갑서 허멍 막 싸게 헨 풀안 이젠 나산 이제 종이 그 혼 권인가 두 권인가 사고 과일덜 사고 쌀 받고 허연 오란 부지런이 이젠 지물 만들고 다데떡²²³⁾ 만들어야 돼잖아.(으, 저 죽어가는 사람만 살려 주면 죽도록 공 갓겠다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지. 잠잠해. 우리 집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수가 원 없는 사람이니까 말을 안 하지. 잠잠해. 아니, 마음은 탁탁탁탁, 나무는 재게 안 사고, 요거 사 가세요, 사 가세요 하면서 아주 싸게 해서 팔아서 이제는 나서서 이제 종이 그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사고 과일들 사고 쌀 받고 해서 와서 부지런히 이젠 제물 만들고 ‘다데떡’ 만들어야 되잖아.)

104025 #1 심방떡²²⁴⁾.(‘심방떡’.)

104025 #2 지물 만들고 다 출령, 씨고모ㄹ라 읍센 허영 출런 지난 즈낙이 아방이셔. 게난 가 읍디가 허난 강 빌어 댕 오고렌. 저 강 빌어 줍센 곶아시닌.(제물 만들고 다 차려서, 시고모보고 오시라고 해서 차려서 있으니까 저녁에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가 오셨습니까 하니까 가서 빌려 두고 왔다고. 저 가서 빌어 달라고 말했냐고.)

104025 #1 이녁 성제난 더 낫주게.(자기 형제니까 더 낫지.)

104025 #2 저 혼자만은 왕 못헌텐 이건 저 푸다시 굿이라부난 누게 연물 치는 사람 빌영 데려와야 헐 거난.(저 혼자만은 와서 못한다고 이건 저 푸닥거리 굿이니까 누가 금구 치는 사람 빌려서 데려와야 할 거니까.)

104025 #1 돈을 하영 쥐야 헐 건게.(돈을 많이 쥐야 할 거네.)

223) ‘다데떡’은 당에 가거나 굿을 할 때 올리는 동글납작한 떡이다.

224) ‘심방떡’은 굿을 할 때 올리는 떡을 가리킨다.

104025 #2 으, 빌영 데령와야 허주 혼자만은 못 혈 거난 데령오켄 곶아. 기파 헤 신디 아, 즈낙엔 온 거 보난 광평 ○○ 각시.(으, 빌려서 데려와야 하지 혼자만은 못 할 거니까 데려오겠다고 말해. 그렇습니까 했는데 아, 저녁에는 온 거 보니까 광평 ○○ 각시.)

104025 #1 아는 사름?(아는 사람?)

104025 #2 으. 그 사람 들고 헨 왔더라게. 와선게, 오난 즈낙 행 맥연. **** 이제 풀언 게고 국시 혼 다발 사당 낫당 밤중에 뜨시 중석으로 국수 삶앙 낫당 이제.(으. 그 사람 데리고 해서 왔더라. 왔었어, 오니까 저녁 해서 먹었어. **** 이제 풀어서 그리고 국수 한 다발 사다가 났다가 밤중에 또 결두리로 국수 삶아서 났다가 이제.)

104025 #1 잘 맥여신게게. 저녁도 못 행 주켄 헛당.(잘 먹었네. 저녁도 못 해 주겠다고 했다가.)

104025 #2 중석 행 먹으멍 잘도 맛 좋덴 허멍.(결두리 해서 먹으면서 아주 맛 좋다고 하면서.)

104025 #1 그때는 우동 경 먹지 았을 때지?(그때는 우동 그렇게 먹지 았을 때지?)

104025 #2 으, 젊은 아기 어멍이 즈낙밥도 굶영은에, 먹을 생각허지 말앙 읍센 헤신디 이런 간식까지 행 줍시넨. 젊은 아기 어멍이 잘도 고맙덴 허멍.(으, 젊은 아기 어머니가 저녁밥도 굶어서, 먹을 생각하지 말고 오시라고 했는데 이런 간식까지 해서 주냐고. 젊은 아기 어머니가 아주 고맙다고 하면서.)

104025 #1 경헛주게, 그때는게.(그랬지, 그때는.)

104025 #2 웃으멍 경 곶으멍 화룩화룩 먹으멍 헨게. 경헛 ***** 풀어주더라게. 풀어줘 텡 가멍, 아기 어멍 걱정허지 말아 츠츠츠 츠츠 낫으커라. 걱정허지 마라. 경헛 돈을 이천오백 원인가 차비를 줏어이. 이천오백 원 주곡 쫓나난에 상 올렸단 거 그 땐 심방덜 다 아정 갓잖아. 게난 이제 올려난 거 다 내려 텡 앞더레 놔서, 아정 가렌. 앞더레 놓난 에이구, 아기 어멍 나 이거 아정 가렌 앞더레 앓다 남구나. 난 안 가정 가크라. 저 아기영 먹어, 이거 먹어도 아무충도 안허메. 아기 어멍 흐는 거 보난 너무 믹음씨가 너무 착헛연. 돈도 오십 원 확 거실어 주고이. 저 이천오백 원산디 이십 원산디 주난 오십 원 딱 거실어 주곤 나 아기 약값이나 허렌 나 문 안 반양 가켄. 아기 어멍 흐는 게 너무 착허고 고마완 다 안 반양 가켄 경허멍 경 곤더라고.(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후룩후룩 먹으면서 하더라. 그렇게 ***** 풀어주더라. 풀어줘 두고 가면서, 아기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차차차차 낫겠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돈을 이천오백 원인가 차비를 줏어. 이천오백 원 주고 끝나니까 상 올렸던 거 그땐 무당들 다 가지고 갓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렸던 거 다 내려 뒤서 앞으로 놔서, 가지고 가라고. 앞으로 놓으니까 에이구, 아기 어머니 내가 이거 가지고 가라고 앞으로 가져다 놓는구나. 난 안 가지고 가겠어. 저 아기와 먹어,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았아. 아기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씨가 너무 착해. 돈도 오십 원 확 거슬러 주고. 저 이천오백 원인지 이십 원인지 주니까 오십 원 딱 거슬

러 주고는 나 아기 약값이나 하라고 나 모두 안 받고 가겠다고. 아기 어머니 하는 게 너무 착하고 고마워서 다 안 받아서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

104025 #1 게민 느네 시누이 이제 막 알아지커라이.(그럼 너희 시누이 이제 막 알겠어.)

104025 #2 모르켜게.(모르겠어.)

104025 #1 옥은²²⁵⁾ 때니까 알지. 올케가 경 해 줬신디, 어멍 아방 다 죽어분 디 시집왕.(컷을 때니까 알지. 올케가 그렇게 해 줬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죽어버린 데 시집와서.)

104025 @ 겐 다 나안마씨?(그래서 다 나왔습니까?)

104025 #2 으게. 경허난.(으. 그러니까.)

104025 @ 아, 신기하다.(아, 신기하다.)

104025 #2 거 해마다 ○○이네 집이 멍감²²⁶⁾ 해나지 안해샤게?(거 해마다 ○○네 집에 ‘멍감’ 했었지 않았니?)

104025 #1 으, 으. 게난 그디 왕 자꾸 해난 생이라. 경 골아라게. 요 알녁집이 막 부제침이 해마다 경 완 곳을 해 줬센 행 왕 보민 떡을 하영 해근에게 바구리에.(으, 으. 그러니까 거기 와서 자꾸 했던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더라. 요 아랫집의 아주 부잣집에 해마다 그렇게 와서 곳을 해 달라고 해서 와서 보면 떡을 많이 해서 바구니에.)

104025 #1 옛날 저기 살 때?(옛날 저기 살 때?)

104025 #2 으게.(으.)

104025 #1 뽕일이²²⁷⁾이 살 때?(‘뽕일이’ 살 때?)

104025 #2 아니게. 이디 ** 안에 살 때.(아니. 여기 ** 안에 살 때.)

104025 #1 그때도 빌영 해난?(그때도 빌려서 했었어?)

104025 #2 어게. 그디 해마다 해낫저게. 저 ○○, 월랑²²⁸⁾ ○○ 살 때.(어. 거기 해마다 했었어. 저 ○○, 월랑 ○○ 살 때.)

104025 #1 아아, 할망이 허연, ○○가 허연?(아아, 할머니가 했어, ○○가 했어?)

104025 #2 ○○가게, ○○가.(○○가, ○○가.)

104025 #1 ○○가 허연.(○○가 했어.)

104025 #2 어.(어.)

104025 #1 아, 아.(아, 아.)

104025 #2 겨난 경 곤더라게. 요 알녁집이 막 부자침이 해마다 당신이 왕 허는 디, 왕 보민 떡을 해근에 마릿 구석에 바구니 하영 해영 놔둬도 동네 사람덜 하나 구경 오는 사람도 엇고, 시삼춘이엔 해근에가 할망 하나가 주웁이 앓넌. 경해도 떡

225) ‘옥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는 의미다.

226) ‘멍감’은 음력 정월에 행하는 곳의 하나이다. 잡귀를 물리치고 집안이 무사하고 행운이 오기를 빈다.

227) ‘뽕일이’는 제주도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228) ‘월랑’은 제주도 노형도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흐나 먹읍센 주질 안헌텐.(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 요 아랫집의 아주 부잣집에 해마다 당신이 와서 하는데, 와서 보면 떡을 해서 마루 구석에 바구니 많이 해서 놔둬도 동네 사람들 하나 구경 오는 사람도 없고, 시삼촌이라고 해서 할머니 하나가 우두커니 앉는다고. 그래도 떡 하나 먹으라고 주질 않는다고.)

104025 #1 ○○ 할망.(○○ 할머니.)

104025 #2 주지 안헤렌.(주지 않더라고.)

104025 #1 게난 거 어떻 헛어, 떡 하영 헌 거?(그러니까 거 어떻게 했어, 떡 많이 한 거?)

104025 #2 모르켜게, 어떻사 헌 거. 나도 먹어 본 디 엇다게. 경 곧더라게. 경 골으멍 날ㄴ라이 아이고, 경헛 게 경허는 사름도 셔렌. 겐 날ㄴ랑 너무 애기 어떻 고맙고 너무 착허면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얼마 엇영 츄츄 낫이크라.(모르겠어, 어떻게 한 거. 나도 먹어 본 적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보고 아이고, 그런 게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보고는 너무 아기 어머니 고맙고 너무 착해서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얼마 없어서 차차차차 낫겠어.)

104025 #1 게난 일헛 때 그런 사름 마음이 풀어져야 이녁도 소망 일어.(그러니까 일할 때 그런 사람 마음이 풀어져야 자기도 소망 일어.)

104025 #2 그렇지게. 경 무싱거 바직바직헤 가민 에이고.(그렇지. 그렇게 뭐 바직 바직해 가면 어이구.)

104025 @ 헤 놓고 다.(해 놓고 다.)

104025 #1 밍상몰랑헤 가민.(밍상스러워 가면.)

104025 #2 경헛게 츄 서서이 츄츄 낫안 또 서울 간.(그러더니 참 서서히 차차 나아서 또 서울 갔어.)

104025 @ 그분 ○○란 분은 살았수과?(그분 ○○라는 분은 살았습니까?)

104025 #2 으.(으.)

104025 #1 애기 못 나는 아이게.(아기 못 낳는 아이.)

104025 @ 신기가 잇나 보다예. 심방은 안 돼고?(신기가 있나 보네요. 무당은 안 되고?)

104025 #1 심방은 안 돼고 아길 못 나근에, 못 나난 여기서 본 시집이 자기대로 나가 불언게.(무당은 안 되고 아기를 못 낳아서, 못 낳으니까 여기서 본 시집에 자기대로 나가 버렸어.)

104025 @ 그때 오신 분이 아까 그 저 굿허는 분이 누구?(그때 오신 분이 아까 그 저 굿하는 분이 누구?)

104025 #2 굿허는 분은.(굿하는 분은.)

104025 #1 거 심방이지.(거 무당이지.)

104025 #2 심방.(무당.)

104025 @ ○○란 분이 아니고?(○○라는 분이 아니고?)

104025 #1 아니, 아니 ○○는게 그 알녁집이.(아니, 아니. ○○는 그 아랫집에.)

104025 @그 심방은 돌아가셨구나예?(그 무당은 돌아가셨군요?)

104025 #2 몰라, 돌아가셔실 거라.(몰라, 돌아가셨을 거야.)

104025 @ 어디 분이짜?(어디 분입니까?)

104025 #1 외도²²⁹⁾엔 헛네.(외도라고 헛네.)

104025 #2 외도 살안, 외도 빠마쟁이²³⁰⁾엔 허민 알아주는 사람이라.(외도 살았어, 외도 파마쟁이라고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야.)

104025 @ 이름은 모르고예?(이름은 모르고요?)

104025 #2 으, 이름은 모르고 빠마쟁이.(으, 이름은 모르고 파마쟁이.)

104025 #1 게난 오죽 오래서게. 이젠 죽었주.(그러니까 오죽 오래됐니. 이젠 죽었지.)

104025 #2 그때는 빠마헌 사름이 드물었던 모양이라. 그때 시절에는.(그때는 파마한 사람이 드물었던 모양이야. 그때 시절에는.)

104025 @ 하하하.(하하하.)

104025 #1 게난 점도 허고 심방도 헛난 거 다향.(그러니까 점도 하고 무당도 했던 거 같아.)

104025 #2 어.(어.)

104025 #1 그 사람이. 파마쟁이엔 허민 막 다 아니까.(그 사람이. 파마쟁이라고 하면 막 다 아니까.)

104025 @ 도근내 파마쟁이.(‘도근내’ 파마쟁이.)

104025 #2 게난 탁 점을 허난 그 사름이 저 도꼬내²³¹⁾ 빠마쟁이 들아 풀어. 경곤더라고.(그러니까 탁 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저 ‘도꼬내’ 파마쟁이 데리고 풀어. 그렇게 말하더라고.)

104025 @ 도근내 김 누구라는 남자 심방은 잇엇텐 들어나긴 헛수다만은.(‘도근내’ 김 누구라는 남자 무당은 있었다고 들었었긴 했습니다만.)

104025 #1 도고내 심방 셔난? 하권²³²⁾ 심방 셔나신디.(‘도고내’ 무당 있었어? 하귀는 무당 있었는데.)

104025 #2 도고내, 도고내 심방도 셔낫주게.(‘도고내’, ‘도고내’ 무당도 있었지.)

104025 #1 셔난?(있었어?)

104025 #2 으, 도고내 심방도 셔난.(으, ‘도고내’ 무당도 있었어.)

104025 #1 하귀는 심방 성 우리 막 여기서.(하귀는 무당 있어서 우리 막 여기서.)

104025 #2 하권 강 심방 싯고 도고넌.(하귀는 강 무당 있고 ‘도고내’는.)

104025 @ 아, 거긴예 아덜 죽어 부난 그다음 심방 안 해 불언.(아, 거기는데요 아들 죽어 버리니까 그다음 무당 안 해 버렸어.)

229) ‘외도’는 제주시 외도동을 말한다.

230) ‘빠마쟁이’는 ‘파마’ 머리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231) ‘도꼬내’는 제주시 외도동의 자연 마을 중 하나로 ‘도근내’를 말한다. 제보자들은 ‘도고내’라고도 부르고 있다.

232)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104025 #2 강 심방?(강 무당?)

104025 @ 예.(예.)

104025 #1 그 아덜 죽어 불언?(그 아들 죽어 버렸어?)

104025 @ 죽어 불어텐 험디다. 경허난 그 이후로 심방 안 해불엄텐.(죽어 버렸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무당 안 한다고.)

104025 #2 아.(아.)

104025 @ 막 안 좋게. 돌아가셔실 겨우다.(아주 안 좋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104025 #2 돌아가셔실 거라게.(돌아가셨을 거야.)

104025 @ 우리 아는 아이가 그 옆이 옆이 집이 살았주게.(우리 아는 아이가 그 옆의 옆의 집에 살았지.)

104025 #2 으.(으.)

104025 @ 유명헌 심방이엇수레, 거기가.(유명한 심방이었지요, 거기가.)

104025 #2 으.(으.)

104025 #1 막 목청이 좋으니까이. 목청이 막 미천게, 잘도 목청이 좋아.(아주 목청이 좋으니까. 목청이 아주 미쳐서, 잘도 목청이 좋아.)

104025 @ 에이고, 자료가 었어.(어이구, 자료가 없어.)

104025 #1 그게 그 무시거, 무시거 굿할 때도 수십 멩 왕 허고 헛주게. 처음에.(그게 그 뭐, 뭐 굿할 때도 수십 명 와서 하고 했지. 처음에.)

104025 #2 문화재.(문화재.)

104025 #1 문화재 굿할 때.(문화재 굿할 때.)

104025 @ 나중에 박사덜 막 찾아강 조사해 보젠 해도예, 그 아덜 일러분난예 짝 들어강 안 해부난 자료가 었어.(나중에 박사들 막 찾아가서 조사해 보려고 해도요, 그 아들 잃어버리니까요 짝 들어가서 안 해버리니까 자료가 없어.)

104025 #1 각시 얻영 아덜 낫주. 큰각시 아덜 못 난게. 죽은각시 아덜이라, 거. 큰각시 아기 못 나는 사람이야.(각시 얻어서 아들 낳았지. 큰마누라 아들 못 낳으니까. 작은마누라 아들이야, 거. 큰마누라 아기 못 낳는 사람이야.)

104025 @ 겐 강 심방 허는 거 봐낫수파?(그래서 강 무당 하는 거 봤었습니까?)

104025 #2 우리 동네 막 단골이 잘도 많아.(우리 동네 아주 단골이 아주 많아.)

104025 #1 잘도 왕 해낫주게.(잘도 와서 했었지.)

104025 #2 그 사름 허민 그냥 막 구경헤이.(그 사람 하면 그냥 막 구경해.)

104025 #1 큰 굿은 다 마탕 해낫주게.(큰 굿은 다 맡아서 했었지.)

104025 #2 큰 굿 헤 나민 그냥 막.(큰 굿 하고 나면 그냥 막.)

104025 @ 우리 내도에도 문 심방 잇엇수레.(우리 내도에도 문 무당이 있었지요.)

104025 #2 맞아.(맞아.)

104025 #1 문 심방 소린 들어나긴 헤신디 흐는 건 안 봐 받. 겐디 강 심방 허는 건 하영 허니까 이 동네.(문 무당 소리는 들었었긴 했는데 하는 건 안 봐 봤어. 그런데 강 무당 하는 건 많이 하니까 이 동네.)

104025 #2 이 동네 거의 텅기멍 헛주게.(이 동네 거의 다니면서 했지.)

104025 #1 그 귀일중학교 우이 싯고 아래 바다 쪽으로 그디 강 사는 기간에. 이디 ○○이 각시게.(그 귀일중학교 위에 있고 아래 바다 쪽으로 거기 가서 사는 기간에. 여기 ○○이 각시.)

104025 #2 으.(으.)

104025 #1 ○○이 죽은어명이 일본서 완 열두 질을 그디 심방 집이서 쳄어²³³.(○○이 작은어머니가 일본에서 와서 열두 길을 거기 무당 집에서 쳄어.)

104025 #2 아.(아.)

104025 #1 그 집이 칠 때 나옴센 헨에 ○○이 성님이영 가근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강 곳 다 허도록 봐신디. 자기네 집이서. 자기네 집이서.(그 집에 칠 때 나오라고 해서 ○○이 형님이랑 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서 곳 다 하도록 봤는데.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집에서.)

104025 #2 그 심방네 집이서 허연?(그 무당네 집에서 했어?)

104025 #1 으. 겐 여기서 ○○이 뭐 허난 그냥 해 주켄 허난. 게난 일본 사름덜은 곳을 잘허더라이.(으. 그래서 여기서 ○○이 뭐 하니까 그냥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곳을 잘하더라.)

104025 @ 예. 지금도 험니까.(예. 지금도 하지요.)

104025 #2 일본 사름덜 막.(일본 사람들 막.)

104025 #1 죽은 시어명이 와근에 그 곳을 다 허여.(작은 시어머니가 와서 그 곳을 다 해.)

104025 #2 일본 사름덜이 더 신을 좋아허여.(일본 사람들이 더 신을 좋아해.)

104025 #1 겐 거기서 굿허고.(그래서 거기서 굿하고.)

104025 @ 옛날 식으로게.(옛날 식으로.)

104025 #1 자기네가 허영 우리 맥이곡게. 밥허영 점심 다 맥이고게.(자기네가 해서 우리 먹이고. 밥해서 점심 다 먹이고.)

사냥

104028 @ 사농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농, 사냥?(사냥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농’, 사냥?)

104028 #1 사냥허는 거.(사냥하는 거.)

104028 @ 여기 웃드르²³⁴니까 아버지나 누구나 허는 거 봐 봤수과?(여기 ‘웃드르’니까 아버지나 누구나 하는 거 봐 봤습니까?)

104028 #1 사냥허는 거는이.(사냥하는 거는.)

104028 @ 무슨 사농이 잇엇수과? 꿩, 지달이.(무슨 사냥이 있었습니까? 꿩, 오소

233) 여기서 ‘질을 치다’는 곳에서 신을 맞이하는 길이나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에 보내는 길을 치는 것을 말한다.

234)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리.)

104029 #2 꿩 사냥.(꿩 사냥.)

104029 #1 꿩 사냥할 때는이 그 영 코, 코 걸이가 있어이. 게민 냥을 하나 탁, 탁 하나 냥을 잡아근에 가로 걸쳐. 가로 걸치민 요만씩 고망을 내더라고.(꿩 사냥할 때는 그 이렇게 올라미, 올라미 걸이가 있어. 그럼 나무를 하나 탁, 탁 하나 나무를 잡아서 가로 걸쳐. 가로 걸치면 요만큼씩 구멍을 내더라고.)

104029 #2 꼬네기 해근에게.(끈 해서.)

104029 #1 영 허민 득, 꿩 고망 하나에 모가지 들어가민 딱 졸라지게끔 어떻게 만들아게. 우리 시아바님이 경 잘해났젠. 꿩코²³⁵⁾ 잘 낚.(이렇게 하면 닭, 꿩 구멍 하나에 목 들어가면 딱 조이게끔 어떻게 해서 만들어. 우리 시아버님이 그렇게 잘했었다고. ‘꿩코’ 잘 낚서.)

104029 @ 시아버지가.(시아버지가.)

104029 #1 것이 꿩코엔 허여.(것이 ‘꿩코’라고 해.)

104029 @ 꿩코예.(‘꿩코’요.)

104029 #1 꿩코 낚. 경허민 우리 시어머님 말이 저녁 햄시민 들렁 왕 이거 손 봐근에 해여. 무시것과? 꿩. 메, 이거 어떠한 꿩이. 어디 간 보난 시난 하나 좇엉 왓주. 저 어릴 때 우리 시아바님이 으섯 설에 양제 온 어른이라. 아이, 굴아지커라. 양제 오난 막 하간 거 만헌 집이난, 었은 집이 아덜 시 성제 신 집이 셋아덜이 양제 왓어. 저 광평²³⁶⁾서 이 정존²³⁷⁾이 양제 온 거라. 이딘 이신 집이난 그 으섯 설 때부터 아무것도 안 시키주게. 그자 보약만 행 막 맥여 놓난이 다리 힘이 막 좋텐. 굴아, 이름이 양○○이라. 이 저만이 웨담, 웨담 담 영 답잖아예?(‘꿩코’ 낚서. 그러면 우리 시어머님 말이 저녁 하고 있으면 들고 와서 이거 손 봐서 해. 무엇입니까? 꿩. 어머, 이거 어떠한이까 꿩이. 어디 가서 보니까 있으니까 하나 주워서 왓지. 저 어릴 때 우리 시아버님이 여섯 살에 양자 온 어른이야. 아니, 말할 수 있겠어. 양자 오니까 아주 온갖 거 많은 집이니까, 없는 집의 아들 세 형제 있는 집의 둘째 아들이 양자 왓어. 저 ‘광평’에서 이 ‘정존’에 양자 온 거야. 여긴 있는 집이니까 그 여섯 살 때부터 아무것도 안 시키지. 그저 보약만 해서 마구 먹여 놓으니까 다리 힘이 아주 좋다고. 말해, 이름이 양○○이야. 이 저만큼 외담, 외담 담 이렇게 쌍잖아요?)

104029 #2 으.(으.)

104029 #1 이 담을 쪽쪽쪽 발아²³⁸⁾.(이 담을 쪽쪽쪽 ‘발아’.)

104029 #2 아, 웨담을.(아, 외담을.)

104029 #1 웨담을 막 발앙 저ㄱ지 강 이레 오고. 게민 담 발아근에 냥에도 올라. 경허민 이디 ○○이 오랜 허민 냥 발아근에 이디 올라지켜. 경 담을 잘 발아났덴.

235)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하여 만든 올라미를 말한다.

236) ‘광평’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237) ‘정존’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238) ‘발다’는 담장이나 나무 위 등 발붙이기 어려운 곳을 기어가거나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

(외담을 마구 ‘발아서’ 저까지 가서 이리 오고. 그럼 담 ‘발아서’ 나무에도 올라. 그러면 여기 ○○이 오라고 하면 나무 ‘발아서’ 여기 올라갈 수 있겠어. 그렇게 담을 잘 ‘발았었다고’.)

104029 #2 으.(으.)

104029 #1 이디가 좋아. 어릴 때부터 게난 잘 맥여사 헌텐 허는 거라. 어릴 때부터 몸에 좋은 것만 맥이난. 일은 안 시키고.(여기가 좋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잘 먹여야 한다고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몸에 좋은 것만 먹이니까. 일은 안 시키고.)

104029 @ 시아부지?(시아버지?)

104029 #1 으, 으섯 설에 양제 돌아완.(으, 여섯 살에 양자 데려와서.)

104029 #2 으섯 설에 양제게, 부제침이 데려오난게.(여섯 살에 양자, 부잣집에 데려오니까.)

104029 #1 게난 일이고 어찌고 잘만 크민 좋주게, 크꼭게.(그러니까 일이고 어찌고 잘만 크면 좋지, 크고.)

104029 @ 겐 꿩콜 어떻 놉디가?(그래서 ‘꿩코’를 어떻게 놓습디까?)

104029 #1 겐 열일곱 설에 장꼐 보낸. 우리 시어머님 열다섯에 시집오꼭. 두 설 아래. 열다섯에 시집오고렌.(그리고 열일곱 살에 장가를 보냈어. 우리 시어머님 열다섯에 시집오고. 두 살 아래. 열다섯에 시집왔다고.)

104029 @ 하하하.(하하하.)

104029 #1 경 어린 새각시. 경행 시집온디 우리 시어머님이 그 놉을 빌언 콩을 비레 가렌 허렌게. 열다섯 난 새각시를. 그 칠월 나니까. 겨난 ** 할망허고 ○○이 어멍허고 둘을 빌언 우리 시어머니허고 서이 보낸. 콩 비레. 우리 시어머님은 옛날 이난 그 치마를 벗언 허민 종을 건디 벗지 안허영 치말 영 준등이에 무경.(그렇게 어린 새색시. 그래서 시집왔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그 놉을 빌려서 콩을 베러 가라고 하라고. 열다섯 된 새색시를. 그 칠월 되니까. 그러니까 ** 할머니하고 ○○이 어머니하고 둘을 빌려서 우리 시어머니하고 셋 보냈어. 콩 베러. 우리 시어머님은 옛날이니까 그 치마를 벗어서 하면 종을 건데 벗지 않고 치마를 이렇게 등에 묶어서.)

104029 #2 옛날덜은 경 헛주.(옛날들은 그렇게 했지.)

104029 #1 준등이에 해근에 감양 영 벗어 불민 시원허지. 안 벗영 굽영, 앞지도 안행 굽영만 그 콩을 해여근에 고랑더레 막 놓아 허민 저레 막 가 불민 그 ○○이 어멍이 앞더레 가다근에 멧 **을 막 놓아 줘게. 놓아 주민 그딘 그냥 걸영 나가지. 경헤영 흥를 해원 그 좇안 허난 생전 안 잊어불켄, 그걸 우리 시어머님이. 게난 그 ○○이 어머니가 양침이 딸이라, 거. 저디 누게 고모라이. 저 ○○이네 왕고모. 경허난 양침이 어른이꼭 허난 또 우리 시어님네를 경 잘 봐낫텐 경허난. 게난 그 우리 시어머니 안 온 때부터 일허젠 허민 ㄱ찌 해나니까. 게난 그 콩 해근에 착착 놓는 거 요만이 봐 주민 그거 쫄락 넘어강 허민 흥뎡 따라가당 또 떨어져.(등에 해서 감아서 이렇게 벗어 버리면 시원하지. 안 벗고 굽어서, 앞지도 않고 굽어서만 그 콩을

해서 고랑으로 마구 놓아서 하면 저리 마구 가 버리면 그 ○○이 어머니가 앞으로 가다가 몇 **을 마구 놓아 줘. 놓아 주면 거긴 그냥 걸어서 나가지.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쫓아서 하니까 생전 안 잊어버리겠다고, 그걸 우리 시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이 어머니가 양씨 집안 딸이야, 거. 저기 누구 고모야. 저 ○○이네 왕고모. 그러니까 양씨 집안의 어른이고 하니까 또 우리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시어머니 안 왔을 때부터 일하려고 하면 같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콩 해서 착착 놓는 거 요만큼 놔 주면 그거 훌쩍 넘어가서 하면 조금 따라가다가 또 떨어져.)

104029 #2 그렇지.(그렇지.)

104029 #1 아메도 어린아이 돼지. 열다섯 난 것이게.(아무래도 어린아이 되지. 열다섯 된 것이.)

104029 @ 열다섯이니까.(열다섯이니까.)

104029 #1 게난 그 삼촌 죽어도 안 잊어불켄. 게난 무시거 흥뽀 헤지민 막 독사 발에 아정 가곡 해.(그러니까 그 삼촌 죽어도 안 잊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뭐 조금 하면 막 뚝배기에 가지고 가고 해.)

104029 #2 음.(음.)

104029 #1 우리 시어머님이. 나 그 삼촌은 죽어도 안 잊어불켄. 경허당 아이고, 나 느네 시어머 하간 거 하간 거 날그라 얻어먹엄저. 경 험테가, 난 경허명. 우리 시어머님은 늬 주젠도 허고 늬의 그거 험 거 잘 알아. 흥뽀 머리가 좋아, 우리 시어머님이. 영 세는 거 보민, 날보다.(우리 시어머님이. 나 그 삼촌은 죽어도 안 잊어버리겠다고. 그러다가 아이고, 나 너희 시어머니 온갖 거 온갖 거 나보고 얻어먹고 있어. 그렇게 함테까, 난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님은 남 주려고도 하고 남의 그거 한 거 잘 알아. 조금 머리가 좋아,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세는 거 보면, 나보다.)

104029 @ 시아버지가 어떻헉 경 호강허명 자라신디 꿩코를 잘 낚수과?(시아버지가 어떡해서 그렇게 호강하면서 자랐는데 ‘꿩코’를 잘 낚습니까?)

104029 #1 경허민 경.(그러면 그렇게.)

104029 @ 꿩에 대해서.(꿩에 대해서.)

104029 #1 꿩에 대해서 허민 경허민 요만씩 고망 헌텐. 고망 허여근에 어떻사 허는디 이거 영 건드렁 들어가민 이것이 확. 경허민 꿩이 이거 못 나가지게. 경허민 죽영. 자기 안 돌아보민이 어떤 사름이 가져도 가 분텐.(꿩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요만큼씩 구멍 한다고. 구멍 해서 어떻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건드려서 들어가면 이것이 확. 그러면 꿩이 이거 못 나가지. 그러면 죽어서. 자기 안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도 가 버린다고.)

104029 @ 맞아.(맞아.)

104029 #1 거 봐지민 가져가 불어. 게민 우리 시아버님은 자기 봐지난 강 돌아보는 거지.(거 보이면 가져가 버려. 그럼 우리 시아버님은 자기 놓으니까 가서 돌아보는 거지.)

104029 #2 그렇지.(그렇지.)

104029 #1 강 안 들민 그냥 오고 들어시민 때어 오고.(가서 안 들면 그냥 오고 들었으면 때 오고.)

104029 @ 겐 그거 행 오민 무시거 행 먹어놔수과?(그래서 그거 해서 오면 뭐 해서 먹었습니까?)

104029 #1 무시거 행 먹은 말은 안 곤넌디, 그때 나 안 간 때난. 시어무니 들은 말이야. 시어무니신디. 경 저녁 햄시민게 정지레 탁 들이청 이거 영 멘들아 허민, 경 안 허여, 두령청이 썩 해 오민.(뭐 해서 먹은 말은 안 말하는데, 그때 내가 안 갔을 때니까. 시어머니 들은 말이야.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저녁 하고 있으면 부엌으로 탁 들어뜨려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 하면, 그렇지 않아, 어리둥절하게 썩 해 오면.)

104029 #2 그렇지.(그렇지.)

104029 #1 이거 어떠한, 어떠한. 어디서 봉간. 썩코 놓고 그런 거 안 곤넌. 어디서 봉간. 게민 에에, 하르방²³⁹⁾이 어디서 이걸 봉가. 누게가 이걸 줄 사름이 셔.(이거 어떠한니까, 어떠한니까. 어디에서 주웠어. ‘썩코’ 놓고 그런 거 안 말한다고. 어디에서 주웠어. 그럼 에에,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이걸 주워. 누가 이걸 줄 사름이 있어.)

104029 @ 시어머니안티 들은 얘기구나예?(시어머니에게 들은 얘기군요?)

104029 #1 경 잘헤여 온덴.(그렇게 잘해 온다고.)

104029 @ 저기 신랑이 해 온 건 안 봐 봤고? 할아버지가 해 온 건 안 봐 봤고? (저기 신랑이 해 온 건 안 봐 봤고? 할아버지가 해 온 건 안 봐 봤고?)

104029 #1 으.(으.)

104029 @ 시아버지가 그렇게.(시아버지가 그렇게.)

104029 #1 시아부지 해난 거 시어머니가 경.(시아버지 했던 거 시어머니가 그렇게.)

104029 #2 시아부지 살아온 때 경헌 말이주게.(시아버지 살아온 때 그런 말이지.)

104029 @ 장평이여, 암평이여 잘헤놔다고.(장끼야, 암평이야 잘했었다고.)

104029 #1 으, 게난 이 담 바난²⁴⁰⁾ 말은 막 곱아. 양○○이 ㄱ라 이 담 발렌 허민 잘 발켜.(으, 그러니까 이 담 ‘발앓딘’ 말은 마구 말해. 양○○이 보고 이 담 ‘발라고’ 하면 잘 발겠어.)

104029 @ 아, 시아부지 얘기를?(아, 시아버지 얘기를?)

104029 #1 으, 시아부지. 웨담을 잘잘잘잘. 탄 사름은 믱스왕이.(으, 시아버지. 외담을 잘잘잘잘. 탄 사름은 무서워서.)

104029 #2 그렇지.(그렇지.)

104029 #1 겐디 다리 힘이 좋으니까 바는 거지. 힘엿인 사름은 못 발아.(그런데

239)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보자의 ‘시아버지’를 가리킨다.

240) ‘발다’는 담장이나 나무 위 등 발붙이기 어려운 곳을 기어가거나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리 힘이 좋으니까 ‘바는’ 거지. 힘없는 사람은 못 ‘발아’.)

104029 @ 우리 어무니도 이른아홉인데 나무를 그렇게 잘 탔덴, 자기 어렸을 때는.(우리 어머니도 일흔아홉인데 나무를 그렇게 잘 탔다고, 자기 어렸을 때는.)

104029 #2 으, 옛날 어른들은 잘해놔어.(으, 옛날 어른들은 잘했었어.)

104029 @ 놀레 다니기 좋앗덴 경 굽디다만은.(놀러 다니기 좋았다고 그렇게 말합디다만.)

104029 #1 게난 것도 다리 힘 좋으난.(그러니까 것도 다리 힘 좋으니까.)

104030 @ 게민 노루 사농이나 지달이 사농?(그럼 노루 사냥이나 오소리 사냥?)

104030 #1 노리는 이 집인 잡앙 먹었나? 코 아이 낳?(노루는 이 집은 잡아서 먹었냐? 올가미 안 놓고?)

104030 #2 코 아이 낳.(올가미 아니 낳.)

104030 #1 그때 노리 잘 잡아놔잖아.(그때 노루 잘 잡았었잖아.)

104030 #2 그 특공대로덜 강게, 청년덜 강.(그 특공대로들 가서, 청년들 가서.)

104030 #1 야네 집이 노리 옛날 잘행 먹어놔어, 알아져.(얘네 집 노루 옛날 잘해서 먹었었어, 알 수 있어.)

104030 @ 총 이시난?(총 있으니까?)

104030 #2 옛날게, 저 청년덜 청년화로덜 청년덜 그 이 사삼 후에게. 우리 결혼헌 후제, 결혼헌 후제 그 청년화로덜 총덜 거 지서에 가민 하나씩 주고.(옛날, 저 청년들 청년화로들 청년들 그 이 사삼 후에. 우리 결혼한 후에, 결혼한 후에 그 청년화로들 총들 거 지서에 가면 하나씩 주고.)

104030 #1 우리 혼번은이 고사리 꺼끄레 서이 갖어. 서이 간디 바로 그 골머리²⁴¹⁾에 오름 잇어이. 그 오름 엠에 군인덜이 주둔행 살아. 주둔행 살명 큰 나무를 끄차근에 ㄴ로 탁 걸쳐. 크게 걸쳐근에 노리, 큰 노루게. 노루 코를 세 개를 낳더라고.(우리 한번은 고사리 꺾으러 셋이 갔어. 셋이 갔는데 바로 그 ‘골머리’에 오름 있어. 그 오름 옆에 군인들이 주둔해서 살아. 주둔해서 살면서 큰 나무를 잘라서 가로 탁 걸쳐. 크게 걸쳐서 노루, 큰 노루. 노루 올가미를 세 개를 낳더라고.)

104030 @ 아.(아.)

104030 #1 겐디 헉나 들어완게. 들어오난 야, ○○이 어명이 야, 그 순경 소리 막나도, 차 오지 안헌 때 거 지영 와 불언게, 푸대에 담앙.(그런데 하나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야, ○○이 어머니가 야, 그 순경 소리 마구 나도, 차 오지 않을 때 거 지고 와 버렸어, 부대에 담아서.)

104030 #2 아, 갸이가?(아, 개가?)

104030 #1 산 거, 산 거. 돈 안 죽은 거라.(산 거, 산 거. 완전 안 죽은 거야.)

104030 @ 대단허다예.(대단하네요.)

104030 #2 겁대가리도 엇이.(겁대가리도 없이.)

104030 #1 겁도 엇이 그냥 일로 오민 잡을 거난 **오름 저 동쪽으로 헨에이 오

241) ‘골머리’는 제주시 지경 이름의 하나다.

라리²⁴²⁾로 행 와 불언게. 고사리 꺼끄레 나영 ○○이 어멍이영 서이 가신디.(겹도 없이 그냥 일로 오면 잡을 거니까. **오름 저 동쪽으로 해서 오라동으로 해서 와 버렸어. 고사리 꺾으러 나랑 ○○이 어머니랑 셋이 갔는데.)

104030 #2 고사리 꺼끄레 갓당.(고사리 꺾으러 갔다가.)

104030 #1 으, 우리 둘인 고사리 꺼끄곡.(으, 우리 둘은 고사리 꺾고.)

104030 #2 아이고.(아이고.)

104030 #1 나영 ○○이 어멍은 꺼끄고이 ○○이 어멍은 그거 정 오란. 경 정 오민 그걸 잡아지나, 지가.(나랑 ○○이 어머니는 꺾고 ○○이 어머니는 그거 지고 와서. 그렇게 지고 오면 그걸 잡을 수 있냐, 자기가.)

104030 #2 게메.(글쎄.)

104030 #1 우리 시아바님이랑 스춘 오누이라.(우리 시아버님이랑 사촌 오누이야.)

104030 #2 으.(으.)

104030 #1 우리 시아바님이 웨스춘 오누이난 시아바님신디 강, 오라바님 집이 읍서. 무사 허난 읍서게, 읍서. 경 노리 헛젠 허민 오나게?(우리 시아버님이 외사촌 오누이니까 시아버님에게 가서, 오라바님 집에 오세요. 왜 하니까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노루 했다고 하면 오냐?)

104030 #2 그렇지.(그렇지.)

104030 #1 읍서게, 읍서게 허난 조반행 침, 점심 헤렌. 점심 행 밥 먹읍서, 밥 먹읍서 헨 점심 딱 맥이고.(오세요, 오세요 하니까 조반 해서 참, 점심 하더라고. 점심 해서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해서 점심 딱 먹이고.)

104030 #2 으.(으.)

104030 #1 스춘오라방을 점심 맥이곡 헨에 우영팟더레 오라바님 이디 읍서, 이디 읍서. 무사 허난 푸대에 담안 딱 즐라멩 놔둔디 푸들락푸들락헛서렌게.(사촌오라바니를 점심 먹이고 해서 터알으로 오라바님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왜 하니까 부대에 담아서 딱 잘라매서 놔뒀는데 푸들락푸들락하고 있더라고.)

104030 #2 아고야.(아고야.)

104030 #1 이레 읍서 허난, 이거 무사 허난, 나양 영 영 헤부난에 산에 가단 이거 시난에 잡앙 정 와신디 오라바님 이거 손 봄서, 손 봄서 허난. 자신은 싯주게, 우리 시아바님이. 경허난 게난 이제 그거 문딱 그걸 거죽 뱃기민 얼마 안 웅텐 허드라. 그거 허여근에이 무시거 불 숨을 거 아저오라, 아저와. 불 숨앙 문딱 그실환게. 그 터럭게.(이리 오세요 하니까, 이거 왜 하니까,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에 가다가 이거 있으니까 잡아서 지고 왔는데 오라바님 이거 손 보세요, 손 보세요 하니까. 자신은 있지, 우리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모두 그걸 가죽 뱃기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 그거 해서 뭐 불 땔 거 가져와라, 가져와. 불 때서 모두 그을려서. 그 털.)

104030 #2 아고.(아이고.)

242) '오라리'는 제주시 오라동을 말한다.

104030 #1 털을 그냥 하루 해원 헛덴. 흐를 해원 다 그실려근에 이제 잡아근에 그거 문딱 고기 잡안 놓고 데맹이허곡 빼는, 이거 오라버님 가져당 먹읍서, 아저 갑서, 아저 갑서 허난. 데맹이허곡 팡은 쥐 된 그건 장에 강 폴안이 잘도 돈 하영 받안. 얼마 받은 건 몰른디 그 성님 장에 강 폴안. 그 노루 고기를.(털을 그냥 하루 종일 했다고. 하루 종일 다 그을려서 이제 잡아서 그거 모두 고기 잡아서 놓고 대가리하고 빼는, 이거 오라버님 가져다가 먹으세요,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하니까. 대가리하고 빼는 쥐 두고 그건 장에 가서 팔아서 아주 돈 많이 받았어. 얼마 받은 건 모르겠는데 그 형님 장에 가서 팔았어. 그 노루 고기를.)

104030 #2 그거 잡아단.(그거 잡아다가.)

104030 #1 잡안 우리 시아바님이 해 주난. 빼하고 데가린 우리 아바님 안네 두고 진 먹지도 안허고.(잡아서 우리 시아버님이 해 주니까. 빼하고 대가리는 우리 아버님 드려 두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104030 #2 으.(으.)

104030 #1 폴안, 폴안. 저 아래 성 살았네.(팔았어, 팔았어. 저 아래 형 살았네.)

104030 #2 으.(으.)

104030 #1 그 석, 저 저.(그 석, 저 저.)

104030 #2 ○○이 어멍.(○○이 어머니.)

104030 #1 ○○이 어멍 혼디 작은방에 살아났어. 그디서 잡안. 계난 막 숨견덜 잘도 허드라, 그때. 분명히 이디 들엇텐 분명히 이거 든디 누게 가져강, 누게 가져가신고 막 오죽 왜냐?(○○이 어머니 같이 작은방에 살았었어. 거기서 잡았어. 그러니까 마구 숨겨서들 잘도 하더라, 그때. 분명히 여기 들었다고 분명히 이거 들었는데 누가 가져가서, 누가 가져갔는가 마구 오죽 외냐?)

104030 #2 그렇지.(그렇지.)

104030 #1 그 군인덜이.(그 군인들이.)

104030 #2 그렇지.(그렇지.)

104030 #1 빼어 가불엇덴.(빼 가버렸다고.)

104030 #2 그렇지.(그렇지.)

104030 #1 계난 요령도 좋아. 일고 가단 보민 심어. 계난 저 동더레 강 내려오ㄴ 렌게. **오름 동으로 강.(그러니까 요령도 좋아. 일고 가다가 보면 잡아. 그러니까 저 동으로 가서 내려왔다고. **오름 동으로 가서.)

104030 @ 똑똑헛다예.(똑똑헛네요.)

104030 #2 연동²⁴³⁾ 길로 강 내려와신게.(연동 길로 가서 내려왔네.)

104030 @ 계난 멧 설 때파 거, 멧 설 때?(그러니까 멧 살 때입니까 거, 멧 살 때?)

104030 #1 계난 잘도 멀어. 멧 설이 아니고 그 어른이 시집강 아기 낳 막 오랜 때야.(그러니까 아주 멀어. 멧 살이 아니고 그 어른이 시집가서 아기 낳아서 아주

243) '연동'은 제주도 연동을 말한다.

오랜 때야.)

104030 @ 계난 그런 궁통이가.(그러니까 그런 궁리가.)

104030 #1 사삼사건 후에.(사삼사건 후에.)

104030 #2 없는 사람이난 헤 왔주, 우리 거트민 헐 생각도.(없는 사람이니까 헤 왔지, 우리 같으면 할 생각도.)

104030 #1 혼디 먹지도 안헐 다 풀안. 우리 시아바님 거 혼 갑으로이 빼허곡이 데맹이만 줘 된. 야, 점심 헐 맥여근에 이레, 우영더레 읍서, 읍센 가난 그거, 그 거 죽 벗겨 불민 고긴 얼마 안 헐텐.(같이 먹지도 았고 다 팔았어. 우리 시아버님 거 한 갑으로 빼하고 대가리만 줘 두고. 야, 점심 해서 먹여서 이리, 터알으로 오세요, 오세요 가니까 그거, 그 가죽 벗겨 버리면 고기는 얼마 안 한다고.)

104030 #2 경 헐 거여게.(그렇게 할 거야.)

104030 #1 계난 거죽은 그거 문딱 다 불태와. 거죽 부뜨니까 고기가 하는 거주. 노리 고기 적갈도 헐텐 허드라. 적갈도 헐 맛이 잇넌. 난 먹어 보진 안헐어. 아니 먹언 본디 막 맛있넌. 소고기보단 더 맛있네.(그러니까 가죽은 그거 모두 다 불태워. 가죽 불으니까 고기가 많은 거지. 노루 고기 적도 한다고 하더라. 적도 해서 맛이 있다고. 난 먹어 보지는 았았어. 안 먹어 봤는데 아주 맛있다고. 소고기보단 더 맛있다고.)

104030 #2 옛날 말 잇잖아. 노리 때려난 막헐이 삼 년 우린텐젠. 맛이 조난 그 말을 나와실 테주.(옛날 말 잇잖아. 노루 때렸던 막대기 삼 년 우린다고. 맛이 좋으니까 그 말을 나왔을 테지.)

104030 @ 노리 때려난 막헐이?(노루 때렸던 막대기?)

104030 #2 으.(으.)

104030 @ 삼 년?(삼 년?)

104030 #2 으.(으.)

104030 @ 뭐 헤마씨?(뭐 해요?)

104030 #2 삼 년 우러먹는다고.(삼 년 우러먹는다고.)

104030 @ 하하하.(하하하.)

104030 #1 겐 오래 우린텐 말이지. 삼 년 우리난.(그래서 오래 우린다는 말이지. 삼 년 우리니까.)

104030 #2 맛이 시난 그 말 아니?(맛이 있으니까 그 말 아니?)

104030 @ 노룬 총으로 쏘아근에 청년덜 잡아먹고 헐 건 언제마씨? 사삼 지낭? (노루는 총으로 쏘아서 청년들 잡아먹고 한 건 언제요? 사삼 지나서?)

104030 #1 쪼금 그루후제지, 더.(조금 그 후이지, 더.)

104030 #2 사삼 스몏 후에.(사삼 사몏 후에.)

104030 #1 군인 갓당 완.(군인 갓다 와서.)

104030 @ 고기가 엇어 부난.(고기가 없어 버리니까.)

104030 #1 군인 갓다 온 때난이 야이네 아방이 군인 갓다 온 때난. 아이고, 나

그때이 ○○이 어머하고 나만 고사리 꺼경 오꼭 그 성은 그냥 확 담양.(군인 갔다 온 때니까 애네 아버지가 군인 갔다 온 때니까. 아이고, 나 그때 ○○이 어머니하고 나만 고사리 꺾어서 오고 그 형은 그냥 확 담아서.)

104030 #2 아이고, 막습지도 안허영.(아이고, 무섭지도 않아서.)

104030 #1 푸들락푸들락 등땡이서 헛지.(바동바동 등때기에서 헛지.)

104030 #2 아이고, 겁대가리 엇이.(아이고, 겁대가리 없이.)

104030 @ 그분 살아 계셔마씨?(그분 살아 계셔요?)

104030 #1 돌아가션.(돌아가셨어.)

104030 #2 돌아간 지 오래연게. 막 억센 할망이주게. 억센 사름이라.(돌아간 지 오래어. 아주 억센 할머니지. 억센 사람이야.)

104030 #1 몸도 좋고이 마음도 막 억센 사람. 것도 문씨라.(몸도 좋고 마음도 아주 억센 사람. 것도 문씨야.)

104030 @ 하하하.(하하하.)

104030 #1 우리 문씨.(우리 문씨.)

104030 @ 남자처럼 대답허다예?(남자처럼 대답하네요?)

104030 #2 으, 남자다운 사람.(으, 남자다운 사람.)

104030 #1 우리는 흠치 들를 생각도 안 허고 영 들엇텐 헌디 확 푸대에 담양 딱 즐라메영 정.(우리는 전혀 들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확 부대에 담아서 딱 잘라매서 저서.)

104030 @ 대단허다.(대단하다.)

104030 #2 게난 숨 브땅도 죽어실 거여이.(그러니까 숨 발아도 죽었을 거야.)

104030 #1 아니, 몬 안 죽었어, 이디 와도 파들락파들락헨 푸대에서.(아니, 모두 안 죽었어, 여기 와도 바동바동해서 부대에서.)

104030 @ 노루가 옛날에도 많아났수파?(노루가 옛날에도 많았었습니까?)

104030 #1 게난 무신 맛을 보카이. 그거 다 풀안이. 돈 생각허연. 고사리 거꺼당 풀 건디 고사리 안 거꺼 오난. 노리 고기가 돈은 더 하영 벌엇지.(그러니까 무슨 맛을 볼까. 그거 다 팔았어. 돈 생각해서. 고사리 꺾어다가 팔 건데 고사리 안 꺾어 오니까. 노루 고기가 돈은 더 많이 벌엇지.)

104030 #2 그렇지.(그렇지.)

104030 #1 겐디 우리 시아바님이 허여 주난.(그런데 우리 시아버님이 해 주니까.)

104030 #2 허여 주난 맞아.(해 주니까 맞아.)

104030 #1 스춘 오빠 시난. 늬사 경 헤 주느냐, 거.(사촌 오빠 있으니까. 남이야 그렇게 해 주냐, 거.)

104030 #2 늬이 어떻 거 헤 주냐?(남이 어떻게 거 해 주냐?)

104030 #1 아니 헤 주지이.(안 해 주지.)

104031 @ 지달이나 이런 거는 약으로도 많이 췌텐 허는디.(오소리나 이런 거는 약으로도 많이 췌었다고 하는데.)

104031 #1 지달이엔 현 것은 뭇ㄴ라 지달이엔 허냐?(오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보고 오소리라고 하냐?)

104031 @ 오소리? 땅굴 파명예.(오소리? 땅굴 파면서요.)

104031 #2 으, 땅굴 속에 들어가는 거.(으, 땅굴 속에 들어가는 거.)

104031 #1 아, 그것ㄴ라 지달이.(아, 것보고 오소리.)

104031 #2 으, 그것ㄴ라 지달이엔 헨다게.(으, 것보고 오소리라고 한다.)

104031 #1 오로?(두더지?)

104031 @ 오소리?(오소리?)

104031 #2 오로, 오로.(두더지, 두더지.)

104031 #2 너구리 닳은 거.(너구리 닳은 거.)

104031 #1 으. 것ㄴ라 지달이?(으. 것보고 오소리?)

104031 #2 으.(으.)

104031 #1 땅 광 땅속에 집 헤영 사는 거이?(땅 파서 땅속에 집 해서 사는 거?)

104031 #2 으.(으.)

104031 #1 경행 나왕은에이 스방에 똥 막 싸 똥 또 들어가꼭 경 허는 거지이?(그래서 나와서 사방에 똥 마구 싸 두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104031 #2 으, 그게 오류주게.(으, 그게 오로지.)

104031 #1 게난 그 노루만이 안 큰 거지?(그러니까 그 노루만큼 안 큰 거지?)

104031 #2 노루만이 아이 커.(노루만큼 안 커.)

104031 #1 크질 안헤?(크질 않아?)

104031 #2 노루 반쪽만이.(노루 반쪽만큼.)

104031 #1 게난 그 산에 모멸 갈양 모멸 비레 강 보민 그런 고망이 막 낭 옆이 막 똥 쌓 놔두고, 그건 어디 기어나 불영 엇꼭 헐 때가 있어.(그러니까 그 산에 메밀 갈아서 메밀 베러 가서 보면 그런 구멍이 마구 나서 옆에 마구 똥 싸서 놔두고, 그건 어디 기어나 버려서 없고 할 때가 있어.)

104031 #2 으.(으.)

104031 #1 우리도 저 테우리동산²⁴⁴⁾이엔 현 디 모멸 한 뗏 번 우리 아버지 갈 때가 있어났어. 겐 그디 간 보민 그 산 쪽이난이 테우리동산서 그걸 똥 무락이²⁴⁵⁾ 싸 놓꼭 허민 우리 어머니이.(우리도 저 ‘테우리동산’이라고 하는 데 메밀 한 뗏 번 우리 아버지 갈 때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그 산 쪽이니까 ‘테우리동산’에서 그걸 똥 ‘무락이’ 싸 놓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104031 #2 게난 그 구망 앞에 옛날 어른덜토 그 구망 앞에 코를 낳 놔뒀게.(그러니까 그 구멍 앞에 옛날 어른들도 그 구멍 앞에 올라미를 놔서 놔뒀.)

104031 @ 으, 코.(으, 올라미.)

104031 #2 으, 콜 낳 놔다근에 잡앙 먹엄저, 무싱거 험저 막.(으, 올라미를 놔서

244) ‘테우리동산’은 지경 이름이다.

245) ‘무락이’는 물건 따위가 한 곳에 많이 쌓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왔다가 잡아서 먹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마구.)

104031 #1 거 코 아는 사람은 혀고 모른 사람은 못 혀고.(거 올라미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른 사람은 못 하고.)

104031 @ 그런 사람이 있어. 전문.(그런 사람이 있어. 전문.)

104031 #1 겐 우리 어머니가 이젠 오로, 오로 고망 닳다. 오로 고망.(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젠 두더지, 두더지 구멍 같다. 두더지 구멍.)

104031 #2 으.(으.)

104031 @ 이 동네 사냥바치는 엿어났수과? 그런 총을 쏘앙 뭐 혀는 할아버지나 아저씨나?(이 동네 사냥꾼은 없었습니까? 그런 총을 쏘서 뭐 하는 할아버지나 아저씨나?)

104031 #2 그런 건 엿어나고.(그런 건 없었고.)

104031 @ 웃드리니까 사냥 있었을 건디. 겐 그 가족으로 신발이나 또 우리가 털옷덜 입영 다니는 사람덜, 모자라든지.(‘웃드리’니까 사냥 있었을 건데. 그래서 그 가족으로 신발이나 또 우리가 털옷들 입고 다니는 사람들, 모자라든지.)

104031 #2 막 옛날 어른덜은.(아주 옛날 어른들은.)

104031 #1 야네 시아바님이, 야인 잘 모를 건디, 야네 시아바님이 우리 글로 다니니까 그 노루를 막 잡는 생이라. 잡아근에 이 모자 귀양 나게 행 모자 쓰곡 쪼께 행 입영 다녀났어. 느네 시아바님이. ○○이가.(애네 시아바님이, 애는 잘 모를 건데, 애네 시아바님이 우리 그리로 다니니까 그 노루를 마구 잡는 모양이야. 잡아서 이 모자 귀양 나게 해서 모자 쓰고 조끼 해서 입고 다녔었어. 너희 시아바님이. ○○이가.)

104031 #2 음.(음.)

104031 #1 느랑 그 쪼께 거 입영 다니고. 우리 밧디 글로 갓다 왔다 혀멍 보민. 모자 쓰고 쪼께 입곡. 우리 노루 가족으로 가족 물류왕은에이 이 쪼께 이디 딱 혀영. 그거 입은 거 나가 멧 번을 봤어.(늘 그 조끼 거 입고 다니고. 우리 밧에 그리로 갓다 왔다 하면서 보면. 모자 쓰고 조끼 입고. 우리 노루 가족으로 가족 말려서 이 조끼 여기 딱 해서. 그거 입은 거 내가 멧 번을 봤어.)

104031 #2 털 시난 뜨신 겐로 헤실 거라.(털 있으니까 따뜻한 겐로 했을 거야.)

104031 #1 모자혀고 쪼께 입은 거. 야네 시아바님이.(모자하고 조끼 입은 거. 애네 시아바님이.)

104031 @ 총은 안 들르고?(총은 안 들고?)

104031 #1 총은 아녀고. 시아바님이 헨 거 보민. 야네 시아바님이 야네 뉘편네보단 쪼끔 크나 마나 헨디 막 걸음도 빨르곡이, 걸음도 파작파작파작²⁴⁶⁾ 걸음 빨르고 잘도 자상헌 어른. 책도 보고.(총은 아니고. 시아바님이 헨 거 보면. 애네 시아바님이 애네 뉘편네보다는 쪼끔 크나 마나 한테 아주 걸음도 빠르고, 걸음도 ‘파작파작파작’ 걸음 빠르고 아주 자상헌 어른. 책도 보고.)

246) ‘파작파작파작’은 빨리 걷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4031 #2 으.(으.)

104032 @ 게문예, 족제비?(그럼요, 족제비?)

104032 #1 족제비는 비 오젠 허민 족제비 봐점젠 어른덜이.(족제비는 비 오려고 하면 족제비 보인다고 어른들이.)

104032 @ 아.(아.)

104032 #1 비 옴 직하다 오늘 족제비 막 나다넘저, 허여.(비 옴 직하다 오늘 족제비 마구 나다니고 있어, 해서.)

104032 @ 아.(아.)

104032 #1 비 오젠 허민 족제비 나왕 사람 눈에 보여.(비 오려고 하면 족제비 나와서 사람 눈에 보여.)

104032 @ 아.(아.)

104032 #1 후루룩후루룩 막 다녀. 그 족제비 가죽은 잘도 좋아.(후루룩후루룩 마구 다녀. 그 족제비 가죽은 아주 좋아.)

104032 @ 으, 으.(으, 으.)

104032 #1 문지락현²⁴⁷⁾ 게 긴게이, 그거 영 해근에.(‘문지락한’ 게 그렇네, 그거 이렇게 해서.)

104032 #2 목도리도 행 탕겨낫저.(목도리도 해서 다녔었어.)

104032 #1 소곱에, 소곱에 긴 검질 닳은 거 영 담양.(속에, 속에 긴 검불 같은 거 이렇게 담아서.)

104032 #2 뱃집 담양 몰려.(뱃짚 담아서 말려.)

104032 #1 담양 몰류와.(담아서 말려.)

104032 #2 뱃집 담양 뱃집.(뱃짚 담아서 뱃짚.)

104032 @ 아고야, 세상에.(아고야, 세상에.)

104032 #2 뱃집 영 구불려근에 그 기러기로.(뱃짚 이렇게 구부려서 그 길이로.)

104032 #1 몰류와.(말려.)

104032 #2 기러기로 길쭉허게 구불려근에 그 속에 담양 몰류와.(길이로 길쭉하게 구부려서 그 속에 담아서 말려.)

104032 #1 게연 몰류민 거 빼 불면 것이 목도리 돼여.(그래서 말리면 거 빼 버리면 것이 목도리 돼.)

104032 @ 겐 누게 행 다니는 사람 엇주게.(그래서 누가 해서 다니는 사람 없지.)

104032 #1 우리 스춘 오빠, 작은오빠가 문○○인디 건 스삼사건에. 오리 조께도 해영 입곡, 오리.(우리 사춘 오빠, 작은오빠가 문○○인데 건 사삼사건에. 오리 조끼도 해서 입고, 오리.)

104032 @ 오리?(오리?)

104032 #1 춤, 노루 노루.(참, 노루 노루.)

104032 @ 노루.(노루.)

247) ‘문지락허다’는 털 따위가 짧고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4032 #1 노루 목도리난. 산에 사니까. 산 폭도지, 것ㄴ라 폭도엔 해. 옛날에 폭도, 폭도 해난게.(노루 목도리니까. 산에 사니까. 산 폭도지, 것보고 폭도라고 해. 옛날에 폭도, 폭도 했었어.)

104032 @ 사삼 때는.(사삼 때는.)

104032 #1 으.(으.)

104032 @ 산에 올라강 사난게.(산에 올라가서 사니까.)

104032 #1 으. 경 빠르고 어이, 허민 산에, 어이 허민 이디 내려오꼭 해. 걸음도 빠르고. 장계가근에 애기 오누이 나난디 애기 둘 다 죽어불언게. 게난 부인은 재가 행 가 불고 우리 오빠 형무소 간 죽어불고.(으. 그렇게 빠르고 어이, 하면 산에, 어이 하면 여기 내려오고 해. 걸음도 빠르고. 장가가서 아기 오누이 낳았었는데 아기 둘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부인은 재가해서 가 버리고 우리 오빠 형무소 가서 죽어버리고.)

104032 @ 사삼 때 다 죽었다는 거지예?(사삼 때 다 죽었다는 거지요?)

104032 #1 으, 죽어불고.(으, 죽어버리고.)

104032 #2 그 어른 대구형무소에 강 죽은 철 아니?(그 어른 대구형무소에 가서 죽은 철 아니?)

104032 #1 으, 대구형무소.(으, 대구형무소.)

104032 @ 사촌마씨?(사촌요?)

104032 #1 스촌 오빠. 큰아버지 작은아덜.(사촌 오빠. 큰아버지 작은아들.)

104032 #2 땅에 밭을 부치지 안행 걸어났수게.(땅에 밭을 붙이지 않고 걸어났었지요.)

104032 #1 막 걸음이 빨라게 윈. 어떻 빠르지 몰라.(아주 걸음이 빨라, 윈. 어떻게 빠르지 몰라.)

104032 #2 걸음도 그렇게 빠르고 손짓도 빠르고.(걸음도 그렇게 빠르고 손짓도 빠르고.)

104032 #1 게난 ○○이 따를 사람 하나토 엇텐 헤여, 어른덜이.(그러니까 ○○이 따를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해, 어른들이.)

104032 @ ○○이?(○○이?)

104032 #1 문○○.(문○○.)

104032 @ ○○?(○○?)

104032 #1 으, ○○. ○○이 따를 사람 하나토 엇텐 해. 걷질, 따라가지 못해.(으, ○○. ○○이 따를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해. 걷질, 따라가지 못해.)

104032 #2 파딱 파딱 파딱.(파딱 파딱 파딱.)

104032 @ 아이덜은 어떻 해근에, 폭도라 부난 아이덜도 죽언마씨?(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폭도여 버리니까 아이들도 죽었어요?)

104032 #1 폭도라 부난 죽은 게 아니고 아이덜 안 죽었는데, 그때이 스삼사건에 바람 먹영 죽엇젠 막 헤이. 그 산에 잣다 온 아이덜이 많이 죽더라.(폭도여 버리니

까 죽은 게 아니고 아이들 안 죽었는데, 그때 사삼사건에 바람 먹어서 죽었다고 마구 해. 그 산에 갔다 온 아이들이 많이 죽더라.)

104032 @ 바람이 뭐짜?(바람이 뭘니까?)

104032 #1 바람이게 눈 우이 강 눈바람이주게. 바람이 바람이주게.(바람이 눈 위에 가서 눈바람이지. 바람이 바람이지.)

104032 @ 아, 얼언?(아, 추워서?)

104032 #2 얼언, 얼언.(추워서, 추워서.)

104032 #1 겐 아래 내려오민 그냥 얼마 살단 죽어불어. 영종이 아시도 경행 죽어 불었네.(그래서 아래 내려오면 그냥 얼마 살다가 죽어버렸어. 영종이 아우도 그래서 죽어버렸어.)

104032 #2 으.(으.)

104032 #1 아시도, 산에 갔다오니까 바람, 바람 먹영 죽엇덴 해.(아우도, 산에 갔다오니까 바람, 바람 먹고 죽었다고 해.)

104032 @ 아.(아.)

104032 #1 경 뭐 빙 든 거 엇어도 죽어부니까게.(그렇게 뭐 빙 든 거 없어도 죽어버리니까.)

104032 #2 게 겨울에 산에 강 살명 바람, 찬 바람 먹어 놓난.(그래 겨울에 산에 가서 살면서 바람, 찬 바람 먹어 놓으니까.)

104032 #1 잘 죽언게, 아이덜이. 막 경 곶아. 살아시민 ○○이네도 아시.(잘 죽었어, 아이들이. 마구 그렇게 말해. 살았으면 ○○이네도 아우.)

104032 #2 그렇지.(그렇지.)

104032 @ 가슴 아프다예.(가슴 아프네요.)

104032 #1 게난 우리 ○○이네 그 오라방 딸은 흥뽀 모녀 나고 아덜 말째 난 건디 경 안 헤시민 살아실 건디. 살았자 고생바가지 헐 건디.(그러니까 우리 ○○이네 그 오라버니 딸은 조금 먼저 낳고 아들 말째 낳은 건데 그렇게 안 했으면 살았을 건데. 살았자 고생바가지 할 건데.)

104032 #2 살아시민게 어머니 아니 나가신디사 모르지. 고직헌 어른이난 아이 나가신디도 몰라.(살았으면 어머니는 아니 나갔는지 모르지. 곧은 어른이니까 안 나갔는지도 몰라.)

104032 #1 게메.(글쎄.)

104032 #2 그 애기덜 믿영 그냥 살아근예.(그 아기들 믿고 그냥 살아서.)

5. 바다일

105001 @ 바당에서 하는 일들은?(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105001 #1 잘 몰라, 우리.(잘 몰라, 우리.)

105001 @ 바당 듬북, 감태, 고둥, 게?(바다 듬북, 감태, 고둥, 게?)

105001 #1 바다 쪽이 아니니까 바당에 들었 겠.(바다 쪽에 아니니까 바다에 들어서 겠.)

105001 @ 원담 뭇 낚시 이런 건 원 안 해 봤수과?(‘원담’ 뭇 낚시 이런 건 원 안 해 봤습니까?)

105001 #1 허는 말만 들었지, 아예 안 해 부난 몰라.(하는 말만 들었지, 아예 안 해 버리니까 몰라.)

105001 @ 하하하.(하하하.)

105001 #1 바다 쪽에 사람이 건 알지.(바다 쪽의 사람이 건 알지.)

105001 @ 우미 만드는 것도 모르고?(우무 만드는 것도 모르고?)

105001 #1 우미 만드는 건 알아.(우무 만드는 건 알아.)

105001 #2 우미 만드는 건 알지.(우무 만드는 건 알지.)

105001 @ 어떻 해?(어떻게 해?)

105001 #1 우미 뭐 하얏게 바랜 거이, 발랜 거.(우무 뭐 하얏게 바랜 거, 바랜 거.)

105001 @ 사 와? 바다에 강 해 오지 못허는디 어떻?(사 와? 바다에 가서 해 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105001 #2 옛날에 해 왔어.(옛날에 해 왔어.)

105001 #1 이녁 먹을 건 허여당 바래근에 허는디 그 삶을 때 식용류 낱 삶아. 식용류 낱 삶아사 빨리 퍼정 문작해게. 그냥 그거만 삶으면 잘도 오래 삶아도이 찌꺼기가 많아. 식용류.(자기 먹을 건 해다가 바래서 하는데 그 삶을 때 식용류 넣어서 삶아. 식용류 넣어서 삶아야 빨리 퍼져서 문적해. 그냥 그거만 삶으면 아주 오래 삶아도 찌꺼기가 많아. 식용류.)

105001 @ 누가 가르쳐 줘디가?(누가 가르쳐 줘디까?)

105001 #2 우미가사리를 바다에 가서 해 오면은.(우뭇가사리를 바다에 가서 해 오면.)

105001 #1 해난 사름이 곁아주난 나 경행 혼번 해 뵈. 혼번.(했던 사람이 말해주니까 나 그렇게 한번 해 뵈어. 한번.)

105001 #2 그 돌멩이 껍데기가 그 뿌리에 부트잖아?(그 돌멩이 껍데기가 그 뿌리에 붙잖아?)

105001 @ 예.(예.)

105001 #2 부트면은 그거를 물에 놔서 방망이로 막 두들기면서.(붙으면 그거를 물에 놔서 방망이로 마구 두들기면서.)

105001 @ 예.(예.)

105001 #2 빨래 빨듯이 막 빨아.(빨래 빨듯이 마구 빨아.)

105001 @ 으.(으.)

105001 #2 겐 갓당 넣어놓민 이제 말르민 갓당 또 씻청 말리고. 경허민 하얏게

바랑 날라나 붙어.(그래서 가져다가 넣어놓으면 이제 마르면 가져다가 또 씻어서 말리고. 그러면 하얗게 바래서 날라가 버려.)

105001 #1 적²⁴⁸ 떨어지렌게, 적 떨어지렌.(‘적’ 떨어지라고, ‘적’ 떨어지라고.)

105001 #2 으, 그 돌맹이 부튼 것도 다 떨어지고.(으, 그 돌맹이 붙은 것도 다 떨어지고.)

105001 @ 적?(‘적’?)

105001 #1 적, 그 떨어진 게 적이엔 헤여, 적.(‘적’, 그 떨어진 게 ‘적’이라고 해, ‘적’.)

105001 #2 으, 돌맹이 그 부튼 게 적이렌 허주게.(으, 돌맹이 그 붙은 게 ‘적’이라고 하지.)

105001 #1 적 떨어지렌 탁탁 두드려.(‘적’ 떨어지라고 탁탁 두드려.)

105001 #2 방맹이로 막 탁탁 두드렁 적도 이젠 날라나 붙고 색깔도 날라나근에 하얗허주게. 겨민 거 삶아근에게.(방망이로 마구 탁탁 두드려서 ‘적’도 이제 날아가 버리고 색깔도 날라나서 하얗지. 그럼 거 삶아서.)

105001 #1 그거 신 냥 삶으민이 못 먹어게. 빼작빼작.(그거 있는 대로 삶으면 못 먹어. ‘빼작빼작’.)

105001 #2 체 받쳐근에 그릇에.(체 받쳐서 그릇에.)

105001 #1 나이 그거 몰른디 똥똥이 골안게. 경혜영 삶으렌. 우린 ○○이 가져왔고 이 어명헨 삶느니 허난 식용류 넣 삶읍서. 거 잘 해놔어. 자주허여, 거.(나 그거 모르는데 똥똥이 말하더라. 그렇게 삶으라고. 우리는 ○○이 가져왔고 어떡해서 삶으니 하니까 식용류 넣어서 삶으세요. 거 잘 했었어. 자주해, 거.)

105001 #2 무시거 넣 삶으렌?(뭘 넣어서 삶으라고?)

105001 #1 식용류.(식용류.)

105001 @ 식용류.(식용류.)

105001 #1 삶을 때 식용류.(삶을 때 식용류.)

105001 #2 아, 식용류 놔사.(아, 식용류 놔야.)

105001 #1 똥똥이가 골아 쥘 허연.(똥똥이가 말해 줘서 했어.)

105001 #2 똥똥이 자주 그거 여름엔 해놔어.(똥똥이 자주 그거 여름엔 했었어.)

105001 #1 경헨 삶으난 아이덜 다 혼 못씩 행 갈랑 우리 ○○이 아주망 쥘 내볼기도 뭐 허고.(그래서 삶으니까 아이들 다 한 못씩 해서 갈라서 우리 ○○이 아주머니 줘서 내버리기도 뭐 하고.)

105001 #2 맞다게.(맞다.)

105001 #1 삶안 치와 불었주. 혼 삼 년 넘었어.(삶아서 치워 버렸어. 한 삼 년 넘었어.)

105001 @ 어릴 때 바당에 해엄치러 가거나.(어릴 때 바다에 해엄치러 가거나.)

105001 #2 으.(으.)

248) ‘적’은 바다의 돌에 붙어 있는 해초의 뿌리 부분의 것을 말한다.

105001 @ 뭘 잡아 보거나.(뭇치 잡아 보거나.)

105001 #1 것도 안 해 봤.(것도 안 해 봤어.)

105001 @ 이게 물 이렇게 헤엄치는 건 배와 봐신지 또 테우는 타 봤는지?(이게 물 이렇게 헤엄치는 건 배워 봤는지 또 떼는 타 봤는지?)

105001 #1 것도 안 해 보고.(것도 안 해 보고.)

105001 @ 전복, 소라 먹어봤는지 이런 얘기들.(전복, 소라 먹어봤는지 이런 얘기들.)

105001 #1 전복 소란 먹어 봤지만 건 놔 해 온 거 상 먹었주.(전복 소라는 먹어 봤지만 건 놔 해 온 거 사서 먹었지.)

105001 @ 어렸을 때, 옛날에?(어렸을 때 옛날에?)

105001 #1 으.(으.)

105001 @ 바다에 헤엄치려도 안 가 봤수과?(바다에 헤엄치려도 안 가 봤습니까?)

105001 #2 아니, 헤엄치려 우린 잘 가난. 막 헤엄쳐.(아니, 헤엄치려 우린 잘 갔었어. 마구 헤엄쳐.)

105001 @ 바닷 어디에 갑니까?(바다 어디에 갑니까?)

105001 #2 이호²⁴⁹⁾ 바다에.(이호 바다에.)

105001 @ 이호?(이호?)

105001 #1 이호 아래.(이호 아래.)

105001 #2 이호 바다에 강 허믄.(이호 바다에 가서 하면.)

105001 #1 그 강이 잇지, 강이.(그 게 잇지, 게.)

105001 #2 파도 타민 잘도 기분 좋아.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리곡.(파도 타면 아주 기분 좋아.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리고.)

105001 @ 몇 살 때 경 가 봤수과?(몇 살 때 그렇게 가 봤습니까?)

105001 #2 열세 살, 열네 살.(열세 살, 열네 살.)

105001 @ 헤엄도 못 치고?(헤엄도 못 치고?)

105001 #2 헤엄치지.(헤엄치지.)

105001 @ 배원마씨?(배웠어요?)

105001 #2 으, 헤엄쳐야, 헤엄치는디 그 파도 타고 그렇게.(으, 헤엄쳐, 헤엄치는데 그 파도 타고 그렇게.)

105001 #1 예, 헤엄쳐 봤?(예, 헤엄쳐 봤어?)

105001 #2 나 몇 바퀴씩 돌아놔저게.(나 몇 바퀴씩 돌았었어.)

105001 @ 누구랑 같이 가마씨, 친구덜이영?(누구랑 같이 가요, 친구들이랑?)

105001 #2 으, 친구덜이영. 그 ○○이 고모네게.(으, 친구들이랑. 그 ○○이 고모네.)

105001 @ 겐 하루 종일 놀당도 오고?(그래서 하루 종일 놀다가도 오고?)

249) '이호'는 제주시 이호동을 말한다.

105003 #1 이 갱이 잡으레 갯당 흥뽀 해영.(이 게 잡으러 갔다가 조금 해서.)
 105003 #2 갱이 잡앙 왔주게.(게 잡아서 왔지.)
 105003 #1 그거는 약간 허고 갱이 잡앙 오지.(그거는 약간 하고 게 잡아서 오지.)
 105005 @ 갱이는 무슨 갱이가 이신지 알쿠과?(게는 무슨 게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105005 #1 춤갱이엔 허여.(참게라고 해.)
 105005 @ 춤갱이 또?(참게 또?)
 105005 #1 거 먹는 거. 똥갱이²⁵⁰⁾ 안 잡아.(거 먹는 거. ‘똥갱이’는 안 잡아.)
 105005 @ 춤갱이 잡아 읍니까?(참게 잡아 읍니까?)
 105005 #1 으.(으.)
 105003 @ 보말도 잡앙 오고?(고등도 잡아 오고?)
 105003 #1 으.(으.)
 105003 #2 보말도 잡앙 오고.(고등도 잡아서 오고.)
 105003 @ 겐 뭘 행 먹어봤수과?(그래서 뭘 해서 먹어봤습니까?)
 105003 #2 으.(으.)
 105003 #1 그거이 젓 담으민 맛있어.(그거 젓 담그면 맛있어.)
 105003 @ 젓 담아예?(젓 담가요?)
 105003 #1 으.(으.)
 105003 #2 으, 갱이젓 담주게.(으, 게젓 담그지.)
 105003 @ 잘 알암신게마씨.(잘 아네요.)
 105003 #1 쿵 보까 낱. 그건 잡아당 먹지만은게. 이런 바다에 강 해엄은 안 쳐 뵈.(쿵 뵈아 뵈서. 그건 잡아다가 먹지만. 이런 바다에 가서 해엄은 안 쳐 뵈어.)
 105003 #2 난 바다에 강 해엄 잘 쳐났어. 파도 타민 그렇게 기분이 좋아.(난 바다에 가서 해엄 잘 쳤어. 파도 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105003 #1 게난 ○○이도 거 허여냐?(그러니까 ○○이도 거 했냐?)
 105003 #2 으.(으.)
 105003 @ 테왁 해근에 뭘 안 해도 보말들을 잡아 왕.(‘테왁’ 해서 뭘 안 해도 고등들을 잡아 와서.)
 105003 #1 테왁²⁵¹⁾은 해녀나 테왁은 허지.(‘테왁’은 해녀나 ‘테왁’은 하지.)
 105003 @ 어떻행 먹엇수과?(어떡해서 먹었습니까?)
 105003 #2 보말은 삶앙 까근에게 저.(고등은 삶아서 까서 저.)
 105003 #1 보말 짱 국도 끓영 먹고.(고등 까서 국도 끓여서 먹고.)
 105003 #2 국도 끓여 먹고.(국도 끓여 먹고.)
 105003 #1 국 끓인 게 질 맛있어.(국 끓인 게 제일 맛있어.)
 105003 #2 간장 뵈근에 보까근에게.(간장 넣어서 뵈아서.)

250) ‘똥갱이’는 게 종류의 하나다.

251)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최근에는 스티로폼을 둥글게 만든 것을 사용한다.

105003 #1 으. 질 맛 좋아. 난 국 끓인 게 질 좋아, 미역 낱. 그 흐뭇 기름에 보
끄단.(으. 제일 맛 좋아. 난 국 끓인 게 제일 좋아, 미역 넣고. 그 조금 기름에 볶다
가.)

105003 #2 메역 낱 국 끓이민 맛있어.(미역 넣어서 국 끓이면 맛있어.)

105003 #1 난 요번도 우리 ○○이 누게 줘렌 허명 어머니 이거 행 먹읍서 헨 가
져완 국 두 사발만 해영 끌렁 맛 좋게 먹언.(난 요번도 우리 ○○이 누게 주더라고
하면서 어머니 이거 해서 드세요 해서 가져와서 국 두 사발만 해서 끓여서 맛 좋게
먹었어.)

105003 #2 맛 좋주게.(맛 좋지.)

105003 @ 자리물훤나 뭇젓이나 이런 건 다 사단?(자리물회나 뭇치젓이나 이런
건 다 사다가?)

105003 #2 으.(으.)

105003 @ 어디 강 사 읍니까? 이레도 폴레 오고?(어디 가서 사 읍니까? 이리도
팔러 오고?)

105003 #2 폴레 오주게.(팔러 오지.)

105003 @ 게민 이호에서도 폴레 오고?(그럼 이호에서도 팔러 오고?)

105003 #2 으, 도두²⁵²⁾서 많이 올라와.(으, 도두에서 많이 올라와.)

105003 #1 옛날에는 막 탄 딘 안 취급하고 아래서 막 올라왕이 돈 벨로 안 받았
곡식에 바깥 가 막.(옛날에는 마구 탄 데는 안 취급하고 아래서 마구 올라와서 돈
별로 안 받고 곡식에 바꿔서 가 마구.)

105003 #2 으.(으.)

105003 #1 곡식으로이. 곡식에 바빠치기허민 그 사람네 혼 짐씩, 혼 짐씩 정 강.
(곡식으로. 곡식에 바꿔치기하면 그 사람네 한 짐씩, 한 짐씩 지고 가서.)

105003 @ 기억남수과, 곡식 무시거 뭇 뒤에 뭇 무시거 어떤 식으로 해난 건 기
억 안 남수과?(기억남니까, 곡식 뭐 뭇 뒤에 뭇치 뭐 어떤 식으로 했던 거 기억 안
남니까?)

105003 #1 나는이 우리 어머님은 경 하영 안 산디 우리 큰어머니 허는 거 보민
이 그 혼 고등어가 열 마리, 열 마리를 샀다 허민 그걸 열 마리를 다 비왕 허민 보
리 혼 서 말 주는 거 같애. 보리쌀로 경 많이 줘. 게민 푸대로 쌍 지영.(나는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많이 안 샀는데 우리 큰어머니 하는 거 보면 그 한 고등어가 열
마리, 열 마리를 샀다 하면 그걸 열 마리를 다 부어서 하면 보리 한 서 말 주는 같
아. 보리쌀로 그렇게 많이 줘. 그럼 부대로 싸서 지고.)

105003 @ 쌀 받았 경 폴레 다녔다는 말이과?(쌀 받아서 그렇게 팔러 다녔다는
말입니까?)

105003 #1 경행 우리도 주곡 해. 경 사 낱, 고등어를. 셋어명도 주곡 우리도 주곡
우리 큰어명이 손 커 놓난이. 게민 우리 아버지 우리 아주무니 손도 크난 좋다. 하

252) '도두'는 제주시 도두동을 말한다.

하하. 얻어먹으멍. 우리 어무닌 경 막 쓸에 바꾸진 안헤.(그래서 우리도 주고 해. 그렇게 사 와서, 고등어를. 둘째어머니도 주고 우리도 주고 우리 큰어머니가 손 커 놓으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아주머니 손도 크니까 좋다. 하하하. 얻어먹으면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마구 쓸에 바꾸진 않아.)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에 대해서 감수다예.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옷감은 무슨?(옷에 대해서 갑니다.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옷감은 무슨?)

106001 #2 옛날에 우리 클 때 옷감이 없었어. 비단 그런 게 없었어. 계난 목화 헤근에게, 광목도 중간에 나온 거. 질쌘행 미녕. 미녕허고 베. 베는 육지에서 주로 오고.(옛날에 우리 클 때 옷감이 없었어. 비단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목화 해서, 광목도 중간에 나온 거. 질쌘해서 무명. 무명하고 베. 베는 육지에서 주로 오고.)

106001 #1 거 육지서만 허는 거난게.(거 육지에서만 하는 거니까.)

106001 #2 제주서도 질쌘은 많이 헤연 만들앙 입었는디.(제주에서도 질쌘은 많이 해서 만들어서 입었는데.)

106001 #1 구월, 구월덜. 이거 팔월이라이, 구월에 안동포 치마저고리 입어질 건가?(구월, 구월. 이거 팔월이야, 구월에 안동포 치마저고리 입을 수 있을 건가?)

106001 #2 입어지메게.(입을 수 있어.)

106001 #1 나 한번 입어 봤당 데껴붙어야켜이.(나 한번 입어 봤다가 던져 버려야겠어.)

106001 #2 구월꺼장은 입어져.(구월까지는 입을 수 있어.)

106001 #1 어제가, 그지게가 칠석날인디 앗앙, 호상이영 거영 관리허멍 보난 아, 이거 그냥 내불민 아깁고이. 호상이야 봐 주렌 아이덜ㄱ라 곱아 주지만은 죽어불민 봐 줄티 말티.(어제, 그저께 칠석날인데 가지고, 수의랑 거랑 관리하면서 보니까 아, 이거 그냥 내버리면 아깁고. 수의이야 봐 달라고 아이들보고 말해 주지만 죽어버리면 봐 줄지 말지.)

106001 #2 죽어불민 봐 주지도 벨로 안 헐다게.(죽어버리면 봐 주지도 별로 안 한다.)

106001 #1 치마 적삼 헛주게. 삼십만 원 들영.(치마 적삼 했지. 삼십만 원 들어서.)

106001 @ 잘 곱앙 봐듭서게, 아덜안티.(잘 말해서 봐주세요, 아들에게.)

106001 #1 삼십만 원 들영 헤신디.(삼십만 원 들어서 했는데.)

106001 #2 경해도 봐뒤 보라, 그거.(그래도 봐뒤 봐, 그거.)

106001 #1 봐두긴 봐두는디 게메. 그 잔치 먹으레 그날 갈 거주게. 하하하. 저 누

구네 잔치, ○○ 아덜.(놔두긴 놔뒀는데 글썄. 그 잔치 먹으러 그날 갈 거지. 하하하. 저 누구네 잔치, ○○ 아덜.)

106001 #2 ○○네.(○○네.)

106001 #1 혼번 그때나 입영 혼번 입어 보카 허멘. 원 안 입언. 헨 때 두어 번썸 입은디. 우리 아방²⁵³⁾ 혼장 헨 때 혼장채 받젠 허믄 그 관복 다 입영 사진을 찍어 게. 게난 그때 풀에 막 이슬 찌난, 이슬 찌난 풀 행 다듬은 거난 이슬 찌난 이만이, 그지게사 받. 젓어근에 물르난 푸석헛더라이.(한번 그때나 입고 한번 입어 볼까 해. 원 안 입었어. 했을 때 두어 번썸 입었는데. 우리 아버지 혼장 할 때 혼장채 받으려고 하면 그 관복 다 입고 사진을 찍어. 그러니까 그때 풀에 마구 이슬 끼니까, 이슬 끼니까 풀 해서 다듬은 거니까 이슬 끼니까 이만큼, 그저께야 봤어. 젓어서 마르니까 푸석헛더라.)

106001 #2 그렇지.(그렇지.)

106001 #1 게도 거 내불엇주게. 그거 때문에 뿔앙 뭐 해. 그냥 풀헿 고작 다려진 건디, 새로 만든 건디. 겐 그때 혼번 입어나고 또 우리 금덕²⁵⁴⁾에 웨스춘 오라버님 여름에 돌아가션. 그때 혼번 우리 아시영 나영 입어난. 우리 아시도 혼번도 안 입어 보귀렌.(그래도 거 내버렸지. 그거 때문에 뿔아서 뭐 해. 그냥 풀해서 곧게 다려진 건데, 새로 만든 건데. 그래서 그때 한번 입었었고 또 우리 유수암리에 외사촌 오라버님 여름에 돌아가셨어. 그때 한번 우리 아우랑 나랑 입었었어. 우리 아우도 한번도 안 입어 봤다고.)

106001 #2 입을 일이 셔게. 나도 게난 이거, 겨난 이거 몸빼 만들앙 입어 불엄주.(입을 일이 있어. 나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몸빼 만들어서 입어 버리고 있지.)

106001 @ 맞아, 시원하니까.(맞아, 시원하니까.)

106001 #1 난 안동포라.(난 안동포야.)

106001 #2 모시치마 헛단 거. 나도 이거 딱 두 번 입어 받, 이거 몸빼 만들앙 입엄주.(모시치마 했다가 거. 나도 이거 딱 두 번 입어 봤어, 이거 몸빼 만들어서 입고 있지.)

106001 #1 모시는 호상도 못 허는 거난게.(모시는 수의도 못 하는 거니까.)

106001 #2 게메, 경 헤부난.(글썄, 그렇게 해버리니까.)

106001 @ 치마 불편허난?(치마 불편하니까?)

106001 #1 겐 모시 적삼은 놔뒀어. 데껴 불기도 아까우난 무시거 헿 거라.(그래서 모시 적삼은 놔뒀어. 던져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뭐 할 거야.)

106001 @ 노인당 가난 다덜 곱닥허게예?(노인당 가니까 다들 곱게요?)

106001 #1 겐데, 겐디 이제는 그거 풀헿 다릴 간세덜 행 입엄수파게?(그런데, 그런데 이제는 그거 풀해서 다리는 게으름들 해서 입고 있습니까?)

253)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254) '금덕'은 제주시 유수암리의 옛 이름이다.

106001 #2 경험주게.(그리고 있지.)

106001 @ 요즘은예, 마트에 풀 영 뿌리는 것도 잇수다.(요즘은요, 마트에 풀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106001 #1 겐디 이런 모시는 이녁냥으로 행 과짜 다려야 오래 가지. 그거 그때 혼번 입영 다음에는 땀짜해 불어렌. ○○ 그거 사단 이제 다령 허난 혼번 갓다 오난 땀랑해 불어렌.(그런데 이런 모시는 자기대로 해서 곧게 다려야 오래 가지. 그거 그때 한번 입고 다음에는 납작해 버렸다고. ○○ 그거 사다가 이제 다려서 하니까 한번 갓다 오니까 말랑해 버렸다고.)

106001 #2 아, 이녁으로 현 거 닻지 안허여.(아, 자기대로 한 거 같지 않아.)

106001 #1 이녁 풀 맥영 현 거 닻지 안허영.(자기 풀 먹여서 한 거 같지 않아.)

106001 @ 요즘 아이덜 그런 거 압니까?(요즘 아이들 그런 거 압니까?)

106001 #1 임시는게 경도 해도 돼. 이젠 자꾸 뿔앙 다령 허는 때난이. 자꾸 다리민 돼지. 뿌리멍. 자꾸 다리민 돼여.(임시는 그렇게도 해도 돼. 이젠 자꾸 빨아서 다려서 하는 때니까. 자꾸 다리면 돼지. 뿌리면서. 자꾸 다리면 돼.)

명주

106002 @ 이제는예, 멍주.(이제는요, 명주.)

106002 #2 으.(으.)

106002 @ 멍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명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2 #1 것도 몰라, 우리.(것도 몰라, 우리.)

106002 #2 것도 몰라.(것도 몰라.)

106003 @ 멍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명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3 #1 멍주 만드는 디, 고단에 가야지.(명주 만드는 데, 고장에 가야지.)

106004 @ 멍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명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4 #2 멍주론 뉘 주로 호상.(명주로는 뉘 주로 수의.)

106004 #1 죽을 때 입는 거, 호상.(죽을 때 입는 거, 수의.)

106004 @ 아, 죽을 때 호상.(아, 죽을 때 수의.)

106004 #1 호상 허는 거.(수의 하는 거.)

106006 @ 누에치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예?(누에치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요?)

106006 #1 몰라.(몰라.)

106006 @ 양잠단지²⁵⁵나 이런 데 가야?(양잠단지나 이런 데 가야?)

106006 #2 멍주 만드는 과정은 누에, 누에 키와근에.(명주 만드는 과정은 누에, 누에 키워서.)

255) '양잠단지'는 제주시 고성2리에 1960년대 후반에 조성된 마을이다.

106006 #1 양잠단지 무사 멥주 만들어?(양잠단지 왜 멥주 만들어?)

106006 @ 옛날에 양잠을 키웠던 허난 양잠단지엔 허지 안헛수파?(옛날에 양잠을 키웠다고 하니까 양잠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6006 #1 아니야.(아니야.)

106006 #2 아니야.(아니야.)

106006 #1 아니야.(아니야.)

106006 @ 게도 이거 어디 누에 치는 디가 어디 엇인가?(그래도 이거 어디 누에 치는 데가 어디 없는가?)

106006 #1 저레 어디 육지에 가야 돼. 제주도엔 없어. 멥주 만드는 디.(저리 어디 육지에 가야 돼. 제주도엔 없어. 멥주 만드는 데.)

106006 #2 제주도는 없을걸. 제주도엔 어디.(제주도는 없을걸. 제주도엔 어디.)

106006 #1 옛날 옛날에 토멥주²⁵⁶, 토멥주 어디 대정²⁵⁷에 만드는 디 쫘 잇어났주만, 옛날에는 토멥지 말 낫어. 토멥지 토멥지 허민 제주에서 멘드니까 토멥지라. 쫘 굵고이 좋아. 겐디 지금 토멥지 나는 디 없어. 다 육지서만 만들야.(옛날 옛날에 ‘토멥주’, ‘토멥주’ 어디 대정에 만드는 데 쫘 있었지만, 옛날에는 ‘토멥지’ 말 낫어. ‘토멥지’ ‘토멥지’ 하면 제주에서 만드니까 ‘토멥지’야. 쫘 굵고 좋아. 그런데 지금 ‘토멥지’ 나는 데 없어. 다 육지에서만 만들어.)

106006 @ 옛날은 토멥지 어디서 헛다고마씨?(옛날은 ‘토멥지’ 어디서 헛다고요?)

106006 #1 대정 쪽이라. 모관²⁵⁸은 아니야. 여긴 모관이엔 허여이. 옛날 이름이. 제주 이 산으로 아랜 모관 산으로 남쪽은 정의²⁵⁹. 이 이 흐뭇 이 서쪽은 대정.(대정 쪽이야. ‘모관’ 아니야. 여긴 ‘모관’이라고 해. 옛날 이름이. 제주 이 산으로 아래는 ‘모관’ 산으로 남쪽은 ‘정의’. 이 이 조금 이 서쪽은 ‘대정’.)

106006 #2 정의 대정.(‘정의’ ‘대정’.)

106006 #1 게난 이제 토멥지 나는 데가 엇어. 옛날엔 막 토멥지 세여근에.(그러니까 이제 ‘토멥지’ 나는 데가 없어. 옛날에는 아주 ‘토멥지’ 쫘아서.)

106006 #2 세주게.(쫘지.)

106006 #1 토멥지 토멥지 헤영 서쪽이라, 동쪽은 없어.(‘토멥지’ ‘토멥지’ 해서 서쪽이야, 동쪽은 없어.)

106006 #2 토멥진 올발이 굵주게.(‘토멥지’는 올발이 굵지.)

무명

106007 @ 이제는 미녕으로 감수다, 미녕. 무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이제는 무명으로 갑니다, 무명. 무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56) ‘토멥주’는 예전 제주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짠, 실이 굵은 명주를 말한다.

257) ‘대정’은 제주시 대정읍 지역을 말한다.

258) ‘모관’은 제주의 옛 행정구역명의 하나로 제주시 지역을 말한다.

259) ‘정의’는 ‘정의현’으로,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옛 행정구역 이름이다.

106012 #2 목화 농사는.(목화 농사는.)

106012 #1 목화는 여기서도 해.(목화는 여기서도 해.)

106007 @ 미녕의 종류?(무명의 종류?)

106007 #1 으, 미녕의 종류는 목화로 만드는 건디.(으, 무명의 종류는 목화로 만드는 건테.)

106007 @ 무슨 닻새무명, 옛새무명 이런 거 안 들어봤수파?(무슨 ‘닻새무명’, 옛새무명 이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106007 #1 해, 해.(해, 해.)

106007 #2 으.(으.)

106007 #1 닻새는 너무 굵고, 옷새, 일곱새, 으덥새까지 가민 야네 어머니 잘해. 그 줌진 걸. 우리 어머니 그자 대충 옷새미녕을 잘해. 옷새미녕 행 갈옷 행 입는 거. 곶아 자꾸, 야네 어머니가 선돌²⁶⁰⁾이난이 저 선돌 아주망은 아이고, 일곱새 으덥새미녕 헌텐.(닻새는 너무 굵고, 옛새, 일곱새, 여덥새까지 가면 애네 어머니는 잘해. 그 가는 걸. 우리 어머니는 그저 대충 옛새무명을 잘해. 옛새무명 해서 갈옷 해서 입는 거. 말해 자꾸, 애네 어머니가 ‘선돌’이니까 저 ‘선돌’ 아주머니는 아이고, 일곱새 여덥새무명 한다고.)

106007 #2 으.(으.)

106007 #1 막 소문난 어멍이야. 으덥새가 쥔 줌진 거여. 일곱새는 흐뭇 허긴 허여, 우리 어머니도 흐뭇씩 허여. 저 소게웃이나 허켄 허영. 주로 옷새 해, 옷새. 겐 자꾸 야네 어머니만 이 노형에서이 으덥새 허는 어멍이야.(아주 소문난 어머니야. 여덥새가 제일 가는 거야. 일곱새는 조금 하긴 해, 우리 어머니도 조금씩 해. 저 솜웃이나 하겠다고 해서. 주로 옛새 해, 옛새. 그래서 자꾸 애네 어머니만 이 노형에서 여덥새 하는 어머니야.)

106007 @ 하하하.(하하하.)

106007 #1 어른덜이 곶아게. 저 선돌 아지망이나 으덥새미녕 허주. 판 사름사 대충대충 훌게. 막 줌질게 헤사 으덥새가 나와. 게민 그걸로 소게 바지저고리 해. 솜 놓양.(어른들이 말해. 저 ‘선돌’ 아주머니나 여덥새무명 하지. 판 사람이야 대충대충 굵게. 아주 가늘게 해야 여덥새가 나와. 그럼 그걸로 솜 바지저고리 해. 솜 넣어서.)

106008 @ 소게 바지저고리?(솜 바지저고리?)

106008 #1 으, 으덥새 행.(으, 여덥새 해서.)

106008 #2 옛날 한복덜게.(옛날 한복들.)

106008 #1 남자 어른 한복덜게.(남자 어른 한복들.)

106008 #2 옛날 어른덜은 주로 한복 입영 사난게.(옛날 어른들은 주로 한복 입고 사니까.)

106008 #1 남자 어른 솜 바지저고리. 솜 놓양. 그 으덥새미녕을 해야 돼. 우리 어머니는 거 헌 거 혼번도 못 받. 일곱새미녕 혼번 헌 거 봤어. 것도 솜웃덜 허젠. 겐

260) ‘선돌’은 한림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굴명 선돌 아지망이나 으덥새미녕, 하하하.(남자 어른 숨 바지저고리. 숨 넣어서. 그 여덥새무명을 해야 돼. 우리 어머님은 거 한 거 한번도 못 봤어. 일곱새무명 한번 한 거 봤어. 것도 숨옷들 하려고. 그래서 말하면서 ‘선돌’ 아주머니나 여덥새무명, 하하하.)

106009 @ 토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토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106010 #2 광목으로도 이 남자 옷.(광목으로도 이 남자 옷.)

106010 #1 이불 호창도 허곡게. 광목사.(이불 호창도 하고. 광목이야.)

106010 #2 두루막도 행 입곡 바지저고리도 허곡.(두루마기도 해서 입고 바지저고리도 하고.)

106010 #1 그 광목으로 검정 물 들영.(그 광목으로 검정 물 들여서.)

106010 #2 검정 물 들영도 행 입곡 하얗게 발령도 허곡.(검정 물 들여서도 해서 입고 하얗게 바래서도 하고.)

106010 #1 하얗헌 옷 입은 사람은 줌 드물고이 검정 물 들여근에.(하얀 옷 입은 사람은 줌 드물고 검정 물 들여서.)

106010 #2 하얗게 중의적삼으로 바지, 중의적삼으로덜 행 입고. 하얀 두루막으로덜 행.(하얗게 고의적삼으로 바지, 고의적삼으로들 해서 입고. 하얀 두루마기로들 해서.)

106010 #1 아이고, 우리 시어머님 우리 ○○ 거영, 우리 ○○ 거영 광목으로이 다 뒷바농질허여근에, 박음치기행 중의 행 놔뒀더라, 중의. 아래 중의. 죽으면 입을 걸로.(아이고, 우리 시어머님 우리 ○○ 거랑, 우리 ○○ 거랑 광목으로 다 박음질 해서, 박음질해서 중의 해서 놔뒀더라, 중의. 아래 중의. 죽으면 입을 거로.)

106010 @ 뗏 설 때마씨?(뗏 살 때요?)

106010 #1 아니, 어젠 보난이 딱 포따리에 그거 쌍 잇언게. 그지께, 칠석날.(아니, 어젠 보니까 딱 보따리에 그거 싸서 있더라. 그지께, 칠석날.)

106010 @ 시어머니 이제 살아계셔마씨?(시어머니 이제 살아계셔요?)

106010 #1 돌아가신디 난 몰라신디이.(돌아갔는데 난 몰랐는데.)

106010 #2 당신 죽영 입을 걸 행 놔뒀신게.(당신 죽어서 입을 걸 해서 놔뒀어.)

106010 @ 어. 복옷으로.(어. 상복으로.)

106010 #2 계난 돌아간 때 훗아보지도 아년?(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훗아보지도 않았어?)

106010 #1 돌아간 때는 우리 아방 헌 때 다 입어난 거 잇잖아게. 계난 그거 다 입영 헌디 깃광목으로게 포따리에, 그지께 칠석날 절에 갓단 왕 풀영 보난 우리 ○ ○ 입을 건 고무줄 낱 헛고 우리 고무줄 낱 사단 입어난 거 보난 우리 어무니.(돌아갔을 때는 우리 아버지 했을 때 다 입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입어서 했는데 깃광목으로 보따리에, 그지께 칠석날 절에 갔다가 와서 풀어서 보니까 우리 ○ ○ 입을 건 고무줄 놔서 헛고 우리 고무줄 놔서 사다가 입었던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106010 #2 아니 계난 이제도록 풀언 보질 안 헛단 말이냐?(아니 그러니까 이제도록 풀어서 보지를 안 헛단 말이냐?)

106010 @ 게메.(글썸.)

106010 #1 아니, 일 년에 혼 번씩은 본디 그 아래, 건 아래 쌍 밑에 낫드라고, 아래. 그지께 칠석날사 받게. 계난 그건 쓸모가 없어.(아니, 일 년에 한 번씩은 봤는데 그 아래, 건 아래 싸서 밑에 낫더라고, 아래. 그저께 칠석날이야 봤어. 그러니까 그건 쓸모가 없어.)

106010 #2 쓸모가 엇지. 그런 때나벧기.(쓸모가 없지. 그런 때나밖에.)

106010 #1 그런 때나벧기 현디 아방 헐 때 입어난 거 다 놔뒀세게.(그런 때나밖에 했는데 아버지 할 때 입었던 거 다 놔뒀어.)

106010 #2 게메.(그래.)

106010 #1 경허난 그거 입으민 큰아덜은 가 불고 죽은아덜 시난 입을 건디 던져 불기도 경허고 흘 거 엇다이, 중의.(그러니까 그거 입으면 큰아들은 가 버리고 작은 아들 있으니까 입을 건데 던져 버리기도 그렇고 할 거 없다, 중의.)

106010 #2 계난게 중의 느 죽건 입으렌게. 사위나 그때랑 입지라게.(그러니까 중의 너 죽건 입으라고. 사위나 그때랑 입혀라.)

106010 #1 나가 죽어불민 누게 입져?(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입혀?)

106010 @ 하하하.(하하하.)

106010 #2 속에, 도포 속에.(속에, 도포 속에.)

106010 #1 이녁네 중의 입은 냥 혼번 입으민 슬거난 슬아 불민, 슬아 불거난. 난 죽으민 슬 걸로 헨 놔뒀네.(자기네 중의 입은 대로 한번 입으면 사르거나 살라 버리면, 살아 버리거나. 난 죽으면 사를 거로 해서 놔뒀어.)

106010 @ 아니, 슬앗던 묻엇던 간에 복웃은 입어야 될 거 아니라게. 계난에게 아이덜ㄴ라 곶앙 놔뒀. 이거 영 영 행 할머니 행 놔둔디 영 영 헐 때 입어야 될 건디 몰랑 안 입으난.(아니, 사르든 묻엇든 간에 상복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해서 놔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해서 놔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입어야 될 건데 몰라서 안 입으니까.)

106010 @ 지들이 알앙.(자기들이 알아서.)

106010 #2 나 죽거든.(나 죽거든.)

106010 @ 슬든 뭐 허든.(사르든 뭐 하든.)

106010 #2 으, 으.(으, 으.)

106010 #1 우리 ○○이 스나인 그 무시거 종교.(우리 ○○이 사나인 그 뭐 종교.)

106010 #2 종교 믿언.(종교 믿었어.)

106010 #1 종교 믿으난 안 입어. 그때도 계난 안 입언게. ○○이 스나이냐 거 입으까.(종교 믿으니까 안 입어. 그때도 그러니까 안 입더라. ○○이 사나이냐 거 입을까.)

106010 #2 입을 거여게, 주민게.(입을 거야, 주면.)

106010 @ 요즘은 다 그런 디서, 장례식장에서 무슨 검은 옷이여, 무시거여 다 세트 입영 해 붙디다예?(요즘은 다 그런 데서, 장례식장에서 무슨 검은 옷이다, 뭐 다 다 세트로 입어서 해 버립디다.)

106010 #2 으게.(어.)

106010 @ 그 상조회라고 보험 님은 거 들영 놔두민 거기서.(그 상조회라고 보험 같은 거 들어서 놔두면 거기서.)

106010 #1 다 나온텐. 우리도 우리 경호 두 개, 그 직장서 들렌 허난 두 개 들ㄴ렌.(다 나온다고. 우리도 우리 경호 두 개, 그 직장에서 들라고 하니까 두 개 들었다고.)

106010 #2 우리 큰아덜은 세 개 들엇단이, 하나는 가시아바님 직시로, 하난 나 직시로, 하난 지 직시로 세 개 들엇단 하난 설리 불고 하나 사돈님 돌아가난 쓰고, 하나 나 직시.(우리 큰아들은 세 개 들엇다가, 하나는 가시아버님 뭍으로, 하난 나 뭍으로, 하난 자기 뭍으로 세 개 들엇다가 하나는 그만뒀 버리고 하나 사돈님 돌아가니까 쓰고, 하나 나 뭍.)

106010 #1 돌아간?(돌아갔어?)

106010 #2 으게. 우리 큰메누리 친정아부지 돌아갓주게.(으. 우리 큰며느리 친정 아버지 돌아갔지.)

106010 #1 돌아간?(돌아갔어?)

106010 #2 으, 혼 삼 년 땡저.(으, 한 삼 년 땡어.)

106010 @ 게난 딱 애기행 낫당 거기서 상조회 해도.(그러니까 딱 애기해서 났다가 거기서 상조회 해도.)

106010 #1 아, 겐 어멍만 살안?(아, 그래서 어머니만 살았어?)

106010 #2 어머니도 돌아가고.(어머니도 돌아가고.)

106010 #1 메.(예.)

106010 #2 우리 사돈은 다 돌아간 엇어.(우리 사돈은 다 돌아가서 없어.)

106010 #1 게난 죽은메누리 어멍 아방 다 죽언?(그러니까 작은며느리 어머니 아버지 다 죽었어?)

106010 #2 죽은메누리만 잇주.(작은며느리만 있지.)

106011 @ 게문예, 홍세미녕은 뭐 더 좋은 거파?(그럼요, ‘홍세미녕’은 뭐 더 좋은 겁니까?)

106011 #2 으?(으?)

106011 @ 홍세미녕이렌 현 거 엇수과?(‘홍세미녕’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까?)

106011 #1 이제는 홍세미녕이.(이제는 ‘홍세미녕’이.)

106011 #2 홍세미녕은 참 아까 야이 말.(‘홍세미녕’은 참 아까 애 말.)

106011 #1 옛날에는.(옛날에는.)

106011 #2 으덥새 미녕.(여덥새 무명.)

106011 #1 허는디 이제는이 그이 아기 지성귀 허는 거. 그거 두 필 딱 낳 해 불어. 이젠 미녕으로 안 허고이.(하는데 이제는 그 아기 기저귀 하는 거. 그거 두 필 딱 놔서 해 버려. 이젠 무명으로 안 하고.)

106011 #2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게 안 나올 때니까 미녕을 썼주게. 미녕을 쓰는다.(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게 안 나올 때니까 무명을 썼지. 무명을 쓰는데.)

106011 #1 그거 허민 아기 샷바도 허고.(그거 하면 아기 기저귀도 하고.)

106011 #2 아까 야이 말따라라도 굶은 걸로 안 허영 줌진 걸로 허여근에 그 으답새 미녕 두 개로, 두 필을 놔놔어이.(아까 애 말따나 굶은 거로 안 하고 가는 거로 해서 그 여덟새 무명 두 개로, 두 필을 놔놔어.)

106011 @ 두 필.(두 필.)

106011 #2 함에.(함에.)

106011 #1 그건이 으답새 미녕 허는 건 야네나 허지 영 아무나 못 해.(그건 여덟새 무명 하는 건 애네나 하지 이렇게 아무나 못 해.)

106011 @ 두 필 행 어디에 썼다고마씨, 아기?(두 필 해서 어디에 썼다고요, 아기?)

106011 #1 함에 낳 놔두민 아기 지성귀 그걸론 못 허고 옷 행 입어, 옛날엔.(함에 놔서 놔두면 아기 기저귀 그거로는 못 하고 옷 해서 입어, 옛날엔.)

106011 #2 그건 그건 미녕은 놓면은 옛날 옷 행 입고.(그건 그건 무명은 넣으면 옛날 옷 해서 입고.)

106011 #1 옛날식으로 옷 행 입어놔주게.(옛날식으로 옷 해서 입었었지.)

106011 #2 옷 행 입고. 중간에 그 얇은 그것덜 나오니까 그걸, 그걸 놔놔주.(옷 해서 입고. 중간에 그 얇은 그것들 나오니까 그걸, 그걸 놔놔지.)

106011 #1 나는 보난 두건도 오십 개 삼아정 잇더라, 두건. 오십 개 있어. 딱 세어 보난 오십 개더라.(나는 보니까 두건도 오십 개 삼아져서 있더라, 두건. 오십 개 있어. 딱 세어 보니까 오십 개더라.)

106011 #2 야, 저 ○○이 이십 개 줘안도 놔뒀어라.(야, 저 ○○이 이십 개 접어서 놔뒀더라.)

106011 #1 이녀 손으로 줘안? 미녕 허연, 베 허연?(자기 손으로 접었어? 무명 했어, 베 했어?)

106011 #2 으.(으.)

106011 #1 게난 그거 두롱폰 헤신가?(그러니까 그거 ‘두롱포’는 했는가?)

106011 #2 으?(으?)

106011 #1 두롱포.(‘두롱포’.)

106011 #2 다 해 놔뒀더라.(다 해 놔뒀더라.)

106011 #1 게난 그 할망 이제 죽어붙어신디 ** 허는 할망 열 개씩 딱딱 무경 줘야 논 거 딱 오십 개더라. 어젠, 그지겐 보난.(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죽어버렸는데

** 하는 할머니 열 개씩 딱딱 묶어서 접어 놓은 거 딱 오십 개더라. 어제는, 그저께는 보니까.)

106011 #2 이젠 상조회 들민이 다. 두건 멧 개 허민 착.(이젠 상조회 들면 다. 두건 멧 개 하면 착.)

106011 #1 몸빼 스물다섯 개허고.(몸빼 스물다섯 개하고.)

106011 #2 으?(으?)

106011 #1 몸빼 스물다섯 개 산 놔뒀어.(몸빼 스물다섯 개 사서 놔뒀어.)

106011 #2 아이고.(아이고.)

106011 @ 몸빼는 광목으로예?(몸빼는 광목으로요?)

106011 #1 으.(으.)

106011 #2 게난 그건 ㄴ만이 낫당 느 죽으면 입어사큰게.(그러니까 그건 가만히 왔다가 너 죽으면 입어야겠네.)

106011 #1 으. 겐 나도 잘 몰랐단 세여 뵈. 스물다섯 개더라게.(으. 그래서 나도 잘 몰랐다가 세어 뵈어. 스물다섯 개더라.)

106011 @ 걸 잘 굴양 놔둬서게, 메누리안테.(걸 잘 말해서 놔두세요, 며느리한테.)

106011 #1 굴아야크라. 언제 오민, 오민 그냥 제제제제 웃당 먹영덜 가불고 하하.(말해야겠어. 언제 오면, 오면 그냥 제제제제 웃다가 먹고들 가버리고 하하.)

106011 #2 경허메게, 아무 집이도.(그래, 아무 집도.)

106011 #1 거 내놔 뽕 이거. 아이, 두건도 난 오십 개 자락 안 허카 부텐, 딱 오십 개 딱딱 무꺼전이. 난 서른 개 사진 거 닳은디 남은 거 또 강, 오십 개 허크메 놔뒀양 헌 게 또 강 가져와진 생이라. 그 어른 돌아가 불언. 군녕이²⁶¹⁾ 할망이엔 허연은에 나 단골 허연 그디 강 소상 할 거 아방 거영 다 사낫주게, 옛날에.(거 내 놓고 봐서 이거. 아니, 두건도 난 오십 개 자락 안 할까 봐, 딱 오십 개 딱딱 묶었어. 난 서른 개 산 거 같은데 남은 거 또 가서, 오십 개 하겠으니 놔뒀요 한 게 또 가서 가져온 모양이야. 그 어른 돌아가 버렸어. ‘군녕이’ 할머니라고 해서 나 단골 해서 거기 가서 소상 할 거 아버지 거랑 다 샀었지, 옛날에.)

106011 @ 군녕이가 어디파?('군녕이'가 어디니까?)

106011 #1 군녕이가이 하귀 못 간에. 하귀 서쪽.('군녕이'가 하귀 못 가서. 하귀 서쪽.)

모시

106013 @ 이번엔 모시우다예. 모시실을 만드는 과정?(이번에는 모시입니다. 모시실을 만드는 과정?)

106013 #2 모시실은 그.(모시실은 그.)

106013 #1 여기서 우리 알아지나?(여기서 우리 알 수 있니?)

261) '군녕이'는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6013 #2 우리, 우리.(우리, 우리.)

106013 @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3 #1 모시옷은이 거 막 제일 좋은 거난이 하이칼라덜만 입어. 수수한 사람은 입지도 못해.(모시옷은 거 아주 제일 좋은 거니까 하이칼라들만 입어. 수수한 사람은 입지도 못해.)

106013 #2 모신 그 모시옷 만드는 그 뭐 나무가 있어. 나무가.(모시는 그 모시옷 만드는 그 뭐 나무가 있어. 나무가.)

106013 @ 예.(예.)

106013 #2 이만큼 지퍼. 지금 티비에 가끔 나오는다.(이만큼 깊어. 지금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데.)

106013 #1 육지 가는 디 잇영어.(육지 가는 데 있어서.)

106013 #2 어.(어.)

106013 #1 거죽 벗겨근에.(가죽 벗겨서.)

106013 #2 지방이, 지방이 그런 지방이.(지방이, 지방이 그런 지방이.)

106013 @ 한산 모시?(한산 모시?)

106013 #2 응.(응.)

106013 #1 일로 막 다리에 넣.(일로 마구 다리에 놔서.)

106013 #2 계민 그거 막 비어, 비어다가 이파리 짹 밀어 데껴 두고 이젠.(그럼 그거 마구 베어, 베어다가 이파리 짹 밀어 던져 두고 이젠.)

106013 #1 거죽 벗겨.(껍질 벗겨.)

106013 #2 솥에 넣은에 큰 가마솥에 넣은에 삶아.(솥에 놔서 큰 가마솥에 놔서 삶아.)

106013 #1 거죽 벗겨야 삶주게.(껍질 벗겨야 삶지.)

106013 #2 삶아 넣 벗겨. 예구, 흠.(삶아 놔서 벗겨. 예구, 참.)

106013 #1 그 나무차?(그 나무째?)

106013 #2 그럼.(그럼.)

106013 #1 아, 나 그건 안 보난.(아, 나 그건 안 보니까.)

106013 @ 거 찢지는 게 실이라.(거 찢는 게 실이야.)

106013 #2 어. 계근에 영 벗기민 삶아 놓면은 벗기기가 쉽더라고. 짹 짹 벗겨져. 계민 그.(어. 그래서 이렇게 벗기면 삶아 놓으면 벗기기가 쉽더라고. 짹 짹 벗겨져. 그럼 그.)

106013 #1 아, 모시 그 대차 삶나?(아, 모시 그 대째 삶나?)

106013 #2 응, 대차 뜨신 물에 둥가.(응, 대째 따뜻한 물에 담가.)

106013 #1 아.(아.)

106013 #2 경헨 벗겨 놔근에게 뜨시 그 물에 강 둥가. 그 내리는 물에 강. 내리는 물에 강 담가근에 막 돌맹이 누리땡 놔뒀근에게 헛다근에 식고 무시거 허민.(그래서 벗겨 놔서 또 그 물에 가서 담가. 그 내리는 물에 가서. 내리는 물에 가서 담

가서 마구 돌맹이 눌러서 놔둬서 했다가 식고 뭐 하면.)

106013 #1 경허민 허영허여?(그러면 하애?)

106013 #2 그 껌데기를.(그 껌데기를.)

106013 @ 해 보진 안했잖아예?(해 보진 않았잖아요?)

106013 #1 텔레비로 본 거지.(텔레비전으로 본 거지.)

106013 #2 티비에 보니까 그렇게 험더라고.(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106013 #1 본 말이지.(본 말이지.)

삼

106016 @ 삼도 마찬가지로지예? 삼실?(삼도 마찬가지로지요? 삼실?)

106016 #2 으.(으.)

106016 @ 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6 #1 삼은 베 흐는 거이.(삼은 베 하는 거.)

106016 #2 삼은 베 만드는 거.(삼은 베 만드는 거.)

106016 #1 것도 몰라. 우리 안 해 봤.(것도 몰라. 우리 안 해 봤어.)

106017 @ 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7 #1 안동²⁶²에서만 잘해게. 안동포 안동포 허명이.(안동에서만 잘해. 안동포 안동포 하면서.)

106017 @ 안동포가 베?(안동포가 베?)

106017 #2 안동포가 베 나오는데 베가 경 좋은 모양이라.(안동포가 베 나오는데 베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야.)

106017 #1 제일 좋은 베. 안동포.(제일 좋은 베. 안동포.)

106017 #2 경헨 그 안동폴 세어.(그래서 그 안동포를 꼽아.)

106017 #1 모시보다 더 비싸. 안동포가.(모시보다 더 비싸. 안동포가.)

106017 @ 이 베론 어떤 옷을 만들고?(이 베로는 어떤 옷을 만들고?)

106017 #1 모신 호상도 못 허고 안동포는 호상도 꿰곡.(모시는 수의도 못 하고 안동포는 수의도 되고.)

106017 @ 이거 무사 호상 못 해마씨?(이거 왜 수의 못 해요?)

106017 #1 모시는 호상도 못 허여. 모시옷 들어감만 해도 머리 흰 아기 나온덴 허여, 손주가.(모시는 수의도 못 해. 모시옷 들어가기만 해도 머리 흰 아기 나온다고 해, 손주가.)

106017 @ 하하하.(하하하.)

106017 #1 머리 흰 즈손 난텐.(머리 흰 자손 난다고.)

106017 #2 이 모신 호상, 죽영 못 허는 모양이라.(이 모시는 수의, 죽어서 못 하는 모양이야.)

262) '안동'은 경상북도 안동 지역을 말한다.

106017 #1 모신 안 해영 무신 것바디만 뭇 들어가도 떼어 붙어야 뢰텐.(모시는 안 하고 무슨 등바대만 뭇 들어가도 떼어 버려야 된다고.)

106017 #2 으.(으.)

106017 #1 이제는 머리 막 그냥 희잖아.(이제는 머리 아주 희잖아.)

106017 @ 이유는 단지 그거 하난가?(이유는 단지 그거 하나인가?)

106017 #1 경해연에 모시 못 쓰게 해여. 옛날부터 모시는.(그래서 모시 못 쓰게 해. 옛날부터 모시는.)

106017 #2 옛날부터 모신 죽음에 못 써.(옛날부터 모시는 죽음에 못 써.)

106017 #1 호상으로 못 써.(호상으로 못 써.)

106017 @ 호상에 못 쓰고 어떤 거 해 그럼?(호상에 못 쓰고 어떤 거 해 그럼?)

106017 #1 살아 이실 때만.(살아 있을 때만.)

106017 #2 살아 이실 때만 여름에 시원히 두루막.(살아 있을 때만 여름에 시원히 두루마기.)

106017 #1 경헌디 모시옷은 흥끔 돈 있는 사람 행 입영 다녀. 없는 사람은 못 허여.(그런데 모시옷은 조금 돈 있는 사람 해서 입고 다녀. 없는 사람은 못 해.)

106017 #2 이 바지도 만들고 우에 것도 만들곡.(이 바지도 만들고 위의 것도 만들고.)

106017 #1 중의적삼 허영 입영.(고의적삼 해서 입고.)

106017 @ 베보다 비싸구나, 모시가?(베보다 비싸구나, 모시가?)

106017 #2 어, 어. 막 비싸. 우에 두루막거추룩 창옷 이 안, 안 부청. 안 아이 부청 건 홀로. 겐 그것ㄴ라 창옷이엔 허주게. 계근에 행 입곡 경 다니주게. 겐 모시는 좀 뭇 현 사름 행 입영 다니지 못해. 비싸기도 허곡 이 저.(어, 어. 아주 비싸. 위에 두루마기같이 창옷 이 안, 안 붙여. 안 아니 붙여서 건 홀로. 그래서 그것보고 창옷 이라고 하지. 그래서 해서 입고 그렇게 다니지. 그래서 모시는 좀 뭇 한 사람 해서 입고 다니지 못해. 비싸기도 하고 이 저.)

106017 #1 이 뒤처리허는 것이이.(이 뒤처리하는 것이.)

106017 #2 관리허기가.(관리하기가.)

106017 #1 거 풀허영 다릴 때도 잘도 조심스럽게 잘 다려야 뢰. 그거 잘못 다리면 이 아래가 영해. 이것이 과짱해영 돌아가야 곱잖아. 이 알 단이. 잘못 다리면. (거 풀해서 다릴 때 아주 조심스럽게 잘 다려야 뢰. 그거 잘못 다리면 이 아래가 이렇게. 이것이 곱게 돌아가야 곱잖아. 이 아래 단이. 잘못 다리면.)

106017 #2 이 손 잘 못 보면은 이 올 바위 다 뭉쳐져 붙어. 이 모시는 막 까다로와. 모시옷 관리하기가 힘들어.(이 손 잘 못 보면 이 올 가장자리가 다 뭉쳐져 버려. 이 모시는 아주 까다로워. 모시옷 관리하기가 힘들어.)

106017 @ 아이고.(아이고.)

106017 #1 우린 우리 어머니허고 우리 큰어머니만 그거 해낫주.(우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큰어머니만 그거 했었지.)

106017 #2 미녕 광목이 질 손 보기 쉽고.(무명 광목이 제일 손 보기 쉽고.)

106017 #1 우리 큰어머니도 그런 건 잘허여. 우리 큰아버지가 향교 다니난. 우리 아버지하고. 향교에 갈 땐 똑 우이 창옷 입영 다니난. 아이고, 모르켜.(우리 큰어머니도 그런 건 잘해. 우리 큰아버지가 향교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향교에 갈 때는 꼭 위에 창옷 입고 다니니까. 아이고, 모르겠어.)

106017 @ 베로는 죽영 갈 때 많이 입었다는 거다예.(베로는 죽어서 갈 때 많이 입었다는 거네요.)

106017 #2 예, 예.(예, 예.)

106017 @ 게고 살아 있을 때는 어떤 옷을 만들어마씨, 베로?(그리고 살아 있을 때는 어떤 옷을 만들어요, 베로?)

106017 #2 살아 있을 때도 이 바지 그 안 안 부청, 안 부쳐근에 그냥 여름에.(살아 있을 때도 이 바지 그 안 안 붙여서, 안 붙여서 그냥 여름에.)

106017 @ 여름에.(여름에.)

106017 #2 으, 여름옷으로.(으, 여름옷으로.)

106017 #1 것ㄴ라 중의적삼이엔 허여.(것보고 고의적삼이라고 해.)

106017 #2 중의적삼이엔 해근에 홀로 안 엇이.(고의적삼이라고 해서 홀로 안 없어.)

106017 @ 안 엇이.(안 없어.)

106017 #1 베 중의적삼 입으면 시원허주게.(베 고의적삼 입으면 시원하지.)

106017 #2 그런 거 여름엔 여름옷으로.(그런 거 여름엔 여름옷으로.)

106017 @ 시원허고 싸난.(시원하고 싸니까.)

106017 #1 으, 싸난. 시원허고.(으, 싸니까. 시원하고.)

106017 #2 여름옷 기지²⁶³주, 게난.(여름옷 옷감이지, 그러니까.)

106017 #1 더 질기곡 싸곡.(더 질기고 싸고.)

106017 @ 요즘 사람은 모시보다는.(요즘 사람은 모시보다는.)

106017 #1 베.(베.)

106017 @ 베를 많이.(베를 많이.)

106017 #2 으, 베를 많이 입주게. 모신 가끔 잇는 집안에 나들이 옷으로나벳긴 못 입어.(으, 베를 많이 입지. 모신 가끔 잇는 집안에 나들이 옷으로나밖에는 못 입어.)

106017 #1 즘질고 회고 험 거난이 그냥 막 못 입주게, 곱게. 나들이복으로.(가늘고 회고 한 거니까 그냥 막 못 입지, 곱게. 나들이복으로.)

106017 @ 어명덜 입은 사름 이십니까, 경 곱닥허게 입영 어디?(어머니들 입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곱게 입고 어디?)

106017 #2 아고, 잇주게.(아이고, 있지.)

106017 #1 아, 지금도 노인당에 적삼으로 안 행 영 반소매로 입읍니다.(아, 지금

263) '기지'는 일본어 '끼'로 '옷감, 천'을 말한다.

도 노인당에 적삼으로 안 하고 이렇게 반소매로 입습니다.)

106017 #2 나도 오늘 입영 오젠 허당 안 입영 와신디.(나도 오늘 입고 오려고 하다가 안 입고 왔는데.)

106017 @ 지금은예.(지금은요.)

106017 #1 나도 세 개, 네 개 셔도이, 입으민 흠어질 생각해연 ㄴ만이 걸영만 셔.(나도 세 개, 네 개 있어도, 입으면 헐게 될 생각해서 가만이 걸어서만 있어.)

106017 #2 아이, 게도 여름에 그거 입으민 판 거 못 입어, 더웁. 모시옷 입어나민 판 거 못 입어.(아니, 그래도 여름에 그거 입으면 판 거 못 입어, 더워서. 모시옷 입고 나면 판 거 못 입어.)

106017 #1 이거 이추룩 행 입영, 이거.(이거 이처럼 해서 입고, 이거.)

106017 @ 속에.(속에.)

106017 #1 이거 나냥으로 만들안. 치마 하나 허연에 적삼 하나 만드난 이거벧기 안 나오더라.(이거 나대로 만들었어. 치마 하나 해서 적삼 하나 만드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

106017 #2 그렇지.(그렇지.)

도구

106020 @ 물레가 뭐파?(물레가 뭘니까?)

106020 #1 물레는 물레는이.(물레는 물레는.)

106020 #2 썰 빠는 거.(실 뽑는 거.)

106020 #1 영, 영 그 멘네 허당 맥영 영 두르민.(이렇게, 이렇게 그 면화 하다가 먹어서 이렇게 두르면.)

106020 #2 물레도 두 가지주게. 목화씨 걸러 내는.(물레도 두 가지지. 목화씨 걸러 내는.)

106020 #1 빠는 거.(빼는 거.)

106020 #2 골라내는 물레가 잇고. 썰 뽑아내는 물레가 잇고 두 가지야.(골라내는 물레가 있고. 실 뽑아내는 물레가 있고 두 가지야.)

106019 @ 씨아가 씨 뽑아내는 게 씨아 닢다.(씨가가 씨 뽑아내는 게 씨아 같다.)

106019 #2 으.(으.)

106020 #1 그거는 간단헌 거고. 썰 뽑는 것은 좀 복잡해. 가래기 허여근에 썰꼬리도 답아야.(그거는 간단한 거고. 실 뽑는 것은 좀 복잡해. 가락 해서 실톳도 답아야.)

106020 #2 썰 뽑는 거는 췌 길게 해근에게.(실 뽑는 거는 쇠 길게 해서.)

106020 #1 느가, 느 썰 뽑아 봤?(네가, 너 실 뽑아 봤어?)

106020 #2 으.(으.)

106020 #1 야, ○○인 잘허더라이.(야, ○○이는 잘하더라.)

106020 #2 ○○이.(○○이.)

106020 #1 거 할머니 허난 거 봤단 육지 강도 썰 행 막 늪도 주곡 스뭇 벨것만 이 해렌.(거 할머니 했던 거 봤다가 육지 가서도 실 해서 마구 남도 주고 사뭇 별거 만큼 하더라고.)

106020 #2 기?(그래?)

106020 #1 촌인 생이라, 광주.(촌인 모양이야, 광주.)

106020 #2 촌이로구나.(촌이로구나.)

106020 #1 시어명도 막 착허덴 허고이. 썰 뽑아 꼬리에 행 막 늪도 주곡.(시어머니도 아주 착하다고 하고. 실 뽑아서 실뚝에 해서 마구 남도 주고.)

106020 #2 기.(그래.)

106020 #1 이디서 할무니 허는 거 봤다근에.(여기서 할머니 하는 거 봤다가.)

106020 #2 음.(음.)

106020 #1 그 실은이 삼 갑 아니믄 이 갑으로 허여.(그 실은 삼 겹 아니면 이 겹으로 해.)

106020 @ 해낫수과?(했었습니까?)

106020 #1 나는 안 해 본디 우리 어머니 헨 거 써 보민 쪼금.(나는 안 해 봤는데 우리 어머니 하는 거 써 보면 쪼금.)

106020 #2 우리도 옛날엔 썰 뽑아근에 두 갑으로 해근에게.(우리도 옛날에는 실 뽑아서 두 겹으로 해서.)

106020 #1 삼갑썰보단 좀 야려. 이갑썰이난.(삼겹실보다는 좀 야려. 이겹실이니까.)

106020 #2 어울러근에 그 써낫주게. 옛날은 썰도 어려와근에 집이서 경행 썬난.(어울러서 그 썬었지. 옛날은 실도 어려워서 집에서 그렇게 썬었어.)

106020 #1 사는 건게 질게 허고 좋주만은. 그 ○○이가 경 곤더라. 난 실 잘헌다. 육지 강 나 얼마나 하영 헨 줄 알ამ나.(사는 건 길게 하고 좋지만. 그 ○○이가 그렇게 말하더라. 난 실 잘한다. 육지 가서 나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냐.)

106020 #2 기. 덜덜해도 그런 거 알안이.(그래. 덜덜해도 그런 거 알아서.)

106020 #1 할무니가 걸 잘헤난 생이라.(할머니가 걸 잘했던 모양이야.)

106020 #2 맞다게.(맞다.)

106020 #1 ㄴ찌 살멍. 할머니가 쭉 ㄴ찌 살앗네.(같이 살면서. 할머니가 쭉 같이 살았잖아.)

106020 @ 물레를 어떻 헛수과, 해 봤수과?(물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 봤습니까?)

106020 #2 으, 해 봤는데.(으, 해 봤는데.)

106020 #1 집집마다 거 다 잇지. 우리도 잇고.(집집마다 거 다 있지. 우리도 있고.)

106020 #2 옛날엔 우린.(옛날엔 우린.)

106020 #1 우리 시대에 사람은 집집마다 엇인 디가 엇엇주.(우리 시대에 사람은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었지.)

106020 @ 어머니도 했었고?(어머니도 했었고?)

106020 #2 으.(으.)

106020 #1 아니, 우리 어머니가 했지. 난 허는 거 봤지. 나는 안 허고.(아니, 우리 어머니가 했지. 난 하는 거 봤지. 나는 안 하고.)

106020 @ 삼촌은 해 봤고?(삼촌은 해 봤고?)

106020 #2 나 조금씩 가끔 해 봤주게. 난 살림 살기가 바쁘난 거 할 시간이 었이 난 가끔.(나 조금씩 가끔 해 봤지. 난 살림 살기가 바쁘니까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끔.)

106020 @ 어떻 했수과, 걸?(어떻게 했습니까, 걸?)

106020 #1 난 허젠을 안 허연.(난 하려고 안 했어.)

106020 #2 물레를 그 썰.(물레를 그 실.)

106020 #1 그 물레 자체가 이 가레기를 꿰는 게 잇어이. 실 꿰는 거 영헌 거 싯고.(그 물레 자체가 이 가락을 꿰는 게 있어. 실 꿰는 거 이런 거 있고.)

106020 #2 감아 내는 게 잇주게, 감아 내는 게.(감아 내는 게 있지, 감아 내는 게.)

106020 #1 이렇게 영 허민.(이렇게 이렇게 하면.)

106020 #2 실 영 뽑으민 영 쪽 덩기명 뽑으민.(실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쪽 당기면서 뽑으면.)

106020 #1 혼 발 뽑아지면은 딱 중단했당.(한 발 뽑으면 딱 중단했다가.)

106020 #2 이만큼 뽑아지면은 이 물렐 영 돌리명 스르르르.(이만큼 뽑으면 이 물레를 이렇게 돌리면서 사르르르.)

106020 #1 가레기에 감아근에.(가락에 감아서.)

106020 #2 거 감아지는 데 이렇게 허면은 줄줄 감아지주게.(거 감기는 데 이렇게 하면 줄줄 감기지.)

106020 #1 게민 것ㄴ라 이름이 꼬리엔 허여, 꼬리? 멘주기. 멘주기? 그 가레기에 감아진, 멘주기, 멘주기지? 멘주기고 꼬리는 손으로 영 행 감은 게 꼬리고이.(그럼 것보고 이름이 ‘꼬리’라고 해, ‘꼬리’? ‘멘주기’ ‘멘주기’? 그 가락에 감긴 토리, 토리지? 토리고 실똥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감은 게 실똥이고.)

106020 #2 으.(으.)

106020 #1 손으로 이렇게.(손으로 이렇게.)

106020 #2 꼬린 그거 미녕 차젠 허민 꼬리 감아야 미녕 차니까. 뱃집에, 뱃집에 들어가게.(실똥은 그거 무명 짜려고 하면 실똥 감아야 무명 짜니까. 북에, 북에 들어가게.)

106020 #1 그 가레기 감는 건 멘주기. 그 생각 남다이 멘주기.(그 가락 감는 건 토리. 그 생각난다. 토리.)

106020 @ 경행?(그래서?)

106012 #2 겐 그 미녕허는 게 쉬운 게 아니. 막 어려와. 목화를, 목화를 밧에다가 그 종자를 등심등심 뿌려 가지고 갈아근에 허면은 이제 그 순 나오잖아. 순 나오면은.(그래서 그 무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 아주 어려워. 목화를, 목화를 밧에다가 그 종자를 등성등성 뿌려 가지고 갈아서 하면 이제 그 순 나오잖아. 순 나오면.)

106012 @ 언제 뿌렁 언제 갈아마씨?(언제 뿌려서 언제 갈아요?)

106012 #2 봄에, 봄에.(봄에, 봄에.)

106012 @ 봄에 뿌렁?(봄에 뿌려서?)

106012 #2 으.(으.)

106012 #1 질 먼저 가는 게 멘네야. 멘네 가는 게 질 먼저라야.(제일 먼저 가는 게 면화야. 면화 가는 게 제일 먼저여야.)

106012 #2 으.(으.)

106012 @ 아.(아.)

106012 #1 멘네 가는 게 켈 먼저 갈아야.(면화 가는 게 제일 먼저 갈아.)

106012 #2 늦은 봄 돼민 멘넬 갈아야지.(늦은 봄 되면 면화를 갈아야지.)

106012 #1 농서허는 집인 먼저 허는 게 멘네 농사야, 멘네 농사.(농사하는 집은 먼저 하는 게 면화 농사야, 면화 농사.)

106012 #2 사월덜 돼민.(사월 되면.)

106012 #1 그다음에 산디도 갈곡, 콩도 갈고, 조도 갈곡 허지.(그다음에 밧벼도 갈고, 콩도 갈고, 조도 갈고 하지.)

106012 #2 겐 갈아근에 그 순이 나오면은, 이 등심등심 봐야 돼, 이 종자를. 경해야 그 가지 거리면서²⁶⁴⁾ 탁 퍼지면서 목화를 많이 달리게. 경 안허면은 좇아근에, 등심등심 엇이면은 서로가 영 끼어근에게이 널리 퍼지지 못해근에게 그 목화를 많이 돌리지 못허여.(그래서 갈아서 그 순이 나오면, 이 등성등성 봐야 돼, 이 종자를. 그래야 그 가지 ‘거리면서’ 탁 퍼지면서 목화를 많이 달리게. 그렇지 않으면 배어서, 등성등성 없으면은 서로가 이렇게 끼어서 널리 퍼지지 못해서 그 목화가 많이 달리지 못해.)

106012 #1 그것 ㄹ라이 멘네드레엔 해. 멘네드레.(그것보고 다래라고 해. 다래.)

106012 @ 아.(아.)

106012 #1 일름이 멘네드레야.(이름이 ‘멘네드레’야.)

106012 #2 게근에 그 좇인 걸 소파. 소파근에 등심등심 하나씩 이렇게 놓면은 이게 커 오면서 탁 퍼져근에 가지가. 으라 가지 부터 가지고 탁 퍼지면은 그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그래서 그 벤 걸 속아. 속아서 등성등성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 이게 커 오면서 탁 퍼져서 가지가. 여러 가지 붙어 가지고 탁 퍼지면은 그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

106012 #1 열매가 멘네드레야이. 겐디 그거 따 먹으면 맛있어.(열매가 다래야. 그런데 그거 따 먹으면 맛있어.)

264) ‘거리다’는 나뭇가지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간다는 의미다.

106012 #2 으. 그거 막 낭에 달리민 그제 놔두면은 세어근에게 익어. 익으면 이제 열어지면서 목화가 나와근에 퍼져. 퍼져 이제 하얗게 퍼져근에 헐 거 아니.(으. 그거 마구 나무에 달리면 그제 놔두면 세어서 익어. 익으면 이제 열리면서 목화가 나와서 퍼져. 퍼져서 이제 하얗게 퍼져서 할 거 아니.)

106012 #1 게민 이제 타.(그럼 이제 따.)

106019 #2 게민 이제 바구니 받아근에 그거만 똑똑똑똑 그 목화 뽑앙 따. 따근에 앓다근에 이젠 널어 낵 돌류와. 돌류와근에 이젠 또 바구니에 담아 둬서 그 씨 걸러내는 물레를 갖다 놓고 이렇게.(그럼 이제 바구니 받아서 그거만 똑똑똑똑 그 목화 뽑아서 따. 따서 가져다가 이젠 널어 놔서 말려. 말려서 이젠 또 바구니에 담아 두고서 그 씨 걸러내는 물레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106019 #1 그 전에 한번 다듬어야지. 좋은 거 꺾은 거 다.(그 전에 한번 다듬어야지. 좋은 거 꺾은 거 다.)

106019 #2 좋은 거 꺾은 것도 다듬고 그 이파리 부튼 거 다듬고 티 부튼 거.(좋은 거 꺾은 것도 다듬고 그 이파리 붙은 거 다듬고 티 붙은 거.)

106019 #1 다듬어 놔근에 이제 불라. 불른텐 허여.(다듬어 놔서 이제 발라. 바른다고 해.)

106019 #2 다듬어 낵 이제 불르민, 이게 목화면은 이게 물레잖아. 물레 이렇게 두 가달이라야. 이렇게 두 가달이민 요거 요것이 목화면 이거 영 돌리면 이것이 돌아가잖아.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사이에 목화를 맥여.(다듬어 놔서 이제 바르면, 이게 목화면 이게 물레잖아. 물레 이렇게 두 가닥이야. 이렇게 두 가닥이면 요거 요것이 목화면 이거 이렇게 돌리면 이것이 돌아가잖아. 이렇게 돌아가면 이 사이에 목화를 맥여.)

106019 #1 영 맥이멍 이렇게 돌려.(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돌려.)

106019 #2 이렇게 맥이민 속속속속 넘어가면서 씨는 앞으로 바까 내여.(이렇게 먹이면 속속속속 넘어가면서 씨는 앞으로 뺄어 내.)

106019 #1 멘네는 일로 나오고.(면화는 이리로 나오고.)

106019 #2 그 목화 두으로 나가면서 씨 앞더레 뺄아 놓주게. 겐 이제 씨를 불라 낵, 불라 노민 딱시 말류와. 또 말류와근에 숨 태우는 기계에 강 태와. 막 두들경 태와근에 이젠 씨를 뽑게, 씨를 뽑게 이제 요만큼 기러기 요만큼 허고. 아메도 부록 대 이거 손가락 부록 대 요만.(그 목화 뒤로 나가면서 씨 앞으로 뺄어 놓지. 그래서 이제 씨를 발라 놔서, 발라 놓으면 또 말려. 또 말려서 숨 태우는 기계에 가서 태워. 마구 두들겨서 태워서 이젠 실을 뽑게, 실을 뽑게 이제 요만큼 길이 요만큼 하고. 아무래도 배동 대 이거 손가락 배동 대 요만큼.)

106020 #1 것ㄴ라 정²⁶⁵)?(것보고 ‘정’?)

106020 #2 정.(‘정’.)

106020 #1 정이엔 허여, 정.(‘정’이라고 해, ‘정’.)

265) ‘정’은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뼀 가량의 길이로 끊어낸 물건이다.

106020 #2 우리 제주도 말론 정이렌 허는데.(우리 제주도 말로는 ‘정’이라고 하는데.)

106020 #1 그 요만이 뽑는 게 정.(그 요만큼 뽑는 게 ‘정’.)

106020 #2 으. 기러긴 요만이 허고 둘레 요 손가락 둘레 두 개만이 허여.(으. 길이는 요만큼 하고 둘레 요 손가락 둘레 두 개만큼 해.)

106020 #1 으, 으, 정.(으, 으, ‘정’.)

106020 #2 게민 이제 촌근촌근 이녀 포따리에나 뭐 그릇에나 담양 와근에 이젠 방에, 방에 이젠 놔둬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젠 그 실 뽑는 물레를. 또 실 뽑는 물레는 둥그렇고 이 양편이로 조금 줄어들고 둥그렇고 이 가레기가 막 으라 개라. 아메도 가레기 혼 스무 갠 쉼 거라이. 그 둘레로 빙 허민이.(그럼 이제 차근차근 자기 보따리에나 뭐 그릇에나 담아 와서 이젠 방에, 방에 이제 놔두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젠 그 실 뽑는 물레를. 또 실 뽑는 물레는 둥그렇고 이 양편으로 조금 줄어들고 둥그렇게 이 가락이 아주 여러 개야. 아무래도 가락 한 스무 개는 될 거야. 그 둘레로 빙 하면.)

106020 #1 으, 으.(으, 으.)

106020 #2 게근에게 허민 거기 딱시 요 옆에 딱시 쪼그맣게 부튼 게 있어. 실 감아질 거. 실 뽑으면 그거 감아지는 걸, 감아질 걸 딱시 만들아근에 요디 요만큼 한 거를 이제 그 췌코쟁이를 꿰어근엔에 허민 처음엔 그냥 손으로라도 쪼금 쪼금 꼬트머리 실 되게끔 꼬트머리 만들아근에 그레 영 뎡겨근에 놔근에게 영 뎡기명 물렐 영 돌르명 영 뎡겨 가민 쪽 허게 실을 뽑아져게. 뽑아지민 요만큼 뽑아지민 딱시 그걸 그레 감기젠 허민 딱시 촌촌히 물레 돌르명. 이 풀을 올려야 돼여. 이렇게 풀을 올려야 올령 이렇게 해야 실이 그레 감겨져.(그래서 하면 거기 또 요 옆에 또 쪼그맣게 붙은 게 있어. 실 감길 거. 실 뽑으면 그거 감기는 걸, 감기는 걸 또 만들어서 요기 요만큼 한 거를 이제 그 쇠꼬쟁이를 꿰어서 하면 처음엔 그냥 손으로라도 쪼금 쪼금 꼬트머리 실 되게끔 꼬트머리 만들어서 그리 이렇게 당겨 놔서 이렇게 당기면서 물레를 이렇게 두르면서 이렇게 당겨 가면 쪽 하게 실을 뽑을 수 있어. 뽑으면 요만큼 뽑으면 또 그걸 그리 감으려고 하면 또 천천히 물레 두르면서. 이 팔을 올려야 돼. 이렇게 팔을 올려야 올려서 이렇게 해야 실이 그리 감겨.)

106020 #1 그거 물레에 실 뽑나, 실 뽑나 허는 거야. 거 막 힘들어.(그거 물레에 실 뽑는다, 실 뽑는다 하는 거야. 거 아주 힘들어.)

106020 #2 그 실이 이만큼 크게 이젠 감겨진 게 크주게. 이만큼 커, 이만큼 크민.(그 실이 이만큼 크게 이젠 감긴 게 크지. 이만큼 커, 이만큼 크면.)

106020 #1 그것 ㄴ라 멘주기야.(그것보고 토리이야.)

106020 #2 으.(으.)

106020 #1 그게 멘주기.(그게 토리.)

106020 #2 그게 넘치민 이젠 벗어나 붙어, 감겼던 게. 게민 이제 빼어똥 딱시 다 음에 딱시 뽑아근에 딱시 경허고 경헤근에 실을 뽑아게. 겐 뽑아근에게.(그게 넘치

면 이젠 벗어져 버려, 감겼던 게. 그럼 이제 빼두고 또 다음에 또 껌아서 또 그리고 그러면서 실을 뽑아. 그래서 뽑아서.)

106020 #1 야네 어무니가 이 동네 질 유명하게 해나 부니까.(애네 어머니가 이 동네 제일 유명하게 했어 버리니까.)

106020 #2 우리 어무니는.(우리 어머니는.)

106020 #1 줌진 걸 잘해. 옷 행 입을 걸 잘하여.(가는 걸 잘해. 옷 해서 입을 걸 잘해.)

106020 #2 으.(으.)

106020 #1 우리 어머니는 그냥이 잘못 허는 거.(우리 어머니는 그냥 잘못 하는 거.)

106020 #2 우리 어머니 바느질도 잘하고 솜씨가 그렇게 좋아났어.(우리 어머니는 바느질도 잘하고 솜씨가 그렇게 좋았었어.)

106020 #1 게난 맨날 곱아, 미녕힐 땀 이거 선돌²⁶⁶ 아지망이 이거 나무려근에 이거 옷으켜.(그러니까 맨날 말해, 무명할 때는 이걸 ‘선돌’ 아주머니가 이거 나무라서 이거 옷겠어.)

106020 #2 게난 늬의 호상도 다 마탕 해났어, 우리 어무니. 재단도 다 허고. 겐디 나는 못 해.(그러니까 남의 수의도 다 맡아서 했었어, 우리 어머니. 재단도 다 하고. 그런데 나는 못 해.)

106021 @ 베클을 이제 또 해야 돼잖아예. 실 허면 그다음은?(베틀을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실 하면 그다음은?)

106021 #2 실 허면 아휴, 과정이 막 복잡해. 그 질쌌허는 과정이.(실 하면 아휴, 과정이 아주 복잡해. 그 질쌌하는 과정이.)

106021 #1 그 늬는 걸 봐야. 이만이 해근에 그 꼬리 해영 감앙. 놀앙 메영, 멘 후에 또 미녕 짜.(그 나는 걸 봐야. 이만큼 해서 그 실뚝 해서 감아서. 날아서 매서, 맨 후에 또 무명 짜.)

106021 @ 베클에 대해서 혼번 곱아 봅서.(베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106021 #1 베클에, 베클에 대해서 그 텔레비에 나온 거 그식이야. 이렇게 탁탁.(베틀에, 베틀에 대해서 그 텔레비전에 나온 거 그식이야. 이렇게 탁탁.)

106021 #2 으, 발로. 발로 왔다 갔다.(으, 발로. 발로 왔다 갔다.)

106021 #1 꼬리 영 왔다리 갔다리 영. 영 디물앙 영 디물앙 영. 그거야. 빨리허는 사람은 다락다락²⁶⁷ 막 빨리해. 야네 어머니 막 빨리해. 겐디 우리는 경 못 해. 뜨게, 뜨게 해야지.(실뚝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거야. 빨리하는 사람은 ‘다락다락’ 아주 빨리해. 애네 어머니 아주 빨리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해. 뜨게, 뜨게 해야지.)

106021 #2 우리 어머니 잘해.(우리 어머니 잘해.)

266) ‘선돌’은 한림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267) ‘다락다락’은 베틀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106021 #1 야네 어머니 소리가 착각착각착각 허여. 어떤 사름 못 허는 사름은 착각착각착각 허는디.(애네 어머니 소리가 착각착각착각 해. 어떤 사람 못 하는 사람은 착각 착각 착각 하는데.)

106021 @ 하하하.(하하하.)

106021 #1 야이네 어무니 가근에 허는 소리 강 들으민이 착각착각착각착각 왔다 갓닥, 왔다 갓닥, 왔다 갓닥.(애네 어머니 가서 하는 소리 가서 들으면 착각착각착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6021 #2 어, 우리 어무니 경허여.(어, 우리 어머니 그래.)

106021 #1 겐 그거 짜는 것도 좀질고 곱고 빨리 허곡. 게난 그 재주가 막 유능헌 어른게. 좀질게 허곡.(그래서 그거 짜는 것도 가늘고 곱고 빨리 하고. 그러니까 그 재주가 아주 유능한 어른이야. 가늘게 하고.)

106021 @ 막 가르쳐 주진 안헐디가?(막 가르쳐 주진 않습디까?)

106021 #2 뭐 가르쳐 달렌 허면은 우리 어머니 말이 눈으로 보민 다 허는디 눈으로 보멍 허렌 허여.(뭐 가르쳐 달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말이 눈으로 보면 다 하는데 눈으로 보면서 하라고 해.)

106021 #1 하하하.(하하하.)

106021 #2 늣 가리켜 주는 거 못 헐다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 늣 헐 거 보면 웬다고. 그러더라고. 경헌디 나는 그거 가르켜 받았 헐 시간도 없어. 밑에 다 동생덜이지, 소출 줘야 돼지, 물 길어 와야 돼지, 굴묵 때야 돼지, 소 낮이 물 강 맥여야 돼지.(남 가르쳐 주는 거 못 한다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 남 하는 거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거 가르쳐 받아서 할 시간도 없어. 밑에 다 동생들이지, 쇠풀 줘야 되지, 물 길어 와야 되지, ‘굴묵’ 때야 되지, 소 낮에 물 가서 먹어야 되지.)

106021 #1 뭐 물 맥이는 거 아버지 했지, 너가 했나?(뭐 물 먹이는 거 아버지 했지, 네가 했냐?)

106021 #2 아이고, 우리 아바진 신 삼곡 맥 줄곡 허젠 허민 나가 주로 쉼 물 맥이레 땡겼주.(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신 삼고 먹 곁고 하려고 하면 내가 주로 소 물 먹이러 다녔지.)

106021 #1 무슨 딸ㄴ라 쉼 물 맥영 오렌 허냐?(무슨 딸보고 소 물 먹어서 오라고 하냐?)

106021 #2 아이고, 경혜근에 딱시 그 텃밭디 가근에 채소 혜근에 무여 뭐 배추여 막 혜근에 또 강 시쳐 와야, 혼 바구니 행 강 시쳐야 허지. 아이, 식구 많고 혜 놓니까. 나가 만이고 허니까. 난 주로 그런 일만 허단 보민 이거 헐 시간도 없어.(아이고, 그래서 또 그 텃밭에 가서 채소 해서 무다 뭐 배추다 마구 해서 또 가서 씻어 와서, 한 바구니 해서 가서 씻어야 하지. 아, 식구 많고 혜 놓으니까. 내가 만이고 하니까. 난 주로 그런 일만 하다가 보민 이거 할 시간도 없어.)

106021 #1 쉼 물 맥이는 건 우리 아버지 어디 향교나 간 땐 허지만은 이신 땐

똑 아버지가 맥여 오더라.(소 물 먹이는 건 우리 아버지 어디 향교나 간 땀 하지만 있을 땀 꼭 아버지가 맥여 오더라.)

106021 #2 우린 주로 나가.(우린 주로 내가.)

106021 #1 우리 또 췌가 부릉이난이.(우리 또 소가 부룩소니까.)

106021 @ 어디 강 맥엇수과, 췌 물은?(어디 가서 먹였습니까, 소 물은?)

106021 #1 구렁을 파 이만이 크게. 췌 물 맥이는.(구렁을 파 이만큼 크게. 소 물 먹이는.)

106021 @ 지금 엇어?(지금 없어?)

106021 #1 멜라 불엇 엇더라. 다 부쉬 불언. 어느 동안에 부쉬 불언.(허물어 버려서 엇더라. 다 부쉬 버렸어. 어느 동안에 부쉬 버렸어.)

106021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6021 #1 물 사름 먹는 물 두 개, 소 먹는 물 두 개 팡 놔뒀신디이 이 뽕일이²⁶⁸광 정존이²⁶⁹ 사이에. 겐 여기서도 가곡 저디서도 강 허는디 엇언게게. 혼 이 년, 이 년, 일 년 사이에. 어떠한 엇어불언. 다 밭 만들어 불언게. 그 구렁을.(물 사 람 먹는 물 두 개, 소 먹는 물 두 개 파서 놔뒀는데 이 ‘뽕일이’와 ‘정존이’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도 가고 저기서도 가서 하는데 엇더라. 한 이 년, 이 년, 일 년 사 이에. 어떠한 없어버렸어. 다 밭 만들어 버렸어. 그 구렁을.)

106021 @ 베클은 어무니가 경 잘 짜고.(베틀은 어머니가 그렇게 잘 짜고.)

106021 #1 게난 미녕허는 건 야네 어명이 최고.(그러니까 무명하는 건 애네 어머니가 최고.)

106021 #2 우리 어머니 미녕.(우리 어머니 무명.)

106021 #1 제기 허곡 곱게 허곡.(재게 하고 곱게 하고.)

106021 #2 차곡 메곡 늘곡 다 허여.(짜고 매고 날고 다 해.)

106021 @ 그 헛엇던 거 다 어디로 가 불엇수과?(그 헛엇던 거 다 어디로 가 버 렸습니까?)

106021 #2 몰라, 어디로 갓는디.(몰라, 어디로 갓는지.)

106021 #1 집 엇은디 건 이십니까게. 다 날라가 불엇주.(집 없는데 건 있습니까. 다 날라가 버렸지.)

106021 #2 거 골동품으로 누게 다 아저 가실 거여.(거 골동품으로 누가 다 가지고 갔을 거야.)

106021 #1 그때 거 시카. 다 멜랑 엇어졌주.(그때 거 있을까. 다 허물어져 없어졌지.)

106021 #2 게메 멜랑 엇어져실 거라이.(글쎄, 허물어져 없어졌을 거야.)

바느질

106022 @ 이번엔 바농질이우다예.(이번엔 바느질입니다.)

268) ‘뽕일이’는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269) ‘정존이’는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106022 #2 으.(으.)

106022 @ 바농질 도구, 바농 허는 방법, 바농질허는 거에는 뭐가 필요해마씨?(바느질 도구, 바늘 하는 방법, 바느질하는 거에는 뭐가 필요해요?)

106022 #2 바농질허는 거에는.(바느질하는 거에는.)

106022 #1 ㄱ세.(가위.)

106022 #2 ㄱ세도 필요허고.(가위도 필요하고.)

106022 #1 바늘, 자, 자. 영.(바늘, 자, 자. 이렇게.)

106022 #2 자, 자도 있어야 돼지. 그 골미도 있어야 돼. 손가락 꿰 부는 때문
에.(자, 자도 있어야 되지. 그 골무도 있어야 돼. 손가락 꿰 버리는 때문.)

106022 #1 골미 난 안 켜 봤어. 못 허겠더라.(골무 난 안 껴 봤어. 못 하겠더라.)

106022 #2 나도 안 껴 봤주만은 경해도.(나도 안 껴 봤지만 그래도.)

106022 #1 육지 사름덜은 걸 잘 끼더라이. ㄱ세, 바늘, 자.(육지 사람들은 걸 잘
끼더라. 가위, 바늘, 자.)

106022 @ 바농은 언제부터 이십디가? 태어날 때부터 바농은 이십디까?(바늘은
언제부터 있습디까? 태어날 때부터 바늘은 있습디까?)

106022 #2 으.(으.)

106022 #1 으게.(으.)

106022 #2 옛날 어른덜은 옷을 주로 한복덜만 행 입어나난.(옛날 어른들은 옷을
주로 한복들만 해서 입었었으니까.)

106022 @ 실은 아까 미녕 그 실 뽑은 걸로 쓰곡?(실은 아까 무명 그 실 뽑은 걸
로 쓰고?)

106022 #2 으.(으.)

106022 #1 아니, 이제는 실 막 나와. 사단 썬.(아니, 이제는 실 많이 나와. 사다가
썬.)

106022 @ 옛날, 옛날?(옛날, 옛날?)

106022 #2 옛날엔 그 실로 썬주게.(옛날엔 그 실로 썬지.)

106023 @ 바느질에 뒷바느질, 앞바느질 무신 바느질이 잇수과?(바느질에 ‘뒷바늘
질’, ‘앞바느질’ 무슨 바느질이 있습니까?)

106023 #1 뒷바느질은 박음치기엔 해근에게.(‘뒷바느질’은 박음질이라고 해서.)

106023 #2 뒷바농질은 미승에서 박는 거 모양에 꼬매는 거고 앞바농질만 허는
거는 그냥 그냥.(‘뒷바농질’은 재봉틀에서 박는 거 모양으로 꼬매는 거고 ‘앞바농질’
만 하는 거는 그냥 그냥.)

106023 #1 거 호음질이엔 허여, 호음.(거 흠질이라고 해, 흠.)

106023 @ 곱?(곱?)

106023 #2 호음질(흠질.)

106023 #1 박음질은 뒷바농질. 호음은 앞으로만 주는 거, 쪽쪽 주는 거. 호음바
늘.(박음질은 ‘뒷바농질’. 흠질은 앞으로만 깎는 거, 쪽쪽 깎는 거. 흠질.)

106023 @ 곱 바늘?(곱 바늘?)

106023 #1 호음바늘. 호와, 호와. 또 영 영 감치는 것도 서이. 세 가지라. 바우 감치는 거. 감칠바늘.(홈질. 호아, 호아. 또 이렇게 이렇게 감치는 것도 있어. 세 가지야. 바위 감치는 거. 감침질.)

106023 @ 바우 감치는 걸 감칠바늘.(바위 감치는 걸 ‘감칠바늘’.)

106023 #2 그거 세 가지주게.(그거 세 가지지.)

106023 #1 세 가지.(세 가지.)

106023 @ 어떻 이름이.(어떻게 이름이.)

106023 #2 뒷바농질허고 호음바농질허고.(박음질하고 홈질하고.)

106023 #1 감칠바늘.(감침질.)

106023 #2 감추는 거허고.(감치는 거하고.)

106023 @ 호음바늘.(홈질.)

106023 #1 호음바느질이 제일 쉬워. 세 개 중에이. 뒷바느질이 제일 뜨고 감치는 건 그다음.(홈질이 제일 쉬워. 세 개 중에. 박음질이 제일 뜨고 감치는 건 그다음.)

옷 종류

106024 @ 다음은 남자 옷의 종류, 여자 옷의 종류, 아이 옷의 종류?(다음은 남자 옷의 종류, 여자 옷의 종류, 아이 옷의 종류?)

106024 #1 그 종류는 남자 옷의 종류가 많지.(그 종류는 남자 옷의 종류가 많지.)

106024 #2 많주게.(많지.)

106024 #1 혼번 입영 나가젠 허민이 남자 어른이 속곳허고.(한번 입고 나가려고 하면 남자 어른이 속곳하고.)

106024 @ 속곳.(속곳.)

106024 #1 속곳, 살마다²⁷⁰⁾엔 헤이 그때는 살마다가 일본말이라이. 살마다, 바지저고리, 쪼께. 쪼겐 쪽 입어이.(속곳, ‘살마다’라고 했어. 그때는 ‘살마다’가 일본말이야. ‘살마다’, 바지저고리, 조끼. 조긴 쪽 입어.)

106024 #2 두루막.(두루마기.)

106024 #1 두루막 또 허리띠 영 헨 줄라매는 허리띠 또 아래 가민 보선. 보선 잘 신으니까 보선, 다림.(두루마기 또 허리띠 이렇게 해서 줄라매는 허리띠 또 아래 가면 버선. 버선 잘 신으니까 버선, 대님.)

106024 @ 다림.(대님.)

106024 #1 게민 웬 거. 다림꺼지 허민.(그럼 된 거. 대님까지 하면.)

106024 @ 갓이나 이런 거는 안 봐 봤수과? 망건이여, 탕건이여.(갓이나 이런 거는 안 봐 봤습니까? 망건이여, 탕건이여.)

106024 #1 아, 그것도 허지. 우리 아버지 망건 쓰는 건 안 봐 봤어. 안 봐 본디 탕건은 써, 탕건은. 망건은 안 쓰고 탕건허고 갓. 그거는 향교 갈 때만 땀 안 쓰

270) ‘살마다’는 ‘팬츠, 잠방이’라는 의미의 일본어 ‘さるまた’에서 온 말로, ‘팬티, 속옷’을 말한다.

고.(아, 그것도 하지. 우리 아버지 망건 쓰는 건 안 봐 봤어. 안 봐 봤는데 탕건은 써, 탕건은. 망건은 안 쓰고 탕건하고 갓. 그거는 향교 갈 때만 땀 땀 안 쓰고.)

106024 #2 으, 향교 허는 어른덜은 주로 그거 썩 나가지.(으, 향교 하는 어른들은 주로 그거 써서 나가지.)

106024 #1 탕건허고 갓. 망건은 안 쓰고, 갓.(탕건하고 갓. 망건은 안 쓰고, 갓.)

106024 #2 망건은 ** 집이 그자 동네에서 놀 때나 쓰주게.(망건은 ** 집이 그자 동네에서 놀 때나 쓰지.)

106024 #1 향교 갈 때만 쓰꼭 그냥은 안 써. 우리 큰아버지허곡 우리 아버지허곡 저 누게, ○○이 아버지허곡. 향교 다니니까.(향교 갈 때만 쓰고 그냥은 안 써.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 누구, ○○이 아버지하고. 향교 다니니까.)

106024 #2 우리 할아버진 선도 절 미쳐 선도 절에만 강 살곡 허연게. 옷도 우리 할아버진이 옷도 막, 옷도.(우리 할아버진 선도 절 미쳐서 선도 절에만 가서 살고 하더라. 옷도 우리 할아버지는 옷도 아주, 옷도.)

106024 #1 느네 할아버지가 거루 훈장이라?(너희 할아버지가 ‘거루’ 훈장이야?)

106024 #2 물메²⁷¹⁾ 훈장.(‘물메’ 훈장.)

106024 #1 물메 훈장. 거루 훈장은 누게라?(‘물메’ 훈장. ‘거루’ 훈장은 누구야?)

106024 #2 거루 훈장은 거릿 삼촌이주게.(‘거루’ 훈장은 ‘거릿’ 삼촌이지.)

106024 #1 아.(아.)

106024 #2 정존²⁷²⁾ 훈장은 우리 작은하르부지.(‘정존’ 훈장은 우리 작은할아버지.)

106024 #1 저 쟁일이²⁷³⁾ 하르방?(저 ‘쟁일이’ 할아버지?)

106024 #2 으게.(그래.)

106024 @ 물메 훈장, 거루 훈장?(‘물메’ 훈장, ‘거루’ 훈장?)

106024 #1 저 부인이 거루민이 거루 거느리고.(저 부인이 ‘거루’민 ‘거루’ 거느리고.)

106024 @ 예.(예.)

106024 #1 또 부인이 물미²⁷⁴⁾민 물미 훈장.(또 부인이 ‘물미’이면 ‘물미’ 훈장.)

106024 @ 물미가 어디과?(‘물미’가 어디니까?)

106024 #1 수산²⁷⁵⁾, 수산. 거 옛날 이름.(수산, 수산. 거 옛날 이름.)

106024 #2 수산. 옛날 이름이 물미. 우리 할머니가 물미 어른이주게.(수산. 옛날 이름이 ‘물미’. 우리 할머니가 ‘물미’ 어른이지.)

106024 @ 그럼 남자가 양반이 아닌 사람은 그냥 바지저고리만 입고? 찌꺼도 많이 입었수과?(그럼 남자가 양반이 아닌 사람은 그냥 바지저고리만 입고? 조끼도 많

271) ‘물메’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의 옛 이름이다. ‘물미’라고도 한다.

272) ‘정존’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273) ‘쟁일이’는 제주시 노형도 지경 이름의 하나다.

274) ‘물미’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의 옛 이름이다. ‘물메’라고도 한다.

275) ‘수산’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를 말한다.

이 입었습니까?)

106024 #2 쪼긴 주로 한복은 입으민 남잔 쪼끼 입어야 돼.(조긴 주로 한복은 입으면 남잔 조끼 입어야 돼.)

106024 @ 입어야 돼.(입어야 돼.)

106024 #2 쪼긴 기본이야.(조긴 기본이야.)

106024 @ 밧디, 밧디 갈 때는?(밭에, 밧에 갈 때는?)

106024 #1 그땐 안 입고. 벗영 놔뒀근에 갈옷 입어 갈옷. 밧디 갈 땐 다 갈옷.(그땐 안 입고. 벗어서 놔두고 갈옷 입어, 갈옷. 밧에 갈 땐 다 갈옷.)

106024 @ 갈옷.(갈옷.)

106024 #2 옛날엔 주로 그냥 그 미녕해근에.(옛날엔 주로 그냥 그 무명해서.)

106024 #1 빨앙 입는.(빨아서 입는.)

106024 #2 감물 들여근에 갈옷 그자.(감물 들여서 갈옷 그저.)

106024 #1 혼 사람이 세 불 해. 두 불 허민 바빠.(한 사람이 세 벌 해. 두 벌 하면 바빠.)

106024 @ 어디 나갈 땐 갈옷을 안 입었수파?(어디 나갈 땐 갈옷을 안 입었습니까?)

106024 #1 안 입주게.(안 입지.)

106024 @ 요즘은 갈옷이 패션이 됐수다.(요즘은 갈옷이 패션이 됐습니다.)

106024 #2 요즘은 꺼꼴로 웬디 우린 갈옷을 질려 가지고 입고정 안허여.(요즘은 거꾸로 되었는데 우린 갈옷을 질려 가지고 입고 싶지 않아.)

106024 #1 좋덴 해도 윈 근엄허더라.(좋다고 해도 윈 근엄하더라.)

106024 #2 색깔이예?(색깔이요?)

106024 #1 으. 입어나니까 막. 겐디 입영 보민 좋긴 해이. 선선헌 게.(으. 입었었으니까 마구. 그런데 입어 보면 좋긴 해. 선선한 게.)

106024 #2 어릴 때 너미 입영 크니까 질려 가지고.(어릴 때 너무 입고 크니까 질려 가지고.)

106024 #1 몸에도 좋고 헌디.(몸에도 좋고 한테.)

106024 @ 평상복은 남자덜이 조끼를 입었구나.(평상복은 남자들이 조끼를 입었구나.)

106024 #1 바지저고리 입을 때만.(바지저고리 입을 때만.)

106024 @ 게메 바지저고리 입을 때.(글쎄 바지저고리 입을 때.)

106024 #1 겐 바지저고리도게 나들이복은 새 걸로 입고 집이서 입을 땐 막 입는 거 입지.(그래서 바지저고리도 나들이복은 새 걸로 입고 집에서 입을 땐 마구 입는 거 입지.)

106024 #2 막 입는 거 입을 땐 그냥 쪼끼 안 갖창 입곡.(막 입는 거 입을 땐 그냥 조끼 안 갖춰서 입고.)

106024 #1 막 입는 거, 집이서 입는 거 씻고 나들이복 씻고. 혼 불로만 못 살아.

세 벌은 해야 돼. 남저덜 바지저고리도.(막 입는 거, 집에서 입는 거 있고 나들이복 있고. 한 벌로만 못 살아. 세 벌은 해야 돼. 남자들 바지저고리도.)

106025 @ 그른 여자 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 옷은 치마저고리.(그럼 여자 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 옷은 치마저고리.)

106025 #1 치마저고리. 여자 옷 하.(치마저고리. 여자 옷 많아.)

106025 @ 굴중이?('굴중이'?)

106025 #2 여자 옷도 많주게, 여자 옷도.(여자 옷도 많지, 여자 옷도.)

106025 @ 굴중이 들어봤수과?('굴중이' 들어봤습니까?)

106025 #1 여자 옷도 소중이가 있어.(여자 옷도 '소중이'가 있어.)

106025 @ 남자는 소중이렌 안 허고 여자 것만 소중이?(남자는 '소중이'라고 안 하고 여자 것만 '소중이'?)

106025 #1 남자는게 남자는 살마다엔 헛네, 살마다.(남자는 남자는 '살마다'라고 했어, '살마다'.)

106025 @ 남잔 살마다.(남잔 '살마다'.)

106025 #1 살마다.('살마다'.)

106025 @ 여자 건 살마다렌 안 헛니까?(여자 건 '살마다'라고 안 합니까?)

106025 #1 여자는이 소중이엔 소중이 입어, 대개. 소중일 많이 입었어.(여자는 '소중이'라고 속곳 입어, 대개. 속곳을 많이 입었어.)

106025 #2 옛날 어른덜은 소중이 주장 입었주게.(옛날 어른들은 속곳 주로 입었지.)

106025 #1 소중이가 어떻 좋은 줄 허민이 혼착엔 단추가 없어.(속곳이 어떻게 좋은 줄 하면 한쪽에 단추가 없어.)

106025 @ 으, 으. 물소중이허고 똑같은.(으, 으. '물소중이'하고 똑같은.)

106025 #1 영 영 입어 뿡 벗으민이 영 좁아텅기민 우리도 봐지고이. 하하하.(이렇게 이렇게 입어 봐서 벗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우리도 볼 수 있고. 히히히.)

106025 #2 경험 만들앙.(그렇게 만들어서.)

106025 #1 단추가.(단추가.)

106025 @ 게니까 여기 단추가.(그러니까 여기 단추가.)

106025 #1 우리 어무니가 걸 입은 걸 자꾸 봐.(우리 어머니가 걸 입은 걸 자꾸 봐.)

106025 #2 요즘 사름덜은 거 험 충도 몰라.(요즘 사람들은 거 할 줄도 몰라.)

106025 #1 거 세 개 험사 갈아입어. 두 개 입으민 바빠. 빨앙 입는 거. 나 그걸 어무니 입영 허는 거, 이것만 벤소 확 이레 헤근에 그냥. 이거 아이 클렁 이것만. 게난 좋아.(거 세 개 해야 갈아입어. 두 개 입으면 바빠. 빨아서 입는 거. 나 그걸 어머니 입고 하는 거, 이것만 변소 확 이리 해서 그냥. 이거 안 풀어서 이것만. 그러니까 좋아.)

106025 #2 옷 내리우지 안허영.(옷 내리지 않고.)

106025 #1 그걸 눈으로 보난. 우린 안 입어 보고. 혼번도.(그걸 눈으로 보니까. 우린 안 입어 보고. 한번도.)

106025 #2 것ㄴ라 제줏말로 소중기엔 허주, 소중기.(것보고 제줏말로 ‘소중기’라고 하지, ‘소중기’.)

106025 #1 어떤 사람은 호상에 그걸. 난 살마다로 헛더라. 살마다 헛지이, 너도?
(어떤 사람은 수의에 그걸. 난 ‘살마다’로 헛더라. ‘살마다’ 헛지, 너도?)

106025 #2 나도 헛주.(나도 헛지.)

106025 #1 살마다로이?(‘살마다’로?)

106025 #2 으게.(으.)

106025 @ 살마다는 단추가 엇는 거고.(‘살마다’는 단추가 없는 거고.)

106025 #2 으.(으.)

106025 @ 소중이는 옆으로 단추가 잇는 거?(속곳은 옆으로 단추가 잇는 거?)

106025 #2 으.(으.)

106025 @ 거 소중이렌 허는구나.(거 ‘소중이’라고 하는구나.)

106025 #2 가다²⁷⁶가 틀려.(모양이 달라.)

106025 @ 아, 가다가 틀려예.(아, 모양이 달라.)

106025 #1 소중인 요쪽에도 없어. 요쪽에 막 주워 붙어. 줍곡 고름 달아. 고름 달아 혼번 영 행 무꺼.(속곳은 요쪽에도 없어. 요쪽에 마구 기워 버리고. 기우고 고름 달아. 고름 달아 한번 이렇게 해서 묶어.)

106025 @ 그거 살마다?(그거 ‘살마다’?)

106025 #1 아니, 소중이는.(아니, 속곳은.)

106025 @ 소중이는 고름.(속곳은 고름.)

106025 #1 으, 고름 행 영 해. 소중이 고름 해여. 이쪽엔 막 주워 붙고 요쪽만 헤쫘다근에 확.(으, 고름 해서 이렇게 해. 속곳 고름 해. 이쪽엔 막 기워 버리고 요쪽만 헤쫘다가 확.)

106025 @ 으, 알아지쿠다. 물소중이 봐나니까예. 똑같은게게.(으, 알겠습니다. ‘물소중이’ 봤었으니까. 똑같네.)

106025 #1 어, 맞아.(어, 맞아.)

106025 @ 게민 아이 옷에 종류에 대해서. 아, 여자 결혼할 때는 치마저고리에 여기도 두루마기도 허지예, 여자도?(그럼 아이 옷 종류에 대해서. 아, 여자 결혼할 때는 치마저고리에 여기도 두루마기도 하지요, 여자도?)

106025 #1 허지.(하지.)

106025 @ 또 속치마도 해야 돼지 안헉니까?(또 속치마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6025 #2 으, 속치마.(으, 속치마.)

106025 #1 두루마기, 으. 두루마기 허여근에 장옷 입영.(두루마기, 으. 두루마기 해서 장옷 입고.)

276) ‘가다’는 일본어 ‘かた’로 ‘모양’이라는 의미다.

106025 #2 바자마도 입고게.(과자마도 입고.)

106025 @ 장옷이렌 헛구나예.(장옷이라고 했군요.)

106025 #1 제일 곁에 입는 건 장옷이야. 제일 말째 입는 거.(제일 곁에 입는 건 장옷이야. 제일 말째 입는 거.)

106025 @ 두루마기엔 안 행 장옷이엔 헛구나.(두루마기라고 안 하고 장옷이라고 헛구나.)

106025 #2 으, 장옷이엔 허주게.(으, 장옷이라고 하지.)

106025 @ 속치마 버선 이런 건 다 똑같고예.(속치마 버선 이런 건 다 똑같고요.)

106025 #2 으.(으.)

106026 @ 아이 옷은? 아이 금방 나근에 베넛저고리 입으는 것을 뭐렌 험니까?
(아이 옷은? 아이 금방 나서 베넛저고리 입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106026 #1 베넛저고리.(베넛저고리.)

106026 @ 붓디창옷?('붓디창옷?')

106026 #2 붓디창옷.('붓디창옷'.)

106026 #1 붓디창옷 그걸 안 입으민이, 베로 행 낫당 그거 입는데 그거 안 입으민 막 등 ㄱ려왕 죽어진텐. 등땡이 ㄱ려왕.('붓디창옷' 그걸 안 입으면, 베로 해서 왔다가 그거 입는데 그거 안 입으면 마구 등 가려워서 죽을 것 같다고. 등때기 가려워서.)

106026 @ 아. 베옷을 행 입어야?(아. 베옷을 해서 입어야?)

106026 #1 으, 베옷으로.(으, 베옷으로.)

106026 #2 으, 경험 옛날 어른덜 베로 그걸 베넛저고리 만들앙 입혀낫주게.(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베로 그걸 베넛저고리 만들어서 입혔었지.)

106026 @ 거칠게.(거칠게.)

106026 #1 등땡이 안 ㄱ렵게. 켜 지금은 베 어디 성 그거 험서? 켜 그걸이 멍 질렌 영헌 거 영 험 일로 고름을 길게 해여근에 일로 영혜영 이디 영 걸로 묶어 줘.
(등때기 안 가렵게. 그래서 지금은 베 어디 있어서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명 길라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리로 고름을 길게 해서 이리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걸로 묶어 줘.)

106026 @ 명주로?(명주로?)

106026 #1 멍 질렌 그 실로.(명 길라고 그 실로.)

106026 @ 실로 멍 질렌.(실로 명 길라고.)

106026 #1 막 멧 곱 혜영.(마구 멧 겹 해서.)

106026 @ 아, 멧 곱 허영.(아, 멧 겹 해서.)

106026 #1 으, 두롱다리 영 둘러당 이디 흐뎡 념것당 일로 즐라멧.(으, '두롱다리' 이렇게 둘러다가 여기 조금 넘겼다가 이리로 잘라매서.)

106026 @ 두롱다리?('두롱다리?')

106026 #1 영허난 두롱다리지. 일로 게난 요디 왕 땃영 놔뉘, 풀어지지 안허게

게.(이러니까 ‘두룽다리’지. 이리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맏아서 놔둬, 풀리지 않게.)

106026 @ 두룽다리가 뭐파? (‘두룽다리’가 뭘니까?)

106026 #1 영 둘르는 거난게. 영 둘렁. 몸을 다 둘루지. 우리 어머니 다 경헛더라 게. 붓디창옷 아이덜 직시. 실로.(이렇게 두르는 거니까. 이렇게 둘려서. 몸을 다 두르지. 우리 어머니 다 그랬더라. 배넛저고리 아이들 뭇. 실로.)

106026 @ 붓디창옷이렌 헛구나예? (‘붓디창옷’이라고 헛군요?)

106026 #1 으, 붓디창옷.(으, 배넛저고리.)

106026 #2 붓디창옷이렌 허여. 배넛저고리 보고. 겐디 옛날은 베로만 헤나고.(‘붓디창옷’이라고 해. 배넛저고리 보고. 그런데 옛날은 베로만 헛었고.)

106026 #1 베로만 붓디창옷.(베로만 배넛저고리.)

106026 @ 겨울에 나도?(겨울에 나도?)

106026 #2 으, 겨울에 나도.(으, 겨울에 나도.)

106026 #1 겨울에도 헛 옷은 붓디창옷 것만 입형 베옷만 입어. 겨울이고 여름이고 헛 옷은 그거야.(겨울에도 헛 옷은 배넛저고리 것만 입혀서 베옷만 입어. 겨울이고 여름이고 헛 옷은 그거야.)

106026 #2 나민 그거부터 입져. 경헤야 이 몸이 안 가렵네.(낭으면 그거부터 입혀. 그래야 이 몸이 안 가렵네.)

106026 #1 그거 입젓당 뱃겨 텅 저고리 입어.(그거 입혔다가 뱃겨 두고 저고리 입어.)

106026 @ 춤잖아, 겨울에?(춤잖아, 겨울에?)

106026 #1 게난 기저귀로 씹네.(그러니까 기저귀로 씹.)

106026 #2 씹주게.(짜지.)

106026 #1 기저귀로 씹네. 겐디 흐를은 거 입혀.(기저귀로 씹네. 그런데 하루는 거 입혀.)

106026 #2 헛 옷은 그거 입혀.(헛 옷은 그거 입혀.)

106026 #1 겐 등뎡이 ㄹㄹ왕 허민 자인 붓디창옷도 안 입어나샤?(그래서 등때기 가려워서 하면 재는 배넛저고리도 안 입었었니?)

106026 @ 아.(아.)

106026 #1 경헤 등뎡이 ㄹㄹ텐 굶어 주렌 허민 야이 붓디창옷도 안 입어나샤?(그래 등때기 가렵다고 굶어 달라고 하면 애 배넛저고리도 안 입었었니?)

106026 @ 아이고야.(아이고야.)

106026 #1 지금이야 그거 엇이.(지금이야 그거 없이.)

106026 #2 옛날도 의미가 이시난 베로 그걸 만들었던 모양이라. 겐 등어리에 실로 헤근에 꼬네기 질게 헤근에게 허민. 꼬네기가 돌아지주게, 등어리에. 등어리 실밥에.(옛날도 의미가 있으니까 베로 그걸 만들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등에 실로 해서 끈 길게 해서 하면. 끈이 달리지, 등에. 등 실밥에.)

106027 @ 게민 그거 직접 만들엇수과, 아는 디 맡겼수과?(그럼 그거 직접 만들

였습니까, 아는 데 말렸습니까?)

106027 #1 그거는 만들기도 쉬워. 만들기도 쉬워.(그거는 만들기도 쉬워. 만들기도 쉬워.)

106027 @ 본인이 만들어?(본인이 만들어?)

106027 #1 아니, 어른덜이 만들앙 놔뒀어.(아니, 어른들이 만들어서 놔뒀어.)

106027 @ 놔두지예.(놔두지요.)

106027 #2 놔뒀당 줘.(놔뒀다가 줘.)

106027 @ 아덜 거허고 딸 거허고 똑같아?(아들 거하고 딸 거하고 똑같아?)

106027 #1 으, 같애. 건.(으, 같아. 건.)

106027 @ 여름 치마, 겨울 치마에 따라 이름이 다르거나 이러진 않지예. 아까 숨 놓고?(여름 치마, 겨울 치마에 따라 이름이 다르거나 이러진 않지요. 아까 숨 넣고?)

106027 #2 숨은 바지저고리에 놓는 거고.(숨은 바지저고리에 넣는 거고.)

106027 #1 건 남자덜 것애게.(건 남자들 것에.)

106027 @ 여자는?(여자는?)

106027 #1 여자도, 여자도 어른덜은 바지에 숨 낱 입어.(여자도, 여자도 어른들은 바지에 숨 넣어서 입어.)

106027 #2 겨울 바지에.(겨울 바지에.)

106027 #1 겨울 바지만. 숨 놓고 저고리도 숨 놔근에.(겨울 바지만. 숨 놓고 저고리도 숨 넣어서.)

106027 @ 옛날 겨울 바지는 굴중이렌 헛수과?(옛날 겨울 바지는 ‘굴중이’라고 했습니까?)

106027 #2 굴중이²⁷⁷⁾가 따로 있어. 바지 말고.(‘굴중이’가 따로 있어. 바지 말고.)

106027 #1 굴중인 속에 입는 게. 굴중이는 속치마 전에 입는 거야.(‘굴중이’는 속에 입는 게. ‘굴중이’는 속치마 전에 입는 거야.)

106027 #2 굴중이는, 바지는 이렇게 여기 좁잖아. 여기 좁게 만들앙 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질 만들고 중이엔 헌 거 이레 퍼져, 이디. 지금 저 치마바지 모양에. 지금 쉽게 말행 치마바지주게. 중이엔 헌 게. 굴중이, 굴중이 허는 게 요즘 치마바지 모양에 만들은 게 굴중이야.(‘굴중이’는, 바지는 이렇게 여기 좁잖아. 여기 좁게 만들어서 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질 만들고 중의라고 하는 게 이리 퍼져, 여기. 지금 저 치마바지 모양에. 지금 쉽게 말해서 치마바지지. 중의라고 하는 게. ‘굴중이’, ‘굴중이’ 하는 게 요즘 치마바지 모양에 만든 게 ‘굴중이’야.)

106027 #1 그 바지만 입영은 어디 확 못 나가도이 우이 굴중이 입으면 나갈 수 잇주게. 가까운 이 집안에선.(그 바지만 입고서는 어디 확 나가도 위에 ‘굴중이’ 입으면 나갈 수 있지. 가까운 이 집안에선.)

106027 #2 올레²⁷⁸⁾ 베짖디는 못 나가.(‘올레’ 밖에는 못 나가.)

277) ‘굴중이’는 여성들이 치마 속에 입는 통이 큰 중의를 말한다.

106027 #1 올레 바깥 딴 안 나가도 바지만 입어도 집안에서도 못 텡기주만은 굴중이 입영은.(‘올레’ 밖에는 안 나가도 바지만 입어도 집안에서도 못 다니지만 ‘굴중이’ 입어서는.)

106027 #2 마당엔 나왕 텡기주게.(마당에는 나와서 다니지.)

106027 #1 이디가 넓으니까.(여기가 넓으니까.)

106027 @ 이렇게 벨라젓텐 험디다예.(이렇게 벌어졌다고 함디다.)

106027 #1 벨라진 건 아니고. 굴중인 벨라지지 안허여. 굴중인 밋 다 쥐 불어. 바지가 벨라지지.(벌어진 건 아니고. ‘굴중이’는 벌어지지 않아. ‘굴중이’는 밋 다 기워 버려. 바지가 벌어지지.)

106027 #2 바지가 벨라지주. 벨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바지가 벌어지지. 벌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

106027 #1 벨라지게 안 허영 다 쥐 불어, 그냥.(벌어지게 안 하고 다 기워 버려, 그냥.)

106027 #2 지금 치마바지 모양이엔 허난.(지금 치마바지 모양이라고 하니까.)

106027 @ 거기도 감물 들영 입고예?(거기도 감물 들여서 입고요?)

106027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27 #1 감물 들이는 건 굴중이엔 허영 허는디 이 바지 입꼭 고장중이가 있어 이. 죽으면 고장중이 소곱에 입영, 소곱에 고장중이 입영 바지 입히더라이. 먼저 고장중이엔 현 거 입형, 소중이 입형 고장중이 입히고 그다음 바지 입형. 그다음 바지 입형 속치마, 아니 바지가 두 개라라이. 두 개나 고장중이로구나이.(감물 들이는 건 ‘굴중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 바지 입고 고쟁이가 있어. 죽으면 고쟁이 속에 입고, 속에 고쟁이 입고 바지 입히더라. 먼저 고쟁이라고 하는 거 입혀서, 속곳 입혀서 고쟁이 입히고 그다음 바지 입혀서. 그다음 바지 입혀서 속치마, 아니 바지가 두 개더라. 두 개나 고쟁이로구나.)

106027 #2 두 개난 중이허고 바지지게.(두 개니까 중의하고 바지지.)

106027 #1 두 개난 속치마로 입형 또 걸치마 입히고. 치마도 두 개. 호상 입힐 때.(두 개니까 속치마로 입혀서 또 걸치마 입히고. 치마도 두 개. 수의 입힐 때.)

106027 @ 치마 두 개?(치마 두 개?)

106027 #1 두 개.(두 개.)

106027 @ 속치마허고 그냥 치마?(속치마하고 그냥 치마?)

106027 #1 으. 속치마는 옷 폭에 허고이 곁에 입는 건 으답 폭에 헛더라. 멍주 으답 폭. 두 폭을 더 놓아.(으. 속치마는 여섯 폭에 하고 곁에 있는 건 여덟 폭에 헛더라. 명지 여덟 폭. 두 폭을 더 놓아.)

106027 #2 경 헤야주게.(그렇게 해야지.)

106027 @ 여섯 폭 속치마.(여섯 폭 속치마.)

106027 #1 여섯 폭 속치마, 걸치마는 여덟 폭.(여섯 폭 속치마, 걸치마 여덟 폭.)

278)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106027 @ 여덟 폭예?(여덟 폭요?)

106027 #1 으, 겐 글루후젠 장옷 입혀.(으, 그래서 그 후에 장옷 입혀.)

106027 @ 옛날에 몸빼 나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바지 입혔수과? 굴중이 아니?(옛날에 몸빼 나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바지 입혔습니까? ‘굴중이’ 아니?)

106027 #2 굴중이 주로 입었주게, 굴중이.(‘굴중이’ 주로 입었지, ‘굴중이’.)

106027 #1 굴중이는 거 산 때, 산 때 우리 큰어머니가 굴중이 잘 입영 다녀, 보민. 우리 어머니는 굴중이 입는 것을, 항상 집에서도 치말 입어.(‘굴중이’는 거 산 때, 산 때 우리 큰어머니가 ‘굴중이’ 잘 입고 다녀, 보면. 우리 어머니는 ‘굴중이’ 입는 것을, 항상 집에서도 치마를 입어.)

106027 @ 밧디 갈 땐 뒤편 입어마씨?(밭에 갈 땐 뒤편 입어요?)

106027 #1 밧디 갈 때도 밧디 가는 치마가 또 있지. 치말 입어.(밭에 갈 때도 밧디 가는 치마가 또 있지. 치마를 입어.)

106027 @ 밧디 갈 때도 치마 입어?(밭에 갈 때도 치마 입어?)

106027 #1 으, 치마 입어. 갈중이²⁷⁹⁾ 우이 치마 입지.(으, 치마 입어. ‘갈중이’ 위에 치마 입지.)

106027 #2 옛날에 꼭 치마 입어야 돼여.(옛날에 꼭 치마 입어야 돼.)

106027 #1 우리 집인이 아버지 친구덜이 자꾸 저기 땡기는 때문에 바지 바람에 다니지 못해. 남자분덜이 자주 다니난.(우리 집은 아버지 친구들이 자꾸 저기 다니는 때문에 바지 바람에 다니지 못해. 남자분들이 자주 다니니까)

106027 #2 옛날 어른덜은 치말 꼭 입는디 밧에 강 일허젠 허면은 치말 이렇게나 이 옷 허듯이 영 걷어근에 이추룩 허여근에 이렇게 해 낡.(옛날 어른들은 치마를 꼭 입는데 밧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치마를 이렇게나 이 옷 하듯이 이렇게 걷어서 이처럼 해서 이렇게 해 놔서.)

106027 @ 겐 그 속에는 굴중이 입었네?(그래서 그 속에는 ‘굴중이’ 있었네?)

106027 #2 으.(으.)

106027 #1 굴중이냐, 갈중이지. 갈중이. 갈중이 입영 밧디 감지.(‘굴중이’냐, ‘갈중이’지. ‘갈중이’. ‘갈중이’ 입어서 밧에 가지.)

106027 #2 그 저.(그 저.)

106027 @ 굴중이 굴중이 허난 난 또 폭이 넓은 거?(‘굴중이’ ‘굴중이’ 하니까 난 또 폭이 넓은 거?)

106027 #2 아니, 아니. 이 폭넓은 거 입으면 영 걷당도 걸리고 일을 못 허지.(아니, 아니. 이 폭넓은 거 입으면 이렇게 걷다가도 걸리고 일을 못 하지.)

106027 @ 건 이름이 뭐파? 폭넓은 거?(건 이름이 뭐니까? 폭넓은 거?)

106027 #1 게난 그게 굴중인디 굴중이 입는 사람이 경 많질 안해. 그 누게 골 할망 굴중이 잘 입영 땡겇잖아. 늙은 할망이난.(그러니까 그게 ‘굴중이’인데 ‘굴중이’ 입는 사람이 그렇게 많질 않아. 그 누구 골 할머니 ‘굴중이’ 잘 입고 다녔잖아. 늙은

279) ‘갈중이’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말한다.

할머니니까.)

106027 #2 으.(으.)

106027 #1 굴중이 입영 나이 드니까 바깥에도 훌훌 다니고이. 계단 어디 갈 때만 치말 똑 우티 입영. 켄디 그거 입는 사람이 경 드물어.(‘굴중이’ 입고 나이 드니까 바깥에도 훌훌 다니고. 그러다가 어디 갈 때만 치마를 꼭 위에 입고. 그런데 그거 입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

106027 @ 흰 색깔로?(흰 색깔로?)

106027 #1 으, 흰 색깔로. 굴중이 입는 사람이 동네민 뗏 어른 실까?(으, 흰 색깔로. ‘굴중이’ 입는 사람이 한 동네면 몇 어른 있을까?)

106027 #2 뗏 었어.(뗏 없어.)

106027 @ 계민 저 요즘 몸빼 같은 식으로 해영 여기 곰 들앙 그냥 입었구나예. 고무줄 놓기 전에?(그럼 저 요즘 몸빼 같은 식으로 해서 여기 고름 달아서 그냥 입었군요. 고무줄 놓기 전에?)

106027 #2 으, 으. 갈중이라고 감 들여 가지고, 감 들여 가지고. 그 미녕에 감물 들영.(으, 으. ‘갈중이’라고 감 들여 가지고, 감 들여 가지고. 그 무명에 감물 들여서.)

106027 #1 건 일혈 때만 주로 입주만은 겨울에 일허레 안 갈 땐 바지 입영 치마 입영 다니주게.(건 일할 때만 주로 입지만 겨울에 일하러 안 갈 때는 바지 입고 치마 입고 다니지.)

106027 #2 게메, 일허레 갈 땐 그런 감물 들인 바지 입영 가고.(글쎄, 일하러 갈 때는 그런 감물 들인 바지 입고 가고.)

106029 @ 이제 단추에 종류? 믱작단추?(이제 단추에 종류? 매듭단추?)

106029 #2 주로 옛날에 믱작단추.(주로 옛날에 매듭단추.)

106029 #1 그 감옷에 그 밧디 가는 옷 우이 거.(그 감옷에 그 밧에 가는 옷 위에 거.)

106029 #2 단추도 귀헌 게 옛날은 단추도 경.(단추도 귀한 게 옛날은 단추도 그렇게.)

106029 #1 남자 건 아니고 여자 것만.(남자 건 아니고 여자 것만.)

106029 #2 종류가 여라 가지 나오지도 안허곡게.(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지도 않고.)

106029 @ 아, 남자 건 안 헛구나예?(아, 남자 건 안 했군요?)

106029 #1 남자 건 그냥 단추 돌아.(남자 건 그냥 단추 달아.)

106029 #2 남자는 믱작단추 아니 들앙 고름.(남자는 매듭단추 아니 달고 고름.)

106029 @ 무사파?(웁니까?)

106029 #2 아메도 남잔.(아무래도 남잔.)

106029 #1 마고자엔 단추 드네.(마고자엔 단추 다네.)

106029 #2 게메 마고자엔 들지. 마고자 쪼끼엔 들지.(글쎄 마고자에는 달지. 마고

자 조끼엔 달지.)

106029 #1 마고자 마고자는 이 호주머니 양쪽에 이신 건 마고자엔 허고 고름 들
앙 허는 건 이 게와가 없어. 이런 게와가.(마고자 마고자는 이 호주머니 양쪽에 있
는 건 마고자라고 하고 고름 달아서 하는 건 이 주머니가 없어. 이런 주머니가.)

106029 #2 호주머니가 엇주게.(호주머니가 없지.)

106029 #1 호주머니가 없어. 마고자엔 헛 옷은 일로 영 달라 똥 허니까 마고자엔
헤이. 이거 닳은 거이.(호주머니가 없어. 마고자라고 하는 옷을 이리로 이렇게 도려
두고 하니까 마고자라고 해. 이거 같은 거.)

106029 @ 마고자보다는 쪼꼴 더 입지 안헐예?(마고자보다는 조끼를 더 입지 않
았어?)

106029 #1 마고자 입는 사람은 쪼꼴 덜 입어. 마고자에 호주머니 있으니까 간편
허지. 적삼 우이 마고자 입으민.(마고자 입는 사람은 조끼를 덜 입어. 마고자에 호
주머니 있으니까 간편하지. 적삼 위에 마고자 입으면.)

재단과 염색

106031 @ 염색은 아이 때도 예쁜 색을 좋아하잖아예?(염색은 아이 때도 예쁜 색
을 좋아하잖아요?)

106031 #1 그렇지.(그렇지.)

106031 @ 검은 물 들인 거는 언제부터파?(검은 물 들인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106031 #2 검정 물 들인 거는.(검정 물 들인 거는.)

106031 @ 어디서 사당 그 검정 물 들여마씨?(어디서 사다가 그 검정 물 들여
요?)

106031 #2 글썄 검정 물이 어디서 나왕.(글썄 검정 물이 어디서 나와서.)

106031 #1 거 장에 가민 검은 물 폭는 디가 잇어이.(거 장에 가면 검은 물 파는
데가 있어.)

106031 #2 어, 물감이 폭는 디가 잇어.(어, 물감 파는 데가 있어.)

106031 #1 물감 폭는 디가 어디 그 누게 말이 무신 물감 어디 강 산딘 허난 ○
○이가 경 골아냐?(물감 파는 데가 어디 그 누구 말이 무슨 물감 어디 가서 샀냐고
하니까 ○○이가 그렇게 말해냐?)

106031 #2 으으, 사단 이젠 다 들이는데 옛날 말허는 거지게.(으으, 사다가 이젠
다 들이는데 옛날 말하는 거지.)

106031 #1 옛날도 물감허는 거 비슷허지.(옛날도 물감하는 거 비슷하지.)

106031 #2 옛날엔 물감이 이만한 통에다가 가루로, 물감이 가루로 똥영 나왔어.
얼마 주십서 허면은 무슨 숟갈로 숟갈로 행 주더라고.(옛날엔 물감이 이만한 통에다
가 가루로, 물감이 가루로 돼서 나왔어. 얼마 주십시오 하면 무슨 숟가락으로 숟가
락으로 해서 주더라고.)

106031 #1 그거 거리는 숯갈로.(그거 뜨는 숟가락으로.)

106031 #2 몸빼는 몸빼 헉나 들일 거우다 허면은 그 물감 푸는 사람이 알아 가지고 하나민 하나, 두 개민 두 개 그렇게 행 주더라고.(몸빼는 몸빼 하나 들일 겁니다 하면 그 물감 파는 사람이 알아 가지고 하나민 하나, 두 개민 두 개 그렇게 해서 주더라고.)

106030 @ 옷감 손질은, 빨래는 어떻 헛수과? 비누도 없잖아예?(옷감 손질은, 빨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누도 없잖아요?)

106030 #2 비누 난 지도 오래지 안헛주게.(비누 난 지도 오래지 았았지.)

106030 #1 아니, 우리 때엔 그냥 낫어. 우리 난 때부터 비누 봐져.(아니, 우리 때에는 그냥 낫어. 우리 난 때부터 비누 볼 수 있어.)

106030 #2 우리 커 올 땐 비누 엇엇저게, 야인.(우리 커 올 때는 비누 없었어, 았는.)

106030 #1 겐 뭇에 빨아. 비누 엇이민.(그래서 뭇에 빨아. 비누 없으면.)

106030 #2 잿국²⁸⁰⁾ 헛네, 잿국.(‘잿국’ 헛어, ‘잿국’.)

106030 #1 재로 빨아?(재로 빨아?)

106030 #2 으. 재 미지근헌 물에 타근앵에, 타근앵에 영 확확 젓어근앵에 툄라근에 그 물에 등갓다근에 빨고 그 무시거라. 광목 빨아근에 때 아이 진 것도 썩은 오줌에 등갓다근에 삶앙 빨곡 허드라, 우리 어머니 옛날에. 비누 난 지 오래지 안헛어. 침에 비누 난 지가 오래지 안헛는데 맨 처음에 비누가 어떤 비누 나왔냐 허면은 감자 비누가 나왔어. 감자 비누.(으. 재 미지근한 물에 타서, 타서 이렇게 확확 젓어서 따라서 그 물에 담갓다가 빨고 그 뭇야. 광목 빨아서 때 아니 진 것도 썩은 오줌에 담갓다가 삶아서 빨고 하더라, 우리 어머니 옛날에. 비누 난 지 오래지 았았어. 처음에 비누 난 지가 오래지 았았는데 맨 처음에 비누가 어떤 비누 나왔냐 하면 고구마 비누가 나왔어. 고구마 비누.)

106030 #1 으, 감자 비누는 생각나는데 경 그 잿국 허는 건 생각이 안 남서.(으, 고구마 비누는 생각나는데 그렇게 ‘잿국’ 하는 건 생각이 안 나.)

106030 #2 우리 어멍 잿국 잘해낫어. 아부지 옷뿐만 아니고 우리 하르부지가 셋 아부지네 집이 살아신디 우리 셋어머니가 바느질 솜씨가 엇어게. 솜씨 엇영 덜렁덜렁해근에 곱게 한복을 못 해.(우리 어머니 ‘잿국’ 잘헛엇어. 아버지 옷뿐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아버지네 집에 살았는데 우리 둘째어머니가 바느질 솜씨가 없어. 솜씨 없어서 덜렁덜렁해서 곱게 한복을 못 해.)

106030 #1 우리도 아버지가 흰옷을 향교 출입허니까 쪽 입어신디 그 빨래허는 건 모르크라. 우리 어무니가 어떻행 그걸 그거 기억은 안 나네. 그거 해난 기억은. (우리도 아버지가 흰옷을 향교 출입하니까 쪽 입었는데 그 빨래하는 건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어떡해서 그걸 그거 기억은 안 나네. 그거 헛던 기억은.)

106030 #2 게민 우리 하르부지 옷을 주로 우리 어무니가 가져다근에 빨아근에 푸답해영 한복을 끼왕 내놓앙 헛신디. 우리 하르부지가 워낙 까다로왕. 겨난 우리

280) ‘잿국’은 불타고 난 재를 물에 탄 것을 말한다.

어머님이 시집오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옷을 놓 빌영 자꾸 허여낫젠. 허단 우리 어머니 오난 우리 어무니신디 허렌 앓단 메껴렌. 계난 우리 어머니가 마탕 허기 시작허영 우리 어머니가 허영 내치난에 하르부지가 경.(그럼 우리 할아버지 옷을 주로 우리 어머니가 가져다가 빨아서 푸새해서 한복을 끼워서 내놓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워낙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시집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옷을 놓 빌려서 자꾸 했었다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오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하라고 가져다가 맡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맡아서 하지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가 해서 내치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106030 #1 거 놓 빌영 허는 건 옷**이지게.(거 놓 빌려서 하는 건 옷**이지.)

106030 #2 게메 웃웃. 웃웃덜 두루막 ㄴ튼 거.(글쎄 웃웃. 웃웃들 두루마기 같은 거.)

106030 #1 ○○네, 허○○네 큰고모가 살림 안 살앙 홀어멍 뉘난 죽은방에 왕 살 앓어. 그 어른이 경 바느질 잘해여. 일덜 허젠 허민 다 가. 게민 홀홀 행. 흥를, 어떤 땐 밤 부짱 두 개 헌텐 해.(○○네, 허○○네 큰고모가 살림 안 살고 홀어머니 되니까 작은방에 와서 살았어. 그 어른이 그렇게 바느질 잘해. 일들 하려고 하면 다 가. 그럼 홀홀 해서. 하루, 어떤 땐 밤 붙여서 두 개 한다고 해.)

106030 #2 그렇지게.(그렇지.)

106030 #1 경행 내치곡 내치곡. 이 멍질이나 돌아와 가민 막 그냥 옷ㄴ숨이 잘 도.(그래서 내치고 내치고. 이 멍질이나 돌아와 가면 마구 그냥 옷감이 아주.)

106030 #2 계난 우리 어머니도 바빠. 하르부지 옷이영 몬딱 행 내놓젠 허민. 다 손으로 거 뒷바농질할 건 뒷바농질허고.(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바빠. 할아버지 옷 이랑 모두 해서 내놓으려고 하면. 다 손으로 거 박음질할 건 박음질하고.)

신발

106032 @ 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발은 옛날에 어떤 종류가 있었수파?(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발은 옛날에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06032 #1 나도 나막신을 하나 신어놔수다. 우리 아버지가 멘들아 쥘.(나도 나막신을 하나 신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줬어.)

106032 @ 나막신 잇엇고. 찢신 잇엇고.(나막신 있었고, 찢신 있었고.)

106032 #2 찢신 잇엇고.(찢신 있었고.)

106032 #1 찢신도 신어나고.(찢신도 신었었고.)

106032 #2 찢신 주장 신엇주게. 나막신은 저 비 올 때.(찢신 주로 신었지. 나막신은 저 비 올 때.)

106032 #1 비 올 때만.(비 올 때만.)

106033 @ 가죽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가죽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3 #1 가족신은 안 신어 본디 나가 야네 시아버님 가족신을 신영 텡겔더라. 옛날에. 야네 시아버님이 그런 걸 잘헤여. 가족으로 텡 거. 가족 보선도 신영 텡기고.(가족신은 안 신어 봤는데 내가 애네 시아버님 가족신을 신고 다니고 있더라. 옛날에 애네 시아버님이 그런 걸 잘해. 가족으로 된 거. 가족 버선도 신고 다니고.)

106033 #2 그거 만드는 내용은 모르크라.(그거 만드는 내용은 모르겠어.)

106033 @ 모르고.(모르고.)

106033 #1 야이 시집 안 간 때니까게.(애 시집 안 갔을 때니까.)

106033 #2 아이 간 때고 우린 친정아부진 일본서 살단 왕 그런 거 안 행. 만드는 것도 안 봐 보고.(아니 간 때고 우린 친정아버진 일본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 거 안 하고. 만드는 것도 안 봐 보고.)

106033 #1 친정아부지 아니고 시아방. 나가 그 집 올레로만 자꾸 다니난 출 시끄멍.(친정아버지 아니고 시아버지. 내가 그 집 ‘올레’로만 자꾸 다니니까 풀 실으먼서.)

106033 @ 근텐 친정아버지나 시아버지는 그런 거 안 신어 봤고예?(그런데 친정아버지나 시아버지는 그런 거 안 신어 봤고요?)

106033 #1 으.(으.)

106033 @ 그른 보통 양반덜도 째신을 신었다는 거예?(그럼 보통 양반들도 째신을 신었다는 거요?)

106033 #1 응.(응.)

106034 @ 나막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아부지나 시아버지 나막신 만드는 거 안 봐 봅디가?(나막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아버지나 시아버지 나막신 만드는 거 안 봐 봅디까?)

106034 #2 아니, 친정아버지도 나막신을 만들어놔주게. 나막신은 나무때기 요만 째 훑은 거 비어다가.(아니, 친정아버지도 나막신을 만들었었지. 나막신은 나무때기 요만큼 째 굵은 거 베어다가.)

106034 #1 그 자기 몽수²⁸¹⁾만씩 째라.(그 자기 ‘몽수’만큼씩 째라.)

106034 #2 요만큼씩 째라. 자기 발에 맞게 맞창 째라근에게 이젠 그 기구 해근에 그 가운데 파. 발 들어갈 디를, 파고 이 옆어 낱 등땡이론 또 발을 만들어. 이 가운데 요 앞에 흥뽀 노프고 이 뒤에 노프고 허게 행은에 가운데 째라근에 다 떼껴 붙어. 계근에게 허민 앞발도 잇고 뒷발도 잇잖아. 계민 이 가운데 파근에게, 그 기구로 막 파근에 그 발 모양으로, 발 모양으로 발 치수에 맞춰근에게 발 들어가게끔 파근에게. 겐 이 앞에는 뽀족이 코를 만들어. 모양으로 고무신 코 모양에.(요만큼씩 째라. 자기 발에 맞게 맞춰서 잘라서 이젠 그 기구 해서 그 가운데 파. 발 들어갈 데를, 파고 그 옆어 봐서 등때기로는 또 발을 만들어. 이 가운데 요 앞에 조금 높고 이 뒤에 높고 하게 해서 가운데 잘라서 다 던져 버려. 그래서 하면 앞발도 잇고 뒷발도 잇잖아. 그럼 이 가운데 파서, 그 기구로 마구 파서 그 발 모양으로, 발 모양

281) ‘몽수’는 신발의 사이즈를 말한다.

으로 발 치수에 맞춰서 발 들어가게끔 파서. 그래서 이 앞에는 뽕족이 코를 만들어. 모양으로 고무신 코 모양에.)

106034 #1 고무신 ㄱ추룩게.(고무신처럼.)

106034 #2 고무신 코 모양에. 이제 만들아근에 불에 그 무슨 췌, 췌 닳은 거 구워근에.(고무신 코 모양에. 이제 만들어서 불에 그 무슨 쇠, 쇠 닳은 거 구워서.)

106034 #1 윤디, 윤디.(인두, 인두.)

106034 #2 윤디엔 현 거 구워근에게 바삭바삭 영 톰툼이 그 모양을 내야.(인두라고 하는 거 구워서 바삭바삭 이렇게 톰툼이 그 모양을 내야.)

106034 #1 모양도 넓고 신도 질기고 곱곡게, 색깔이.(모양도 내고 신도 질기고 곱고, 색깔이.)

106034 #2 곱고, 기여게. 경혜근에 주윳 우리도 신어낫주게.(곱고, 그래. 그래서 기워서 우리도 신었었지.)

106034 #1 우리 아버지 헐 충 모른디 우린 그 오촌 도남²⁸²⁾ 삼촌이 그거 잘행 우리 거 행 가정 오민 돈 흥뽀 주주게. 주곡 또 ○○이 하르부지 잘해. 남박신을 잘도 잘해여. 해연 폴아 폴아. 낭 해다근에.(우리 아버지 할 줄 모르는데 우린 그 오촌 도남 삼촌이 그거 잘해서 우리 거 해서 가지고 오면 돈 조금 주지. 주고 또 ○○이 할아버지 잘해. 나막신을 아주 잘해. 해서 팔아, 팔아. 나무 해다가.)

106034 #2 우린 폴진 안해도 집잇 것들은.(우린 팔지는 않아도 집의 것들은.)

106034 #1 목수난게.(목수니까.)

106034 #2 응, 목수 때난 셋아버지영덜 막 모다들영 만들아근에.(응, 목수 때니까 들째아버지랑 마구 모여들어서 만들어서.)

106034 #1 느네 아버지도 목수 아니라, 무사?(너희 아버지도 목수 아니야, 왜?)

106034 #2 응게. 겐 만들앙덜 모다들영 만들앙덜 행 신어낫주게.(응. 그래서 만들어서들 모여들어서 만들어서들 해서 신었었지.)

106034 #1 우리 아버지 그런 건 일절 허젠도 안 허고 헐 충도 모르고, 겐 스촌도 해 오고 오촌 조카도 해 오민 식구덜 건 다 해.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 배다. 아이고, 비 올 때쯤 그냥 벗어 노민 왕그랑해²⁸³⁾.(우리 아버지 그런 건 일절 하려고도 안 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사촌도 해 오고 오촌 조카도 해 오면 식구들 건 다 해.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 배다. 아이고, 비 올 때쯤 그냥 벗어 놓으면 ‘왕그랑해’.)

106034 @ 누구, 누구 건지 알아져마씨?(누구, 누구 건지 알 수 있어요?)

106034 #1 몽수로 알지.(‘몽수’로 알지.)

106034 #2 다 몽수가 잇으니까.(다 ‘몽수’가 있으니까.)

106034 @ 적영 놔뉘?(적어서 놔뉘?)

106034 #1 안 적어도 이녁 신 다 알아.(안 적어도 자기 신 다 알아.)

282) ‘도남’은 제주시 도남동을 말한다.

283) ‘왕그랑허다’는 많은 물건이 정돈되지 않고 어수선하고 엉성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6034 #2 영 보르게 발 큰 거 잇고, 작은 거, 중간에 거 잇고 경혀주게.(이렇게 보면 발 큰 거 잇고, 작은 거, 중간의 거 잇고 그렇지.)

106034 @ 그게 꼭 필요해마씨? 짚신 젓어 불민 막?(그게 꼭 필요해요? 짚신 젓어 버리면 아주?)

106034 #2 젓어 불민 썩어 불어근에.(젓어 버리면 썩어 버려서.)

106034 #1 늘 썩어 불민 끊어져 불어.(날 썩어 버리면 끊어져 버려.)

106034 #2 썩어근에 빨리 떨어져 불주기게. 경허기 때문에 날 우친²⁸⁴ 때는 꼭 나막신을 신어야 돼.(썩어서 빨리 떨어져 버리지. 그렇게 때문에 날 ‘우친’ 때는 꼭 나막신을 신어야 돼.)

106034 @ 아.(아.)

106034 #1 마당에 물이 이만씩 해도 거 신영.(마당에 물이 이만큼씩 해도 거 신고.)

106034 #2 짚신은 벅대로 허기 때문에 물에만 갔다 허민 썩어. 그냥 떨어져 부는 때문에.(짚신은 벅짚으로 하기 때문에 물에만 갔다 하면 썩어. 그냥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106034 #1 떨어져 불른 내불주게 새것도 늘 끊어져 불고.(떨어져 버리면 내버리지. 새것도 날 끊어져 버리고.)

106034 @ 나막신은 거 어디다 놔마씨?(나막신은 거 어디에다 놔요?)

106034 #2 으?(으?)

106034 @ 어디다 놔뒀?(어디다 놔뒀?)

106034 #1 그냥 무똥²⁸⁵에 벗어.(그냥 ‘무똥’에 벗어.)

106034 @ 하도 사람이 많으면 너무 많잖아.(하도 사람이 많으면 너무 많잖아.)

106034 #1 게, 막 옆더레 막 챙기지. 이 옆더레.(그래, 마구 옆으로 마구 챙기지. 이 옆으로.)

106034 #2 게, 문 앞이 막 널르주게. 겐 문 앞이 신발이 쪽 잇주기.(그래, 문 앞이 아주 넓지. 그래서 문 앞에 신발이 쪽 있지.)

106034 @ 나막신 맨발로 신으쿠다예, 거의?(나막신 맨발로 신겠네요, 거의?)

106034 #2 맨발로도 신고.(맨발로도 신고.)

106034 #1 양말도 신고 보선도 신영 신고.(양말도 신고 버선도 신어서 신고.)

106034 #2 주로 옛날은 보선을 주로 신언.(주로 옛날은 버선을 주로 신었어.)

106034 #1 코도 싯곡 허난 코에 그 보선코가 딱 올라와. 남박신 잘도 이빠.(코도 있고 하니까 코에 그 버선코가 딱 올라와. 나막신 아주 예빠.)

106034 #2 응. 나막신도 보선코 모양으로 코로 만들어.(응. 나막신도 버선코 모양으로 코로 만들어.)

106034 #1 곱게 헨 사람은 잘도 곱게 해영 신어.(곱게 한 사람은 아주 곱게 해서

284) ‘우치다’는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285) ‘무똥’은 ‘무똥’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신어.)

106034 @ 뱃겨지고 경 안헤마씨?(뱃겨지고 그렇지 않아요?)

106034 #2 아니, 경 안헤여.(아니, 그렇지 않아.)

106034 #1 겐디 그 서툴게 헨 사람은 막 여기 뱃겨정 피도 나곡 경헤.(그런데 그 서툴게 하는 사람은 아주 여기 뱃겨져서 피도 나고 그래.)

106034 #2 경허여.(그래.)

106034 #1 맨발로 신으민 여기 뱃경 피 나고.(맨발로 신으면 여기 뱃겨서 피 나고.)

106034 #2 나막신도 막 여러 가지라, 막 곱게 행은에 얄따랗게 헤근에 막 모양 내명 코 앞에다가 줄을 짹짹 그어 놓고. 막 꽃 모양으로 행은에 예쁘게 만들앙은에 얄따랗게 헤근에게 헤영 헉는 것도 있고. 그냥 무테기로 그냥 헤영 모양 엇어 행도 신는 사람이 있고.(나막신도 아주 여러 가지야. 아주 곱게 해서 얹게 해서 마구 모양 내면서 코 앞에다가 줄을 짹짹 그어 놓고. 마구 꽃 모양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얄따랗게 해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무더기로 그냥 해서 모양 없이 해서도 신는 사람이 있고.)

106034 @ 하나에 얼마 헨 건 기억 안 남수과? 주위에서 만들앙 줏다는 거지예? (하나에 얼마 한 건 기억 안 납니까? 주위에서 만들어서 줏다는 거지요?)

106034 #1 나가 사는 걸 봐나질 안헤서이. 나도이 우리도 오촌.(내가 사는 걸 봤었지 않아서. 나도 우리도 오촌.)

106034 #2 얼마 헨 건 몰라.(얼마 한 건 몰라.)

106034 #1 형님 남박신 다 헤시메 가져갑서, 허민 나 골체 아정 강 골체에 세 개씩 담앙 와난 건 알아지크라. 골체 영 똥 주는 골체 잇어이. 알아?(형님 나막신 다 했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면 나 삼태기 가지고 가서 삼태기에 세 개씩 담아서 왔던 건 알겠어. 삼태기 이렇게 똥 줍는 삼태기 있어. 알아?)

106034 @ 예게.(예.)

106034 #1 것에 강 남박신 세 개씩 아정 아버지영 강 가정 오는 건 헨디 돈 주는 건 모르크라. 얼마 준 건.(것에 가서 나막신 세 개씩 가지고 아버지랑 가서 가지고 오는 건 했는데 돈 주는 건 모르겠어. 얼마 준 건.)

106034 @ 먹을 거라도?(먹을 거라도?)

106034 #1 그냥 아무것도 헉뎡도 안 주진 안허지. 암만 스촌이라도 뭐 줘야지. (그냥 아무것도 헉뎡도 안 주진 않지. 아무리 사촌이라도 뭐 줘야지.)

106034 #2 뭐 줘실 거라게.(뭐 줏을 거야.)

106034 #1 아무걸로 줘도 줘야지.(아무걸로 줘도 줘야지.)

106035 @ 그른 짚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신, 짚신 뭇렌 불렀수과?(그럼 짚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신’, ‘짚신’ 뭇라고 불렀습니까?)

106035 #2 나막신은 남신이엔 허곡게.(나막신은 ‘남신’이라고 하고.)

106035 @ 으.(으.)

106035 #2 초신은 저 벧집으로 짠 신은 초신이엔 허고게.('초신'은 저 벧짚으로 짠 신은 '초신'이라고 하고.)

106035 @ 집신을 초신이엔 헛주예?(짚신을 '초신'이라고 했지요?)

106035 #2 으. 원래 초신이엔.(으. 원래 '초신'이라고.)

106035 #1 초신이엔 허고이. 그 초신에도이 영 그 툃각²⁸⁶⁾ 베병 이쁘게 삼은 신이 있어이. 거는이 툃각신²⁸⁷⁾이엔 헤여.('초신'이라고 하고. 그 짚신에도 이렇게 그 '툃각' 비벼서 예쁘게 삼은 신이 있어. 거는 '툃각신'이라고 해.)

106035 @ 툃?('툃'?)

106035 #1 툃각. 각 새로 냥, 그디서 영 삼으멍 헌 게 아니고 각을.('툃각'. 총 새로 내서, 거기서 이렇게 삼으면서 한 게 아니고 총을.)

106035 #2 따로.(따로)

106035 #1 따로 헛당 부친 거니까 툃각신, 툃각신. 그거는 막 새 메누리나 쥐이. 새 메누리나 헤 오민 쥐. 툃각신.(따로 했다가 붙인 거니까 '툃각신', 판총박이. 그거는 아주 새 며느리나 쥐. 새 며느리나 헤 오면 쥐. 판총박이.)

106035 #2 그 신은 친정 하르부지가 잘도 예쁘게 짜이.(그 신은 친정 할아버지가 아주 예쁘게 짜.)

106035 #1 건 비싸, 건 비싸.(건 비싸, 건 비싸.)

106035 #2 건디.(그런데.)

106035 #1 공도 들고.(공도 들고.)

106035 #2 그런 건 색시덜이나.(그런 건 색시들이나.)

106035 @ 새각시?(새색시?)

106035 #1 새 메누리 헤 오민 그 신을 쥐이, 우리가.(새 며느리 헤 오면 그 신을 쥐, 우리가.)

106035 #2 친정 하르부진 팔월 추석 때고 정월 멧질 돌아오민이 꼭 우리 어머니 거하고 나하고 두 갓, 두 벨 헤근에 짜근에게 만들아근에, ○○이 셋아버지네영 사난.(친정 할아버진 팔월 추석 때고 정월 멧질 돌아오면 꼭 우리 어머니 거하고 나하고 두 개를, 두 배를 해서 짜서 만들어서, ○○이 둘째아버지네랑 사니까.)

106035 #1 으.(으.)

106035 #2 셋어머니 아무도 모르게 영 두루막 소굽에 감추와근에 곱정 왕 주더라.(둘째어머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두루마기 속에 감춰서 숨겨서 와서 주더라.)

106035 #1 할아버지가?(할아버지가?)

106035 #2 으.(으.)

106035 #1 아고, 손지덜 으라 개난이.(아이고, 손주들 여러 개니까.)

286) '툃각'은 짚신을 만들 때 별도로 끈 총을 말한다. 또는 총을 따로 꼬아 붙여서 삼은 짚신인 '툃각신(판총박이)'을 줄여서 '툃각'이라고 하기도 한다.

287) '툃각신'은 짚신의 한 종류로, 총을 따로 꼬아 붙여서 삼은 짚신을 말한다. 표준어의 '판총박이'에 대응한다.

106035 #2 하르부지 옷은 우리 어머니가 주로 한복행 드리고 푸답행 드리곡 허난 헌디사 계근에게 갖다 주드라. 계근에 누구ㄴ라 곤지 말렌, 느네벳기 안 삼아다 줘저 경허명.(할아버지 옷은 우리 어머니가 주로 한복해서 드리고 푸새해서 드리고 하니까 했는지 그래서 갖다 주더라.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너희밖에 안 삼아다 준다고 그러면서.)

106035 #1 아덜이 시 성제난게.(아들이 세 형제니까.)

106035 #2 응, 툇각신은 웨 툇각이엔 허느냐면 그 그냥 무대기로 신는 신은 이렇게 짜 가면서.(응, 판총박이는 왜 ‘툇각’이라고 하느냐면 그 그냥 무더기로 신는 신은 이렇게 짜 가면서.)

106035 #1 감아 가명.(감아 가면서.)

106035 #2 부튼 걸로 다이 각을 내는디, 그거는 벼 맨 꼭대기 속안에 거, 속안에 거 뽕아근에게 그거 부벼근에게 각을.(붙은 걸로 다 충을 내는데, 이거는 벼 맨 꼭대기 속의 거, 속의 거 뽕아서 그거 비벼서 충을.)

106035 #1 이렇게 보병 영 톡 오그리민 막 오그라지잖아. 이디 고망 영 흐뎡 나고 영 요만씩 허게.(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톡 오그리면 마구 오그릴 수 있잖아. 여기 구멍 이렇게 조금 나고 이렇게 요만큼씩 하게.)

106035 #2 막 실쩍ㄴ치 줌질게 해근에게 감앙 낫다근에 그 신 짜 가명 걸 부청 짜주게. 계난 툇각신이엔 허는 거.(마구 실같이 가늘게 해서 감아 낫다가 그 신 짜 가면서 걸 붙여서 짜지. 그러니까 판총박이라고 하는 거.)

106035 #1 그런 신이 ○○네 하르방, 진도서 온. 잘도 곱게 잘했어.(그런 신이 ○○네 할아버지, 진도에서 온. 아주 곱게 잘했어.)

106035 #2 우리 친정 하르부지 잘도.(우리 친정 할아버지 아주.)

106035 #1 잘도 곱게 허민이, 우리 벨미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멧질 돌아와 가민 그 할아버지 현 거 사다 준디 돈 준 건 모르크라. 늙의 하르방이난 돈 줘야주게. (아주 곱게 하면, 우리 벨미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멧질 돌아와 가면 그 할아버지 현 거 사다 줬는데 돈 준 건 모르겠어. 남의 할아버지니까 돈 줘야지.)

106035 #2 맞추게.(맞지.)

106035 #1 진도서 완 사니까.(진도에서 와서 사니까.)

106035 @ 아.(아.)

106035 #1 그 하르방네 올 때이, 진도서 할망 할르방이 와신디 허씨라. 하르부진 신초생이²⁸⁸⁾, 신 잘 삼으니까 신초생이 두 개, 초생이영 께는 거허고 눅드는 거 있어. 거 두 개만 가정오곡 또.(그 할아버지네 올 때, 진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허씨야. 할아버진 ‘신초생이’, 신 잘 삼으니까 ‘신초생이’ 두 개, ‘초생이’랑 께는 거하고 누르는 거 있어. 거 두 개만 가져오고 또.)

106035 #2 아정 완.(가지고 왔어.)

106035 #1 아정 완게, 자기 행장이난게.(가지고 왔어, 자기 행장이니까.)

288) ‘신초생이’는 짚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다.

106035 #2 행장이난.(행장이니까.)

106035 #1 할머니는 바늘상자. 바늘질을 잘하여게. 바늘상자 하나 이영 와근에 제일 오명 정존이²⁸⁹⁾ 이 동네를 왔덴. 게난 우리 시집이, 먼문간에 방 하나씩 잇잖아.(할머니는 반진고리. 바느질을 잘해. 반진고리 하나 이고 와서 제일 오면서 ‘정존이’ 이 동네를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집에, 문간채에 방 하나씩 잇잖아.)

106035 #2 그렇지.(그렇지.)

106035 #1 그 방 하나 빌영 거기서 사는데, 그 어른은 가을만 들어가민 우이 입는 후루메²⁹⁰⁾는 다른 거는 싸니까. 헌디 후루메는 비싸주게.(그 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사는데, 그 어른은 가을만 들어가면 위에 입는 ‘후루메’는 다른 거는 싸니까. 그런데 ‘후루메’는 비싸지.)

106035 #2 그렇지.(그렇지.)

106035 #1 후루메는 막 하영 갖다 주민 거 허민 돈이 많이 나와. 계곡 하르부진 신 삼는 것보다 걸름 내언게. 통세에, 뼌소에 걸름을 막 거 담양 낫당게, 소걸름 막 담안 낫단게 도새기 불르고 똥 싸곡 허민 보리 갈젠 허민 걸 내주게. 바깳더레 내 청은에 물 빠지민 밭디 시꺼 가니까 하르방은 그걸 주로 헛덴. 걸름 내는 거. 겨난 뭇 돈 버는 게 이거 뭇이.(‘후루메’는 막 많이 가져다 주면 거 하면 돈이 많이 나와. 그리고 할아버진 신 삼는 것보다 거름 냈어. 돼지우리에, 뼌소에 거름을 아주 거 담아 났다가, 소두엄 마구 담아서 났다가 돼지 밟고 똥 싸고 하면 보리 갈려고 하면 걸 내지. 바깳으로 내쳐서 물 빠지면 밭에 실어 가니까 할아버지는 그걸 주로 헛다고. 거름 내는 거. 그러니까 뭇 돈 버는 게 이거 뭇.)

106035 #2 그렇지.(그렇지.)

106035 #1 밥도 그디 강 얻어먹영 허곡.(밥도 거기 가서 얻어먹어서 하고.)

106035 #2 그렇지.(그렇지.)

106035 #1 주곡게. 경허난 경행 사는 어른이 이디 와근에 아들 시 개, 딸 두 개 오 남매 나고이. 그 하르부지가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어른이 여기 와서 아들 세 개, 딸 두 개 오 남매 낳고. 그 할아버지가.)

106035 @ 그 자손 여기서 살았수과?(그 자손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106035 #1 살아. 오 남매 나고 밭도 막 사곡.(살아. 오 남매 낳고 밭도 막 사고.)

106035 @ 무사 진도에서 안 살앙, 고향 버령 여기에 와신고예?(왜 진도에서 안 살고, 고향 버리고 여기에 왔는가요?)

106035 #1 진도가 아메도 흥꿈 어려우니까.(진도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니까.)

106035 #2 못사난 와실 테주게.(못사니까 왔을 테지.)

106035 #1 고산은 진도에 잇텐 해근에, 웃대 잇텐 번씩 성묘 가는 생이더라. 진도에.(선산은 진도에 있다고 해서, 웃대 있다고 한번씩 성묘 가는 모양이더라. 진도에.)

289) ‘정존이’는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의 하나다. ‘정존’이라고도 부른다.

290) ‘후루메’는 남자들이 겨울에 입는 겹옷을 말한다. 두루마기보다 짧으며 셔츠 없고 소매가 짧다.

106035 @ 동문시장 쪽에도 진도여, 완도여 많이 왔수다. 장사허는 사람덜 다. 해남에서도 많이 오고.(동문시장 쪽에도 진도다, 완도다 많이 왔습시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해남에서도 많이 오고.)

106035 #1 계난 그디서 왕은에 난 어른들이 잘도, 백 넘었지.(그러니까 거기서 와서 난 어른들이 아주, 백 넘었지.)

106035 #2 그렇지.(그렇지.)

106035 @ 그 신발은 진도나 여기나 똑같았다는 거다예?(그 신발은 진도나 여기나 똑같았다는 거네요?)

106035 #2 응. 똑같아실 거라.(응. 똑같았을 거야.)

106035 #1 그 어른 신초생이 허곡이.(그 어른 ‘신초생이’ 하고.)

106035 @ 신초생이.(‘신초생이’.)

106035 #1 신초생이 허곡 신 눅드는 거 있더라. 영 혜영 흥뽀 널븐 거. 그거 두 개 아정 왓텐 해.(‘신초생이’ 하고 신 누르는 거 있더라. 이렇게 해서 조금 넓은 거. 그거 두 개 가지고 왔다고 해.)

106035 @ 틀 닳은 거 아니, 어쨌든 그거?(틀 같은 거 아니, 어쨌든 그거?)

106035 #1 클이 아니고 클보다 흥뽀 넓지. 영 신 줄아 놔근에 치기 행 딱 영 뒀쓰민 겐로 똑똑 누르뜨러어야 이렇게 신이 뒀어. 오글랑헌 것이.(틀이 아니고 틀보다 조금 넓지. 이렇게 신 걸어 놓고 치기 해서 딱 이렇게 뒤집으면 겐로 똑똑 눌러야 이렇게 신이 돼. 오그랑헌 것이.)

106035 @ 저 동쪽허고는 이름이 다르다예. 툃각신이렌 말은 거기선 각신이렌 헛구나.(저 동쪽하고는 이름이 다르네요. ‘툃각신’이라는 말은 거기선 ‘각신’이라고 헛구나.)

106035 #1 툃각²⁹¹⁾.(‘툃각’.)

106035 @ 툃각.(‘툃각’.)

106035 #1 계난 따로 그 각을 영 이런 디 겐 따로 행 허니까 툃각이야.(그러니까 따로 그 총을 이렇게 이런 데 겐 따로 해서 하니까 ‘툃각’이야.)

106035 #2 따로 만들엇당 부치니까 툃각신이렌 헛어.(따로 만들었다가 붙이니까 판총박이라고 헛어.)

106035 #1 그냥 현 건 찹각신²⁹²⁾이엔 허여, 찹각신.(그냥 한 건 제총박이라고 해, 제총박이.)

106035 @ 초신.(초신)

106035 #1 번에 찹각신. 찹으로만 허는 거.(한번에 제총박이. 짚으로만 하는 거.)

106035 @ 자, 이번에는, 멧 살부터 찹신을 신은 거마씨? 애기 세 살, 네 살 때

291) ‘툃각’은 짚신을 만들 때 별도로 끈 총을 말한다. 또는 총을 따로 꼬아 붙여서 삼은 짚신인 ‘툃각신(판총박이)’을 줄여서 ‘툃각’이라고 하기도 한다.

292) 짚신을 만들 때 총을 따로 만들어 두지 않고 짚을 걸어 나가면서 총을 꼬아 삼은 짚신을 표준어로 ‘제총박이’라고 한다. 제주에서는 이를 ‘불각신’이라고 하는데, 노형에서는 ‘찹각신’이라고 하고 있다.

다 짚신을?(자, 이번에는, 몇 살부터 짚신을 신은 거요? 아기 세 살, 네 살 때 다 짚신을?)

106035 #2 세 살은 못 신지.(세 살은 못 신지.)

106035 #1 다섯 살 넘어가야.(다섯 살 넘어가야.)

106035 #2 다섯 살은 지나야. 일곱 살이나 돼야.(다섯 살은 지나야. 한 일곱 살이나 돼야.)

106035 @ 맨발로 다니당?(맨발로 다니다가?)

106035 #2 으.(으.)

106035 #1 아니, 다섯 살 나근에 밧디도 가게 돼민 신어야 돼.(아니, 다섯 살 돼서 밧에도 가게 되면 신어야 돼.)

106035 @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6035 #1 난이 무시것도 신어났어, 이디 밧만 꿰어 신는 것ㄴ라 조리²⁹³?(난 뭐도 신었었어, 여기 밧만 꿰어서 신는 것보고 조리?)

106035 #2 조리.(조리)

106035 #1 것도이 도남²⁹⁴ 삼촌이 해 줘. 것도 해 줘. ○○ 어떻게. 이거 엇인 거. 이거 엇인 거난 꾀엇 땡겨도 돼. 밧도 안 아프고.(것도 도남 삼촌이 해 줘. 것도 해 줘. ○○ 어머니. 이거 없는 거. 이거 없는 거니까 끌고 다녀도 돼. 밧도 안 아프고.)

106035 #2 게다²⁹⁵로?(게다로?)

106035 #1 게다지. 조리엔 해, 조리.(게다지. 조리라고 해, 조리.)

106035 #2 조리엔도 허고 게다엔도 허잖아?(조리라고 하고 게다라고도 하잖아?)

106035 #1 게다는 나무, 남이고, 남으로 헨 게 게다고.(게다는 나무, 나무이고, 나무로 한 게 게다이고.)

106035 @ 아.(아.)

106035 #1 짚으로 헨 건 조리. 남으로 헨 거 게다, 일본 이름이 게다지.(짚으로 헨 건 조리. 나무로 한 거 게다, 일본 이름이 게다지.)

106035 @ 예.(예.)

106035 #1 조리도 일본 이름이지. 이제 허문 쓰레빠²⁹⁶ 닳은 거, 쓰레빠지.(조리도 일본 이름이지. 이제 하면 슬리퍼 같은 거, 슬리퍼지.)

106035 #2 쓰레빠지, 지금 말론 쉽게 말허민.(슬리퍼지, 지금 말로는 쉽게 말하면.)

106035 #1 겐 나가 ○○네, ○○ 거 허명 헤근에 거 멧 번 신은 거 흰헤. 육촌이 나보다 헉나 우이 육촌 시난 그디 삼촌이 걸 허니까. 게든 뭐 ○○ 거 나 거 몰라.

293) '조리'는 일본어 'ぞうり'에서 온 말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서 신는 신발을 말한다.

294) '도남'은 제주도 도남동을 말한다.

295) '게다'는 일본어 'げた'에서 온 말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서 신는 일본식 나막신을 말한다.

296) '쓰레빠'는 '슬리퍼(slipper)'의 일본어(スリッパ)식 표현이다.

(그래서 내가 ○○네, ○○ 거 하면서 해서 거 몇 번 신은 거 휠해. 육촌이 나보다 하나 위에 육촌 있으니까 거기 삼촌이 걸 하니까. 그럼 뭐 ○○ 거 나 거 몰라.)

106035 #2 그렇지게.(그렇지.)

106035 #1 벗어 놓민, 똑ㄴ타.(벗어 놓으면, 똑같아.)

106035 #2 그렇지게, 똑ㄴ트주게.(그렇지, 똑같지.)

모자 등

106037 @ 모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 모자에, 정동모자도 있고 무슨 갓도 있고, 특산품?(모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 모자요, ‘정동모자’도 있고 무슨 갓도 있고, 특산품?)

106037 #2 모자는 뭐 옛날 뭐.(모자는 뭐 옛날 뭐.)

106037 #1 정동모자²⁹⁷⁾ 지금도 있어이?('정동모자' 지금도 있어?)

106037 #2 지금도 잇주게.(지금도 있지.)

106037 @ 특산품?(특산품?)

106037 #1 특산품 나 만오천 원 쥬 상 나눠서.(특산품 나 만오천 원 줘서 사서 나눠서.)

106038 @ 옛날에는 패랭이 잇엇구나?(옛날에는 패랭이 있었구나?)

106038 #2 응. 옛날에는 패랭이 잇고.(응. 옛날에는 패랭이 있고.)

106038 #1 밀낭패랭이엔 허여.(밀짚모자라고 해.)

106038 #2 그 대나무로 헌 삿갓이엔 헌 것도 잇고.(그 대나무로 한 삿갓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106038 @ 정말마씨?(정말요?)

106038 #1 삿갓도 요마니헌 거 잇고.(삿갓도 요만한 거 있고.)

106038 #2 삿갓도 막 으라 가지.(삿갓도 아주 여러 가지.)

106038 #1 세 가지로 나와.(세 가지로 나와.)

106038 @ 아.(아.)

106038 #1 큰 거 잇고 작은 거, 중간 거.(큰 거 있고 작은 거, 중간 거.)

106038 #2 세 가지로 나와.(세 가지로 나와.)

106038 @ 아.(아.)

106038 #1 제일 좋은 거는이 으덥 치, 으덥 치 삿갓이엔 헤영은에이 그 이 일로 영 이것이 으덥 치야. 으덥 치 허민 헤영헌 창호지 허영은에이 이디 쌍 막 그냥 영 다녀가민 그 종이가 막 흐랑케²⁹⁸⁾ 허울허울허민 막 저거 새 새각씨나 썸직허다. 저 삿갓, 너무 곱고 좋다, 허멍.(제일 좋은 거는 여덥 치, 여덥 치 삿갓이라고 해서 그 이 일로 이렇게 이것이 여덥 치야. 여덥 치 하면 하얀 창호지 해서 여기 싸서 마구 그냥 이렇게 다녀가면 그 종이가 아주 ‘흐랑케’ 너울너울하면 마구 저거 새색시나

297) '정동모자'는 땡땡이덩굴로 결은 모자다.

298) '흐랑허다'는 종이나 천 따위가 뽳뽳하지 않고 늘어진 모양을 나타낸다.

썸 직하다. 저 샷갓, 너무 곱고 좋다, 하면서.)

106038 #2 새 새각시덜은 그런 샷갓덜 많이 섯주게.(새 새색시들은 그런 샷갓들 많이 썼지.)

106038 #1 우리, 우리 어머니도 막 써. 그런 샷갓 하나씩은 다 있어. 우리 성님도 쓰고, 우리 언니도이.(우리, 우리 어머니도 많이 써. 그런 샷갓 하나씩은 다 있어. 우리 형님도 쓰고, 우리 언니도.)

106038 @ 아니, 여자덜도 써마써?(아니, 여자들도 써요?)

106038 #1 밧디 갈 때도 써, 그거. 검질멜 때도.(밭에 갈 때도 써, 그거. 김멜 때도.)

106038 @ 검질멜 때는 나 쓴텐은 해도, 그 하얀 창호지로 현 줄은 몰라신디 예?(김멜 때는 나 쓴다고는 해도, 그 하얀 창호지로 한 줄은 몰랐는데요?)

106038 #1 창호지 더끄민 건더와. 건더와이. 고망이 영 비롱비롱헌 건디 어디.(창호지 덮으면 선선해. 선선해. 구멍이 이렇게 숭숭한 건데 어디.)

106038 #2 그건 막 여러 종류주게.(그건 아주 여러 종류지.)

106038 #1 대낭도 막 줌질게 일로 막 까짱 곱게 헌 거, 줌질게.(대나무도 아주 가늘게 이리로 마구 깎아서 곱게 한 거, 가늘게.)

106038 #2 대를 막 얹고 줌질게 해 가지고 짠 거.(대를 아주 얇고 가늘게 해 가지고 짠 거.)

106038 #1 그것이.(그것이.)

106038 #2 이 사이사이 무늬 놓면서 짜.(이 사이사이 무늬 놓으면서 짜.)

106038 #1 사이사이 말²⁹⁹ 낱 말. 말이엔 헌 거 있어이. 니귀방장헌 거.(사이사이 ‘말’ 놔서 ‘말’. ‘말’이라고 하는 거 있어. 네모반듯한 거.)

106038 #2 이 사각지로 저 표실 해근에게 그림을 놓는디 여러 가지로 놔.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해 놓고.(이 사각지로 저 표시를 해서 그림을 놓는데 여러 가지로 놔.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해 놓고.)

106038 #1 그 샷갓이 서대샷갓이.(그 샷갓이 세대샷갓.)

106038 #2 요 또 속에 이렇게 준준허게 딱시 놓아.(요 또 속에 이렇게 자잘하게 또 놓아.)

106038 #1 서대샷갓이고이.(세대샷갓이고.)

106038 #2 경헌디 그게 서대샷갓은 왜 서대샷갓인고 허민 대나무도 여러 가지로 쓰주게. 대나무도 맨 위에 부튼 꺾데기, 맨 위이 꺾데기만 따로 그거 준비해근에게 다스령 낱당 그 만든, 짠 샷갓이라.(그런데 그게 세대샷갓은 왜 세대샷갓인가 하면 대나무도 여러 가지로 쓰지. 대나무도 맨 위에 붙은 꺾데기, 맨 위에 꺾데기만 따로 그거 준비해서 다스려서 났다가 그 만든, 짠 샷갓이야.)

106038 #1 게민 서대.(그럼 서대.)

106038 #2 게난 서대샷갓이렌 이름을 지은 거.(그러니까 세대샷갓이라고 이름을

299) ‘말’은 샷갓에 넣은 무늬를 말한다.

지은 거.)

106038 #1 그다음 쓴 건 속삿갓³⁰⁰), 속삿갓 헛주.(그다음 쓴 건 ‘속삿갓’, ‘속삿갓’ 헛지.)

106038 #2 속삿갓이엔 현 건 그다음 걸로 짠 거. 게난 속삿갓이 빨리 헛어.(‘속삿갓’이라고 하는 건 그다음 걸로 짠 거. 그러니까 ‘속삿갓’이 빨리 헛어.)

106038 #1 꾸밈도 헛뽀 덜허고.(꾸밈도 조금 덜하고.)

106038 #2 약해연.(약해서.)

106038 @ 게든 주로 이 삿갓은 여자덜이 밧디 갈 때 쓰는 것파?(그럼 주로 이 삿갓은 여자들이 밧에 갈 때 쓰는 겁니까?)

106038 #1 예, 밧디 갈 때.(예, 밧에 갈 때.)

106038 @ 것도 그렇게 곱게.(것도 그렇게 곱게.)

106038 #1 예. 게난 그 삿갓은 두벌 해. 밧디 뎡기는 삿갓은 속삿갓으로 허곡게. 비도 오민 비 맞이민 그 삿갓이 줌 거멍허주게.(예. 그러니까 그 삿갓은 두벌 해. 밧에 다니는 삿갓은 ‘속삿갓’으로 하고. 비도 오면 비 맞으면 그 삿갓이 줌 거멍지.)

106038 #2 거멍허고 그 창호지 게 망가져 불주게. 게난 비 와 가민 막 치마 벗영 더퍼. 쫓지 안허게.(거멍고 그 창호지 한 게 망가져 버리지. 그러니까 비 와 가면 마구 치마 벗어서 덮어. 쫓지 않게.)

106038 #1 하하, 아껴게.(하하, 아껴서.)

106038 #2 아까완.(아까웠어.)

106038 #1 종이 잇어 부난.(종이 있어 버리니까.)

106038 @ 아, 밀낭페랭이보다 이런 걸로 먼저 더 헛구나.(아, 밀짚모자보다 이런 걸로 먼저 더 헛구나.)

106038 #1 예.(예.)

106038 #1 밀낭페랭이 돈 줘사 허니까.(밀짚모자 돈 줘야 하니까.)

106038 #2 이거 쓰민 다 막아저근에게 막 건드라와.(이거 쓰면 다 막혀서 아주 선선힌해.)

106038 #1 맞다. 밀낭페랭이 헛뽀 잇어 가난이 보릿대 요만헌 거씩 허영 영 즐앙 영 우리 고양 영 즐앙게.(맞다. 밀짚모자 조금 있어 가니까 보릿짚 요만한 거씩 해서 이렇게 곁어서 우리 고이 이렇게 곁어서.)

106038 #2 그거 짜근에게.(그거 짜서.)

106038 #1 짜근에 막 길게 짜 낱은에이.(짜서 마구 길게 짜 놔서.)

106038 #2 속에 거만 다듬아근에.(속의 거만 다듬어서.)

106038 #1 올로이 망부터 헤영 만들앙 주영 이까지 내려오민 이디 가민 팍 퍼지 왕.(요리로 망부터 해서 만들어서 기워서 이까지 내려오면 여기 가면 팍 퍼지게 해서.)

106038 #2 우리도 만들어났어. 우리도 잘헛어.(우리도 만들었었어. 우리도 잘했

300) ‘속삿갓’은 삿갓의 한 종류다.

어.)

106038 #1 거 흠뿔 잇어야.(거 조금 잇어야.)

106038 @ 계난 보리.(그러니까 보리.)

106038 #2 우리가 열 설 넘영, 막 넘언.(우리가 열 살 넘어서, 막 넘어서.)

106038 @ 보릿대 만드는 게 난 밀낭페랭인 줄 알았더니 밀낭이 더 좋으난 밀낭으로?(보릿짚 만드는 게 난 밀짚모자인 줄 알았더니 밀짚이 더 좋으니까 밀짚으로?)

106038 #1 아니, 보릿대로 만드는 게 밀낭페랭이.(아니, 보릿짚으로 만드는 게 밀짚모자.)

106038 @ 원래는 밀낭으로 헛텐마씨?(원래는 밀짚으로 했대요?)

106038 #2 응, 밀낭으로 현 게 더 좋아.(응, 밀짚으로 한 게 더 좋아.)

106038 #1 겐디 밀낭이.(그런데 밀짚이.)

106038 #2 찢기고.(질기고.)

106038 #1 많이 갈지 안해, 밀이.(많이 갈지 않아, 밀.)

106038 #2 많이 갈지 안허기 때문에 보릿대로 해여.(많이 갈지 않기 때문에 보릿짚으로 해.)

106038 @ 옛날은 많이 허난, 밀낭.(옛날은 많이 하니까, 밀짚.)

106038 #1 계난 밀낭이 많이 허는 디가 벨로, 매집이도 안 해.(그러니까 밀짚이 많이 하는 데가 별로, 매집에도 안 해.)

106038 #2 게도 처음엔 아메도 밀대로 해나신ㄴ라 밀낭페랭이엔 이름을 지었주게.(그래도 처음엔 아무래도 밀짚으로 했었는지 밀짚모자라고 이름을 지었지.)

106038 #1 밀낭이 좀 찢겨, 찢겨.(밀짚이 좀 질겨, 질겨.)

106038 #2 찢겨.(질겨.)

106038 #1 영 땡겨도 잘 안 끊어져이. 경흐난 걸로.(이렇게 당겨도 잘 안 끊어져. 그러니까 걸로.)

106038 #2 찢기고 이 대가 즘질기로 짜민 곱기도 허여.(질기고 이 대가 가늘게 짜면 곱기도 해.)

106038 #1 겐디 밀낭이 드물어게.(그런데 밀짚이 드물어.)

106038 #2 보릿대 닳지 안행.(보릿짚 갈지 않아.)

106038 @ 보리낭 페랭이렌 안 허잖아예.(보릿대 패랭이라고 안 하잖아요.)

106038 #1 보리낭 페랭이 나 가니까 삿갓도 덜 허더라고. 그걸로 막 아이덜도 씨왕 다니고 허난 삿갓이.(보릿짚 패랭이 나와 가니까 삿갓도 덜 하더라고. 그걸로 마구 아이들도 씨워서 다니고 하니까 삿갓이.)

106038 @ 만들기가 어렵구나.(만들기가 어렵구나.)

106038 #1 응, 힘들어.(응, 힘들어.)

106038 #2 삿갓은 또 애들은 무겁고게.(삿갓은 또 애들은 무겁고.)

106038 #1 막 머리 아파근예, 영 이디 쓰는 게 잇어 망이엔 허연이.(아주 머리

아파서, 이렇게 여기 쓰는 게 있어, 망이라고 해서.)

106038 #2 머리 딱 들어가는 통이 잇주게.(머리 딱 들어가는 통이 있지.)

106038 #1 그디 막 험벅도 감앙 쓰곡 막 이디 아팡게.(거기 마구 험끓도 감아서 쓰고 마구 여기 아파서.)

106038 #2 이디 눌러 불영 아팡.(여기 눌러 버려서 아파.)

106038 #1 게민.(그럼.)

106038 #2 애들은 잘 못써.(애들은 잘 못써.)

106038 #1 그 봉대 닳은 걸로 빙빙 감아, 그것에. 나도 막 감앙 써낫어.(그 봉대 같은 걸로 빙빙 감아, 그것에. 나도 마구 감아서 썼었어.)

106038 #2 패랭인 약허니까 아이덜토 써도 이디 아프질 안헤근에게.(패랭인 약하니까 아이들도 써도 여기 아프질 않아서.)

106038 @ 김삿갓이여 뭐여 현 게 다 제주도도 잇엇구나.(김삿갓이다 뭐다 하는 게 다 제주도도 잇엇구나.)

106038 #1 잇지.(있지.)

106038 @ 대가 이시난.(대가 있으니까.)

106038 #1 김삿갓이엔 현 사람이 삼양에 살아낫어. 김삿갓이엔 허는 하르방이.(김삿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양에 살았었어. 김삿갓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106038 @ 그 갓을 만드는 사람을 봐 봤수과?(그 갓을 만드는 사람을 봐 봤습니까?)

106038 #1 응, 우리 육촌 오빠.(응, 우리 육촌 오빠.)

106038 @ 수리대가 아니고 왕대?(이대가 아니고 왕대?)

106038 #1 수리대. 수리대로 해, 왕대론 못 해. 왕대는 믱작이 세영은에 수리대로 허여.(이대. 이대로 해, 왕대론 못 해. 왕대는 마디가 세서 이대로 해.)

106038 #2 다루질 못허주게.(다루질 못하지.)

106038 #1 ○○이 하르부지 잘헛주게, 삿갓은.(○○이 할아버지 잘헛지, 삿갓은.)

106038 @ 차룽도 다 수리대?(채룽도 다 이대?)

106038 #1 응.(응.)

106038 @ 차룽이여, 구덕이여?(채룽이다, 바구니다?)

106038 #1 으, 다 수리대.(으, 다 이대.)

106038 @ 집집마다 수리대를 경 싱것구나예.(집집마다 이대를 그렇게 심었군요.)

106038 #2 게난 집집마다 다 우잣에 저 수리대덜 잇주게. 그걸 참 필요허게 썻주게.(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터알에 저 이대들 있지. 그걸 참 필요하게 썻지.)

106038 #1 경 심어도 그거를 아무나 경 차룽 못 줄아.(그렇게 심어도 그거를 아무나 그렇게 채룽 못 걸어.)

106038 @ 게난.(그러니까.)

106038 #1 솜씨 잇는 사람만.(솜씨 잇는 사람만.)

106038 #2 것도 아무나 허질 못허주게.(것도 아무나 하질 못하지.)

106038 #1 우리 집인 삼 형제라도이 하나도 못해. 그 우리 도남 삼촌네하고 그 어른허곡 ○○이 아버지, 그디만 줄아.(우리 집은 삼 형제라도 하나도 못해. 그 우리 도남 삼촌네하고 그 어른하고 ○○이 아버지, 거기만 걸어.)

106038 #2 우리 친정엔 그거 즈는 사람이 없어.(우리 친정에는 그거 걸는 사람이 없어.)

106038 #1 그 두 집만 경 차롱.(그 두 집만 그렇게 채롱.)

106038 @ 것도 일이쿠다게.(것도 일이겠다.)

106038 #1 차롱도 즐고. 큰 구덕도 즐고이. 영 정 텡기는 구덕.(채롱도 걸고. 큰 바구니도 걸고. 이렇게 지고 다니는 바구니.)

106038 @ 노형도 잇엇구나예, 그런 분덜이.(노형도 있었군요, 그런 분들이.)

106038 #1 우리 바로 친축에 잇고 또 굴체. 굴체 영 걸름도 내곡 허는 거 들렁.(우리 바로 친척이 있고 또 삼태기. 삼태기 이렇게 거름도 내고 하는 거 들고.)

106038 @ 굴체는 뭐로 만드는 것과?(삼태기는 뭐로 만드는 겁니까?)

106038 #1 것도 대로.(것도 대로.)

106038 #2 것도 대로.(것도 대로.)

106038 #1 대로, 이젠 대 엇으난 칙으로 허는 거라.(대로, 이젠 대 없으니까 칙으로 하는 거야.)

106038 @ 아, 대로도 굴체 이십디다.(아, 대로도 삼태기 있습니다.)

106038 #1 거 칙이 아니고 거 정동이라이.(거 칙이 아니고 거 땡땡이덩굴이야.)

106038 @ 칙이 아니고 정동, 정동.(칙이 아니고 땡땡이덩굴, 땡땡이덩굴.)

106038 #1 거 정동이라. 산에 강 걸어 오는 거, 거 금덕³⁰¹⁾ 쪽에 많이 행 폴더라.(거 땡땡이덩굴이야. 산에 가서 걸어 오는 거, 거 금덕 쪽에 많이 해서 팔더라.)

106038 @ 금덕?(금덕?)

106038 #1 금덕 쪽에.(금덕 쪽에.)

106038 #2 옛날엔 굴체도 대나무로.(옛날에는 삼태기도 대나무로.)

106038 #1 산에 강 정동 건너당 집이 왕은에이 손 뿡 걸로 줄아. 정동이라이.(산에 가서 땡땡이덩굴 건너다가 집에 와서 손 뿡서 걸로 걸어. 땡땡이덩굴이야.)

106038 @ 것도 좋아예?(것도 좋아요?)

106038 #1 응. 게난 그 대보다 픽픽 데껴 불도 밟아도. 대는이 데껴도 삭아 불고, 밟아도 건 꺼꺼져 불어. 쓰는 게 막 무정행 좋아. 정동이.(응. 그러니까 그 대보다 픽픽 던져 버려도 밟아도. 대는 던져도 삭아 버리고, 밟아도 건 꺾어져 버려. 쓰는 게 아주 무정해서 좋아. 땡땡이덩굴이.)

106038 #2 경 비 맞으민 또 더 삭아 불고 허니까.(그렇게 비 맞으면 또 더 삭아 버리고 하니까.)

106038 #1 겨고 대가 엇어져, 사삼사건 낭 막 대왓이 다 엇어져 가니까 정동이 나왔어. 그전엔 정동 없어.(그리고 대가 엇어져, 사삼사건 나서 막 대밭이 다 없어

301) '금덕'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옛 이름이다.

져 가니까 땡땡이덩굴이 나왔어. 그전엔 땡땡이덩굴 없어.)

106038 #2 으, 정동 엇고 정동으로 할 생각도 안 하고게.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으, 땡땡이덩굴 없고 땡땡이정굴로 할 생각도 안 하고.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106038 #1 다 대 굴채로 행, 겐디 그 대나무가 엇어졌지.(다 대 삼태기로 해서,
그런데 그 대나무가 없어졌지.)

106038 #2 대나무가 엇어져 부니까 이젠 정동덜 걷어당 할 생각헐 정동덜을 걷
어당 했주.(대나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젠 땡땡이덩굴 걷어다가 할 생각해서 땡땡
이덩굴을 걷어다가 했지.)

106038 @ 나도 고내에서 육지 하르부지 오가, 육지분인디 그거 험디다게. 정동으
로 굴채를 짱.(나도 고내에서 육지 할아버지 오가, 육지분인데 그거 합디다. 땡땡이
덩굴로 삼태기를 짜서.)

106038 #1 산에 강 걸 해 와실 거여.(산에 가서 걸 해 왔을 거야.)

106038 @ 겐디 폐병 걸령 우리 말축도 막 잡아당 드리고. 제주도에서 말축 먹어
낫수과게.(그런데 폐병 걸려서 우리 메뚜기도 마구 잡아다가 드리고. 제주도에서 메
뚜기 먹었었습니까?)

106038 #2 맞추게.(맞지.)

106038 @ 그분만 먹어 가난 우리 막 그냥.(그분만 먹어 가니까 우리 마구 그냥.)

106038 #1 말축이엔 현 건디 그 물말축 말고 색색 현 말축, 건 막 맛있넌.(메뚜
기라고 하는 건데 그 떠무늬메뚜기 말고 색색 한 메뚜기, 건 아주 맛있다고.)

106038 #2 색색말축³⁰²게.(‘색색말축’.)

106038 @ 심방말축을 색색말축이렌 험니까?(방아깨비를 ‘색색말축’이라고 합니
까?)

106038 #2 메뚜기엔 현 거.(메뚜기라고 한 거.)

106038 @ 메뚜기.(메뚜기.)

106038 #1 그것이 몰랑 허주, 그거 그냥 불에 거시령 먹으민 그렇게 बे지근헌텐
게.(그것이 몰라서 하지, 그거 그냥 불에 그슬려서 먹으면 그렇게 ‘베지근’하다고.)

106038 @ 게메마씨게.(글쎄요.)

106038 #2 베지근산디 어떻산디 모르켜만은 나 서울 강 살 때 용산 살 때이 우
리 뒷집의 아줌마가 이거 먹어 봐, 먹어 봐. 맛있어, 맛있어.(‘베지근한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서울 가서 살 때 용산 살 때 우리 뒷집의 아줌마가 이거 먹어 봐,
먹어 봐. 맛있어, 맛있어.)

106038 #1 그거 막 잡으레 텅기잖아, 육지서.(그거 마구 잡으러 다니잖아, 육지에
서.)

106038 #2 으게. 쟈시에, 쟈시에 멧 므리 가정 온 거 보난 춤지름 놓고 달달달달
후라이판에 보관에 가져와신디 다리 오고랑헌 게 참기름 놓고 보끄난 아고, 다리가
게뜰락게뜰락게뜰락 현 게 아이고 나 징그러왕. 아이 나 안 먹켜게, 아정 가라, 아

302) ‘색색말축’은 메뚜기의 한 종류다.

정 가라.(으. 접시에, 접시에 몇 마리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참기름 넣고 달달달달 프라이팬에 볶아서 가져왔는데 다리 오그랑한 게 참기름 넣고 볶으니까 아이고, 다리가 ‘게뜰락게뜰락게뜰락’ 한 게 아이고 징그러워서. 아이 나 안 먹겠어,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106038 @ 그 메뚜기를 색색말죽이렌 해?(그 메뚜기를 ‘색색말죽’이라고 해?)

106038 #1 으, 으.(으, 으.)

106038 @ 무사 색색말죽이엔 헛수과?(왜 ‘색색말죽’이라고 했습니까?)

106038 #1 그 소리가 소리 색색.(그 소리가 소리 색색.)

106038 #2 소리가 새색새 허는 거.(소리가 새색새 하는 거.)

106038 #1 막 들려, 막.(마구 들려, 마구.)

106038 #2 게난 색색말죽이엔 허는 거.(그러니까 ‘색색말죽’이라고 하는 거.)

106038 #1 거 팔월에 출 빌 때 막 나와. 출 빈 후예가 막 더 커.(거 팔월에 꼴 벨 때 막 나와. 꼴 벤 후예가 아주 더 커.)

106038 #2 육지 거 벼밭디 강 막 잡잖아, 벼밭디.(육지 거 논에 가서 마구 잡잖아, 논에.)

106038 @ 심방말죽은?(방아깨비는?)

106038 #1 심방말죽은 데맹이가 쫘 달라.(방아깨비는 대가리가 쫘 달라.)

106038 @ 졸락허여.(짧아.)

106038 #1 졸락헌 게 아니고 동그릇허지이. 데맹이가 동그릇허지. 데맹이만 동그릇해. 다른 건 꾸작허는디. 경헌디 그것이 경 아파. 췌아 불민 발에 무시거 막 부터더라.(짧은 게 아니고 동긋해. 대가리가 동긋하지. 대가리만 동긋해. 다른 건 ‘구작’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파. 쏘아 버리면 발에 뭐 마구 붙었더라.)

106038 #2 코엔가 코 밀엔가 또 무시거 있어. 저 무시거엔 허나?(코엔가 코 밀엔가 또 뭐 있어. 저 뭐라고 하지?)

106038 #1 늘개?(날개?)

106038 @ 국췌기 말고 심방말죽?(사마귀 말고 방아깨비?)

106038 #2 으.(으.)

106038 @ 초록 색깔?(초록 색깔?)

106038 #2 으, 초록 색깔.(으, 초록 색깔.)

106038 @ 애기도 업영 텡기고.(아기도 업고 다니고.)

106038 #2 그거는 이 코 밀에도 저 사람이민 수염거치.(그거는 이 코 밀에도 저 사람이면 수염같이.)

106038 @ 아.(아.)

106038 #2 그런 것도 부터 있어.(그런 것도 붙어 있어.)

106038 @ 예.(예.)

106038 #2 심방말죽이엔.(방아깨비라고.)

106038 @ 국췌기도.(사마귀도.)

106038 #1 심방말축이 파르르 놀면은 일로 놀개가 삭 나와근에 영 웨여. 탁 놀면은 일로 놀개.(방아깨비가 파르르 날면 일로 놀개가 삭 나와서 이렇게 돼. 탁 날면 일로 놀개.)

106038 #2 겐 심방말축이엔 헨 거라.(그래서 방아깨비라고 한 거야.)

106038 #1 영 앓은 땐, 영 앓은 땐 딱 부텅 이신디. 삭 놀면은.(이렇게 앓은 땐, 이렇게 앓은 때는 딱 붙어서 있는데. 삭 날면.)

106038 @ 뒷다리가 영 길영 잡으민 춤을 잘 추난.(뒷다리가 이렇게 길어서 잡으면 춤을 잘 추니까.)

106038 #1 맞다. 깃닥깃닥.(맞다. 까닥까닥.)

106038 #2 영 잡으민 춤추라 무시거엔 허민 깃닥깃닥.(이렇게 잡으면 춤춰라 뭐라고 하면 까닥까닥.)

106038 #1 춤추라 무시거엔 막 말हे난 거 닳아, 그다음에. 게민 깃닥깃닥깃닥 거 들엄신디 말암신디 몰라도.(춤춰라 뭐라고 마구 말했던 거 같아, 그다음에. 그럼 까닥까닥까닥 거 듣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도.)

106038 #2 으, 춤추라 뭐 심방 밧디 가게 헛던가, 뭐.(으, 춤춰라 뭐 무당 밧에 가자고 헛던가, 뭐.)

106038 @ 생각해 봅서, 그런 거예. 놀멍 헛던 거. 노래 불렀던 거.(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요. 놀면서 헛던 거. 노래 불렀던 거.)

106038 #2 깃닥깃닥허멍.(까닥까닥하면서.)

106038 @ 저 산더레 절 깃딱깃딱. 나신디 절 깃딱깃딱.(저 산으로 절 까딱까딱. 나에게 절 까딱까딱.)

106038 #2 막 노래 불르멍 헤낫어.(마구 노래 부르면서 했었어.)

106038 @ 뒷다리 잡앙 막 놀아낫수다. 우리도.(뒷다리 잡아서 마구 놀았었습니다. 우리도.)

106038 #1 깃딱깃딱허당 중단허민 굴으민 또 깃딱깃딱허고 헐디 그 굴아난 말을 잊어불언 못 나오켜.(까딱까딱하다가 중단하면 말하면 또 까딱까딱하고 하는데 그 말했던 말을 잊어버려서 못 나오겠어.)

106038 #2 하여튼 춤추라 심방 밧디 가게 헤난 거 닳아.(하여튼 춤춰라 무당 밧에 가자고 헛던 거 같아.)

106038 #1 으, 어디 가게 헨. 춤추라 같이 가게, 춤추라 같이 가게.(으, 어디 가자고 했어. 춤춰라 같이 가자, 춤춰라 같이 가자.)

106038 #2 춤추라 심방 밧디 가게, 춤추라 심방 밧디 가게. 똑 경헤나진 거 닳아. 겐디 다음엔 모르크라.(춤춰라 무당 밧에 가자, 춤춰라 무당 밧에 가자. 똑 그랬었던 거 같아. 그런데 다음엔 모르겠어.)

106038 @ 게른예, 그 여름 모자, 겨울 모자 그 샷갓도 여자덜이 썼다는 거네, 거의.(그럼요, 그 여름 모자, 겨울 모자 그 샷갓도 여자들이 썼다는 거네, 거의.)

106038 #1 남자도 써.(남자도 써.)

106038 @ 남자도 쓰고.(남자도 쓰고.)

106038 #1 남자도 막 뿐 부리는 사람이 그 종이 부른 거이 세대삿갓 썩 다녀.(남자도 마구 몇 부리는 사람이 그 종이 붙은 거 세대삿갓 써서 다녀.)

106038 @ 겐디 여름에 검질멜 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예?(그런데 여름에 검멜 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요?)

106038 #1 검질멜 때는 거 쓰민 큰 거 쓰민 서로가 부닥쳐근에 잘 못써.(검멜 때는 거 쓰면 큰 거 쓰면 서로가 부딪쳐서 잘 못써.)

106038 @ 하하하.(하하하)

106038 #2 크기 때문에.(크기 때문에.)

106038 #1 부닥천 앓질 못해, 앓질 못해. 걸음 걸을 때 거 쓰민 이꺼지 서늘서늘해. 크니까 막 막아전.(부딪쳐서 앉지를 못해, 앉지를 못해. 걸음 걸을 때 거 쓰면 이까지 서늘서늘해. 크니까 마구 막아쳐서.)

106038 @ 검질멜 때 밀낭페랭이가 낫고?(검멜 때 밀짚모자가 낫고?)

106038 #1 삿갓도 죽은 거게. 요기만 독지만 막아진 거. 독지만 막아진 거.(삿갓도 작은 거. 여기만 어깨만 막아진 거. 어깨만 막아진 거.)

106038 @ 검질멜 땀 좀 중간 걸로 허고?(검멜 땀 좀 중간 걸로 하고?)

106038 #1 으, 세대삿갓은이 이녁만 멜 땀 뉘는데 여럿이 멜 땀 막 부닥청.(으, 세대삿갓은 자기만 멜 땀 되는데 여럿이 멜 땀 마구 부딪쳐서.)

106038 #2 걸령.(걸려서.)

106038 @ 게민 세대삿갓은 뭐 헐 때 써? 걸어 다닐 때?(그럼 세대삿갓은 뭐 할 때 써? 걸어 다닐 때?)

106038 #1 걸어 다닐 때 쓰꼭 뭐 둘, 둘만 멜 땀 쓸 수 있어. 비니까.(걸어 다닐 때 쓰고 뭐 둘, 둘만 멜 땀 쓸 수 있어. 비니까.)

106038 @ 어디 먼 데 갈 때?(어디 먼 데 갈 때?)

106038 #1 으. 게난 건 뿐 잇는 사람 뿐 부리곡이. 돈 양이나 잇는 사람이 해여.(으. 그러니까 몇 잇는 사람 몇 부리고. 돈 양이나 잇는 사람이 해.)

106038 @ 밧디 갈 때 무슨 뽀을 부러게.(밭에 갈 때 무슨 밧을 부러.)

106038 #1 아니 그냥도 이제 양산 들르듯, 양산이 그때 없잖아. 게민 그식으로 쓰는 거니까.(아니 그냥도 이제 양산 들듯, 양산이 그때 없잖아. 그럼 그식으로 쓰는 거니까.)

106038 @ 치마 입영도 삿갓 써마써?(치마 입고도 삿갓 써요?)

106038 #1 삿갓 써, 치마 입영. 삿갓도 경 곱닥허게 넓은 삿갓 싯고게, 세대삿갓 해근에 종이로 탁 더끄민 막.(삿갓 써, 치마 입고. 삿갓도 그렇게 곱게 넓은 삿갓 있고, 세대삿갓 해서 종이로 탁 덮으면 아주.)

106038 @ 게민 눈도 안 보이지요? 얼굴 잘 몰를 거 아니?(그럼 눈도 안 보이지요? 얼굴 잘 모를 거 아니?)

106038 #1 삿갓 쓴 사람 보젠 허민 영 행.(삿갓 쓴 사람 보려고 하면 이렇게 해

서.)

106038 #2 이 꼭대기도 영 싸거니와 이 바위, 바깥 바위도 색 험벽으로 삭 둘러.(이 꼭대기도 이렇게 싸거니와 이 가장자리, 바깥 가장자리도 색 험벽으로 삭 둘러.)

106038 #1 귀가 으둑 개라이.(귀가 여둑 개야.)

106038 #2 이거 귀가 으둑 갠디 귀마다 험벽 조각 색 있는 험벽 조각 부쳐.(이거 귀가 여둑 갠테 귀마다 험벽 조각 색 있는 험벽 조각 붙여.)

106038 #1 검은 험벽으로 대개.(검은 험벽으로 대개.)

106038 #2 영 삼각형 나게.(이렇게 삼각형 나게.)

106038 #1 대개 검은 험벽.(대개 검은 험벽.)

106038 @ 그거 박물관에도 난 안 봐 본 거 닮은디.(그거 박물관에도 난 안 봐 본 거 같은데.)

106038 #2 삼각형 나게.(삼각형 나게.)

106038 #1 잇언게, 박물관에.(있었어, 박물관에.)

106038 @ 이십디까, 서대삿갓?(이십디까, 세대삿갓?)

106038 #1 으.(으.)

106038 @ 삼촌이 말한 식으로 색깔덜 막 입형.(삼촌이 말한 식으로 색깔들 마구 입혀서.)

106038 #2 요만씩 요만씩 영 잘라.(요만큼씩 요만큼씩 이렇게 잘라.)

106038 #1 그런 거 아니고이 서대삿갓도 걸어지고 속삿갓³⁰³도 걸어지고이. 저 어디. 있어, 있어. 잇언게.(그런 거 아니고 세대삿갓도 걸리고 ‘속삿갓’도 걸리고. 저 어디. 있어, 있어. 있었어.)

106038 @ 거 어디 집이 이신 사름은 엇지예?(거 어디 집에 있는 사름은 없지요?)

106038 #1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6038 @ 에구야.(에구야.)

106038 #1 나 이제 서답구덕도 있어, 서답구덕.(나 이제 빨래바구니도 있어, 빨래바구니.)

106038 @ 서답구덕?(빨래바구니?)

106038 #2 나도 서답구덕도 잇고 동이구덕³⁰⁴도 잇저.(나도 빨래바구니도 잇고 ‘동이구덕’도 있어.)

106038 @ 서답구덕은 나중에 사진 한 장 찍으쿠다예.(빨래바구니는 나중에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106038 #1 여기 셔.(여기 있어.)

106038 @ 여기 셔마썸?(여기 있어요?)

303) ‘속삿갓’은 삿갓의 한 종류다.

304) ‘동이구덕’은 동이 대신으로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106038 #1 으, 창고에 있어. 차룡도 잇고.(으, 창고에 있어. 채룡도 잇고.)

106038 #2 나도 있어.(나도 있어.)

106038 @ 뚜껑 잇고 무시거 한 거?(뚜껑 잇고 뭐 한 거?)

106038 #1 나 차룡 다섯 개나 그 사람, 돈도 안 받았 다 가져가 불언. 지금 집 델르게 됐난이.(나 채룡 다섯 개나 그 사람, 돈도 안 받고 다 가져가 버렸어. 지금 집 찌그러뜨리게 되니까.)

106038 #2 난 작은메누리 차룡 두 개 줬센 허연 주고 그건.(난 작은며느리 채룡 두 개 주세요 해서 주고 그건.)

106038 #1 우리 메누리덜은 사근에 무시건 해도 아무도 안 허켄 허난이. 아무도 안 허켄.(우리 며느리들은 사서 뭘 해도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겠다고.)

106038 @ 건 몰르니까.(건 모르니까.)

106038 #2 난 던져 불켄 해도 너무 아깝고이.(난 던져 버리려고 해도 너무 아깝고.)

106038 #1 멘촌³⁰⁵⁾ 사름 와근에 놉 빌영 막 곱게 줄은 건디. 그거 창고에 시난 경 굴으난 나 줘서 허멍. 멍석이영. 멍석 일곱 짚에이.(‘멘촌’ 사람 와서 놉 빌려서 아주 곱게 곁은 건데. 그거 창고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 주세요 하면서. 멍석이랑. 멍석 일곱 짚에.)

106038 @ 멍석은.(멍석은.)

106038 #1 멍석 일곱 짚에 ㄱ랫방석도 두 개나.(멍석 일곱 짚에 맏방석도 두 개나.)

106038 #2 난 멍석도 지금 세 개 있어.(난 멍석도 지금 세 개 있어.)

106038 #1 창고 시난게.(창고 있으니까.)

106038 #2 ㄱ랫방석도 놔두고.(맏방석도 놔두고.)

106038 #1 우린 집을 문딱 비와근에 허게 됐난 이레 오게 됐난.(우린 집을 모두 비워서 하게 되니까 이리 오게 되니까.)

106038 @ 멍석은 삭아 불지 안헐 건가?(멍석은 삭아 버리지 않을 건가?)

106038 #2 삭암서.(삭고 있어.)

106038 #1 게난 아래 잘 무시거 잘 깔아근에.(그러니까 아래 잘 뭐 잘 깔아서.)

106038 @ 바람이 잘 통해야 될 거.(바람이 잘 통해야 될 거.)

106038 #1 일로 어떡 절로 어떡 해야 돼. 밧디만 놓민 막 썩어, 바위.(이리로 옆고 저리고 옆고 해야 돼. 한 군데만 놓으면 마구 썩어, 가장자리.)

106038 #2 썩엄서, 썩엄서.(썩고 있어, 썩고 있어.)

106038 #1 썩엄실 거여, 오래웨민. 것도이 아래 잘 무시거 깔개랑 해사. 난 널착 해영, 다 널착판 해여근에 세와났어.(썩고 있을 거야, 오래되면. 것도 아래 잘 뭐 깔개랑 해야. 난 널빤지 해서, 다 널빤지 해서 세웠었어.)

305) ‘멘촌’은 도련2동의 옛 이름이다.

106038 #2 나도 널착 받쳐주게. 널착 안 받쳐사 세왕 돼느냐?(나도 널빤지 받쳐지. 널빤지 안 받쳐서야 세워서 되냐?)

106038 #1 두껍게 널착 받쳐.(두껍게 널빤지 받쳐서.)

106038 #2 그랫방석은 판씩헛어.(맷방석은 멀쩡헛어.)

106038 @ 고망 낭 못 쓰게 돼민예.(구멍 나서 못 쓰게 되면요.)

106038 #1 저 누게 헛나 줘 불고.(저 누가 하나 줘 버리고.)

106038 @ 저 기저귀 천으로 것도 브름구덕 만들엉 뭐 놓고예?(저 기저귀 천으로 것도 ‘브름구덕’ 만들어서 뭐 놓고요?)

106038 #1 브름구덕³⁰⁶도 줘 불고. 두 개나. 그 웬쟁이³⁰⁷ 사는 사름. 이젠 그 사름 엇드라이.(‘브름구덕’도 줘 버리고. 두 개나. 그 ‘웬쟁이’ 사는 사람. 이젠 그 사람 없더라.)

106038 #2 난 브름구덕도 이제 하나 싹고이.(난 ‘브름구덕’도 이제 하나 있고.)

106038 #1 는 창고가 그냥 이시난. 옛날 창고.(넌 창고가 그냥 있으니까. 옛날 창고.)

106038 #2 서답구덕도 두 개산디 그냥 싹고.(빨래바구니도 두 개인데 그냥 있고.)

106038 #1 나도 그디 살앙 창고 시민 다 있겠지, 지금. 아기구덕³⁰⁸도 가져가더라이, 아기구덕도이.(나도 거기 살아서 창고 있으면 다 있겠지, 지금. ‘아기구덕’도 가져가더라, ‘아기구덕’도.)

106038 #2 가져가지게.(가져가지.)

106038 @ 애기구덕 이젠 즈는 사람 엇이난 완전 구허여.(‘애기구덕’ 이젠 곁는 사람 없으니까 완전 귀해.)

106038 #1 게난 가져가더라고.(그러니까 가져가더라고.)

106038 @ 우린 공연허젠 칠만 원씩 사신디예 봉개³⁰⁹ 하르부지 돌아가서 부난 이젠 구허기도 어려와.(우린 공연하려고 칠만 원씩 샀는데요 봉개 할아버지 돌아가서 버리니까 이젠 구하기도 어려워.)

106038 #1 으, 맞아.(으, 맞아.)

106038 @ 췌구덕은 두 개 잇수다. 것도 어디서 애기 난 디 빌려 주켄 허난.(‘췌구덕’은 두 개 있습니다. 것도 어디에서 아기 낳은 데 빌려 주겠다고 하니까.)

106038 #2 아, 췌구덕³¹⁰도 우리 손지 키울 때에 어디 강.(아, ‘췌구덕’도 우리 손주 키울 때에 어디 가서.)

106038 #1 그거에 그디 눅지켄 허난 우리 큰메누리 스몏 놀래 자빠져 불더라. 겐 췌구덕³¹¹ 사단 해도 건 아니 눅전. 이거 가전 가난 나 안 허쿠다. 안 허켄. 하하

306) ‘브름구덕’은 헐어 쓸모없게 된 바구니에 종이나 형겅 따위를 발라 구멍이 나지 않게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브름구덕’, ‘풀브름구덕’이라고도 한다.

307) ‘웬쟁이’는 지경 이름을 말하는 것 같다.

308) ‘아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애기구덕’이라고도 한다.

309) ‘봉개’는 제주시 봉개동을 말한다.

310) ‘췌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쓰는 아기 요람을 말한다.

311) ‘췌구덕’은 쇠로 만든 아기 요람을 말한다.

하. 요거 난 때에 그 구덕 신 때난. 저거 배완.(그거에 거기 놓히겠다고 하니까 우리 큰며느리 사뭇 놀라 자빠져 버리더라. 그래서 ‘췌구덕’ 사다가 해도 건 안 놓혔어. 이거 가지고 가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하하. 요거 난 때에 그 구덕 있을 때니까. 저거 배웠어.)

106038 @ 췌구덕, 나도 췌구덕으로 했수다게.(‘췌구덕’, 나도 ‘췌구덕’으로 했습니다.)

106038 #1 이거 서울까지 해난 거, 안 허쿠다. 게난 췌구덕 사단에 오일장에 강.(이거 서울까지 했던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췌구덕’ 사다가 오일장에 가서.)

106038 @ 췌구덕도 좋아. 게도 그거라도 허난게. 건 몰란 난 요람도 번 사 봤수다만은 끼각끼각예. 서양 요람. 영 행 무신 췌로 영 행 영 영.(‘췌구덕’도 좋아. 그래도 그거라도 하니까. 건 몰라서 난 요람도 한번 사 봤습니다만 끼각끼각요. 서양 요람. 이렇게 해서 무슨 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106038 #1 어, 출랑출랑.(어, 출렁출렁.)

106038 @ 아이고, 우리 거 허고 스뭇. 흠치 안 좋아. 소리가 끼각끼각 나고예. 그거는 반대로 아기 머리랑 다리로 영 영 영 영 헤여. 우에 선 매니까 끼각끼각. 우리 게 좋아.(아이고, 우리 거 하고 사뭇. 전혀 안 좋아. 소리가 끼각끼각 나고요. 그거는 반대로 아기 머리랑 다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위에 선 매니까 끼각끼각. 우리 게 좋아.)

106038 #2 맞아.(맞아.)

106038 @ 헤 봐야 알아예.(헤 봐야 알아요.)

106038 #1 차룽은 하나토 엇구나. 나 다 줘 불언. 구덕.(채룽은 하나도 없구나. 나 다 줘 버렸어. 바구니.)

106038 #2 차룽은 고운 거 나 던져 불기가 너무 아까완 두 개 놔두난 족은메누리.(채룽은 고운 거 내가 던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두 개 놔두니까 작은며느리.)

106038 @ 오늘은 노형에서 모잘 했는데 그 삿갓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봤수다. 그런 걸 알게 뻘고. 여름에가 정동모자나 삿갓을 썼고 겨울에는.(오늘은 노형에서 모자를 했는데 그 삿갓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걸 알게 뻘고. 여름에가 ‘정동모자’나 삿갓을 썼고 겨울에는.)

106038 #1 나 구덕 가져올게.(나 바구니 가져올게.)

106039 @ 겨울은 털모자를 썼수과?(겨울은 털모자를 썼습니까?)

106039 #2 겨울에는 옛날엔 모자들이 벨로 없엇거든. 옛날엔 모자가 없엇어. 게난 겨울에 뭘 모자 쓰는 사름도 드물고. 겐디 남자분덜은 대개 저 나까오리³¹².(겨울에는 옛날엔 모자들이 별로 없엇거든. 옛날엔 모자가 없엇어. 그러니까 겨울에 뭘 모자 쓰는 사름도 드물고. 그런데 남자분들은 대개 저 ‘나까오리’.)

106039 @ 겨울에가?(겨울에가?)

312) ‘나까오리’는 일본어 ‘なかおれ’에서 온 말로 중절모를 말한다.

106039 #2 으.(으.)

106039 @ 겨울에가 나까오리.(겨울에가 ‘나까오리’.)

106039 #2 겨울에 나까오리 썬.(겨울에 ‘나까오리’ 썬어.)

106039 @ 일본식 발음이다예?(일본식 발음이네요?)

106039 #2 나까오리 써근에.(‘나까오리’ 써서.)

106039 @ 나까오리가 어떤 것과? 털로 웬 거?(‘나까오리’가 어떤 겁니까? 털로 된 거?)

106039 #2 아니, 그냥 가죽으로 웬 거.(아니, 그냥 가죽으로 된 거.)

106039 @ 가죽으로 웬 나까오리를 썼고. 여름에는?(가죽으로 된 ‘나까오리’를 썼고. 여름에는?)

106039 #2 여름에는 패랭이덜 주로 그자. 옛날엔 농사지영 살젠 허난 패랭이벧기 쓸 게 엇주게.(여름에는 패랭이들 주로 그저. 옛날엔 농사지어서 살려고 하니까 패랭이밖에 쓸 게 없지.)

106039 @ 게도 양반덜은 어디 멋지게 그.(그래도 양반들은 어디 멋지게 그.)

106039 #2 양말은 그 목화 실로, 목화 허영 실 뽑은 걸로. 이 대, 왕대 나무 해근에 바늘 만들앙 해근에 손으로 양말을 짜. 경허영 신는 사름도 많고.(양말은 그 목화 실로, 목화 해서 실 뽑은 걸로. 이 대, 왕대 나무 해서 바늘 만들어서 해서 손으로 양말을 짜. 그래서 신는 사람도 많고.)

106039 @ 갓도 쓰고?(갓도 쓰고?)

106039 #2 이 보선, 보선을 주로 신엇주게. 양말이 그렇게 없으니까. 양말이 귀했주게.(이 버선, 버선을 주로 신엇지. 양말이 그렇게 없으니까. 양말이 귀했지.)

106040 @ 목화 실로? 모자는 갓도 쓰고예?(목화 실로? 모자는 갓도 쓰고요?)

106040 #2 으.(으.)

106040 @ 갓 만드는 사름은 이쪽엔 엇고예?(갓 만드는 사름은 이쪽엔 없고요?)

106040 #2 갓 만드는 거는.(갓 만드는 거는.)

106040 @ 탕건이여 망건이여.(탕건이다 망건이다.)

106040 #2 모르크라.(모르겠어.)

106040 @ 건 삼양이여, 함덕 쪽에서.(건 삼양이야, 함덕 쪽에서.)

106040 #2 만드는 사름은 못 봐 봐신디.(만드는 사름은 못 봐 봤는데.)

106040 @ 그민 양태, 총모자, 망건, 도롱이.(그럼 양태, 총모자, 망건, 도롱이.)

106040 #2 모자, 양태 즈는 사름도 드물고. 우리 친정 할머니 양텔 좇드라고.(모자, 양태 곁는 사람도 드물고. 우리 친정 할머니 양태를 곁더라고.)

106040 @ 아.(아.)

106040 #2 양텔 줄아나신디. 그 대나무 해다가 대나무 해다가, 실이민 좀 굵은 실만큼 그 손 뺑 장만허여.(양태를 곁었었는데. 그 대나무 해다가 대나무 해다가, 실이면 좀 굵은 실만큼 그 손 뺑서 장만해.)

106040 #1 이거 다 나 써난 거라이. 이거 봐이.(이거 다 내가 썼던 거야. 이거

봐.)

106040 @ 계난예.(그러니까요.)

106040 #2 동이구덕³¹³이영 다 놔뒀신게.(‘동이구덕’이란 다 놔뒀네요.)

106040 #1 이거는 아무나, 동네 사름 떡 행 갈 때 허고이.(이거는 아무나, 동네 사름 떡 해서 갈 때 하고.)

106040 @ 이거 떡 행 갈 때. 그 명칭을 말해 줘서.(이거 떡 해서 갈 때. 그 명칭을 말해 주세요.)

106040 #1 이거는 사돈칩이나 형제간끼리 이거.(이거는 사돈집이나 형제간끼리 이거.)

106040 #2 이건 대체게.(이건 대체네.)

106040 #1 으.(으.)

106040 #2 나도 체 놔뒀어.(나도 체 놔뒀어.)

106040 @ 이거는 무시거마씨?(이거는 뭐요?)

106040 #1 이거는 사돈칩이, 사돈.(이거는 사돈집에, 사돈.)

106040 @ 사돈집이.(사돈집에.)

106040 #1 형제간 집이. 막 가까운 디만 이걸로 시루떡 하나 행 아정 가.(형제간 집에. 아주 가까운 데만 이걸로 시루떡 하나 해서 가지고 가.)

106040 @ 이거 잘 들러 봅서. 이거 사돈집이?(이거 잘 들어 보세요. 이거 사돈집에?)

106040 #1 으, 떡 행 가는 거.(으, 떡 해서 가는 거.)

106040 @ 떡 행 가는 거고.(떡 해서 가는 거고.)

106040 #1 으, 시루떡 행 가는 거.(으, 시루떡 해서 가는 거.)

106040 @ 아, 크다예. 이름은 뭐파?(아, 크네요. 이름은 뭐니까?)

106040 #1 이거 동이구덕, 아니, 아니. 무시거엔 헛저만은.(이거 ‘동이구덕’, 아니, 아니. 뭐라고 했다만은.)

106040 #2 이게, 이게 동이구덕이고.(이게, 이게 ‘동이구덕’이고.)

106040 @ 동이구덕 큰 거 이건?(‘동이구덕’ 큰 거 이건?)

106040 #1 이거는 질구덕³¹⁴.(이거는 ‘질구덕’.)

106040 @ 이건 질구덕.(이건 ‘질구덕’.)

106040 #2 이것에 영 행 사돈칩인 정 갖추게.(이것에 이렇게 해서 사돈집에는 지고 갔지.)

106040 @ 세트르, 두 개를?(세트르, 두 개를?)

106040 #1 아니 영 받침 헤여근에 하나씩, 하나씩.(아니 이렇게 받침 해서 하나씩, 하나씩.)

106040 @ 같이 뭘 수가 있어마씨? 세트르?(같이 뭘 수가 있어요? 세트르?)

313) ‘동이구덕’은 동이 대신으로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314) ‘질구덕’은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대나무로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106040 #1 이거 드는 거 잇어나신디 엇네.(이거 드는 거 있었었는데 없네.)
 106040 @ 안 들어가.(안 들어가.)
 106040 #1 드는 거 잇어났어. 우리 ○○이네 집 헐 땐 느랑 이거 된 정 가났어
 게.(드는 거 있었었어. 우리 ○○이네 집 할 때는 늘 이거 되서 지고 갔었어.)
 106040 #2 게메.(글썸.)
 106040 @ 이거 두 개 다 질구덕이과?(이거 두 개 다 ‘질구덕’입니까?)
 106040 #1 아니, 이거는 동이구덕에서 큰 구덕이야.(아니, 이거는 ‘동이구덕’에서
 큰 구덕이야.)
 106040 #2 이게 질구덕이주게.(이게 ‘질구덕’이지.)
 106040 @ 동이구덕에서 큰 구덕이고 이게 질구덕이고.(‘동이구덕’에서 큰 바구니
 이고 이게 ‘질구덕’이고.)
 106040 #1 으.(으.)
 106040 @ 이거는 무슨 체파? 구멍이 크니까.(이거는 무슨 체입니까? 구멍이 크
 니까.)
 106040 #1 대체, 대체. 이거는 대거름체³¹⁵.(대체, 대체. 이거는 ‘대거름체’.)
 106040 #2 요건, 이거 다음에 거.(요건, 이거 다음의 거.)
 106040 #1 요거는 보리쌀 스테기, 스테기 허는 거.(요거는 보리쌀 싸라기, 싸라기
 하는 거.)
 106040 @ 보리쌀 스테기 허는 거고예?(보리쌀 싸라기 하는 거고요?)
 106040 #2 대거름체, 거름체³¹⁶.(‘대거름체’, ‘거름체’.)
 106040 @ 어느 게 거름체?(어느 게 ‘거름체’?)
 106040 #2 이건 대체, 저건 거름체.(이건 대체, 저건 ‘거름체’.)
 106040 @ 구멍이 커야 대체.(구멍이 커야 대체.)
 106040 #2 이거는 대거름체디 이 아래 거름체가 망가져 데껴 붙언. 빠져 붙언.
 (이거는 ‘대거름체’인데 이 아래 ‘거름체’가 망가져서 던져 버렸어. 빠져 버렸어.)
 106040 @ 대체, 대거름체디 어느 게 더 큰 거?(대체, ‘대거름체’인데 어느 게 더
 큰 거?)
 106040 #1 이거.(이거.)
 106040 @ 대체가?(대체가?)
 106040 #2 대체가.(대체가.)
 106040 @ 대체가 더 구멍이 큰 거.(대체가 더 구멍이 큰 거.)
 106040 #1 이거는이 우리 조 장만행 조 막 영 영 허는 거.(이거는 우리 조 장만
 해서 조 마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06040 @ 대체는 조 장만.(대체는 조 장만.)
 106040 #1 조 장만해근에 그.(조 장만해서 그.)

315) ‘대거름체’는 햇불의 구멍 크기가 대체보다는 작고 ‘거름체’보다는 작은 체를 말한다. 보통 체의 구
 멍 크기에 따라 ‘대체-대거름체-거름체-총체’ 등으로 부른다.

316) ‘거름체’는 햇불의 구멍 크기가 대거름체보다 작고 총체보다 큰 체를 말한다.

106040 #2 유채 장만행도 치고.(유채 장만해서도 치고.)

106040 #1 그 저 조 국메기³¹⁷⁾ 딱로 조 딱로 나오지. 알로 조 나오고 우이 국메기.(그 저 조 ‘국메기’ 따로 조 따로 나오지. 아래로 조 나오고 위에 ‘국메기’.)

106040 @ 국메기가예?(‘국메기’가요?)

106040 #1 으.(으.)

106040 @ 이삭, 조이삭을 말헬지예, 국메기?(이삭, 조이삭을 말하고 있지요, ‘국메기’?)

106040 #1 조 부터난 거.(조 붙었던 거.)

106040 @ 조 부터난 거, 조이삭.(조 붙었던 거, 조이삭.)

106040 #2 그 열매 달려난 거.(그 열매 달렸던 거.)

106040 @ 열매 달려난 거. 이거는 대거름체는 아까?(열매 달렸던 거. 이거는 ‘대거름체’는 아까?)

106040 #2 그다음에 쓰는 거 이거.(그다음에 쓰는 거 이거.)

106040 @ 그다음에 뭘 허는 거파?(그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106040 #1 이거는이 저 이거 허민 흥끔 이거 죽아 부난 덜 나오민 보리 곶면은 이 이걸로 대거름체질 허면은 우이 스레기 훑은 스레기 빠민 쏘이 좋아. 이걸로 안 허민 막 훑은 스레기 막 하영 들어가, 쏘에. 쏘 폴레 가민 막 이걸로 거 안 헌 거 알아져.(이거는 저 이거 하면 조금 이거 작아 버리니까 덜 나오면 보리 갈면 이걸로 ‘대거름체질’ 하면 위에 싸라기 굵은 싸라기 빼면 쌀이 좋아. 이걸로 안 하면 아주 굵은 싸라기 아주 많이 들어가, 쌀에. 쌀 팔러 가면 아주 이걸로 한 거 안 한 거 알 수 있어.)

106040 @ 보리쫄예?(보리쌀요?)

106040 #1 으, 장에 갈 때.(으, 장에 갈 때.)

106040 @ 비슷비슷헌 게.(비슷비슷한 게.)

106040 #1 이거 이거는 필요 없어.(이거 이거는 필요 없어.)

106040 #2 비슷헌 게.(비슷한 게.)

106040 #1 아니, 확실히 이것이 즈질지. 즈질아, 이거.(아니, 확실히 이것이 가늘지. 가늘어, 이거.)

106040 #2 닮은게. 다 대첸게게. 무신 대거름체 말이나?(닮네. 다 대체이네. 무슨 ‘대거름체’ 말이나?)

106040 #1 아니, 이거 대거름체.(아니, 이거 ‘대거름체’.)

106040 #2 대거름체냐?(‘대거름체’냐?)

106040 @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가 있다는 거지예?(대체, ‘대거름체’, ‘거름체’가 있다는 거지요?)

106040 #1 예. 이 안에 거름체가 이신디 거름체 이거 확 빠져 불더라.(예. 이 안에 ‘거름체’가 있는데 ‘거름체’ 이거 확 빠져 버리더라.)

317) ‘국메기’는 조의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알을 떨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말한다.

106040 @ 푸는체도 이거 막 귀한 거.(키도 이거 아주 귀한 거.)

106040 #2 대체에 거름체에 이제.(대체에 ‘거름체’에 이제.)

106040 #1 야, ○○는 이것도 엇잉 이것도 빌어 가더라.(야, ○○는 이것도 없어서 이것도 빌려서 가더라.)

106040 #2 난 이거이 비료 푸대 종으로 불량 썸서. 다 불량.(난 이거 비료 부대 종으로 발라서 쓰고 있어. 다 발라서.)

106040 @ 게도 필요한 생이라예?(그래도 필요한 모양이지요?)

106040 #1 아니, 이제 무시거 놔근에 영 땡 푸민 다 나가 불어.(아니, 이제 뭐 넣어서 이렇게 놔서 까부르면 다 나가 버려.)

106040 #2 체, 체 골라지주게.(체, 체 가를 수 있지.)

106040 @ 우리 공연 때도 이거 썸수다만은, 할무니가 준 걸로 썸수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그거, 작은아빠네 거 다 던져 불잖아.(우리 공연 때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만, 할머니가 준 걸로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그거, 작은아빠네 거 다 던져 버리잖아.)

106040 #1 던져 불지.(던져 버리지.)

106040 #2 나가 다 가정 왕예. ㄴ레고 ㄴ렛방식이고 다 가정 왕.(내가 다 가지고 와서요. 땡돌이고 땡방식이고 다 가지고 와서.)

106040 #1 ○○도 이거 써나신디 데껴 불고렌. 망가지난. 주왕 안 썸. 이디 놀 빠지난 데껴 불귀렌. 주워시민 쓸 건디.(○○도 이거 썼었는데 던져 버렸다고. 망가지니까. 기워서 안 쓰고. 여기 날 빠지니까 던져 버렸다고. 기웠으면 쓸 건데.)

106040 #2 난 불량 썸서, 불량.(난 발라서 쓰고 있어, 발라서.)

106040 #1 빌리렌 헨 빌어 가난.(빌리라고 해서 빌려 갔었어.)

106040 #2 옛날.(옛날.)

106040 #1 나 쯔팍³¹⁸⁾도이, 이거 거려내는 쯔팍이 두 개주. 헛난 ○○ 아시 그거 자꾸 곡식 허지 안허나? 앓단 하나 줏주게. 이걸로 허렌. 보난 어멍이 낭퐁으로 불럼서.(나 ‘쯔팍’도, 이거 떠내는 ‘쯔팍’이 두 개지. 하나는 ○○ 아우 그거 자꾸 곡식 하지 않냐? 가져다가 하나 줏지. 이걸로 하라고. 보니까 어머니가 양퐁으로 불리고 있어.)

106040 @ 하하하.(하하하.)

106040 #1 낭퐁으로 허염권데.(양퐁으로 하고 있길래.)

106040 #2 난 쯔팍도 나 허는 거.(난 ‘쯔팍’도 내가 하는 거.)

106040 #1 난 두 개라, 이거.(난 두 개야, 이거.)

106040 #2 큰아덜이 어머니 저 우리 ㄴ렛방식도 잇수과, 허권데 그여게. 저 땡박, 쯔팍이엔 헛 것도 잇수과 허권데 기여게 허난 쯔팍도 잇고 땡박도 잇고, 땡박도 큰 것도 잇고 작은 것도 잇고 허다게, 허난 아이고, 우리 집이 다 잇구나 허멍.(큰아들

318) ‘쯔팍’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한다. ‘솔박’이라고도 한다.

이 어머니 저 우리 땃방식도 있습니까, 하길래 그래. 저 되, ‘죤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하길래 그래 하니까 ‘죤팍’도 있고 되도 있고, 되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
도 있고 해,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다 있구나 하면서.)

106040 #1 이거 죤팍이야.(이거 ‘죤팍’이야.)

106040 @ 저 솔박이렌 안 헛수과?(저 ‘솔박’이라고 안 했습니까?)

106040 #1 이거 솔박.(이거 ‘솔박’.)

106040 #2 이거 솔박이엔 저.(이거 솔박이라고 저.)

106040 #1 죤팍이엔도 허고.(‘죤팍’이라고도 하고.)

106040 #2 죤팍이엔도 허여게, 겐디.(‘죤팍’이라고도 해, 그런데.)

106040 #1 죤팍은 늑신네덜은 죤팍이엔 해. 막 어른덜은 죤팍이엔 해.(‘죤팍’은
늑은이들은 ‘죤팍’이라고 해. 아주 어른들은 ‘죤팍’이라고 해.)

106040 @ 노형에서 어른덜은 죤팍이렌 허고?(노형에서 어른들은 ‘죤팍’이라고 하
고?)

106040 #1 으.(으.)

106040 @ 솔박이렌은 무사 험신고예? 소나무로 만드난 솔박이렌 허는가?(‘솔박’
이라고는 왜 하나요? 소나무로 만드니까 ‘솔박’이라고 하는가?)

106040 #1 으, 경헌 거 다향.(으, 그런 거 같아.)

106040 #2 경헌 생이라. 솔박, 솔박도 허고 죤팍이엔도 허고. 헐디 이디 우리 동
넨 해 죤팍이엔 곶아.(그런 모양이야. ‘솔박’, ‘솔박’도 하고 ‘죤팍’이라고도 하고. 그
런데 우리 동네는 거의 ‘죤팍’이라고 말해.)

106040 @ 이 동네서는 죤팍.(이 동네서는 ‘죤팍’.)

106040 #2 거의 죤팍이엔 허는디 우리 웨가가 한림인디 가민 그딘 솔박이엔 허
여.(거의 ‘죤팍’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가가 한림인데 가면 거긴 ‘솔박’이라고 해.)

106040 @ 조그마한 건 뒹약세기렌도 험니까?(조그마한 건 ‘뒹약세기’라고도 험니
까?)

106040 #1 어. 나 뒹약세기³¹⁹도 잇어.(어. 나 ‘뒹약세기’도 잇어.)

106040 #2 난 뒹약세긴 엇어.(난 ‘뒹약세기’는 없어.)

106040 #1 장에 강 사 완.(장에 가서 사 왔어.)

106040 #2 어디사 데껴신디.(어디에 던졌는지.)

106040 #1 아, 싹긴 셔나신디.(아, 잇긴 잇었는데.)

106040 @ 특산물로 그 저 삼나무, 숙대당으로 그걸 만들양덜 푼디다게. 게난 잇
는 거주. 그거 누가 만듭니까게?(특산물로 그 저 삼나무, 삼나무로 그걸 만들어서들
팝데다.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거 누가 만듭니까?)

106040 #1 맞주게.(맞지.)

106040 @ 근데 그게 어떻게, 용도로 찢는지는 몰랐지.(그런데 그게 어떻게, 용도
로 찢는지는 몰랐지.)

319) ‘뒹약세기’는 쌀을 뜯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주로 쌀독에 넣어서 사용한다.

106040 #1 이건 동이구덕 큰 찢이라. 죽은 건 막 들어가났어.(이거 ‘동이구덕’ 큰 찢이야. 작은 건 마구 들어갔었어.)

106040 #2 음.(음.)

106040 @ 계난 이거 이름이 뭐마썸?(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뭐예요?)

106040 #2 동이구덕.(‘동이구덕’)

106040 @ 무사 동이구덕이렌 해신고예?(왜 ‘동이구덕’이라고 했나요?)

106040 #2 몰라.(몰라.)

106040 #1 계난 옛날에 떡을 허는디이 상웨떡 행 이것에 즈근즈근 놓민 많이 들잖아. 경 아니 낡 요디만, 요디만 툽툽 놔 낡 요만이 오민이 이디는 구리게, 구리게 허영 이디만 영 영 떡을 풀아 줘게이. 영 즈근즈근행 귀나게 놓질 안허영.(그러니까 옛날에 떡을 하는데 상화떡 해서 이것에 차곡차곡 넣으면 많이 들잖아. 그렇게 안 넣고 요기만, 요기만 툽툽 놓고 나서 요만큼 오면 여기는 굶게, 굶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떡을 팔아 줘.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귀나게 놓질 않아.)

106040 #2 계민 하영 들어가 불주게.(그럼 많이 들어가 버리지.)

106040 #1 경허영, 경허단 이거 잘못땡 정 가단 넘어지민 밧딘 싹 들어가 불어, 들어가 불어. 비여, 비여.(그래서, 그러다가 이거 잘못돼서 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한 군데 싹 들어가 버려, 들어가 버려. 비어, 비어.)

106040 @ 하하하.(하하하.)

106040 #1 옛날 경도 행 살아이.(옛날 그렇게도 해서 살아.)

106040 @ 어떻 정 가단.(어떻게 지고 가다가.)

106040 #1 이제는 경은 안 허여.(이제는 그렇게는 안 해.)

106040 #2 맞다게.(맞다.)

106040 #1 이제는 경은 안 허여.(이제는 그렇게는 안 해.)

106040 @ 포따리에 쌍 가지 안허여? 지영 가져?(보따리 싸서 가지 앓아? 지고 갈 수 있어?)

106040 #2 포따리에 쌍.(보따리에 싸서.)

106040 @ 이거는예? 켜 요거 하나 가정 갑니까, 제삿집이?(이거는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갑니까, 제삿집에?)

106040 #1 헛나, 헛나.(하나, 하나.)

106040 @ 집에서 행은에 가정 가는 거지예?(집에서 해서 가지고 가는 거지요?)

106040 #1 아니, 아니. 빵 만드는 디 강 상.(아니, 아니. 빵 만드는 데 가서 사서.)

106040 #2 상, 상.(사서, 사서.)

106040 #1 여기 빵집이 잇어나신디 엇인 땐 시에도 강 사단.(여기 빵집이 있었는데 없을 땐 시에도 가서 사다가.)

106040 @ 고봉빵이여, 허물빵이여.(‘고봉빵’이다, ‘허물빵’이다.)

106040 #2 음. 우리 시고모인 용담 살아근에 이 성안에 용담 강 살아근에게.(음.

우리 시고모는 용담 살아서 이 ‘성안’에 용담 가서 살아서.)

106040 #1 작은 시고모?(작은 시고모?)

106040 #2 으. 살만큼 살아도이 당부모 해도이 요런 동이구덕, 켜그만헌 거에 빵 상 가정 오더라.(으. 살만큼 살아도 당부모 해도 이런 ‘동이구덕’ 자그마한 거에 그렇게 빵 사서 가지고 오더라.)

106040 #1 사름 나름에 간다. 우리, 옛날에 우리 큰고모, 막 우리보다 막, 질 큰 고모란디 큰고몬 떡도 안 행 오더라. 그냥 두 병들이, 두 병들이라 납작헌 병으로 허난 청주 뽕. 게민 우리 아버지가 막내난이 막 강 언강, 지만. 누님, 누님 무시 거 행 완, 무시거 행 완, 막 쫓아 가민 우리 큰고모가 야이 무사 나 오민 나신더레 막 **질 험시게? 무사, 술 췌 해당 상에 올렸저, 무사? 허난 길길길 웃으멍. 게 난 질 큰 누님이 똥곡 우리 할머니 제서허주, 여름에 막 더운 때 허민 떡 번 안 해 와.(사람 나름에 간다. 우리, 옛날에 우리 큰고모, 아주 우리보다 아주, 췌 큰고 모였는데 큰고모는 떡도 안 해서 오더라. 그냥 두 병들이, 두 병들이야 납작한 병으로 하니까 청주 한 병.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막내니까 마구 가서 아양, 자기만. 누님, 누님 뭐 하고 왔어, 뭐 하고 왔어, 마구 쫓아 가면 우리 큰고모가 애 왜 내가 오면 나에게 마구 **질 하고 있어? 왜, 술 한 병 해다가 상에 올렸어, 왜? 그러니까 길길 길 웃으면서. 그러니까 췌 큰 누님이 되고 우리 할머니 제사하지, 여름에 아주 더운 때 하면 떡 한 번 안 해 와.)

106040 @ 자기 어머닌테?(자기 어머니인데?)

106040 #1 떡을 번도 아니 해 와. 게난 사기췌 요만헌 거 두 병들이 납작한 췌, 사기췌 걸로 청주이, 청주 그거 하나 해당 상에 딱 올령. 다랑굿³²⁰이난 다랑굿도 가깝주게. 월랑³²¹서, 월랑서 요 우이. 뽕일³²²인 요 웃가름이 뽕일이라. 여기 우리 하르부지 살단 그디 밧 이시난 글로 올라강 집 지영 사는디.(떡을 한 번도 안 해 와. 그러니까 사기병 요만한 거 두 병들이 납작한 병, 사기병 걸로 청주, 청주 그거 하나 해다가 상에 딱 올려서, ‘다랑굿’이니까 ‘다랑굿’도 가깝지. ‘월랑’에서, ‘월랑’에서 요 위에. ‘뽕일’은 요 ‘웃가름’이 ‘뽕일’이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 살다가 거기 밧 있으니까 그리로 올라가서 집 지어서 사는데.)

106040 @ 게민 이 동이구덕은 오직 늙의 집이 떡 행 갈 때만 쓰는 겨우짜, 다른 거엔 안 써?(그럼 이 ‘동이구덕’은 오직 남의 집에 떡 해서 갈 때만 쓰는 겁니까, 다른 거엔 안 써?)

106040 #1 으, 안 써.(으, 안 써.)

106040 @ 경해도 또 그거 장만허젠, 동이구덕을 사야 똥여.(그래도 또 그거 장만 하려고, ‘동이구덕’을 사야 돼.)

106040 #1 이제는 무슨 일 나민 돈 봉투에 담앙 가는 식이야, 이것이. 딱 그식이 라.(이제는 무슨 일 나면 돈 봉투에 담아서 가는 식이야, 이것이. 딱 그식이야.)

320) ‘다랑굿’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321) ‘월랑’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322) ‘뽕일’은 제주시 노형동 자연 마을 이름의 하나다.

106040 @ 게민 언제, 언제 이걸로 떡을 해 갑니까? 제사, 멧질?(그러면 언제, 언제 이걸로 떡을 해 갑니까? 제사, 멧질?)

106040 #1 제사, 멧질엔 안 허는데 늬이라도이.(제사, 멧질엔 안 허는데 늬이라도.)

106040 #2 초상 때.(초상 때.)

106040 #1 사름 죽으민 세 번 허여이. 번 초상 죽은 때 허곡 소상허고 대상 경 해.(사람 죽으면 세 번 해. 한 번 초상 죽은 때 하고 소상하고 대상 그렇게 해.)

106040 @ 그때 멧 촌까지 돌아가시민 이걸 행 가마씨?(그때 멧 촌까지 돌아가시면 이걸 해서 가요?)

106040 #1 늬, 모른 사름도 부주.(남, 모른 사람도 부조.)

106040 #2 동네서 친허민 상 가주게.(동네에서 친하면 사서 가지.)

106040 #1 우리게 모른 사름도 부주행 가지 안헉니까게. 소상, 잔치허민 잔치에.(우리 모른 사람도 부조해서 가지 않습니까. 소상, 잔치하면 잔치에.)

106040 @ 돈 대신?(돈 대신?)

106040 #1 으, 소상도 번 허민 감주게. 번 헐 때 알아지민.(으, 소상도 한번 하면 가지. 한번 할 때 알 수 있으면.)

106040 #2 다 가주게.(다 가지.)

106040 #1 몰르민 못 가도. 알면.(모르면 못 가도. 알면.)

106040 @ 게민 그 떡을 가정 가, 다덜?(그럼 그 떡을 가지고 가, 다들?)

106040 #1 으. 겐 가정 가민 그 떡 비와 뒤근에 또 이젠 그 떡 빙는 건 다 보통으로 알아, 경 고르게 행 가도이. 탁 비우민 한가운데 거만 툐락허게³²³⁾ 둥굴영.(으. 그래서 가지고 가면 그 떡 부어 두고 또 이젠 그 떡 붓는 건 다 보통으로 알아, 그렇게 굵게 해서 가도. 탁 부으면 한가운데 거만 ‘툐락하게’ 굴러서.)

106040 @ 경허고 빈 차룽으로 줍니까?(그리고 빈 채룽으로 줍니까?)

106040 #2 서너 개 낱 줘.(서너 개 넣어서 줘.)

106040 #1 아니, 떡 놓앙 줘. 또 이 사람 죽영 묻을 때, 묻을 때는 친척만, ㄴ튼 성 친척만, 팔촌꺼지.(아니, 떡 넣어서 줘. 또 이 사람 죽어서 묻을 때, 묻을 때는 친척만, 같은 성 친척만, 팔촌까지.)

106040 #2 팔촌꺼지.(팔촌까지.)

106040 #1 팔촌꺼지 물떡³²⁴⁾을 흐뭇 크게 해. 저 ㄴ물썰 굴아당 ㄴ물ㄴ를로. 크게 허난 물떡 니 개가 돼 치야. 게민 말에 치 허젠 허민 니 개씩 허민, 니 개민 으답 개, 열두 개라. 말가웃 치 허민 그 니 개가 말에 허민 두 개를 더 놓지. 경혜영 막 가까우민 말가웃 치를 혜영 가곡 스춘까지는. 먼 친척에는 말만. 니 개씩 헌 거 으답 개라. 떡 으답 개. 으답 개 행 정 가. 겐디 것도 크니까 꽤 무거와. 떡 으답 개도. 말에 치. 말가웃 치는 열두 개.(팔촌까지 ‘물떡’을 조금 크게 해.

323) ‘툐락허다’는 물건이 한쪽 또는 일부가 갑자기 튀어나온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24)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처럼 만들어 안에 팔소나 무채 등을 넣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저 메밀쌀 갈아다가 메밀가루로. 크게 하니까 ‘물떡’ 네 개가 한 되 치야. 그럼 한 말의 치 하려고 하면 네 개씩 하면, 네 개면 여덟 개, 열두 개야. 말가웃 치 하면 그 네 개가 한 말에 하면 두 개를 더 넣지. 그렇게 해서 아주 가까우면 말가웃 치를 해서 가고 사촌까지는. 먼 친척에는 한 말만. 네 개씩 한 거 여덟 개야. 떡 여덟 개. 여덟 개 해서 지고 가. 그런데 것도 크니까 꽤 무거워. 떡 여덟 개도. 한 말의 치. 말가웃 치는 열두 개.)

106040 @ 친척 여덟 명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마어마하겠다예.(친척 여덟 명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마어마하겠네요.)

106040 #1 겐디 그 떡 행 가민 그 구덕에 또 떡 니 껌 낱 줘. 니 개, 똥 칠 낱 줘.(그런데 그 떡 해서 가면 그 바구니에 또 떡 네 개를 넣어서 줘. 네 개, 한 되 치를 넣어 줘.)

106040 #2 옛날엔 이 저 초상낭 장지에도 밥을 안 허주게. 밥을 안 해근에 방상에서 친척덜이 고적³²⁵⁾을 해 가면은 그거 몇 개씩 놔근에게 이 일꾼덜 맥여낫주게, 점심으로. 경해근에게 허영.(옛날엔 이 저 초상나서 장지에도 밥을 안 하지. 밥을 안 해서 종친에서 친척들이 ‘고적’을 해 가면 그거 몇 개씩 넣어서 이 일꾼들 먹여 낫어, 점심으로. 그렇게 해서.)

106040 #1 영장 묻은 사름덜도 그 떡으로 많이 줘. 겐 떡으로 점심을 살앙 와, 집이. 겐디 그때가 흐뎀 이시난 점심 했어이.(송장 묻은 사람들도 그 떡으로 많이 줘. 그래서 떡으로 점심을 살고 와, 집에. 그런데 그때가 조금 있으니까 점심 했어.)

106040 #2 흐뎀 잇어 가난.(조금 있어 가니까.)

106040 #1 점심 해 줬어. 밥 아니 준 때, 밥 아니 준 땐 왜정 때 다했어. 왜정 때. 점심 아니 준 때.(점심 해 줬어. 밥 안 줄 때, 밥 안 줄 때 왜정 때 같아. 왜정 때. 점심 안 준 때.)

106040 @ 상두꾼덜이영 다 떡으로?(상두꾼들이랑 다 떡으로?)

106040 #1 떡으로만 경.(떡으로만 그렇게.)

106040 #2 우리 아버지 돌아간.(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106040 @ 김치나 물 뭐 이런 것도 없이?(김치나 물 뭐 이런 것도 없이?)

106040 #2 우리 아버지 돌아간 때 밥허영 먹여낫어.(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밥 해서 먹었었어.)

106040 #1 그때부터 했어? 그 전이부터 했주.(그때부터 했어? 그 전부터 했지.)

106040 #2 게메 경허난 하여튼 왜정시대, 왜정시대만 경 해난 거 다했어.(글쎄 그러니까 하여튼 왜정시대, 왜정시대만 그렇게 했던 거 같아.)

106040 #1 으. 사삼사건 후에, 후에 가신디.(으. 사삼사건 후에, 후에 갔는데.)

106040 #2 게난 왜정시대에만 경 해난 거 다했어.(그러니까 왜정시대에만 그렇게 했던 거 같아.)

106040 #1 으. 나가이 우리 할무니 동생이 **할무니라. 우리 할무니가 젤 모녀.

325) ‘고적’은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친척이 만들어 가는 부조 떡을 말한다.

(으. 내가 우리 할머니 동생이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가 쟈 먼저.)

106040 #2 아니라, 왜정시대만 한 게 아니고이 이 사삼 후에도 이 건설허연 이디 왕 살 때에 나 서울서 완 보난, 나 서울서 오는 날이 비가 죽죽죽죽 오는 날이랴어 이. 오는 날인디 이 부두에 완 내리난에 세 시 댜더라고이. 경허난 가반 들런 오단 그때 나 막 몸 아팠 올 때난 가반은 그 지게꾼 빌언 지연 오단에 서문통³²⁶⁾ 오란 그 느네 스춘 오빠네.(아니야, 왜정시대만 한 게 아니고 이 사삼 후에도 이 건설해서 여기 와서 살 때에 나 서울에서 와서 보니까, 내가 서울에서 오는 날이 비가 죽죽죽죽 오는 날이었어. 오는 날인데 이 부두에 와서 내리니까 세 시 댜더라고. 그러니까 가방 들고 오다가 그때 내가 아주 몸 아파서 올 때니까 가방은 그 지게꾼 빌려서 지고 오다가 서문통 와서 그 너희 사촌 오빠네.)

106040 #1 으, 관덕청.(으, 관덕정.)

106040 #2 으. 관덕청 그디 간에 동넛 어른이난.(으. 관덕정 거기 가서 동네 어른 이니까.)

106040 #1 그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머쳐.(거기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맡겨.)

106040 #2 으게, 아는 어른이난 그디 간 머쳐 뒀에 나가 걸어앗앙 오는디 저녁 시간 댜엇어, 그때. 남문³²⁷⁾에 딱 들어오니까 그 청년덜 보초 샷잖아. 보초 사난 어디서 완시니, 심영 딱 곧더라고. 난 그때 통행증을 끈영 왔어, 나가. 통행증을 끈영 왕 통행증을 배우난 들어가렌 헨 들어와신디. 아이 어무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이 영 영 바레명 오단 보난에 어떤 아이가 허벽³²⁸⁾ 정 물 질레 감더라. 쟈 영 보난 ○ ○이라게. 너븐드르³²⁹⁾ ○○ 각시.(으, 아는 어른이니까 거기 가서 맡겨 두고 내가 걸어서 오는데 저녁 시간 되었어, 그때. 남문에 딱 들어오니까 그 청년들 보초 샷잖아. 보초 서니까 어디에서 오고 있니, 잡아서 딱 말하더라. 난 그때 통행증을 꿇고 왔어, 내가. 통행증을 꿇고 와서 통행증을 보이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니 어머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오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허벽’ 지고 물 길러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 ‘너븐드르’ ○○ 각시.)

106040 #1 ○○이 아시?(○○이 아우?)

106040 #2 으, ○○이 아시. 가이 만나전. 쟈 야 너 ○○이 아니냐? 영 뽕 아이고 게, 아이고, ○○로구나게. 아이고, 어평허난 와점구나게, 허권데 야 우리 어무니네 어디 살암시 가르켜 도라. 경행 ㄱ르청 보난 진짜 거적문에 돌쳐귀 행.(으, ○○이 아우. 개 만났어. 그래서 야 너 ○○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아이고, 아이고, ○○로구나. 아이고, 어떡해서 오고 있구나, 하길래 야 우리 어머니네 어디 살고 있는지

326) ‘서문통’은 현재 제주서문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명으로, 옛 제주읍성의 서문(西門)이 있었던 거리를 가리킨다.

327) ‘남문’은 제주목을 둘러싸던 제주읍성의 남쪽 문을 말한다.

328) ‘허벽’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329) ‘너븐드르’는 제주시 노형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가르쳐 줘라. 그래서 가르쳐서 보니까 진짜 거적문에 돌쩌귀 해서.)

106040 #1 어느 펜이, 동펜이?(어느 편에, 동편에?)

106040 #2 아니, 그 저 그 우리 웨삼촌네 살아난 그 장소라, 그디라. 그디 살았더라고.(아니, 그 저 우리 외삼촌네 살았던 그 장소야, 거기야. 거기 살고 있더라고.)

106040 #1 겐 그디 살단 내중엔 저 우이, 우리 어무니네 엠에 완?(그래서 거기 살다가 나중엔 저 위에, 우리 어머니네 옆에 와서?)

106040 #2 내중에 갓지.(나중에 갔지.)

106040 #1 아, 내중에.(아, 나중에.)

106040 #2 처음엔 그디 살았더라, 나 완 보난. 그디 사느디 진짜로 ***에 내만 풍풍풍 험선게. 가이가 확 먼저 들어간에 그 거적문 확 들렁 걷으멍 하이고, 삼촌 ○○ 왓수게.(처음엔 거기 살고 있더라, 내가 와서 보니까. 거기 사는데 진짜로 ***에 연기만 풍풍풍 하고 있던데. 개가 확 먼저 들어가서 그 거적문 확 들고 걷으면서 하이고, 삼촌 ○○ 왔습니다.)

106040 #1 거적문이 무시건 중 알아?(거적문이 무엇인 줄 알아?)

106040 @ 거적문.(거적문.)

106040 #1 가멩이 잇지, 가멩이. 가멩이 영 튼영 허민 질어, 질어. 질면은 그거 이레 돌아메영 그것이.(가마니 잇지, 가마니. 가마니 이렇게 뜯어서 하면 길어, 길어. 길면 그거 이리 달아매서 그것이.)

106040 #2 그게 문이라.(그게 문이야.)

106040 #1 들어가는 문, 뭐 중그고 뭐 헐 게 잇나?(들어가는 문, 뭐 잠그고 뭐 할 게 있냐?)

106040 #2 문이 어디 셔게.(문이 어디 있어.)

106040 #1 그 문 영 올민 들어가꼭 아래 놓민 더퍼지고.(그 문 이렇게 열면 들어가고 아래 놓으면 덮히고.)

106040 #2 들렁 들어가꼭.(들고 들어가고.)

106040 #1 사삼사건 후에, 사삼사건 후에. 산에 간에 만딱 등글단 온 때.(사삼사건 후에, 사삼사건 후에. 산에 가서 모두 뒥굴다가 왔을 때.)

106040 #2 겐 완 보난 아버지가 안 계셔.(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

106040 #1 거적문 그때.(거적문 그때.)

106040 #2 아버진 어디 갓수파 허난 장밋디 갓젠. 그때 누게 돌아강 장밋디 갓텐 허더라고. 장밋디 갓텐 헌디 한참 시난에 와선게. 저 막 배고프덴 허멍 재게 밥 주렌 허멍.(아버진 어디 갓습니까 하니까 장지에 갔다고. 그때 누가 돌아가서 장지 갔다고 하더라고. 장지 갔다고 했는데 한참 있으니까 왔더라. 저 마구 배고프다고 하면서 재게 밥 주라고 하면서.)

106040 #1 점심 안 먹으난이?(점심 안 먹으니까?)

106040 #2 으, 허는 생각이 나는 거 보난 그때까지도, 그때도 무시거 행 먹일 힘이 없엇잖아.(으, 하는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그때까지도, 그때도 뭐 해서 먹을 힘

이 없었잖아.)

106040 #1 계란 떡만 맥이난. 먹고장 현 사람은 먹고 실폰 사람은 못 먹지.(그러니까 떡만 먹이니까.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싫은 사람은 못 먹지.)

106040 #2 으. 떡산디 무시거산디 흐뭇 영 가정 오난 아이덜 주곡 난 먹으렌 해도 원 먹을 생각도 었고 원 앞이 캄캄허난.(으. 떡인지 뭔지 조금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아이들 주고 난 먹으라고 해도 원 먹을 생각도 없고 원 앞이 캄캄하니까.)

106040 @ 그 김치나 녹물도 안 싸고 그냥 떡만마썬?(그 김치나 녹물도 안 싸고 그냥 떡만요?)

106040 #1 그때 나가 신촌 성 엇어부난 몰랐저.(그때 내가 신촌 있어서 엇어 버리니까 몰랐어.)

106040 #2 그렇지게. 넌 완 보난 엇더라.(그렇지. 넌 와서 보니까 엇더라.)

106040 #1 아이고, 나 살아난 역사를 말허민, 말헐까 말까.(아이고, 내가 살았던 역사를 말하면, 말할까 말까.)

106040 #2 허지 마. 빨리 이거 헐 것만 저 선생님 행 가게.(하지 마. 빨리 이거 할 것만 저 선생님 해서 가게.)

106040 @ 것도 여기 대목에 하나 잇수다만은. 그 그른 여기에서 모자로 간 거라 부난예.(것도 여기 대목에 하나 있습니다만. 그 그럼 여기에서 모자로 간 거여 버리니까요.)

106040 #1 예.(예.)

106040 @ 양태는 여기서 헛던 거 같고?(양태는 여기서 헛던 거 같고?)

106040 #1 양태는.(양태는.)

106040 @ 할아버지가 헛다는 거지예?(할아버지가 헛다는 거지요?)

106040 #2 할무니가 헛.(할머니가 헛어.)

106040 @ 할무니가.(할머니가.)

106040 #1 양태 허는 사람이 막 두물어.(양태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

106040 #2 드물어.(드물어.)

106040 #1 양태는 삼양이 양태 허는 촌이야.(양태는 삼양이 양태 하는 촌이야.)

106040 @ 예게.(예.)

106040 #1 삼양일동.(삼양일동.)

106040 #2 노형은 우리 할무니벳기 안 헤실 거라.(노형은 우리 할머니밖에 안 했을 거야.)

106040 #1 할무니가 친정이 어디라?(할머니가 친정이 어디야?)

106040 #2 물미³³⁰, 수산³³¹.(‘물미’, 수산.)

106040 #1 물민디 양태 허여?(‘물미’인데 양태 해?)

106040 #2 양텐 주로 허더라고.(양태는 주로 하더라고.)

330) ‘물미’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의 옛 이름이다. ‘물메’라고도 한다.

331) ‘수산’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를 말한다.

106040 #1 건 탕건이 아니고 양태?(건 탕건이 아니고 양태?)
 106040 #2 양태 게메.(양태 글썸.)
 106040 @ 대, 대로.(대, 대로.)
 106040 #1 어?(어?)
 106040 #2 판 이만큼 해 낳.(판 이만큼 해 놔서.)
 106040 @ 대나무로.(대나무로.)
 106040 #1 으.(으.)
 106040 #2 판 이만큼 해 놔근에.(판 이만큼 해 놓아서.)
 106040 #1 그 삼양도 양태도 허곡 탕건도 해.(그 삼양도 양태도 하고 탕건도 해.)
 106040 @ 양태는 누가 써마씨, 양반덜?(양태는 누가 써요, 양반들?)
 106040 #1 누가 쓰는 게 아니고 이 갓을, 갓게.(누가 쓰는 게 아니고 이 갓을, 갓.)
 106040 @ 아.(아.)
 106040 #1 모자게, 우리 모자. 그 모잔 우리 했어. 모잔 좋아.(모자, 우리 모자, 그 모자는 우리 했어. 모자는 곁어.)
 106040 #2 건 탕건이주, 모잔.(건 탕건이지, 모자는.)
 106040 #1 그 모자에 판테기야.(그 모자에 판때기야.)
 106040 #2 탕건은 모자 판테기 넓게, 그 넓은 게 탕건이주게.(탕건은 모자 판때기 넓게, 그 넓은 게 탕건이지.)
 106040 #1 탕건이 모자에 영.(탕건이 모자에 이렇게.)
 106040 #2 부튼 거, 부트게 만드는 거.(붙은 거, 붙게 만드는 거.)
 106040 #1 모자에 넓게 뿔 것가 뿔가?(모자에 날개 될 건가 뭐가?)
 106040 @ 탕건은 영 영 사또 쓰는 게 탕건으로 아는디.(탕건은 이렇게 이렇게 사또 쓰는 게 탕건으로 아는데.)
 106040 #1 그건, 그거는 탕건이고 양태, 양태.(그건, 그거는 탕건이고 양태, 양태.)
 106040 #2 양태.(양태.)
 106040 @ 양태.(양태.)
 106040 #2 그 탕건 부찌근에 아래, 그 밑에 넓게.(그 탕건 붙여서 아래, 그 밑에 넓게.)
 106040 #1 탕건 부찌근에 아니고 모자, 모자.(탕건 붙여서 아니고 모자, 모자.)
 106040 @ 모자 부썰.(모자 붙여서.)
 106040 #1 탕건은 탕건만 써.(탕건은 탕건만 써.)
 106040 #2 그 밑에 넓게 그게 탕, 무시거주게, 양태주게. 겐 우리 할머니 그거 주로 즐앙 풀더라고.(그 밑에 넓게 그게 탕, 뿔지, 양태지.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거 주로 곁어서 팔더라고.)
 106040 #1 건 대로 허는 건데?(건 대로 하는 건데?)

106040 #2 대로, 게메.(대로, 글썸.)

106040 #1 막 이디 손에 골미 쩡 허드라.(마구 여기 손에 골무 껴서 하더라.)

106040 #2 골미 쩡 칼을 요멘큼헌 거 해근에게.(골무 껴서 칼을 요만한 거 해서.)

106040 #1 다듬으멍.(다듬으면서.)

106040 #2 막 영 까끄멍 그 양탔 허드라고.(마구 이렇게 깎으면서 그 양태를 하더라고.)

106040 @ 안 가르쳐 줍디가?(안 가르쳐 줍디까?)

106040 #2 아이고게, 우리, 우리 댕 설이난 무신 알 게 무시거라.(아이고, 우리, 우리 댕 살이니까 무슨 알 게 뭐야.)

106040 @ 겐 말 곶으멍 노래 부르멍 험디가? 그런 건 엇고?(그래서 말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험디까? 그런 건 없고?)

106040 #2 노래 부르는 것도 못 듣고.(노래 부르는 것도 못 듣고.)

106040 #1 노래 부르멍 허는 건이 그 삼양일동 강 보민이 사름덜이 막 하영 앓 양 ㄱ치 막 양태 허멍 노래 부르멍 허는 노래가 있어.(노래 부르면서 하는 건 그 삼양일동 가서 보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앉아서 같이 마구 양태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

106040 @ 예.(예.)

106040 #1 그디야, 그 삼양.(거기야, 그 삼양.)

106040 @ 구경헤난 거 닻다예?(구경했던 거 같네요?)

106040 #1 으?(으?)

106040 @ 구경헤난 거 닻아?(구경했던 거 같아?)

106040 #1 으, 그 삼양일동에 어떡헿 그딜 가시고 허민 삼양일동에 우리 시어머니 웨스춘이 헉나 살아. 겐 그디 강 넘어가는데 보난 사름덜도 막 하고이 그때 무산디 나 시어머니 뒤따라 갔어. 경헌디 막 노래 좋은 사름이라, 양태 줄으멍 노래 부르는 게. 게난 저거 양태 줄으멍 부르는 소리엔. 양텐가 탕건인가.(으, 그 삼양일동에 어떡해서 거길 갔는가 하면 삼양일동에 우리 시어머니 외사촌이 하나 살아. 그래서 거기 가서 넘어가는데 보니까 사람들도 아주 많고 그때 왜인지 내가 시어머니 뒤따라 갔어. 그런데 아주 노래 좋은 사람이야, 양태 곶으면서 노래 부르는 게. 그러니까 저거 양태 곶으면서 부르는 소리라고. 양태인가 탕건인가.)

106040 @ 거기 다 헷텐마씨.(거기 다 헷대요.)

106041 #1 입에 물영 영 영 행 뭉총을 홀트멍 줄아근에 헿.(입에 물어서 이렇게 해서 뭉총을 훑으면서 곶어서 했어.)

106041 #2 게민 건 탕건이여.(그럼 건 탕건이야.)

106041 #1 탕건, 탕건.(탕건, 탕건.)

106041 #2 건 탕건이고 뭉총으로 헷시민.(건 탕건이고 뭉총으로 했으면.)

106041 #1 으.(으.)

106040 #2 양텐 대로.(양태는 대로.)

106040 @ 대로예. 그런 걸 봤는데 몇 설꺼지 할무니 험디까? 기억나는 걸로는?
 (대로요. 그런 걸 봤는데 몇 살까지 할머니 험디까? 기억나는 걸로는?)

106040 #1 벨로 오래 안 험실 거라.(별로 오래 안 했을 거야.)

106040 @ 혼자만 험다는 거지예?(혼자만 험다는 거지요?)

106040 #2 으, 우리 할무니 혼자만 험어.(으, 우리 할머니 혼자만 험어.)

106040 @ 수리대로예? 수릿대 아니면 왕대, 이거?(이대로요? 이대 아니면 왕대, 이거?)

106040 #2 왕대 같애.(왕대 같아.)

106040 @ 이거는예?(이거는요?)

106040 #2 으.(으.)

106040 #1 거 쟈 거난이?(거 쟈 거니까?)

106040 #2 으.(으.)

106040 #1 그 양태가 쟈잖아, 갓이.(그 양태가 세잖아, 갓이.)

106040 #2 수리덴 아니.(수리덴 아니.)

106041 #1 계난 이디서는이 그것을 다 쓰니까, 제사할 때는. 으른덜 남자 으른덜 꼭 그거 제사할 때 딱 썬 그거 써근에 제사 지내.(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다 쓰니까, 제사할 때는. 어른들 남자 어른들 꼭 그거 제사할 때 딱 써서 그거 써서 제사 지내.)

106041 @ 갓 대신 양태를 썬구나.(갓 대신 양태를 썬구나.)

106041 #1 딱 이디 걸엇당.(딱 여기 걸었다가.)

106041 #2 제 지낼 때.(제 지낼 때.)

106041 #1 양텐 벨로 쓰는 거 못 봐신디 난이. 아, 양태 쓰고 거 썬구나. 양태는 쓰꼭 그 우이 갓이라. 갓에 모자 허난 그거 써근에 허난 딱 이디 걸어진 게 딱 있어. 거 거는 공장이 있어, 우리 아버지 거.(양텐 벨로 쓰는 거 못 봤는데 난. 아, 양태 쓰고 거 썬구나. 양태는 쓰고 그 위에 갓이야. 갓에 모자 하니까 그거 써서 하니까 딱 여기 걸어진 게 딱 있어. 거 거는 공장이 있어, 우리 아버지 거.)

106041 #2 거 걸영 놔뒀다근에 제 험 때 똑 쓰주게.(거 걸어서 놔뒀다가 제 할 때 꼭 쓰지.)

106041 #1 멩질허고 제서험 때만 똑 써.(멍질하고 제사할 때만 꼭 써.)

106041 @ 계난 많이 험구나.(그러니까 많이 험구나.)

106041 #1 계난 그 제사험 때만 쓰는 거.(그러니까 그 제사할 때만 쓰는 거.)

106040 #2 이 동넨 그 옛날부터 양촌으로 그 양반으로.(이 동네는 그 옛날부터 양촌으로 그 양반으로.)

106040 @ 게문 그 대나무는 어디 강 그 할무니 혼자 험신고?(그럼 그 대나무는 어디 가서 그 할머니 혼자 했는가?)

106040 #2 어디 강 헤 온 거 모르고게, 그 어린 때난.(어디 가서 헤 온 거 모르고, 그 어렸을 때니까.)

106040 @ 아.(아.)

106040 #1 계난 그 대나무가 세잖아, 세난 과 짹³³² 켜 거난 왕대나무가 맞아.(그러니까 그 대나무가 세잖아, 세니까 ‘과 짹’ 켜 거니까 왕대나무가 맞아.)

106040 @ 그게 어렵주게. 남자덜이 걸 해다 줘야.(그게 어렵지. 남자들이 걸 해다 줘야.)

106040 #2 형겅 막 두겅게 무릎에 깔아근에 막 요만인 칼로 막 만들더라고, 그 재료를.(형겅 아주 두겅게 무릎에 깔아서 마구 요만한 칼로 마구 만들더라고, 그 재료를.)

106040 #1 짹 짹 홀트주게. 나도 그 홀트는 건 봐놔어.(짹 짹 홀지. 나도 그 홀는 건 봤었어.)

106040 @ 그거예, 아무도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안행 엇어져 불문. 다 문화재로 지정됐연.(그거요, 아무도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없어져 버리면. 다 문화재로 지정되었어.)

106040 #2 경 해실 거라.(그렇게 했을 거야.)

106040 #1 겐디 삼양 허는 디 잇젠 허더라. 배왕 험텐.(그런데 삼양 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 배워서 한다고.)

106040 @ 문화재로 지정됐연.(문화재로 지정해서.)

106040 #2 문화재로 지정된 디 험실 거라.(문화재로 지정된 데 하고 있을 거야.)

106040 #1 으, 삼양일동에이.(으, 삼양일동에.)

106040 @ 다 딸들안티 물려 권예.(다 딸들한테 물려 줬어요.)

106040 #1 으, 딸들이 험젠 허더라고.(으, 딸들이 한다고 하더라고.)

106040 @ 험수다.(하고 있습니다.)

106040 #1 이디 누게도 거 해나꿔렌.(여기 누구도 거 했었다고.)

106040 @ 겐디 이제 문제는 구덕 즈는 사람이나 구덕 즈는 하르방네 다 돌아가서 부난 제자가 엇어. 도련, 다 돌아가서 부난.(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구니 결는 사람이나 바구니 결는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서 버리니까 제자가 없어. 도련, 다 돌아가서 버리니까.)

106040 #1 아, 엇어.(아, 없어.)

106040 @ 애기구덕 험 사람이 엇어.(‘애기구덕’ 할 사람이 없어.)

106040 #2 맞아.(맞아.)

106040 @ 예래동에 하르부지 하나 잇텐.(예래동에 할아버지 하나 있다고.)

106040 #1 이 구덕이 도련³³³ 구덕이라. 이거, 이거.(이 바구니가 도련 바구니야. 이거, 이거.)

106040 @ 그분 돌아가션.(그분 돌아가셨어.)

106040 #1 이 구덕이라.(이 바구니야.)

332) ‘과 짹’은 굽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33) ‘도련’은 제주시 도련동을 말한다.

106040 @ 멘촌.(‘멘촌’.)

106040 #1 그 어른이.(그 어른이.)

106040 @ 정 곱게, 저렇게.(저렇게 곱게, 저렇게.)

106040 #1 이거라, 이거.(이거야, 이거.)

106040 @ 저 밥서게, 얼마나 이쁜지.(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106040 #1 그디서 폴레 와시난 그거 나가 산. 맞추앗단. 영 큰 거 해 주렌 해연. 사돈칩이 가젠 허민 이것엔 못 허주게.(거기서 팔러 왔으니까 그거 내가 샀어. 맞췄다가. 이렇게 큰 거 해 주라고 해서. 사돈집에 가려고 하면 이것엔 못 하지.)

106040 #2 작은 것에 못 허주, 당사돈칩이.(작은 것에 못 하지, 당사돈집에.)

106040 @ 이제 베트남 거밖에 엇수께.(이제 베트남 거밖에 없어요.)

106040 #1 우리 ○○이네 집인이. (우리 ○○이네 집은.)

106040 @ 저게 질구덕?(저거 ‘질구덕’?)

106040 #1 이거 질구덕³³⁴.(이거 ‘질구덕’.)

106040 @ 질구덕은 뭐 여저.(‘질구덕’은 뭐 여자.)

106040 #1 여저만이 아니고 이거 나 다른 구덕 두 갠디 누게 쥐 분 생이라. 그레 딱 들어가나신디. 들어가근에 지영 가나신디, 사돈칩이.(여자만이 아니고 이거 나 다른 바구니 두 개인데 누구 쥐 버린 모양이야. 그리 딱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지고 갔었는데, 사돈집에.)

106040 @ 그거는 빨래여, 무신거여?(그거는 빨래다, 뭐다?)

106040 #1 빨래헐 때도 벨로 이건 안 썩.(빨래할 때도 별로 이건 안 쓰고.)

106040 #2 이건 곱게 써, 곱게.(이건 곱게 써, 곱게.)

106040 @ 서답구덕은 또 따로?(빨래 바구니는 또 따로?)

106040 #2 으, 저 사돈칩이 갈 때에 저 작은, 작은 바구니에 떡을 만들앙 놓던지, 허민 요것에 들이청.(으, 저 사돈집에 갈 때에 저 작은, 작은 바구니에 떡을 만들어서 넣던지, 하면 요것에 들어뜨려서.)

106040 #1 서답구덕 막 쓰는.(빨래 바구니 마구 쓰는.)

106040 #2 겐 질빵 해근에 정 가주게.(그래서 질빵 해서 쳐서 가지.)

106040 #1 훑은 대로 줄아근에 송키구덕³³⁵이렌 해근에 큰 거 있어. 것에 담앙 정 다녀. 송키만 허는 구덕이.(훑은 대로 걸어서 ‘송키구덕’이라고 해서 큰 거 있어. 것에 담아서 지고 다녀. 푸성귀만 하는 바구니가.)

106040 @ 아, 송키구덕이 또 있고.(아, ‘송키구덕’이 또 있고.)

106040 #2 으, 송키만 허는 구덕.(으, 푸성귀만 하는 바구니.)

106040 @ 서답구덕이 또 있고.(빨래 바구니가 또 있고.)

106040 #2 빨래만 담앙 허는, 허레 뎡기는 구덕이 있고.(빨래만 담아서 하는, 허러 다니는 바구니가 있고.)

334) ‘질구덕’은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큰 바구니를 말한다.

335) ‘송키구덕’은 ‘송키(푸성귀)+구덕(바구니)’ 구성으로, 푸성귀를 딸 때 사용하는 바구니라는 의미다.

106040 @ 막 쓰는 거.(마구 쓰는 거.)

106040 #1 막 쓰는 거.(마구 쓰는 거.)

106040 @ 계민 저 질구덕은.(그러면 저 ‘질구덕’은.)

106040 #2 송키구덕이엔 현 건 조그만허게 만든 거고.(‘송키구덕’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하게 만든 거고.)

106040 @ 동이구덕을 속에 낳 정 가는 것이 질구덕?(‘동이구덕’을 속에 넣어서 지고 가는 것이 ‘질구덕’?)

106040 #2 으.(으.)

106040 @ 질구덕은 좋은 거?(‘질구덕’은 좋은 거?)

106040 #1 어.(어.)

106040 @ 아이고.(아이고.)

106040 #1 좋게 쓰는 거.(좋게 쓰는 거.)

106040 #2 구덕이 막 으라 가지게.(바구니가 아주 여러 가지.)

106040 #1 계난 이거에 ㄴ치 쓰는 거지.(그러니까 이거에 같이 쓰는 거지.)

106040 @ 줌진줌진허게, 정 보이지 않게 허는 게 좋은 거.(가늘디가늘게, 저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거.)

106040 #2 으.(으.)

106040 @ 비싸고?(비싸고?)

106040 #1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이거 어디 물어정 엇영 못 쥘게, 쥐 불 건다.(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이거 어디 묻혀서 없어서 못 쥘어, 쥐 버릴 건 데.)

106040 @ 겐 저거 혈면 또 브름구덕 만들앙도 씹디다. 험벅으로.(그래서 저거 혈면 또 ‘브름구덕’ 만들어서도 씹디다. 형겅으로.)

106040 #1 브름³³⁶, 브름 그 저 기지³³⁷로 허영은에 구들에 갇것폴 해근에 블라. 다른 폴은 안 돼.(‘브름’, ‘브름’ 그 저 천으로 해서 방에 바다폴 해서 발라. 다른 폴은 안 돼.)

106040 #2 혈영 못 쓰게 돼 가민 이젠 블라근에 브름구덕으로 썻주게.(혈어서 못 쓰게 돼 가면 이젠 발라서 ‘브름구덕’으로 썻지.)

106040 @ 대단허다예.(대단하네요.)

106040 #1 나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구덕을 두 개 블라 쥘게. 블라 주난 두 개 서 나신디 그 창고 허게 웨난 그 사름 이거 나 가정 가쿠다. 가져 가렌. 경행 거 다 그 사름이.(나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바구니를 두 개 발라 쥘어. 발라 주니까 두 개 있었는데 그 창고 하게 되니까 그 사람 이거 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거 다 그 사람이.)

106040 @ 브름구덕은 무사 이름이 브름구덕이파?(‘브름구덕’은 왜 이름이 ‘브름

336) ‘브름’은 바구니에 형겅 따위를 바른 ‘브름구덕’을 말한다.

337) ‘기지’는 일본어 ‘키지(生地)’로 옷감을 말한다.

구덕'입니까?)

106040 #1 장항도 큰 항 두 개에.(장항도 큰 항 두 개에.)

106040 #2 그 저 형겅이나 종이 행 발랑, 발랑.(그 저 형겅이나 종이 해서 발라서, 발라서.)

106040 @ 불르니까.(바르니까.)

106040 #2 부짱 쓰난에.(붙여서 쓰니까.)

106040 @ 부짱 쓰난.(붙여서 쓰니까.)

106040 #2 그 브른구덕이엔 허는 거주.(그 '브른구덕'이라고 하는 거지.)

106040 @ 블른구덕이파, 브름구덕이파? 난 바람이 안 통허난 바람구덕인가?('블른구덕'입니까, '브름구덕'입니까? 난 바람이 안 통하니까 '바람구덕'인가?)

106040 #1 아니, 블라 부난게. 블랑 구멍 엇게.(아니, 발라 버리니까. 발라서 구멍 없게.)

106040 #2 블라 앓앙, 구멍 메왕 블랑 쓰난.(발라 앓아서, 구멍 메워서 발라서 쓰니까.)

106040 #1 겐 쓸도 놓곡게. 쓸도 낱.(그래서 쌀도 넣고. 쌀도 넣어서.)

106040 @ ㄱ를를 놀 수.(가루를 넣을 수.)

106040 #2 게난 브른구덕.(그러니까 '브른구덕'.)

106040 #1 ㄱ를도 넣고 쓸도 넣고. 그 브른구덕에.(가루도 넣고 쌀도 넣고. 그 '브른구덕'에.)

106040 @ 게난 항아리는 물 놓당 금 가민 곡식 놓는 거처럼 이것도 뭐 놓단 블라 붙은 가루를 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예, 아이구.(그러니까 항아리는 물 넣다가 금 가면 곡식 넣는 거처럼 이것도 뭐 넣다가 발라 버리면 가루를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106040 #2 겐 브른구덕으로 쓰곡.(그래서 '브른구덕'으로 쓰고.)

106040 @ 버리는 게 엇어.(버리는 게 없어.)

106040 #2 으, 버리는 게 엇주게.(으, 버리는 게 없지.)

106040 @ 정말로 지혜롭고예, 배와야 될 게.(정말로 지혜롭고요, 배워야 될 게.)

106040 #2 게난 봄 나민 농촌에선 봄 나민 이 브른구덕 딱시 수리혜영 블르노렌 하루 풀 썬근에 부지런히 혜근에 거 블르명 문딱 햇빛이 널영 물리명 경행 단도리³³⁸행 놔뒤.(그러니까 봄 되면 농촌에선 봄 되면 이 '브른구덕' 또 수리해서 바르다고 하루 풀 썬서 부지런히 해서 거 바르면서 모두 햇볕에 널어서 말리면서 그렇게 단속해서 놔뒤.)

106040 #1 팔월 나민 햅지, 팔월 텡 하늬바람 낱 썩썩혜사.(팔월 되면 하지, 팔월 돼서 하늬바람 나서 썩썩해야.)

106040 #2 으, 초가을에, 초가을에도 허고.(으, 초가을에, 초가을에도 하고.)

106040 #1 경행 놔두민 가을 들민 씨. 팔월덜 나 가민 그런 거 수정혜영 벳디 몬

338) '단도리'는 일본어 'だんどり'에서 온 말로 '단속'이라는 의미다.

딱 몰류왕 어떡 몰령 가르착 몰령.(그래서 놔두면 가을 들면 썩. 팔월 되어 가면 그런 거 수정해서 별에 모두 말려서 엮고 말리고 뒤집어서 말리고.)

106040 #2 거 불른 거 몰르렌게.(거 바른 거 마르라고.)

106040 @ 하니바람은 언제 부는 바람이파?(하니바람은 언제 부는 바람입니까?)

106040 #1 하니바람이 가을, 초가을 돼 가민 올라와.(하니바람이 가을, 초가을 돼 가면 올라와.)

106040 #2 초가을 돼민 하니브름 올라오주게.(초가을 되면 하니바람 올라오지.)

106040 #1 하니 올라와 가민이 날도 좋덴 허곡, 하니 불어 가민. 하니는 바다 쪽으로 올라가는 게 하니라이. 마브름은 우이로 내려오는 게 마브름이고이 셋브름은 동으로 부는 게 셋브름. 셋브름³³⁹)으로 서으로 오는 게 셋브름.(하니 올라와 가면 날도 좋다고 하고, 하니 불어 가면. 하니는 바다 쪽으로 올라가는 게 하니야. 마파람은 위로 내려오는 게 마파람이고 셋바람은 동으로 부는 게 셋바람. ‘셋브름’으로 서로 오는 게 ‘셋브름’.)

106040 @ 셋브름은 서로?(셋바람은 서로?)

106040 #1 셋브름은 동으로 오는 게 셋브름.(셋바람은 동으로 오는 게 셋바람.)

106040 @ 갈브름은?(갈바람은?)

106040 #1 갈브름은 그냥.(갈바람은 그냥.)

106040 #2 갈브름은 서남쪽으로 부는 게 셋갈브름.(갈바람은 서남쪽으로 부는 게 ‘셋갈브름’.)

106040 #1 갈브름은이 번은 일로 불엇당 번은 일로 불엇당 해, 갈브름이. 일로 갓당 절로 갓당 해.(갈바람은 한번은 이리로 불었다가 한번은 이리로 불었다가 해, 갈바람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해.)

106040 #2 게난 갈브름이엔 허는 거주게. 호호.(그러니까 갈바람이라고 하는 거지. 호호.)

106040 #1 일로 갓당 허는 게 갈브름이엔 해.(이리로 갔다가 하는 게 갈바람이라고 해.)

106040 @ 셋브름은 북에서 부는 게 아니파?(셋바람은 북에서 부는 게 아닙니까?)

106040 #1 아니야, 동쪽에서 오는 게 셋브름.(아니야, 동쪽에서 오는 게 셋바람.)

106040 #2 동쪽에서 오는 게 셋브름. 것도 다 틀려.(동쪽에서 오는 게 셋바람. 것도 다 달라.)

106040 @ 북에서 오는 게?(북에서 오는 게?)

106040 #1 하니브름.(하니바람.)

106040 #2 하니브름.(하니바람.)

106040 @ 초가을?(초가을?)

106040 #1 초가을서부터 시작을 해, 하니브름이.(초가을에서부터 시작을 해, 하니

339) ‘셋브름’은 서풍을 말한다.

바람이.)

106040 @ 그른 남으로 오는 건?(그럼 남으로 오는 건?)

106040 #1 마브름.(마파람.)

106040 #2 마브름 불 때에 질 사름 정신 빠진덴.(마파람 불 때에 젤 사름 정신 빠진다고.)

106040 #1 비 오고. 마브름 불어 가민 비 온덴 해.(비 오고. 마파람 불어 가면 비 온다고 해.)

106040 @ 이젠 언제 불어마써?(이젠 언제 불어요?)

106040 #1 날이 흐리젠 허민 마브름 불어. 흐리젠 허민.(날이 흐리려고 하면 마파람 불어. 흐리려고 하면.)

106040 @ 여름에?(여름에?)

106040 #1 여름에나 아무 때나 흐려 가민 마브름 불민 사름아울와 정신도 엇어.(여름에나 아무 때나 흐려 가면 마파람 불면 사람마저 정신도 없어.)

106040 #2 정신이 엇어.(정신이 없어.)

106040 #1 히여뜨락해. 섯브름도 잇고이. 서쪽으로.(아뜩해. ‘섯브름’도 있고. 서쪽으로.)

106040 @ 섯브름예?(‘섯브름’요?)

106040 #1 으, 서쪽으로 부는 거.(으, 서쪽으로 부는 거.)

106040 @ 섯브름예, 섯브름이 아니고?(‘섯브름’요, 섯바람이 아니고?)

106040 #1 서, 서.(서, 서.)

106040 @ 섯브름. 갈브름은 왓다갓다.(‘섯브름’. 갈바람은 왔다갔다.)

106040 #1 갈브름은 막 일로 절로 허는 게 갈브름이고이 섯하니가 있어. 섯하니³⁴⁰⁾는이 서광 이 북광 흐끔 영 허영 바람이 영 불어 가민이 날이 살아. 아이고, 섯하니 불엄저 날 좋켜. 영 허여 어른덜이. 섯하니 불언 날 좋으켜. 바른 하니가 아니고 섯하니.(갈바람은 마구 이리고 저리로 하는 게 갈바람이고 ‘섯하니’가 있어. ‘섯하니’는 서와 이 북과 조금 이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가면 날이 살아. 아이고, ‘섯하니’ 불고 있어 날 좋겠어.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섯하니’ 불어서 날 좋겠어. 바른 하니가 아니고 ‘섯하니’.)

106040 @ 섯브름은 들어봤수과?(섯바람은 들어봤습니까?)

106040 #1 섯브름사게.(섯바람이야.)

106040 #2 동으로 부는 거.(동으로 부는 거.)

106040 #1 동으로 불어오는 거난 섯브름 불어 가난 날 우치켜³⁴¹⁾ 해.(동으로 불어오는 거니까 섯바람 불어 가니까 날 ‘우치겠어’ 해.)

106040 @ 날 우치켜?(날 ‘우치겠어’?)

106040 #1 으, 섯브름 와 가민.(으, 섯바람 와 가면.)

340) ‘섯하니’는 조금 북쪽으로 치우친 하늬바람으로, 서북풍을 말한다.

341) ‘우치다’는 날씨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을 말한다.

106040 @ 무산고예, 날 안 좋아, 안 좋아?(왜인가요, 날 안 좋아, 안 좋아?)

106040 #1 몰라 날 우치켄 허여, 어른덜 허는 말이. 셋브름 불언 날 우치켜. 비 오켄 현 말이 날 우치켄 현 말이야.(몰라 날 ‘우치겠다’고 해, 어른들 하는 말이. 셋바람 불어서 날 ‘우치겠어’. 비 오겠다고 하는 말이 날 ‘우치겠다’고 하는 말이야.)

106040 @ 으, 음. 브름도 제주도에선 잘도 중요헤예. 영등브름은 뭐짜, 영등브름은?(으, 음. 바람도 제주도에선 아주 중요해요. 영등바람은 뭐니까, 영등바람은?)

106040 #1 영등브름은이 영등 들어와 가민 영등브름은 뭐.(영등바람은 영등 들어와 가면 영등바람은 뭐.)

106040 @ 음력 이월에 부는 그런.(음력 이월에 부는 그런.)

106040 #1 뭐 이월 그름에 뭐 저 소섬³⁴²⁾ 오랑 잇다근에 소섬 왕 흐룻밤 장 초흐를 웨민 영등으로 제주로 행 나온텐 허는디 영등굿도 허고. 영등브름은 어느 브름을 허는 걸 잘 생각 못허켜.(뭐 이월 그름에 뭐 저 ‘소섬’ 와서 잇다가 ‘소섬’ 와서 하룻밤 자서 초하루 되면 영등으로 제주로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영등굿도하고. 영등바람은 어느 바람을 하는 걸 잘 생각 못하겠어.)

106040 @ 하니는?(하니는?)

106040 #1 영등 왓다근에 나가젠 허민 마브름을 막 불어이. 게민 영등 나가난 마브름 불엄저.(영등 왔다가 나가려고 하면 마파람을 마구 불어. 그럼 영등 나가니까 마파람 불고 있어.)

106040 #2 영등 나가젠 허민 마브름 분덴 허주게.(영등 나가려고 하면 마파람 분다고 하지.)

106040 @ 아.(아.)

106040 #1 영등 나갈 때에 마브름 불엄덴 허여.(영등 나갈 때에 마파람 분다고 해.)

106040 @ 마브름도 비 오는 거 아니예?(마파람도 비 오는 거 아니요?)

106040 #1 으, 비도 불곡 바람도 불곡 해. 겐디 그.(으, 비도 불고 바람도 불고 해. 그런데 그.)

106040 @ 남으로 부는 거예?(남으로 부는 거요?)

106040 #1 으.(으.)

106040 @ 영등 나가 불민 마브름 분다고?(영등 나가 버리면 마파람 분다고?)

106040 #1 영등 나갈 때.(영등 나갈 때.)

106040 #2 나가젠 허민.(나가려고 하면.)

106040 @ 나갈 때.(나갈 때.)

106040 #2 나갈 때.(나갈 때.)

106044 @ 이런 게 정말예, 살아난 사람 아니민 정말 어려운 말이우다게. 도롱이 들어봤수짜?(이런 게 정말요, 살았던 사람 아니면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도롱이 들어봤습니까?)

342) ‘소섬’은 제주시 우도면의 옛 이름이다.

106044 #1 도롱이?(도롱이?)

106044 @ 도롱이 긴 거, 짧은 거, 도롱이가 뭐파?(도롱이 긴 거, 짧은 거, 도롱이가 뭐니까?)

106044 #2 도롱이?(도롱이?)

106044 @ 도롱이.(도롱이.)

106044 #1 긴 거, 짧은 거 나 모르겠다이, 도롱이.(긴 거, 짧은 거 나 모르겠다, 도롱이.)

106044 @ 도롱이가 비 올 때 입는 것이 도롱인가? 비 올 때 우장?(도롱이가 비 올 때 입는 것이 도롱인가? 비 올 때 우장?)

106044 #1 우장ㄴ라 도롱이엔 허여, 무사?(우장보고 도롱이라고 해, 왜?)

106044 #2 아이, 거 지방마다 틀려.(아니, 거 지방마다 달라.)

106044 #1 우린 우장이엔 허는데.(우린 우장이라고 하는데.)

106044 #2 우린 우장이엔, 이디션 우장이엔 허는디 어디 남군³⁴³더레 가면은.(우린 우장이라고, 여기선 우장이라고 하는데 어디 남군으로 가면.)

106044 @ 째으로 현 모자도 잇수파?(째으로 한 모자도 있습니까?)

106044 #1 째으로 현 모자는 없어.(째으로 한 모자는 없어.)

106044 @ 도롱이가?(도롱이가?)

106044 #2 남군, 북군³⁴⁴ 틀리고 제주시 틀리고 말이 다 틀려. 같은 물건이면서도 이름이 틀리게 나온다고.(남군, 북군 다르고 제주시 다르고 말이 다 달라. 같은 물건이면서도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고.)

106044 #1 말도이 서쪽 말은이, 우린 그냥 아저가라, 아저오라 허는디이 ㄴ저가라.(말도 서쪽 말은, 우린 그냥 ‘아저가라’, ‘아저오라’ 하는데 ‘ㄴ저가라’.)

106044 @ ㄴ저오라.(가져와라.)

106044 #1 아니, 앓아가라, 앓아오라 동이는. 서이가 ㄴ저가라, ㄴ저오라지. 막 동인 앓아가라, 앓아오라 해.(아니, ‘앓아가라’, ‘앓아오라’ 동에는. 서에는 ‘ㄴ저가라’, ‘ㄴ저오라’지. 마구 동에는 ‘앓아가라’, ‘앓아오라’ 해.)

106044 @ 앓아오라.(‘앓아오라’.)

106044 #1 동이, 동이.(동에, 동에.)

106044 @ 동이는 앓아가라, 앓아오라.(동에는 ‘앓아가라’, ‘앓아오라’.)

106044 #1 으.(으.)

106044 @ 서이는?(서에는?)

106044 #2 ㄴ저오라.(‘ㄴ저오라’.)

106044 #1 ㄴ저가라, ㄴ저오라.(‘ㄴ저가라’, ‘가져오라’.)

106044 @ 재밋다예.(재밋네요.)

343) ‘남군’은 ‘남제주군’을 말한다. 남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344) ‘북군’은 ‘북제주군’을 말한다. 북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제주시로 통합되었다.

106044 #2 으.(으.)

106044 #1 금덕³⁴⁵도 가민 경혜 우리 웨갓집인.(‘금덕’도 가면 그래 우리 외갓집은.)

106044 @ 재미난 얘기난.(재미난 얘기니까.)

106044 #2 다 틀려.(다 달라.)

106044 #1 제주시는 그냥 아저오라, 아저가라 하지.(제주시는 그냥 ‘아저오라’, ‘아저가라’ 하지.)

106044 @ 아저오라.(‘아저오라’.)

106044 #1 으.(으.)

106044 @ ㄴ져가라, ㄴ져오라나 아저오라, 아저가라.(‘가져가라’, ‘가져오라’나 ‘아저오라’, ‘아저가라’.)

106044 #2 ㄴ튼 말.(같은 말.)

106044 #1 흥썸 틀리지.(조금 다르지.)

106044 @ 서쪽허고도 틀리다예?(서쪽하고도 다르네요?)

106044 #2 으, 으. 동쪽 틀리고 서쪽 틀리고, 우리 틀려.(으, 으. 동쪽 다르고 서쪽 다르고, 우리 달라.)

106044 @ 이젠 밥허고 국이우다예.(이젠 밥하고 국입니다.)

106044 #1 이디 어떻 나가 걸 아냐 허면 월정³⁴⁶ 사람이 이디 왕 살아. 맨 말에 앓아가라, 앓아오라 해 아이덜ㄴ라. 이거 저거 가져가라 우린 허는디 가져가라 말을 잘허는디 이거 앓아가라, 앓아오라게. 무사 너 경 쓰멘? 우리 매날 영 험니다. 경 해. 겐디 금등³⁴⁷을 우리 웨가칩 가민 경 해. 이거 ㄴ져가라, ㄴ져오라. 느 갈 때랑 이거 ㄴ정 가라, ㄴ정 가라.(여기 어떻게 내가 걸 아냐 하면 월정 사람이 여기 와서 살아. 맨 말에 ‘앓아가라’, ‘앓아오라’ 해 아이들보고. 이거 저거 ‘가져가라’ 우리는 하는데 ‘가져가라’ 말을 잘하는데 이거 ‘앓아가라’, ‘앓아오라’. 왜 너 그렇게 써? 우리 매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런데 금등을 우리 외갓집 가면 그렇게 해. 이거 ‘가져가라’, ‘가져오라’. 너 갈 때는 이거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106044 #2 우리 웨가도 한림이난 ㄴ져가라, ㄴ져오라 해. 겐 줌팍³⁴⁸ㄴ라도 솔박 이엔 허고. 이 동이구덕³⁴⁹ㄴ라도 들랭이³⁵⁰엔 허여, 들랭이.(우리 외가도 한림이니 까 ‘ㄴ져가라’, ‘ㄴ져오라’ 해. 그래서 ‘ضمام’보고도 ‘솔박’이라고 하고. 이 ‘동이구덕’ 보고도 ‘들랭이’라고 해, ‘들랭이’.)

106044 @ 아?(아?)

106044 #1 나 그 말은 안 들어본디.(나 그 말은 안 들어봤는데.)

106044 #2 저 동이구덕ㄴ라도 들랭이엔 허드라고. 한림도 틀려 우린, 웨가도 강

345) ‘금덕’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옛 이름이다.

346) ‘월정’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를 말한다.

347) ‘금등’은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를 말한다.

348) ‘ضمام’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뜯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ضمام, 손박, 솔박’이라고도 한다.

349) ‘동이구덕’은 동이 대신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350) ‘들랭이’는 작은 바구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민.(저 ‘동이구덕’보고도 ‘들랭이’라고 하더라고. 한림도 달라 우린, 외가도 가서 보면.)

106044 @ 아.(아.)

106044 #1 들랭이, 구덕ㄴ라 들랭이엔 해?('들랭이', 바꾸니보고 '들랭이'라고 해?)

106044 #2 저 동이구덕ㄴ라 들랭이엔 허여.(저 '동이구덕'보고 '들랭이'라고 해.)

106044 @ 똑똑허긴 똑똑헌 분들이우다. 정말.(똑똑하긴 똑똑한 분들입니다. 정말.)

106044 #1 겐디 들랭이 말이 듣긴 안 좋다이. 들랭이 말이.(그런데 '들랭이' 말이 듣긴 안 좋다. '들랭이' 말이.)

106044 #2 들랭이 허더라고. 들랭이 아저오라.('들랭이' 하더라고. '들랭이' 가져와라.)

106044 #1 죽텐 말로 들랭이엔 해신가?(작다고 말로 '들랭이'라고 했는가?)

106044 #2 아멩해도 경헌 생이라.(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야.)

106044 @ 게메 밧 이름 죽은 밧을.(글쎄 밧 이름 작은 밧을.)

106044 #2 드르쟁이³⁵¹⁾엔 허듯이.('드르쟁이'라고 하듯이.)

106044 @ 에?(에?)

106044 #1 드르쟁이.('드르쟁이'.)

106044 #2 드르쟁이.('드르쟁이'.)

106044 @ 드르쟁이? 경 죽은 밧을 드르쟁이엔?('드르쟁이'? 그렇게 작은 밧을 '드르쟁이'라고?)

106044 #2 경 구덕 작으난 들랭이엔 헌 거 같애. 들랭이 아저오라, 들랭이 아저오라. 들랭이가 뿔이파, 들랭이가 뿔이파?(그렇게 바꾸니 작으니까 '들랭이'라고 한 거 같아. '들랭이' 가져와라, '들랭이' 가져와라. '들랭이'가 뿔니까?)

106044 #1 죽은 그릇이난이 들랭이엔 헌 거 같애.(작은 그릇이니까 '들랭이'라고 한 거 같아.)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이제는 밥의 종류. 밥의 종류는 무신 밥 잇수과? 곤밥, 보리밥.(이제는 밥의 종류. 밥의 종류는 무슨 밥 있습니까? 흰밥, 보리밥.)

107001 #1 조팝.(조밥.)

107001 @ 조팝.(조밥.)

351) '드르쟁이'는 아주 작은 밧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들랭이'라고도 한다.

107001 #1 여기는이 피도 안 가난 피밥도 안 해.(여기는 피도 안 가니까 피밥도 안 해.)

107001 #2 득리³⁵²⁾ 송당³⁵³⁾은 주로 피 가난 피밥 행 먹어실 거고.(‘득리 송당’은 주로 피 가니까 피밥 해서 먹었을 거고.)

107001 #1 여긴 피 아이 가니까이.(여긴 피 안 가니까.)

107001 @ 밥은 조밥, 보리밥예?(밥은 조밥, 보리밥요?)

107001 #1 으.(으.)

107001 @ 것뿐이고 콩밥?(것뿐이고 콩밥?)

107001 #1 콩밥, 곤밥.(콩밥, 흰밥.)

107001 @ 팏밥.(팔밥.)

107001 #2 팏밥이야 팏 서끄민 팏밥이엔 허주만은.(팔밥이야 팔 섞으면 팔밥이라고 하지만.)

107001 #1 아니, 곤밥이엔 해, 졸밥ㄹ라. 곤밥, 보리밥, 조팏 세 가지지. 팏 놓민 팏 서꾼 밥이지 팏만사 밥해지나게.(아니, 흰밥이라고 해, 쌀밥보고. 흰밥, 보리밥, 조팏 세 가지지. 팔 넣으면 팔 섞은 밥이지 팔만이야 밥할 수 있어.)

107002 @ 쌀의 종류는 좁쌀, 보리쌀?(쌀의 종류는 좁쌀, 보리쌀?)

107002 #1 곤쌀. 입쌀이엔 아녕 곤쌀.(흰쌀. 입쌀이라고 앓고 흰쌀.)

107003 @ 보리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보리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3 #1 보리밥이엔 허믄이 곶은 보리밥, 통보리밥³⁵⁴⁾ 그거 두 개라.(보리밥이라고 하면 간 보리밥, 통보리밥 그거 두 개야.)

107003 @ 곶은 보리밥?(간 보리밥?)

107003 #1 보리쌀 곶앙 허는 거는 곶은 보리밥이고이 잔치 때는이 보리쌀을이 번 딱시 들방에에 강 막 올렛닥 느렛닥 찍어 와. 갹 찍으민 것이 흥뽀 영 문들락이 고와.(보리쌀 갈아서 하는 거는 간 보리밥이고 잔치 때는 보리쌀을 한번 또 연자매에 가서 마구 올렸다가 내렸다가 찢어 와. 그래서 찢으면 것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고와.)

107003 #2 껍데기 더 벗겨져.(껍데기 더 벗겨져.)

107003 #1 까까져.(깎여.)

107003 #2 까까져.(깎여.)

107003 #1 게믄 건 통보리밥이야. 잔치 때만.(그럼 건 통보리밥이야. 잔치 때만.)

107003 #2 잔치 땐 거 곶은 팏 서꺼야 통보리밥을 행 ***덜은 행 주주게.(잔치 때는 거 곶은 팔 섞어야 통보리밥을 해서 ***들은 해서 주지.)

107003 #1 겐디 그 통보리밥이 좀 맛있어. 보리밥보단. 곶은 솔로 현 것보담.(그런데 그 통보리밥이 좀 맛있어. 보리밥보다는. 간 쌀로 한 것보다는.)

107003 @ 겐디 무사 그 맛 존 거를 행 먹주, 평상시에.(그런데 왜 그 맛 좋은 거

352) ‘득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옛 이름이다.

353) ‘송당’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를 말한다.

354) ‘통보리밥’은 갈지 아니한 온 보리쌀로 지은 밥이다.

를 해서 먹지, 평상시에.)

107003 #2 잔치 때는 그 통보리밥을 허젠 허민 큰 가마솥에 많이 허잖아.(잔치 때는 그 통보리밥을 하려고 하면 큰 가마솥에 많이 하잖아.)

107003 #1 그 통보리밥은 허젠 허민 흥뽀 공 들주게. 그 돌방에 쪼고 딱시 쪼고 두 번 강 지어 오는 거라. 두 번 강 지어 오꼭게 또 밥허는 것도 곶은 보리쌀은 빠르지, 빨라.(그 통보리밥은 하려고 하면 조금 공 들지. 그 연자매 쪼고 또 쪼고 두 번 가서 지어 오는 거야. 두 번 가서 쪼어 오고 또 밥하는 것도 간 보리쌀은 빠르지, 빨라.)

107003 #2 큰 가마솥디 밥을 많이 허고 쫓 서트니까 품도 더 좋고 맛있는 거 같애, 많이 허니까.(큰 가마솥에 밥을 많이 하고 팔 섞으니까 품도 더 좋고 맛있는 거 같아, 많이 하니까.)

107003 #1 많이 허니까 맛있는 거지.(많이 하니까 맛있는 거지.)

107003 #2 곶은 보리쌀은게 우리 먹을 만큼 죽은 솥디 놔근에 우르륵 췌와근에 먹으면. 맛이 엇잖아게.(간 보리쌀은 우리 먹을 만큼 작은 솥에 넣어서 부글부글 끓여서 먹으면. 맛이 없잖아.)

107003 @ 겐 맛 좋다, 맛 좋다덜 허멍.(그래서 맛 좋다, 맛 좋다들 하면서.)

107003 #1 통보리밥이 맛은 있어.(통보리밥이 맛은 있어.)

107003 #2 맛있어.(맛있어.)

107003 #1 뭉글락헐.(뭉글해.)

107003 @ 뭉글랑해.(뭉글해.)

107003 #2 쫓 서꺼근에 허고.(팔 섞어서 하고.)

107003 @ 통보리밥.(통보리밥.)

107003 #1 으, 겐 잔치 때베긴 안 허여.(으, 그래서 잔치 때밖에 안 해.)

107003 @ 식게 땀 안 허고예?(제사 땀 안 하고요?)

107003 #1 식게 땀 그냥 곶은 보리밥으로 허여. 잔치할 때만.(제사 땀 그냥 간 보리밥으로 해. 잔치할 때만.)

107003 @ 겨문 이거는 동네 사름들 다 강 먹는 거라예?(그럼 이거는 동네 사름들 다 가서 먹는 거지요?)

107003 #1 예. 잔치할 때 영장할 때이.(예. 잔치할 때 초상할 때.)

107003 @ 밥 많이 줘니까?(밥 많이 줘니까?)

107003 #1 배불리 먹지.(배부르게 먹지.)

107003 #2 실컷 먹지.(실컷 먹지.)

107003 #1 배고팡 오진 안헐. 게고이 사발에 거렁 주나? 낭푼에, 낭푼이나 남박 세기도 옛날은 있어. 박세기 이만한 거, 박세기도 거려 주고 낭푼이도 거려 주고 막. 두 놈, 시 놈 같이 먹으렐 주고.(배고파서 오진 았아. 그리고 사발에 떠서 주냐? 양푼에, 양푼에나 나무바가지도 옛날은 있어. 바가지 이만한 거, 바가지도 떠 주고 양푼에도 떠 주고 마구. 두 놈, 세 놈 같이 먹으라고 주고.)

107003 #2 여럿이 같이 먹었주게.(여럿이 같이 먹었지.)

107003 #1 또 거 엇이민이 차룽착에도 거러 줘. 밋디 간 때는이. 영장 문으레 간 뎜 막 차룽착에 거러 줘, 차룽에.(또 거 없으면 채룽짜에도 떠 줘. 밋에 간 때는. 송장 문으러 간 뎜 마구 채룽짜에 떠 줘, 채룽에.)

107003 @ 영장 문으레 갈 때 통보리밥?(송장 문으러 갈 때 통보리밥?)

107003 #1 응, 통보리밥. 해야지. 차룽에 밥 거렁.(응, 통보리밥. 해야지. 채룽에 밥 떠서.)

107003 @ 게른 저 잔치 때랑 사람 죽은 때 이걸 행 먹었다는 거다예?(그럼 저 잔치 때는 사람 죽은 때 이걸 해서 먹었다는 거네요?)

107003 #1 응, 사름 모일 때. 사름 하영 모인 때. 아마 통보리밥을 좀 벨미로 허는 것 같애이.(응, 사람 모일 때.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아마 통보리밥을 좀 벨미로 하는 것 같아.)

107003 @ 그른 국은? 반찬은 뭐 엇어도.(그럼 국은? 반찬은 뭐 없어도.)

107003 #2 반찬은게 주로 그자 마농지, 그자 김치.(반찬은 주로 그저 마늘장아찌, 그저 김치.)

107003 #1 마농지, 크게 헐 때는 김치 허고 뭐 다른 거 햄실 테주.(마늘장아찌, 크게 할 때는 김치 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을 테지.)

107003 @ 잔치 때는 돛레기 반도 잇고게.(잔치 때는 돼지고기 반기도 있고.)

107003 #1 돛레기는 매번 잇지. 초상헐 때도 허곡 사름 죽어도 허곡 잔치 때도 허곡.(돼지고기는 매번 잇지. 초상할 때도 하고 사람 죽어도 하고 잔치 때도 하고.)

107003 @ 거 맛 좋주게.(거 맛 좋지.)

107003 #1 겐디 돛레길 경 이제 ㄴ치룩 하영 주질 안헤여. 석 점, 석 점, 석 점에이.(그런데 돼지고기를 그렇게 이제같이 많이 주질 앓아. 석 점, 석 점, 석 점에.)

107003 #2 순대 점.(순대 한 점.)

107003 #1 순대 하나 딱 놓아근에 꼬챙이 꿰영. 다 꿰여근에이 꼬챙이씩.(순대 하나 딱 놓아서 꼬챙이 꿰서. 다 꿰어서 한 꼬챙이씩.)

107003 #2 전 하나 부쳐 놔근에.(전 하나 부쳐 놔서.)

107003 #1 아, 맞다. 전, 두부, 두부.(아, 맞다. 전, 두부, 두부.)

107003 #2 으, 두부 혼 점허곡 고기 석 점. 돼지고기 알따랴게 썰어근앵에 석 점 허곡 두부 혼 점허곡 순대 혼 점허곡 전 혼 점허곡 헤근에게 그 수리대 막댕이 헤근앵에 꼬챙이 만들양 요만큼 만들양 그거 꿰영 아이덜안티 다 테와 줘. 동네 아이덜.(으, 두부 한 점하고 고기 석 점. 돼지고기 알따랴게 썰어서 석 점 하고 두부 한 점하고 순대 한 점하고 전 한 점하고 해서 그 이대 막대기 해서 꼬챙이 만들어서 요만큼 만들어서 그거 꿰서 아이들한테 다 태워 줘. 동네 아이들.)

107003 @ 전은 무슨 전?(전은 무슨 전?)

107003 #1 ㄴ돌 ㄴ를로 헤, 그뎜.(메밀가루로 헤, 그뎜.)

107003 #2 ㄴ돌 ㄴ를로 헤여.(메밀가루로 헤.)

107003 #1 혼 손갈 영 낱 영 영 허여근에.(한 손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7003 @ 아, 네모난 거 두부처럼.(아, 네모난 거 두부처럼.)

107003 #1 아니야.(아니야.)

107003 #2 아니, 건 중간에 헛 거고.(아니, 건 중간에 한 거고.)

107003 #1 그냥 한 개씩.(그냥 한 개씩.)

107003 @ 그냥 저 고적 그거 허듯이?(그냥 저 고적 그거 하듯이?)

107003 #2 요맨이 요맨이 혼 손갈 거려 낱.(요만큼 요만큼 한 손갈 떠 와서.)

107003 @ 맛 좋कु다게.(맛 좋겠네.)

107003 #1 혼 손갈도 안 돼지.(한 손갈도 안 되지.)

107003 #2 손갈도 안 돼주게. 종잇장ㄹ치 알따랗게 행 그거 혼 입.(한 손갈도 안 되지. 종잇장같이 알따랗게 해서 그거 한 입.)

107003 @ 아, 경헛구나.(아, 그랬구나.)

107003 #1 게난 그것이 질 약허니까 헛폼 허민 아이고, 그디 가난 전 혼 입도 안 줘라 해. 전이 질 짝은 거. 아이고, 아무 디 가난 전 혼 입도 안 줘라. 으른덜 말이.(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약하니까 조금 하면 아이고, 거기 가니까 전 한 입도 안 주더라 해. 전이 제일 작은 거. 아이고, 아무 데 가니까 전 한 입도 안 주더라. 어른들 말이.)

107003 @ 아이고, 아무 디 가난.(아이고, 아무 데 가니까.)

107003 #1 전이 질 약헌 건디이. 아이고, 아무 디 가난 전 입도 안 줘라게.(전에 쥔 약한 건데. 아이고, 아무 데 가니까 전 한 입도 안 주더라.)

107003 @ 세상에 잘도, 잘도예. 인정이예.(세상에 잘도, 잘도요. 인정이요.)

107003 #1 게난 거는 안 주젠 허는 게 아니고 어려왕 엇은 집이, 엇이난 못 주는 거주게.(그러니까 거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서 없는 집,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107003 @ 게난 멧 살 때부터 보리밥만 먹엇수과? 조팍은 안 먹어 봤?(그러니까 멧 살 때부터 보리밥만 먹엇습니까? 조팍은 안 먹어 봤어?)

107003 #1 그 ○○이 오라바님 장게갈 때 나 갓어이. ○○영 나영 가난디 맨조팍만 주더라. 잔치예. 보리쌀은 헛나토 안 봐.(그 ○○이 오라버님 장가갈 때 나 갓어. ○○랑 나랑 갓었는데 맨조팍만 주더라. 잔치예. 보리쌀은 하나도 안 넣어.)

107003 #2 ○○이 장게갈 때?(○○이 장가갈 때?)

107003 #1 ○○이, ○○이.(○○이, ○○이.)

107003 #2 ○○이 장게갈 때?(○○이 장가갈 때?)

107003 #1 응, 그때. ○○허고 나허고 갓주게. 우리 문칩이난게. 경 간디 밥도이 새로도 안 거려 주고 낭퐁이에 늬 먹단 거 주는데 맨조팍. 밥도 차조 아니고이 좁 쓸 모인좁쓸이난 바삭바삭허여.(응, 그때 ○○하고 나하고 갓지. 우리 문씨 집안이니까. 그렇게 갓는데 밥도 새로 안 떠 주고 양퐁에 남 먹던 거 주는데 맨조팍. 밥도

차조 아니고 좁쌀, 메조니까 바삭바삭해.)

107003 #2 바삭바삭허주.(바삭바삭하지.)

107003 #1 나 그거 햅뽀도 안 잊어불어, 그거. 너무 거 먹지도 못해, 그거.(나 그거 조금도 안 잊어버렸어, 그거. 너무 거 먹지도 못해, 그거.)

107003 #2 잔치 땐 조팝을 안 헌디이.(잔치 땐 조밥을 안 했는데.)

107003 @ 땀 살 때, 삼춘?(땀 살 때, 삼춘?)

107003 #1 그때가 햅 열 살이나, 열 술이나 된 거 닳아. ○○이 오라방 장게 빨리 잳다이.(그때가 한 열 살이나, 열 살이나 된 거 같아. ○○이 오라버니 장가 빨리 잳다.)

107003 #2 빨리 가신게.(빨리 갔어.)

107003 #1 ○○이허고.(○○이하고.)

107003 #2 게메.(글쎄.)

107003 #1 열 설은 더.(열 살은 더.)

107003 #2 웨실 테주, 열두 설 웬 때주. 잔치 때 옛날도 잔치 땐 조팝을 안 허는 디이.(땀을 테지, 열두 살 된 때지. 잔치 때 옛날도 잔치 땐 조밥을 안 하는데.)

107003 #1 ○○인 장게 스물 안 웬 간 거 닳다이.(○○인 장가 한 스물 안 돼서 간 거 같다.)

107003 #2 어려우난 조팝 헤신가?(어려우니까 조밥 했는가?)

107003 #1 어렵기사 어렵주게. 맨조팝이 먹단 밥 낭푼에 헨에, 조그마헌 거 고기여 뒤여. 햅뽀 늦엉 잳지. 가문잔치³⁵⁵⁾ 끝에. 겐 가난 정지로 들어오렌 허연 들어간 그냥 그레 고기 톱 웨연 이디 햅나 이디 햅나 웨연 이거 먹으라. 국은 잊어불엉 뒤사 쥐신디 몰르커라.(어렵기야 어렵지. 맨조밥 먹다가 밥 양푼에 해서, 조그마한 거 고기다 뒤다. 조금 늦게 잳지. ‘가문잔치’ 끝에. 그래서 가니까 부엌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냥 그리 고기 톱 웨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웨어서 이거 먹으라. 국은 잊어버리고 뒤을 쫓는지 모르겠어.)

107003 @ 뽀궂 아니 뽀궂?(‘뽀궂’ 아니 ‘뽀궂’)

107003 #1 그 조팝 생각만 자꾸 나. 얼마 먹질 못해.(그 조밥 생각만 자꾸 나. 얼마 먹질 못해.)

107003 #2 못 먹지.(못 먹지.)

107003 @ 까궂까궂해?(까궂까궂해?)

107003 #1 모인좁쌀이난이 박작박작헨³⁵⁶⁾ 햅뽀 흐린 거 서끄지도 안허곡 허난 이.(메조니까 ‘박작박작해서’ 조금 흐린 거 섞지도 앓고 하니까.)

107003 #2 옛날부터 잔치 땐 조팝을 안 헌덴 허는디이.(옛날부터 잔치 땐 조밥을 안 한다고 하는데.)

107004 @ 예, 어려운 때가 잊엇구나예. 게른 반지기밥은 어떤 것과?(예, 어려운

355)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잔치를 말한다.

356) ‘박작박작허다’는 쌀 따위가 차지지 앓고 거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04 #1 반지기밥³⁵⁷⁾ 막 좋은 거. 근쫄 보리쫄 서경 헛 거. 풋에.(‘반지기밥’ 아주 좋은 거. 흰쌀 보리쌀 섞어서 한 거. 팔에.)

107004 #1 햅쌀만 서꺼도, 햅쌀만 서꺼도이, 저 보리쌀에 근쌀에 햅 쌀 3분의 일만 서꺼도.(조금만 섞어도, 조금만 섞어도, 저 보리쌀에 흰쌀에 햅 쌀 3분의 일만 섞어도.)

107004 #1 막 맛 좋아. 맨보리밥보단. 난 그 맨조밥 먹어난 거 흠뻑도, 죽도록 잊어볼지 안허크라.(아주 맛 좋아. 맨보리밥보다는. 난 그 맨조밥 먹었던 거 조금도, 죽도록 잊어버리지 않겠어.)

107004 #2 못 먹지. 바삭바삭헌 거게.(못 먹지. 바삭바삭한 거.)

107004 @ 서경.(섞어서.)

107004 #2 아메도 어려우난 경 헤실 테주만은 난 잔치 때 조밥 허는 건 처음 들었어.(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을 테지만 난 잔치 때 조밥 하는 건 처음 들었어.)

107004 @ 반지기밥은 몇 살부터 행 먹어났수파?('반지기밥'은 몇 살부터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04 #1 그냥 우리 그냥 밥 먹어지난 반지기는 헛 거 다향. 보리, 보리, 졸 가
니까. 집이서 보리, 졸 가난. 겐디이 보리틀이 하영 같지 안허면은이 보리 때만 먹
어근에 그 겨울 때 엇은 사름은 조팝만 먹은 거 같애.(그냥 우리 그냥 밥 먹으니까

358) ‘이갸집’은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했습니까?)

107004 #1 차별했지. 차별하고말고.(차별했지. 차별하고말고.)

107004 @ 자기가 여잔데도 왜 남자덜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자기가 여자인데도 왜 남자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107004 #2 난 차별 안 해 봤어.(난 차별 안 해 봤어.)

107004 @ 먹는 거는예?(먹는 거는요?)

107004 #2 응. 겨고 우리 집 아방도 원 그런 거 차별 못하게 허여. 똑ㄴ치. 겐디 우린 연년생으로 자식이 많으니까 도시락도 다섯 거러이. 다섯 뜨면은 쫄 이렇게 봐근에게 허면 아방 밥 떠 뒤근에 도시락 다섯 개 뜨당 보면 내중에 뜨는 건 보리밥만 많이 들어가잖아. 겐 우리 작은딸은 벤또 확 올앙 봐근앵에 지 밥은 보리밥만 거러 줬엔 막.(응. 그리고 우리 집 아버지도 원 그런 거 차별 못하게 해. 똑같이. 그런데 우린 연년생으로 자식이 많으니까 도시락도 다섯 떠. 다섯 뜨면 쫄 이렇게 넣어서 하면 아버지 밥 떠 두고 도시락 다섯 개 뜨다가 보면 나중에 뜨는 건 보리밥만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 작은딸은 도시락 확 열어 보고 자기 밥은 보리밥만 떠 준다고 마구.)

107004 @ 울고불고.(울고불고.)

107004 #2 울고불고.(울고불고.)

107004 @ 거, 봅서게. 어쩔 수가 없어. 경 생각행 일부러 현 건 아니디.(거, 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한 건 아니디.)

107004 #2 응, 일부러 현 건 아니디.(응, 일부러 한 건 아니디.)

107004 #1 우리 ○○이허고 ○○이허고 중앙여중 ㄴ찌 다녔잖아. 삼 학년에 일 학년 경 다녔어이.(우리 ○○이하고 ○○이하고 중앙여중 같이 다녔잖아. 삼 학년에 일 학년 그렇게 다녔어.)

107004 #2 그렇지.(그렇지.)

107004 #1 일 년간 경 다니난. 우리 ○○이가 밥 비유가 장난 아니라게. 아방 밥 거러 텨 나 흘 거 있어, 헐 거 이신 트망에 거 알앙은에 헐나 확 거러 불어게. 확 거러민 벤또 거릴 때 헐 입 먹잖아, 먹으면 어머니 ○○이 벤또는 맨 쫄만 거러십디다 허난에 기가? 하하. 어느 동안에이 나 뭐 허는 사이에, 맨날 경 아녀고 어떨 때 번이나.(일 년간 그렇게 다니니까. 우리 ○○이가 밥 비유가 장난 아니야. 아버지 밥 떠 두고 나 할 거 있어, 할 거 있는 틈에 거 알아서 하나 확 떠 버려. 확 뜨면 도시락 뜯 때 한 입 먹잖아, 먹으면 어머니 ○○이 도시락은 맨쫄만 떠십디다 하니까 그래? 하하. 어느 동안에 나 뭐 하는 사이에, 맨날 그렇지 앓고 어떨 때 한 번이나.)

107004 #2 게메, 가끔 경 헤실 테주.(글쎄, 가끔 그렇게 했을 테지.)

107004 #1 지만 확 거러. 게난 것도 좀 늑이영 먹기엔 좀 창피현 거 같애.(자기만 확 떠. 그러니까 것도 좀 남이랑 먹기엔 좀 창피한 거 같아.)

107004 #2 그렇지.(그렇지.)

107004 #1 지만 보리밥 쌀 가니까. 경허난.(자기만 보리밥 싸고 가니까. 그러니까.)

107004 #2 우리 큰아덜 오고³⁶²⁾ 간 때에, 고등학교 간 때에 도시락을 싸 주난 같이 먹는 건, 뒤에 간 숨언 앓앙 먹엄시난.(우리 큰아들 오고 간 때에, 고등학교 갔을 때에 도시락을 싸 주니까 같이 먹는 건, 뒤에 가서 숨어서 앓아서 먹고 있으니까.)

107004 #1 상고³⁶³⁾ 아니고 오고 다녔?(상고 아니고 오고 다녔어?)

107004 #2 오고 갓단 상고 갓수게게. 오고 간 허단 데껴될 아니 헨에.(오고 갔다가 상고 갔어. 오고 가서 하다가 던져두고 아니 하고.)

107004 #1 웨?(왜?)

107004 #2 겐 놀단에 딱시 상고 갓저게.(그래서 놀다가 또 상고 갔어.)

107004 #1 인문계 허단.(인문계 하다가.)

107004 #2 으, 경헌디 담임선생이 좇아강, 좇아간 후에 혼자만 여기서 먹엄시니 친구덜이랑 같이 먹지 왜 혼자만 와서 먹냐 허니깐 췌피해서 같이 못 먹어서 혼자만 영 나왕 먹엄수덴 허난 기넨 허멍 영 바려 뵙 그렇구나 영헤렌 허멍 굴아났저게.(으, 그런데 담임선생이 좇아가서, 좇아간 후에 혼자만 여기서 먹고 있니 친구들이랑 같이 먹지 왜 혼자만 와서 먹냐 하니까 창피해서 같이 못 먹어서 혼자만 이렇게 나와서 먹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냐고 하면서 이렇게 봐 보고 그렇구나 이러더라고 하면서 말했었어.)

107004 @ 에이구, 진짜 옛날이라도예.(어이구, 진짜 옛날이라도요.)

107004 #1 우리, 가네 우의난 경 허당 ○○ 때는 흐뭇 살기가 뭐 허난 ○○ 때나 해 가난 서끈 밥 별로 안 주어진 거 다향, 아덜덜은.(우리, 개네 위니까 그렇게 하다가 ○○ 때는 조금 살기가 뭐 하니까 ○○ 때나 해 가니까 섞은 밥 별로 안 준 거 같아, 아들들은.)

107005 @ 곤밥?(흰밥?)

107005 #1 으, 곤밥. 흐뭇 삶이 조금 늘어나 가니까.(으, 흰밥. 조금 삶이 조금 늘어나 가니까.)

107005 @ 곤밥 못 먹영 막 울고 이런 건 엇엇수과, 전번에 새각시 칩이 강 뭐 얻어먹당?(흰밥 못 먹어서 마구 울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전번에 새색시 집에 가서 뭐 얻어먹다가?)

107005 #1 아니, 늬 쥐근에 나 안 주민 울기도 나도 울기도 헛어. 즉앙, 즉앙은에 뒤에나 사지민 아이 쥐게. 아이 쥐근에.(아니, 남 쥐서 나 안 주면 울기도 나도 울기도 헛어. 작아서, 작아서 뒤에나 서게 되면 안 쥐. 안 쥐서.)

107005 @ 삼촌 몰명저낫수과?(삼촌 ‘몰명졌었습니까’?)

107005 #1 전지만. 몰명헤난³⁶⁴⁾.(전만. ‘몰명했었어’.)

362) ‘오고’는 ‘오현고등학교’를 말한다.

363) ‘상고’는 ‘제주중앙고등학교’의 전신인 ‘제주상업고등학교’를 말한다.

364) ‘몰명허다’는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이 야무지지 못하고 시원찮다는 의미다.

107005 @ 하하하.(하하하.)

107005 #2 몰명 안 해도 워낙 아이덜이 문에 강 부터 놓민 손갈씩 반 손갈씩 주당도 떨어정 못 주주게.(‘몰명’ 안 해도 워낙 아이들이 문에 가서 붙어 놓으면 한 손갈씩 반 손갈씩 주다가도 떨어져 못 주지.)

107005 #1 게난 아이고게 막 아이고게 이제사 왔구나. 어디서 놀당 돌아완. 숟가락 줍젠 행 돌아오민 그 전지 하나나 두부 점 것만 줘, 밥은 안 줘. 밥 주민 영 헤영 먹주게, 영 헤영.(그러니까 아이고 마구 아니고 이제야 왔구나. 어디서 놀다가 달려왔어. 한 숟가락 준다고 해서 달려오면 그 전 하나나 두부 한 점 것만 줘, 밥은 안 줘. 밥 주면 이렇게 해서 먹지, 이렇게 해서.)

107005 #2 그냥 영 행 먹어.(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

107005 #1 흐흐흐. 손갈 안 돼어이.(흐흐흐. 한 손갈 안 돼.)

107005 #2 손갈은 무싱거게.(한 손갈은 뭐.)

107005 #1 새각시 밥이 얼마나 합니까게. 사발 행게.(새색시 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발 해서.)

107005 #2 반 손갈은.(반 손갈은.)

107005 #1 요쪽은 창문, 요건 지게문으로 아이덜이 영 얼거져. 그거 받아먹젠, 예이고 옛날.(요쪽은 창문, 요건 지게문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얹혀. 그거 받아먹으려고, 어이구 옛날.)

107005 @ 지게문은 무슨 문이파?(지게문은 무슨 문입니까?)

107005 #2 마루로 튼 문을, 지게문.(마루로 튼 문을, 지게문.)

107005 @ 그게 지게문? 상방, 상방?(그게 지게문? 마루, 마루?)

107005 #1 것ㄴ라 지게문이렌 해.(것보고 지게문이라고 해.)

107005 #2 지게문이주게.(지게문이지.)

107005 #1 저건 창문. 창문은 마당으로 내고이. 마당으로 오래 걸리고 그 지게문은 마리로.(저건 창문. 창문은 마당으로 내고. 마당으로 오래 걸리고 그 지게문은 마루로.)

107005 @ 마루로 들어가는?(마루로 들어가는?)

107005 #1 으, 으. 그거 지게문이야. 나 그때 번 못 얻어먹영 막 씹씩씩 헤났어. 하하하. 게난 누게 뜨게 오랜 헛나게? 먹은 아이덜은, 누게 뜨게 오랜 헛어. 우리영 ㄴ찌 와서민 먹을 건디.(으, 으. 그게 지게문이야. 나 그때 한번 못 얻어먹고 막 씹씩씩 했었어. 하하하. 그러니까 누가 늦게 오라고 했어? 먹은 아이들은, 누가 늦게 오라고 했어. 우리랑 같이 왔으면 먹을 건데.)

107006 @ 게든 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까끌까끌허덴 현 거.(그럼 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까끌까끌하다고 한 거.)

107006 #1 조팍은 그 그 츠류³⁶⁵나 허민 흐뎡 먹으카 몰라. 모인조팍은 좋은 사름 벨로 어실 거라. 종질 안해.(조팍은 그 그 ‘츠류’나 하면 조금 먹을까 몰라. 메조

365) ‘츠류’는 찰기가 있는 종류로, 여기서 찰기가 있는 쌀 종류를 말한다.

는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좋질 않아.)

107006 @ 어무니안티 조팝 무사 우리 집은 조팝만 행 먹었수다라든가 뭐 이런 사건은 었었수파?(어머니한테 조밥 왜 우리 집은 조밥만 해서 먹었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까?)

107006 #1 그런 거 이런 거.(그런 거 이런 거.)

107006 @ 가난해 가지고 조팝만 먹었다던가?(가난해 가지고 조밥만 먹었다든가?)

107006 #1 겐디 우리가 맨조팝만 먹은 건 안 님아져, 집이서. 서경만 먹영. 맨조팝만 해여근에 때로 해 놓 건 기억이 안 나.(그런데 우리가 맨조밥만 먹은 건 안 같아, 집에서. 섞어서만 먹어. 맨조밥만 해서 때로 해 놓은 건 기억이 안 나.)

107006 @ 삼촌은 어릴 때 보리밥 먹었수과?(삼촌은 어릴 때 보리밥 먹었습니까?)

107006 #1 우리도이 막 못사는 편은 아니니까이.(우리도 아주 못사는 편은 아니니까.)

107006 #2 나도 모인조팝만 행 먹어난 적은 었어.(나도 메조밥만 해서 먹었던 적은 없어.)

107006 #1 서경만 먹어난 거 님아, 서경.(섞어서만 먹었던 거 같아, 섞어서.)

107006 @ 거기에도 각자 그릇은 안 줘? 아버지만 벨도로 사기그릇에 준다든가.(거기에도 각자 그릇은 안 줘? 아버지만 별도로 사기그릇에 준다든가.)

107006 #1 낭퐁이 거렁 ㄱ찌.(양퐁에 떠서 같이.)

107006 @ 다 낭퐁이 거렁 먹었수파?(다 양퐁에 떠서 먹었습니까?)

107006 #1 으.(으.)

107006 #2 아버지만 따로 벨도로 해근에.(아버지만 따로 별도로 해서.)

107006 #1 상 하나 낱 국만 따루 거렁 빙 돌아앗앙 먹언.(상 하나 놔서 국만 따로 떠서 빙 돌아앗아서 먹었어.)

107006 @ 아부진 따로 먹고?(아버진 따로 먹고?)

107006 #1 으, 아버지는 따로. 저 동글랑 상에.(으, 아버지는 따로. 저 동그란 상에.)

107006 #2 마루에, 마루에 이런 지게문 앞에 딱 아부진 상 독상으로 행 출렁 들러다 놓곡 우린 부엌에서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낭퐁이든 낭퐁이, 그 뭐라 그 나무로 똥 바가지민 바가지 퍼 놔근에.(마루에, 마루에 이런 지게문 앞에 딱 아버진 상 독상으로 해서 차려서 들어다 놓고 우린 부엌에서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양퐁이면 양퐁, 그 뭐야 그 나무로 된 바가지면 바가지 퍼 놔서.)

107006 #1 남박세기엔 해, 남박세기.(‘남박세기’라고 해, 나무바가지.)

107006 #2 국만 따루 떠다 낱.(국만 따로 떠다 놔서.)

107006 #1 우린 남박세기 경 큰 게 었으난 주로 낭퐁이에 거리더라고 그거를. 또 이 콩ㄱ를 골아다근에 모인썰 놔근에 죽도 썬. 그건 맛있어, 콩죽.(우린 나무바가지

그렇게 큰 게 없으니까 주로 양푼에 뜨더라고 그거를. 또 콩가루 갈아다가 메좁쌀 넣어서 죽도 췌. 그건 맛있어, 콩죽.)

107006 #2 으, 콩죽.(으, 콩죽.)

107006 #1 게민 콩죽은 낭푼이에 거리민 닝끄리는다 그 나무박세기에 거리민 그 건 좋아이.(그럼 콩죽은 양푼에 뜨면 미끄러지는데 그 나무바가지에 뜨면 그건 좋아.)

107006 @ 아.(아.)

107006 #1 나무박세기 그.(나무바가지 그.)

107006 @ 것도 덜영 안 먹고 하나에.(것도 덜어서 안 먹고 하나에.)

107006 #1 아니, 아니 각자가.(아니, 아니 각자가.)

107006 #2 각자.(각지.)

107006 #1 게민 박세기가 두 개니까 우리 아시 하나, 나 거 하나 있어. 경혜영 딱루 거렁 주민 그 박세기에 죽 거린 것이 혼 반쯤 거려. 거리면은 영 둘러, 빙허게 둘러민 이 윙이, 윙이 죽이 부떠. 부뜨민 거 손갈로 걸렁 걷어 먹으면 경 맛있어, 것이. 뜨겁지도 아녀고.(그럼 바가지가 두 개니까 우리 아우 하나, 내 거 하나 있어. 그래서 따로 떠서 주면 그 바가지에 죽 뜬 것이 한 반쯤 떠. 뜨면 이렇게 둘러, 빙하게 두르면 이 옆에, 옆에 죽이 붙어. 붙으면 거 손갈로 떠서 걷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것이. 뜨겁지도 앓고.)

107006 #2 빨리 식으렌 영 손갈로 돌렁 두르주게.(빨리 식으라고 이렇게 손갈로 돌려서 두르지.)

107006 #1 경 다 행 먹어지민 또 영 돌렁은에 혼 세 번쯤 돌렁 먹어 가민 한 가운데 게 식어.(그렇게 다 해서 먹으면 또 이렇게 돌려서 한 세 번쯤 돌려서 먹어 가면 한 가운데 게 식어.)

107006 #2 식어 갈 거주게.(식어 갈 거지.)

107006 #1 식어.(식어.)

107006 @ 쿡박세기 그거 말고 나무박세기?('쿡박세기' 그거 말고 나무바가지?)

107006 #2 나무박세기.(나무바가지.)

107006 #1 알아지커라, 나무박세기.(알겠어, 나무바가지.)

107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7006 #1 게난 그 박세기도 아이 바빠. 나 건 나 주고 아시 건 아시 주고. 딱 딱나게 거려.(그러니까 그 바가지도 안 바뀔. 내 건 나 주고 아우 건 아우 주고. 딱 다르게 떠.)

107006 #2 나무박세기.(나무바가지.)

107006 #1 아무거나 그냥 거려 주질 아녀.(아무거나 그냥 떠 주질 앓아.)

107006 @ 게민 아이덜, 아덜이나 아버지나 다 나무박세기는 자기 직시 건 이신 거?(그럼 아이들,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나무바가지면 자기 몫 건 있는 거?)

107006 #1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딱 대접에 거려.(아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딱 대접에 떠.)

107006 @ 대접?(대접?)

107006 #1 대접에 거령 상에 땡.(대접에 떠서 상에 뉘서.)

107006 #2 으, 사기대접에. 거 죽 뜨는 대접이 있어. 큰 거.(으, 사기대접에. 거 죽 뜨는 대접이 있어. 큰 거.)

107006 #1 흐뭇 커.(조금 커.)

107006 #2 으, 국 뜨는 대접하고 죽 대접이 틀려.(으, 국 뜨는 대접하고 죽 대접이 달라.)

107006 @ 틀려.(달라.)

107006 #1 아버지 사발은 좀 커.(아버지 사발이 좀 커.)

107006 #2 커.(커.)

107006 #1 우리 거보다.(우리 거보다.)

107006 #2 죽 대접이 커.(죽 대접이 커.)

107006 @ 아덜덜은 똑같이?(아들들은 똑같이?)

107006 #1 아덜은 우린 몰라. 오빠이 막 어릴 때 열여덟 살에 일본 가 부난이. 나이가 막 있던 가 부난 오빠영은 밥 먹어난 거 몰른디 우리 오래비덜은 혼 세 설, 네 설 낭은에 만딱 죽어 불언게, 서이나. 너 설 낭 죽은 게 하나고 하나는 세 설, 그 알로 또 하나 죽은 건 멧 설산디 몰르크라. 세 개나 죽은 건 알아지는다. 옛날들은 아프민 약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아들은 우린 몰라. 오빠 아주 어릴 때 열여덟 살에 일본 가 버리니까. 나이가 막 있어 가 버리니까 오빠랑은 밥 먹었던 거 모르는데 우리 오라비들은 한 세 살, 네 살 돼서 모두 죽어 버렸어, 셋이나. 네 살 돼서 죽은 게 하나이고 하나는 세 살, 그 아래로 또 하나 죽은 건 몇 살인지 모르겠어. 세 개나 죽은 건 아는데. 옛날들은 아프면 약도 쓰지 않고 그냥.)

107006 #2 약이 어디 서게.(약이 어디 있어.)

107006 #1 그냥 몰르당 죽어 불언게.(그냥 마르다가 죽어 버렸어.)

107006 #2 약이 엇이난게.(약이 없으니까.)

107006 #1 무사 약사 엇으카?(왜 약사 없을까?)

107006 @ 아기 때 먹는 거는 아덜이나 딸이나 다 똑같았주예?(아기 때 먹는 거는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았지요?)

107006 #2 다 똑같애.(다 똑같아.)

107006 #1 그때는 경 입쌀 안 먹을 때고 허니까. 입쌀은 아무 때에나 안 먹드라고. 멧질 때나 제사 때나 돌아와야.(그때는 그렇게 입쌀 안 먹을 때고 하니까. 입쌀은 아무 때에나 안 먹더라고. 멧질 때나 제사 때나 돌아와야.)

107006 @ 입쌀이 근밥?(입쌀이 흰밥?)

107006 #2 응, 입쌀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응, 입쌀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107006 #1 아이 먹어. 뭐 생일 때나 아버지 생일 때나 돌아오민 좀 서끄지. 곤썰 서끄지.(안 먹어. 뭐 생일 때나 아버지 생일 때나 돌아오면 좀 섞지. 흰쌀 섞지.)

107007 @ 풋밥. 풋은?(팔밥. 팔은?)

107007 #1 풋밥도, 풋도 좀 애졌어. 것도이 풋도이 잔치할 때나 소상 대상 할 때나 써.(팔밥도, 팔도 좀 아졌어. 것도 팔도 잔치할 때나 소상 대상 할 때나 써.)

107007 #2 것도 벨미로.(것도 별미로.)

107007 #1 임시 집의 식구만 먹을 땐 풋 안 서꺼 먹어.(임시 집의 식구만 먹을 땐 팔 안 섞어 먹어.)

107007 @ 임시로 먹을 때 돔비렌 험니까? 그런 거는 서꺼 먹지 아니해났수과? 풋하고 돔빈 또 뭐가 달라마씨?(임시로 먹을 때 동부라고 합니까? 그런 거는 섞어 먹지 않았습니까? 팔하고 동부는 또 뭐가 달라요?)

107007 #1 돔비는 어염에만, 어염에만 갈아근에 영.(동부는 옆에만, 옆에만 갈아서 이렇게.)

107007 #2 돔빈 막 줄 나는 거주게. 줄 번영 가기 때문에.(동부는 마구 줄 나는 거지. 줄 번어서 가기 때문에.)

107007 #1 어염에.(옆에.)

107007 #2 이 밧, 담 어염으로만 쪽.(이 밧, 담 옆으로만 쪽.)

107007 #1 어떻 돔비 알았다예?(어떻게 동부 알고 있네요?)

107007 @ 어릴 때 난 밥맛이 었은 거 님은디 할머니가 밥에 서경 주더라고 보리밥에.(어릴 때 난 밥맛이 었는 거 같은데 할머니가 밥에 섞어 주더라고 보리밥에.)

107007 #1 풋만이 못 해, 돔비가. 맛이. 겹테기 두꺼와.(팔만큼 못 해, 동부가. 맛이. 겹테기 두꺼워.)

107007 #2 방울이 좀 굵어.(방울이 좀 굵어.)

107007 #1 겹테기도 두껍고.(겹테기도 두껍고.)

107007 #2 겹테기도 두껍고.(겹테기도 두껍고.)

107007 @ 그거 매일 깡 놔둬니게. 지금도 어무니게.(그거 매일 까서 놔두지요. 지금도 어머니.)

107007 #2 으, 맞아.(으, 맞아.)

107007 @ 강낭콩도 그렇고.(강낭콩도 그렇고.)

107007 #1 우린 에염 거 별로 안 허더라.(우린 옆 거 별로 안 하더라.)

107007 #2 옛날 어른들은 주로 그 담 엠에.(옛날 어른들은 주로 그 담 옆에.)

107007 @ 겐디 그런 게 몸에 경 좋텐 험수께. 지금은, 우리는 맛있게 경.(그런데 그런 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지요. 지금은, 우리는 맛없게 그렇게.)

107007 #2 으, 맞아, 맞아.(으, 맞아, 맞아.)

107007 @ 막 골라 가명 헤난 거 님은디에 경 좋텐.(마구 골라 가면서 했던 거 같은데요 그렇게 좋다고.)

107007 #2 이 담 엠에만 죽 돌아가명.(이 담 옆에만 죽 돌아가면서.)

107007 #1 우리 셋어머니는 막.(우리 둘째어머니는 마구.)

107007 #2 담에 올리젠. 담에 줄 벗어 올리젠 담 엠에만 그걸 심어났주게. 게근

에 막 줄 번어근에 담 우에 올라가명 자락자락 올라근에.(담에 올리려고. 담에 줄 벗어 올리려고 담 옆에만 그걸 심었었지. 그래서 마구 줄 번어서 담 위에 올라가면서 주렁주렁 열어서.)

107007 #1 아이, 생각남저. 우리 셋어머니 고장믈³⁶⁶이, 안돌³⁶⁷이 잣벽 아니 가게. 이제 ○○네 허는다.(아, 생각난다. 우리 둘째어머니 ‘고장믈’이, ‘안돌’이 ‘잣벽’ 아니니. 이제 ○○네 하는데.)

107007 #2 어게.(어.)

107007 #1 그디 허여근에 막 즈락즈락.(거기 해서 마구 주렁주렁.)

107007 #2 어게.(어.)

107007 #1 치메에, 치메에 그냥 이만이 탕 와근에게 날ㄴ라 셋년아, 셋년아 불령이 까렌 해여. 까민 이만인 쥐. 가정 가렌.(치마에, 치마에 그냥 이만큼 타고 와서 나보고 둘째야, 둘째야 불려서 까라고 해. 까면 이만큼 쥐 가지고 가라고.)

107007 @ 잣벽은 돌멩이 잇는디?(‘잣벽’은 돌멩이 잇는데?)

107007 #1 잣벽³⁶⁸은 이중으로 막 쌍 올라간 거게.(‘잣벽’은 이중으로 마구 쌍아서 올라간 거.)

107007 @ 잣벽은 돌멩이 쌍.(‘잣벽’은 돌멩이 쌍아서.)

107007 #1 돌멩이 하나로 답질 안허고 막 모여근에 모두락³⁶⁹.(돌멩이 하나로 쌍질 않고 많이 모여서 ‘모두락’.)

107007 @ 존 돌멩이?(잔 돌멩이?)

107007 #1 으, 존 돌멩이. 그것ㄴ라 잣백이엔 허주게.(으, 잔 돌멩이. 그것보고 ‘잣백’이라고 하지.)

107007 @ 그런데 동더레 가난.(그런데 동으로 가니까.)

107007 #2 우린 잣백이엔 허여이. 우린 잣백이엔 허는다 백케³⁷⁰엔 허는 디도 있어. 백케.(우린 ‘잣백’이라고 해. 우린 ‘잣백’이라고 하는데 ‘백케’라고 하는 데도 있어. ‘백케’.)

107007 @ 백켄 뭐마씨?(‘백케’는 뭐요?)

107007 #2 그 잣백ㄴ라 백케엔 허여.(그 ‘잣백’보고 ‘백케’라고 해.)

107007 @ 아.(아.)

107007 #1 백케?(‘백케’?)

107007 #2 으. 동인가 서인가 백케엔도 허더라. 우리 웨가 쪽에가 백케엔 허던가?(으. 동인가 서인가 ‘백케’라고도 하더라. 우리 외가 쪽이 ‘백케’라고 하던가?)

107007 #1 동인 아니라 서이라, 동엔 아니라. 신촌 그런 말 안 허더라.(동은 아니고 서에야, 동엔 아니야. 신촌 그런 말 안 하더라.)

366) ‘고장믈’은 지경 이름이다.

367) ‘안돌’은 지경 이름이다.

368) ‘잣백’은 돌들을 많이 쌍아 올린 담벼락이나 돌무지를 말한다.

369) ‘모두락’은 물건 따위가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70) ‘백케’는 돌무지를 가리킨다.

107007 #2 으, 백케엔도 허더라고. 백케가 뭐이파 허난 그런 잣백보고 백케렌.
(으, ‘백케’라고도 하더라고. ‘백케’가 뭐입니까 하니까 그런 ‘잣백’보고 ‘백케’라고.)

107007 @ 그런 데 돛비 올령, 돛비는 언제 가는 거파, 가을에?(그런 데 돛부 올려서, 돛부는 언제 가는 겁니까, 가을에?)

107007 #1 아니, 농사질 때. 농서힐 때이 에염으로 도록도룩 흘려. 농사질 때.(아니, 농사질 때. 농사할 때 옆으로 주룩주룩 흘려. 농사질 때.)

107007 @ 콩농사? 무신 농사?(콩농사? 무슨 농사?)

107007 #1 조 블릴³⁷¹⁾ 때 많이 허여이.(조 밟을 때 많이 해.)

107007 #2 응, 조 블릴 때 조팏 에염으로 잘 놓아.(응, 조 밟을 때 조밭 옆으로 잘 놓아.)

107007 #1 게난 그거 알아져. 셋어머니 경 오랜 행은에 그거 까민 이만이 줘.(그러니까 그거 알아. 둘째어머니 그렇게 오라고 해서 그거 까면 이만큼 줘.)

107007 #2 돛빈 잘 올민 자락자락 잘도 수확이 많이 나.(돛분 잘 열면 주렁주렁 아주 수확이 많이 나.)

107007 #1 게난 우리 어머니 느 칸 품 더 하영 받았왔구나이.(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너 칸 품 더 많이 받아서 왔구나.)

107007 #2 맞주게.(맞지.)

107007 #1 돛비 까민.(돛부 까면.)

107007 @ 밥에 낱도 먹고예?(밥에 넣어서도 먹고요?)

107007 #2 예, 밥에 주로 낱 먹엇주게.(예, 밥에 주로 넣어서 먹었지.)

107007 #1 죽도 못 썬 먹어 건. 겁죽이 두더와 부난.(죽도 못 썬 먹어 건. 껌데기 두꺼워 버리니까.)

107008 @ 피밥은 먹어 봤수과?(피밥은 먹어 봤습니까?)

107008 #1 난 아이 먹어 봤.(난 안 먹어 봤어.)

107008 #2 안 먹어 봤.(안 먹어 봤어.)

107009 @ 감자밥. 감자밥이렌 험니까? 고구마 낱 밥.(고구마밥. 고구마밥이라고 합니까? 고구마 넣어서 밥.)

107009 #1 으응, 건 먹어 봤어.(으응, 건 먹어 봤어.)

107009 @ 범벅이 아니고 밥도?(범벅이 아니고 밥도?)

107009 #1 밥에.(밥에.)

107009 #2 밥에.(밥에.)

107009 #1 밥에이 송송 썰엿게. 썰어 놔근에 밥헤영 이제는 거 맛이신디이 것도 많이 놓난 맛엇더라, 고구마밥.(밥에 송송 썰어서. 썰어 넣어서 밥해서 이제는 거 맛있는데 것도 많이 넣으니까 맛없더라, 고구마밥.)

107009 #2 맛엇주게. 즈주 먹으니까, 그뎌. 쫄 살리젠. 쫄 즈냥헝 먹젠.(맛없지.

371) ‘블리다’는 표준어의 ‘밟다’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조를 파종하고 나서 흙을 다지기 위해 밟는 것을 말한다.

자주 먹으니까, 그땐. 쌀 살리려고. 쌀 아껴서 먹으려고.)

107009 #1 막 고구마 밀리멍이 밥만 막 떠 먹어난 거 알아지커라.(마구 고구마 밀리면서 밥만 마구 떠 먹었던 거 알겠어.)

107009 @ 아, 정말마씨. 우린 고구마만 골라 먹었던 거 닮은디.(아, 정말요. 우린 고구마만 골라 먹었던 거 같은데.)

107009 #1 조그마니 농난 그거라. 하영 농곡이 자꾸 해 가난.(조그만 넣으니까 그거야. 많이 넣고 자꾸 해 가니까.)

107009 #2 자주 해연 먹으니까.(자주 해서 먹으니까.)

107009 #1 쟁 냉긴 건 고구마라, 밥만 파 먹어.(그래서 남긴 건 고구마야, 밥만 파 먹어.)

107009 #2 으, 옆으로 둥글렁 내붙어, 고구만.(으, 옆으로 둥굴려서 내버려, 고구마는.)

107009 @ 아이고야, 정도 해낫수과?(아이고, 그렇게도 했었습니까?)

107009 #1 으. 어릴 땐 밥만 파먹어.(으. 어릴 땐 밥만 파먹어.)

107009 #2 먹기 싫어근앵에.(먹기 싫어서.)

107009 @ 밥이 밥이로구나.(밥이 밥이로구나.)

107009 #1 계난 그건 놔두민 어머니네 먹주게.(그러니까 그건 놔두면 어머니네 먹지.)

107009 @ 꺼꿀로구나게.(거꾸로구나.)

107009 #2 나도 막 숟갈로 둥글치명 아니 먹어낫어.(나도 아주 숟갈로 둥글리면서 안 먹었었어.)

107010 @ 겨믄 무밥?(그럼 무밥?)

107010 #2 무밥은 안 먹어낫어.(무밥은 안 먹었었어.)

107010 @ 늬뻬밥.(무밥.)

107010 #1 나도 무밥은 먹어난 기억이 없어.(나도 무밥은 먹었던 기억이 없어.)

107010 #2 으.(으.)

107011 @ 게믄 툷밥? 바다 거는 안 먹어 봤지예?(그럼 툷밥? 바다 거는 안 먹어 봤지요?)

107011 #2 툷도게 우린.(툷도 우린.)

107012 @ 패밥. 패, 것도 바다?(패밥. 패, 것도 바다?)

107012 #2 으, 것도 바다.(으, 것도 바다.)

107013 @ 이제는 국이우다예, 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이제는 국입니다, 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3 #2 국 종륜 뭐 웬장국이 주로. 쉽게 행 먹는 건 그자 웬장국.(국 종류는 뭐 된장국이 주로. 쉽게 해서 먹는 건 그저 된장국.)

107013 @ 쿡국.(콩국.)

107013 #2 쿡국도 잇고.(콩국도 있고.)

107013 @ 믫밀국.(메밀국.)

107013 #2 게문 배추 낱도 끌렁 먹곡 무우국도 행 먹곡.(그럼 배추 넣어서도 끓여서도 먹고 무국도 해서 먹고.)

107013 @ 무우렌 험니까?(무라고 합니까?)

107013 #2 으.(으.)

107013 @ 늠빠, 늠빠가.(무, 무가.)

107013 #1 으, 무우엔 헤여, 무우.(으, 무라고 해, 무.)

107013 @ 늠빠는 어디서 나온 말인고예?('늠빠'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107013 #2 제줏말 그 늠빠는. 완전 제주 사투리.(제줏말 그 무는. 완전 제주 사투리.)

107013 @ 무수, 무.(무, 무.)

107013 #2 무운 그건 표준말이고. 우리 어린 땐 그자 늠빠, 늠빠만 해낫주게.(무는 그건 표준말이고. 우리 어린 땐 그저 '늠빠', '늠빠'만 했었지.)

107013 @ 콩늠물국?(콩나물국?)

107013 #1 으, 우영에 강 늠빠 멍 오라 어무니가 영 헤.(으, 터알에 가서 무 매서 오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

107013 @ 게민예.(그럼요.)

107013 #1 콩늠물ㄱ라 옛날엔 콩주름, 콩주름 해.(콩나물보고 옛날엔 '콩주름', '콩주름' 해.)

107013 @ 콩주름예?('콩주름'요?)

107013 #1 으.(으.)

107014 @ 늠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키, 늠물을, 우영팻디 늠물을?(나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푸성귀, 나물을, 터알 나물을?)

107014 #1 그 늠물도 늠물 행 오랜 안 허영 강 송키 행 오라, 우영에 강계. 송키 멍 오라 경 허더라고. 늠물 메 오라.(그 나물도 나물 해서 오라고 안 하고 가서 푸성귀 해서 와라, 터알에 가서. 푸성귀 매서 오라 그렇게 하더라고. 나물 매 와라.)

107014 @ 물에 웬장 풀어놔 허당 늠물만 놓민 끝?(물에 된장 풀어놔서 하다가 나물만 넣으면 끝?)

107014 #2 으.(으.)

107014 #1 응 끝, 아무것도 안 놔.(응 끝, 아무것도 안 넣어.)

107014 #2 웬장국이 바로 그거주게.(된장국이 바로 그거지.)

107014 #1 그때 마늘도 셔도 마늘도 안 놓더라이.(그때 마늘도 있어도 마늘도 안 놓더라.)

107014 #2 마늘도 안 놓고.(마늘도 안 넣고.)

107014 #1 놀 충 몰랑 못 논 거라.(넣을 줄 몰라서 못 넣은 거야.)

107014 #2 마늘은 주로 우잣에 심영 먹엇주만은 마늘은 놀 충 몰라신ㄱ라 마늘을.(마늘은 주로 터알에 심어서 먹엇지만 마늘은 넣을 줄 몰랐는지 마늘을.)

107014 #1 웬장에, 반찬에 놀 거를 몰라.(된장에, 반찬에 넣을 거를 몰라.)

107014 @ 겐 ㄴ물은 어떻 칼로 찰랑마씨 아니믄 손으로 뜯엉?(그래서 나물은 어떻게 칼로 잘라요 아니면 손으로 뜯어서?)

107014 #1 박박 문질러.(박박 무질러.)

107014 #2 손으로 그냥 영 무지렁.(손으로 그냥 이렇게 무질러서.)

107014 #1 박박 무지렁 놔.(박박 무질러서 넣어.)

107014 #2 배추 같은 건 뭐 칼 쓸 필요가 엇주. 손으로 그냥.(배추 같은 건 뭐 칼 쓸 필요가 없지. 손으로 그냥.)

107014 @ ㄴ물은 언제 납니까? 아무 때나?(나물은 언제 납니까? 아무 때나?)

107014 #2 봄에.(봄에.)

107014 #1 미리, 미리 갈면은이 혼 칠월들 나민 갈아. ㄴ물 갈면은 팔월에 출 비레 갈 때부터 ㄴ물 나와. 그때부터 국 끌렁 먹어. 아, 뭇도 행 먹드라. 고치이파리 헤여근에이 고치이파리 헤근에.(미리, 미리 갈면 한 칠월 되면 갈아. 나물 갈면 팔월에 풀 베러 갈 때부터 나물 나와. 그때부터 국 끓여서 먹어. 아, 뭇도 해서 먹더라. 고춧잎 해서 고춧잎 해서.)

107014 #2 집장³⁷²?('집장'?)

107014 @ 무청?(무쳐서?)

107014 #1 집장이엔 현 게 잇어.('집장'이라고 하는 게 잇어.)

107014 #2 집장.('집장'.)

107014 @ 뭐?(뭐?)

107014 #1 집장.('집장'.)

107014 @ 옛날에?(옛날에?)

107014 #1 으, 고춧잎에 ㄴ를 ㅍ근에 비빈 게, 저 간 해영 조금 놓민.(으, 고춧잎에 가루 넣어서 비빈 게, 저 간 해서 조금 넣으면.)

107014 #2 집장이엔 허주게.('집장'이라고 하지.)

107014 @ 무신 ㄴ루?(무슨 가루?)

107014 #1 ㄴ를은 무신 ㄴ물ㄴ루인가?(가루는 무슨 메밀가루인가?)

107014 #2 ㄴ물ㄴ를 ㄴ뎡가 보리ㄴ를 ㄴ뎡가 거 맛있어.(메밀가루를 넣든가 보릿가루를 넣든가 거 맛있어.)

107014 #1 맛있어, 거.(맛있어, 거.)

107014 #2 출뎡디.(꿀밭에.)

107014 #1 우리 어머니가 출뎡디 ㄴ게 오명이 나 오닐 고춧잎 우영에 강 툷앙 집장 행 왓저 허민 점심 먹을 때 그걸 내놓민 잘도 맛있어.(우리 어머니가 꿀밭에 ㄴ게 오면서 나 오늘 고춧잎 터알에 가서 뜯어서 '집장' 해서 왓어 하면 점심 먹을 때 그걸 내놓으면 아주 맛있어.)

107014 #2 응, 집장이 맛있어.(응, '집장'이 맛있어.)

372) '집장'은 고춧잎 등에 메밀가루 따위를 넣어 버무려 만든 음식을 말한다.

107014 #1 집장, 이름이 집장이라.('집장', 이름이 '집장'이야.)

107014 @ 그 저 퍼렁헌 고춧이파리를.(그 저 파란 고춧잎을.)

107014 #1 으.(으.)

107014 @ 요런 거 따당.(요런 거 따다가.)

107014 #1 으.(으.)

107014 @ 그루에 막 서꺼?(가루에 막 섞어서?)

107014 #1 몰라.(몰라.)

107014 #2 원 허는 게 모르겠어.(원 하는 게 모르겠어.)

107014 #1 고춧잎 낱이 막 툴죽 같애. 막 툴 거. 겐 영 반찬으로 먹어. 막 튀게 해. 범벅 닮아, 범벅.(고춧잎 넣어서 아주 된죽 같아. 아주 된 거. 그래서 이렇게 반찬으로 먹어. 마구 되게 해. 범벅 같아, 범벅.)

107014 #2 범벅 닮아.(범벅 같아.)

107014 #1 고춧잎 범벅 닮아. 겐 고춧잎 집장. 이름이 집장 행 왓저, 집장.(고춧잎 범벅 같아. 그래서 고춧잎 '집장'. 이름이 '집장' 해서 왔어, '집장'.)

107014 @ 흐뎡 매운맛 нама씨?(조금 매운맛 나요?)

107014 #1 아니, 고치는 안 놔. 고춧잎만.(아니, 고추는 안 넣어. 고춧잎만.)

107014 #2 양념, 그자 반찬 맛에, 반찬.(양념, 그저 반찬 맛에, 반찬.)

107014 #1 고치는 안 놓고 이파리만. 고치는 놔다 킴은에게 익혀 먹게.(고추는 안 넣고 잎만. 고추는 놔다 잠가서 익혀서 먹게.)

107014 #2 우리 어머니도 가끔 집장 잘행 먹어났어.(우리 어머니도 가끔 '집장' 잘해서 먹었어.)

107014 #1 나가 그 생각이 나. 출 빌 때 집장 행 왓저. 내놔 먹으면 잘도 맛있어.(내가 그 생각이 나. 풀 벨 때 '집장' 해서 왔어. 내놓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

107014 @ 출 빌 때?(풀 벨 때?)

107014 #1 출 빌 때. 그 생각허난 *** 강 출 비어난 장도 막 눈에 훑험저.(풀 벨 때. 그 생각하니까 *** 가서 풀 베었던 장도 아주 눈에 훑하다.)

107015 @ 콩나물국?(콩나물국?)

107015 #1 콩나물국 아넌 콩주름 낱 국 끌리라 해. 일부러이 승키 먹켄 행은에 놓아. 콩을 놓아, 주름 막 물 놓명 키워.(콩나물국 아니고 '콩주름' 넣어서 국 끓여라 해. 일부러 푸성귀 먹겠다고 해서 넣어. 콩을 놓아, 콩나물 마구 물 넣으면서 키워.)

107015 #2 옛날엔 주로 콩을 낱 키워 먹었주게.(옛날엔 주로 콩을 놔서 키워서 먹었지.)

107015 #1 겐 그걸 승키로 먹어. 콩나물은. 콩나물이엔 아넌 콩주름, 콩주름 해. 콩주름 낱 국 끌리라 해, 어무니네.(그래서 그걸 푸성귀로 먹어. 콩나물은. 콩나물이라고 안 하고 콩나물, 콩나물 해. 콩나물 넣어서 국 끓여라 해, 어머니네.)

107015 @ 툴장 낱?(된장 넣어서?)

107015 #1 응.(응.)

107015 @ 이것도 똑같이 웬장 낱.(이것도 똑같이 된장 넣어서.)

107015 #2 웬장 낱.(된장 넣어서.)

107015 @ 그다음 무치는 건 삶양 그냥 무청 먹고예?(그다음 무치는 건 삶아서 그냥 무쳐서 먹고요?)

107015 #1 으. 무청은 벨로 안 먹고이 그 콩주름 낱 국만, 국 송기로 허는 거 닻아.(으. 무쳐서는 벨로 안 먹고 그 콩나물 넣어서 국만, 국 푸성귀로 하는 거 같아.)

107015 #2 응, 국 송기로만.(응, 국 푸성귀로만.)

107015 #1 그것에 무우 좀 서껴.(그것에 무 좀 섞어.)

107015 @ 무 서껴?(무 섞어?)

107015 #1 으. 무 썰엿 좀 서껴.(으. 무 썰어서 좀 섞어.)

107015 #2 무 서트민 맛 좋아 더.(무 섞으면 맛 좋아, 더.)

107016 @ 무만 낱도 국 끌려 먹어마씨?(무만 넣어서도 국 끓여서 먹어요?)

107016 #2 어, 무만 썰어 낱도 국 끌렁 먹곡.(어, 무만 썰어 넣어서도 국 끓여서 먹고.)

107016 #1 지금도 행 경 먹잖아.(지금도 해서 그렇게 먹잖아.)

107016 @ 으, 시원허여.(으, 시원해.)

107016 #1 으.(으.)

107016 @ 무국예. 이것도 겨울에 많이?(무국요. 이것도 겨울에 많이?)

107016 #2 응, 겨울에 많이.(응, 겨울에 많이.)

107016 #1 막이 봄 나 가민이 밖에 강은에 이제 ㄱ뜨민 달래ㄱ라 마농이엔 헤이. 썰마농 헤 오라 썰마농 헤 오라 허민 썰마농 강은에 막 곱겅이 아정 강 박박 파민. (마구 봄 되어 가면 밖에 가서 이제 같으면 달래보고 ‘마농’이라고 해. ‘썰마농’ 해 와라 ‘썰마농’ 해 와라 하면 달래 가서 마구 호미 가지고 가서 박박 파면.)

107016 #2 옛날엔 썰마농도 많더라.(옛날에는 달래도 많더라.)

107016 #1 빈 밭도 많고 허난.(빈 밭도 많고 하니까.)

107016 #2 으, 빈 밭.(으, 빈 밭.)

107016 #1 박박 파면은 그 뿌리차, 뿌리. 뿌리차 헤 오민 잘도 뿌리가 좋아, 뿌리가. 경행 그거 뿌리만 잘라. 시쳐 낱 뿌리만 잘랑 그거는 간장에 헤여근에 찍엿 영행 흐뎡 낱당 먹곡 이 우이 거는 국 끌렁 먹곡.(박박 파면 그 뿌리째, 뿌리. 뿌리째 헤 오면 아주 뿌리가 좋아, 뿌리가. 그렇게 그거 뿌리만 잘라. 씻어 놔서 뿌리만 잘라서 그거는 간장에 해서 썰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낱다가 먹고 이 위에 거는 국 끓여서 먹고.)

107016 @ 웬장국으로?(된장국으로?)

107016 #1 으, 뿌리만 잘랑. 나 그 생각, 먹어난 생각 남신게. 게난 그 대가리를 꼭 간장에 흐뎡 서터 낱다근에 곱 먹어. 이제 ㄱ뜨민 것절이, 것절이 모냥으로.(으, 뿌리만 잘라서. 나 그 생각, 먹었던 생각 나네. 그러니까 그 대가리를 꼭 간장에 조

금 섞어 봤다가 걸 먹어. 이제 같으면 걸절이, 걸절이 모양으로.)

107017 @ 그다음 콩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콩국은 가을 이후에 먹는 거
라예? 콩가루?(그다음 콩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콩국은 가을 이후에 먹는 거
지요? 콩가루?)

107017 #2 콩가루.(콩가루.)

107017 #1 콩국은 콩가루는 뭐 벨로 경 뭐 허난 가을에 콩 나와야 겨울부터 먹
주게.(콩국은 콩가루는 뭐 별로 그렇게 뭐 하니까 가을에 콩 나와야 겨울부터 먹
지.)

107017 @ 맷돌로 갈양?(맷돌로 갈아서?)

107017 #1 으.(으.)

107017 #2 맷돌에 갈양.(맷돌에 갈아서.)

107017 @ 무 놔?(무 놔?)

107017 #1 무도 낱 먹곡, 배추도 낱 먹곡.(무도 넣어서 먹고, 배추도 넣어서 먹
고.)

107017 #2 배추에 무에 서팅은에.(배추에 무에 섞어서.)

107017 @ 이것이 경 몸에 좋덴예.(이것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요.)

107017 #1 좋기도 해.(좋기도 해.)

107017 @ 부드럽고.(부드럽고.)

107017 #1 그거 먹영 배도 불어근에 밥도 쪼끔벧기 못 먹어, 콩국 먹으면은, 확
실히 밥 죽게 먹어.(그거 먹고 배도 불어서 밥도 조금밖에 못 먹어, 콩국 먹으면,
확실히 밥 적게 먹어.)

107017 @ 이게 또 제주도에서 나온 콩으로 해야 되는 거?(이게 또 제주도에서
나온 콩으로 해야 되는 거?)

107017 #1 으, 으. 우리 간 콩으로 헌 게 좋지.(으, 으. 우리 간 콩으로 한 게 좋
지.)

107017 #2 콩국 먹으면 막 몸이 든든허여.(콩국 먹으면 아주 몸이 든든해.)

107017 #1 겐 어떤 땐 밥 먹영 콩국만 혼 사발 먹어도이 때 돼어.(그래서 어떤
때는 밥 먹어서 콩국만 한 사발 먹어도 때 돼.)

107017 @ 콩국 어떻 끓입니까?(콩국 어떻게 끓입니까?)

107017 #2 콩국 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사람마다 다 틀려. 영 말 들어보민.
(콩국 끓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사람마다 다 달라. 이렇게 말 들어보면.)

107017 @ 물 끓어 가민 콩가루를 서터?(물 끓어 가면 콩가루를 섞어?)

107017 #1 아니, 물에 개여야 돼여.(아니, 물에 개어야 돼.)

107017 #2 옛날에는 콩가루를 물에, 물 놔근에 영 반죽허영 젓영 낫다근영에 물
을 끌어 가면은 그게 영 쏘으멍 젓으멍 쏘아근영에 폭 더평 놔두민 ㄴ물부터 모녀
놔 낱 그 우의 그다음에 그 콩 반죽헌 거를 쏘아근에게 젓으멍 쏘앙 약헌 불로 오
래 영 놔두민 올라와. 올라왕 끓기 시작허여. 시작허면은 콩국 끌리는 건 막 사름

직하여 사야 돼여.(옛날에는 콩가루를 물에, 물 넣어서 이렇게 반죽해서 저어 놔다가 물을 끓여 가면 그게 이렇게 쏘으면서 저으면서 쏘아서 폭 덮어 놔두면 나물부터 먼저 넣어 놓고 그 위에 그다음에 그 콩 반죽한 거를 쏘아서 저으면서 쏘아서 약한 불로 오래 이렇게 놔두면 올라와. 올라와서 끓기 시작해. 시작하면 콩국 끓이는 건 마구 사람 지켜 서야 돼.)

107017 #1 부끄 불면이 맛도 있어, 맛도 있어.(부꺼 버리면 맛도 없어, 맛도 없어.)

107017 #2 넘쳐 부는 때문에. 계난 약현 불로 은근히 놔근에 사름 지켜상 넘치지 안허게 지켜사근에게 뚜껑 흐뎡 틈내와근에게.(넘쳐 버리는 때문에. 그러니까 약한 불로 은근히 놔서 사람 지켜서서 넘치지 않게 지켜서서 뚜껑 조금 틈내서.)

107017 #1 나 그거 번 허당 부건이.(나 그거 한번 하다가 부풀어서.)

107017 #2 부꺼 불민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부풀어 버리면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

107017 #1 어머니안티 막 데맹이 막 맞아난.(어머니한테 마구 대가리 마구 맞았어.)

107017 #2 맞추게.(맞지.)

107017 #1 무시거 허당 보난 바르르 확 부꺼 부난이 콩ㄱ를 다 부꺼나 분 거라. 왕 데맹이 바싹 뜯려분 거라, 어무니가. 아이구, 나 그 생각허민.(뭐 하다가 보니까 바르르 확 부풀어 버리니까 콩가루 다 부풀어 버린 거야. 와서 대가리 바싹 때려 버린 거야, 어머니가. 아이고, 나 그 생각하면.)

107017 #2 올라오민 이젠 간장, 옛날엔 간장도 듬양 먹어난. 간장 앓당 윽, 어염에 소올리 쏘아 놔근에 져 먹주.(올라오면 이젠 간장, 옛날엔 간장도 담가서 먹었어. 간장 가져다가 옆, 옆에 살짝 쏘아 놔서 그래서 먹지.)

107017 #1 막 마당에 나간 올엄시난 우리 셋어명이 완 무사 올엄시. 콩국 끌리는 거 보렌 허난 내불언 콩 다 넘어나 부난 나 흥번 뜯려 부난 나강 경 올엄수게게. 경허난 막 셋어명이 웃으멍 뜯려냐? 경현다, 경현다. 계난 콩국을 잘 보주기게 무사.(마구 마당에 나가서 울고 있으니까 우리 둘째어머니가 와서 왜 울고 있니. 콩국 끓이는 거 보라고 하니까 내버려서 콩 다 넘어나 버리니까 나 한번 때려 버리니까 나가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둘째어머니가 웃으면서 때리더냐? 그랬니, 그랬니. 그러니까 콩국을 잘 보지 왜.)

107017 #2 맞추기게. 콩국 넘쳐 불민 먹을 게 없어.(맞지. 콩국 넘쳐 버리면 먹을 게 없어.)

107017 #1 맞고렌 허도 못허고 아프기도 허곡이 나간 올레³⁷³⁾ 에염이 산 막 씹씩씩. 이 말 곶아 가난 막 옛날 생각남저이.(맞았다고 하지도 못하고 아프기도 하고 나가서 ‘올레’ 옆에 서서 아주 씹씩씩. 이 말 해 가니까 막 옛날 생각난다.)

107017 #2 계난 절대로 콩국은 정성 들영 첨, 신경 쓰지 않으민 안 돼여.(그러니

373)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까 절대로 콩국은 정성 들여서 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

107017 @ 혼변 경 허난 그다음부터 경 안 허잖아예?(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잖아요?)

107017 #1 으. 하하하.(으. 하하하.)

107018 @ 하하하. 호박입국 이번은. 호박입도 좋아예?(하하하. 호박입국 이번은. 호박입국도 좋아요?)

107018 #2 예, 좋아.(예, 좋아.)

107018 @ 거기도 꼭 밀가루 그런 거 서툰디다, 우리 어무니는.(거기도 꼭 밀가루 그런 거 섞습디다, 우리 어머니는.)

107018 #2 으.(으.)

107018 #1 서티야 좋아, 서티야.(섞어야 좋아, 섞어야.)

107018 #2 서티야. 서티야 그 이파리가 까슬까슬해여근에 허잖아이, 호박입은. 겐디 그 까실까실헌 게 먹어지른 장 청소웬 좋텐.(섞어야. 섞어야 그 잎이 까끌까끌해서 하잖아, 호박입은. 그래서 그 까끌까끌한 게 먹게 되면 장 청소돼서 좋다고.)

107018 #1 들깨에 밀가루에 서경 허민 더 좋아. 두 가지 서경.(들깨에 밀가루에 섞어서 하면 더 좋아. 두 가지 섞어서.)

107018 @ 것도 중간에 끓어 가면 밀가루를 물에 갠 거를 싹 뿌리는 거 아니예?(것도 중간에 끓어 가면 밀가루를 물에 갠 거를 싹 뿌리는 거 아니요?)

107018 #1 음.(음.)

107018 @ 콩가루 안 넣고예?(콩가루는 안 넣고요?)

107018 #1 콩가루는 아니 넣고.(콩가루는 안 넣고.)

107018 #2 콩ㄱ를 아니고.(콩가루 아니고.)

107019 @ 게른 노형은 잔치 땐 뭇국 들어감수과?(그럼 노형은 잔치 땐 ‘뭇국’ 들어갑니까?)

107019 #2 응, 뭇국³⁷⁴은 주로.(응, ‘뭇국’은 주로.)

107019 @ 접작빠국, 행 먹엄수과?(저 ‘접작빠국’, 해서 먹고 있습니까?)

107019 #2 으.(으.)

107019 #1 잔치도 아싯날만 행 먹어. 잔치날은 뭇국 안 해.(잔치도 전날만 해서 먹어. 잔치날은 ‘뭇국’ 안 해.)

107019 @ 잔치날은 무슨 국?(잔치날은 무슨 국?)

107019 #1 잔치날은 대게 뭇국 허지, 아시날. 아싯날만 허지.(잔치날은 대게 ‘뭇국’ 하지, 전날. 전날만 하지.)

107019 @ 잔치날은.(잔치날은.)

107019 #1 우리 헐 땐 아싯날 뒷날 먹엇잖아. 게난 아시날 뭇국 해근에이 그 무신거 베설도 허는 거 님아이.(우리 할 땐 전날 뒷날 먹엇잖아. 그러니까 전날 ‘뭇국’

374) ‘뭇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뭇국’, ‘뭇망국’, ‘뭇망국’이라고도 한다.

해서 그 뭐 창자도 하는 거 같아.)

107019 #2 베설이영 막 낵 삶아야 뭍국도 맛있어. 뽕 삶아난 국물만은 맛있어.
(창자랑 마구 넣어서 삶아야 ‘뭍국’도 맛있어. 뽕 삶았던 국물만은 맛있어.)

107019 #1 게난 아싯날만 그거 끌리고 뒷날은 그거 싹 앓아 뒤근에.(그러니까 전
날만 그거 끓이고 뒷날은 그거 싹 가져 두고.)

107019 #2 뒷날도 그 저 사둔상³⁷⁵허고 신부, 신랑상만 저 뭍국을 안 놓주 일반
상은 뭍국 먹는 딴 먹어.(뒷날도 그 저 사둔상하고 신부, 신랑상만 저 ‘뭍국’을 안
놓지 일반상은 ‘뭍국’ 먹는 데는 먹어.)

107019 @ 그다음 무신 국을 먹어마씨, 잔칫날은?(그다음 무슨 국을 먹어요, 잔칫
날은?)

107019 #2 잔칫날은.(잔칫날은?)

107019 #1 잔칫날은 무싱거 뽕 흥뽕 삶암신가? 삶아근에 우린 무 헤여근에이 나
박³⁷⁶으로 썰어근에 삶앙 차룽에 놔둬서 거 흥뽕씩 사발에 놓멍 그 국물 놓더라.
게난 그것이 뽕 좀 끓인 거 같애이?(잔칫날은 뭐 뽕 조금 삶고 있는가? 삶아서 우
린 무 해서 ‘나박’으로 썰어서 삶아서 채룽에 놔두면서 거 조금씩 사발에 넣으면서
그 국물 놓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뽕 좀 끓인 거 같아?)

107019 #2 으.(으.)

107019 #1 뽕 끓이니까 그 물 허지. 흥뽕 기름도 동동 떠.(뽕 끓이니까 그 물 허
지. 조금 기름도 동동 떠.)

107019 #2 고기 썰어난 뽕 갖다근엥에 낵 끝이멍.(고기 썰었던 뽕 갖다가 놔서
끓이면서.)

107019 #1 겐 이 솟디 끝이멍 요레 거려 놓멍.(그래서 이 솥에 끓이면서 요리 떠
넣으면서.)

107019 #2 응, 경행 먹어.(응, 그래서 먹어.)

107019 #1 경행 어떤 땐 두부도 흥뽕 놓고이 국에. 잇는 집엔.(그래서 어떤 땐
두부도 조금 넣고 국에. 잇는 집에는.)

107019 #2 두부 놓는 집안엔.(두부 놓는 집안엔.)

107019 @ 주로 잔치 아싯날엔 뭍국을 끓였다는 거다예?(주로 잔치 전날에는 ‘뭍
국’을 끓였다는 거네요?)

107019 #1 대개 뭍국.(대개 ‘뭍국’.)

107019 @ 접작뽕국이렌 험니까?('접작뽕국'이라고 합니까?)

107019 #2 응, 접작뽕³⁷⁷도 두드려 놓고.(응, ‘접작뽕’도 두드려 놓고.)

107019 #1 베설덜.(창자들.)

107019 #2 베설 거튼 거 뭐.(창자 같은 거 뭐.)

107019 @ 또 수에 담그는 것도 봐 봤수과?(또 순대 담그는 것도 봐 봤습니까?)

375) ‘사둔상’은 잔칫날 방문한 사둔을 위한 상차림을 말한다.

376) ‘나박’은 야채 따위가 납작하게 얇고 네모난 모양을 말한다.

377) ‘접작뽕’은 소나 돼지의 머리와 갈비 사이의 뼈를 말한다.

107019 #2 수에도 주로 허난 집이서 담갔주게.(순대는 주로 하니까 집에서 담갔습니까.)

107019 #1 다 담갔주. 수에 안 해 본 집이 었지.(다 담갔지. 순대 안 해 본 집이 없지.)

107019 @ 잔치 때.(잔치 때.)

107019 #2 으, 잔치 때.(으, 잔치 때.)

107019 @ 해 봤수과, 삼촌네도?(해 봤습니까, 삼촌네도?)

107019 #2 우린 해 보진 안했주만은 주로 허는 거 보긴 봤주게.(우린 해 보진 않았지만 주로 하는 거 보긴 봤지.)

107019 #1 창자에 행은에 ㄴ뚝 담으민 터져 불고이. 쪼금 큰 반만 듬양은에이 좀 굵게 허영은에 물랑물랑허게 행 삶아사 그 제헌덴 종곡, 몰라근에 ㄴ뚝 담아 불민이.(창자에 해서 가득 담으면 터져 버리고. 쪼금 큰 반만 담아서 좀 굵게 해서 말랑말랑하게 해서 삶아야 그 제한다고 좋고, 몰라서 가득 담아 버리면.)

107019 @ 터져?(터져?)

107019 #1 터정은에 물에 막.(터져서 물에 마구.)

107019 #2 이 속에 들어강 익어 가믄 불어나잖아. 거 때문에 이빠이³⁷⁸⁾ 담으민 터져 불주게.(이 속에 들어가서 익어 가면 불어나잖아. 거 때문에 가득 담으면 터져 버리지.)

107019 @ 뭇로 무끄지예?(뭇로 묶지요?)

107019 #2 끄네기로 무껴야.(끈으로 묶어야.)

107019 #1 실로 무껌네.(실로 묶고 있어.)

107019 #2 실로.(실로.)

107019 @ 피 놓고 ㄴ루, 무슨 ㄴ루 닳수과?(피 넣고 가루, 무슨 가루 넣었습니까?)

107019 #1 그거, 그거 허는 거 봐렌 보난이.(그거, 그거 하는 거 봐 보니까.)

107019 #2 그 순대 ㄴ루 따로.(그 순대 가루 따로.)

107019 #1 건 굵게 허드라이. 그냥 먹는 거보다.(거 굵게 하더라. 그냥 먹는 거보다.)

107019 #2 줌질면은.(가늘면.)

107019 #1 그 기갯방에 강 헐 때 강 순대 ㄴ루로 해 줍서 허민 그 사람이 알앙 해 줘.(그 정미소에 가서 할 때 가서 순대 가루로 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해 줘.)

107019 #2 좀 국게 곱아야 돼여.(조금 곱게 갈아야 돼.)

107019 #1 순대 ㄴ루로.(순대 가루로.)

107019 #2 너미 줌진 거 놓민 안 돼여.(너무 자잘한 거 넣으면 안 돼.)

107019 #1 피달피달허는 생이라. 먹으민 흐뎡 영게 씹는 맛이 잇게.(‘피달피달하

378) ‘이빠이’는 일본어 ‘いっぱい’에서 온 말로, ‘가득’이라는 의미다.

는' 모양이야. 먹으면 조금 이렇게 씹는 맛이 있게.)

107019 @ 찰도 넣고?(쌀도 넣고?)

107019 #1 응, 찰 흔 방울씩. 찰이 아니고 밥.(응, 쌀 한 방울씩. 쌀이 아니고 밥.)

107019 #2 밥해영 놔, 밥.(밥해서 넣어, 밥.)

107019 #1 밥 햅뽀.(밥 조금.)

107019 @ 보리밥?(보리밥?)

107019 #2 곤밥.(흰밥.)

107019 #1 곤밥, 곤밥 막 사락사락허게.(흰밥, 흰밥 아주 사락사락하게.)

107019 #2 설게 해근에게.(설게 해서.)

107019 #1 경해근앵에 그레 서꺼이, 게민.(그래서 그리 섞어, 그럼.)

107019 @ 찹쌀순대는 그런 거주게.(찹쌀순대는 그런 거지.)

107019 #2 응, 찹쌀순대덜은 찹쌀 행 밥행 놔근앵에 현 게 찹쌀순대주게.(응, 찹쌀순대들은 찹쌀 해서 밥해서 넣어서 한 게 찹쌀순대지.)

107019 @ 제주도는 많인 안 넣고 그다음 다 피.(제주도는 많이는 안 넣고 그다음 다 피.)

107019 #2 응, 피에 무시거.(응, 피에 뭐.)

107019 @ ㄴ루도 넣고.(가루도 넣고.)

107019 #2 존존현 베설도 또 순대 못 담을 것들은 썰어근에 서터근에 허곡, 경해영 현 거는 맛이 있고, 순대도. 그 피에만 현 건 맛이 었고.(자잘한 창자도 또 순대 못 담을 것들은 썰어서 섞어서 하고, 그래서 한 거는 맛이 있고, 순대도. 그 피에만 한 건 맛이 었고.)

107019 #1 고기 좀 들어간 게 맛있어. 겐디 그 옛날엔 마늘 쓸 중을 몰라이. 일절 마늘을 안 써.(고기 좀 들어간 게 맛있어. 그런데 그 옛날에는 마늘 쓸 줄을 몰라. 일절 마늘을 안 써.)

107019 @ 마늘?(마늘?)

107019 #1 으.(으.)

107019 @ 게메.(글쎄.)

107019 #1 옛날 마늘덜 안 써. 지금은 그냥 마늘을 막 쓰젠 허는디 그때는 마늘을 안 써.(옛날 마늘들 안 써. 지금은 그냥 마늘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때는 마늘을 안 써.)

107019 @ 마늘을 안 썰구나. 참지름을 많이 넣고 헤신디.(마늘을 안 썰구나. 참기름을 많이 넣고 했는데.)

107019 #1 기름은 쓰는디 마늘을 안 써.(기름은 쓰는데 마늘을 안 써.)

107019 @ 생강도 안 쓰고 제주도에서.(생강도 안 쓰고 제주도에서.)

107019 #1 생강 마늘은 아메도.(생강 마늘도 아무래도.)

107019 #1 생강 벨로 쓰는 건 못 봤어, 큰일 때.(생강 벨로 쓰는 건 못 봤어, 큰

일 때.)

107019 #2 으.(으.)

107019 #1 큰일 때는. 김치 헐 때나이. 집에서 김치 헐 때 생강 우린, 우린 아버지가 쪼끔 다른 데 부모네보단 페라와, 우리 아버지가. 김치에 마늘 생강은 쪼 잘 써나신디게. 집에서 먹는 건. 경헌디 큰일 땐 안 써.(큰일 때는. 김치 할 때나. 집에서 김치 할 때 생강 우린, 우린 아버지가 조금 다른 데 부모네보단 페로워, 우리 아버지가. 김치에 마늘 생강은 쪼 잘 썼었는데. 집에서 먹는 건. 그런데 큰일 땐 안 써.)

107019 #2 김치에사 마늘 아이 들어강 김치가 되느냐게?(김치에야 마늘 안 들어가서 김치가 되냐?)

107020 @ 옥돔국, 꿩국, 생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돔국 제사 때 행 먹어 봤수과?(옥돔국, 고기국, 생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돔국 제사 때 해서 먹어 봤습니까?)

107020 #1 응, 허지.(응, 하지.)

107020 #1 주로 헛주게.(주로 했지.)

107020 @ 노형인데도예.(노형인데도요.)

107020 #1 사당 일부러.(사다가 일부러.)

107020 #2 사당 일부러.(사다가 일부러.)

107020 @ 꼭 옥돔?(꼭 옥돔?)

107020 #1 으.(으.)

107020 @ 다른 거 안 허여?(다른 거 안 해?)

107020 #1 응.(응.)

107020 @ 소고기도 안 허고?(소고기도 안 하고?)

107020 #2 아니, 소고기도 허주만은.(아니, 소고기도 하지만.)

107020 #1 소고기는 흠치 고기영 막 상 허는디 옥돔국 허젠 허민 흥끔 신경 썸지. 옥돔 사당 국 끌리젠 허민 신경 썸. 소고기 허젠 허문게 소고기국은 해당 적갈 해 보민 찌꺼기도 나오고 허민 ㄴ찌 행 허는디 옥돔만 새로 허는 거니까 꼭 신경 썸야 돼.(소고기는 한꺼번에 고기랑 마구 사서 하는데 옥돔국 하려고 하면 조금 신경 쓰지. 옥돔 사다가 국 끓이려고 하면 신경 썸. 소고기 하려고 하면 소고기국은 해다가 적도 해 보민 찌꺼기도 나오고 하면 같이 해서 하는데 옥돔만 새로 하는 거니까 꼭 신경 썸야 돼.)

107020 @ 옥돔국은 뭐 냥 헉니까, 무?(옥돔국은 뭐 넣어서 헉니까, 무?)

107020 #2 무.(무.)

107020 @ 무.(무.)

107020 #2 미역도 놓곡. 무보단 미역이 저 무가 더 좋주게, 깔끔허곡.(미역도 넣고. 무보다는 미역이 저 무가 더 좋지, 깔끔하고.)

107020 @ 거는 뭐 끓이당 옥돔 놓니까?(거는 뭐 끓이다가 옥돔 넣습니까?)

107020 #2 으.(으.)

107020 #1 바다에 강은에이 돌아가신 사름은 옥돔도 안 쓰곡 미역도 안 써.(바다에 가서 돌아가신 사름은 옥돔도 안 쓰고 미역도 안 써.)

107020 @ 아, 바당에서 돌아가신 사름은?(아, 바다에서 돌아가신 사름은?)

107020 #1 으, 원수라. 그것이 원수라. 우리 씨아주버니가 바당에 강 죽엇젠 허난 시아주방 멧질 혈 때 시아주방 국은 딱루 냄비에 무우 낱 끌려. 끌리국 옥돔은 일절 그 상에 아져 텡기질 안허여. 시아지방 상만.(으, 원수야. 그것이 원수야. 우리 시아버지가 바다에 가서 죽었다고 하니까 시아버지 멧질 할 때 시아주버니 국은 따로 냄비에 무 넣어서 끓여. 끓이고 옥돔은 일절 그 상에 가져 다니질 않아. 시아주버니 상만.)

107020 @ 바다에서 돌아가시니까.(바다에서 돌아가시니까.)

107020 #1 응, 딱루 허는데.(응, 따로 하는데.)

107020 #2 게난 소고기국만 끌려사큰게.(그러니까 소고기국만 끓여야겠네.)

107020 #1 응, 언제나 소고기국만 무우 낱. 따로 그냥 냄비에 제사 땀 ㄹ찌 경만 행 먹는데 멧질 땀 언제나 냄비에 딱루.(응, 언제나 소고기국만 무 넣어서. 따로 그냥 냄비에 제사 땀 같이 그렇게만 해서 먹는데 멧질 땀 언제나 냄비에 따로.)

107021 @ 메역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일날 메역국 끓여 줘 봤수과?(미역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일날 미역국 끓여 줘 봤습니까?)

107021 #1 끓이지. 생일날 메역국은 입에 들앙. 미역국 끓이면 이거 누게 생일날 이파? 하하하.(끓이지. 생일날 미역국은 입에 달아서. 미역국 끓이면 이거 누가 생일날입니까? 하하하.)

107021 @ 무사 제주도에서도 옛날부터 귀빠진 날이렌 헤낫수과? 무사 메역을 끓여 줘신고예?(왜 제주도에서도 옛날부터 귀빠진 날이라고 했었습니까? 왜 미역을 끓여 줬는가?)

107021 #2 게메 몰르커라.(글쎄 모르겠어.)

107021 #1 메역 끓여 주는 거는 산모가 그때 메역국 먹어나난 그런 거 같애. 애기 난 땀 뚝 메역국 주잖아. 어디 간에 빌어 와도이, 빌어 와도 메역국은 끓여 줘. (미역 끓여 주는 거는 산모가 그때 미역국 먹었었으니까 그런 거 같아. 아기 낳은 땀 뚝 미역국 주잖아. 어디 가서 빌려 와도, 빌려 와도 미역국은 끓여 줘.)

107021 @ 젓 불리젠 허면 ㄹ땀을 꼭 먹어야 돼고, ㄹ땀즈베기?(젓 불리려고 하면 메밀을 꼭 먹어야 되고, 메밀수제비?)

107021 #1 ㄹ땀 ㄹ를은이 무사 먹는고 허민이 속에 산모에 피, 피가 짹 내려와 분덴. ㄹ땀 ㄹ를하고 미역이.(메밀가루는 왜 먹는가 하면 속에 산모에 피, 피가 짹 내려와 버린다고. 메밀가루하고 미역.)

107021 @ 처음, 처음 애기 나민 그걸 주잖아?(처음, 처음 아기 낳으면 그걸 주잖아?)

107021 #1 ㄹ땀 ㄹ를허고 미역이.(메밀가루하고 미역.)

107021 #2 산모의 궂인 필 색히렌 그.(산모의 궂은 피를 삭히라고 그.)

107021 #1 그걸 아이 먹은 사름은.(그걸 안 먹은 사름은.)

107021 #2 경혜근은 믋덜 음식을 헌텐 허주게.(그래서 메밀 음식을 한다고 하지.)

107021 #1 경행 배 아프텐 허민 장난말로 애기 날 땀 믋덜국, 미역국도 안 먹었어? 영 해. 미역국도 안 먹었어? 경 곱아.(그래서 배 아프다고 하면 장난말로 아기 낳을 때는 메밀국, 미역국도 안 먹었어? 이렇게 해. 미역국도 안 먹었어? 그렇게 말 해.)

107021 @ 그런 의미가 이신 거 님아예?(그런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107021 #1 으.(으.)

107021 @ 아이덜 생일에 메역국 안 끓여 줘근에 엄마 나안티 메역국 안 끓여 줘텐 말은 안 들어봤수과?(아이들 생일에 미역국 안 끓여 줘서 엄마 나한테 미역국 안 끓여 준다는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7021 #2 난 주로 들어봤. 우린 해 줘 보지 못허난.(난 주로 들어봤어. 우린 해 줘 보지 못하니까.)

107022 @ 다덜예. 바쁘기도 허고. 냉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형에서도 자리물회나 이런 건 잘 못 행 먹지예?(다들요. 바쁘기도 하고. 냉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형에서도 자리물회나 이런 건 잘 못 해서 먹지요?)

107022 #2 무사 행 먹주.(왜 해서 먹지.)

107022 @ 사당은예.(사다가.)

107022 #2 응.(응.)

107022 @ 물 떠당 시원헌 거 낵?(물 떠다가 시원한 거 넣어서?)

107022 #1 무신 물 떠당. 어디 강 물 떠당?(무슨 물 떠다가. 어디 가서 물 떠다가?)

107022 @ 물은 항아리에 떠다 논 거 엇어?(물은 항아리에 떠다 놓은 거 없어?)

107022 #1 게메. 떠다 논 거 그 물이지.(글쎄, 떠다 놓은 거 그 물이지.)

107022 #2 그 물 낵 해 먹엄지.(그 물 넣어서 해 먹지.)

107022 @ 시원헌 거 아니예, 게도?(시원한 거 아니요, 그래도?)

107022 #1 시원허멍 말멍 허지. 무신 냉장고라, 시원허게?(시원하면서 말면서 하지. 무슨 냉장고야, 시원하게?)

107022 @ 물웨, 물웨 낵 우영밧디서 뜯아당 지금처럼 웬장 낵 그거 냉국예?(노각, 노각 봐 터알에서 뜯어다가 지금처럼 된장 넣어서 그거 냉국요?)

107022 #1 으.(으.)

107022 @ 어떻 행 먹었수과, 냉국은 주로 어떤 걸로? 물웨?(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냉국은 주로 어떤 걸로? 노각?)

107022 #2 물웨게.(노각.)

107022 #1 물웨로 먹었주, 물웨로. 물웨로 허민 그냥 반찬도 웨국, 국도 웨국 행 은에이. 물웨로 대개 먹영 믋른 웨로 먹어진 건 안 님아.(물회로 먹었지, 물회로. 물

회로 하면 그냥 반찬도 되고, 국도 되고 해서. 물회로 대개 먹고 마른 회로 먹은 건 안 같아.)

107022 #2 믋른 휘는 못 먹고게. 믋른 휘, 옛날엔 믋른 흰 먹을 걸로 알지도 안 허고. 그자 물회로만.(마른 회는 못 먹고. 마른 회, 옛날엔 마른 흰 먹을 걸로 알지도 았고. 그저 물회로만.)

107022 #1 물회로, 물 놔근에.(물회로, 물 넣어서.)

107023 @ 흰장국 좋아예. 게른 성게국, 보말국, 넓패국, 가시리국, 파래국, 물회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 바다 쪽인가 부다예.(된장국 좋아요. 그럼 성게국, 고등국, 넓패국, 가시리국, 파래국, 물회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 바다 쪽인가 보네요.)

107023 #2 바다 쪽이주.(바다 쪽이지.)

107023 #1 건 바다 쪽게. 그거 캐당 행 먹어본 사람. 우리도 해 준 거 바당에 갱 얻어먹긴 해도 우리가 끌려 보진 안헐어.(건 바다 쪽. 그거 캐다가 해서 먹어본 사람. 우리도 해 준 거 바다에 가서 얻어먹긴 해도 우리가 끓여 보진 았았어.)

107023 #2 응, 직접 해 보진 못했주게.(응, 직접 해 보진 못했지.)

107023 @ 게도 보말 잡아다근에.(그래도 고등 잡아다가.)

107023 #1 보말국은 끓여 봤어. 끓여 본디 보말국은 벨거 아니드라. 끓이는 거이. 건이 그자 해 낱 기름에 삭삭 보끄당은예.(고등국은 끓여 봤어. 끓여 봤는데 고등국은 벨거 아니더라. 끓이는 거. 건 그저 해 놔서 기름에 삭삭 볶다가.)

107023 @ 소고기처럼.(소고기처럼.)

107023 #1 으, 경허영 보끄당 물 놓고 간 맞추민 국이라. 보말국은, 보말은 더러 잡아당 먹어나시킨 다른 거 뭐 성게국도 안 끓여 보고이.(으, 그렇게 볶다가 물 넣고 간 맞추면 국이야. 고등국은, 고등은 더러 잡아다가 먹었었으니까 다른 거 뭐 성게국도 안 끓여 보고.)

107023 @ 구쟁기도 뭐?(소라도 뭐?)

107023 #1 것도, 그건 구쟁기도 보말 헐 때 행 왕 더러 먹긴 먹어.(것도, 그건 소라도 고등 할 때 하고 와서 더러 먹긴 먹어.)

죽류

107024 @ 이번엔 죽이우다예. 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팥죽, 닭죽, 문어죽, 고등어죽, 전복죽, 옥돔죽 뭐 죽은 다 되는 거 아니예?(이번에는 죽입니다. 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팔죽, 닭죽, 문어죽, 고등어죽, 전복죽, 옥돔죽 뭐 죽은 다 되는 거 아니요?)

107024 #2 으, 팥죽, 콩죽. 죽은 막 여러 종류주게.(으, 팔죽, 콩죽. 죽은 아주 여러 종류지.)

107025 @ 그민 곤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흰죽?(그럼 흰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흰죽?)

107025 #2 곤죽은 쌀만 낱 쏜 게 곤죽이고. 흰죽이엔 흰 것도.(흰죽은 쌀만 넣어서 쏜 게 흰죽이고. 흰죽이라고 하는 것도.)

107025 #1 흰죽이 곤죽이라.(흰죽이 흰죽이야.)

107025 @ 흰죽은 어떤 때 행 먹읍니까?(흰죽은 어떤 때 해서 먹습니까?)

107025 #1 흰죽은이 질 사름 아플 때 아무것도 못 먹을 때 흰죽이야.(흰죽은 제일 사람 아플 때 아무것도 못 먹을 때 흰죽이야.)

107025 #2 흰죽.(흰죽.)

107025 @ 진짜 좋더라예, 아프면예.(진짜 좋던데요, 아프면요.)

107025 #1 으, 아팠.(으, 아파서.)

107025 @ 체해 가지고 해도.(체해 가지고 해도.)

107025 #1 못 먹을 때.(못 먹을 때.)

107025 #2 못 먹을 때. 그자 그 내려가기 존 걸로.(못 먹을 때. 그저 그 내려가기 좋은 걸로.)

107028 #1 콩죽은 질 쉽고 쌍스러운 거야. 때로도 먹어, 때로. 콩죽은 때로. 행 냄것당 내중에 데왕 먹어도 맛있고이, 콩죽은.(콩죽은 젤 쉽고 상스러운 거야. 때로도 먹어, 때로. 콩죽은 때로. 해서 남겼다가 나중에 데워서 먹어도 맛있고, 콩죽은.)

107028 #2 옛날은 경 콩죽 주로 행 먹었주게.(옛날은 그렇게 콩죽 주로 해서 먹었지.)

107028 @ 콩죽은 어떻 끓읍니까?(콩죽은 어떻게 끓읍니까?)

107028 #2 콩죽?(콩죽?)

107028 #1 물 팔팔 끓이면이, 팔팔 끓이면 콩에 쌀에 서꺼 영.(물 팔팔 끓이면, 팔팔 끓이면 콩에 쌀에 섞어서 이렇게.)

107028 @ 쌀에 서꺼?(쌀에 섞어서?)

107028 #2 으, 배합시경 놔둬.(으, 배합시켜서 놔둬.)

107028 @ 물에 불려?(물에 불려?)

107028 #2 물 양에 맞게.(물 양에 맞게.)

107028 #1 이만이 허민 이 물에 이 쌀하고.(이만큼 하면 이 물에 이 쌀하고.)

107028 #2 물 양에 맞게. 물 양에 맞게 쌀하고 콩ㄱ를허고 그릇에 낱 배합시경 낫당은에게 물 팔팔 끓이면은 그 짓는 거 영 들이청 짓으멍.(물 양에 맞게. 물 양에 맞게 쌀하고 콩가루하고 그릇에 넣어서 배합시켜 놔다가 물 팔팔 끓이면 그 짓는 거 이렇게 들어뜨려서 저으면서.)

107028 #1 잘 병어리 안 지게 잘 저으멍.(잘 덩어리 안 지게 잘 저으면서.)

107028 #2 으, 저으멍 그거 슬슬슬슬 쏘으, 비와 농멍 젓어근엥에 행 그다음부턴 죽을 젓어야 돼어.(으, 저으면서 그거 살살살살 쏘으, 부어 넣으면서 저어서 해서 그다음부턴 죽을 저어야 돼.)

107028 #1 경 번 레민 채술 놔, 무우. 무우채.(그렇게 한 번 끓으면 채소를 넣어, 무. 무채.)

107028 @ 무우를 놓는구나.(무를 놓는구나.)

107028 #1 겐 그거 잘 끓이민 맛있고이 조금 두루 끌영 먹으민 배 아파. 덜 끌영 먹으민.(그래서 그거 잘 끓이면 맛있고 조금 덜 끓여서 먹으면 배 아파. 덜 끓여서 먹으면.)

107028 #2 게고 오래 푹 끓이다근에게 저 누물 놔근에게.(그리고 오래 푹 끓이다가 저 나물 넣어서.)

107028 @ 누물이나 무를 놔?(나물이나 무를 넣어서?)

107028 #2 으, 무나 배추나 놔근에게.(으, 무나 배추나 넣어서.)

107028 #1 그거 낱 혼믈³⁷⁹⁾ 켜 후에.(그거 넣어서 한소끔 끓인 후에.)

107028 @ 켜 후에 놔?(끓인 후에 넣어서?)

107028 #1 으, 켜어야.(으, 끓여야.)

107028 @ 정성이다예.(정성이네요.)

107028 #2 끓인 다음에, 끓인 다음에.(끓인 다음에, 끓인 다음에.)

107028 @ 잘 저으멍 정성껏 헛느냐 안 헛느냐에 따라 맛이.(잘 저으면서 정성껏 헛느냐 안 헛느냐에 따라 맛이.)

107028 #2 경행 그거 다.(그래서 그거 다.)

107028 #1 병탱이만 안 지게 저으민 좋은 거.(덩어리만 안 지게 저으면 좋은 거.)

107028 @ 재료가 좋아야 돼고.(재료가 좋아야 되고.)

107028 #2 예.(예.)

107028 @ 시간이.(시간이.)

107028 #2 그거 젓지 안허민 솥창³⁸⁰⁾에 넣어 불어.(그거 젓지 않으면 솥 바닥에 넣어 버려.)

107028 @ 넣어 불어.(넣어 버려.)

107028 #2 부터 불어.(불어 버려.)

107028 @ 해 먹어봐야켜, 번예.(해 먹어 봐야겠어, 한번요.)

107028 #1 겐 젓어근에 겐 죽이 다 돼면은 팟닥팟닥팟닥 행 죽이 팔팔 뛰어게.(그래서 저어서 그래서 죽이 다 되면 과닥과닥과닥 해서 죽이 팔팔 뛰어.)

107028 #1 뛰민 다 웬 거야.(뛰면 다 된 거야.)

107028 #2 응, 경허민 다 웬 거야.(응, 그러면 다 된 거야.)

107028 #1 죽 뛰민 다 웬 거.(죽 뛰면 다 된 거.)

107028 #2 과딱과딱과딱 허면서.(과닥과다과닥 하면서.)

107028 #1 덜 쏴 때는.(덜 쏴 때는.)

107028 #2 죽이 뜬다고. 경허민 다 웬 거.(죽이 뜬다고. 그러면 다 된 거.)

107028 #1 죽 많이 썬 봤네. 그거 아니 돼면은 뛰질 안헤.(죽 많이 썬 봤네. 그거 안 되면 뛰질 않아.)

379) ‘믈’은 한 번 바르르 끓어오르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표준어의 ‘한소끔’에 대응한다.

380) ‘솥창’은 솥 안쪽 바닥을 말한다.

107026 @ 조죽은 어떻 험니까? 줍쌀죽.(조죽은 어떻게 합니까? 줍쌈죽.)
 107026 #2 줍쌀죽?(줍쌀죽?)
 107026 @ 예. 애기 막 열 날 때도 해 줘나고 그런 건 엇엇수과?(예. 아기 마구 열 날 때도 해 줬었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107026 #1 줍쌀만 낱 죽 쏘 때가 잇었나? 흐뎡 서끄지. 곤썰에 서끄지?(줍쌀만 넣어서 죽 쏘 때가 있었나? 조금 섞지. 흰쌀에 섞지?)
 107026 #2 아니, 저 모인줍쌀만 놔근에게.(아니, 저 메줍쌀만 넣어서.)
 107026 #1 아, 건 미음으로.(아, 건 미음으로.)
 107026 #2 미음으로.(미음으로.)
 107026 #1 물이 말상해, 물이.(물이 말개, 물이.)
 107026 @ 어떤 때 먹읍니까?(어떤 때 먹읍니까?)
 107026 #1 거는 아픈 때 거 물로.(거는 아픈 때 거 물로.)
 107026 #2 아플 때. 그게 바로 미음이엔 허주게.(아플 때. 그게 바로 미음이라고 하지.)
 107026 #1 차줍쌀은 안 돼고 모인, 메줍쌀만이. 모인줍쌀.(차줍쌀은 안 되고 메, 메줍쌀만. 메줍쌀.)
 107026 #2 차줍쌀은 안 돼고.(차줍쌀은 안 되고.)
 107026 #1 차줍쌀이란 게 물이 밀밀해 붙어. 이거는 말짱해, 모인줍쌀 그 미음으로.(차줍쌀이란 게 물이 ‘밀밀해’ 버려. 이거는 말짱해, 메줍쌀 그 미음으로.)
 107026 #2 게고 코시롱허여.(그리고 고소해.)
 107026 #1 건 미음이렌 해, 미음.(건 미음이라고 해, 미음.)
 107026 @ 모인줍쌀로 미음을 해?(메줍쌀로 미음을 해?)
 107026 #1 으.(으.)
 107026 #1 쿠시롱허여, 맛이.(구수해, 맛.)
 107026 #1 좋아, 그거.(좋아, 그거.)
 107027 @ 팻죽, 팻죽 이번은.(팔죽, 팔죽 이번은.)
 107027 #2 팻죽?(팔죽?)
 107027 #1 팻죽은 쭈기 쉬웁니까?(팔죽은 쭈기 쉽습니까?)
 107027 #2 팔죽?(팔죽?)
 107027 @ 예.(예.)
 107027 #1 팻죽은 팻 삶앙, 팻 삶앙, 그 팻 삶을 때 아무 팻을 삶을 때라도 칼 잇잖아, 우리 송키 칼, 칼로 이렇게 이렇게 해.(팔죽은 팔 삶아서, 팔 삶아서, 그 팔 삶을 때 아무 팔을 삶을 때라도 칼 잇잖아, 우리 푸성귀 칼, 칼로 이렇게 이렇게 해.)
 107027 @ 엑스자를?(엑스자를?)
 107027 #1 응. 이렇게 허면 물마리³⁸¹⁾가 하나토 없어. 그 덜 안 익는 팻이 하나

381) 여기서 ‘물마리’는 팔이나 녹두 등을 삶았을 때 삶아지지 않은 딱딱한 알갱이를 가리킨다.

씩 있어. 허당 보민 있어.(응. 이렇게 하면 ‘물마리’가 하나도 없어. 그 덜 안 익는 팔이 하나씩 있어. 하다가 보면 있어.)

107027 @ 어떻게 엑스자를 허여?(어떻게 엑스자를 해?)

107027 #2 거 팔이던 녹두던.(거 팔이든 녹두든.)

107027 @ 시루, 시루에.(시루, 시루에.)

107027 #2 그 팔이던 녹두던 그 좀 잘 안 쥔 게 있어, 안 쥔 게. 좀 잘 안 쥔 방울이 들어가면 그게 ㄴ쥔 풀어지질 아냐.(그 팔이든 녹두든 그 좀 잘 안 쥔 게 있어, 안 쥔 게. 좀 잘 안 쥔 방울이 들어가면 그게 같이 풀어지질 아냐.)

107027 #1 땅땅해. 밥해도.(땅땅해. 밥해도.)

107027 #2 탄 거는 다 삶아졌는데도 그거는 그대로 있어, 경헌 때문에 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탄 거는 다 삶아졌는데도 그거는 그대로 있어, 그런 때문에 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107027 #1 칼날로.(칼날로.)

107027 @ 아, 삶을 때.(아, 삶을 때.)

107027 #2 으, 삶을 때.(으, 삶을 때.)

107027 @ 찜통에.(찜통에.)

107027 #2 응, 으.(응, 으.)

107027 @ 그디 논 거를 영 엑스자 해 줘야 쥔다?(거기 놓은 거를 이렇게 엑스자 해 줘야 쥔다?)

107027 #2 으, 으.(으, 으.)

107027 #1 칼날을 밑으로 가게 허영. 경행 허민이 그 물마리가 하나도 없더라. 나 요번에 해 봐신디이 그 쫓죽을 허는디 쫓 안익은 방울이 하나도 없어. 묵은 쫓 이라도.(칼날을 밑으로 가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물마리’가 하나도 없더라. 나 요번에 해 봤는데 그 팔죽을 하는데 팔 안 익은 방울이 하나도 없어. 묵은 팔이라도.)

107027 #2 그걸로 경허른 그게 방법이 되어서 엇어지는 건지 몰라도 그런 방울이 없어.(그걸로 그러면 그게 방법이 되어서 없어지는 건지 몰라도 그런 방울이 없어.)

107027 #1 것도 옛날 어른이 배워 준 거 나도.(것도 옛날 어른이 배워 준 거 나도.)

107027 @ 팔만?(팔만?)

107027 #2 어, 팔이던 녹두던. 녹두 더 그런 게 많아.(어, 팔이든 녹두든. 녹두는 더 그런 게 많아.)

107027 #1 녹두허고 팔만. 콩은 아니고. 거 두 가지.(녹두하고 팔만. 콩은 아니고. 거 두 가지.)

107027 #2 으, 녹두가 더 그런 방울이 많아.(으, 녹두가 더 그런 방울이 많아.)

107027 #1 것ㄴ라 물마리엔 해.(것보고 ‘물마리’라고 해.)

107027 @ 밑에 형겅 영 낵 찜통예?(밑에 형겅 이렇게 놔서 찜통요?)

107027 #2 아니, 아니. 그냥 물에.(아니, 아니. 그냥 물에.)

107027 #1 삶으멍 게 물에.(삶으면서 게 물에.)

107027 @ 아, 물에 그냥 삶아.(아, 물에 그냥 삶아.)

107027 #2 으, 물에 그냥 낱 삶지.(으, 물에 그냥 넣어서 삶지.)

107027 #1 물에 낱 삶아야 죽 허지, 죽 할 때. 찢죽이나 녹두죽이나.(물에 넣어서 삶아야 죽 하지, 죽 할 때. 팔죽이나 녹두죽이나.)

107027 @ 그민 물속에 있는 찢을 에스자를 긋어?(그럼 물속에 있는 팔을 에스자를 그어?)

107027 #1 으, 으.(으, 으.)

107027 @ 신기하다.(신기하다.)

107027 #1 것도 몇 번 해 이렇게.(것도 몇 번 해 이렇게.)

107027 @ 끓어 가면?(끓어 가면?)

107027 #1 어.(어.)

107027 @ 끓이기 전에도 번 해 주고.(끓이기 전에도 한 번 해 주고.)

107027 #1 아니. 그냥 곧 놓아근에, 불에 놓민 그냥 허는디 솟디 낱 그냥 가스불 앓지민 영 영 해.(아니. 그냥 곧 넣어서, 불에 넣으면 그냥 하는데 솥에 넣어서 그냥 가스불 앓히면 이렇게 이렇게 해.)

107027 @ 아.(아.)

107027 #2 끓여 가면서도 몇 번 해 주민 찢 없어져.(끓여 가면서도 몇 번 해 주면 찢 없어져.)

107027 #1 나 요번에 했어. 허난 찢이 물마리 허나토 엇더라.(나 요번에 했어. 하니까 팔이 ‘물마리’ 하나도 없더라.)

107027 @ 몇 분 정도, 몇 분 정도 삶읍니까?(몇 분 정도, 몇 분 정도 삶습니까?)

107027 #1 막 폭삭폭삭 잘.(아주 폭삭폭삭 잘.)

107027 #2 거 죽은 끓이젠 허면은 찢이 막 그냥 둘에 셋에 막.(거 죽은 끓이려고 하면 팔이 아주 그냥 둘에 셋에 아주.)

107027 #1 폭 삶아야.(폭 삶아야.)

107027 #2 으.(으.)

107027 @ 한 시간?(한 시간?)

107027 #1 한 시간 안 돼여.(한 시간 안 돼.)

107027 #2 다 영 건드리민 흐터질 정도로 삶아야 경해야 죽 쏘 거난.(다 이렇게 건드리면 흠어질 정도로 삶아야 그래야 죽 쏘 거니까.)

107027 #1 경허면은 삶아 가민 물을 경 많이 놓지 말앙 삶아 가민 찢에 물에 거의 들어. 거의 엇으민 그때는 불 꺼 된 국자로나 영영 허민 그 찢이 민짜헤³⁸², 민짜.(그러면 삶아 가면 물을 그렇게 많이 넣지 말고 삶아 가면 팔에 물에 거의 들어.

382) ‘민짜하다’는 미끈하고 평평하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잘 삶아진 팔을 으꼰을 때, 그것이 부드럽고 미끈한 상태를 나타냈다.

거의 없으면 그때는 불 꺼 두고 국자로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팔이 ‘민작해’, ‘민작’.)

107027 @ 국자 영허민 민작하게 만들었?(국자 이러면 ‘민작하게’ 만들어서?)

107027 #1 경허당은에 장갑이나 고무장갑 이시난 거, 비니루 장갑 쟁 이렇게 이렇게 허민 문작해여, 풋이.(그러다가 장갑이나 고무장갑 있으니까 거, 비닐 장갑 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문작해’, 팔이.)

107027 #2 경허도록 삶아야지.(그러도록 삶아야지.)

107027 #1 경허민.(그러면.)

107027 #2 폭 삶아야지.(폭 삶아야지.)

107027 #1 경허도록 해근에 그때 쓸 놔근에 젓으멍 허민 죽이지. 하여튼.(그러도록 해서 그때 쌀 넣어서 저으면서 하면 죽이지. 하여튼.)

107027 @ 뜨거운 때 그냥 쓸 놔 불어?(뜨거운 때 그냥 쌀 놔 버려?)

107027 #1 그 영 췌 때게 영 허민 물 놔야지.(그 이렇게 췌 때 이렇게 하면 물 넣어야지.)

107027 @ 물 넣?(물 넣어?)

107027 #2 물 놔근에 죽을 쓸 만큼 솥에다 물 놔근에 그땐 쌀도 미리 시쳐근에 물 담갔다가 쌀도 같이 쏟아 놔근에게 젓으멍 췌.(물 넣어서 죽을 쓸 만큼 솥에다 물 넣어서 그땐 쌀도 미리 씻어서 물 담갔다가 쌀도 같이 쏟아 넣어서 저으면서 췌.)

107027 @ 경행 풋죽이 돼는구나. 거기에 이제 새알이나 이런 것들도 낫수과?(그래서 팔죽이 되는구나. 거기에 이제 새알이나 이런 것들도 낫습니까?)

107027 #2 아이구, 옛날엔 새알 었이.(아이고, 옛날엔 새알 없이.)

107027 @ 새알 없이?(새알 없이?)

107027 #2 으, 그냥 끓여 먹었지.(으, 그냥 끓여 먹었지.)

107027 #1 이제는이 떡국도 좋아. 나 요번에 떡국 부녀회에서 헌 거 만 원에치씩 사다근에 그걸로 시 번 행 먹언.(이제는 떡국도 좋아. 나 요번에 떡국 부녀회에서 헌 거 만 원에치씩 사다가 그걸로 세 번 해서 먹었어.)

107027 #2 종주게, 떡국 맛도 좋아.(종지. 떡국 맛도 좋아.)

107027 #1 게난 우리 손지덜 할머니 이거 잘도 맛있다, 맛있다. 나 이것만 거러 줘, 이것만 거러 줘.(그러니까 우리 손주들 할머니 이거 아주 맛있다, 맛있다. 나 이것만 떠 줘, 이것만 떠 줘.)

107027 @ 설탕 그런 건 안 넣 그냥예?(설탕 그런 건 안 넣고 그냥요?)

107027 #1 설탕 놀 필요 없어. 죽에 뭘 설탕을 놔.(설탕 넣을 필요 없어. 죽에 뭘 설탕을 넣어?)

107027 @ 풋죽은 육지식으로 하면 막.(팔죽은 육지식으로 하면 마구.)

107027 #2 육지식으론 육지 사람덜은 팔 삶아아근에게 걸러근에 막 그 껍데기 처내 똥 허잖아.(육지식으론 육지 사람들은 팔 삶아서 걸러서 마구 그 껍데기 처내

두고 하잖아.)

107027 @ 막 부드럽게예.(아주 부드럽게요.)

107027 #1 난 벨로, 난 벨로 그거 안 좋아이.(난 벨로, 난 벨로 그거 안 좋아.)

107027 #2 맛이 없어 보여.(맛이 없어 보여.)

107027 #1 주쟁이³⁸³⁾ 잇어야 햅뽀 포삭포삭허곡³⁸⁴⁾ 헐디.(‘주쟁이’ 잇어야 조금 ‘포삭포삭허고’ 한테.)

107027 #2 응, 씹는 맛이 잇어야 돼는디.(응, 씹는 맛이 잇어야 되는데.)

107027 #1 여기도 막 요새 사름덜 경 헤영 헤여. 주쟁이 햅 뽀 데껴 똥.(여기도 마구 요새 사름들 그렇게 해서 해. ‘주쟁이’ 해서 빼서 던져 두고.)

107027 #2 난 그건 먹는 맛이 없더라고.(난 그건 먹는 맛이 없더라고.)

107027 @ 믰멸죽?(메밀죽?)

107027 #1 천왕사³⁸⁵⁾ 그 절에도이 육지 아이 왕 멧 년 살 때 경험게 내중에 그 어른 가 부난 그냥 막 해. 그냥.(천왕사 그 절에도 육지 아이 와서 멧 년 살 때 그러더니 나중에 그 어른 가 버리니까 그냥 막 해. 그냥.)

107027 #2 그냥 험 게 맛있어.(그냥 한 게 맛있어.)

107027 #1 그냥 해. 절에도 아니 걸러.(그냥 해. 절에도 안 걸러.)

107029 @ 이번에는예 믰멸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믰멸도 마찬가지로?(이번에는요 메밀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메밀도 마찬가지로?)

107029 #1 믰멸썰 죽은 그것이, 것도 환자 먹는 거야. 믰멸썰 죽도. 햅뽀만 쭈민 건 죽이 돼여. 막 익음도 빨라.(메밀썰 죽은 그것이, 것도 환자 먹는 거야. 메밀썰 죽도. 조금만 쭈면 건 죽이 돼. 아주 익는 것도 빨라.)

107029 #2 건 약허난에 빨리 익어.(건 약하니까 빨리 익어.)

107029 #1 믰멸썰 죽은이.(메밀썰 죽은.)

107029 @ 가루?(가루?)

107029 #1 가루가 아니고 믰물썰로 죽을 썬. 믰물썰로.(가루가 아니고 메밀썰로 죽을 썬. 메밀썰로.)

107029 #2 썰로.(쌀로.)

107029 #1 것도 환자 먹는 거야.(것도 환자 먹는 거야.)

107029 @ 오일장에서 영 ㄱ루로 햅뽀 영 간 거?(오일장에서 이렇게 가루로 조금 이렇게 간 거?)

107029 #1 아니, 아니. 바로 그냥 썰로. 썰로 그냥 썰차.(아니, 아니. 바로 그냥 쌀로. 쌀로 그냥 쌀째.)

107029 @ 하얀 거로?(하얀 거로?)

107029 #1 으, 죽을 쭈는디 그 죽도 잘도 매끄러와. 먹기가 잘도 매끄러와. 경 많

383) ‘주쟁이’는 삶은 팔이나 콩 따위를 으깨어 죽을 쑤 때 잘 으깨지지 않은 덩어리나 껍질 등을 말한다.

384) ‘포삭포삭허다’는 음식 따위가 씹었을 때 보드랍고 탄력이 있는 느낌을 말한다.

385) ‘천왕사’는 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절 이름이다.

이 안 썰 환자들 이 그 밧말에 쌀 쪼끔만 서껴. 쪼끔 서경 해 부난 것도 옛날에 우리 셋어머니 그걸, 그런 걸 잘허여. 우리 셋오라방 죽은오라방 아플 때 그 생각 남저게. 막 매끄러와, 그 죽이.(으, 죽을 쑤는데 그 죽도 아주 매끄러워 먹기가 아주 매끄러워. 그렇게 많이 안 쑤고 환자들 이 그 메밀에 쌀 조금만 섞어. 조금 섞어서 해 버리니까 것도 옛날에 우리 둘째어머니 그걸, 그런 걸 잘해. 우리 둘째 오라버니, 작은 오라버니 아플 때 그 생각난다. 아주 매끄러워, 그 죽이.)

107029 #2 응, 밧말썰은 매끄러와.(응, 메밀쌀은 매끄러워.)

107029 #1 겐 하영 안 썰 흐품만 썬근에 난 막 셋어멍네 집이 큰어멍네 집이 막 돌아댕기난 경허연 흐품 남으민 셋년아 이레 오라 영 허민 그거 어멍네도, 셋어멍네도 먹을 거주만은 그 쪼끄만헌 솟디 걸 날라 굶어 먹으렌 현 것이 막 생각이 남저. 밧말썰죽. 그 아픈 오라방 먹어난 솟을. 하영 안 쑤영 허민 사발에 거는.(그래서 많이 안 쑤고 조금만 썬서 난 마구 둘째어머니네 집에 큰어머니네 집에 마구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조금 남으면 둘째야 이리 와라 이렇게 하면 그거 어머니네도, 둘째어머니네도 먹을 거지만 그 조그마한 술의 걸 나보고 굶어 먹으라고 한 것이 막 생각이 난다. 메밀쌀죽. 그 아픈 오라버니 먹었던 술을. 많이 안 쑤고 하면 사발의 거는.)

107029 @ 맛은 어떻습디까?(맛은 어떻습디까?)

107029 #1 아니 막 매끄러웁디다.(아니 아주 매끄러웁습디다.)

107029 #2 막 매끄러와, 밧물죽은.(아주 매끄러워, 메밀죽은.)

107029 #1 입에 놓민 그냥 내려가. 멘작멘작.(입에 넣으면 그냥 내려가. 미끈미끈.)

107029 @ 그런 것덜도 알앙 낫당 나이 들어가민 톡톡 행 먹고예.(그런 것들도 알아 낫다가 나이 들어가면 톡톡 해서 먹고요.)

107029 #1 에이그.(에이그.)

107029 @ 나도 경 배왕 놔두고 싶고. 밧물죽 우린 아예 그런 거 혈 중.(나도 그렇게 배워서 놔두고 싶고. 메밀죽 우린 아예 그런 거 할 줄.)

107029 #1 아니, 나는 우리 어머니도 안 해난디 우리 셋어멍이.(아니, 나는 우리 어머니도 안 했었는데 우리 둘째어머니가.)

107029 @ 밧물도 몰라.(메밀도 몰라.)

107029 #1 그 아덜 아픈 때 준 거 그 질레 놀암시난 오랜 행 그거 솟디 거.(그 아덜 아팠을 때 준 거 그 길에 놓고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그거 술의 거.)

107029 #2 나도 허는 것도 아이 봐나고 헤나신디 먹어는 봐진 거 다향.(나도 하는 것도 안 봤었고 했었는데 먹어는 본 거 같아.)

107029 #1 솟디 거 먹으렌 현 것이 생각나.(술의 거 먹으라고 한 것이 생각나.)

107029 #2 막 매끄러와.(아주 매끄러워.)

107029 #1 입에 놓민 그냥 내려가.(입에 넣으면 그냥 내려가.)

107030 @ 그다음 녹두죽. 녹두죽도 끓영 먹읍니까?(그다음 녹두죽. 녹두죽도 끓

여서 먹습니까?)

107030 #1 으. 녹두죽도 좋아.(으. 녹두죽도 좋아.)

107030 #2 녹두죽 맛있어.(녹두죽 맛있어.)

107030 @ 닭허고 어울린텐 험디다.(닭하고 어울린다고 험디다.)

107030 #1 닭 헐 땐, 닭이나 오리 헐 땐 꼭 녹두 들어가.(닭 할 때는, 닭이나 오리 할 때 꼭 녹두 들어가.)

107030 @ 게메 그 궁합이 맞은 생이라.(글쎄 그 궁합이 맞는 모양이야.)

107030 #2 궁합이 맞아. 녹두가 들어야 맛이 나.(궁합이 맞아. 녹두가 들어야 맛이 나.)

107030 @ 찬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찬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107030 #1 녹두 많이 놀수록 맛이 나. 녹두나 닭이나 헐 때. 조금 논 것보다 많이 놀수록 맛이 나.(녹두 많이 넣을수록 맛이 나. 녹두나 닭이나 할 때. 조금 넣은 것보다 많이 넣을수록 맛이 나.)

107030 @ 녹두는 언제 나와마씨? 팔하고 똑같아?(녹두는 언제 나와요? 팔하고 똑같아?)

107030 #1 질 빨리 나와. 녹두가이. 질 빨리 나오는 게 가을 농사 중에 녹두라. 질 빨리.(제일 빨리 나와. 녹두가. 제일 빨리 나오는 게 가을 농사 중에 녹두야. 제일 빨리.)

107030 @ 콩보다도 빨리 나와마씨?(콩보다도 빨리 나와요?)

107030 #2 으, 콩보다 더 빨리 나와.(으, 콩보다 더 빨리 나와.)

107030 #1 빨리 나오민 익은 대로 땅 앓으민 뜨시 생기멍 익어. 세 번 타. 녹두 밧디 강. 경허민 그건 뭐 질 많이, 빨리 나니까 가근에 장에 강 풀아도 돈 많이 받아.(빨리 나오면 익은 대로 따서 가지면 또 생기면서 익어. 한 세 번 따. 녹두 밧에 가서. 그러면 그건 뭐 제일 많이. 빨리 나니까 가서 장에 가서 팔아도 돈 많이 받아.)

107030 #2 녹둔 뭐.(녹두는 뭐.)

107030 #1 아이, 늙 안 현 때 가야 좋은 거.(아니, 남 안 할 때 가야 좋은 거.)

107030 #2 팔월 돼민 따야 돼여.(팔월 되면 따야 돼.)

107030 @ 팔월?(팔월?)

107030 #1 으.(으.)

107030 @ 많이 갈았수과, 제주도에서도?(많이 갈았습니까, 제주도에서도?)

107030 #2 제주도에서도 많이 가는 딴 갈아실 테주만은 나도 조금 갈아 봤는데.(제주도에서도 많이 가는 데는 갈았을 테지만 나도 조금 갈아 봤는데.)

107030 @ 어렵지 안해?(어렵지 않아?)

107030 #2 따는 게.(따는 게.)

107030 @ 따는 게 귀찮아?(따는 게 귀찮아?)

107030 #2 잘도 어려와. 막 더운 때고 허기 때문에. 이거 굶영만 따기 때문에 그

장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따 놓기만 허면은.(잘도 어려워. 아주 더운 때고 하기 때문에. 이거 굵어서만 따기 때문에 그 장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따 놓기만 하면.)

107030 #1 막 뱃 나 가민 파삭파삭파삭.(마구 뱃 나 가면 파삭파삭파삭.)

107030 #2 으. 따근에게 멍석에, 따근에게 햇빛에 널여 놔두면은 거 말라 가면은 자기대로 탁탁탁 소리나게 까진다고. 경행 그 덩드렁마께³⁸⁶)로 영 독독 허면은 금방 장만해져.(으. 따서 멍석에, 따서 햇빛에 널어서 놔두면 거 말라 가면 자기대로 탁탁탁 소리나게 깔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덩드렁마께’로 이렇게 독독 하면 금방 장만할 수 있어.)

107030 #1 덩드렁마께 무신, 영 막뎡이로도 영 영.(‘덩드렁마께’ 무슨, 이렇게 막 대기로도 이렇게 이렇게.)

107030 #2 막뎡이로 착착해도. 금방 장만허민 그렇게 좋아. 따는 게 힘들더라고. (막대기로 착착해도. 금방 장만하면 그렇게 좋아. 따는 게 힘들더라고.)

107030 @ 풋보다는 빠르디 저 녹두가 떡이라든가 이런.(팔보다는 빠르디 저 녹두가 떡이라든가 이런.)

107030 #1 떡쉬³⁸⁷)도 팔보단 더 맛있어. 녹두 떡쉬 팔보다 더 맛 좋아.(‘떡쉬’도 팔보다는 더 맛있어. 녹두 ‘떡쉬’ 팔보다 더 맛 좋아.)

107030 @ 허는 건.(하는 건.)

107030 #2 녹둔 비싸매.(녹두는 비싸.)

107030 @ 떡쉬 허고. 옛날에도 비쌌수파?(‘떡쉬’ 하고. 옛날에도 비쌌습니까?)

#107030 1 옛날엔 잘 몰른디 지금은 비싸. 지금도 여러모로 쓰니까.(옛날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비싸. 지금도 여러모로 쓰니까.)

107030 @ 풋도 비싸?(팔도 비싸?)

107030 #1 팔보다 녹두가 비싸.(팔보다 녹두가 비싸.)

107030 #2 녹두가 더 비싸.(녹두가 더 비싸.)

107030 #1 게고가 풋만이 같지 안허지.(그리고 팔만큼 같지 않지.)

107030 #2 으, 많이, 많이 허주도 안허주만은 게도 이 녹두는 이 약제로 들어가 기 때문에 더 비싸는 거 닮아.(으, 많이, 많이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 녹두는 이 약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싼 거 같아.)

107030 #1 오리 잡아먹는 사름덜 녹두 안 쓰는 사름덜 엇을걸.(오리 잡아먹는 사름덜 녹두 안 쓰는 사름덜 엇을걸.)

107030 @ 옛날에도 경 헛수파?(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107030 #1 옛날엔 그냥 그것만 먹어신티 지금에야 거 알아근에, 옛날엔 그거 넣는 줄도 모르지.(옛날엔 그냥 그것만 먹었는데 지금에야 거 알아서, 옛날엔 그거 넣는 줄도 모르지.)

386)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들기는 방망이다. ‘덩드렁’이라는 돌 위에 짚 따위를 놓고 두드리거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다.

387) ‘떡쉬’는 떡에 곁에 묻혀 모양과 맛을 내는 ‘떡고물’이나 떡 속에 넣는 ‘떡소’를 말한다.

107030 @ 어떤 때 녹두죽을 끓여 먹어신고예?(어떤 때 녹두죽을 끓여 먹었을까요?)

107030 #1 녹두죽 먹는 거는 자기가 녹두죽 먹고 싶다 행 먹는 거 같애.(녹두죽 먹는 거는 자기가 녹두죽 먹고 싶다 해서 먹는 거 같아.)

107030 #2 가끔은 그냥 녹두죽 먹고 싶다 허면은 집에 이시면은.(가끔은 그냥 녹두죽 먹고 싶다 하면 집에 있으면.)

107030 @ 아까 팥 끓이는 거랑 똑같애마씨?(아까 팥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107030 #2 비슷해.(비슷해.)

107030 #1 팥, 녹두, 콩 세 개 허면 녹두죽이 질 낫지. 서이 중에 질 나아, 맛이.(팥, 녹두, 콩 세 개 하면 녹두죽이 제일 낫지. 셋 중에 제일 나아, 맛이.)

107030 @ 껌데기도 벗겨야 돼고.(껌데기도 벗겨야 되고.)

107030 #2 아이, 껌데기 안 벗겨.(아니, 껌데기 안 벗겨.)

107030 #1 껌데기차.(껌데기째.)

107030 @ 삶양 그냥 영 영 아까 국자로?(삶아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까 국자로?)

107030 #1 으, 으.(으, 으.)

107030 #2 팥 하듯이, 비슷허여.(팥 하듯이, 비슷해.)

107030 #1 경 행 먹어.(그렇게 해서 먹어.)

107030 @ 삶양.(삶아서.)

107030 #1 질 맛이 있어, 녹두죽이. 세 가지 중에.(제일 맛이 있어, 녹두죽이. 세 가지 중에.)

107030 @ 근디 무사 동짓날은 팔죽을 끓여 먹엄신고예?(그런데 왜 동짓날은 팔죽을 끓여서 먹을까요?)

107030 #2 게메, 그것도 그.(글쎄, 그것도 그.)

107030 @ 녹두죽은 끓여 먹는 날이 었인디 팔죽은 끓여 먹는 날이 있어 부난.(녹두죽은 끓여 먹는 날이 없는데 팔죽은 끓여 먹는 날이 있어 버리니까.)

107027 #2 옛날 그 초가집이난 니 개 다, 처음에 그릇 떠근에게 바깳디 나강 니 개 다 뿌렸주게.(옛날 그 초가집이니까 네 개 다, 처음에 한 그릇 떠서 바깥에 나가서 네 개 다 뿌렸지.)

107027 @ 저 액막이처럼?(저 액막이처럼?)

107027 #1 지금 집집마다 경 안 해.(지금 집집마다 그렇게 안 해.)

107027 #2 게 집집마단 안 헛주만은.(그래 집집마다는 안 했지만.)

107027 @ 의미가 이시쿠다.(의미가 있겠습니다.)

107027 #2 으, 으.(으, 으.)

107027 @ 액막는 거 같이 붉은색으로.(액막는 거 같이 붉은색으로.)

107027 #2 으, 액막이로. 경 해 낭 땡 먹어낫주게.(으, 액막이로. 그렇게 하고 나서 떠서 먹었었지.)

107027 #1 뭐 축 거튼 것도 씨근에 문에 다 부치고. 우리 아버지는 저 먼 올레³⁸⁸⁾로 강 죽 거리 도렌 행 질 처음에 싹싹 거리멍 와근에, 미리 미리 그 썰다근에 대문에, 대문 양쪽에 딱 부찌고 지게문 안쪽에 딱 부찌고 해. 우리 아버진 글. (뭐 축 같은 것도 써서 문에 다 붙이고. 우리 아버지는 저 먼 ‘올레’로 가서 죽 떠 달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싹싹 뜨면서 와서, 미리 미리 그 썰다가 대문에, 대문 양쪽에 딱 붙이고 지게문 안쪽에 딱 붙이고 해. 우리 아버진 글.)

107027 @ 언제마씨? 동지날?(언제요? 동짓날?)

107027 #1 동지날 풋죽 쭈면은. 경행 헌디 것도 멧 번 헨에 나이 들어가난 아이 허더라. 겐디 쉼아홉에 돌아가시난 얼마나 젊은 때 가사. 나 걸 생각을 못 허연. 쉼아홉에. 날로 생각허민. 쉼아홉이난 사삼사건도 한창 돼지.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난. 쉼아홉 살에.(동짓날 팔죽 쭈면. 그렇게 했는데 것도 멧 번 해서 나이 들어가니까 안 하더라. 그런데 쉼아홉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젊은 때 갔니. 나 걸 생각을 못 했어. 나로 생각하면. 쉼아홉이니까 사삼사건도 한창 되지.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니까. 쉼아홉 살에.)

107027 @ 겐 그 녹두죽 썰 그처럼 해낫다고마씨?(그래서 그 녹두죽 썰서 것처럼 했었다고요?)

107027 #1 녹두 아니, 풋죽.(녹두 아니, 팔죽.)

107027 #2 동지죽.(동지죽.)

107027 @ 뭇렌, 침 풋죽. 뭇렌 씨신지는 모르쿠과?(뭇라고, 침 팔죽. 뭇라고 썰는지는 모르겠습니까?)

107027 #1 건 한자니까 몰르크라. 한자니까.(건 한자니까 모르겠어. 한자니까.)

107027 @ 게민 삼춘은 가정 강 어디 버려마씨?(그럼 삼춘은 가지고 가서 어디 버려요?)

107027 #1 나가 버린 게 아니고 아버지대로 해.(내가 버린 게 아니고 아버지대로 해.)

107027 @ 아버지대로.(아버지대로.)

107027 #1 죽 떠근에 우리 밖에 **** 글로 이레꺼지 해 와. 착착착 죽. 번 나 봤어. 숟갈로 허는 거.(죽 떠서 우리 밖에 **** 그리로 이리가지 해 와. 착착착 착 죽. 한 번 나 봤어. 숟갈로 하는 거.)

107027 #2 난 그런 건 안 봐 봐신디.(난 그런 건 안 봐 봤는데.)

107027 #1 해마단 안 허는 거 같더라.(해마다는 안 하는 거 같더라.)

107027 #2 경 허는 집안이 잇고 안 허는 집안이 잇어.(그렇게 하는 집안이 잇고 안 하는 집안이 잇어.)

107031 @ 닭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닭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1 #1 닭은, 닭만.(닭은, 닭만.)

107031 @ 유월스무날?(유월스무날?)

388)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107031 #1 응, 스무날. 닭 잡아먹는 날.(응, 스무날. 닭 잡아먹는 날.)

107031 #2 옛날은 어떻 행산디 유월스무날은 독 잡아먹는 날이엔 해근에 그날은 독 잡아먹더라고 참.(옛날은 어떻게 해서인지 유월스무날은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닭 잡아먹더라고 참.)

107031 @ 덩긴 더우난.(덩긴 더우니까.)

107031 #2 그 의미를 모르겠어.(그 의미를 모르겠어.)

107031 @ 덩긴 더우난 몸보신 뭇도 잇고예.(덩긴 더우니까 몸보신 뭇도 잇고요.)

107031 #2 그러게.(그러게.)

107031 #1 우리 시어머님 독 잡안 앓당.(우리 시어머님 닭 잡아서 가져다가.)

107031 @ 여자들도 ㄴ치 줘니까? 남자들만?(여자들도 같이 줘니까? 남자들만?)

107031 #1 아니, 무사산디 우리 ○○이 말쑤거 나는 날은 스무날인데 독도 흥뽀만, 흥뽀만 데뽀이허고 흥뽀만 앓아 내영 그자 오고생이³⁸⁹ 논 냥 허고 독죽 썬 아저 완게. 흥 세 시썸 똥난 가져왔어. 난 오죽 좋아해. 그 죽이영, 나도 아기 그날 아기 나질 거 알아저게. 아기 나는 거 모르지. 죽이영 고기영 다 먹었지.(아니, 왜인지 우리 ○○이 셋째 낳는 날은 스무날인데 닭도 조금만, 조금만 대가리하고 조금만 가져 내서 그저 ‘오고생이’ 놓은 대로 하고 닭죽 썬서 가져 왔어. 한 세 시썸 되니까 가져왔어. 난 오죽 좋아해. 그 죽이랑, 나도 아기 그날 아기 낳을 거 알 수 있어. 아기 낳는 거 모르지. 죽이랑 고기랑 다 먹었지.)

107031 #2 씨어명이 가져완?(시어머니가 가져왔어?)

107031 #1 어.(어.)

107031 #2 썬언?(썬서?)

107031 #1 썬언 가져완. 쟁헨 그 아기 나는 날 먹으난 난 보난 이 영헌 디 죽게. 아이고야.(썬서 가져왔어. 그래서 그 아기 낳는 날 먹으니까 낳아서 보니까 이 이런 데 죽게. 아이고야.)

107031 @ 하하하.(하하하.)

107031 #1 여자니까 이 아래도 막 끼여, 끼여. 계난에 그 애기 날 때 죽 아니 먹넨.(여자니까 이 아래도 마구 끼어, 끼어. 그러니까 그 아기 낳을 때 죽 안 먹는다고.)

107031 @ 우리 엄마도 경 곱읍디다. 나 날 때.(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합디다. 나 낳을 때.)

107031 #2 죽이고 ㄴ루음식이 일절 삼 개월 전이부터 먹지 말아야 돼여.(죽이고 가루음식이 일절 삼 개월 전에부터 먹지 말아야 돼.)

107031 @ 닭살 때문에.(닭살 때문에.)

107031 #2 으.(으.)

107031 @ 경해도 우리 엄마가 먹고 싶영예. 껌데기 훌락훌락 다 먹영 나 닳텐 허명. 그 애기험디다게. 다 부턴 막.(그래도 우리 엄마가 먹고 싶어서요. 껌데기 어

389) ‘오고생이’는 물건이 흐트러지거나 줄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라는 의미다.

귀어귀 다 먹고 나 낳았다고 하면서. 그 얘기합디다. 다 붙어서 마구.)

107031 #1 경행 이젠 우리 친정어머님이 가까운 디 사난 그 쑥 행 낫당 쑥을 폭 삶아근에 그 물에 모욕을 허렌 행 막 끌아 앉안, 쑥이. 끌아 앉앙 모욕을 헤신디 흔 메틀 이시난 스무날이난 잘도 더웁 살질 못허크라. 게난 이제 문딱 늬 가부난 그 우리 앞이 흐꿈 널러게. 널르난, ○○이네 알녁펜이 빈 디 잇잔아. 그디 팡 잇영 물 떠다 낵 막 빨래허주게. 그디 바게쓰 물 떠다 낵 바락바락 지치고 영허난 잘도 시원허영 좋아게. 막 무랑무랑³⁹⁰⁾ 덩당. 아, 경헐 때 우리 어머니가 완게. 서카름 어머니가 완. 아이고, 이년 이거 어떻헌 일고게. 아기 어명이 영허민 뉘느냐게 영허민 뉘느냐게?(그래서 이젠 우리 친정어머님이 가까운 데 사니까 그 쑥 해서 낫다가 쑥을 폭 삶아서 그 물에 목욕을 하라고 해서 마구 깔아 앉아서, 쑥. 깔아 앉아서 목욕을 했는데 한 며칠 있으니까 스무날이니까 아주 더워서 살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모두 남 가 버리니까 그 우리 앞에 조금 넓어. 넓으니까 ○○이네 아래쪽에 빈 데 있잖아. 거기 팡 있어서 물 떠다 놔서 막 빨래하지. 거기 한 바게쓰 물 떠다 놓고 바락바락 끼었고 이러니까 아주 시원해서 좋아. 아주 ‘무랑무랑’ 덩다가. 아,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왔어. ‘서카름’ 어머니가 왔어. 아이고, 이년 이거 어떻게 할 일이야. 아기 어머니가 이러면 되느냐, 이러면 되느냐?)

107031 @ 찬물로 허난.(찬물로 하니까.)

107031 #1 경허난이. 이거 땅땅 죽어 불언게. 이 엉덩이. 아, 경 굴으난 그거 데껴 불었어. 그 모욕헤난 그 숙 이만헌 거. 데껴 부난 딱시 어머니가 그거 앓단에 또 솟디 낵 물 낵 막 삶안. 이것에 다라에 낵 이것에 끌앙 안지라, 끌앙 안지라 막 헤여 어머니가. 쟁 그 술 살아완게. 그 숙 허영 끌앙 안지난 이디도 뉘고 이디도 뉘고게. 큰 다라에 물 낵에 숙 건져 낵. 게난 그건 잘도 존 거 답아.(그러니까. 이거 땅땅 죽어 버렸어. 이 엉덩이. 아,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던져 버렸어. 그 목욕했던 그 쑥 이만한 거. 던져 버리니까 또 어머니가 그거 가져다가 또 술에 넣어서 물 넣어서 마구 삶았어. 이것에 대야에 넣어서 이것에 깔아서 앉아라, 깔아서 앉아라 마구 해 어머니가. 그래서 그 살 살아왔어. 그 쑥 해서 깔아서 앉으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큰 대야에 물 넣어서 쑥 건져 놔서.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좋은 거 같아.)

107031 #2 쑥이 약 뉘는 거주게.(쑥이 약 되는 거지.)

107031 #1 어머니가, 그때 거 보난게. 모욕허는 거 안 봐시몬 몰라근에.(어머니가, 그때 거 보니까. 목욕하는 거 안 봤으면 몰라서.)

107031 #2 맞추게, 맞추게.(맞지, 맞지.)

107031 #1 쑥은 먼저 헌 건 그 옷드르 앓당 데껴 분디 그거 어떠난. 게난 그때야 영 영 허난 이디가 죽어 불어게. 경행 커 앉앙 영 영 흐꿈 잇어가난이 그 술이 제술 돌아완, 제술. 게난 쑥물이 좋은 생이라.(쑥은 먼저 한 건 그 ‘옷드르’ 가져다가 던져 버렸는데 그거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죽어 버려. 그래서 담가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있어 가니까 그 살이 제살 돌아

390) ‘무랑무랑’은 날씨가 아주 더운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왔어, 제살. 그러니까 쑥물이 좋은 모양이야.)

107031 @ 나도예 어무니가 사단 해 줘디다게. 게난 닭은 집에서 항상 키웠는데 그거를 털 뽑고 이런 거 해 봤수파? 잡아 보기도 했수파? 남자덜이 해야주게.(나도 요 어머니가 사다가 해 줘디다. 그러니까 닭은 집에서 항상 키웠는데 그것을 털 뽑고 이런 거 해 봤습니까? 잡아 보기도 했습니까? 남자들이 해야지.)

107031 #1 난 털도 안 뽑고 잡아 보지도 안헌디 우린 옛날에 새끼, 나 어린 때 독은 막 두 자리씩 깨우더라. 깨우면 벨로 크진 안해. 혼 아이에 하나씩 삶아근에 쥐 붙어. 이럴 땐 느 먹구정헌 냥 먹으렌 행 삶앙은에이. 게른 무신 영 그릇에 넣은 에 이거 죽은년도 하나 먹으라, 셋년도 하나 먹으라, 큰년도 하나 먹으라, 경혜여. 게른 우리 성님이 질 옥으니까³⁹¹⁾ 질 큰 걸로 보민. 질 옥으니까. 나보다 일곱 술 우의니까이. 그 새에 하나 죽어 부난. 경혜영 혼난 그걸 아멩 먹음으로 혼날 다 먹 어지크냐?(난 털도 안 뽑고 잡아 보지도 았았는데 우린 옛날에 새끼, 나 어릴 때 닭은 마구 두 쌍씩 깨우더라. 깨우면 별로 크지는 았아. 한 아이에 하나씩 삶아서 쥐 버려. 이럴 땐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해서 삶아서. 그럼 무슨 이렇게 그릇에 넣어서 이거 작은딸도 하나 먹어라, 둘째딸도 하나 먹어라, 큰딸도 하나 먹어라, 그 래. 그럼 우리 형님이 제일 ‘옥으니까’ 제일 큰 걸로 보면. 제일 ‘옥으니까’. 나보다 일곱 살 위니까. 그 사이에 하나 죽어 버리니까. 그래서 하니까 그걸 아무리 먹기로 하나를 다 먹을 수 있겠어?)

107031 #2 맞추게.(맞지.)

107031 #1 막 뒷날까지 둥그려. 독을 집이 하영 꿔우니까 혼 번에 두 자리.(아주 뒷날까지 굴려. 닭을 집에 많이 깨우니까 한 번에 두 자리.)

107031 @ 아버지가 잡고예?(아버지가 잡고요?)

107031 #1 아버지가 잡아실 테주. 아버지가 잡아.(아버지가 잡았을 테지. 아버지가 잡아.)

107031 @ 닭죽도 유월 스무날은 어머니가 꼭 해줬수파?(닭죽도 유월 스무날은 어머니가 꼭 해줬습니까?)

107031 #1 응. 그거만 솟 하나에 지글지글 봐근에 막 끌여. 이녁 집의서 질룬 거 난 산 거 아니지. 질룬 거난.(응. 그거만 솟 하나에 지글지글 넣어서 마구 끓여. 자기 집에서 기른 거니까 산 거 아니지. 기른 거니까.)

107031 #2 다 키왕덜. 옛날엔게 우잖이 막, 텃밭덜이 널르니까.(다 키워서들. 옛날엔 텃밭이 마구, 텃밭들이 넓으니까.)

107031 #1 집집마다 독 질루난 독 잡암텐 옥도 안 해.(집집마다 닭 기르니까 닭 잡는다고 옥도 안 해.)

107031 @ 나중에 커서도 닭 잡는 건 할아버지가 했수파?(나중에 커서도 닭 잡는 건 할아버지가 했습니까?)

107031 #1 다 허지.(다 하지.)

391) ‘옥다’는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는 뜻이다.

107031 @ 삼춘은?(삼춘은?)

107031 #1 나도게 오십구 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난 사삼사건 나 부니깐 시집을 간 남편이영 살았지게. 경행 스삼사건 후에 가난 우리 남편도 직장도 다니곡 해도 난 득 혼번 털도 안 뽑아 보고 잡아 보지도 안현. 다 잡아근에 다 뽑앙 물만 끌이렌 해. 물 끌여 가민 그냥 왕 삶아. 멧 번 그런 거만 헛주 ○○거추룩 득 잡아 본 건 하나토 없어.(나도 오십구 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사삼사건 나 버리니까 시집을 가서 남편이랑 살았지. 그래서 사삼사건 후에 가니까 우리 남편도 직장도 다니고 해도 난 닭 한번 털도 안 뽑아 보고 잡아 보지도 았았어. 다 잡아서 다 뽑아서 물만 끓이라고 해. 물 끓여 가면 그냥 와서 삶아. 멧 번 그런 거만 헛지 ○○처럼 닭 잡아 본 건 하나도 없어.)

107031 #2 ○○는 스나이가 아무것도, 집잇일도 밧딧일도 안 허영, 원 살아난 말 들으난 기가 맥혀라게.(○○는 사나이가 아무것도, 집안일도 밧일도 안 하고, 원 살 았던 말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

107031 #1 나도 겁난게. 여자가 어떻 득을 잡나? 난 아방³⁹²)이.(나도 겁나더라. 여자가 어떻게 닭을 잡나? 난 아버지가.)

107031 @ 엇이른 어쩔 수 없주.(없으면 어쩔 수 없지.)

107031 #1 손님덜 막 그냥 밤이 들앙와근에 득 잡앙 먹겐 해도 아방이 득 헤영 죽영 물 꿰우렌 행 물 팔팔 끌이민 그 물 헤영 막 지치민이 그 득터력이 자기대로 나와, 민작민작³⁹³). (손님들 마구 그냥 밤에 달려와서 닭 잡아서 먹자고 해도 아버지가 닭 해서 죽여서 물 끓이라고 해서 물 팔팔 끓이면 그 물 해서 마구 끼었으면 그 닭털이 자기대로 나와, ‘민작민작’.)

107031 #1 으, 벗기가 쉽주게.(으, 벗기가 쉽지.)

107031 @ 막 나오민 곱닥이 나와근에 이젠 불 솟으렌 행 불 솟으민 영 영 행 그 시리민 하울하울헌³⁹⁴) 떠력이 있어. 그 털 빠난 그때, 확 거스려근에 그때부턴 주어. 시청 솟앙은에 내놓렌 술안주로. 경헌 건 멧 번 헤낫주만은 원 생득 잡으는 건 일절 안 해 뵈. 또 여자가 잡을 생각도 안 허곡게. 켜디 우리 아방 그 득은 잘 잡앙 내놔.(마구 나오면 곱게 나와서 이젠 불 때라고 해서 불 때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을리면 ‘하울하울헌’ 털이 있어. 그 털 뽑았던 그때, 확 그을려서 그때부턴 주어. 켜어서 삶아서 내놓으라고 술안주로. 그래서 건 멧 번 했었지만 원 생닭 잡는 건 일절 안 해 뵈. 또 여자가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 닭은 잘 잡아서 내놔.)

107031 #2 게난 그런 거고 저런 거고 남저 헐 일은 해 낱 여자가 한결헤여근에 허주만은 가이 살아온 말 들으민 기가 맥혀.(그러니까 그런 거고 저런 거고 남자 할 일은 해 놓고 여자가 한가해서 하지만 개 살아온 말 들으면 기가 막혀.)

107031 @ 그 닭 뼈를 또 지넵이가 좋아헌텐 허멍예?(그 닭 뼈를 또 지네가 좋아

392)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393) ‘민작민작’은 털 따위가 매끄럽게 잘 빠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94) ‘하울하울헌다’는 자잘한 털이 나 있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한다고 하면서요?)

107031 #1 게메. 어디 잘못 놓민이 그 지네가 그 냄새에 왕 그 지네 가난 거 먹으민 어떻 헛넌 허더라? 어디 아픈텐인가 허데.(글쎄. 어디 잘못 놓으면 그 지네가 그 냄새에 와서 그 지네 가니까 거 먹으면 어떻게 하다고 하더라? 어디 아프다고인지 하대.)

107031 @ 지네.(지네.)

107031 #1 지네 독에 영 건너가는 걸 몰랑 먹으면은. 게난 그 독은 잘 논텐 해. 지네 못 들이게, 지네 아이 들게. 이 찻장에 놔도 문 잘 닫으렌 허곡이. 뭐 독광 지네인 상극이엔 허더라고.(지네 닭에 이렇게 건너가는 걸 몰라서 먹으면. 그러니까 그 닭은 잘 놓는다고 해. 지네 못 들게, 지네 안 들게. 이 찻장에 놔도 문 잘 닫으라고 하고. 뭐 닭과 지네는 상극이라고 하더라고.)

107031 #2 게 형제간도 싸와 가든 독광 주냉이ㄴ치 경 험젠 욱허잖아.(그래 형제간도 싸워 가면 닭과 지네같이 그렇게 한다고 욱하잖아.)

107031 #1 경헌디 그 독이 지넬 봐지민 막 물영 막 허든 지네가 파닥파닥허당 도망가민 또 강 걸 물어. 물어근에 막 막 입에서 그냥 발만 두 개니까이 막 죽여. 경헝 오래 푸닥거려 가민 그 주냉이가 죽으민 다 먹어이.(그런데 그 닭이 지네를 보면 마구 물어 마구 하면 지네가 파닥파닥하다가 도망가면 또 가서 걸 물어. 물어서 마구 마구 입에서 그냥 발만 두 개니까 마구 죽여. 그래서 오래 푸닥거려 가면 그 지네가 죽으면 다 먹어.)

107031 @ 다 먹어예.(다 먹어요.)

107031 #1 다 먹어. 그걸 봐났어, 어린 때.(다 먹어. 그걸 봤었어, 어린 때.)

107031 #2 으, 그런 건 나도 봐났어.(으, 그런 건 나도 봤었어.)

107031 #1 경허니까 독광 지네렌 허는 말이 똑 지네를 죽여나니까.(그러니까 닭과 지네라고 하는 말이 꼭 지네를 죽였었으니까.)

107032 @ 갱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갱죽이 뭐파, 갱이죽이 갱죽인가? 갱이죽은 안 먹어 봤지예. 그런 것도 우리 어무니 잘허드라고예.(갱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갱죽이 뭇니까, 게죽이 갱죽인가? 게죽은 안 먹어 봤지요. 그런 것도 우리 어머니 잘하더라고요.)

107033 #1 갱이죽을 흐는데.(게죽을 하는데.)

107033 @ 뭇앙?(뽕아서.)

107033 #1 뭇앙 뭐 자루에 담아.(뽕아서 뭐 자루에 담아.)

107033 @ 예.(예.)

107033 #1 닭아근에 그걸 막 짜. 막 짜면은 국물도 나오고 흐끔 영근 거 옛날은 베 험벅으로 허민 그 살도 쪽쪽 나오곡, 허는 거 받. 우리 어머니.(닭아서 그걸 마구 짜. 마구 짜면 국물도 나오고 조금 성근 거 옛날은 베 험겘으로 하면 그 살도 쪽쪽 나오고, 하는 거 봤어. 우리 어머니.)

107033 #2 난 안 해 봤어.(난 안 해 봤어.)

107033 #1 난 아니고 허는 거 받. 막 행 영 영 허민 그 술이 쪽쪽 나와게. 빼쪽 빼쪽 나오민 그거 홀터 땡 베 험벅, 베 험벅으로. 게영 쭈민 그 죽이 갱이 발도 엇곡 겁덕 엇이난 맛있지. 경 행 썰 먹어. 그거 홀트는 거 어머니 허는 거 받.(난 아니고 하는 거 봤어. 마구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살이 쪽쪽 나와. 빼죽빼죽 나오면 그거 훑어 두고 베 형죤, 베 형죤으로. 그렇게 쭈면 그 죽이 게 발도 없고 껌질 없으니까 맛있지. 그렇게 해서 썬서 먹어. 그걸 훑는 거 어머니 하는 거 봤어.)

107033 #2 난 허는 건 안 보고 어머니가 쭈언 주난 먹긴 해 봤어.(난 하는 건 안 보고 어머니가 썬서 주니까 먹긴 해 봤어.)

107033 #1 그 자루가 베더라고, 베.(그 자루가 베더라고, 베.)

107033 #2 으, 베자루에 잘해놔주게.(으, 베자루에 잘했었지.)

107033 #1 경혜근에 막 영 손으로 홀터 가민 그 베가 흐뭇 구멍 난 거난이 쭈룩쭈룩 나오더라고.(그래서 마구 이렇게 손으로 훑어 가면 그 베가 조금 구멍 난 거니까 쭈룩쭈룩 나오더라고.)

107033 @ 이거 말고 삼촌네가 어렸을 때라든가 죽 끝영 먹어보난 진짜 맛 좋더라. 뭐 옥돔, 전복 예를 들면 문어 뭐 베라벨 거 이신 건디, 꿩죽 이런 거 먹영 특별나게 생각나는 건 잇수과, 죽? 문어죽 그런 거, 고등어죽?(이거 말고 삼촌네가 어렸을 때라든가 죽 끓여 먹어보니까 진짜 맛 좋더라. 뭐 옥돔, 전복 예를 들면 문어 뭐 별의별 거 있는 건데, 꿩죽 이런 거 먹어서 특별나게 생각나는 건 있습니까, 죽? 문어죽 그런 거, 고등어죽?)

107033 #2 문어죽도 안 먹어보고 고등어죽은 가끔 먹었지, 고등어죽은.(문어죽도 안 먹어보고 고등어죽은 가끔 먹었지, 고등어죽은.)

107033 @ 아, 고등어죽 맛 좋아예, 싱싱할 때 허민?(아, 고등어죽 맛 좋지요, 싱싱할 때 하면?)

107033 #2 맛있어, 고등어죽. 싱싱한 거 허민. 할무니가 해 줘나난 나도예. 그런 거 죽 뿔 줄 누가 알쿠과만은 싱싱할 때 허민.(맛있어, 고등어죽. 싱싱한 거 하면. 할머니가 해 줘었어 나도요. 그런 거 죽 뿔 줄 누가 알겠습니까만 싱싱할 때 하면.)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다음 범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그다음 범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4 #2 범벅은 뭐 고구마ㄴ를 범벅도 잇고.(범벅은 뭐 고구마가루 범벅도 잇고.)

107034 @ ㄴ물범벅?(메밀범벅?)

107034 #2 ㄴ물범벅도 잇고.(메밀범벅도 잇고.)

107034 @ 는쟁이범벅.(나깨범벅.)

107034 #2 는쟁이범벅도 잇고.(나깨범벅도 잇고.)

107034 #1 고구마 썰어 낱 헤영 맛 좋아.(고구마 썰어 넣어서 해서 맛 좋아.)

107034 @ 쑥범벅.(쑥범벅.)

107034 #2 쑥범벅도 있고 범벅도 여러 가지주, 뭐.(쑥범벅도 있고 범벅도 여러 가지지, 뭐.)

107034 #1 쑥범벅?(쑥범벅?)

107034 #2 으.(으.)

107034 @ 툷범벅.(툷범벅.)

107034 #1 게민 툷 놔근에 ㄱ를 낳 험구나이?(그럼 툷 넣어서 가루를 넣어서 하는군요?)

107034 @ 예.(예.)

107034 #1 툷범벅도 있고.(툷범벅도 있고.)

107034 @ 여기서는 무슨 범벅이파? 감제범벅하고 ㅁ물범벅?(여기서는 무슨 범벅입니까? 고구마범벅하고 메밀범벅?)

107034 #2 으, ㅁ물범벅. 감제 썰어 낳 ㅁ물범벅.(으, 메밀범벅. 고구마 썰어 넣어서 메밀범벅.)

107034 @ 범벅은 어떻 합니까?(범벅은 어떻게 합니까?)

107034 #2 범벅은 고구마 썰어 낳 허젠 허면은 물 팔팔 끓여근엥에 고구마 영 굵게, 굵게 썰어근엥에 놓앙 이제 또 막 끓여근엥에.(범벅은 고구마 썰어 넣어서 하려고 하면 물 팔팔 끓여서 고구마 이렇게 굵게, 굵게 썰어서 넣어서 이제 또 마구 끓여서.)

107034 #1 ㅁ를³⁹⁵, ㅁ를 두 ㅁ를 케영 흐썸 익으면.(한 소끔, 한 소끔 두 소끔 끓어서 조금 익으면.)

107034 #2 끓영 고구마 익으면 그 우터레 ㅁ멸ㄱ루를 놓앙.(끓여서 고구마 익으면 그 위에 메밀가루를 넣어서.)

107034 @ 고구마부터.(고구마부터.)

107034 #2 응, 고구마부터 익혀 놔야 돼니까. 범벅은 짓으면 익영 범벅이 되는 거기 때문에.(응, 고구마부터 익혀 놔야 되니까. 범벅은 저으면 익어서 범벅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7034 #1 그 물 맞게 ㄱ를 헤여근엥에 이젠 흐썸 부글부글할 때 불 꺼 뒀은에 막 잘 젓어야 돼. ㄱ를 없이. ㄱ를이 잘 안 젓이민 ㄱ를이 입에 가근에 막 폭삭할 때가 있어. 게난 막 일로 어펏닥 일로 어펏닥 행 잘 저어 놓으면 그뎨 그거 맛있지.(그 물 맞게 가루 해서 이젠 조금 부글부글할 때 불 꺼 두고 마구 잘 저어야 돼. 가루 없이. 가루가 잘 안 저으면 가루가 입에 가서 마구 ‘폭삭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마구 이리로 옆었다가 이리고 옆었다가 해서 잘 저어 놓으면 그뎨 그거 맛있지.)

107034 #2 ㄱ루 우터레 폭 골고루, 골고루 쏘앙 영 골라 놔근에.(가루 위로 폭 골고루, 골고루 쏘아서 이렇게 골라 놔서.)

395) ‘한소끔’은 한 번 끓어오르는 모양을 나타낸다. 여기서 ‘ㅁ를’은 한 번 바르르 끓어 오름을 이르는 말이다. 곧 소끔을 말한다.

107034 #1 계민 고구마도 거기서 막 그냥.(그럼 고구마도 거기서 마구 그냥.)

107034 @ 고구마 먼저 삶아 낫당. ㄴ루 따로 허당 고구마에 들이쳐?(고구마 먼저 삶아 낫다가. 가루 따로 하다가 고구마에 들어뜨려?)

107034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34 #2 아니. 고구마 솔에 낱 삶앙.(아니. 고구마 솔에 넣어서 삶아서.)

107034 #1 신 대로 그냥.(있는 대로 그냥.)

107034 @ 신 대로.(있는 대로.)

107034 #1 그냥 ㄴ를 봐.(그냥 가루 넣어.)

107034 #2 으. 삶아 놔근에게 두어 볼 계민 고구마 다 익을 거 아냐?(으. 삶아 놔서 두어 볼 끓으면 고구마 다 익을 거 아냐?)

107034 @ 예.(예.)

107034 #2 고구마 다 익을 거 같으면은 그 우터레 이젠 ㄴ물ㄴ루를 이젠 싹 비와 놔근에 골라 봐.(고구마 다 익을 거 같으면 그 위에 이젠 메밀가루를 이젠 싹 부어 넣어서 골라 봐.)

107034 @ 그 뜨거운 디?(그 뜨거운 데?)

107034 #2 응, 뜨거운 디 뭘로 젖는 걸로 행 골라근에.(응, 뜨거운 데 뭘로 젖는 거로 해서 골라서.)

107034 #1 남죽이엔 현 거 있어. 젖는 남죽.(죽젓개라고 하는 거 있어. 젖는 죽젓개.)

107034 #2 어, 두경 달아근에 뜨시 불을 흐끔 습아. 불을 흐끔 때여근에 보글보글 끓영 물 나올 만하면은 불 꺼 놓고 이젠 두경 올라근엔에 그 젖는 걸로 베수기로 막 젖어.(어, 두경 달아서 또 불을 조금 때. 불을 조금 때서 보글보글 끓여서 물 나올 만하면 불 꺼 놓고 이젠 두경 열어서 그 젖는 걸로 죽젓개로 마구 저어.)

107034 #1 베수기엔 말은.(‘베수기’라는 말은.)

107034 @ 아, 불 꺼 놓고 젖어?(아, 불 꺼 놓고 저어?)

107034 #1 나는 베수기엔 말 안 들어 봤다.(나는 ‘베수기’라고 말 안 들어 봤다.)

107034 #2 베수기도 한림.(‘베수기’도 한림.)

107034 #1 남죽이엔만 헐, 남죽.(‘남죽’이라고 했어, 죽젓개.)

107034 @ 남죽과 베수기.(‘남죽’과 ‘베수기’)

107034 #1 남죽 가져오라.(죽젓개 가져와라.)

107034 #2 남죽은 우리, 우리 이디 말이고 베수기엔 말은 우리 웨가 동네 말.(죽젓개는 우리, 우리 여기 말이고 ‘베수기’라는 말은 우리 외가 동네 말.)

107034 @ 아.(아.)

107034 #1 하하하.(하하하.)

107034 #2 겐 막 젖어야 그 ㄴ들이 선 디 엇이. 겨민 그 고구마덜 좀 헤싸지곡 해근에.(그래서 마구 저어야 그 가루가 선 데 없이. 그러면 그 고구마들 좀 으깨지고 해서.)

107034 #1 맛 좋아. 고구마 맛이 더 맛있지.(맛 좋아. 고구마 맛이 더 맛있지.)

107034 @ 아, 불 꺼 가지고 젓어.(아, 불 꺼 가지고 저어.)

107034 #1 불 꺼야지, 알로 카 불어.(불 꺼야지, 아래로 타 버려.)

107034 #2 경 안 허민 알로 타 불주게.(그렇게 안 하면 아래로 타 버리지.)

107034 #1 탈 거니까 불은 꺼야지. 경 헛꿈 짐 올릴 때는 불 숨아 줘서난게. 김 올랑.(탈 거니까 불은 꺼야지. 그렇게 조금 김 오를 때는 불 때 췌으니까. 김 올라서.)

107034 @ 그게 믱물범벅이파?(그게 메밀범벅입니까?)

107034 #1 그게 믱물ㄱ를 범벅이엔 허는 거주.(그게 메밀가루 범벅이라고 하는 거지.)

107034 @ 범벅, 범벅.(범벅, 범벅.)

107034 #1 으, 그게 범벅.(으, 그게 범벅.)

107034 @ 겐 사삼 때영 급허면 쌀 엇일 때는 이렇게 행 먹었다는 말이.(그래서 사삼 때랑 급하면 쌀 없을 때는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말이.)

107034 #2 어게.(어.)

107034 @ 그 말이구나예.(그 말이군요.)

107034 #2 어게.(어.)

107034 @ ㄱ루로.(가루로.)

107034 #1 겐디 우린 믱멸 갈지를 안허난이.(그런데 우린 메밀 갈지를 았으니까.)

107034 #2 믱멸을 갈질 안허난.(메밀을 갈질 았으니까.)

107034 #1 믱멸이 귀허영 범벅 못 행 먹어이.(메밀이 귀해서 범벅 못 해 먹어.)

107034 #2 그 저.(그 저.)

107034 @ 범벅도 못 행 먹는구나.(범벅도 못 해서 먹는구나.)

107034 #1 거 사명사 해 먹을 수 잇어게?(거 사면서야 해 먹을 수 있어?)

107034 #2 보리ㄱ루 범벅.(보릿가루 범벅.)

107034 #1 믱멸 가는 집이덜은이.(메밀 가는 집에들은.)

107034 @ 아, 보리가루 범벅은 또 어떻 행 먹어마썸?(아, 보릿가루 범벅은 또 어떻게 해서 먹어요?)

107034 #2 보리ㄱ루 범벅도 마찬가지로.(보릿가루 범벅도 마찬가지로.)

107034 #1 것도 그렇게 허는디 맛이 믱멸 범벅만 못 허지, 맛이.(것도 그렇게 하는데 맛이 메밀 범벅만 못 하지, 맛이.)

107034 #2 믱물ㄱ루 범벅은 좀 쿠싱헌 맛도 싯곡 헐디이.(메밀가루 범벅은 좀 구수한 맛도 있고 한데.)

107034 #1 우린 믱멸을 혼번도 가는 건 못 봤, 나. 믱멸 가는 거.(우린 메밀을 혼번도 가는 건 못 봤어, 나. 메밀 가는 거.)

107034 #2 우린 새밭 이견에 갈안에 장만해당 행 먹어 봤어.(우린 떠밭 일귀서 갈아서 장만해다가 해서 먹어 봤어.)

107034 #1 므밀 같지 안허난 그런, 늑의 건 얻어먹어 봐도이 집에서 므밀ㄱ루 범
벅 허는 건 못 봐.(메밀 같지 않으니까 그런, 남의 건 얻어먹지 봐도 집에서 메밀가
루 범벅 하는 건 못 봐.)

107034 #2 게난 므밀 마당질허는 걸 나가 봐낫주. 우리 아버지 읍으로 도리께 들
렁 확 후리고 확 후리고.(그러니까 메밀 마당질하는 걸 내가 봤었지. 우리 아버지
읍으로 도리께 들고 확 후리고 확 후리고.)

107034 #1 옛날엔 므밀낭 혜영 막 돛집이 더프고, 오래 삭지 안헌텐이. 오래 간
텐.(옛날에는 메밀짚 해서 마구 돼지우리가 덮고, 오래 삭지 않는다고. 오래 간다
고.)

107034 #2 응.(응.)

107034 #1 늑의 거 빌어당도 막 우이 더끄더라.(남의 거 빌려다가도 마구 위에
덮더라.)

107034 #2 그것도 무신 예방으로 경헌 것 닮아.(그것도 무슨 예방으로 그런 것
같아.)

107034 #1 므밀낭 앓다근에 돛집이 노킨 놉서, 경허민 저.(메밀짚 가져다가 돼지
우리 놓으려면 놓으세요, 그러면 저.)

107034 @ 돛집? 도새기?(돼지우리? 돼지?)

107034 #1 도새기 집인다.(돼지 집인데.)

107034 #2 도새기 집 우에 이는 거, 더프는 거.(돼지 집 위에 이는 거, 덮는 거.)

107034 #1 므밀낭을, 므밀낭.(메밀짚을, 메밀짚.)

107034 @ 낭?(나무?)

107034 #1 낭³⁹⁶을 앓당.(짚을 가져다가.)

107034 #2 므물대.(메밀짚.)

107034 #1 돛집이 탁 두껍게 놓아 낱 그 우이 느라밀 둘러게, 느라밀 둘렁 주쟁
일 썩와. 경헌 걸 우린 므밀낭 엇이난 저 동네 삼촌이 므밀낭 쓰킨 썩센 허민.(돼지
우리가 탁 두껍게 놓아 놓고 그 위에 이영을 둘러, 이영을 둘러서 주저리를 썩워.
그런 걸 우린 메밀짚 없으니까 저 동네 삼촌이 메밀짚 쓰려면 쓰라고 하면.)

107034 @ 아, 그건 소도 안 먹고 허난.(아, 그건 소도 안 먹고 하니까.)

107034 #1 으.(으.)

107034 @ 도새기안티로 가정 가는 거로구나.(돼지한테로 가지고 가는 거로구나.)

107034 #1 경 내부는 것덜.(그렇게 내버리는 것들.)

107034 #2 그게 아메도 돼지집을 더프른 오래 가곡 삭지 안허영.(그게 아무래도
돼지우리를 덮으면 오래 가고 삭지 않아.)

107034 @ 것도 처음 들읍수다.(것도 처음 들읍니다.)

107034 #1 막 오래 가, 므물낭이.(아주 오래 가, 메밀짚이.)

107034 #2 그런 예방법으로 그걸 앓당 더프는 거 같애.(그런 예방법으로 그걸 가

396) '낭'은 표준어의 '나무'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짚을 말한다.

저다가 덮는 거 같아.)

107034 @ 조칩이든 콩집이든 좀 뭐 헌디 므밀집은, 췌낭도 그치룩 안 헛텐 허는 디예?(조짚이든 콩짚이든 좀 뭐 한테 메밀짚은, 췌단도 것처럼 안 했다고 하는데 요?)

107034 #2 으, 으.(으, 으.)

107034 #1 췌낭도 불만 숨는디 므밀낭은 돛집일 잘 더꺼.(췌단도 불만 때는데 메밀짚은 돼지우리를 잘 덮어.)

107034 @ 므밀낭도 불은 숨아지고?(메밀짚도 불은 뭇 수 있고?)

107034 #2 몰라, 불 숨는 건 못 봤어.(몰라, 불 때는 건 못 봤어.)

107034 @ 신기허다예. 그런 거 봐 가문.(신기하네요. 그런 거 봐 가면.)

107034 #1 도새기집³⁹⁷만 더끄는 건 뵈.(‘도새기집’만 덮는 건 봤어.)

107034 #2 도새기집만 더뜨는 건 주로 봤어. 막 오래 가더라고.(‘도새기집’만 덮는 건 주로 봤어. 아주 오래 가더라고.)

107034 #1 겐 막 오래 자꾸자꾸 해 가문 그 도새기집이 영 두꺼워 와. 잘 안 삭으니까이.(그래서 아주 오래 자꾸자꾸 해 가면 그 ‘도새기집’이 이렇게 두꺼워 와. 잘 안 삭으니까.)

107034 107034 @ 베갯속에 넣고 또 도새기 허는 디 허고.(베갯속에 넣고 또 돼지 하는 데 하고.)

107034 #1 불 때는 것도 못 봤어이.(불 때는 것도 못 봤어.)

107034 #2 으?(으?)

107034 #1 므밀대로 불 때는 것도 못 봤어.(메밀짚으로 불 때는 것도 못 봤어.)

107034 #2 아, 불 때는 거 못 봤어. 불 때는 건 못 봐 보고.(아, 불 때는 거 못 봤어. 불 때는 건 못 봐 보고.)

107035 @ 수제비, 수제비가 즈베기뻬?(수제비, 수제비가 ‘즈베기’쥬?)

107035 #2 으.(으.)

107035 @ 즈베기도 행 먹어낫수과?(수제비도 해서 먹었습니까?)

107035 #2 수제빈 주로 행 먹엇주게.(수제빈 주로 해서 먹엇지.)

107035 @ 거는 뭇로?(거는 뭇로?)

107035 #2 보릿가루로.(보릿가루로.)

107035 @ 므물가루로 수제비가 아니고?(메밀가루로 수제비가 아니고?)

107035 #2 므밀은 막 귀헌 걸로 헤근엔에 영 먹젠 수제비로 먹진 못허고.(메밀은 아주 귀한 걸로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수제비로 먹진 못하고.)

107035 @ 밀가루 얏어수과?(밀가루 얏었습니까?)

107035 #2 밀가루 난 지도 오래지 안허고 밀농사를 안 헛기 때문에.(밀가루 난 지도 오래지 얏고 밀농사를 안 헛기 때문에.)

397) ‘도새기집’은 ‘도새기(돼지)’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으로, 돼지우리 한쪽에 지붕을 간소하게 해서 만든다.

107036 @ 칼국수도 보릿가루로? 보릿가루로 칼국수 행 먹어마씨?(칼국수도 보릿가루로? 보릿가루로 칼국수 해서 먹어요?)

107036 #2 칼국수 가끔 벨미로, 벨미로나 일 년에 한번쯤 허영 먹을라 말라 했주게.(칼국수는 가끔 벨미로, 벨미로나 일 년에 한번쯤 해서 먹을까 말까 했지.)

107036 @ 논쟁이범벅도 믈이지예?(나깨범벅도 메밀이지요?)

107036 #2 논쟁이범벅은 믈.(나깨범벅도 메밀.)

107036 @ 또 즈베기로 하는 거는 보리 즈베기 말고 나중에는 밀가루로 했지예? 즈베기 헐 때는 무싱거 낱, 이제는 저 뭐파 멸치라도 영행 다시 허주만은 옛날에는?(또 수제비로 하는 거는 보리 수제비 말고 나중에는 밀가루로 했지요? 수제비 할 때는 뭐 넣어서, 이제는 저 뭐니까 멸치라도 이렇게 다시 하지만 옛날에는?)

107035 #2 다시 어디 서. 다시도 엇국 그냥.(다시 어디 있어. 다시도 없고 그냥.)

107035 @ 소금만 놔?(소금만 놔?)

107035 #2 그냥 물만 놔근에 팔팔 끓이민.(그냥 물만 넣어서 팔팔 끓이면.)

107036 @ 칼국수 해근에.(칼국수 해서.)

107036 #2 칼국수나 수제비나 허민 손으로 툭툭 줍아놔 뜯어 놔근에게 끓이민 그냥 간장 놔근에 간 맞춰 먹었주게.(칼국수나 수제비나 하면 손으로 툭툭 집어넣어서 뜯어 넣어서 끓이면 그냥 간장 넣어서 감 맞춰서 먹었지.)

107036 @ 끝?(끝?)

107036 #2 으.(으.)

107036 @ 거기에 뭐 놓는 거?(거기에 뭐 넣는 거?)

107036 #2 놓는 거 없어. 옛날 뭐 메리치나 낱 다시 만들영 먹는 그런 게 엇주게.(놓는 거 없어. 옛날 뭐 멸치나 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먹는 그런 게 없지.)

김치

107037 @ 그다음 김치, 김치의 종류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물김치, 동지김치, 무김치, 파김치, 달래김치, 갓김치, 부추김치.(그다음 김치, 김치의 종류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물김치, 장다리김치, 무김치, 파김치, 달래김치, 갓김치, 부추김치.)

107037 #1 아이고, 종류도 하다.(아이고, 종류도 많다.)

107037 #2 김치 종류가 오죽 많아?(김치 종류가 오죽 많아?)

107037 @ 계도 옛날 제주도예.(그래도 옛날 제주도예.)

107037 #2 우리 제주도엔 경 여러 가지 경 해 먹질 안 해난.(우리 제주도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해 먹질 안 했었어.)

107037 @ 옛날 옛날 먹어난 거?(옛날 옛날 먹었던 거?)

107037 #1 옛날 옛날엔 그냥 무우김치 배추김치만 행 먹었주게.(옛날 옛날엔 그냥 무김치 배추김치만 해서 먹었지.)

107037 #2 무우김치, 배추김치, 갯물김치.(무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107037 #1 겐디 그거 갯물김치가 봄 나 가민 행 먹어.(그런데 그거 갓김치는

봄 되어 가면 해서 먹어.)

107037 #2 봄 나 가쁜 갯물김치 행 먹주.(봄 되어 가면 갯김치는 해서 먹지.)

107037 #1 뭐 저 파김치도 안 행 먹더라.(뭐 저 파김치도 안 해서 먹더라.)

107037 #2 으, 파김치도.(으, 파김치도.)

107037 #1 데왕은에 해근에 무쳐 먹는 건 해여.(데워서 해서 무쳐 먹는 건 해.)

107037 #2 파김치도 행 먹을 중 몰란, 몰른 거 같애.(파김치도 해서 먹을 줄 몰랐어, 모른 거 같아.)

107037 #1 몰라, 몰라.(몰라, 몰라.)

107037 @ 부추도, 새우리도 옛날엔 별로?(부추도, 부추도 옛날엔 별로?)

107037 #1 으응.(으응.)

107037 #2 벨로.(벨로.)

107037 #1 그것도 몰랑 못 허난 그거라.(그것도 몰라서 못 하니까 그거야.)

107037 @ 그 대신 유채 동지김치 해 먹었지예?(그 대신 유채 장다리김치는 해 먹었지요?)

107037 #2 동지김치덜은 주로 해 먹었주게.(장다리김치들은 주로 해 먹었지.)

107037 #1 유채 동진 안 허고이.(유채 장다리는 안 하고.)

107037 #2 배추 동지.(배추 장다리.)

107037 #1 배추 동지.(배추 장다리.)

107037 @ 배추 동지?(배추 장다리?)

107037 #1 응, 봄 나민이.(응, 봄 되면.)

107037 #2 봄 나민. 옛날도 배추 동지김치 허드라고.(봄 되면. 옛날도 배추 장다리김치는 하더라고.)

107037 #1 유채는 몰라. 배추 동지 허곡이, 갯물, 동지, 갯물 해여근엔애.(유채는 몰라. 배추 동지 하고, 갯, 장다리, 갯 해서.)

107037 #2 으, 갯물김치.(으, 갯김치.)

107037 #1 갯물 막 그 쿠싱허텐 허멍 그 쿠싱헌 걸 좋텐 행.(갯 아주 그 구수하다고 하면서 그 구수한 걸 좋다고 해서.)

107037 @ 쿠싱해예?(구수해?)

107037 #1 으. 그 갯물로 물김치도 행 먹어이. 물김치도이 그 줍쌀, 줍쌀 삶아근에 그 물 놓앙 먹더라. 줍쌀 물 해영.(으. 그 갯으로 물김치도 해서 먹어. 물김치도 그 줍쌀, 줍쌀 삶아서 그 물 넣어서 먹더라. 줍쌀 물 해서.)

107037 @ 줍쌀도 허고.(줍쌀도 하고.)

107037 #2 모인줍쌀 삶아근에 그 물 해영.(메줍쌀 삶아서 그 물 해서.)

107037 #1 으, 쪼생이 따라 뒤근에.(으, 찌꺼기 따라 뒤서.)

107038 @ 게근에 배추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추김치 할 때는 저 마농이영 뭐영 다 놓긴 놉디가, 옛날에도?(그래서 배추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추김치 할 때는 저 마늘이랑 뭐랑 다 넣긴 넣습디까, 옛날에도?)

107038 #2 옛날에도 마늘 엮은 김치 안 해여. 마늘은 똑 놔야.(옛날에도 마늘 엮은 김치는 안 해. 마늘은 꼭 넣어야.)

107038 @ 젓갈도 넣고?(젓갈도 넣고?)

107038 #1 젓갈은 벨로 몰라이. 젓갈 놓는 건 우리 흥뽀 커사 봐주, 어린 땀 그냥 마늘하고 생강만 넣 험 거 다향. 우린 생강은 아부지.(젓갈은 별로 몰라. 젓갈 넣는 건 우리 조금 커야 봤지, 어린 땀 그냥 마늘하고 생강만 넣어서 한 거 같아. 우린 생강은 아버지.)

107038 @ 고춧가루?(고춧가루?)

107038 #1 고춧가루 놓지. 고춧가루를 허고이.(고춧가루는 넣지. 고춧가루 하고.)

107038 #2 고춧가루 안 들어가면 김치가 안 돼니까.(고춧가루는 안 들어가면 김치가 안 되니까.)

107038 #1 마늘, 생강만 넣 험디이.(마늘, 생강만 넣어서 했는데.)

107038 #2 고춧가루를 허고 마늘은 건 기본이니까 그거 넣 허엿주, 나도 무싱거 젓 부찌는 거 못 봐 봤어.(고춧가루하고 마늘은 건 기본이니까 그거 넣어서 했지, 나도 뭐 젓 붙이는 거 못 봐 봤어.)

107038 #1 응, 옥은 후제는 놔신디 어릴 때는 거 논 거 못 봐 봤어.(응, 큰 후에는 넣었는데 어릴 때는 거 넣는 거 못 봐 봤어.)

107038 @ 자리젓이여 멜젓은, 멜젓은 놓지 안해서카?(자리젓이야 멀치젓은, 멀치젓은 넣지 않았을까?)

107038 #1 어릴 땀 몰랐어. 왜정 때는 거 논 거 못 봤어. 냄새도 먹으면 냄새도 좀, 맛이 이실 건디 그거 없어.(어릴 땀 몰랐어. 왜정 때는 거 넣는 거 못 봤어. 냄새도 먹으면 냄새도 좀, 맛이 있을 건데 그거 없어.)

107038 @ 막 버무렁예?(마구 버무려서요?)

107038 #1 그냥 그냥 소금에 행.(그냥 그냥 소금에 해서.)

107038 @ 무우도 항상 넣고?(무도 항상 넣고?)

107038 #1 무우도 안 놔.(무도 안 넣어.)

107038 @ 채 썰지 안허여?(채 썰지 않아?)

107038 #2 무우채 썰엿 놓는 법은 엿고.(무채 썰어서 넣는 법은 엿고.)

107038 #1 채 안 허엿 그냥, 그냥 썰엿. 그냥 썰어근에 그 허당 남으면은이 그 양념행은에 버무렁은에 이만씩덜 썰엿.(채 안 해서 그냥, 그냥 썰어서. 그냥 썰어서 그 하다가 남으면 그 양념해서 버무려서 이만큼씩 썰어서.)

107038 @ 납닥납닥?(납작납작?)

107038 #1 으, 경혜근에 그 영 들러근에 딱딱 이빨로 꼬치멍 먹는 건 봐 봤어. 내중에 경 하영도 안 허고이 그거 남으면게.(으, 그래서 그 이렇게 들어서 딱딱 이빨로 자르면서 먹는 건 봐 봤어. 나중에 그렇게 많이도 안 하고 그거 남으면.)

107038 #2 양념 남으면.(양념 남으면.)

107038 #1 양념 남으면 경 무우 썰어근에.(양념 남으면 그렇게 무 썰어서.)

107038 @ 배추 절엿당 허는 건 똑가트고?(배추 절엿다가 하는 건 똑같고?)

107038 #1 응, 똑같애 건. 아구, 옛날에는이 이디서 조금 아껴근에.(응, 똑같아 건. 아이고, 옛날에는 여기서 조금 아껴서.)

107038 @ 바당에 강?(바다에 가서?)

107038 #1 백계³⁹⁸⁾ 바당물에 강 시치민 그거 얼마나 줄어들까이. 바당물에 시청 흐꿈 그 통에 흐꿈 영 담갓당 건정. 아이고 건정 나오민 영 정 와났저.(‘백계’ 바당 물에 가서 씻으면 그거 얼마나 줄어들까. 바당물에 씻어서 조금 그 통에 조금 이렇게 담갓다가 건져서. 아니고, 건져서 나오면 이렇게 지고 왔었어.)

107038 #2 아이고, 난 시집간 **** 했습니다.(아이고, 난 시집가서 **** 했습니 다.)

107038 @ 백계민 이호예?(‘백계’면 이호요?)

107038 #1 어.(어.)

107038 #2 이호³⁹⁹⁾ 바당에 강은에게.(이호 바다에 가서.)

107038 #1 흐꿈 컷당.(조금 담갓다가.)

107038 #2 요만헌 통 메와진 디 춘물에 강 듬강 돌맹이 앓당 누르편에 삼일 싯당 건정 정 오젠 허난.(요만한 통 메워진 데 찐물에 가서 담가서 돌맹이 가져다가 눌러서 한 삼일 있다가 건져서 지고 오려고 하니까.)

107038 #1 삼일 싯단?(삼일 있다가?)

107038 #2 응.(응.)

107038 #1 겐 누게 안 가져가 불언?(그래서 누가 안 가져가 버렸어?)

107038 #2 거 찬물에 절여지렌게 조금 엇은 때난. 경 행 건정 정이.(거 찐물에 절여지라고 조금 없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건져서 지고.)

107038 #1 우리 그날 난 헤끄만.(우리 그날 난 조금만.)

107038 @ 누구 안 가져강, 내불어 똥 와?(누구 안 가져가서, 내버려 두고 와?)

107038 #2 어.(어.)

107038 #1 옛날덜은 옛날덜은.(옛날들은, 옛날들은.)

107038 #2 거기 그냥 셔.(거기 그냥 있어.)

107038 #1 서로가 영 도와줄 때난이.(서로가 이렇게 도와줄 때니까.)

107038 #2 경 정 오논디 옷이 잘잘잘잘. 이 받침대가 엇어 노난게.(그렇게 저서 오논데 옷이 잘잘잘잘. 이 받침대가 없어 놓으니까.)

107038 @ 계난.(그러니까.)

107038 #2 그 ** 아정 간에 그레 싯애 짹어 놓난 무신 물이게 어딜 가게.(그 ** 가지고 가서 그리 싸서 짹어 놓으니까 무슨 물이 어딜 가.)

107038 @ 맞아.(맞아.)

107038 #2 잘잘잘, 옷 다 적지명 저단 짐치 해났저, 아이구.(잘잘잘, 옷 다 적시

398) ‘백계’는 제주시 이호동 마을 이름의 하나다.

399) ‘이호’는 제주시 이호동을 말한다.

면서 저다가 김치 했었어, 아이고.)

107038 @ 겐 향아리에 보관행 묻었수과? 아니면 장독대?(그래서 향아리에 보관 해서 묻었습니까? 아니면 장독대?)

107038 #1 여긴 묻지 안허여.(여긴 묻지 않아.)

107038 @ 장항에 그냥?(장항에 그냥?)

107038 #1 그냥 밖에 놔둬서 먹어.(그냥 밖에 놔두면서 먹어.)

107038 @ 겨울내내 먹고?(겨우내 먹고?)

107038 #1 겨울내내 먹영 봄 나 가든 떨어져.(겨우내 먹고 봄 돼 가면 떨어져.)

107038 #2 봄 나게 경.(봄 되게 그렇게.)

107038 #1 떨어지든게 갯늬물도 해영 흥끔씩 행 먹곡.(떨어지면 갯도 해서 조금 씹 해서 먹고.)

107038 #2 봄 나든 갯늬물 해당 물김치도 행 먹곡 그럭저럭 사난.(봄 되면 갯 해 다가 물김치도 해서 먹고 그럭저럭 사니까.)

107038 @ 게메, 먹고 살젠 허니까예.(글쎄, 먹고 살려고 하니까요.)

107038 #1 경 김치도 경 사시사철 다 잇영 먹었고?(그렇게 김치도 그렇게 사시사 철 다 있어서 먹었고?)

107038 @ 갯김치도 봄에 허고예?(갯김치도 봄에 하고요?)

107038 #1 으.(으.)

107038 @ 갯늬물도예?(갯도요?)

107038 #1 갯늬물도 봄 나 가든 막 우죽우죽 잘 나와게.(갯도 봄 돼 가면 마구 우죽우죽 잘 나와.)

107039 @ 열무김치는 여름에 안 행 먹고?(열무김치는 여름에 안 해서 먹고?)

107039 #1 열무김치도 행 먹지. 열무김치도 열무 나 갈, 열무가 막 옛날엔 엇엇 어.(열무김치도 해서 먹지. 열무김치도 열무 나 갈, 열무가 아주 옛날엔 없었어.)

107039 @ 엇어?(없어?)

107039 #1 흥끔 우리 옥아사 나완.(조금 우리 커야 나왔어.)

107039 #2 열무도 옛날에 거 엇어.(열무도 옛날에 거 없어.)

107039 #1 옥아사 거 나오난이.(커야 거 나오니까.)

107039 @ 아, 게난 새우리김치여, 무슨 김치여, 어무니 막 잘헐게만은 여기서는 안 해 먹었다는 거다예? 새우리여, 저 꿩마놓이여, 무신 파김치여.(아, 그러니까 부추김치다, 무슨 김치다, 어머니 아주 잘했지만 여기서는 안 해 먹었다는 거네요? 부추다, 저 달래다, 무슨 파김치다.)

107039 #1 게난 우리 옥아근에 살림을 사난 헛지 우리 부모네 살 때 이런 거 안 해.(그러니까 우리 커서 살림을 사니까 헛지 우리 부모네 살 때 이런 거 안 해.)

107039 @ 옛날엔예?(옛날에는요?)

107039 #1 으.(으.)

107039 @ 김치가 종류가 많지 안 헛다는 거고. 깍두기 같은 것도 나중예?(김치

가 종류가 많지 않았다는 거고. 깍두기 같은 것도 나중에?)

107039 #1 깍두기는 허질 안허고 경 큰 게, 크게 헌 거 허영.(깍두기는 하질 않고 그렇게 큰 게, 크게 한 거 해서.)

107039 #2 얇게 썰영.(얇게 썰어서.)

107039 @ 크게 썰영?(크게 썰어서?)

107039 #1 으, 딱딱 이빨로 그창 먹는 것이.(으, 딱딱 이빨로 잘라서 먹는 것이.)

107039 #2 것ㄴ라 무신 나박김치엔 해나신가?(것보고 무슨 나박김치라고 했었는가?)

107039 #1 나박김치 좋지. 나박나박 썰영 허민 건 뭐. 막 저 핸드폰 반작만큼 썰영.(나박김치 좋지. 나박나박 썰어서 하면 건 뭐. 막 저 핸드폰 반만큼 썰어서.)

107039 @ 나박이렌 헛수파, 거 이름을?(나박이라고 했습니까, 거 이름을?)

107039 #1 나박이엔 안 허여.(나박이라고 안 해.)

107039 @ 무우김치?(무김치?)

107039 #1 나박김치 흥뽀 영 얇게 썰어야 나박이지.(나박김치 조금 이렇게 얇게 썰어야 나박이지.)

107039 @ 무우김치?(무김치?)

107039 #1 몰르크라.(모르겠어.)

젓갈

107048 @ 게민 젓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젓갈은 자리젓, 멜젓밖에 엇엇수과?(그럼 젓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젓갈은 자리젓, 멸치젓밖에 없었습니까?)

107048 #1 으.(으.)

107048 @ 지금 와 가지고는 무신 창난젓이여, 명란젓이여, 전복.(지금 와 가지고는 무슨 창난젓이다, 명란젓이다, 전복.)

107048 #2 우리 어린 때는 멜젓, 자리젓벧기 몰라.(우리 어렸을 때는 멸치젓, 자리젓밖에 몰라.)

107048 @ 멜젓, 자리젓.(멸치젓, 자리젓.)

107048 #2 으.(으.)

107048 #1 창난젓 그런 건 그때 나오도 안허여. 우리 헐 때는.(창난젓 그런 건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 우리 할 때는.)

107049 @ 경해도 자리, 멜은 들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예. 이런 데도예?(그래도 자리돔, 멸치는 들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데도요?)

107049 #1 멜이 많이 들면 막 멜 사례 오랜 이꺼지 올라와. 멜 들면 멜 사례 읍센.(멸치가 많이 들면 마구 멸치 사례 오라고 이꺼지 올라와. 멸치 들면 멸치 사례 오시라고.)

107049 @ 그럼 멧 돼 정도 사 가지고 보통 그거를 국 한 번 끓여 먹고.(그럼 멧

되 정도 사 가지고 보통 그거를 국 한 번 끓여 먹고.)

107049 #1 으.(으.)

107049 @ 그다음 거의 젓 담그잖아예?(그다음 거의 젓 담그잖아요?)

107049 #1 젓 담아근에 고추 나와 가든 고추 그레, 뭇첫에 딱 담아 놔근에 고치 익으면 막 고치도 빼영 먹곡 해.(젓 담가서 고추 나와 가면 고추 그리, 뭇치첫에 딱 담아 놔서 고추 익으면 마구 고추도 빼서 먹고 해.)

107049 #2 맛있어.(맛있어.)

107049 @ 그냥 아무것도 안 놔 고치 퍼령헌 거를 뭇첫에 놔?(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서 고추 파란 거를 뭇치첫에 넣어?)

107049 #1 으.(으.)

107049 #2 담양. 경 놔두민 고추 익영 막 맛있어.(담아서. 그렇게 놔두면 고추 익어서 아주 맛있어.)

107049 #1 겐디 옛날엔 경 짜게 허주게.(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짜게 하지.)

107049 #2 젓을 좀 짜게 담으니까.(젓을 좀 짜게 담으니까.)

107049 #1 이제 ㄴ치룩 간 맞게 험시민 그냥 허민 그 젓이 변허주만은 경 안 헤여.(이제처럼 간 맞게 하고 있으면 그냥 하면 그 젓이 변하지만 그렇게 안 해.)

107049 @ 지금은 간장에 데평 막 젓갈 허고 허는디 이게 믿을 수가 엇텐. 막 이것저것 놔 부난. 그냥 젓갈에 팍 담강 먹는 게 그게 진짜일 수 있어예.(지금은 간장에 데워서 마구 젓갈 하고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다고. 마구 이것저것 넣어 버리니까. 그냥 젓갈에 팍 담가서 먹는 게 그게 진짜일 수 있어요.)

107049 #1 게난 소금을 많이 놔 짜게 행 놔두난 거 되는 거주게.(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짜게 해서 놔두니까 거 되는 거지.)

107049 @ 고추를 그렇게 해서 먹고.(고추를 그렇게 해서 먹고.)

107049 #2 옛날엔게 쪼끔씩 오래 먹젠 경 짜게만 헛주게.(옛날엔 쪼끔씩 오래 먹으려고 그렇게 짜게만 헛지.)

107049 @ 게니까.(그러니까.)

107049 #2 게난 옛날 어른이 짜게 먹어나부난 지금도 싱겁게 행은 맛이 엇어.(그러니까 옛날 어른이 짜게 먹었었으니까 지금도 싱겁게 해서는 맛이 없어.)

107051 @ 아감젓은 안 들어봤수과?(아감젓은 안 들어봤습니까?)

107051 #1 들어봬, 들어봬. 갈치 아감.(들어봤어, 들어봤어. 갈치 아가미.)

107051 @ 갈치 아감젓은 잇엇수과?(갈치 아감젓은 있었습니까?)

107051 #1 아감.(아가미.)

107051 @ 갈치속젓은 아니고?(갈치속젓은 아니고?)

107051 #1 갈치 아가미 헤근에 그 실게만 빼 뒤근에 막 그거 맛있어. 그 젓갈.(갈치 아가미 해서 그 쓸개만 빼 뒤서 마구 그거 맛있어. 그 젓갈.)

107051 @ 젓도 옛날 잇엇수과?(젓도 옛날 있었습니까?)

107051 #2 아가미젓도 옛날은 잇어.(아가미젓도 옛날은 있어.)

107051 #1 막 옛날엔 없었어. 흥뽀 우리 좀 커야. 그 어른이 사례 왕 영 사발로 거령 얼마씩 행 팔더라고. 경헐 땃 집의 어머니네영 삼촌네영 행 막 사. 흥 사발, 두 사발 허멍 막 사. 이것에 상은에 무 썰어 놓앙 먹읍서양 허더라고 그 사람이. 늘령, 거 짜니까. 경 행 먹언, 우리도.(아주 옛날엔 없었어. 조금 우리 좀 커야. 그 어른이 사례 와서 이렇게 사발로 떠서 얼마씩 해서 팔더라고. 그렇게 몇 집의 어머니네랑 삼촌네랑 해서 마구 사. 한 사발, 두 사발 하면서 마구 사. 이것에 사서 무 썰어 넣어서 먹으세요 하더라고 그 사람이. 늘려서, 거 짜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어, 우리도.)

107051 @ 갱이것도 들어봤수파?(게것도 들어봤습니까?)

107051 #1 아니, 아니 그건. 영 들르민 이 갈치 창자가 이만이 등겨. 등겨 나와.(아니, 아니 그건. 이렇게 들면 이 갈치 창자가 이만큼 늘어져. 늘어져 나와.)

107051 @ 갈치.(갈치.)

107051 #1 갈치 젓갈은 맛있는데 고등어 젓갈은 맛이 없어. 고등어 젓갈은.(갈치 젓갈은 맛있는데 고등어 젓갈은 맛이 없어. 고등어 젓갈은.)

107051 @ 고등어 젓갈은 담그지 않지 안해?(고등어 젓갈은 담그지 않지 않아?)

107051 #1 벌경허고이 맨 아가미만 세고이.(벌경고 맨 아가미만 세고.)

107051 @ 아, 고등어 젓갈도 잇어마써?(아, 고등어 젓갈도 잇어요?)

107051 #1 따로 가정 왓더라고. 가정 왕 이걸랑은에 먹켄 허믄 그냥 주켄 허멍 경헌디 벨로. 벌경헌 게이 맨 아가미만. 따로 가정 와선게. 그 사름이.(따로 가지고 왔더라고. 가지고 와서 이거는 먹겠다고 하면 그냥 주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별로. 벌건 것이 맨 아가미만. 따로 가지고 왔더라. 그 사람이.)

107053 @ 자리젓 땃젓 만들어 봤수파?(자리젓 땃젓 만들어 봤습니까?)

107053 #1 만들어 봤지.(만들어 봤지.)

107053 #2 땃젓이야 만들어 봤주.(땃젓이야 만들어 봤지.)

107053 @ 자리젓 만드는 방법은 어떻? 그 소금허고 자리양?(자리젓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그 소금하고 자리돔요?)

107053 #2 모르겠어, 난 땃 그릇에 마련해근에 경 땃 대 땃으로 비올 행은 안 담 그고 옛날 어른들 짐작상으로 혼텐 현 격으로 짐작상으로, 땃이든 자리든 그릇에 갖다 놓면은 소금 갖다 땃 쏘아 땃 영 젓어 보면은 아 요거민 간 맞음직허다 해근에 짐작상으로만 행 담앙 먹어나부난.(모르겠어, 난 땃 그릇에 마련해서 그렇게 몇 대 땃으로 비올 해서는 안 담그고 옛날 어른들 짐작상으로 한다고 하는 격으로 짐작상으로, 땃이든 자리돔이든 그릇에 갖다 놓으면 소금 갖다 넣어서 쏘아 넣어서 이렇게 저어 보면 아 요거면 간 맞음직하다 해서 짐작상으로만 해서 담가서 먹었었으니까.)

107053 #1 땃 말 자리영 땃로 사민 얼마 놓니까, 들르민 그 사름 다 곶아 줘.(땃 한 말 자리돔이랑 되로 사면 얼마 넣습니까, 물으면 그 사름 다 말해 줘.)

107053 @ 곶아 줘.(말해 줘.)

107053 #1 그 푸는 사람이 얼마 놓렌 행. 겐디 얼마 놓렌 현 거 다 아이 낳 현 게 맛이 좋고 얼마 노렌 현 거 놓민 짜더라고.(그 푸는 사람이 얼마 넣으라고 해서. 그런데 얼마 넣으라고 한 거 다 아니 넣어서 한 게 맛이 좋고 얼마 넣으라고 한 거 넣으면 짜더라고.)

107053 @ 짜.(짜.)

107053 #1 이녀 생각에도 그거 다 놓민 막 맨 소금만 뒤라, 히영케. 겐 흐끔 덜 놓민. 나 저 그건 나가 살 때지. 오래지 안헛지.(자기 생각에도 그거 다 넣으면 아주 맨 소금만 되겠어, 하얏게. 그래서 조금 덜 넣으면. 나 저 그건 내가 살 때지. 오래지 않았지.)

107053 @ 비늘 다 다듬영 소금만 놓민 꺾이짜?(비늘 다 다듬어서 소금만 넣으면 끝입니까?)

107053 #1 비닐 안 다듬앙 비닐채 해.(비늘 안 다듬어서 비늘채 해.)

107053 @ 비닐채?(비늘채?)

107053 #1 비닐채 해. 비닐 다듬젠 허민 하나하나 다 어떡 가르착 허멍 오래주 게.(비늘채 해. 비늘 다듬으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엇고 뒤집고 하면서 오래지.)

107053 #2 자리는.(자리돔은.)

107053 #1 오래곡.(오래고.)

107053 #2 자리젓 담그는 거는 다 비닐 다듬아 불어도 맛이 엇곡 물에 시쳐 불어도 맛이 없어. 그대로 해야 돼.(자리젓 담그는 거는 다 비늘 다듬어 버려도 맛이 없고 물에 씻어 버려도 맛이 없어. 그대로 해야 돼.)

107053 #1 다듬앙 허는 딴 허더라, 허는 딴.(다듬어서 하는 데는 하더라, 하는 데는.)

107053 #2 그대로 해야 돼어.(그대로 해야 돼.)

107053 #1 우린 다듬앙 안 해 뵈.(우린 다듬어서 안 해 뵈어.)

107053 @ 게른 거기에 형겅이영 잘 썬우지 았으믄 쉬 짜 불영 그런 것도 잇수게 예?(그럼 거기에 형겅이랑 잘 썬우지 았으면 쉬 슬어 버려서 그런 것도 잇지요?)

107053 #1 그런 거 잇어.(그런 거 잇어.)

107053 @ 게른 어떻게? 못 먹잖아?(그럼 어떻게? 못 먹잖아?)

107053 #2 멜치은 담가도, 담가근에 해도 바깥디 놔둬도 뛴디 자리젓만큼은 햇 빛 맞으면 안 돼어.(멜치젓은 담가도, 담가서 해도 밖에 놔둬도 되는데 자리젓만큼은 햇볕 맞으면 안 돼.)

107053 @ 고려 불어?(끓어 버려?)

107053 #2 냄새낭 못 먹어.(냄새나서 못 먹어.)

107053 #1 그 삼수세 잇지이.(그 환삼덩굴 잇지.)

107053 #2 그늘에 놔야 돼여.(그늘에 넣어야 돼.)

107053 #1 삼수세 허영 영 바깥디 들르민 쉬꼭리 안 다녀.(환삼덩굴 해서 이렇게 밖에 두르면 쉬꼭리 안 다녀.)

107053 #2 그건 예방법으로.(그건 예방법으로.)

107053 @ 삼수센 뭇과?(환삼덩굴은 뭇니까?)

107053 #2 이 책에 나왔더라. 그 삼수세엔 현 거.(이 책에 나왔더라. 그 환삼덩굴이라고 하는 거.)

107053 @ 아.(아.)

107053 #2 옛날 어른덜.(옛날 어른들.)

107053 #1 바짝바짝 손 부트는 게 있어. 부트민 아프고.(바짝바짝 손 붙는 게 있어. 붙으면 아프고.)

107053 #2 옛날부터 그 예방법으로 그거 둘러근에 그 쉬꼭리 아이 텅기게 그거 둘러나신디이 견디 필히 자리젓은 햇빛엔 놓민 못 먹는다고.(옛날부터 그 예방법으로 그거 둘러서 그 쉬꼭리 안 다니게 그거 둘러졌었는데 그런데 필히 자리젓은 햇빛엔 놓으면 못 먹는다고.)

107053 @ 뭇젓은 켜찮은데?(뭇치젓은 켜찮은데?)

107053 #1 응, 그늘에 놔야 돼.(응, 그늘에 놔야 돼.)

107053 @ 신기하다예. 것도 다 어른한테 배운 거 아니예?(신기하네요. 것도 다 어른한테 배운 거 아니요?)

107053 #2 아니, 나 어릴 때 우리 웨가가 한림이난, 한림에 웨가에 일 년에 한번, 두 번 가주게. 멀어 부난. 한두 번, 나가 못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 초승뒸민 세배 가젠 허민 큰년아 꺾치 글렌 행 가고 영행 가민 우리 할무니가, 웨할머니가 손맛이 경 좋아근에.(아니, 나 어릴 때 우리 외가가 한림이니까, 한림에 외가에 일 년에 한 번, 두 번 가지. 멀어 버리니까. 한두 번, 내가 못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 초승 되면 세배 가려고 하면 큰딸아 같이 가자고 해서 가고 이래서 가면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손맛이 그렇게 좋아서.)

107053 #1 선돌⁴⁰⁰ 아니, 선돌?('선돌' 아니, '선돌'?)

107053 #2 선돌 살단 한림⁴⁰¹ 강 살았저게.('선돌' 살다가 한림 가서 살았어.)

107053 #1 아.(아.)

107053 #2 나 어린 때 선돌에 살안에 선돌에서 우리 저 큰하르부지 돌아강 상치를 때꺾장 나가, 그때 아메도 땃 설에 가져난 거 다했어. 막 우리 웨하르부지가 도청에 근무해나난 막 만서가 그냥, 옛날엔 그 부주가, 동네 어른덜 부주가 흥뽀 친허민 만서로 들어갔잖아게.(내가 어렸을 때 '선돌'에 살고 '선돌'에서 우리 저 큰할아버지 돌아가서 상치를 때까지 내가, 그때 아무래도 한 땃 살에 갔었던 거 같아. 아주 우리 외할아버지가 도청에 근무했었으니까 아주 만장이 그냥, 옛날엔 그 부조가, 동네 어른들 부조가 조금 친하면 만장으로 들어갔잖아.)

107053 #1 으, 으.(으, 으.)

107053 #2 만서가 그냥 문바깳디 스뭇 꺾득이 걸영, 조문꾼덜 처난 거 나가 눈에

400) '선돌'은 한림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401)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를 말한다.

선하여.(만장이 그냥 문밖에 사뭇 가득히 걸어서, 조문꾼들 찼던 거 내가 눈에 선해.)

107053 #1 에이구.(어이구.)

107053 #2 경험 헤영 헤신디 한림을 이사 간 허난 한림 간 헤영 흐뭇 열세너 설행 영 강 보른 우리 웨할무니가 고평으로 가근에 그 자리젓을, 그릇 아정 강 보시씩 거러 오더라고. 무사 저 뒤에 장독은 내불어 텅, 장독은 있는데 장독은 있는데. 어린 때 생각에도 무사 할머니가 자리젓을 저 고평에만 강 낫당 정 퍼 완신고 헛어게이. 겐 이제 켜 보니까 그 자리젓은 햇빛에 낡 안 되니까 경 고평에 낫다는 거라게.(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림을 이사 가서 하니까 한림 가서 해서 조금 열세네 살 돼서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외할머니가 고평으로 가서 그 자리젓을, 그릇 가지고 가서 한 보시기씩 떠 오더라고. 왜 저 뒤에 장독은 내버려 두고, 장독은 있는데 장독은 있는데. 어렸을 때 생각에도 왜 할머니가 자리젓을 저 고평에만 가서 낫다가 저렇게 퍼 오는가 했어. 그래서 이제 커서 보니까 그 자리젓은 햇빛에 낡아 안 되니까 그렇게 고평에 낫다는 거야.)

107053 #2 흐흐.(흐흐.)

107054 @ 똑똑허다예. 게문 그 자리젓이나 멜젓을 출레엔 헛수파? 출레가 뭘 파?(똑똑하네요. 그럼 그 자리젓이나 멀치젓을 ‘출레’라고 했습니까? ‘출레’가 뭘니까?)

107054 #1 맞아.(맞아.)

107054 #2 출레⁴⁰²⁾엔 헤.(‘출레’라고 헤.)

107054 #1 출레 가져오라.(‘출레’ 가져와라.)

107054 @ 반찬을 출레 현 거?(반찬을 ‘출레’ 한 거?)

107054 #1 반찬 가져오라 허는 말을 출레 가져오라.(반찬 가져오라 하는 말을 ‘출레’ 가져와라.)

107054 #2 으.(으.)

107054 @ 마농지도 출레고?(마늘장아찌도 ‘출레’이고?)

107054 #2 으.(으.)

107054 @ 젓갈도 출레고?(젓갈도 ‘출레’이고?)

107054 #2 으. 밥에 먹는 반찬 같은데?(으. 밥에 먹는 반찬 같은데?)

107054 #1 출레엔 허민 다 들어간 거.(‘출레’라고 하면 다 들어간 거.)

107054 #2 다 들어간 거. 다 통허는 거, 출레. 반찬이엔 안 행 출레.(다 들어간 거. 다 통하는 거, ‘출레’. 반찬이라고 안 하고 ‘출레’.)

107054 @ 반찬이라는 게 젓갈허고 또 마농지허고 또 뭘 잇수파, 김치?(반찬이라는 게 젓갈하고 또 마늘장아찌하고 또 뭘 있습니까, 김치?)

107054 #2 김치. 거벳기 더 잇어게?(김치. 거밖에 더 있어?)

107054 #1 그때는이 무슨 찌개 끓일 거 몰라. 끓영 먹는 걸 몰라.(그때는 무슨

402) ‘출레’는 밥과 곁들어 먹는 장, 젓갈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찌개 끓일 거 몰라. 끓여서 먹는 걸 몰라.)

107054 @ 땀찢, 자리젓 해근에 쿠싱허게 잘 담강 먹엇수파? 실패헌 적은 엇어?
(땀치젓, 자리젓 해서 구수하게 잘 담가서 먹엇습니까? 실패한 적은 없어?)

107054 #2 실패헌 적은 없어.(실패한 적은 없어.)

107054 #1 그것만 낵 먹는 집이도 잘사는 집이라. 젓갈만.(그것만 놔서 먹는 집도 잘사는 집이야. 젓갈만.)

107054 @ 쉬프리 싸 불영 막 난감헌 적은 엇엇수파?(쉬파리 슬어 버려서 아주 난감한 적은 없엇습니까?)

107054 #2 엇어. 건 관리허기 나름이지. 관리를 잘허면은.(없어. 건 관리하기 나름이지. 관리를 잘하면.)

107054 @ 거기에는 광목으로 뭘 고무줄로 딱?(거기에는 광목으로 뭘 고무줄로 딱?)

107054 #2 으, 으.(으, 으.)

107054 @ 뭘 헛지예?(뭘 했지요?)

107054 #2 으, 경허영 허여. 안 허민 안 돼.(으, 그렇게 해, 안 하면 안 돼.)

107054 #1 우리 할머니 세계에 고무줄 나시카?(우리 할머니 세계에 고무줄 났을 까?)

107054 #2 어?(어?)

107054 #1 우리 할무니 실 때 고무줄도 엇엇지.(우리 할머니 있을 때 고무줄도 없엇지.)

107054 #2 무슨 끄네기로 무꺼실 거여.(무슨 끈으로 묶었을 거야.)

107054 #1 그래.(그래.)

107054 #2 고무줄이 어딴나게?(고무줄이 어딴어?)

107054 @ 게믄 향아리, 큰 거를 향아리, 향이렌 허고 작은 건 망데기?(그럼 향아리, 큰 거를 향아리, ‘향’이라고 하고 작은 건 ‘망데기’?)

107054 #1 으.(으.)

107054 @ 게민 젓같은 어느 정도 담갔수파?(그럼 젓같은 어느 정도 담갔습니까?)

107054 #1 망데기⁴⁰³에 허지.(‘망데기’에 하지.)

107054 #2 망데기에 허지, 망데기에.(‘망데기’에 하지, ‘망데기’에.)

107054 @ 요만헌 거?(요만한 거?)

107054 #2 으, 요만헌 거.(으, 요만한 거.)

107054 @ 그런 건 어디서 사당은에 켜수파?(그런 건 어디서 사다가 켜습니까?)

107054 #2 향아리 만들양 구워 냉 폭는 디가 잇주게. 굴뚝⁴⁰⁴이라고.(향아리 만 들어서 구워 내서 파는 데가 있지. ‘굴뚝’이라고.)

403)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웅기를 말한다.

404) ‘굴뚝’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웅기를 굽는 굴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뚝’이라고도 한다.

107054 #1 대정⁴⁰⁵도 있고이 광령⁴⁰⁶도 있고이.(대정도 있고 광령도 있고.)

107054 #2 광령 밑에 동네가 굴밭이엔 현 동네가 있어. 그런 것만 주로 해난 동네가.(광령 밑에 동네가 ‘굴밭’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 그런 것만 주로 했던 동네가.)

107054 #1 저동에 황세왓⁴⁰⁷도 있고이.(저동에 ‘황세왓’도 있고.)

107054 @ 황세왓.(‘황세왓’.)

107054 #2 겐디 어디 그릇이 알아주느냐 허민 이 광령 밑에 굴밭에 그릇이 알아줘.(그런데 어디 그릇이 알아주느냐 하면 이 광령 밑에 ‘굴밭’의 그릇이 알아줘.)

107054 @ 광령 굴밭 그릇이 알아줘.(광령 ‘굴밭’ 그릇이 알아줘.)

107054 #2 알따라면서도 모양도 좋고.(알따라면서도 모양도 좋고.)

107054 #1 광령에 굴동네⁴⁰⁸엔 현 디가 있어. 학교로, 학교 아래 쪽 내려가민. 광령초등학교 현 디 쪽 내려가민.(광령에 ‘굴동네’라고 하는 데가 있어. 학교로, 학교 아래 쪽 내려가면. 광령초등학교 하는 데 쪽 내려가면.)

107054 #2 굴밭이엔 현 디가.(‘굴밭’이라고 하는 데가.)

107054 @ 무수천 이신 디.(무수천 있는 데.)

107054 #1 굴왓⁴⁰⁹, 굴왓. 무수천⁴¹⁰ 더 저레 강.(‘굴왓’, ‘굴왓’. ‘무수천’ 더 저리 가서.)

107054 @ 굴왓?(‘굴왓’?)

107054 #1 그 동네 이름이 굴가름⁴¹¹이렌 해여.(그 동네 이름이 ‘굴가름’이라고 해.)

107054 @ 굴가름은?(‘굴가름’은?)

107054 #1 굴가름이엔 허민 그디 가민 굴 굽는 디라.(‘굴가름’이라고 하면 거기 가면 굴 굽는 데야.)

107054 @ 아.(아.)

107054 #2 그런 그릇 만들앙 구웁 내치는 디난 굴가름, 굴동네렌 해낫주게.(그런 그릇 만들어서 구워서 내치는 데니까 ‘굴가름’, ‘굴동네’라고 했었지.)

107054 @ 굴동네.(‘굴동네’.)

107054 #2 겐디 그디 그릇이 알아줘.(그런데 거기 그릇이 알아줘.)

107054 @ 아.(아.)

107054 #1 계법곡 곱곡이.(가볍고 곱고.)

107054 @ 아고야.(아이고.)

405) ‘대정’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을 말한다.

406) ‘광령’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를 말한다.

407) ‘황세왓’은 제주시 화북2동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408) ‘굴동네’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409) ‘굴왓’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웅기를 굽는 굴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밭’이라고도 한다.

410) ‘무수천’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천 이름이다.

411) ‘굴가름’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마을 이름의 하나다. 웅기를 굽는 굴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밭’, ‘굴왓’, ‘굴동네’라고도 한다.

107054 #1 대정 그릇은 막 둔탁하고이 뿐이 없어게.(대정 그릇은 아주 둔탁하고 멋이 없어.)

107054 @ 아, 겐디 그 광령은 동네의 거를 살리주 무사? 그런 사름덜이 다 어디가 붙어신고예?(아, 그런데 광령은 동네의 것을 살리지 왜?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가 버렸는지요?)

107054 #1 게메이.(글썸.)

107054 #2 옛날 어른덜 다 돌아가 불고. 그것도 누게 이어받앙 살리젠 노력을 해야 돼는다.(옛날 어른들 다 돌아가 버리고. 그것도 누구 이어받아서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7054 @ 구억⁴¹²⁾은 하르부지덜 사난예 막 문화재 뻬수게게. 광령은 경 유명헌 줄 나, 아무도.(구억은 할아버지들 사니까요 아주 문화재 뻬지요. 광령은 그렇게 유명한 줄 나, 아무도.)

107054 #1 구엄?(구엄?)

107054 @ 구억, 구억. 구억이라고 대정 동네.(구억, 구억. 구억이라고 대정 동네.)

107054 #1 대정은 살련?(대정은 살렸어?)

107054 @ 예, 살련.(예, 살렸어.)

107054 #1 아, 텔레비에 나와라.(아,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107054 #2 그거 텔레비에 나와라게.(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107054 @ 거기만 지금 살련.(거기만 지금 살렸어.)

107054 #2 게메게, 그 동네 사름덜이 경.(글썸,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107054 #1 자기네 하르부지 헤낫덴 허멍 손주가 험더라. 나완게.(자기네 할아버지 했었다고 하면서 손주가 하고 있더라. 나오더라.)

107054 @ 겐 그것도.(그래서 그것도.)

107054 #2 겐디 그 대정.(그런데 그 대정.)

107054 #1 허벅⁴¹³⁾도 만들암더라.(‘허벅’도 만들고 있더라.)

107054 #2 대정에서도 만들어 나온 그릇은, 나 생각인디 재료부터가 틀린 거 같애, 재료부터가 흙이.(대정에서도 만들어서 나온 그릇은, 내 생각인데 재료부터가 다른 거 같아, 재료부터가 흙이.)

107054 @ 흙이. 그 대정 흙으로 쓰주게.(흙이. 그 대정 흙으로 쓰지.)

107054 #1 대정 흙이 광령 흙만 못헌 생이라.(대정 흙이 광령 흙만 못한 모양이야.)

107054 #2 이 흙이.(이 흙이.)

107054 #1 흙이.(흙이.)

107054 #2 이 저 그릇 만드는 출흙이. 이건 출흙이라야 돼기 때문에.(이 저 그릇 만드는 찰흙이. 이건 찰흙이어야 되기 때문에.)

412) ‘구억’은 서귀포시 대정을 구억리를 말한다.

413)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107054 #1 광령 그릇이 잘도 좋양은에이 계북곡이 곱곡.(광령 그릇이 아주 좋아서 가볍고 곱고.)

107054 #2 모양도 좋곡. 대정 그릇에 장을 담아도 찜, 광령 그릇엔 장을 담아도 대정 그릇엔 장을 못 담아.(모양도 좋고. 대정 그릇에 장을 담가도 찜, 광령 그릇에는 장을 담가도 대정 그릇에는 장을 못 담가.)

107054 @ 어머니, 좀 알아봐야켜예.(어머니, 좀 알아봐야겠어요.)

107054 #1 우리 스춘네도.(우리 사춘네도.)

107054 @ 이미 돌아가실 거라.(이미 돌아갔을 거야.)

107054 #1 ○○이 어명이영 그때 ㄱ치 강 줄씩 앓아근에 팔아. 줄로 사민 싸.(○○이 어머니랑 그때 같이 가서 한 줄씩 가져서 팔아. 줄로 사면 싸.)

107054 #2 싸주게.(싸지.)

107054 #1 겐 줄 헤여근에 형님이영 나영 갈랑 왔어. 겐디 큰 건 그디 쥐 불곡.(그래서 한 줄 해서 형님이랑 나랑 갈라서 왔어. 그런데 큰 건 거기 쥐 버리고.)

107054 @ 거 정 오젠 허민 여자가 정 와. 너무 큰 거?(거 저서 오려고 하면 여자가 지고 와. 너무 큰 거?)

107054 #1 두 개.(두 개.)

107054 #2 꼬네기 허여근에 다 이어근에 무꺼근에 짐으로 만들야.(끈 해서 다 이어서 묶어서 짐으로 만들어.)

107054 #1 두 개 낱.(두 개 놔서.)

107054 @ 그 사름덜이 저다 주지도 안허고?(그 사람들이 저다 주지도 않고?)

107054 #2 무꺼 낱 정 가렌 안 저다 줘.(묶어 놓고 지고 가라고 안 저다 줘.)

107054 @ 여자가 정 와?(여자가 지고 와?)

107054 #1 나 이제 그때 산 거 그냥 있어.(나 이제 그때 산 거 그냥 있어.)

107054 @ 있어마씨? 광령 향아리가 지금도 있어?(있어요? 광령 향아리 지금도 있어?)

107054 #2 나 있어.(나 있어.)

107054 @ 메께라. 거 사진 찍어야 돼쿠다. 거 오십 년 넘었겟다예 거의.(어머, 거 사진 찍어야 되겠습니다. 거 오십 년 넘었겠네요, 거의.)

107054 #2 아, 넘고말고.(아, 넘고말고.)

107054 @ 아이고, 삼춘이 정 온 거?(아이고, 삼춘이 지고 온 거?)

107054 #2 정 온 거.(지고 온 거.)

107054 @ 하하하.(하하하.)

107054 #2 향아리가 우리 허벽으로 물을 열, 열 허벽을 드는 향아리가 하난디 그것에 장을 담가신디 식구가 많다 보니까 족아게. 일 년을 먹다 보면은. 작으니까 향아릴 또 하나 사당 두 개에 담그젠 헌디 그때는 내중에 향아리 장서가 텅기지 안행. 처음엔 텅기니까 거 사신디. 내중에 텅기지 안행 나가 그 동네 사례 갓어. 사례 간 보난 다 사름덜이 밭에 나간 못 만난.(향아리가 우리 ‘허벽’으로 물을 열, 열 ‘허

백'을 드는 향아리가 하나인데 그것에 장을 담갔는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작아. 일년을 먹다 보면. 작으니까 향아리를 또 하나 사다가 두 개에 담그려고 했는데 그때는 나중에 향아리 장수가 다니지 않아서. 처음엔 다니니까 거 샀는데. 나중에 다니지 않아서 내가 그 동네 사러 갔어. 사러 가서 보니까 다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못 만났어.)

107054 #1 그 그릇 내는 날 가야 돼.(그 그릇 내는 날 가야 돼.)

107054 #2 어게, 곤전 들으라게.(어, 말하면 들어라.)

107054 #1 난 내는 날 장 사 왔어.(난 내는 날 가서 사 왔어.)

107054 #2 계난 난 딱 그 장 담을 향아리 하나만 사래 간 사름이난. 계난 그 불허는 사름덜은 내어 논 거 풀지 못허영 놔둔 것도 잊주게. 계난 그런 걸 사래 갖거든, 나는. 사래 가니까 막 돌아댱겨도 사름 엇언 허단 돌아댱기단 보난 한 사름 만나지는 거라. 아이고, 아주머니 장 덤을 향아리 싯결랑 하나 어디 풀아 줍센. 계난에 요 집이 가 봄서. 경행 이젠 가르쳐 쥘 간 보난 마침 사람 만나전게. 아이고, 영영 행 좇앙 왔수다게. 싯결랑 풀아 줍서 허명 허난에 저 나룩 담앙 놔두귀렌. 그 광령 아래 논밭 있는 사름덜은 나룩밧덜 잊주게. 나룩인가 산딘가 담앙 잇텐 고팡에. 계난 아이구 그거 비와 뒤근에 풀아 줍서. 막 스정을 헛어이. 계난 이제 비와 똥 풀아 주더라. 계난 어떻허여. 나가 아쉬웁 사래 간 사름, 드렌 현 대로 쫓주게. 드렌 현 양 드리куда 행 풀아 주난 그걸 전 왔다고.(그러니까 난 딱 그 장 담을 향아리 하나만 사러 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불 하는 사람들은 내어 놓은 거 팔지 못해서 놔둔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사러 갔거든, 나는. 사러 가니까 마구 돌아다녀도 사람 없어서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아주머니 장 담을 향아리 있거든 하나 어디 팔아 주세요. 그러니까 요 집에 가 보세요. 그래서 이젠 가르쳐 줘서 가서 보니까 마침 사람 만날 수 있었어.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찾아서 왔습니다. 있거든 팔아 주세요 하면서 하니까 저 벼 담아서 놔두었다고. 그 광령 아래 논밭 있는 사람들은 논들 있지. 벼인가 밭벼인가 담아서 있다고 고팡에.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부어 두고 팔아 주세요. 막 사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부어 두고 팔아 주더라. 그러니까 어떡해. 내가 아쉬워서 사러 간 사람, 달라고 하는 대로 쫓지. 달라고 하는 양 드리겠습니다 해서 팔아 주니까 그걸 지고 왔다고.)

107054 @ 계난 여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어왔다는 거?(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어왔다는 거?)

107054 #2 아이고, 한 시간 넘주게. 쉬멍 쉬멍 오난.(아이고, 한 시간 넘지. 쉬면서 쉬면서 오니까.)

107054 #1 거 어떻 정 왔나?(그거 어떻게 지고 왔냐?)

107054 #2 아이고, 계난 큰 향아리난에 오단 쉬고 오단 쉬고 허명 왔저게. 계난 그거 사단에 그 향 두 개에 멧 년 아이 덤앙 먹언 설러 불언. 이제 하나 잇어, 하나는 누게 줘 불고.(아이고, 그러니까 큰 향아리니까 오다가 쉬고 오다가 쉬고 하면서

왔어. 그러니까 그거 사다가 그 향아리 두 개에 몇 년 아니 담가서 먹고 없애 버렸어. 이제 하나 있어, 하나는 누구 줘 버리고.)

107054 @ 거 한번 사진 찍어야 돼쿠다.(거 한 번 사진 찍어야 되겠습니다.)

107054 #2 막 요전에 폴렌 탕겨도.(아주 요전에 팔라고 다녀도.)

107054 #1 난 이디 오명 저 그디 학교 우에 살아난 집털 들어가게 돼난 문밖 그 해영 푸는 사름이 저 흐뎡 서쪽에 살아난 그 사름 불리다근에 장항 해난 거. 쿵 닷 말 삶아근에 물 일곱 허벅 드는 거, 건 육지 향아리 시에 강 사 완. 아덜 들고 행이 니아까 아정 강 난 끄곡이 아덜은 밀리곡 행 완. 저 ○○네, ○○가 소개해 연. 서부두⁴¹⁴에 간, 서부두 앞펜이. 서부두 서쪽에. 겐 그 향아리 해근에 돈 십만원만 줘 아저 간. 명석 일곱 짚에. (난 여기 오면서 저 거기 학교 위에 살았던 집터를 들어가게 되니까 모두 그 해서 파는 사름이 저 조금 서쪽에 살았었으니까 그 사람 불리다가 장항 했던 거. 쿵 닷 말 삶아서 물 일곱 ‘허벅’ 드는 거, 건 육지 향아리 시에 가서 사 왔어. 아들 데리고 해서 리어카 가지고 가서 난 끌고 아들은 밀고 해서 왔어. 저 ○○네, ○○가 소개했어. 서부두에 가서, 서부두 앞편에. 서부두 서쪽에. 그래서 그 향아리 해서 돈 십만원만 주고 가지고 갔어. 명석 일곱 짚에.)

107054 #2 아, 그때 막 폴렌 탕겨도 난 아이 폴안.(아, 그때 마구 팔라고 다녀도 난 안 팔았어.)

107054 #1 오게 돼난 어떻허여게.(오게 되니까 어떡해.)

107054 #2 맞다게, 경허난.(맞다, 그러니까.)

107054 #1 그거 하나만 해도, 그거 명석만 해도.(그거 하나만 해도, 그거 명석만 해도.)

107054 #2 우리 가 분 딸이 명석이고 향아리고 일절 풀지 말앙 놔둡센. 나 이다음에 나가 사용허크메 풀지 말앙 놔둡서 헨 아이 풀앗주게. 아이 풀앗단 가이 가 분 후제.(우리 가 버린 딸이 명석이고 향아리고 일절 팔지 말고 놔두라고. 나 이다음에 내가 사용하겠으니 팔지 말고 놔두라고 해서 안 팔았지. 안 팔았다가 개 가 버린 후에.)

107054 #1 아니, 는 그 창고가 그냥 살게 돼난 확확 못 풀지게.(아니, 넌 그 창고가 그냥 살게 되니까 확확 못 팔지.)

107054 #2 으, 창고도 싣고.(으, 창고도 있고.)

107054 #1 창고 비웁게 돼민 헐 수 엇주게.(창고 비우게 되면 할 수 없지.)

107054 #2 창고도 싣고 하도 그릇도 귀허게 장만해 놓난이 아깝기도 허고게. 겐 디 향아리 하나는 저 우리 딸 가 분 후에, 우리 딸 산 때 하도 잘해 줘난 사름 잇어게. 그 사름이 이제 장을 돕는 법을 배와근에 해 보쿠텐 헨에 장 돕는 향아릴 못구행 막 허난 나 인정으로 왕 아저 갑센 행 하나 줘 불엇주게.(창고도 있고 하도 그릇도 귀하게 장만해 놓으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향아리 하나는 저 우리 딸 가 버린 후에, 우리 딸 살았을 때 하도 잘해 줘던 사름 있어. 그 사름이 이제 장을 담

414) ‘서부두’은 제주시 건입동 해변에 있는 방파제를 말한다.

그는 법을 배워서 해 보겠다고 해서 장 담그는 향아리를 못 구해서 마구 하니까 내가 인정으로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해서 하나 쥐 버렸지.)

107054 #1 그 사람도 그냥 내불엄실 거여.(그 사람도 그냥 내버리고 있을 거야.)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늘장아찌, 갯잎장아찌. 유렌 헵디다, 갯잎을 유렌 헵니까?(장아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늘장아찌, 갯잎장아찌, ‘유’라고 헵디다, 갯잎을 ‘유’라고 헵니까?)

107055 #1 어, 어.(어, 어.)

107055 @ 양젓간, 양젓간으로 장아찌 헵니까, 옛날에도?(양하, 양하로 장아찌 헵니까, 옛날에도?)

107055 #1 옛날에 양젓간지 맛있어.(옛날에 양하장아찌 맛있어.)

107055 @ 옛날에도?(옛날에도?)

107055 #1 으.(으.)

107055 #2 옛날에도 지 담양 먹었주.(옛날에도 장아찌 담가서 먹었지.)

107055 #1 갯잎은 별로 안 헵디 양에는 잘했어. 우리도 양에는.(갯잎은 별로 안 했는데 양하는 잘했어. 우리도 양하는.)

107055 @ 몸으로도 장아찌 담급니까?(모자반으로도 장아찌 담급니까?)

107055 #1 아니.(아니.)

107055 @ 그건 아니?(그건 아니?)

107055 #2 옛날 저 갯잎장아찌는 어떻게 담갔는가 하면 갯잎을 담근 게 아니고 껌 열매.(옛날 저 갯잎장아찌는 어떻게 담갔는가 하면 갯잎을 담근 게 아니고 껌 열매.)

107055 @ 열매.(열매.)

107055 #1 뽕뽕뽕 씹는 거.(뽕뽕뽕 씹는 거.)

107055 @ 예.(예.)

107055 #2 열매 스몹 읍지 안헵 때에. 뽕뽕뽕 씹는 맛 이실 때에.(열매 사몹 여물지 않은 때에. 뽕뽕뽕 씹는 맛 있을 때에.)

107055 @ 옛날 헛수과, 거?(옛날 헛수과, 거?)

107055 #2 어. 그것만 해근에 그거 뜯아다근에 그것만 등강 먹어났주게.(어. 그것만 해서 그거 뜯어다가 그것만 담가서 먹었었지.)

107055 #1 꼭지 툭툭 타단.(꼭지 툭툭 따다가.)

107055 #2 응, 지로.(으, 장아찌로.)

107055 #1 꼭지로, 꼭지.(꼭지로, 꼭지.)

107055 #2 열매, 그것만.(열매, 그것만.)

107055 @ 양젓간도 허고예?(양하도 하고요?)

107055 #2 양젓간은 옛날부터.(양하는 옛날부터.)

107055 @ 삶양 무쳐 먹는 게 아니고 장아찌로 허여?(삶아서 무쳐 먹는 게 아니고 장아찌로 해?)

107055 #1 지 허른 오래오래 먹주게.(장아찌 하면 오래오래 먹지.)

107055 #2 막 오래 먹어져.(마구 오래 먹을 수 있어.)

107055 #1 오래 먹어. 삶양 무친 것사 임시만.(오래 먹어. 삶아서 무친 것이야 임시만.)

107056 @ 마농 도레기⁴¹⁵만도 허고, 마농 줄기도 허고. 마농지가.(마늘 ‘도레기’ 만도 하고, 마늘 줄기도 하고. 마늘장아찌가.)

107056 #2 으.(으.)

107056 @ 줄기 연혈 때 허는 거잖아예?(줄기 연할 때 하는 거잖아요?)

107056 #2 으, 으.(으, 으.)

107056 @ 껌데기도 막 뱃경 먹고.(껌데기도 마구 뱃겨서 먹고.)

107056 #2 거 뿌리로만 허는 건 몰라. 이제사 행 먹어 건. 옛날엔 대 지만 행 먹고.(거 뿌리로만 하는 건 몰라. 이제야 해서 먹어 건. 옛날에는 대 장아찌만 해서 먹고.)

107056 #1 이제사 허여.(이제야 해.)

107056 #2 옛날엔 대 지만 행 먹언.(옛날에는 대 장아찌만 해서 먹었어.)

107056 @ 마농 도레기 그거는 더 맛 좋잔아예?(마늘 ‘도레기’ 그거는 더 맛 좋잖아요?)

107056 #1 으.(으.)

107056 @ 겨난 막 친구들이영 놀 때 막 그런 거 가정 장 그런 것도 해놔수파?(그러니까 마구 친구들이랑 놀 때 마구 그런 거 가지고 가서 그런 것도 했었습니까?)

107056 #2 옛날엔 그 뿌리만. 뿌리 부튼 거. 여자덜토 그건 경. 어머니 엇으민 몰래.(옛날에는 그 뿌리만. 뿌리 붙은 거. 여자들도 그건 그렇게. 어머니 없으면 몰래.)

10705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7056 #1 옛날엔 먹을 거 엇으난.(옛날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107056 #2 먹을 게 없으니까.(먹을 게 없으니까.)

107056 #1 마농질 앓아근에 사탕ㄱ치 가정 먹엇텐 허난.(마늘장아찌 가져다가 사탕같이 가지고 먹었다고 하니까.)

107056 @ 게난 경 곱읍디다.(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디다.)

107056 #1 쪽쪽 빨아 먹으멍 짹짹한 거. 경헤근에 이빨로 짹짹. 그걸 과자ㄱ치룩 아정 텅기멍 먹어. 게민 어른덜이 자인 저거 밥 먹을 때 먹을 거 앓앙 텅기멍 먹엄 구나이. 영 허멍 어른덜이.(쪽쪽 빨아 먹으면서 짜디짹한 거. 그래서 이빨로 짹짹. 그

415) ‘도레기’는 열매 따위가 둥근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마농 도레기’는 모양이 둥근 마늘 뿌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걸 과자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 그럼 어른들이 채는 저거 밥 먹을 때 먹을 거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이.)

107056 @ 그른 여기는 마농을 안 가난 어떻 사당?(그럼 여기는 마늘을 안 가니까 어떻게 사다가?)

107056 #1 이녀 우녕팻디 먹을 만썩은 다 심어.(자기 터알에 먹을 만썩은 다 심어.)

107056 #2 이녀 먹을 만썩.(자기 먹을 만썩.)

107056 #1 먹을 만썩은 심어.(먹을 만썩은 심어.)

107056 @ 심어.(심어.)

107056 #1 사당은 안 해. 그냥 씨도 이녀이 허곡 지 허는 거나 그냥 솥앙 먹는 거나 다 이녀 먹을 만썩은 허지. 쪼끔 낮게 헌 딴 나뉘 엇인 사름 주기도 하고.(사다가는 안 해. 그냥 씨도 자기가 하고 장아찌 하는 거나 그냥 삶아서 먹는 거나 다 자기 먹을 만썩은 하지. 조금 낮게 한 데는 나뉘서 없는 사름 주기도 하고.)

107056 @ 이것도 망데기에 담가?(이것도 ‘망데기’에 담가?)

107056 #1 망데기⁴¹⁶에.(‘망데기’에.)

107056 @ 그건 웬장 만든 그 간장으로 헌다는 거지예?(그건 된장 만든 그 간장으로 한다는 거지요?)

107056 #2 응, 것도 망데기로 하나 담아.(응, 것도 ‘망데기’로 하나 담고.)

107056 @ 식초 넣고 이런 건 안 허고?(식초 넣고 이런 건 안 하고?)

107056 #1 것도 아니 허고 그냥 간장만 딱 놓았다근에 몸 죽으면, 몸 죽으면 영바구니에 넣은에 그 간장 툇랑 두 번만 끌여 불면 두 번썩만. 혼 번 헛당 열흘 시민 딱시 어머니은 경허드라고. 경허민 하나토 안 시어. 흐끔 짜긴 짜지.(것도 안 하고 그냥 간장만 딱 놓었다가 모자반 죽으면, 모자반 죽으면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서 그 간장 따라서 두 번만 끓여 버리면 두 번썩만. 한 번 했다가 한 열흘 있으면 다시 어머니은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나도 안 시어. 조금 짜긴 짜지.)

107056 #2 짜긴 짜도 변허질 안허여.(짜긴 짜도 변하질 않아.)

107056 #1 간장만 행 두 번이나 끌렁 놔 가민.(간장만 해서 두 번이나 끓여서 넣어 가면.)

107056 #2 바깳디 장독대 놔도 변허지 안허여.(밖에 장독대 놔도 변하지 않아.)

107056 #1 건 바깳디 놔. 그늘에도 안 놓고 그냥.(건 밖에 놔. 그늘에도 안 놓고 그냥.)

107056 @ 끓인 거를 마농지에 담아?(끓인 거를 마늘장아찌에 담아?)

107056 #1 으.(으.)

107056 @ 생마농에 그냥? 식형?(생마늘에 그냥? 식혀서?)

107056 #1 식형.(식혀서.)

107056 @ 식형예.(식혀서요.)

416)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107056 #1 두 번을 끓여. 경해근에 무신건 문들락헌 해변 갓다근에 돌맹이를 좇어당 낫당게 걸로 그냥 지둘와게.(두 번을 끓여. 그래서 무슨 매끈한 해변 갓다가 돌맹이를 주어다가 낫다가 거로 그냥 지질러.)

107056 @ 먹돌, 먹돌.(‘먹돌’, ‘먹돌’.)

107056 #1 응, 우틀로 안 올라오게. 경해근에 그냥 장독 밑에 낡 앓앙 먹어도, 원 안 싸매도 버랭이도 하나토 안 일고이.(응, 위로 안 올라오게. 그래서 그냥 장독 밑에 놔서 가지고 먹어도, 원 안 싸매도 벌레도 하나도 안 일고.)

107056 @ 버랭이 안 일주만은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벌레 안 일지만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

107056 #1 곰팡이도 짜니까.(곰팡이도 짜니까.)

107056 #2 곰팡이도 짜난 안 피어. 경허고 세 번이나 끓리꼭 허문.(곰팡이도 짜니까 안 피어. 그리고 세 번이나 끓이고 하면.)

107056 #1 짜난, 짜난.(짜니까, 짜니까.)

107056 @ 아, 대단허다예.(아, 대단하네요.)

107056 #1 겐 밥 먹을 때 지를 많이 먹긴 먹어.(그래서 밥 먹을 때 장아찌를 많이 먹긴 먹어.)

107057 @ 회 종류는 새끼훼여, 자리훼여, 방어훼여 우리 할머니고 보면 새끼훼 폴레 오는 사람이 있어.(회 종류는 ‘새끼훼’야, 자리돔회야, 방어회야 우리 할머니고 보면 ‘새끼훼’ 팔러 오는 사람이 있어.)

107057 #1 새끼훼⁴¹⁷⁾?(‘새끼훼’?)

107057 @ 으. 그 송아지, 소 새끼.(으. 그 송아지, 소 새끼.)

107057 #1 으.(으.)

107057 @ 저 새끼훼렌 해근에 뱃속에 잇었던 새끼 그거.(저 ‘새끼훼’라고 해서 뱃속에 있었던 새끼 그거.)

107057 #1 그거 허는 사람이 어디 경.(그거 하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107057 @ 도새긴가? 도새기 새긴가 뱃속에 잇었던 거?(돼지인가? 돼지 새끼인가 뱃속에 있었던 거?)

107057 #1 그거 폴레도 탕기나?(그거 팔러도 다니냐?)

107057 #2 게메, 폴레 탕긴 말 처음 들어신디.(글쎄, 팔러 다니는 말 처음 들었는데.)

107057 #1 이딘 그런 디 엇어.(여긴 그런 데 없어.)

107057 @ 겐 그거 막 다져근에.(그래서 그거 마구 다져서.)

107057 #1 도새기 새끼훼를 행 먹으민 제일 좋덴 행 먹으민 막 오장이 시원헌덴 말은 해. 경헌디 그거는.(돼지 ‘새끼훼’를 해서 먹으면 제일 좋다고 해서 먹으면 아주 오장이 시원하다는 말은 해. 그런데 그거는.)

107057 @ 우리 할무니 먹읍디다예.(우리 할머니 먹습디다.)

417) ‘새끼훼’는 돼지의 태반 속의 새끼 돼지로 만든 회를 말한다.

107057 #1 웬만한 사름은 못 해. 남자덜이나 허주. 나도 이 아방 아판 도새기 새끼 사 오렌 허민 동문시장⁴¹⁸⁾ 강 그 사름이 해 줘. 나 해 도렌 해. 해만 주민 집이 왕 양념은 나가 해.(웬만한 사름은 못 해. 남자들이나 하지. 나도 이 아버지 아파서 돼지 새끼 사 오라고 하면 동문시장 가서 그 사람이 해 줘. 나 해 달라고 해. 해서만 주면 집에 와서 양념은 내가 해.)

107057 @ 양념은 뭐, 식초 넣고?(양념은 뭐 식초 넣고?)

107057 #1 식초 넣고 그 사름이 다 곁아 줘. 다 곁아 쥔 곁은 대로 행 먹는다 이 녀냥으로 그거, 것도 목숨 닮은 거지. 못 찢라, 못 해. 다 해 줘 거기서. 딱딱딱 해근에 비니루에 싸 줘. 나도 걸 몇 번 사례 잤다 와신디.(식초 넣고 그 사람이 다 말해 줘. 다 말해 줘서 말한 대로 해서 먹는데 자기대로 그거, 것도 목숨 같은 거지. 못 찢라서, 못 해. 다 해 줘 거기서. 딱딱딱 해서 비닐에 싸 줘. 나도 걸 몇 번 사례 잤다가 왔는데.)

107057 @ 몸에 좋덴 허는 건.(몸에 좋다고 하는 건.)

107057 #2 난 옛날에 혼 번 먹어 봤어.(난 옛날에 한 번 먹어 봤어.)

107057 #1 자꾸 사례 가 놓난.(자꾸 사례 가 놓으니까.)

107057 @ 산도록허텐은 험디다.(‘산도록하다’고는 함디다.)

107057 #2 먹영 속이 시원.(먹어서 속이 시원.)

107057 #1 오장이 씨원허텐 허드라고 막.(오장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 아주.)

107057 #2 아, 오장 씨원헌 거 맞아. 나가 먹어 봤거든.(아, 오장 시원한 거 맞아. 내가 먹어 봤거든.)

107057 #1 도새기 새기훤 먹으면 오장이 시원헌텐 말은 해. 나도 먹어 보진 안허연.(돼지 ‘새기훤’ 먹으면 오장이 시원하다는 말은 해. 나도 먹어 보지는 않았어.)

107057 #2 시원허여, 잘도 시원허여.(시원해, 아주 시원해.)

107057 #1 아방은 술 자시곡 허니까 걸 잘 먹영 허는디.(아버지는 술 자시고 하니까 걸 잘 먹고 하는데.)

107057 #2 잘도 시원허여. 난 번 먹어 봤거든.(아주 시원해. 난 한 번 먹어 봤거든.)

107057 #1 경 곤더라. 도새기 새끼 먹으면 오장이 씨원허텐 경 곤드라.(그렇게 말하더라. 돼지 새끼 먹으면 오장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107057 #2 으.(으.)

107057 #1 들음만 헨.(듣기만 했어.)

107057 #2 나가 아판 누워신디 아방⁴¹⁹⁾네 친목회덜 일 년에 한번 돼지 혼 마리 잡앙 회식허잖아게이. 게난 어떻 새끼 뺨 걸 잡았던 모양이라. 나가 아판 눈디 아방이 훤 보레 간노렌 허명 가더라. 가신디 이젠 한참 시난 이젠 완에 저 막 부엌에 강 막 무싱거 허여 탁탁탁탁, 부엌에 강 뭐 허지 안허는 어른인디이 나가 아판 누

418) ‘동문시장’은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시장 이름이다.

419)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워 불고, 아이덜 다 학교 가 불고 어리고 허난, 허연게만은 어이 저 사람 일어난 도 새기 새끼뽕 헤시메 흥뽕 먹어 봐 경허난. 일절 먹어 보도, 봐 보지도 안 헛주기. 계난 나도 좀 입이 까다로완게 아무거나 먹지 아녀는 사람이난 난 아이 먹켄 허난 혼 적만 먹어 보렌. 아이 나 죽어도 못 먹켄 헛어. 아 눈 딱 감앙 죽어도 못 먹켄 헛어. 죽어도 못 먹켄 허난 눈 딱 감앙 점만 입에 점만 먹어 보렌. 막 사름 심영 막 억지로 막 맥이는 거라.(내가 아파서 누웠는데 아버지네 친목회들 일 년에 한번 돼지 한 마리 잡아서 회식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새끼 뽕 걸 잡았던 모양이야. 내가 아파서 누웠는데 아버지 회 보러 간다고 하면서 가더라. 갔는데 이젠 한참 있으니까 이젠 와서 저 마구 부엌에 가서 마구 뽕 해 탁탁탁탁, 부엌에 가서 뽕 하지 않는 어른인데 내가 아파서 누워 버리고, 아이들 다 학교 가 버리고 어리고 하니까, 하더니만 어이 저 사람 일어나서 돼지 ‘새끼뽕’ 했으니까 조금 먹어 봐 그러니까. 일절 먹어 보지도, 봐 보지도 안 했지. 그러니까 나도 좀 입이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 사람이니까 난 안 먹겠다고 하니까 한 적만 먹어 보라고. 아이 나 죽어도 못 먹겠다고 했어. 아 눈 딱 감아서 죽어도 못 먹겠다고 했어. 죽어도 못 먹겠다고 하니까 눈 딱 감아서 한 점만 입에 한 점만 먹어 보라고. 마구 사람 잡고 마구 억지로 마구 먹이는 거야.)

107057 #1 경허주기. 뽕ㄴ치 생각헤 헝 와신디.(그랬지. 뽕같이 생각해서 해서 왔는데.)

107057 #2 계난 억지로 춤말로 입 영 허난에 비와 주난에 호록끼 들이싸 보난 진짜 가슴이 씨원헤 거라.(그러니까 억지로 참말로 입 이렇게 하니까 부어 주니까 호로록 들이켜 보니까 진짜 가슴이 시원한 거야.)

107057 #1 나 그 말 들언. 도새기 새끼뽕 먹으면 막.(나 그 말 들었어. 돼지 ‘새끼뽕’ 먹으면 아주.)

107057 #2 경헝 나 근때 먹언.(그래서 나 그때 먹었어.)

107057 #1 속이 시원헤덴 헐도 난.(속이 시원하다고 헐도 난.)

107057 #2 아이, 경허는 거란게.(아이, 그러는 거더라.)

107057 #1 먹어 보진 안헤.(먹어 보진 않았어.)

107057 #2 경헝 그때 번 아픈 때 경헝 뽕 먹어 보난 속이 씨원헤 게 그다음에 아방 돌아간 후에 한참 잇언에 우리 셋아방 집의 놀레 가난 우리 셋오라방이 어디 간게 한참 시난 와선게 동문시장에 간 새끼뽕 헐 걸 다 사 오고렌 허명 또 채소영 다 사 오고렌 허명 집안에 다 헐연에 먹읍센 허명 혼 사발 쥬 먹언 와났어.(그래서 그땐 한번 아팠을 때 그렇게 줘서 먹어 보니까 속이 시원한 게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한참 잇어서 우리 둘째아버지 집에 놀러 가니까 우리 둘째 오라버니가 어디 가더니 한참 있으니까 왔던데 동문시장에 가서 ‘새끼뽕’ 할 걸 다 사 왔다고 하면서 또 채소랑 다 사 왔다고 하면서 집안에 다 해서 먹으라고 하면서 한 사발 줘서 먹고 왔었어.)

107057 #1 그디선 이 콩개역도 줘. 콩개역 놓렌 헐.(거기선 이 콩미숫가루 넣으

라고 해.)

107057 #2 으.(으.)

107057 #1 콩개역 다 주더라고 거기서.(콩미숫가루 다 주더라고 거기서.)

107057 #2 으.(으.)

107057 #1 건 있어.(건 있어.)

107057 @ 콩개역은 뭐파? 개역은 보리미숫가루를 개역이엔?(콩미숫가루는 뭇니까? 미숫가루는 보리미숫가루를 ‘개역’이라고?)

107057 #1 그냥 콩 곱아근에이, 곱은 ㄱ를이.(그냥 콩 갈아서, 간 가루.)

107057 @ 콩ㄱ루 간 걸 콩개역이엔 험니까?(콩가루 간 걸 콩미숫가루라고 합니까?)

107057 #1 아니, 아니. 보깡 곱아근에 도새기 새끼 푼는 디서 주는 걸 나 아저완. 새끼휼에 놓렌, 콩개역을 순갈 놓렌.(아니, 아니. 볶아서 갈아서 돼지 새끼파는 데서 주는 걸 내가 가지고 왔어. ‘새끼휼’에 넣으라고, 콩미숫가루를 한 숟가락 넣으라고.)

107057 @ 콩으로 개역 하면 콩개역이 되는 거예?(콩으로 미숫가루 하면 콩미숫가루가 되는 거요?)

107057 #1 콩 보깡 곱앙. 게난 그냥 콩개역을 물에 탕 먹질 안허고. 게난 그 약, 약이지 도새기 새끼휼에 놓난.(콩 볶아서 갈아서. 그러니까 그냥 콩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먹질 앓고. 그러니까 그 약, 약이지 돼지 ‘새끼휼’에 넣으니까.)

107057 @ 아.(아.)

107057 #1 그거 약이주, 약.(그거 약이지, 약.)

107057 @ 우미채예?(우무채예?)

107057 #2 우미채엔 그거 필히 봐야 돼여.(우무채에는 그거 필히 넣어야 돼.)

107057 @ 우미에는 콩ㄱ루 논덴 헤여.(우무에는 콩가루 넣는다고 해.)

107057 #1 으, 콩ㄱ를.(으, 콩가루를.)

107057 #2 우미채엔 필히 그거 들어가야만 맛이 셔.(우무채에는 필히 그거 들어가야만 맛이 있어.)

107057 @ 우미채에 보리개역 봐도 돼지예?(우무채에 보리미숫가루 넣어도 되지요?)

107057 #2 보리개역도 팬찮아.(보리미숫가루도 팬찮아.)

107057 #1 보리개역보다 콩개역을 더. 쿠시니까.(보리미숫가루보다 콩미숫가루가 더. 구수하니까.)

107057 @ 고소허니까.(고소하니까.)

107057 #1 으, 고소헌 걸로.(으, 고소한 거로.)

107057 @ 요즘은 개역도 막 여러 가지 봐근에 험니까. 옛날엔 보리개역만 헛주만은.(요즘은 미숫가루도 아주 여러 가지 넣어서 하지요. 옛날에는 보리미숫가루만 헛지만.)

107057 #2 막 여러 가지 낱 허주게.(아주 여러 가지 넣어서 하지.)

107057 @ 찰쌀이여, 뭇여, 콩이여. 게문 자리회, 방어회 이런 건 잘 먹어 보지 안했지예?(찰쌀이야, 뭇야, 콩이야. 그럼 자리돔회, 방어회 이런 건 잘 먹어 보지 않았지요?)

107057 #1 자리웁 가끔 먹었주게.(자리돔회는 가끔 먹었지.)

107057 @ 자리웁.(자리돔회.)

107057 #1 자리회사 우린 모슬포⁴²⁰서 볼목리⁴²¹ 강은예.(자리돔회야 우리는 모슬포에서 보목동 가서.)

107057 @ 예.(예.)

107057 #1 이따만헌 사발에 하나씩. 우리 삼 년을 강 먹었어, 삼 년을. 친목웁난 게.(이만헌 사발에 하나씩. 우리 삼 년을 가서 먹었어, 삼 년을. 친목회니까.)

107057 @ 아주 옛날에. 건 보목에는 유명허니까.(아주 옛날에. 거 보목에는 유명하니까.)

107057 #1 아주 옛날에 아니, 몇 해 됐지. 이제 노인대학 야간 친목이니까. 일 년에 번 그디 가주게. 게난.(아주 옛날에 아니, 한 몇 해 됐지. 이제 노인대학 야간 친목이니까. 일 년에 한 번 거기 가지. 그러니까.)

107057 #2 옛날 먹어난 말 곱으렌 험이주.(옛날 먹었던 말 하라고 하는 거지.)

107057 @ 옛날 아주 옛날에?(옛날 아주 옛날에?)

107057 #1 아주 옛날엔 안 먹고.(아주 옛날엔 안 먹고.)

107057 #2 우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리 장수 와서든 상 헤여 주민 먹어났어.(우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리돔 장수 왔으면 사서 해 주면 먹었었어.)

107057 @ 자리물웁로 먹은 거예?(자리물회로 먹은 거요?)

107057 #2 으, 자리물웁로.(으, 자리물회로.)

107057 @ 그 맛이 어떻습디까, 어린 땡?(그 맛이 어떠합디까, 어렸을 땡?)

107057 #2 어린 때라도 맛 좋더라. 비늘만 거시려 가지고 장 많이 놔근에 칼로 막 다져.(어렸을 때에도 맛 좋더라. 비늘만 벗겨 가지고 장 많이 넣어서 칼로 마구 다져.)

107057 #1 경흐는 게 아니고이 우리 본 거는 이 영 일로 허영 가생이만 그차 텅 데맹인 부튼 낱 막 줌질게 그냥 영 영 허민 다지진 안허더라. 이빨에 막 씹어 먹어 지게.(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본 거는 이 이렇게 이리로 해서 끝만 잘라 두고 대가리는 붙은 대로 마구 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지진 않더라. 이빨에 마구 씹어서 먹을 수 있게.)

107057 #2 옛날엔 우리 어머니 다전 행게.(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는 다져서 하더라.)

107057 @ 아, 다져.(아, 다져.)

420) '모슬포'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를 말한다.

421) '볼목리'는 서귀포시 보목동을 말한다.

107057 #2 칼로 막 더맹이영 복삭 다전게. 영 뒤집으멍 칼로, 칼날로 영 뒤집어
놓멍 뒤집어 놓멍 막 다전.(칼로 마구 대가리랑 폭삭 다지더라. 이렇게 뒤집으면서
칼로, 칼날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서 뒤집어 놓으면서 마구 다졌어.)

107057 #1 우린 경 안 해.(우리는 그렇게 안 해.)

107057 @ 그냥 썰어. 써는디 연헌 거는 맛 좋은디 또 쉐 건예 가시가 씹어져.(그
냥 썰어. 써는데 연한 거는 맛 좋은데 또 쉐 건요 가시가 씹혀.)

107057 #2 게난 가시 뭐 었어.(그러니까 가시 뭐 없어.)

107057 @ 아.(아.)

107057 #2 막 다지니까. 경헐 다전 허연게.(마구 다지니까. 그렇게 다져서 하더
라.)

107057 #1 거 가시 삭는 거 뭐 놓지 안헐신가?(그 가시 삭는 거 뭐 놓지 않는
가?)

107057 @ 아니예, 그 자리가 유월달에 거리민 어려, 모슬포 자린 이만허고 쉐연
구워 먹는 거고.(아니요, 그 자리돔이 유월에 뜨면 어려, 모슬포 자리돔은 이만하고
세어서 구워 먹는 거고.)

107057 #2 어, 어. 모실포 자리허고 그디 자린 틀려.(어, 어. 모슬포 자리돔하고
거기 자리돔은 달라.)

107057 @ 보목은예, 유월달에 어릴 때 잘도 쉐그만헌디 신기하게도 걸 잘 썰민
이 뼈까지 다 녹고예.(보목은요, 유월에 어릴 때 잘도 자그마한데 신기하게도 걸 잘
썰면 뼈까지 다 녹고요.)

107057 #2 으, 뼈가 약허니까.(으, 뼈가 약하니까.)

107057 #1 올 때는 요만이 허영근에 하나에 만 원.(올 때는 요만큼 해서 하나에
만 원.)

107057 @ 올해는예 나오지도 안헐고.(올해는요 나오지도 않았고.)

107057 #2 올린 자리 잡히지 안헐젠.(올해 자리돔 잡히지 않았다고.)

107058 @ 게민 출레 중에 쉐 맛 좋은 출레가 뭐파?(그럼 ‘출레’ 중에 제일 맛 좋
은 ‘출레’가 뭡니까?)

107058 #1 우럭 조림이 맛좋암직허다. 우럭 잘도 고소해.(우럭 조림이 맛좋음직
하다. 우럭 아주 고소해.)

107058 @ 뭐 낱 지집니까?(뭐 넣어서 지집니까?)

107058 #1 쿵, 쿵. 쿵에 꿔예. 쿵도 넣고 꿔도 넣고.(쿵, 쿵. 쿵에 깨요. 쿵도 넣고
깨도 넣고.)

107058 @ 꿔도?(깨도?)

107058 #1 꿔도 해. 꿔 놓민, 그냥 꿔 통으로. 통으로 콩이영 허영 낱은에, 뚜껑
안 올라 뵙 지지민이 그 우럭이 좀 세잖아, 가시영. 푸근푸근푸근 해. 경헐 나 우리
어머니가 해 주난 먹어 뵙.(깨도 해. 깨 넣으면, 그냥 깨 통으로. 통으로 콩이랑 해
서 넣어서, 뚜껑 안 열어 보고 지지면 그 우럭이 좀 세잖아, 가시랑. 푸근푸근푸근

해. 그래서 나 우리 어머니가 해 주니까 먹어 봤어.)

107058 @ 삼촌은 안 해 보고?(삼촌은 안 해 보고?)

107058 #1 나도 해 봤, 그 봤당. 우럭이 질 쿠수해.(나도 해 봤어, 그 봤다가. 우럭이 제일 구수해.)

107058 @ 콩은 물에 불렀당?(콩은 물에 불렀다가?)

107058 #1 아니, 아니. 그냥 불리지 안해도 그냥 오래 보끄니까이 거기서 물 웃 두멍 따시 익어 가명 해근에 그냥 콩 봐도 돼. 경헨 해여 봤.(아니, 아니. 그냥 불리지 않아도 그냥 오래 볶으니까 거기서 물 올면서 다시 익어 가면서 해서 그냥 콩 넣어도 돼. 그렇게 해 봤어.)

107058 @ 웬장 만드는 콩예?(된장 만드는 콩요?)

107058 #1 어게. 웬장 만드는 콩. 것에 꿔에.(어. 된장 만드는 콩. 것에 깨에.)

107058 @ 고사린 식게 때만 무쳐 먹읍니까?(고사린 제사 때만 무쳐 먹읍니까?)

107058 #1 아니, 식게 때만 먹어도 지금은 다 그냥 먹으난.(아니, 제사 때만 먹어도 지금은 다 그냥 먹으니까.)

107058 @ 우럭 조림 말고 반찬으로는 뭐가 생각납수파? 마농지밖에 엇어?(우럭 조림 말고 반찬으로는 뭐가 생각납니까? 마늘장아찌밖에 없어?)

107058 #1 이제사 나장덜 메칠에 번씩 먹어 놓난 벨로 경 집이서. 마농지도 집집마다 담그지 안 햄실 걸.(이제야 나가서들 며칠에 한 번씩 먹어 놓으니까 별로 그렇게 집에서. 마늘장아찌도 집집마다 담그지 않을걸.)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1 장 담그는 건이 십일월 초 나민 콩 삶양. 콩 삶양은에 그 콩 삶은 게 메주가 몰라야주게.(장 담그는 건 십일월 초 되면 콩 삶아서. 콩 삶아서 그 콩 삶은 게 메주가 말라야지.)

107059 @ 장은 어떻 담읍니까?(장은 어떻게 담급니까?)

107059 #1 혼 들에 몰랑, 메주 몰르느냐?(한 달에 말라서, 메주 마르나?)

107059 #2 딱 덜 물렁 허메게. 덜 허민 흐뽀م 젓어 뵤민 사십 일, 사십 일. (딱 한 달 말려서 해. 한 달 하면 조금 젓어 보이면 사십일, 사십 일.)

107059 #1 경해도 거자 십일월덜에 장 담가이.(그래도 거의 십일월에 장 담가.)

107059 #2 으.(으.)

107059 십일월덜에.(십일월에.)

107060 @ 웬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세 가지 헛수과? 막장?(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세 가지 했습니까? 막장?)

107060 #2 웬장은 장 등가근에 또 혼 삼 개월 이시민 봄 나민 그거 메주 거저근에 찌른 웬장이 되는 거고.(된장은 장 담가서 또 한 삼 개월 있으면 봄 되면 그거 메주 건져서 찌면 된장이 되는 거고.)

107060 #1 막장이엔 현 건.(막장이라고 하는 건.)

107060 @ 봄에예.(봄에요.)

107060 #2 막장으로 허면은 장을 빼지 안허고.(막장으로 하면 장을 빼지 않고.)

107060 #1 간장 엇이.(간장 없이.)

107060 #2 간장 엇이.(간장 없이.)

107060 @ 그믐 삼촌네는 옛날에는 웬장으로 허고 지금은 또 막장으로 험니까? 간장 안 험니까?(그럼 삼촌네는 옛날에는 된장으로 하고 지금은 또 막장으로 합니까? 간장 안 합니까?)

107060 #2 간장 빼고 싶으면 간장 조금 빼고.(간장 빼고 싶으면 간장 조금 빼고.)

107060 #1 조금만.(조금만.)

107060 #2 경 아니 허믐 막장으로 그냥.(그렇게 안 하면 막장으로 그냥.)

107060 @ 지금도.(지금도.)

107060 #1 간장 하영 빼민 또, 간장 하영 뺀 것보다 간장 조금만 뺀 것이.(간장 많이 빼면 또, 간장 많이 뺀 것보다 간장 조금만 뺀 것이.)

107061 @ 지금도 사당 안 먹영 험수과?(지금도 사다가 안 먹고 하고 있습니까?)

107061 #1 웬장만.(된장만.)

107061 @ 웬장은 험수과?(된장은 하고 있습니까?)

107061 #1 으.(으.)

107061 @ 아.(아.)

107061 #1 아니, 흥번 허면 삼사 년 먹어.(아니, 한번 하면 한 삼사 년 먹어.)

107061 #2 흥 삼 년 먹주게.(한 삼 년 먹지.)

107061 @ 몸에 그렇게 좋덴 험디다, 만든 게.(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디다, 만든 것이.)

107061 #2 변허지 안허게 방부제덜 들어가기 때문에.(변하지 않게 방부제들 들어가기 때문에.)

107061 #1 난 그런 건 생각은 안 허고 콩이 조금씩 생기니까게. 텃밭 조금 허영 허난. 그거 허여근에 풀지도 못허고 죽으니까.(난 그런 건 생각은 안 하고 콩이 조금씩 생기니까. 텃밭 조금 해서 하니까. 그거 해서 팔지도 못하고 적으니까.)

107061 @ 허난 뭐가 이시난게.(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107061 #1 허여근에 흥 말쑼 허민.(해서 한 말쑼 하면.)

107061 @ 안 해부난 몰람수께.(안 하니까 모르지요.)

107061 #1 말 듬으면은 삼 년을 먹어.(한 말 담그면 삼 년을 먹어.)

107061 #2 삼 년 먹주게. 말 허믐게.(삼 년 먹지. 한 말 하면.)

107061 @ 변허지도 앓고.(변하지도 앓고.)

107061 #1 게믐 따시 혈 때 것만 아녀근에이 또 콩 삶으곡이, 저 오일장에 강, 밀 티왕, 밀 티와근에 ㄱ틀로 곶앙 흥 뻬박, 반 승 흥나 푸는 게 있어. 그거 하나 사당 서꺼근에 웬장을 쩍 놔뒤. 쩍 놔뒤근에.(그럼 다시 할 때 것만 안 하고 또 콩

삶고, 저 오일장에 가서, 밀 띄워서, 밀 띄워서 가루로 갈아서 한 되, 반 승 하나 파는 게 있어. 그거 하나 사다가 섞어서 된장을 찌서 놔둬. 찌서 놔둬서.)

107061 #2 경행 똥장이 막.(그래서 똥장이 마구.)

107061 #1 혼 십오 일만 이시면이 똥장이 그것이 우리낭 벌경게 맛있어. 콩 삶은 것도 그레 부청, 똥장에. 경허난 불어낭 삼 년 이상 먹어. 경행 아이덜토 쪼끔씩 주곡 해도, 곧 할 때는 아이덜 갈라 주곡 해도. 겐 다음에 그 자꾸, 나 세 번, 세 번을 콩을 삶양 놓안, 올리까지. 경현 똥 안 주곡게. 자꾸 놓니까. 처음 한 때만 줘.(한 십오 일만 있으면 똥장이 그것이 우리나서 벌경게 맛있어. 콩 삶은 것도 그리 붙여서, 똥장에. 그러니까 불어나서 삼 년 이상 먹어. 그래서 아이들도 쪼끔씩 주고 해도, 곧 할 때는 아이들 갈라 주고 해도. 그래서 다음에 그 자꾸, 나 세 번, 세 번을 콩을 삶아서 넣었어, 올해까지. 그럴 때는 안 주고. 자꾸 넣으니까. 처음 했을 때만 줘.)

107061 @ 옛날엔 고추장은 엇엇수과?(옛날에는 고추장은 없었습니까?)

107061 #2 고추장은 담강 먹게 경 고추도 많이 아니 갈곡게. 양념으로만 쪼끔씩 허난.(고추장은 담가서 먹게 그렇게 고추도 많이 안 갈고. 양념으로만 쪼끔씩 하나까.)

107061 #1 고추장을 혜영 먹는 사람은이 그 그 돈이 많이 들곡이, 어디 육지에 간 살단 온 사람은 담강 먹어. 게문 수군수군해. 저 예펜 **** 못 할 사람이엔. 촌에 살명 경 고추장 담그명 잘 먹엿텐 허는 식으로. 고추장은 자본이 많이 들주게. 다른 것보단.(고추장을 해서 먹는 사람은 그 그 돈이 많이 들고, 어디 육지에 가서 살다가 온 사람은 담가서 먹어. 그럼 수군수군해. 저 여편 **** 못 할 사람이라고. 촌에 살면서 그렇게 고추장 담그면서 잘 먹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고추장은 자본이 많이 들지. 다른 것보다.)

107061 @ 요즘은 모르크라,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넣고예.(요즘은 모르겠어,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넣고요.)

107061 #2 게난 육지 사람덜 제라허게 고추장 돕는 사람은 골가루 혜근에게.(그러니까 육지 사람들 온전하게 고추장 담그는 사람은 엇기름가루 해서.)

107061 @ 경허야주, 무슨 설탕허고 엇기름 처낭.(그래야지, 무슨 설탕하고 엇기름 처넣어서.)

107061 #1 고추장 돕양 놔두난 막 갓 켜게. 나 갓 쓰난 이거 어떻 할 중 몰라근에, 걸영 허기도 아까완 저 매실주 담갔당 거 막 그냥 풍풍 비왔어, 막. 우터레 올라오게. 막 비왕 놔두난이 혼 일주일 시난 혜영헌 갓 그것에 다 녹아 불영 엇어. 갓 엇어.(고추장 담가서 놔두니까 마구 골마지 켜어. 나 골마지 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걸어서 하기도 아까워서 저 매실주 담갔다가 거 마구 그냥 풍풍 부었어, 마구. 위로 올라오게. 마구 부어서 놔두니까 한 일주일 있으니까 하얗게 골마지 그것에 다 녹아 버려서 없어. 골마지 없어.)

107061 @ 갓 켜다는 말은 뭇과?('갓 켜다'는 말은 뭇니까?)

107061 #1 허영현 갓 나와이.(하얀 골마지 나와.)

107061 @ 곰팡이 닳은 거?(곰팡이 닳은 거.?)

107061 #1 곰팡이.(곰팡이.)

107061 @ 아.(아.)

107061 #1 혼 일주일 시난이 그 매실 엑기스 풍풍 비완 놔두난, 막 우터레 올라 오게 비왔주게. 거 걷어 가민 고추장은 막.(한 일주일 있으니까 그 매실 엑기스 풍 풍 부어서 놔두니까, 마구 위로 올라오게 부었지. 거 걷어 가면 고추장은 마구.)

107061 #2 그치.(그렇지.)

107061 #1 그냥 몰르고 알고, 듣지도 아니 허고 막. 근근이 비와서. 근근이 통차 아정 강.(그냥 몰르고 알고, 듣지도 았고 마구. 근근하게 부어서. 근근하게 통째 가지고 가서.)

107061 #2 게난 그제 사라전.(그러니까 그제 사라졌어.)

107061 #1 엇어 이제. 이제 갓 엇어, 하나토 엇어. 흰 거.(없어 이제. 이제 골마지 없어, 하나도 없어. 흰 거.)

107061 @ 웬장 하고예, 그제 그렇게 종텐.(된장 하고요, 그제 그렇게 종다고.)

107061 #1 게난 흐뎡 들긴 헐 거여. 거 놓난.(그러니까 조금 달긴 할 거야. 거 넣으니까.)

107061 @ 너무 단 것덜 안 좋아부난예.(너무 단 것들 안 좋으니까요.)

107061 #2 설탕을 놓지 말고 엇기름 만들영 논 게 최고주게. 그제 제라헌 고추장이주.(설탕을 놓지 말고 엇기름 만들어서 넣은 게 최고지. 그제 온전한 고추장이지.)

107061 @ 게난 그 물엿 또.(그러니까 그 물엿 또.)

107061 #2 게메, 게난.(글쎄, 그러니까.)

107061 @ 북군청에서 왕 가르쳐 주는 거 보난 물엿도 거 안 종텐마씨게.(북군청에서 와서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물엿도 거 안 종대요.)

107061 #2 안 좋아.(안 좋아.)

107061 @ 그걸 그냥 멧 병 그냥 막 부어 놔. 거기에 설탕을 또 어마어마하게 놓는 거라예.(그걸 그냥 멧 병 그냥 마구 부어 넣어. 거기에 설탕을 또 어마어마하게 놓는 거지요.)

107061 #1 나도이.(나도.)

107061 @ 고춧가루 놓고.(고춧가루 넣고.)

107061 #1 아이덜 제사 때 보난 청주도 혼 돼, 참 청주, 정종 돼 놓고 행 헛 주게. 정종 낱 허민 종텐.(아이들 제사 때 보니까 청주도 한 되, 참 청주, 정종 한 되 놓고 해서 했지. 정종 넣어서 하면 종다고.)

107061 #2 정종 놓민 곰팡이 안 핀텐.(정종 넣으면 곰팡이 안 핀다고.)

107061 #1 안 핀텐 허는디 폼터라. 싱겁게 해진 생이라.(안 핀다고 하는데 폼터라. 싱겁게 한 모양이야.)

107061 @ 싱겁게 현 생인게.(싱겁게 하는 모양이네.)

107061 #1 정종 돼 놓고 행 해신디.(정종 한 돼 놓고 해서 했는데.)

107061 @ 설탕이영 놓는 이유가 그런 겹디다예. 소금이영 짜게 허는 이유가 그거 싱거우면 안 댜덴.(설탕이랑 놓는 이유가 그런 겹디다. 소금이랑 짜게 하는 이유가 그거 싱거우면 안 된다고.)

107061 #1 경 노난에 곰팡이 안 퍼실 거렌 생각헐 어느 날 보난.(그렇게 넣으니까 곰팡이 안 뿔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보니까.)

107061 #2 게메, 정종 노민 곰팡이가 안 퍼주.(글쎄, 정종 넣으면 곰팡이가 안 퍼지.)

107061 #1 곰팡이가 해영해 불언.(곰팡이가 하애 버렸어.)

107061 @ 겐 장 담글 때 금기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그래서 장 담글 때 금기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7061 #1 금기사항은이 장 담그민이 어디든지 보난 그 고치도 똑 세 개. 고치 세 개라이. 꼭지차 세 개 놓고 술 세 방울. 그건 딱 놓더라. 간장에이. 거 예방이렌.(금기사항은 장 담그면 어디든지 보니까 그 고추도 꼭 세 개. 고추 세 개야. 꼭지째 세 개 놓고 술 세 방울. 그건 딱 놓더라. 간장에. 거 예방이라고.)

107061 #2 거 예방이주게.(거 예방이지.)

107061 @ 저 보선 꺼꾸로 부치고 그건 육지 식이지예?(저 버전 거꾸로 붙이고 그건 육지 식이지요?)

107061 #2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7061 #1 그자 고추 세 개허고 술.(그저 고추 세 개하고 술.)

107061 @ 이런 금줄 같은 것도 달지 않고 그 향아리에?(이런 금줄 같은 것도 달지 않고 그 향아리에?)

107061 #1 없어.(없어.)

107061 @ 육지는 보선도 영 부치고 금줄도.(육지는 버전도 이렇게 붙이고 금줄도.)

107061 #1 보선은 아녀고 그 금줄은 향아리에 둘르더라이.(버전은 아니고 그 금줄은 향아리에 두르더라.)

107061 #2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107061 @ 제주도예, 제주도예? 삼촌이 어렸을 때?(제주도에, 제주도예? 삼촌이 어렸을 때?)

107061 #2 우리 어린 땐 그거 헐 거 못 봤어.(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하는 거 못 봤어.)

107061 #1 우리 어린 땐이 고추도 아이 봐난. 지금사 놓지.(우리 어렸을 때는 고추도 안 넣었었어. 지금에야 넣지.)

107061 #2 고추도 숯도 하나 아이 봐, 우리 어머니넌.(고추도 숯도 하나 안 넣고, 우리 어머니네는.)

107061 #1 지금사 놓는 거야, 거.(지금에야 넣는 거야, 거.)

107061 @ 계란도 띄워 보고 그런 것도 엇고예?(계란도 띄워 보고 그런 것도 없
고요?)

107061 #2 아니.(아니.)

107061 #1 계란 허는 건, 건 거 간장 짜고 싱거운 거 알젠. 것도 우리 대에. 우리
대나 허주, 우리 어머니 대엔 그런 거 엇어.(계란 하는 건, 건 거 간장 짜고 싱거운
거 알려고. 것도 우리 대에. 우리 대나 하지, 우리 어머니 대에는 그런 거 없어.)

107061 #2 그런 거 없어.(그런 거 없어.)

107061 #1 그건 영 짐작으로만 했어. 나 짐작으로만.(그건 이렇게 짐작으로만 했
어. 내 짐작으로만.)

107061 @ 그 대신 보관은 잘했지예.(그 대신 보관은 잘했지요.)

107061 #1 우리 어머니 세계는이 대부분 짜게 해, 짜게. 짜게 허니까 곱팡도 안
피곡 흠뻑 먹으면 된장도 짜고 허니까. 짜난 더 곱팡 아니 본 거 닳아.(우리 어머니
세계는 대부분 짜게 해, 짜게. 짜게 하니까 곱팡이도 안 피고 조금 먹으면 된장도
짜고 하니까. 짜니까 더 곱팡이 안 본 거 같아.)

107061 #2 그런 거 같애.(그런 거 같아.)

107061 @ 이런 형겅도 씹왕 잘 보관은 했지예?(이런 형겅도 씹워서 잘 보관은
했지요?)

107061 #2 형겅은 씹지.(형겅은 씹우지.)

107061 #1 형겅은 웬장 헤민, 웬장.(형겅은 된장 하면, 된장.)

107061 #2 웬장 허민 형겅은 씹와야 돼여.(된장 하면 형겅은 씹워야 돼.)

107061 #1 간장은 아니 허고, 웬장만 씹우더라.(간장은 안 하고, 된장만 씹우더
라.)

107061 @ 아.(아.)

107061 #2 웬장만.(된장만.)

107061 #1 간장은 그냥 더끄는 것만 숯뚜껍이로 딱 더꿇다근에 뱃 나민 열곡 허
는디 웬장만 씹와. 웬장엔 무시거 푼리나 앓이카 부텐.(간장은 그냥 덮는 것만 숯뚜
껍으로 딱 덮었다가 뱃 나면 열고 하는데 된장만 씹워. 된장에 뭘 파리나 앓을까
봐.)

107061 @ 옛날에 어렸을 때 식구들 많으난 어느 만큼헌 향아리에 그거를 헛수
과?(옛날에 어렸을 때 식구들 많으니까 어느 만한 향아리에 그거를 했습니까?)

107061 #2 어게. 물 열 허벅⁴²², 그 허벅으로 열 허벅 나 담앗젠 허난.(어. 물 열
‘허벅’, 그 ‘허벅’으로 열 ‘허벅’ 나 담았다고 하니까.)

107061 @ 어머니랑 삼촌이랑 같이?(어머니랑 삼촌이랑 같이?)

107061 #2 아니, 나 시집온 후제.(아니, 나 시집온 후에.)

107061 @ 아이고.(아이고.)

107061 #1 열 허벅이나?(열 ‘허벅’이나?)

422)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107061 @ 식구 많아부난.(식구 많으니까.)

107061 #2 식구 많아부난.(식구 많으니까.)

107061 @ 그믐 콩을 멧 말을?(그믐 콩을 몇 말을?)

107061 #1 게믐 나보단 시 허벅을 더 해?(그믐 나보다는 세 ‘허벅’을 더 해?)

107061 @ 콩을 멧 말을 삶은 거?(콩을 몇 말을 삶은 거?)

107061 #2 다섯 말 삶은 거.(다섯 말 삶은 거.)

107061 @ 다섯 말 삶아.(다섯 말 삶아.)

107061 #1 다섯 말 흐민 열 허벅에, 경 하영 낫나? 흐 허벅에 들썩?(다섯 말 하면 열 ‘허벅’에, 그렇게 많이 낫나? 한 ‘허벅’에 들썩?)

107061 #2 흐 허벅에 두 뒹 담았네, 옛날에는. 넌 멧 뒹 낳 헛나?(한 ‘허벅’에 두 되 담았어, 옛날에는. 넌 몇 되 넣어서 했나?)

107061 #1 난 두 뒹 아니 낳. 두 뒹 놓지 말렌 해근에이 닷 말에 일곱 허벅만 낳, 삶안.(난 두 되 안 낳어. 두 되 넣지 말라고 해서 닷 말에 일곱 ‘허벅’만 낳어, 삶아서.)

107061 @ 허허허.(허허허.)

107061 #1 일곱 허벅만 물 낳.(일곱 ‘허벅’만 물 넣어서.)

107061 #2 경허니까 장이 맛 좋았지게.(그러니까 장이 맛 좋았지.)

107061 #1 일곱 허벅 놔.(일곱 ‘허벅’ 넣어.)

107061 #2 난 말.(난 한 말.)

107061 #1 게믐 그거 드는 향이 엇영 담다근에 서부두에 강, ○○ 소개로이, 큰 향 사다근에.(그믐 그거 드는 향아리가 없어서 담다가 서부두에 가서, ○○ 소개로, 큰 향아리 사다가.)

107061 @ 게믐 삼촌 그거 삶앙 혼자만 어떻게 다, 발로 다 밟안?(그믐 삼촌 그거 삶아서 혼자만 어떻게 다, 발로 다 밟았어?)

107061 #1 아이고야, 허벅에 두 개씩을 놔?(아이고야, 한 ‘허벅’에 두 개씩을 놔?)

107061 @ 혼자만? 누가 도와 주지도 안해?(혼자만? 누가 도와 주지도 않아?)

107061 #2 아이덜ㄱ라 밟으렌 헨.(아이들보고 밟으라고 했어.)

107061 #1 난 다섯 말에 느랑 일곱 허벅 담았주게.(난 다섯 말에 늘 일곱 ‘허벅’ 담았지.)

107061 @ 아이덜 멧 명이 걸 밟안마씨?(아이들 몇 명이 걸 밟았어요?)

107061 #2 아이덜은게 멧 명 헛자 그 어린 것덜은 못 허고 흐꿈 옥은 것덜 영 노는, 집안에나 시민.(아이들은 몇 명 해도 그 어린 것들은 못 하고 조금 큰 것들 이렇게 노는, 집안에나 있으면.)

107061 #1 게도 어멍이 대중 허주기.(그래도 어머니가 대부분 하지.)

107061 #2 게 나가 대중 일허주게.(그래 내가 대부분 일하지.(그래 내가 대부분 일하지.)

107061 #1 어멍 돕넨 헛자 아이덜 흐꿈 허당 가 불민.(어머니 돕는다고 해도 아이들 조금 하다가 가 버리면.)

107061 #2 어어, 흐꿈 영 불르당.(어어, 조금 이렇게 밟다가.)

107061 @ 무시거예? 고무 다라라도 낱?(뭐? 고무 대야라도 넣어서?)

107061 #2 어.(어.)

107061 @ 거기서 뭐 형겹 찌우지 말앙 뭐 발 씻엉?(거기서 뭐 형겹 찌우지 않고 뭐 발 씻어서?)

107061 #2 그냥 저.(그냥 저.)

107061 #1 보선 신영.(버선 신고.)

107061 @ 보선 신영.(버선 신고.)

107061 #2 밀가루 푸대에, 밀가루 푸대에, 솥아근에게 그레 영.(밀가루 부대, 밀가루 부대에, 삶아서 그리 이렇게.)

107061 #1 담앙.(담아서.)

107061 #2 담아 놔근에게.(담아 놓고.)

107061 @ 아, 다라 엇이니까?(어, 대야 없으니까?)

107061 #1 다라에 낱.(대야에 넣어서.)

107061 #2 다라 속에 낱, 경혜근에 들어상 불르주게.(대야 속에 넣어서, 그래서 들어서서 밟지.)

107061 #1 콩 밀락밀락 나가지 말렌 그 담앗주게, 나가지 말렌.(콩 물렁물렁 나가지 말라고 그 담았지, 나가지 말라고.)

107061 @ 게민 경헝 뭇 놔마씨? 다 끓아 난 다음에?(그럼 그래서 뭇 넣어요? 다 끓고 난 다음에?)

107061 #2 끓아 난 다음에 메주 만들엇잖아.(끓고 난 다음에 메주 만들엇잖아.)

107061 @ 아, 네모나게.(아, 네모나게.)

107061 #2 네모나게. 다 그거 밟아지면은 꺼내면서 네모나게 영 손으로 모양 내멍 네모나게 만들어근에 이젠.(네모나게. 다 그거 밟으면 꺼내면서 네모나게 이렇게 손으로 모양 내면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이젠.)

107061 @ 새끼줄로.(새끼줄로.)

107061 #2 새끼줄이 아니고 뱃집.(새끼줄이 아니고 뱃짚.)

107061 @ 뱃집으로.(뱃짚으로.)

107061 #1 뱃집이 더 좋은 거.(뱃짚이 더 좋은 거.)

107061 #2 뱃집 그거 긴 거 해다근에 세 가달로 무꺼근에 영 해근에게, 행 돌아 메여.(뱃짚 그거 긴 거 해다가 세 가닥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해서 달아매.)

107061 @ 공장에.(걸이에.)

107061 #2 겐 이제 발효시경.(그래서 이제 발효시켜서.)

107061 @ 거 뭇 개 뵙니까?(거 뭇 개 뵙니까?)

107061 #1 야, 너 세 개로 헛나? 나는 네모니까이 영헝 네모로 허영 돌아메신디.

네 개 갈랑.(야, 너 세 개로 했냐? 나는 네모니까 이렇게 네모로 해서 달아냈는데.
네 개 갈라서.)

107061 #2 네 개에 갈라.(네 개에 갈라.)

107061 #1 네 개에 갈랑.(네 개에 갈라서.)

107061 #2 게메, 네 개도 갈르곡 세 개도 갈르곡 헤영.(글쎄, 네 개도 가르고 세
개도 가르고 해서.)

107061 @ 다섯 말이든 어마장장해시켜예.(다섯 말이면 엄청났겠네요.)

107061 #1 경행 아래 낱 흠뻑 물, 시들시들 물라야 걸 해. 아래 낱당.(그래서 아
래 낱서 조금 말, 시들시들 말라야 걸 해. 아래 낱다가.)

107061 #2 아래 경 만들어근에 낱당 흠뻑 시들시들 뭐 허민 다 돌아메.(아래 그
렇게 만들어서 낱다가 조금 시들시들 뭐 하면 다 돌아메.)

107061 #1 짝 영 메주에 들어가지 않게.(짚 이렇게 메주에 들어가지 않게.)

107061 #2 경행 이제 발효되면은 혼 사십 일 되면은 내류와근에 막 솔로 그 틈
에 그 발효된 거 곰팡이 그 뭐 있잖아. 그건 거 솔로 막 굽어내명 막, 찻솔도 들이
대영 시쳐 간다 경 막 시쳐 이제 바구니에 건정, 대바구니에 건정 이제 영 뭐 우에,
항아리 우에나 뭐 낱 놔두민 물 빠지게. 물 싹 빠지면은 이젠 날 봐야 장 담그고,
메주 찌는 날은 날을 봐야 돼. 아무 날에나 허는 게 아니라 또. 켜 이젠 날 봐근
에 전날, 전전날이나 전날 이젠 물 길어다근에 이젠 그 혼 허벅에 소금 큰 뿔박으
로 세 개.(그래서 이제 발효되면 한 사십 일 되면 내려서 마구 솔로 그 틈에 그 발
효된 거 곰팡이 그 뭐 있잖아. 그건 거 솔로 마구 굽어내면서 마구, 찻솔로 들이대
서 씻어 간다 그렇게 마구 씻어서 이제 바구니에 건져서, 대바구니에 건져서 이제
이렇게 뭐 위에, 항아리 위에나 뭐 놓고 놔두면 물 빠지게. 물 싹 빠지면 이젠 날
봐야 장 담그고, 메주 찌는 날은 날을 봐야 돼. 아무 날에는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래서 이젠 날 봐서 전날, 전전날이나 전날 이젠 물 길어다가 이젠 그 한 ‘허벅’에
소금 큰 되로 세 개.)

107061 @ 아.(아.)

107061 #2 허벅에 세 개. 세 돼 놔근에게 이 바구니에, 딱시 대바구니에 소금
을, 허벅 허면은 세 돼 분량 놔근에 자꾸 젖어 가명, 막대로 젖어 가명 물 길어
당 놓아 가명 소금물을 빼영 만들야. 만들양 이제 항아리에 받쳐, 만들영 낱다근에
경해야 그 물이 싹 가라안지민, 곳인 게 싹 가라안지주게. 게민 날 봐근에 그 장 담
그는 항아리 씻어근에 이젠 어퍼근에 물기 엇이 해야 돼기 때문에 어평 낱다근에
바싹 물르면 이젠 내여 놔근에게 장독에. 메주 몬처 낱 소금물 거려 놀 때도 잇곡
소금물부떠 낱 메주 나중에 들이칠 때도 잇곡. 난 경행 담곡.(한 ‘허벅’에 세 개. 세
되 넣어서 이 바구니에, 다시 대바구니에 소금을, 한 ‘허벅’ 하면 세 되 분량 넣어서
이 바구니에, 또 대바구니에 소금을, 한 허벅 하면은 세 되 분량 넣어서 자꾸 저어
가면서, 막대로 저어 가면서 물 길어다가 넣어 가면서 소금물을 빼서 만들어. 만들
어서 이제 항아리에 받쳐서, 만들어서 낱다가 그래야 그 물이 싹 가라앉으면, 곳은

게 싹 가라앉지. 그럼 날 봐서 그 장 담그는 향아리 씻어서 이젠 얹어서 물기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얹어 놔다가 바싹 마르면 이젠 내어 놓고 장독에. 메주 먼저 넣고 소금물 떠 넣을 때도 있고 소금물부터 넣어서 메주 나중에 들어뜨릴 때도 있고. 난 그렇게 담고.)

107061 @ 그 물은 어디 다 놔둬마씨? 소금 그 가라앉은 물은?(그 물은 어디 다 놔둬요? 소금 그 가라앉은 물은?)

107061 #2 가라앉으면 그거를 그 메주 논 향아리레 그걸 거러 놔야주게.(가라앉으면 그거를 그 메주 넣은 향아리에 그걸 떠 놔야지.)

107061 #1 장 담은 향더레.(장 담은 향아리에.)

107061 #2 장 담그는 향더레.(장 담그는 향아리에.)

107061 @ 그걸, 그걸 소금 서끌 땀 어디에서 서꺼? 또 다른 향아리에?(그걸, 그걸 소금 섞을 땀 어디에서 섞어? 또 다른 향아리에?)

107061 #1 다라, 다라.(대야, 대야.)

107061 #2 다라에. 다라에 허멍 이제.(대야에. 대야에 하면서 이제.)

107061 #1 다라가 야프니까 일허기 좋지.(대야가 얹으니까 일하기 좋지.)

107061 #2 소금을 아메도 다른 향아리에 거러 놔 그디서 또 바구니에 놔 젓어 가멍, 물 저당 또 비왕 젓어 가멍 소금물을 만들주게.(소금을 아무래도 다른 향아리에 떠 놓고 거기서 또 바구니에 넣어서 저어 가면서, 물 저다가 또 부어서 저어 가면서 소금물을 만들지.)

107061 @ 게른 그날 하루 종일 걸리켜예.(그럼 그날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107061 #1 하룻에 다 못 해.(하루에 다 못 해.)

107061 #2 장 담그는 게 경 쉬운 일은 아니주.(장 담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107061 @ 향아리가 몇 개?(향아리가 몇 개?)

107061 #1 그이 메주 담그는 날만 날 보민이 그날만 번 놓기 시작허민 내내 헤여도 돼. 메주 담그는 날만 날 봐. 메주 영 들이청.(그 메주 담그는 날만 날 보면 그날만 한번 놓기 시작하면 내내 해도 돼. 메주 담그는 날만 날 봐. 메주 이렇게 들어뜨려서.)

107061 @ 게민 이거 한 말에 메주 몇 개가 될 건고예?(그럼 이거 한 말에 메주 몇 개가 될 건가요?)

107061 #2 한 말에, 한 말 허민.(한 말에, 한 말 하면.)

107061 #1 다섯 개.(다섯 개.)

107061 #2 으섯 개?(여섯 개?)

107061 #1 다섯 개, 크게 행 다섯 개.(다섯 개, 크게 해서 다섯 개.)

107061 #2 크게 허민 다섯 개, 조금 작게 허민 여섯 개.(크게 하면 다섯 개, 조금 작게 하면 여섯 개.)

107061 @ 다섯 말이민 삼십 개 정도난예, 막 뭐 허진 안허켜예. 한 향아리에 다

담을 수도 이시켜예?(다섯 말이면 삼십 개 정도니까요, 막 뭐 하진 않겠네요. 한 향아리에 다 담을 수도 있겠네요?)

107061 #2 으응, 한 향아리에 담을 수도 있어. 겐 우린 장물을 많이 행 간장, 장을 많이 만들어 먹젠 허난 향아리 두 개에 담는 거주게.(으응, 한 향아리에 담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린 간장을 많이 해서 간장, 장을 많이 만들어 먹으려고 하니까 향아리 두 개에 담는 거지.)

107061 @ 대단허다예.(대단하네요.)

107061 #1 난 그 장 더끄는 거 막 뭐 허난 두 개 허젠 허난 막 곳으난 그 ○○ㄴ라 곁으난 경현 거 우리 동네 이시난 읍센 행 강 다섯 허벅, 참 닷 말에 일곱 허벅 그자 딱.(난 그 장 더는 거 마구 뭐 하니까 두 개 하려고 하니까 막 곳으니까 그 ○○에게 말하니까 그런 거 우리 동네 있으니까 오세요 해서 가서 다섯 ‘허벅’, 참 닷 말에 일곱 ‘허벅’ 그저 딱.)

107061 #2 경 좋주게. 하나 허난 보관허기도 좋곡게. 겐 그거 사단 삼 년인가.(그렇게 좋지. 하나 하니까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거 사다가 삼 년인가.)

107061 #1 경 곁으난 우리 ○○이, 일찍 곁아시민 헛주게. 예고, 나가 아저 갈 거, 아저 갈걸. 거 치우렌 허난 집은 멜라 불 거난게.(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 일찍 말했으면 했지. 어이구, 내가 가지고 갈 거, 가지고 갈걸. 거 치우라고 하니까 집은 부서 버릴 거니까.)

107063 @ 장 담글 때 금기사항, 뭐 허지 말아라 무신 거 허지 말아라 막 그런 거, 날 보는 거 그런 거 누게안티 물어보는 거?(장 담글 때 금기사항, 뭐 하지 말라 무슨 거 하지 말라 마구 그런 거, 날 보는 거 그런 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107063 #1 누게안티 물어보지 안허고이 모날은 잘 해, 모날.(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말날은 잘 해, 말날.)

107063 @ 모날예.(말날요.)

107063 #2 모날도 잘 허고 토끼날도 허곡 개날도 허곡.(말날도 잘 하고 토끼날도 하고 개날도 하고.)

107063 #1 난 모날 주로 헛어.(난 말날 주로 헛어.)

107063 #2 자기 식구 중에 그 본명일만 안 돼민.(자기 식구 중에 그 본명일만 안 되면.)

107063 #1 우린 모헤치가 엇으난.(우린 말띠가 없으니까.)

107063 #2 우리도 몰헤친 엇어. 몰헤치도 엇고 개헤치도 엇으난 개날 주로 돛갓주.(우리도 말띠는 없어. 말띠도 없고 개띠도 없으니까 개날 주로 담갔지.)

107063 @ 나가 말띠거든예. 몰헤치가 이시민 어떻 돼는 거?(내가 말띠거든요. 말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107063 #1 자기 본명일허고 남편은 똑 봐. 식구 간에 아이덜은 못 봐도이 본인허곡 남편은 꼭 보지. 아이덜 스몏 들락날락허난 식구 한 디사 다 볼 수 엇주만은.(자기 본명일하고 남편은 꼭 봐. 식구 간에 아이들은 못 봐도 본인하고 남편은 꼭 보

지. 아이들 사뭇 들락날락하니까 식구 많은 데야 다 볼 수 없지만.)

107063 #2 우린 식구 하도 개날, 개해친 었어.(우린 식구 많아도 개날, 개편 없어.)

107063 #1 하여튼 대주하고 본인은 똑 봐야 해. 장 담그는 날은 똑 봐야 돼. 어떤 땐 삶을, 메주 삶을 땐 아무 때나 삶아도 괜찮은 거더라. 게난 이 집안이 뭐 허젠 허민 그 간장이 어휴 그냥 막.(아무튼 대주하고 본인은 꼭 봐야 해. 장 담그는 날은 꼭 봐야 돼. 어떤 때는 삶을, 메주 삶을 땐 아무 때나 삶아도 괜찮은 거더라. 그러니까 이 집안이 뭐 하려고 하면 그 간장이 어휴 그냥 막.)

107063 #2 변하지.(변하지.)

107063 #1 그때 우리 집잇 어른 돌아간 해에이 원 간장이 그냥 수시로 그냥 시퍼렇게, 시퍼렁. 쟁 그 간장 그냥 비와불엇주게. 아이구, 어렵게 그냥, 경허더라게. 이상허다. 퍼렁허게시리 그냥 우이 딱 끼언. 그 해 딱 번 글후제 경 해 보지 안허고.(그때 우리 집의 어른 돌아간 해에 원 간장이 그냥 수시로 그냥 시퍼레, 시퍼렇게. 그래서 그 간장 그냥 부어버렸지. 아이고, 어렵게 그냥, 그렇더라. 이상하다. 퍼렇게끔 그냥 위에 딱 끼었어. 그 해 딱 한번 그 후에 그렇게 해 보지 않고.)

107063 #2 이상케 경허는 일 잇어.(이상하게 그러는 일 잇어.)

107063 @ 이상헌 날이 있다는 거지예?(이상한 날이 있다는 거지요?)

107063 #1 겨난 대주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 불언.(그러니까 대주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 버렸어.)

107063 @ 대주가 뭐마씨?(대주가 뭐요?)

107063 #1 대주가 남편이야. 대주엔 허주.(대주가 남편이야. 대주라고 하지.)

107063 @ 장 담그는 거허고 그런 거허고도 관계가 있다는 말?(장 담그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말?)

107063 #1 장 담강 놔두난 간장 거리는디 큰 항에 간장이 신디 경 그 간장에 퍼렁헌 게 올라와게, 푸린 게. 흰 게 아니고, 싱거왕 흰 게 아니고 푸린 거.(장 담가서 놔두니까 간장 뜨는데 큰 항아리에 간장이 있는데 그렇게 그 간장에 파란 게 올라와, 푸른 게. 흰 게 아니고, 싱거워서 흰 게 아니고 푸른 거.)

107063 @ 아, 그런 일이 잇언게만은 돌아가셨다 이 말이구나?(아, 그런 일이 있더니만 돌아가셨다는 이 말이구나?)

107063 #2 으, 집에 집안에 무신 일이, 좋지 안 허젠 허민 그 장부터가 틀린텐 허메. 옛날 어른들.(으, 집에 집안에 무슨 일이, 좋지 않으려고 하면 그 장부터가 다르다고 해. 옛날 어른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역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0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모사전송:**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